

연구보고서 2019-32

사회통합 실태 진단 및 대응 방안 연구(VI)

- 사회통합 상태 진단



김문길
우선희·곽윤경·정해식·이정윤·김미곤

【책임연구자】

김문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공동연구진】

우선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문연구원

곽윤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정해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이정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김미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

연구보고서 2019-32

사회통합 실태 진단 및 대응 방안 연구(VI)

- 사회통합 실태 진단

발행일 2019년 12월

발행인 조흥식

발행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소 [30147]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1~5층)

전화 대표전화: 044)287-8000

홈페이지 <http://www.kihasa.re.kr>

등록 1994년 7월 1일(제8-142호)

인쇄처 (주)삼일기획

발간사 <<

현 정부는 출범과 함께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주요 국정전략으로 삼고 ‘모두를 위한 나라, 다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를 사회정책 분야의 국정 비전으로 제시하였다. 포용국가의 3대 비전으로 사회통합 강화, 사회적 지속가능성 확보, 사회혁신 능력 배양을 제시한 바 있다. 그리고 정부는 2019년을 ‘혁신적 포용국가’의 원년으로 선언하고 이를 위한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양적 성장보다 질적 성장을, 배제와 독식이 아니라 공존과 상생의 사회를, 미래를 향한 혁신을, 그리고 모두를 위한 대한민국을 지향하고 있다. 이 같은 포용성장을 위한 전략은 포용복지와 연계되는 것으로서 포용성장을 통해 포용복지가 실현될 수 있고, 또한 포용복지를 통해 포용성장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다. 포용복지는 경제성장의 과실인 소득보장과 사회서비스를 모두가 골고루 누리도록 복지제도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사회위험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함으로써 개 개인이 행복한 일상생활을 살도록 하는 복지로 정의할 수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포용국가의 3대 비전 중 첫 번째로 사회통합이 지목되었고, OECD에서 꼽은 사회통합의 3대 요소에 사회적 포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처럼 포용국가, 혁신적 포용, 그리고 포용복지는 모두 사회통합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따라서 포용국가를 이루기 위한 전략으로서 사회통합을 제고할 필요가 있고, 또 한편으로 포용적 복지국가를 이루기 위한 노력의 결실로 사회통합을 달성할 수 있다.

포용적 복지국가를 위해 정부는 복지 확대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기초연금이 확대되고, 아동수당이 도입되었으며,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단계적으로 폐지되는 등 전통적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이 확충되고 있고, 복지사각지대를 축소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사회복지의 측면에서 우리 사회의 포용성이 강화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불거진 공정성과 관련된 이슈들은 우리 사회의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있다는 우려를 감추기 어렵다. 노력한 만큼 대가를 얻는 사회라는 지극히 상식적인 명제가 최근 우리 사회만큼 화제가 된 적도 없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 같은 상황은 우리나라가 사회통합으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도전으로 인식될 수 있다.

따라서 현시점에서의 사회통합과 관련한 우리 국민들의 인식들을 다각적인 측면에

서 분석하고, 그 정책적 함의를 찾는 것은 연구기관의 중요한 책무라 할 수 있다. 특히 이 연구는 지난 5년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수행해 왔던 사회통합 실태진단과 대응방안 연구 시리즈를 일괄하는 의미를 지닌다. 사회통합과 사회통합을 구성하는 요소들에 대한 우리 국민의 인식 실태를 파악하고, 사회통합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들을 탐색하고, 이렇게 파악된 결과들이 내포하는 정책적 함의를 모색하는 데 이 연구가 큰 기여를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 연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김문길 연구위원의 책임하에 김미곤 선임연구위원, 정해식 연구위원, 곽윤경 부연구위원, 우선희 전문연구위원, 이정윤 연구위원의 참여로 수행되었다. 그리고 이 연구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해 주신 원내외의 전문가들께 감사의 뜻을 전한다. 이들의 노력으로 빛어진 이 연구 결과물이 우리나라 사회통합과 포용성을 제고하는 데 일말의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19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조 흥 식

목 차

요 약	3
제1장 서 론	13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5
제2절 연구 내용과 방법	18
제3절 사회통합 개념의 이론적 검토	30
제2장 사회통합 정책영향평가 주요 내용 및 사회통합 인식 변화	35
제1절 사회통합 정책영향평가 주요 내용	37
제2절 사회통합 인식의 변화	51
제3장 사회적 포용과 사회통합	75
제1절 서론	77
제2절 선행연구 검토	78
제3절 연구 방법	87
제4절 사회적 포용 상태의 진단	90
제5절 사회적 포용과 사회통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04
제4장 사회적 자본과 사회통합, 그리고 다문화수용성	111
제1절 서론	113
제2절 이론적 배경	114
제3절 연구 방법	118
제4절 사회적 자본의 상태 진단	123
제5절 사회적 자본이 사회통합 국민 인식에 미치는 영향	129
제6절 사회적 자본이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133

제5장 사회이동의 실태와 함의	137
제1절 서론	139
제2절 선행연구 검토	140
제3절 사회이동성의 상태 진단	151
제4절 사회이동성 인식과 사회통합 인식의 관계 분석	165
제6장 사회통합 인식의 종합 진단	167
제1절 서론	169
제2절 사회통합 인식 결정요인의 다차원성 진단	171
제3절 불평등 인식과 사회통합 인식	186
제7장 결 론	197
제1절 연구 결과	199
제2절 정책적 함의	207
참고문헌	213
부록	
【부록 1】 사회통합 상태 진단을 위한 실태조사 표본 설계	221
【부록 2】 사회통합 상태 진단을 위한 실태조사 설문지	239
【부록 3】 사회통합 상태 진단을 위한 실태조사 기초분석	259

표 목차

〈표 1-1〉 '사회통합 상태 진단을 위한 실태조사' 개요	22
〈표 1-2〉 응답자 분포	23
〈표 1-3〉 가구 및 가구원 일반, 가구경제 상태 등의 주요 문항	25
〈표 1-4〉 사회통합 인식 관련 주요 문항	25
〈표 1-5〉 사회이동성 관련 주요 문항	26
〈표 1-6〉 새롭게 구성된 문항	27
〈표 1-7〉 2019년 사회통합포럼 개요	28
〈표 1-8〉 연구의 내용과 연구 방법	29
〈표 1-9〉 강신욱 외(2012)의 사회통합 지표	32
〈표 1-10〉 노대명 외(2010)의 사회통합의 영역 구성	33
〈표 1-11〉 노대명 외(2010)의 사회통합 조건지표 영역 및 영역별 지표	33
〈표 1-12〉 정해식 외(2016)의 국제 비교를 위한 사회통합 지표 체계	34
〈표 2-1〉 코호트별 사회이동 현황 분석 주요 변수	39
〈표 2-2〉 교육 성취와 사회이동의 관계 분석 주요 변수	40
〈표 2-3〉 사회이동과 사회통합 인식 관계 분석 주요 변수	41
〈표 2-4〉 사회갈등과 사회통합 관계 분석 주요 변수	43
〈표 2-5〉 갈등과 정신건강의 사회경제적 맥락 분석 주요 변수	45
〈표 2-6〉 사회통합 실태 진단 및 대응 방안 연구의 연구 주제와 영역(2014~2018년)	50
〈표 2-7〉 사회통합 정도에 대한 인식 변화(2016~2019년)	53
〈표 2-8〉 주관적 행복감 변화(2016~2019년)	54
〈표 2-9〉 삶의 만족도 변화(2016~2019년)	55
〈표 2-10〉 우울감의 변화(2016~2019년)	56
〈표 2-11〉 사회상: 차별과 소외가 심한 사회 또는 배려와 포용의 사회(2016~2019년)	58
〈표 2-12〉 사회상: 서로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사회 또는 서로 믿고 살아가는 사회(2016~2019년)	59
〈표 2-13〉 사회상: 활력 없고 침체된 사회 또는 활력 있고 희망찬 사회(2016~2019년)	60
〈표 2-14〉 사회상: 경제적, 미래 불안이 가득한 사회 또는 경제적, 미래 희망이 있는 사회(2016~2019년)	61
〈표 2-15〉 사회상: 갈등이 심한 사회 또는 서로의 의견을 경청하고, 이해하려 노력하는 사회(2016~2019년)	63
〈표 2-16〉 한국의 소득 격차는 너무 크다(2016~2019년)	65
〈표 2-17〉 소득 격차를 줄이는 것은 정부의 책임이다(2016~2019년)	66

〈표 2-18〉 정부는 실업자에게 적절한 수준의 삶을 제공해야 한다(2016~2019년)	67
〈표 2-19〉 정부는 빈곤한 사람들에게 주는 혜택을 줄여야 한다(2016~2019년)	68
〈표 2-20〉 사회통합이 이루어지기 위한 조건(2016년, 2019년)	70
〈표 2-21〉 사회통합이 이루어지기 위한 조건의 성별 비교(2016년, 2019년)	72
〈표 2-22〉 사회통합이 이루어지기 위한 조건의 연령대별 비교(2016년, 2019년)	73
〈표 3-1〉 사회적 배제의 정의	81
〈표 3-2〉 사회적 배제의 측정 지표	84
〈표 3-3〉 이 연구의 사회적 포용의 차원 및 지표 구성	88
〈표 3-4〉 경제 차원의 포용 상태	90
〈표 3-5〉 노동 차원의 포용 상태	91
〈표 3-6〉 건강 차원의 포용 상태	92
〈표 3-7〉 주거 차원의 포용 상태	94
〈표 3-8〉 서비스 차원의 포용 상태	95
〈표 3-9〉 기회의 평등 인식	97
〈표 3-10〉 소득 및 부(재산)의 분배 인식	98
〈표 3-11〉 특정 대상에 대한 평등 인식	99
〈표 3-12〉 법 집행 평등 인식	100
〈표 3-13〉 개인의 포용 차원 중첩도	102
〈표 3-14〉 사회적 포용의 차원 간 상관관계	104
〈표 3-15〉 사회적 포용성 및 사회통합 인식	105
〈표 3-16〉 포용 상태가 사회의 포용성 평가에 미치는 영향	107
〈표 3-17〉 포용 상태가 사회통합 인식에 미치는 영향	109
〈표 4-1〉 다문화수용성 지수의 구성 개념	116
〈표 4-2〉 사회적 자본 - 신뢰에 대한 문항	119
〈표 4-3〉 사회적 자본 - 참여에 대한 문항	120
〈표 4-4〉 사회적 자본 - 비공식적 네트워크에 대한 문항	120
〈표 4-5〉 사회통합 국민 인식 - 우리 사회의 상태 진단에 대한 문항	121
〈표 4-6〉 다문화수용성에 대한 문항	122
〈표 4-7〉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신뢰의 차이	124
〈표 4-8〉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참여의 차이	125
〈표 4-9〉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비공식적 네트워크의 차이	127

〈표 4-10〉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다문화수용성의 차이	128
〈표 4-11〉 사회적 자본과 사회통합 변수들 간 상관관계 분석	129
〈표 4-12〉 사회적 자본과 우리 사회의 상태 변수들 간 상관관계 분석	130
〈표 4-13〉 사회적 자본이 사회통합 수준에 미치는 영향	131
〈표 4-14〉 사회적 자본이 우리 사회의 상태 진단에 미치는 영향	132
〈표 4-15〉 사회적 자본과 다문화수용성 변수들 간 상관관계 분석	133
〈표 4-16〉 사회적 자본이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135
〈표 5-1〉 코호트별 취업 특성	153
〈표 5-2〉 15세 무렵 부의 학력과 본인의 직업	154
〈표 5-3〉 15세 무렵 부의 직업과 본인의 직업	155
〈표 5-4〉 15세 무렵 부의 직업 위세와 본인의 직업	156
〈표 5-5〉 코호트별 학력 특성	157
〈표 5-6〉 본인의 학력과 자녀의 직업	157
〈표 5-7〉 세대 내 사회이동성에 대한 인식	159
〈표 5-8〉 세대 간 사회이동성에 대한 인식	159
〈표 5-9〉 사회의 대우에 대한 공정성 인식	160
〈표 5-10〉 연령집단별 기회의 평등에 대한 인식	161
〈표 5-11〉 계층별 기회의 평등에 대한 인식	162
〈표 5-12〉 연령별 현재 소득계층과 15세 무렵 본인의 소득계층	165
〈표 5-13〉 사회이동 인식이 사회통합 인식에 미치는 영향	166
〈표 6-1〉 사회통합 구성요소별 주요 변수	172
〈표 6-2〉 사회통합 인식과 사회적 포용 지표(인식과 상태) 간 상관관계	173
〈표 6-3〉 사회통합 인식과 사회적 포용 지표(조건) 간 상관관계	173
〈표 6-4〉 사회통합 인식과 사회적 자본 지표(인식과 실태) 간 상관관계	174
〈표 6-5〉 사회통합 인식과 사회적 자본 지표(조건) 간 상관관계	175
〈표 6-6〉 사회통합 인식과 사회이동성 지표(인식과 실태) 간 상관관계	175
〈표 6-7〉 사회통합 인식과 사회이동성 지표(조건) 간 상관관계	176
〈표 6-8〉 사회통합 구성요소별 인식변수의 사회통합 인식 영향(2016년)	177
〈표 6-9〉 사회통합 구성요소별 인식변수의 사회통합 인식 영향(2019년)	178
〈표 6-10〉 사회통합 구성요소별 조건변수의 사회통합 인식 영향(2016년)	179
〈표 6-11〉 사회통합 구성요소별 조건변수의 사회통합 인식 영향(2019년)	180

〈표 6-12〉 사회통합 구성요소별 사회통합 인식 영향력 비교	181
〈표 6-13〉 사회통합 구성요소별 인식변수의 사회통합 인식 영향: 성별 차이(2016년)	182
〈표 6-14〉 사회통합 구성요소별 인식변수의 사회통합 인식 영향: 성별 차이(2019년)	183
〈표 6-15〉 사회통합 구성요소별 조건변수의 사회통합 인식 영향: 성별 차이(2016년)	184
〈표 6-16〉 사회통합 구성요소별 조건변수의 사회통합 인식 영향: 성별 차이(2019년)	185
〈표 6-17〉 사회통합 구성요소별 사회통합 인식 영향력 비교: 성별 차이	186
〈표 6-18〉 2019년 추가 문항(상세)	186
〈표 7-1〉 분석 결과 요약: 사회통합 국민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	203
〈표 7-2〉 분석 결과 요약: 다문화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	204

그림 목차

[그림 1-1] OECD(2011)의 사회통합 구성 요소	31
[그림 2-1] 사회통합 관련 일반 인식 변화(2016~2019년)	51
[그림 2-2] 5가지 사회상에 대한 인식 변화(2016~2019년)	57
[그림 2-3] 정부의 역할에 대한 인식 변화(2016~2019년)	64
[그림 3-1] 사회적 포용과 사회통합 분석 모형	89
[그림 3-2] 개인의 포용 차원 중첩도	102
[그림 5-1] 소득불평등과 세대 간 사회이동성	143
[그림 5-2] 소득탄력성을 이용한 세대 간 사회이동성	143
[그림 5-3] 2010년대 절대적 직업계층 이동성	144
[그림 5-4] 부모의 직업계층에 따른 비율	145
[그림 5-5] 사회계층의 상대적 지속성	146
[그림 5-6] 부모와 본인의 개인 근로소득을 사용한 대수선형 분석 결과(odds scale)	148
[그림 5-7] 본인 세대 계층이동 가능성 인식	149
[그림 5-8] 다음 세대 계층이동 가능성 인식	150
[그림 5-9] 자녀 세대의 소득에 부모 세대의 소득이 미치는 영향의 정도에 대한 인식-연령집단	163
[그림 5-10] 자녀 세대의 소득에 부모 세대의 소득이 미치는 영향의 정도에 대한 인식-주관적 소득계층	164
[그림 5-11] 주관적 소득계층별, 연령대별 15세 무렵 본인의 소득계층	164
[그림 6-1] 소득불평등 상태에 대한 인식과 세대 간 소득탄력성 인식	188
[그림 6-2] 소득불평등 상태에 대한 인식과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관한 인식	190
[그림 6-3] 소득불평등 상태에 대한 인식과 사회적 신뢰에 대한 인식	191
[그림 6-4] 소득불평등 상태에 대한 인식과 사회통합 상태에 대한 인식	192
[그림 6-5] 소득분배 상태에 대한 인식과 선호	193
[그림 6-6] 인구집단별 소득분배 상태에 대한 인식과 선호	194
[그림 7-1] 세대 간 이동성의 인식적 차원과 실제	206

부표 목차

〈부표 1-1〉 모집단 집계구 분포	221
〈부표 1-2〉 모집단 가구 분포	222
〈부표 1-3〉 모집단 인구 분포	223
〈부표 1-4〉 모집단 인구의 성별 분포	223
〈부표 1-5〉 시도별 인구의 연령별 분포	224
〈부표 1-6〉 지역별·연령별 행복감에 대한 상대표준오차	227
〈부표 1-7〉 지역별·소득 수준별 행복감에 대한 상대표준오차	228
〈부표 1-8〉 지역별·가구원 수별 행복감에 대한 상대표준오차	229
〈부표 1-9〉 지역별·연령별 삶의 만족도에 대한 상대표준오차	230
〈부표 1-10〉 지역별·소득 수준별 삶의 만족도에 대한 상대표준오차	231
〈부표 1-11〉 지역별·가구원 수별 삶의 만족도에 대한 상대표준오차	232
〈부표 1-12〉 표본 집계구 배분: 방안 1	233
〈부표 1-13〉 표본 집계구 배분: 방안 2	234
〈부표 1-14〉 표본 집계구 배분: 방안 3	235
〈부표 3-1〉 어제 행복했던 정도	259
〈부표 3-2〉 행복의 조건: 1순위	260
〈부표 3-3〉 행복의 조건: 2순위	261
〈부표 3-4〉 어제 우울했던 정도	262
〈부표 3-5〉 삶의 만족도	263
〈부표 3-6〉 최근 한 달 동안 외로움을 느낀 정도	264
〈부표 3-7〉 현재 우리 사회 평가: (1) 배려와 포용의 사회	265
〈부표 3-8〉 현재 우리 사회 평가: (2) 서로 믿고 살아가는 사회	266
〈부표 3-9〉 현재 우리 사회 평가: (3) 활력 있고 희망찬 사회	267
〈부표 3-10〉 현재 우리 사회 평가: (4) 경제적 희망,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는 사회	268
〈부표 3-11〉 현재 우리 사회 평가: (5) 서로의 의견을 경청하고 이해하려 노력하는 사회	269
〈부표 3-12〉 우리나라 사회통합의 정도	270
〈부표 3-13〉 사회통합을 위한 조건: (1)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국민을 지원하는 것	271
〈부표 3-14〉 사회통합을 위한 조건: (2)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사회를 이루는 것	272
〈부표 3-15〉 사회통합을 위한 정조건: (3) 남성과 여성의 처우 차이를 줄이는 것	273

〈부표 3-16〉 사회통합을 위한 조건: (4)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처우 차이를 줄이는 것	274
〈부표 3-17〉 사회통합을 위한 조건: (5)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소득 차이를 줄이는 것	275
〈부표 3-18〉 사회통합을 위한 조건: (6) 사회 구성원이 문화적 다양성(이민자, 성소수자, 북한이탈주민 등)을 인정하는 것	276
〈부표 3-19〉 사회통합을 위한 조건: (7) 사회 구성원이 서로 믿고 살아가는 것	277
〈부표 3-20〉 사회통합을 위한 조건: (8) 사회 구성원이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	278
〈부표 3-21〉 사회통합을 위한 조건: (9) 법·규칙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	279
〈부표 3-22〉 사회통합을 위한 조건: (10) 사회 구성원 각자가 주어진 역할에 충실한 것	280
〈부표 3-23〉 사회통합을 위한 조건: (11) 사회 고위층에 상응하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노블레스 오블리주)	281
〈부표 3-24〉 사회통합을 위한 조건: (12) 사회 구성원이 자기만을 생각하지 않고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것	282
〈부표 3-25〉 사회통합을 위한 조건: (13) 사회 구성원이 여러 모임 등에서 다양하게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	283
〈부표 3-26〉 사회통합을 위한 조건: (14) 충분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	284
〈부표 3-27〉 사회통합을 위한 조건: (15) 노력한 만큼 대가를 얻는 사회를 만드는 것	285
〈부표 3-28〉 사회통합을 위한 조건: (16) 중산층이 두꺼운 사회를 만드는 것	286
〈부표 3-29〉 사회통합을 위한 조건: (17) 일자리를 가질 기회가 많은 사회를 만드는 것	287
〈부표 3-30〉 사회통합을 위한 조건: (18) 서로 다른 집단 간의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것	288
〈부표 3-31〉 사회통합을 위한 조건: (19) 정부가 나서서 갈등을 잘 조정하는 것	289
〈부표 3-32〉 사회통합을 위한 조건: (20) 서로 다른 집단 간에 양보와 협력이 이뤄지는 것	290
〈부표 3-33〉 사회인식: (1) 한국의 소득 격차는 너무 크다	291
〈부표 3-34〉 사회인식: (2) 고소득자와 저소득자 사이의 소득 격차를 줄이는 것은 정부의 책임이다	292
〈부표 3-35〉 사회인식: (3) 정부는 실업자에게 적절한 수준의 삶을 제공해야 한다	293
〈부표 3-36〉 사회인식: (4) 정부는 빈곤한 사람들에게 주는 혜택을 줄여야 한다	294
〈부표 3-37〉 주관적 빈곤 인식(1)	295
〈부표 3-38〉 주관적 빈곤 인식(2)	296
〈부표 3-39〉 주관적 빈곤 인식(3)	297
〈부표 3-40〉 서비스 시설 접근성: (1) 문화시설	298
〈부표 3-41〉 서비스 시설 접근성: (2) 교육시설	299
〈부표 3-42〉 서비스 시설 접근성: (3) 의료시설	300
〈부표 3-43〉 서비스 시설 접근성: (4) 안전시설	301
〈부표 3-44〉 서비스 시설 접근성: (5) 생활편의시설	302
〈부표 3-45〉 서비스 시설 접근성: (6) 대중교통	303
〈부표 3-46〉 박탈: (1)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고기나 생선을 먹는다	304

<부표 3-47> 박탈: (2)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신선한 과일을 사 먹는다	305
<부표 3-48> 박탈: (3) 가끔 기호식품(차, 커피, 과자류, 아이스크림, 음료 등)을 사 먹는다	306
<부표 3-49> 박탈: (4) 매우 추운 날 입을 수 있는 외투(코트, 파카, 털이나 가죽옷 등)를 두 벌 정도는 가지고 있다	307
<부표 3-50> 박탈: (5) 예식장 갈 때와 같은 특별한 날에 입을 수 있는 여름과 겨울 각각의 정장을 한벌 정도는 가지고 있다	308
<부표 3-51> 박탈: (6) 질병으로 오랫동안(3개월 이상) 앓고 있는 경우 정기적으로 진료 받고(받을 수) 있다	309
<부표 3-52> 박탈: (7) 이가 아프면 치과에 가고(갈 수) 있다	310
<부표 3-53> 박탈: (8) 의사에게서 처방받은 의약품이나 필요한 (일반)의약품을 구입하고(할 수) 있다	311
<부표 3-54> 박탈: (9) 1년에 한 번 이상 (가족 또는 자녀와) 2~3일 정도의 여행(피서)을 다녀온다	312
<부표 3-55> 박탈: (10) 가족의 생일 등 특별한 날을 기념(외식 등)하고 있다	313
<부표 3-56> 박탈: (11) 정기적으로 혹은 종종 가족 또는 자녀와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영화, 공연)을 할 수 있다	314
<부표 3-57> 박탈: (12) 어려울 때 이야기를 나누고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친척이나 친구가 있다	315
<부표 3-58> 박탈: (13) 일상적이지 않은 지출에 대비(저축 등)하고 있다	316
<부표 3-59> 박탈: (14) 노후를 위해 (국민, 개인)연금에 가입하거나 저축하고 있다	317
<부표 3-60> 박탈: (15) 사회보험 외의 사적보험(의료보험, 종신보험, 생명보험 등의 보장성 보험)에 가입해 있다	318
<부표 3-61> 박탈: (16) 춥지 않도록 난방이 적절히 갖춰진 곳에서 생활하고 있다	319
<부표 3-62> 박탈: (17) 가족 수나 구성원의 연령에 맞게 적절한 방을 나누어 사용하고 있다	320
<부표 3-63> 박탈: (18) 걸어서 10분 안의 거리에 버스 정거장이나 전철역이 있다	321
<부표 3-64> 박탈: (19) 옥탑방이나 (반)지하가 아닌 지상에 거주하고 있다	322
<부표 3-65> 박탈: (20) 전용 수세식의 화장실 및 온수 목욕시설을 갖추고 있다	323
<부표 3-66> 박탈: (21) 전기요금, 전화요금, 수도요금 중 하나 이상을 내지 못해 전기, 전화, 수도 등이 끊긴 적이 있다	324
<부표 3-67> 박탈: (22) 집세(월세, 전세금)가 밀렸거나 또는 그 이유로 집을 옮긴 적이 있다	325
<부표 3-68> 박탈: (23) 자녀에게 고등교육(전문대학 및 대학교 이상)을 시키고 있다(시킬 수 있다)	326
<부표 3-69> 박탈: (24) 자녀가 원하는 경우 학원수강이나 과외를 시키고 있다(시킬 수 있다)	327
<부표 3-70> 박탈: (25) 자녀에게 필요한 기본참고서나 도서를 사 주고 있다(사 줄 수 있다)	328
<부표 3-71> 박탈: (26) 자녀의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양육(경제적, 사회적, 정서적)을 책임질 수 있다	329
<부표 3-72> 우리 사회에 대한 신뢰도	330
<부표 3-73> 기관에 대한 신뢰도: (1) 대기업	331
<부표 3-74> 기관에 대한 신뢰도: (2) 종교계	332
<부표 3-75> 기관에 대한 신뢰도: (3) 교육계	333
<부표 3-76> 기관에 대한 신뢰도: (4) 노동조합	334
<부표 3-77> 기관에 대한 신뢰도: (5) 언론계(신문사, TV방송국 등)	335

〈부표 3-78〉 기관에 대한 신뢰도: (6) 의료계	336
〈부표 3-79〉 기관에 대한 신뢰도: (7) 행정부(청와대, 중앙정부, 지방자치정부 등)	337
〈부표 3-80〉 기관에 대한 신뢰도: (8) 입법부(국회)	338
〈부표 3-81〉 기관에 대한 신뢰도: (9) 사법부(법원)	339
〈부표 3-82〉 기관에 대한 신뢰도: (10) 군대	340
〈부표 3-83〉 기관에 대한 신뢰도: (11) 금융기관	341
〈부표 3-84〉 기관에 대한 신뢰도: (12) 시민운동단체	342
〈부표 3-85〉 기관에 대한 신뢰도: (13) 검찰, 경찰	343
〈부표 3-86〉 사회참여 활동: (1) 자원봉사 참여 정도	344
〈부표 3-87〉 사회참여 활동: (2) 사회단체나 기관에 기부	345
〈부표 3-88〉 단체 소속 여부 및 활동 빈도: (1) 정당	346
〈부표 3-89〉 단체 소속 여부 및 활동 빈도: (2) 시민운동단체	347
〈부표 3-90〉 단체 소속 여부 및 활동 빈도: (3) 노조, 사업자단체 또는 직업조합	348
〈부표 3-91〉 단체 소속 여부 및 활동 빈도: (4) 종교단체	349
〈부표 3-92〉 단체 소속 여부 및 활동 빈도: (5) 스포츠, 취미, 레저 모임 등 문화단체	350
〈부표 3-93〉 단체 소속 여부 및 활동 빈도: (6) 동창모임	351
〈부표 3-94〉 단체 소속 여부 및 활동 빈도: (7) 향우회	352
〈부표 3-95〉 단체 소속 여부 및 활동 빈도: (8) 친목단체	353
〈부표 3-96〉 단체 소속 여부 및 활동 빈도: (9) 기타 오프라인 모임이나 단체	354
〈부표 3-97〉 단체 소속 여부 및 활동 빈도: (10) SNS 등 온라인 모임(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355
〈부표 3-98〉 투표 여부: (1) 2016년 4월 13일 국회의원 선거	356
〈부표 3-99〉 투표 여부: (2) 2017년 5월 9일 제19대 대통령선거	357
〈부표 3-100〉 투표 여부: (3) 2018년 6월 13일 지방선거	358
〈부표 3-101〉 사회적 참여 여부: (1) SNS에 글을 올리거나 답변하기	359
〈부표 3-102〉 사회적 참여 여부: (2) 탄원서 및 청원서에 서명하기	360
〈부표 3-103〉 사회적 참여 여부: (3) 집회 및 시위에 참여하기	361
〈부표 3-104〉 국가에 대한 자긍심	362
〈부표 3-105〉 이민 의사	363
〈부표 3-106〉 이민을 생각하는 이유	364
〈부표 3-107〉 수용도: (1) 이민자(외국인노동자, 결혼이민자 등)	365
〈부표 3-108〉 수용도: (2) 북한이탈주민	366

〈부표 3-109〉 수용도: (3) 성소수자(동성애자, 성전환자 등)	367
〈부표 3-110〉 이민자의 한국 사회 적응 방법에 대한 인식	368
〈부표 3-111〉 대인 신뢰도: (1) 내가 완전히 믿을 수 있는 사람은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	369
〈부표 3-112〉 대인 신뢰도: (2) 만약 조심하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들은 나를 이용하려 들 것이다	370
〈부표 3-113〉 대인 신뢰도: (3) 사람들은 대개 이기적이다	371
〈부표 3-114〉 대인 신뢰도: (4) 오늘날 한국에서 높은 지위에 오르려면 부패할 수밖에 없다	372
〈부표 3-115〉 부패 인식: (1) 정치 영역	373
〈부표 3-116〉 부패 인식: (2) 경제 영역	374
〈부표 3-117〉 이념적 성향	375
〈부표 3-118〉 우리나라의 갈등 정도	376
〈부표 3-119〉 집단 간 갈등 수준: (1) 가난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 간의 갈등	377
〈부표 3-120〉 집단 간 갈등 수준: (2) 경영자와 노동자 간의 갈등	378
〈부표 3-121〉 집단 간 갈등 수준: (3) 주택 소유자와 비소유자 간의 갈등	379
〈부표 3-122〉 집단 간 갈등 수준: (4)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갈등	380
〈부표 3-123〉 집단 간 갈등 수준: (5) 여성과 남성 간의 갈등	381
〈부표 3-124〉 집단 간 갈등 수준: (6) 고령자와 젊은이 간의 갈등	382
〈부표 3-125〉 집단 간 갈등 수준: (7) 기성세대(40~50대)와 청년세대(20~30대) 간의 갈등	383
〈부표 3-126〉 집단 간 갈등 수준: (8) 진보와 보수 간의 갈등	384
〈부표 3-127〉 집단 간 갈등 수준: (9) 지역 간의 갈등(수도권과 지방, 영남과 호남)	385
〈부표 3-128〉 집단 간 갈등 수준: (10) 다문화갈등(외국인노동자, 결혼이주여성, 북한이탈주민 등)	386
〈부표 3-129〉 집단 간 갈등 수준: (11) 개발주의자와 환경보호주의자 간의 갈등	387
〈부표 3-130〉 세대갈등의 가장 큰 원인	388
〈부표 3-131〉 성별 갈등 발생의 가장 큰 원인	389
〈부표 3-132〉 공정성 인식: (1) 두뇌(능력)	390
〈부표 3-133〉 한국 사회로부터 귀하기 받는 대우의 공정성: (2) 일과 관련된 기술	391
〈부표 3-134〉 공정성 인식: (3) 노력	392
〈부표 3-135〉 공정성 인식: (4) 학력	393
〈부표 3-136〉 공정성 인식: (5) 경력	394
〈부표 3-137〉 평등 인식: (1) 교육 기회	395
〈부표 3-138〉 평등 인식: (2) 취업 기회	396
〈부표 3-139〉 평등 인식: (3) 승진, 승급기회	397

〈부표 3-140〉 평등 인식: (4) 법의 집행	398
〈부표 3-141〉 평등 인식: (5) 여성에 대한 대우	399
〈부표 3-142〉 평등 인식: (6) 남성에 대한 대우	400
〈부표 3-143〉 평등 인식: (7) 장애인에 대한 대우	401
〈부표 3-144〉 평등 인식: (8) 외국인노동자, 결혼이주여성,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대우	402
〈부표 3-145〉 평등 인식: (9) 소득 분배	403
〈부표 3-146〉 평등 인식: (10) 부(재산)의 분배	404
〈부표 3-147〉 평등 인식: (11) 지역 간 발전수준	405
〈부표 3-148〉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 인식	406
〈부표 3-149〉 소득불평등 상태 인식: (1) 불평등의 정도 인식	407
〈부표 3-150〉 소득불평등 상태 인식: (2) 부자가 가난한 사람의 몇 배를 벌고 있는지에 대한 인식	408
〈부표 3-151〉 소득불평등 상태 인식: (3) 살고 싶은 나라의 소득불평등 수준	409
〈부표 3-152〉 사회적 이동: (1) 부모 세대의 소득이 자녀 세대에 미치는 영향 인식	410
〈부표 3-153〉 사회적 이동: (2) 지난 10년 동안의 생활수준 변화	411
〈부표 3-154〉 사회적 이동: (3) 앞으로 10년 이내 생활수준 변화 전망	412
〈부표 3-155〉 사회적 이동: (4) 세대 내 계층이동 전망	413
〈부표 3-156〉 사회적 이동: (5) 세대 간 계층이동 전망	414

Abstract <<

A Study on Assessment of Social Cohesion Status with Policy Implications

Project Head: Kim, Moon Gil

This study aims to comprehensively summarize the various issues that have been focused on in the diagnosis of social integration and counter-measures over the past five years. Accordingly, this study consists of the following three contents. First, it analyzes the changes in people's perception of various items related to social integration over the past five years. Second, we conduct an in-depth analysis of each of the three elements of social cohesion. Third, we examine the effects and changes of these three components on the perception of social cohesion. Among them, the second research part consists of social inclusion and social cohesion(chapter 3), social capital and social cohesion(chapter 4), and the realities and implications of social mobility(chapter 5).

The main research contents for each detailed research topic are as follows. Chapter 2 analyzes the main contents of social cohesion policy impact assessment and changes in perception of social cohesion over the past five years. In chapter 3, we construct indicators that can measure social inclusion and diagnose its condition. In addition, we examine the influence of social inclusion on the perception of social cohesion. In chapter 4, we analyze the state of social capital and its impact on social cohesion. In addition, we examine the influence of social capital on multicultural acceptance. In chapter 5, we diagnose the state of social mobility and an-

2 사회통합 실태 진단 및 대응 방안 연구(VI): 사회통합 상태 진단

alyzes its impact on social cohesion. In chapter 6, using the constrained regression model, we compare the effects and changes of the three elements of social cohesion on the perception of social cohesion. In addition, we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cohesion components and the perception of income inequality, and the state of income inequality that the people think and hope for, and presents its implications.

* Keywords: Social Cohesion, Social Inclusion, Social Capital, Social Mobility

1. 사회통합 인식 변화

2016년부터 2019년까지의 사회통합 인식 변화는 사회통합 일반 인식과 심리, 사회상에 대한 인식, 정부의 역할, 사회통합의 조건으로 구분해서 살펴보았다. 먼저, 사회통합 인식, 행복도, 삶의 만족도가 2017년 가장 높은 수준에서 미약하게 감소하여 2019년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반면, 우울감은 2019년에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사회통합 인식은 전체적으로 4.17점으로 중간에 미치지 않는 수준인데, 전 기간에 걸쳐 성별로는 여성이 남성보다 높고, 연령대별로는 청년의 긍정적인 인식이 증가한 반면, 노인은 감소하였다. 객관적 소득 수준별로는 중산층이, 주관적 소득 수준별로는 상층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관적 행복감은 2019년 전체적으로 6.48점으로 나타났는데, 전 기간에 걸쳐 여성이 남성보다 높은 행복감을 느끼고, 연령대별로는 젊은 연령층일수록, 학력별로는 수준이 높아질수록 높은 행복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삶의 만족도는 전체적으로 6.15점으로 나타났는데, 여성, 청년, 대졸 이상, 주관적·객관적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우울감은 2019년 전체적으로 2.71점으로 나타났는데, 과거보다 개선되었다. 우울감이 높은 집단으로 여성, 노인, 중졸 이하, 저소득층의 우울감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회상에 대한 인식은 5가지의 문항(배려와 포용의 사회, 서로 믿고 살아가는 사회, 활력 있고 희망찬 사회, 경제적 희망·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는 사회, 서로의 의견을 경청하고 이해하려 노력하는 사회)으로 살펴보았다. 5가지 모든 상에 대한 인식이 2019년은 2016년보다는 높지만 2017년, 2018년에 비해서는 다소 낮아졌다. 2019년에 긍정 점수가 높은 항목은 ‘활력 있고 희망찬 사회’, ‘배려와 포용의 사회’, ‘서로의 의견을 경청하고 이해하려 노력하는 사회’, ‘경제적 희망,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는 사회’ 순으로 나타났다.

소득 격차에 대한 인식과 정부의 역할에 대해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우리 국민 10명 중 8명 이상이 우리나라의 소득 격차가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가운데, 소

득 격차를 줄여야 하는 정부의 책임에 대해서는 10명 중 6명 정도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자에 대한 지원은 절반 정도가, 빈곤층에 대한 지원은 10명 중 4명 정도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전체적으로 중요하게 인식하는 정부의 역할은 소득재분배, 실업자 지원, 빈곤층 지원 순으로 나타났다.

사회통합의 조건에 대해 2016년과 2019년 모두 '노력한 만큼 대가를 얻는 사회를 만드는 것'과 '일자리를 가질 기회가 많은 사회를 만드는 것'이 각각 1순위와 2순위로 꼽혔다. 2016년 3순위였던 '중산층이 두꺼운 사회를 만드는 것'은 2019년에 11위로 밀려났고, 대신에 2016년 5순위였던 '법규칙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이 3순위로 올라왔다. '사회 구성원 각자가 주어진 역할에 충실한 것'은 2016년과 2019년 모두 4순위로 꼽혔다. 2016년에 13순위였던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사회를 이루는 것'은 2019년에 5순위로 올라왔다. 3년 사이에 소득분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중산층 이슈보다 성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경제적 풍요가 사회통합의 중요한 조건으로 부상하였다.

사회통합의 조건에 대한 3년 사이의 가장 큰 인식 변화는 공정성과 경제적 풍요가 최근 사회통합의 조건에서 강조되었다는 점이다. 노력한 만큼 대가를 얻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2016년에 이어 2019년에도 여전히 1순위로 꼽혔고, 법규칙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이 5순위에서 3순위로 부상한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 그리고 소득분배의 이상형으로 꼽히는 중산층이 두꺼운 사회에 대한 중요성이 2016년 3순위에서 2019년 11순위로 크게 밀려나고, 경제적 풍요가 5순위로 부상한 것도 이를 뒷받침한다. 즉, 분배보다 성장을 보다 강조하게 되었고, 성장의 조건으로 공정한 경쟁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강조하게 되었다고 요약할 수 있다.

2. 사회적 포용과 사회통합

우리나라는 주관적 삶의 질 지표인 삶의 만족도가 10점 만점에 5.9점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6.7점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이는 OECD 36개국 중 31위에 해당하는 수준이다(OECD, 2019). 이러한 결과는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양극화 및 불평등이 그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OECD는 '한국의 사회통합을 위한 제언' 보고서 서문에서 '최근 소득불평등이 심해지면서 향후 수년간 좀 더 강력하고 포용적인 성장을 위한 사회통합 강화 정책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으며(OECD,

2013), 우리 정부 또한 이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2019년을 ‘혁신적 포용국가의 원년’으로 선언하고 생애주기별 기본생활 보장을 내용으로 하는 ‘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에 제3장에서는 삶의 질 및 사회통합 등 사회의 질적 측면의 발전을 위한 기본 토대라 할 수 있는 사회적 포용의 상태와 사회적 포용 및 사회통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사회적 포용의 개념과 그 측정지표는 사회적 배제에 관한 선행 연구를 통해 정리하였는데, 사회적 포용은 일반적으로 사회적 배제를 통해 개념화되기 때문이다. 사회적 포용의 측정 지표는 개인의 포용 상태와 구조적 포용 과정에 대한 인식의 2가지로 구분하였는데, 개인의 포용 상태는 경제(객관적 빈곤), 노동(노동시장 참여 상태), 건강(신체적·정신적 건강 상태), 주거(물리적 주거상태 및 주거비 부담), 서비스 차원(6가지 서비스 접근성)의 포용 정도(5가지)로 측정하였고, 구조적 포용 과정에 대한 인식은 기회, 분배, 특정 집단, 법 집행의 평등(4가지)으로 측정하였다(총 9가지 차원).

분석 결과, 개인의 포용 상태는 평균적으로 5개 차원 중 4개 차원에 포용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여성, 65세 이상, 중졸 이하, 중위소득 50% 미만의 소득계층(빈곤층), 주관적 소득계층을 하층으로 응답한 경우, 농어촌에 거주하는 경우 포용의 중첩도가 4개 미만으로 열악한 상태에 처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조적 포용 과정에 대한 인식, 즉 평등에 대한 인식은 대체로 남성인 경우, 객관적·주관적 소득계층이 높은 경우, 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경우 우리 사회에서 기회 및 분배, 그리고 법 집행이 평등하게 이루어지고 성별이나 장애, 국적 등에 따른 차별이 없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 사회적 배제에 관한 연구 결과와 다르지 않다.

한편, 사회적 포용의 각 차원 간 상관관계 분석 결과, 경제 포용 상태(비빈곤)가 노동 포용 상태(유급노동)나 건강 포용 상태(만성질환이 없고 우울하지 않은 상태)와는 연관성이 있지만, 주거 포용 상태(물리적 조건이 충족되며 주거비 부담이 없는 상태)나 서비스 포용 상태(문화·교육·의료·안전·생활편의시설, 대중교통 접근성)와는 연관성이 거의 없다는 것으로 나타나 주거나 서비스 포용 상태의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접근이 각 차원에 초점을 맞춰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즉, 비빈곤 상태에 있을지라도 주거 조건이 열악하거나 주거비 부담이 높을 수 있고, 다양한 차원의 서비스 접근에 한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주거나 서비스 차원의 포용 증진을 위해서

는 (예산의 제약으로 인해 한계가 있으나) 소득 기준에 따른 대상자 선정에 집중하기보다는 좀 더 각 차원의 욕구에 초점을 맞춘 지원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정책적 함의는 우리 사회의 사회적 포용성 평가나 사회통합 인식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분석 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사회의 포용성 평가에는 건강 차원이, 사회통합 수준 인식에는 주거, 건강, 서비스 차원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부분이라 하겠다. 빈곤이나 실직 및 비취업 등의 상태보다는 열악한 주거나 건강하지 못한 상태, 욕구에 따라 다양한 서비스에 접근할 수 없는 상태 등이 개인이 사회의 질적 측면을 낮게 평가하는 척도가 되고 있음은 우리 사회가 사회적 포용성이 높고, 사회통합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긍정적 인식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소득 및 고용 지원뿐만 아니라) 주거, 건강, 서비스 차원의 지원에 대한 관심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 주기 때문이다.

또한 개인의 포용 상태(경제, 노동, 주거, 건강, 서비스 포용 상태)보다는 포용의 구조적 과정에 대한 인식(기회, 분배, 특정 대상, 법 집행의 평등)이 우리 사회의 포용성과 사회통합 인식 수준을 더 잘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최근 우리 사회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공정성’의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한다. 이는 분배의 ‘결과’보다는 그 이전 ‘과정’에서의 평등을 증진시키는 것이 사회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높일 수 있음을 간접적으로 말해 준다 하겠다.

3. 사회적 자본과 사회통합, 그리고 다문화수용성

한국은 서구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에 민주화와 산업화를 이룬 국가로서, 이에 대한 부작용으로 소득 양극화와 불평등 문제가 점차 심화되고 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사회적 문제들은 한국 사회의 사회통합을 크게 저해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가치로서 사회적 자본이 점차 주목받고 있다. 특히 사회적 자본은 종종 사회통합의 한 영역으로 다뤄지는데, 이에 대한 연구는 그동안 많이 진행되어 오지 않았다. 그뿐만 아니라, 한국 내 체류 외국인 수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사회적 자본을 활용한 연구의 필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재 한국 사회의 사회적 자본 상태 진단과 더불어 사회적 자본이 사회통합 인식과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사회통합과 관련된 정책적 함의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독립변수로 사회적 자본을, 종속변수로 사회통합 인식과 다문화수용성 변수를 투입하여 분석하였다. 독립변수로서 사회적 자본을 측정하기 위해 신뢰, 참여, 네트워크로 구분하였다. 구체적으로, 신뢰는 사회 신뢰, 공적 신뢰, 사람(타인) 신뢰, 참여는 시민 참여, 정치집단 참여, 정치 참여, 그리고 네트워크는 비공식적 네트워크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종속변수로서 사회통합 인식 변수는 크게 사회통합 수준과 한국 사회에 대한 평가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그리고 다문화수용성 변수는 국민 정체성,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태도 그리고 다문화주의에 대한 태도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연구 분석 결과, 사회적 자본 중 하위 영역인 신뢰, 참여 그리고 네트워크 그리고 다문화수용성 역시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다. 자세한 사항은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표 4-6)~(표 4-9)). 사회적 자본을 구성하는 변수 중 사회통합 국민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사회적 자본 중 공적 신뢰와 사회 신뢰는 사회통합 국민 인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사람(타인) 신뢰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사회적 자본의 하위 영역 중 사회통합 국민 인식에 미치는 주요 변수는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표 4-12). 다음으로, 사회적 자본을 구성하는 변수 중 다문화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는 다음과 같다. 사회적 자본 중 사회 신뢰가 다문화수용성의 하위 영역인 국민 정체성,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태도 그리고 다문화주의에 대한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공적신뢰는 국민 정체성 및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태도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다문화주의에 대한 태도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다문화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역시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표 4-13).

분석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우선, 본 연구는 기존 사회통합과 다문화수용성의 연구와 달리 사회적 자본이라는 이론을 활용하여 심층적인 연구를 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다음으로, 신뢰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이를 향상하기 위한 여러 정책적 방안들이 마련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사회 신뢰를 향상하기 위해 현재 한국 사회가 경험하고 있는 소득 양극화와 불평등 문제에 대한 정책 방안을 마련하고, 공적 신뢰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건전한 토론문화 조성 및 교육 지원 등의 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 결과는 사회통합과 다문화수용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과 더불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함께 제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따라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적극 장려하는

방향으로 나가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자제하거나 조절하는 방향으로 관련 정책을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4. 사회적 이동의 실태와 함의

‘공정한 사회’에 대한 믿음이 사회통합의 한 요소로 다뤄지고 있으며, 이는 사회이동성 맥락에서 진단해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사회이동성에 대한 정책은 교육받을 기회와 같이 소득 하위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었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소득이동성에 비해 낮은,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한국의 사회이동성 인식은 정책 설계의 기준과 국민의 판단 기준이 다른 것이 아닌가 의심해 볼 여지를 남긴다.

제5장에서는 한국 사회의 이동성이 낮은가 높은가에 대한 경험적 자료를 확인하고, 사회이동성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주요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최근 세대라 할 수 있는 정보화 세대에 접어들면서 부모의 직업이 사무종사자이면서 자녀의 직업도 사무종사자인 비율이 늘고 있다. 이는 비교적 최근 세대로 올수록 부(父)의 직업과 본인의 직업의 관련성이 높아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렇지만 한편으로 부의 학력 또는 직업위세가 높은 경우에도 정보화 세대의 그들은 사무종사자로 일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는 전체적으로 직업구조가 정착된 결과로도 해석할 수 있다. 다음으로 사회이동성에 대한 인식은 최근 공개된 다른 조사와 달리 양호한 편으로 나타났다. 세대 내 사회이동 가능성에 대해 높은 편이라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은 47.3%가량이었고, 세대 간 사회이동성에 대해서는 57.2%가량이 높아질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사회이동성의 차원은 아니지만 공정성의 맥락에서 보면 ‘노력’에 비해 공정하지 못한 대우를 받았다는 응답이 높았다. 한편 교육 기회가 평등하다는 인식은 전체적으로 58.9%에 이르지만, 취업 기회에서는 24.8%만이, 승진·승급 기회에서는 16.5%만이 평등하다고 응답하였다. 우리 국민들이 판단하는 사회이동성 수준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것보다 부정적인데, 예를 들어 부모 세대의 소득이 자녀 세대의 소득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정도를 보면 평균적으로 7.35점의 영향을 받는다고 응답하여 상당한 영향이 있다고 답하고 있었다. 주목해야 하는 부분은 이러한 영향력에 대한 평가가 소득계층으로 보면 상층에서 더 두드러졌다는 점이다. 이러한 결과를 놓고

한국 사회에서 사회이동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교육의 기회가 제약되었다거나 하는 부분에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계층집단의 상층부로 이동하는 과정에 불공정성이 존재할 것이라는 의심에서 이뤄지는 것이라 판단해 볼 수 있다.

사회이동성에 대한 인식은 한국 사회의 사회통합 인식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된다. 세대 내 이동성 인식을 매우 낮게 평가하는 사람에 비해 '매우 높다' 또는 '높다'고 평가하는 사람, '약간 낮다'고 평가하는 사람일수록 사회통합 수준을 높다고 평가하는 경향이 유의하게 확인되었다. 이와 달리 노력에 대한 대우의 불공정성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사회통합 인식은 낮아지는 것을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교육에서의 기회 격차를 강하게 판단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즉, 교육과정에서의 기회 격차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당위적 접근, 또는 교육 기회가 불평등, 불공정해졌다는 인식이 두드러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오히려 문제가 되는 것은 사회이동성에서 교육 이외의 가능성 즉, 취업의 기회 제공이라든지 승진, 승급의 기회에서 불공정하다는 인식을 키우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지금까지 한국 사회가 설정해 왔던 기회의 공정성에 대한 부분이 교육 기회와 같이 기계적인 절차적 공정성에 매몰되어 왔으나, 실제 우리 국민들이 판단하는 공정성에 대한 기대는 그 이상, 그 이후 과정의 문제에 있음을 말해 준다. 특히 부모 세대의 영향력이 중요하다는 인식은 지금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세대, 그리고 소득계층에서 보다 상층에 해당하는 집단에서 두드러진다는 점도 중요하다. 이것은 한국 사회에서 이동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다 다양하고 실질적인 수단을 강구해야 함을 보여 준다.

5. 사회통합 인식의 종합 진단

지금까지 사회통합을 구성하는 사회적 포용, 사회적 자본, 사회이동성 각각의 사회통합 인식과의 관계를 규명하였다면, 제6장에서는 이들 구성요소들의 사회통합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규명해 보았다. 먼저, 사회통합 인식 영향 요인 분석에 앞서 주요 변인들을 탐색하기 위한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사회통합 인식과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는 변수들을 구성요소의 영역별로 살펴보면, 사회적 포용 영역에서는 포용사회에 대한 인식과 경제적 풍요가, 사회적 자본 영역에서는 믿고 살아가는 사회 인식 정도와 서로 돕고 사는 것이, 사회이동성 영역에서는 경제적·미래 희망 인식 정도와

노력에 맞는 대가를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변인들을 이용하여 제약하 회귀모형을 통해 사회통합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2016년의 경우 사회적 포용, 사회이동성, 사회적 자본 순으로 강한 영향력을 보인 반면, 2019년에는 사회이동성, 사회적 포용, 사회이동성 순으로 강한 영향력을 보이는 것으로 바뀌었다. 3년 사이에 사회통합 인식에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사회적 포용에서 사회이동성으로 바뀐 것이다. 성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사회통합 상태와 인식 변수를 이용한 분석 결과에서 2016년에 비해 2019년에는 남녀 모두 사회이동성의 비중이 더욱 커졌지만 남성의 증가폭이 더 큰 것을 알 수 있었다. 사회통합 조건 변수의 경우는 2019년에 남녀 모두 사회이동성의 비중이 가장 컸지만 남성은 사회적 자본이, 여성은 사회적 포용이 그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차이를 보였다.

소득불평등에 대한 인식과 사회통합 인식의 관계를 살펴보았는데, 사회통합 인식 관련 변수는 사회통합 정도에 대한 인식 그 자체뿐 아니라 사회통합 구성 요소별 대표적인 변인들을 사용하였다. 먼저, 세대 간 소득탄력성에 대한 인식은 소득불평등에 대한 인식과 뚜렷한 정(+)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모든 연령대에서 동일하게 확인되었다. 소득불평등 인식에서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대한 인식 사이에는 정(+)의 관계가 나타났는데, 이는 국제적 차원에서 확인된 부(-)의 관계와는 상반된 결과다. 다른 연령대와 달리 청년층에서는 상관관계가 뚜렷하지 않은 것이 특징적이다. 소득불평등에 대한 인식과 사회적 신뢰에 대한 인식 간에는 부(-)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불평등은 타인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림으로써 불행으로 이어진다는 연구 결과에 착안하여 둘 간의 관계를 살펴본 것인데, 인식 차원에서의 소득불평등이 사회적 신뢰와 부(-)의 관계를 보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령대별로는 노인층에서는 유의한 관계가 보이지 않았고, 청년층의 경우 상관관계가 나타나기는 했지만 통계적 유의성이 그리 크지 않았다. 소득불평등에 대한 인식과 사회통합 정도에 대한 인식 간에는 부(-)의 관계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소득분배 상태(빈곤층 소득 대비 부유층 소득 비율)에 대한 우리 국민의 인식과 선호를 살펴본 결과, 우리 국민들은 소득불평등 상태를 실제보다 양호한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을 발견할 수 있었고, 현재 자신의 소득과 무관하게 보다 평등한 분배 상태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평등한 분배 상태에 대한 선호는 성별, 연령대별, 소득수준별, 이념 성향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분석 결과가 함의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먼저, 인식의 차원에서 소득불평등이 사회적 자본과 사회이동성, 그리고 사회통합과 뚜렷한 상관관계를 가진다는 것은 소득불평등 상태에 따라 사회통합 수준이 결정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그리고 이는 소득분배 정책이 사회통합 정책 차원에서 강구될 필요가 있다는 정책 함의를 제공한다. 그리고 소득분배 상태에 대한 인식과 태도(선호)를 살펴본 결과는 우리 국민들의 사회통합 인식이 과소평가되었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하며, 이는 역시 사회통합 증진 차원에서 소득재분배를 위한 정책들이 강구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주요 용어: 사회통합, 사회적 포용, 사회적 자본, 사회이동성

제 1 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제2절 연구 내용과 방법

제3절 사회통합 개념의 이론적 검토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연구의 배경

2019년 대한민국 국민들의 관심은 공정성에 대한 이슈로 뒤덮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와 관련해 유례없이 뜨거운 여론이 들끓고 있다. 유력 정치인과 고급 행정관료 자녀들의 입시와 취업에서의 불공정 사례에서 촉발된 불공정 문제, 기회의 불평등 문제 등은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공정세계에 관한 신념을 무너뜨렸다. 공정세계 신념의 붕괴는 우리 사회의 경제적 발전과 성장의 동력이었다고 할 수 있는 근면과 성실의 국민성을 부정해야 하는 상황으로까지 전개되었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자녀의 학령기에서 노동시장 진입기까지 펼쳐지는 일련의 경쟁에서의 우열을 결정한다는 생각이 많은 국민들을 좌절하고 분노하게 만들었다. 이는 최근 정시확대나 학생부종합전형 확대나 하는 대학입지제도 개혁의 문제로 이어지면서 이에 대한 찬반 논란이 어느 때보다 뜨거워지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차별하게 시간을 거슬러 사회 곳곳을 살펴보면 우리 사회가 총체적 갈등에 포위되어 있다고 할 만큼 다양한 사건들과 이슈들이 흩어져 있다. 혜화역 사건 등을 계기로 페미니즘 논쟁이 확산되었고, 이 정부 들어 20대 남성이 역차별받고 있다는 인지와 이것이 정치와 정책에 대한 태도 변화를 낳는다는 진단이 가세하면서 더욱 깊고 거친 논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갖은 정책 대응에도 불구하고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청년실업문제에서 촉발되었다고 할 수 있는 청년문제는 부모보다 가난한 최초의 세대가 될 수 있다는 위기감을 고조시켰다. 이것이 상대적으로 많은 부와 권력을 쥐고 있는 현재 중장년층과 대비되면서 세대 간 불평등 문제가 우리 사회 불평등 논의의 핵심적 사안으로 떠올랐다. 한편으로, 세대 간 불평등 문제보다 심각한 것이 세대 내에 만연한 불평등이고, 세대 간 불평등 논의에 집중한 나머지 심각한 세대 내 불평등, 나아가 중형으로 펼쳐져 있는 불평등 문제를 은폐시킬 위험도 존재한다. 여하튼 이

와 같은 논쟁을 통해, 세대 간이든 세대 내든 불평등 문제가 다시 우리 사회의 중요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또한 중요한 사회적 문제들이 발생할 때마다 혐오와 차별이 거친 언어와 행동으로 표현되었다. 이는 갈등 조정의 책임이 있는 정치권에서 증폭되거나 언론을 통해 대중에 유통되는 경로를 거치고 있다.

지금까지 언급했던 이슈들, 즉 불공정, 기회의 불평등, 젠더갈등, 세대 간 불평등, 세대 내 불평등의 문제는 모두 우리 사회의 통합을 저해하는 사회문제의 원인이라 할 수 있다. 불평등 인식과 공정세계 신념의 약화는 울분(embitterment)의 원인이 되고, 울분은 개인의 삶의 만족도, 행복도, 공공에 대한 신뢰, 정책지지도를 떨어뜨리고 혐오, 자살생각, 우울감을 높이는 병리적 결과를 유발한다(유명순, 2019). 또한 불평등은 “그것에 우리가 어떠한 이름을 붙이는가와 상관없이 실질적인 고통을 유발”하며, “불평등이 커질수록 사회적 위협과 지위 불안이 커지고 위축과 복종, 종속 본능으로 이어지는 수치심을 유발한다”는 Wilkinson과 Pickett(2019, pp. 107-108)의 진단은 사회통합과 관련한 중요한 정책적 함의를 제공한다.

이상과 같은 사회병리적인 문제들은 우리 사회의 사회통합 수준을 저하시키고, 개인의 삶의 만족도 또는 행복을 저하시키는 문제들로 지목되고 있다. 따라서 이들 이슈에 대한 국민들의 객관적인 상황과 인식을 실증적으로 진단하는 것은 사회통합 정책 연구의 주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지난 5년간의 사회통합 정책영향평가 사업에서는 실태조사를 통해 실증적 자료를 수집하고, 수집된 자료를 이용하여 실태를 진단하고 주요 요인들 간 상호관계와 사회통합과의 인과관계를 규명해 왔다. 그리고 이 같은 분석 결과를 통해 사회통합 정책 방향 또는 정책 방안을 제시해 왔다.

상술한 문제들의 대부분은 지난 5년간 연구들의 주제로 다루어져 왔다. 기회의 불평등, 사회경제적 지위의 세습과 같은 사회이동성 이슈는 여유진 외(2015)에서 다루었고, 젠더갈등과 세대갈등의 이슈들은 정해식 외(2018a)에서 다루었으며 우울감, 자살생각 등 사회병리 문제는 정해식 외(2017)에서 다루었다. 그 밖에 우리 사회의 다양한 문제들을 사회통합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실태진단과 원인 규명을 통해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는 연구들이 사회통합 정책영향평가 사업으로 수행되었다.

2014년도에 사회통합의 궁극적 목적을 행복으로 설정한 뒤 양자 간의 관계를 규명하고,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한 사회통합 전략을 모색하는 연구를 시작으로 매년 주제 모듈을 달리하여 연구를 수행해 왔다. 2차 연도에는 ‘사회통합과 사회이동’을 주제로

사회이동 수준 측정과 사회통합 인식에 대한 정책적 영향 평가를 수행하였다(여유진 외, 2015). 3차 연도에는 ‘사회통합 국민 인식’을 주제로 한국인의 사회통합 수준에 대한 국민 인식 분석, 물질적 필요 불충족 상황과 사회통합 인식의 관계 분석 등의 연구를 수행하였다(정해식 외, 2016). 4차 연도에는 ‘사회문제와 사회통합’을 주제로 실직, 가계부채, 취약한 생활안전, 부실한 노후준비 등 개인적 차원의 불안과 성장의 둔화, 높은 청년실업률, 각종 질환의 유행 등 사회적 차원의 불안에 대한 진단과 사회통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정해식 외, 2017). 그리고 5차 연도에는 ‘사회갈등과 사회통합’을 주제로 국민이 인식하는 사회갈등과 재분배에 대한 태도를 파악하고 젠더·세대·공공갈등 실태 및 사회통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정해식 외, 2018a).

그리고 이들 연구는 지난 5년 동안 각종 학회, 토론회, 포럼, 심포지엄 등을 통한 발표, 전문가 및 정책입안자들과의 논의 과정 그리고 각종 학술지와 정책관련 잡지 게재, 언론 보도 등의 과정을 통해서 대중에게 연구 성과를 알리고, 사회통합 실태와 정책에 관한 사회적 관심을 이끌어내는 데 많은 기여를 했다.

그러나 사회통합과 관련한 다양한 연구 주제들을 다루어 왔지만 사회통합의 구성요소인 사회적 포용, 사회적 자본, 사회이동성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이 있었는가 하는 측면에서는 아쉬움이 있다. 매년 조사에서 이들 세 가지 요소와 관련되는 문항을 설문하고 다양한 문항들 간의 관계를 분석하는 데 활용해 왔지만 5년간의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보면 체계적인 접근의 관점에서는 한계가 있다. 실제로 5년간의 연구에서 세 가지 구성요소를 주제로 삼은 연구는 사회이동을 다룬 2015년 연구가 유일하다. 물론 세부 연구 주제로 사회적 포용이나 사회적 자본을 다루기는 했지만 활용된 변수들의 포괄성이나 분석에서의 활용성 정도를 볼 때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변수의 활용 예를 다룬 제2장의 제1절 마지막 부분을 참조하면 된다.

사회통합의 구성요소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요소 이외에 한국적인 상황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요소는 없을까? 사회통합의 관점에서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이슈들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일련의 인구사회경제적 환경 변화가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 이들의 영향이 다양한 인구집단들 사이에 어떻게 귀착되는지 그리고 이들의 영향은 긍정적인 것인지 부정적인 것인지, 이 모든 것들이 궁극적으로 사회통합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에 대한 규명이 필요할 것이다. 이는 사회통합 정책영향

평가 연구가 필요한 근본적인 이유라 할 것이다.

2. 연구의 목적

지난 5년간의 사회통합 정책영향평가사업을 통해 우리나라 사회통합의 전반적 실태가 객관적 실태의 측면과 주관적 인식의 측면에서 분석되었고, 이와 관련한 주제들에 대한 심층연구가 수행되었다. 사회통합과 관련한 당시의 상황들을 반영하여 사회문제, 사회갈등, 사회통합 국민 인식에 관한 연구가 각각 수행되었다. 이처럼 연구 수요와 정책적 수요에 대응하는 시의적절한 연구를 수행해 왔으나, 우리나라의 사회통합 실태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은 부족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그간의 연구 성과에 대한 종합과 더불어 사회통합에 대한 체계적인 진단을 시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연구의 목적은 다음의 세 가지로 세분화할 수 있다. 첫 번째 목적은 ‘사회통합 상태 진단’이라는 모듈을 통해 지난 5년간 사회통합 정책영향 평가사업에서 수행해 왔던 사회통합 실태 진단 및 대응 방안 연구의 주요 분석 결과를 일괄하고, 사회통합 인식과 이와 관련 있는 인식들을 연도별로 비교함으로써 그간의 사회통합 상태의 시계열적 변화를 살펴보는 것이다. 두 번째 목적은 사회통합의 구성요소(사회적 포용, 사회적 자본, 사회이동성) 각각의 상태를 진단하고 사회통합과의 인과성을 규명하는 것이다. 세 번째 목적은 사회적 포용, 사회적 자본, 사회이동성이 세 가지 구성요소와 그 밖에 관련성 높은 변수들의 사회통합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함으로써 사회통합 상태의 종합적 진단을 시도하는 것이다. 더불어 향후 6년간의 두 번째 연구 회귀를 준비하기 위해 지금까지 중요하게 다루지 않았던 새로운 사회통합 결정요인을 탐색하고, 연구 주제를 제안하고자 한다.

제2절 연구 내용과 방법

1. 연구 내용

이상과 같은 연구 목적에 따라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제1장에서는 연구의 배경과 목적을 밝히고 연구 내용과 연구 방법을 소개한다. 주요 분석 내용을 다룬 제2장에서 제6장까지의 연구 내용과 각각의 연구 방법을 소개한다. 그리고 핵심적 방법인 사회통합 실태조사의 방법, 내용, 응답자 분포를 소개한다. 표본 설계 과정, 표본 규모 결정 방법, 추정 방법 등은 보고서 구성의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 부록으로 제시한다.

제2장에서는 사회통합 정책영향평가 주요 내용 및 사회통합 인식 변화를 다룬다. 제1절에서는 선행연구에 대한 검토로 최근 5년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수행해 왔던 사회통합 실태 진단 및 대응 방안 연구의 주요 결과를 소개한다. 사회통합 정책영향평가 사업의 일환으로 총 5년 동안 수행했던 일련의 연구사업의 결과를 일괄함으로써 주요 영역별로 우리나라의 사회통합 수준과 사회통합 인식 현황을 종합적으로 확인한다. 제2절에서는 기술통계를 중심으로 사회통합 인식과 관련한 주요 문항군들에 대해 살펴본다. 여기에는 사회통합 인식을 비롯해서 주관적 행복, 삶의 만족도, 우울감 등 사회통합의 지향점으로 꼽히는 주요 변수들의 연도별 현황 그리고 성별, 연령집단별, 객관적·주관적 소득 수준별 비교가 포함된다. 그리고 사회통합과 관련되는 다양한 사회상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국민들이 생각하는 사회통합 조건의 변화도 포함된다.

제3장부터 제5장까지는 사회통합의 주요 구성요소로 꼽히는 사회적 포용, 사회적 자본, 사회이동성에 대한 인식 현황을 분석, 소개하고 각각의 결정요인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 결과를 소개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사회통합의 구성요소로 꼽고 있는 상기 세 가지 요소들을 구성하고 있는 세부 지표들을 선정하여 이들이 각각의 요소에 가지는 인과적 관계를 심층분석을 통해 규명한다. 이를 통해 사회통합의 주요 구성요소별로 인식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오늘날 사회통합 인식을 구성하는 중요 영역을 점검한다. 먼저 제3장에서는 사회적 포용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구성하여 그 상태를 진단하고 사회적 포용이 사회통합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한다. 이를 위하여 제2절에서는 선행연구를 검토해 사회적 포용의 개념을 정리하고, 이를 토대로 측정을 위한 지표를 구성한다. 제3절에서는 개인의 포용 상태, 구조적 포용 과정에 대한 인식, 사회적 포용 차원의 중첩도 및 연관성으로 구분하여 사회적 포용 상태를 진단한다. 제4절에서는 회귀모형을 이용하여 포용 상태가 사회적 포용성과 사회통합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각각 분석한다.

제4장에서는 사회적 자본의 상태와 그것이 사회통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제

2절에서 이론적 배경을 검토해 사회적 자본의 개념을 살펴본다. 그리고 사회적 자본의 사회통합에 대한 영향과는 별도로 지금까지 선행연구에서 크게 주목하지 않았던 이민자의 사회통합 문제를 제기하기 위하여 사회적 자본이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영향도 더불어 살펴볼 것이다. 제3절에서는 사회통합 상태 진단을 위한 실태조사 연구 방법에 대해 설명한다. 제4절에서는 이 실태조사에 응답한 이들의 인구사회학적 및 경제활동 특성별로 사회적 자본 및 다문화수용성의 차이를 살펴본다. 제5절에서는 사회적 자본이 사회통합 인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회귀모형을 통해 분석한다. 이와 더불어 사회적 자본이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같은 방법을 통해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제7절에서는 연구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 및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다.

제5장에서는 사회이동의 상태 진단과 사회통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제2절에서는 비교적 최근 시점에서 발표된 한국의 사회이동성에 대한 자료를 간략히 소개한다. 한국의 이동성이 낮은가 높은가의 문제와 더불어 현세대로 오면서 이동성이 낮아졌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대한 경험적 근거자료를 확인해 보고자 한다. 또한 한국 사회의 사회이동성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는 이 보고서가 한국인의 사회통합 상태를 진단하면서 인식적 측면에 주목하고자 했기 때문에 특히 중요하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제3절에서는 「사회통합 상태 진단을 위한 실태조사」에서 한국인의 사회이동성과 관련된 주요 질문의 설계를 제시하고, 제4절에서 주요 분석 결과를 정리한다. 마지막으로 제5절에서는 분석 결과를 요약하고 정책적 함의를 논하도록 한다.

제6장에서는 제3~5장에서 살펴본 이들 세 가지 구성요소들이 사회통합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그 밖에 향후 우리나라 사회통합 정책에서 다루어야 할 중요한 이슈들을 탐색한다. 사회통합을 구성하는 세 요소인 사회적 포용, 사회적 자본, 사회이동성을 대표하는 각각의 변수들이 사회통합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회귀모형을 통해 확인함으로써 사회통합의 종합적인 상태 진단을 시도한다. OECD에서 정의한 세 가지 요소들은 OECD 국가의 공통적인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개별 국가들의 사회통합과 관련된 특정한 요소들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맥락에서 사회통합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변수들을 발굴하여 그 영향요인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에 마지막 절에서는 소득불평등과 관련한 인식들을 비롯한 몇몇 변수들의 영향력을 탐색적으로 검토해 볼 것이다.

그리고 제7장에서는 연구의 결과를 정리하고, 정책적 함의를 제시한다.

2. 연구 방법

가. 실태조사

이 연구의 가장 핵심적인 연구 방법은 사회통합 상태와 인식을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 방법이다. 근거에 기반한 연구 수행을 위해 매년 주제모듈에 따라 구성된 설문조사를 실시해 왔다. 사회통합 인식과 관련한 일반 사항들은 매년 동일한 척도와 방법으로 설문해 왔고, 그 밖에 매년 주제모듈에 맞는 문항을 구성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1) 조사 방법 및 내용

이 조사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이루어진 사회적 포용(빈곤 및 박탈, 불평등 등)과 사회적 자본(신뢰, 사회참여), 갈등의식(및 관리), 사회이동과 사회통합과의 관계를 종합하여 사회통합 실태를 진단하고 앞으로의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자료를 생산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전국의 만 19세 이상~75세 이하의 남녀를 대상으로 구조화된 조사표를 이용하여 면접조사를 하였다.

조사 단위는 가구 내 1인이며, 19세 이상 75세 이하 가구원 중 생일이 가장 빠른 1인이 응답하도록 하였다. 전국 500개 집계구를 대상으로 각 집계구당 8가구의 조사를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으며, 집계구는 2019년 집계구 리스트에서 추출하였다. 2019년 표본배분은 집계구 수에 대한 제곱근 비례배분 방식을 취하였다. 표본 집계구 대체는 조사 과정에서 응답 거부 또는 재개발 등으로 인한 집계구 소멸 등의 사유로 조사가 불가능한 경우 동일 지역의 집계구로 대체하도록 하였다.

조사 내용은 크게 가구 일반 사항, 응답자 일반 사항, 행복 및 사회통합 인식, 사회적 포용, 사회적 자본, 사회이동, 사회갈등으로 구성되었다. 지난 5년간의 사회통합 상태를 개관하기 위하여 사회통합과 관련한 일반적 인식은 시계열적 비교가 가능하도록 이번 조사에도 포함시켰고, 사회통합의 종합적 상태 진단을 위하여 사회통합의 세 가지 구성요소 즉 사회적 포용, 사회적 자본, 사회이동성에 대한 주요 변수들을 포함시켰다. 영역별 해당 문항들은 기존 조사에서 활용하였던 문항들 중 선행연구에서 활용도가 높았던 문항을 선별하여 포함시켰다.

22 사회통합 실태 진단 및 대응 방안 연구(VI): 사회통합 실태 진단

기존 조사에서 질문하지 않았던 새로운 문항들을 이번 조사에서 추가했다. 우선 사회통합의 세 가지 구성요소별로 최근 우리 사회에서 각각의 상태를 측정하는 데 유용할 것으로 예측되는 문항들을 포함시켰다.

〈표 1-1〉 '사회통합 실태 진단을 위한 실태조사' 개요

구분	내 용	
모집단	전국의 만 19세 이상~75세 이하 남녀	
조사 대상	전국 만 19세 이상(2000년 5월 31일 이전 출생) ~75세 이하(1943년 5월 31일 이후 출생) 남녀 * 외국인 제외(귀화한 경우는 국적을 소지한 경우에 조사)	
표본 단위	가구 내 개인 1인(빠른 생일자)	
표본 크기	전국 500개 집계구(지역) 내 3,889가구(3,889명)	
표본 추출	2019년 집계구 활용 조사 표본 집계구 500개에서 8가구를 계통 추출	
조사 방법	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한 대면 면접조사(Face to Face Interview)	
조사 도구	구조화된 질문지	
조사 기간	2019년 7월 1일~2019년 9월 15일	
조사 문항	가구 일반 사항	가구원 수, 가구원 특성, 가구 형태, 생활비, 공적이전소득, 소득 평가, 재산과 부채, 주거 특성 등
	응답자 일반 사항	가구주와의 관계, 태어난 연도, 성별, 교육 수준, 혼인 상태, 주관적 건강 상태, 만성질환 유무, 장애 여부, 경제활동 상태, 직업, 근로시간, 고용 형태, 종사상 지위, 사회보험 가입 여부 등
	행복 및 사회통합 인식	행복, 우울, 삶의 만족도, 외로움, 사회에 대한 평가, 사회통합에 대한 평가 등
	사회적 포용	소득 격차에 대한 평가, 주관적 소득계층, 빈곤 경험, 사회시설 이용 여부, 박탈경험 등
	사회적 자본	신뢰, 사회참여, 정치참여, 사회적 소속감, 이민에 대한 생각, 사회적 거리감, 부패, 이념적 성향 등
	사회갈등	집단 간 갈등유형별 인식, 세대 및 성별 갈등 원인, 공정성 인식, 정부 역할 등
사회이동성	소득 이동 인식, 생활수준 변화, 생활수준 변화 전망, 세대 내 이동성 전망, 세대 간 이동성 전망, 15세 무렵 학업 성적, 15세 무렵 부모님의 근로 형태 및 직업(직업 위세), 첫째 자녀의 15세 무렵 학업 성적, 첫째 자녀의 근로 형태 및 직업(직업 위세), 자녀의 소득계층 변화 기대 등	
	조사 기관	(주)한국리서치

(2) 응답자 분포

이 조사에서는 표본가구 내에서 대표 응답자를 선정하여 조사하는 방법으로 ‘빠른 생일법’을 이용하였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조사한 응답자의 최종 분포는 다음 <표 1-2>와 같다.

<표 1-2> 응답자 분포

구분		빈도	백분율
전체		3,889	100.00
성별	남성	1,977	50.83
	여성	1,912	49.17
연령	20대 이하	737	18.95
	30대	712	18.32
	40대	807	20.76
	50대	831	21.37
	60대 이상	801	20.60
지역	수도권	1,974	50.75
	비수도권	1,915	49.25
	대도시	1,684	43.30
	중소도시	1,900	48.86
	농어촌	305	7.84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480	12.35
	중하층	1,423	36.59
	중간층	1,772	45.56
	중상층(+상층)	214	5.50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518	13.33
	200만 원대	603	15.50
	300만 원대	644	16.56
	400만 원대	595	15.30
	500만 원 이상	1,529	39.31
학력	중졸 이하	558	14.35
	고졸	1,622	41.70
	대졸 이상	1,709	43.95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1,305	33.56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365	9.38
	고용주·자영자	924	23.77
	무급 가족 종사자	84	2.17
	실업자	134	3.46
	비경제활동인구	1,076	27.67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1,195	71.58
	비정규직	475	28.42
이념적 성향	보수적	938	24.12
	중도적	1,973	50.72
	진보적	978	25.16

주: 월평균소득-무응답5case/ 직업-실업자 및 비경제활동인구 비해당/ 직업안정성-임금근로자만 해당.

(3) 설문지 세부 구성

이번 조사의 가장 큰 목적은 사회통합의 주요 구성요소들에 대한 종합적인 접근을 위한 데이터를 생산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난 5년간 각각의 연구 목적에 맞게 설계된 문항들을 모두 검토하여, 종합적 접근이 가능하도록 기존 문항들을 새로운 체계에 맞게 분류, 재배치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그리고 지난 5년간 다루어지지 않았지만 사회통합에 함의를 줄 수 있을 만한 문항들을 새롭게 개발하여 추가하였다.

(가) 6개년 지속 문항(2014~2019년)

모든 연도의 조사에 동일하게 포함된 문항들은 아래 표와 같다. 가구 및 가구원 일반 사항, 가구의 경제상태는 매년 동일하게 설문하고 있다. 이들 변수들은 주로 분석에서 인구사회학적 특성변수로 활용될 뿐 아니라 회귀모형에서는 통제변수로 주로 활용된다.

그리고 2014년 사회통합 실태조사의 주제모듈이었던 행복과 이와 관련된 심리적 상태에 대해서도 매년 동일하게 설문해왔다. 사회통합의 궁극적 목적인 행복에 초점을 맞추어 사회통합과 행복의 실태와 결정요인, 나아가 사회통합이 행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살펴보기 위해 사회통합 및 행복에 대한 이론을 바탕으로 설문지를 개발하였다. 이때 사회통합에 대한 주요 문항과 행복에 대한 일반적인 문항은 이후 2019년까지의 조사에도 대부분 포함시키고 있다.

〈표 1-3〉 가구 및 가구원 일반, 가구경제 상태 등의 주요 문항

구분		주요 문항
가구 및 가구원 일반 사항	가구 형태 및 가구원 구성	가구원 수, 노인 수, 장애인 수, 만성질환자 수, 아동 수, 실업자 수, 금융채무 불이행자 수
	가구주 및 응답자 일반 사항	성별, 나이, 교육 수준, 혼인 상태, 경제활동 참여 상태, 직업, 직업안정성, 고용 형태 등
	주택 및 거주 형태	주택 유형, 점유 형태
	사회보험 가입 여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여부
가구 경제 상태	생활비	총생활비, 교육비, 의료비, 월세액
	소득	응답자 근로소득, 가구 총소득, 공적이전소득(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자산과 부채	거주 주택 가격, 금융재산, 기타 부동산 및 재산, 부채 총액
행복, 삶의 만족, 우울, 박탈 등		삶의 만족도(전반적 만족도, 생활 영역 만족도), 행복감, 우울감 대인 및 기관, 전반적 사회 신뢰도
사회적 자본		자원봉사 및 사회단체 기부 활동
		투표 여부, 정치적 관심도
		사회집단 간 갈등 인식 정도
		정부의 역할 인식 정도
계층 인식 및 이념적 성향 등		소득계층 인식(현재, 미래), 이념적 성향, 국가에 대한 자부심

(나) 사회통합 인식

2016년에는 객관적 수준으로 측정되는 사회통합 상태와 더불어 우리 국민들이 인식하는 주관적 수준에서의 사회통합 상태를 진단하고자 하였다. 사회통합 국민 인식을 주제모듈로 하여 우리 국민이 생각하는 사회통합의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설문지를 구성하여 2016년 이후 모든 조사에 포함시키고 있다.

〈표 1-4〉 사회통합 인식 관련 주요 문항

구분	문항		
사회통합 수준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사회통합 수준 평가		
사회통합의 조건	사회통합 조건의 중요도		
	사회적 배제(포용성) 수준	경제적 지원, 그룹 간 격차 축소, 다양성 인정	
	사회적 자본 수준	신뢰 증대, 참여 증진	
	사회이동성 수준	기회의 제공, 두꺼운 중산층	
	갈등 관리 수준	갈등 조정, 그룹 간 협력 등	
우리 사회의 상태	우리사회의 상태 진단		
	배제 사회	차별과 소외가 심한 사회 ↔ 배려와 포용의 사회	포용 사회
	불신 사회	서로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사회 ↔ 서로 믿고 살아가는 사회	신뢰 사회
	침체된 사회	활력 없고 침체된 사회 ↔ 활력 있고 희망찬 사회	역동적 사회
	불안 사회	경제적 불안, 미래에 대한 불안이 가득한 사회 ↔ 경제적 희망,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는 사회	희망 사회
	갈등 사회	서로의 주장만 내세우고 남을 배려하지 않는 갈등이 심한 사회 ↔ 서로의 의견을 경청하고 이해하려 노력하는 사회	협조 사회

(다) 사회이동성

2015년에는 사회통합의 세 요소(사회적 배제, 사회적 자본, 사회이동) 중 그동안 사회통합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미흡한 사회이동에 초점을 맞춰 우리나라의 사회통합과 사회이동의 실태, 사회이동이 사회통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사회이동성을 측정할 수 있는 다양한 변수들을 구성하여 설문지에 담았다. 사회이동은 개인의 세대 내 이동과 세대 간 이동으로 구분하였고, 전자는 학교→첫 직장→현 직장의 고용 상태 및 직위 등을 통해 파악하였으며, 후자는 3세대(전 세대-현재세대-미래 세대) 간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통해 파악하였다. 관련 세부 문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1-5〉 사회이동성 관련 주요 문항

구분	시점	주요 조사 항목
본인 (destination, second origin)	현재(조사 시점)	가구 특성 및 개인 특성, 사회경제적 지위, 직업위세, 경제 상태(자산, 소득, 소비지출 등은 3개월 평균) 사회통합 인식 등
	첫 직장 입사 당시	교육 수준, 사회경제적 지위 등
	본인이 15세(중3) 즈음	성장한 곳, 경제적 수준, 학업 성적 등
부모(origin)	본인이 15세(중3) 즈음 (부모가 40세 즈음)	부모 생존 여부, 부모의 경제활동 상태, 사회경제적 지위, 가정의 분위기, 문화자본 등
첫째 자녀 (second destination)	첫째 자녀가 15세(중3) 즈음	첫째 자녀의 경제활동 상태, 사회경제적 지위, 학업 성적, 가정의 분위기, 문화자본 등

(라) 새롭게 구성된 문항

지난 5년간의 조사에서는 다루지 않았던 새로운 문항들을 구성하였다. 사회적 포용에 해당하는 새로운 문항들은 사회시설 이용 여부와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 주요 유형별 다문화수용성, 다문화 수용 방식 등이다. 사회적 자본 영역에서는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 활동, 탄원서 및 청원서 서명, 집회 및 시위 참여 등의 사회참여 경험 여부를 설문하였다. 사회이동성과 관련해서는 세대 간 소득탄력성에 대한 인식(자녀의 소득이 부모의 소득에 얼마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생각하는지)을 포함시켰다. 그 밖에 외로움에 대한 인식, 주관적 빈곤(경험 여부, 경험 기간, 경험 시기), 소득불평등 상태, 우리나라 소득분배 상태, 희망하는 소득분배 상태 등을 묻는 문항들을 추가하였다.

〈표 1-6〉 새롭게 구성된 문항

구분	주요 문항
사회적 포용	사회시설 이용(문화, 교육, 의료, 안전, 생활편의, 대중교통)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 다문화수용성(이민자, 북한이탈주민, 성소수자) 다문화 수용 방식
사회적 자본	사회참여(SNS, 탄원서 및 청원서, 집회 및 시위)
사회이동성	세대 간 소득탄력성
기타	외로움, 주관적 빈곤(경험 여부, 경험 기간, 경험 시기) 소득불평등 상태 소득분배 상태 인지, 소득분배 상태 선호

나. 사회통합포럼 운영

이와 더불어 총 3차례의 사회통합 포럼을 운영하였다. 제1차 사회통합포럼은 2018년 주제모듈인 ‘사회갈등과 사회통합’의 주요 연구 결과를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의 춘계학술대회 한 세션에서 발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제2차 사회통합포럼은 최근 일본의 사회적 배제와 사회정책의 방향, 청년정책의 방향에 대한 주제발표와 토론으로 구성하였고, 제3차 사회통합포럼은 사회적 포용의 관점에서 그간 주요하게 다루어지지 않았던 우리나라의 다문화 정책에 관한 주제를 다루었다. 이와 같이 사회통합포럼은 연구 성과를 발표하고 전문가 토론 등을 통해 대중과 소통하는 기회를 가지는 것과 당해 연도 연구 수행 또는 향후 연구기획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한다는 의미를 가진다.

지금까지 총 3회에 걸친 포럼을 통해 발제자들의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발표 자료와 토론 내용을 통해 최신 연구 동향을 파악하고 이를 연구과정에서 참고하였다.

〈표 1-7〉 2019년 사회통합포럼 개요

구분	일시	주제	발표제목, 발표자	토론자
1차	5월 24일	한국인의 사회갈등과 사회통합 인식	갈등과 사회통합 인식의 세대 및 계층 간 격차 -김문길·우선희(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봉균 (충남시민연구소)
			한국사회 젠더 갈등 및 불평등 인식에 대한 연구 -류연규(서울신학대)·정해식(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영미 (동서대 사회복지학과)
2차	9월 4일	사회적 배제와 청년정책-한국과 일본 사례	일본 복지국가의 해체와 사회적 배제 -안주영(일본 류코쿠대학 정치학과)	이민규 (충북대 행정학과)
			해방적 '청년팔이'의 가능성에 대한 검토 : 청년정책과 청년운동의 맥락에서 -김선기(신촌문화정치연구그룹)	정세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차	10월 22일	한국의 이주민 포용 실태와 사회통합 과제	국내 이민 현상과 사회통합 -김혜순(계명대 사회학과)	주유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주민에 대한 사회적 포용 실태 -곽윤경(한국보건사회연구원)	최인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다. 기타

장별로 주요 개념 정의를 위한 이론적 검토를 문헌연구를 통해 수행하였고, 관련된 2차 자료를 수집하여 참고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전술한 사회통합포럼의 발표와 토론을 전문가 자문회의로 활용하였다. 구체적인 방법들은 해당 장에서 별도로 소개하기로 한다.

3. 연구 구성과 방법의 개관

이상과 같은 연구 내용과 연구 방법은 아래 표와 같이 개관할 수 있다.

제2장에서는 전체적인 사회통합 관련 인식(사회통합 정도, 행복도, 삶의 만족도, 우울감, 사회상, 정부의 역할, 사회통합 조건)에 대해 진단하고, 제3장에서 제5장까지는 사회적 포용, 사회적 자본, 사회이동성을 사회통합의 구성요소로 정의하며 이들 각각의 상태 진단과 사회통합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그리고 제6장에서 이들 세 가지 요소가 사회통합 인식에 미치는 영향의 상대적 크기를 진단하는 것으로 사회통합 상태의 종합적 진단을 시도한다. 더불어 같은 장에서 사회통합 정책 연구의 새로운 이슈들을 탐색한다.

〈표 1-8〉 연구의 내용과 연구 방법

구분	내용		연구 방법 또는 특징
사회통합 인식 일반 (제2장)	상태 진단	5년간 선행연구 주제모델별 검토	- 선행연구 검토 및 정리
		사회통합 정도, 행복도, 삶의 만족도, 우울감	- 기술통계 분석 - 인구집단별(성, 연령, 학력, 객관적 소득계층, 주관적 소득계층) 비교 - 시계열 변화(2016~2019년)
		사회상에 대한 인식	
		정부의 역할	
		사회통합의 조건	
+			
사회적 포용 진단 (제3장)	상태 진단	개인의 포용 상태	- 기술통계 분석
		포용 과정에 대한 인식	
	사회적 포용의 사회통합 인식 영향		- 상관분석 - 회귀분석(OLS)
+			
사회적 자본 진단 (제4장)	상태 진단	신뢰(공적 신뢰, 타인 신뢰)	- 기술통계 분석
		참여(시민참여, 정치집단 참여, 정치 참여)	
		네트워크	
	사회적 자본의 사회통합 인식 영향		- 상관분석
	사회적 자본의 다문화수용성 영향		- 회귀분석(OLS)
+			
사회이동 진단 (제5장)	상태 진단	객관적 차원의 사회이동성 (학력, 소득, 사회계층)	- 기술통계 분석 - 이행행렬(transition matrix)
		인식적 차원의 사회이동성	
	사회이동성의 사회통합 인식 영향		- 회귀분석(OLS)
=			
다차원적 진단 (제6장)	사회통합 인식 결정요인		- 제약하 선형회귀모형 분석 (constrained linear regression)
	불평등 인식, 주관적 빈곤감,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 다문화수용성		- 상관분석 - 회귀분석(OL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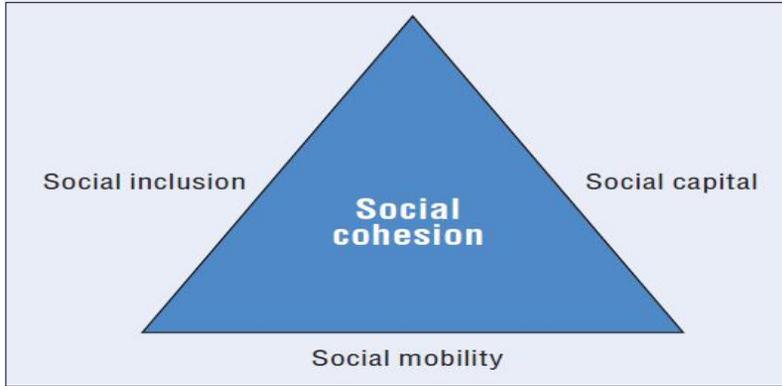
제3절 사회통합 개념의 이론적 검토

1. 정책 영역

오늘날 국제적으로 널리 통용되고 있는 사회통합의 개념은 세 가지를 꼽을 수 있다. 국가별 상황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개념들로 유럽 평의회(Council of Europe)의 개념 정의(Europe, 2008), 캐나다 정부의 개념 정의(Jeannotte, 2003) 그리고 이 연구에서 주목하고 있는 OECD의 개념 정의(OECD, 2011)가 그것이다. 먼저 유럽 평의회는 사회통합을 “모든 구성원의 웰빙을 보장하고, 격차를 최소화하고 소외를 회피하는 사회의 능력”으로 정의한다. 캐나다 정부는 “모든 캐나다인의 신뢰, 희망 및 상호성의 인식에 기반한 캐나다 내에서 공유된 가치, 공유된 과제 및 동등한 기회를 가지는 커뮤니티를 발전시키는 지속적인 과정”으로 정의한다. 한편 OECD는 통합된 사회를 “모든 구성원의 웰빙을 위해 노력하고, 배제와 소외를 극복하며 소속감을 만들고, 신뢰를 증진시키며, 구성원들에게 상향이동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회로 정의한다(OECD, 2011; Xavier, 2018. p. 245).

국내의 여러 연구들이 주로 참고하고 있는 OECD의 개념 정의에 따르면 사회통합은 사회적 포용, 사회적 자본, 사회적 이동의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이들 요소는 사회통합이 잘된 사회의 모습 또는 사회통합이 잘 되기 위한 조건이라 할 수 있다. 사회통합이 잘된 사회는 첫째, 빈곤, 불평등 및 사회적 양극화 등과 관련되는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와 반대되는 상황으로 사회적 포용(social inclusion)이 이루어진 사회이다. 둘째, 사회적 신뢰와 다양한 시민 참여로 구성되는 사회적 자본이 잘 구성되어야 한다. 셋째, 사회 내에서 사회경제적 지위의 상향이동이 가능한 상황 또는 가능성을 믿는 정도로 사회이동성이 커야 한다(여유진, 정해식 외, 2015, p. 13; 정해식 외 2016, pp. 36-37).

[그림 1-1] OECD(2011)의 사회통합 구성 요소



자료: OECD(2011, p. 54); 정해식 외(2016, p. 36)에서 재인용.

2. 사회통합 상태와 조건의 다차원성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사회통합의 세 가지 개념을 소개하였는데, 이에 대한 한계가 지적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공유된 가치(shared value)는 사회에 속한 개인의 배경 차이를 고려하지 못한다거나, 상호성(reciprocity)은 자발적인 사회참여와 같은 개인의 동기를 고려하지 못한다는 것 등이다(Bulmer and Solomos, 2017; Xavier, 2018, p. 245). 이 같은 비판은 사회통합의 개념이나 상태, 조건을 정의하는 데 지역적, 시대적 특성과 구성원의 다양한 동기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앞 절에서 정리했던 사회통합 정책영향 평가사업의 일련의 연구에서 사회통합의 개념을 본격적으로 정리한 연구는 1차 연도 연구인 김미곤 외(2014)이다. 동 연구는 각 사회가 직면하는 문제와 이를 해결함으로써 도달하고자 하는 사회통합의 상이 제각기 다르기 때문에 사회통합에 대한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개념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을 전제로 논의를 출발한다(김미곤 외, 2014, p. 33).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사회통합의 개념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가 현시점에서 해결해야 할 사회문제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조건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이러한 과정은 사회통합을 위한 다양한 정책 영역과 세부과제를 도출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선행연구들이 정의하는 사회통합의 개념과 그에 부합하는 영역 및 지표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의 맥락에서 사회통합의 다양한 정책 영역을 검토해 볼 수 있다.

강신욱 외(2012)는 사회통합의 관점에서 우리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소득분

배구조의 약화로 인한 사회적 격차의 확대, 고용구조의 약화로 인한 사회적 격차의 확대, 고용구조의 약화로 인한 빈곤 가능성 증가, 그에 따른 사회적 위험의 확대 등 객관적 요인”으로 꼽고 있다(강신욱 외, 2012, p. 31; 김미곤 외 2014, pp. 33-34). 이 같은 진단에 근거하여 강신욱 외(2012)는 국제 비교를 목적으로 사회적 결속, 사회적 안정성, 사회적 형평성을 사회통합 지표의 하위 체계로 구성하였다. 체계별 세부 지표는 아래 표와 같다.

〈표 1-9〉 강신욱 외(2012)의 사회통합 지표

사회적 결속 지표(10개)	사회적 안정성 지표(6개)	사회적 형평성 지표(7개)
선거 참여	1인당 GDP	소득 불평등
선거 외 참여	부양인구비율	빈곤율
정치적 관심	자살률	고용률
사회참여	1인당 CO ₂ 배출량	실업률
집단 간 관계	기대 수명	고용보호의 정도
일반 신뢰	주관적 건강상태	공공의료비 지출 비율
기관 신뢰		공공사회지출 비율
부패 인식		
관용		
생활만족도		

자료: 강신욱 외(2012, p. 11); 김미곤 외(2014, p. 42)에서 재인용.

사회통합 측정과 관련된 연구들에서 사회통합 상태와 사회통합 조건을 구분하고 있으며, 사회통합의 개념 정의나 지표 구성에 상태와 조건을 모두 포괄하고 있다. 이는 사회통합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그 조건의 차원도 고려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 근거한다. 따라서 사회통합의 조건은 사회통합의 전략 목표로 드러나게 된다. 물질적 조건의 확보를 사회통합의 요소로 보는 연구로 노대명 외(2010)를 꼽을 수 있다. 이들은 사회통합의 상태를 사회통합의 주관적(인식적) 측면과 객관적(행동적 표출) 측면을 구분하고 있다. 그리고 사회통합은 시민사회 내부의 통합과 시민사회와 정부 간의 통합으로 구분하여 각각에 해당되는 세부 지표들을 설정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1-10〉 노대명 외(2010)의 사회통합의 영역 구성

구분	주관적 요소(사람의 마음 상태)	객관적 요소(행동적 표출)
시민사회 통합	- 시민에 대한 일반 신뢰 - 다른 사회집단의 사람을 포함한, 동료시민과 협력 및 도움에 의지 - 소속감 혹은 정체성	- 사회참여와 시민사회의 활력 - 자원봉사 및 기부 - 주요 집단간 연합 및 괴리의 여부
시민사회 - 정부 통합	- 공적 인물에 대한 신뢰 - 정치 및 사회 제도에 대한 신뢰 - 소속감 혹은 정체성	- 정치참여(투표, 정당 등)

자료: 노대명 외(2010, p. 95); 김미곤 외(2014, p. 39)에서 재인용.

또한 노대명 외(2010)는 사회통합의 조건지표로 소득, 고용, 교육, 건강, 주거, 가족, 금융, 정보의 영역에서의 절대적 박탈과 상대적 격차를 구분하여 세부 지표들을 제시하고 있다. 기본지표는 소득, 고용, 교육, 건강, 주거의 다섯 가지 영역으로 구성하고, 이들은 다시 절대적 박탈과 상대적 격차로 구분해서 세부 지표들을 구성하였다. 그 외 추가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지표에 가족, 금융, 정보의 영역을 포함시켰고, 역시 이들을 절대적 박탈과 상대적 격차로 구분하여 각각에 해당하는 세부 지표를 제시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1-11〉 노대명 외(2010)의 사회통합 조건지표 영역 및 영역별 지표

구분	절대적 박탈	상대적 격차
기본 지표	소득 - 빈곤율 - 근로빈곤율(또는 취업빈곤율) - 박탈지수(*)	- 소득배율(5분위 소득 격차) - 중산층 비율(*)
	고용 - 실업률 - 저임금(저소득)근로자 비율	- 비정규직근로자 비율 - 성별/학력별/규모별 임금 격차
	교육 - 학교진학률/미진학률 - 중도탈락학생 비율	- 사교육비 격차(*) - 소득계층별 학업성취도 격차(*)
	건강 - 의료소외층(*) - 의료비 과부담가구 비율(*)	- 소득계층별 질환발생률(*) - 소득계층별 건강보험 자부담금액(*)
	주거 - 주거상실계층 비율(*) - 자산빈곤율(*)	- 주거비 과부담가구 비율(*) - 소득계층별 자산 격차(*)
추가 검토 지표	가족 - 이혼율 - 자살률	- 소득계층별 이혼율(*) - 소득계층별 자살률(*)
	금융 - 금융채무불이행자 비율(*) - 부채상환 연체율(*)	- 소득계층별 부채비율(*) - 소득계층별 부채상환 연체율(*)
	정보 - 인터넷미활용인구 비율	- 소득계층별 인터넷미활용인구 비율(*)

주: * 표시는 실제 분석에서는 제외한 지표임.

자료: 노대명 외(2010, p. 120); 김미곤 외(2014, p. 40)에서 재인용.

정해식 외(2016)는 사회통합 수준의 국제비교를 시도하면서 강신욱 외(2012)가 제시한 사회통합 정책 영역인 사회적 결속력, 사회적 안정성 그리고 사회적 형평성을 그대로 따랐다. 다만 안정성과 형평성을 사회통합의 상태인 결속력을 위한 조건으로 분류하였고, 앞선 두 연구에서는 인식과 같은 주관적 지표와 객관적 지표가 혼재되어 있는 것과 달리 사회통합과 관련된 인식의 주관적 지표로만 구성했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진다. 사회적 결속력 지표는 삶의 만족도 및 행복 인식, 신뢰 및 갈등 인식, 네트워크 및 사회활동 참여의 영역으로 구성하였다.

〈표 1-12〉 정해식 외(2016)의 국제 비교를 위한 사회통합 지표 체계

구분		영역	지표
상태 지표	사회적 결속력 지표	삶의 만족도 및 행복 인식	가구 소득 만족도
			개인 소득 만족도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
			행복도
		신뢰 및 갈등 인식	타인에 대한 신뢰
			타인의 이타심 인식
			타인의 공정성 인식
			성공 관련 부패 인식
			정치 영역의 부패 인식
			빈부 갈등 인식
			노사 갈등 인식
		네트워크 및 사회활동 참여	사회활동 참여 정도의 인식
			친교활동 정도
자원봉사 참여 정도			
조건 지표	사회적 안정성 지표	안전 및 건강 인식	안전 인식
			최근 5년 위해 경험
			건강 상태 인식
			건강문제로 인한 일상생활 곤란 경험
	사회적 형평성 지표	정부의 역할 인식	소득 격차 완화 노력
			실업자에 대한 정부 지원
			빈곤층에 대한 정부 지원

자료: 정해식 외(2016). 사회통합 실태 진단 및 대응 방안(III) - 사회통합 국민 인식, p. 68

제 2 장

사회통합 정책영향평가 주요 내용 및 사회통합 인식 변화

제1절 사회통합 정책영향평가 주요 내용

제2절 사회통합 인식의 변화

2

사회통합 정책영향평가 주요 내용 및 << 사회통합 인식 변화

제1절 사회통합 정책영향평가 주요 내용

이 절에서는 사회통합 정책영향평가 사업의 선행연구를 정리한다. 「사회통합 실태 진단 및 대응 방안 연구」는 최근 5년간 매년 주제모듈을 설정하여 설문조사를 통해 사회통합의 구성요소를 탐색하고 결정요인을 분석해 왔다. 1차 연도인 2014년에는 ‘사회통합과 행복’을 주제로 사회통합과 그 궁극적인 지향점인 행복을 탐색하였다. 2015년에는 ‘사회통합과 사회이동’을 주제로 하여 우리나라의 세대 내, 세대 간 사회이동성을 탐색하기 위한 설문을 실시하고, 이를 이용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이동성을 진단하였다. 2016년에는 ‘사회통합과 국민 인식’을 주제로 사회통합과 관련되는 다양한 국민 인식을 조사하여 주요한 주제별로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2017년에는 ‘사회문제와 사회통합’을 주제로 우울, 자아탄력성, 스트레스 등의 지수를 활용하여 사회병리의 사회경제적 맥락을 탐색하였다. 그리고 2018년에는 ‘사회갈등과 사회통합’을 주제로 하여 세대갈등, 젠더갈등, 공공갈등 등 사회갈등의 다양한 측면들을 살펴보고 사회통합과의 인과관계를 규명하였다.

1. 사회통합과 행복(2014년)

2014년 사회통합 실태 진단 주제모듈은 사회통합의 궁극적인 지향점을 국민의 행복으로 설정하고, 사회통합 인식 결정요인, 행복의 개념과 수준, 행복의 결정요인을 분석하고 사회통합과 행복 간의 관계와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사회통합의 개념을 ‘한 사회가 공동의 목표를 향해 조화롭게 결속된 상태’로 정의하고 사회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주관적 계층의식에서 하층의 비율 증가, 사회참여 비율 개선, 사회에 대한 신뢰수준 증가 등의 결과를 제시하였다. 실태조사를 통해 전반적인

로 낮은 신뢰수준, 공정성 인식, 사회활동참여 수준을 확인했다. 사회통합 인식의 결정요인으로 빈곤 및 불평등의 인식, 사회자본으로서 신뢰 및 사회참여, 갈등의식을 설정하고 회귀분석과 로짓분석을 실시하였다. 빈곤 및 불평등 인식과 관련한 변수로 주관적 소득계층과 이념적 성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고, 사회참여에서는 성, 연령, 학력, 상대빈곤, 주관적 소득계층이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였으며, 사회적 신뢰에서는 연령, 경제활동 상태, 이념적 성향이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였다. 행복의 결정요인으로 개인특성 중에서는 비가구주, 여자, 유배우자의 행복도가 높고, 가구특성 중에서는 가구원 수가 증가할수록, 가구원 중에 노인, 장애인, 만성질환자, 실업자 등이 있는 경우 행복도가 낮은 것으로 확인된다. 사회통합 수준이 주관적 행복에 미치는 영향 분석 결과 사회적 신뢰, 사회활동 참여는 주관적 행복에 긍정적 영향을, 사회불공정 인식은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조건인 소득, 재산, 부채는 행복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만 소득은 주관적 계층의식과 생활수준에 대한 기대변수가 투입될 경우 그 영향력이 줄어들지만 부채와 재산은 다른 요인들을 통제하더라도 행복에 매우 유의미한 영향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했다.

2. 사회통합과 사회이동(2015년)

사회적 배제, 사회적 자본, 사회이동은 사회통합의 세 요소로 거론되지만 다른 두 요소에 비해 사회이동과 사회통합의 관계를 다루는 연구는 희소하다. 이는 사회통합과 사회이동 실태 및 인식을 통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자료가 미비하였던 것에 기인한다. 이에 사회통합과 사회이동을 아우를 수 있는 설문지를 개발하고 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바탕으로 사회통합과 사회이동의 관계를 심층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정책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코호트별 사회이동의 현황, 교육 성취와 사회이동, 사회이동과 사회통합 인식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먼저 코호트별 사회이동의 현황에서는 세대를 3개의 코호트, 즉 산업화 세대(1940년생~59년생), 민주화 세대(60~74년생), 정보화 세대(75~95년생)로 구분하고 코호트별로 부모 세대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녀 세대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얼마나 연관성을 가지는지 그리고 자녀 세대의 학업성취가 사회경제적 지위 결정에 어떤 매개적 효과를 가지는지를 실증 분석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주요 변수는 아래 표와 같다.

〈표 2-1〉 코호트별 사회이동 현황 분석 주요 변수

변수		대리변수	조작적 정의
종속 변수	본인의 교육 수준	본인의 학력	중졸 이하, 고졸, 대학 이상
	본인의 경제적 수준	본인의 임금	ln(지난 3개월 동안 본인의 월평균소득)
		본인의 가구소득	ln(지난 3개월 동안 월평균 총가구소득)
	본인의 주관적 계층(5개 범주)		하층, 중하층, 중간층, 중상층, 상층
본인의 계급지위	직종	관리전문직, 사무직, 서비스·판매직, 숙련기능직, 단순노무직	
	사회적 계급지위	관리전문직, 정규직 화이트칼라, 자영자, 정규직 블루칼라, 비정규직 화이트칼라, 비정규직 블루칼라, 단순노무직	
독립 변수	부모의 경제적 수준	주관적 계층(5개 범주)	하층, 중하층, 중간층, 중상층, 상층
	부모의 계급지위	직종	관리전문직, 사무직, 서비스·판매직, 숙련기능직, 단순노무직
		사회적 계급지위	관리전문직, 정규직 화이트칼라, 자영자, 정규직 블루칼라, 비정규직 화이트칼라, 비정규직 블루칼라, 단순노무직
통제 변수	연령	코호트	산업화 세대(1940~59년생), 민주화 세대(60~74년생), 정보화 세대(75~95년생)
		연령	만 나이
	성장 지역	15세 무렵 성장 지역	서울, 광역시, 중소도시, 농어촌

자료: 여유진 외(2015). 사회통합 실태진단 및 대응방안 II - 사회통합과 사회이동. p. 36.

분석 결과는 첫째, 직업지위와 사회경제적 계층에서 양쪽 꼬리(하층과 상층)에서의 고착화가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지위에서는 전문관리직, 사회경제적 계층에서는 중상층 이상과 하층의 지위 고착화가 두드러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세대별로는 젊은 세대일수록 사회경제적 계층의 세습과 고착화가 더 강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본인의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세대별 차이가 발견되었다. 산업화 세대는 본인의 학력이, 민주화 세대는 부모의 학력과 본인의 학력이, 정보화 세대는 부의 학력과 더불어 가족의 경제적 배경이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정보화 세대에서는 본인 학력의 영향력이 사라지는데, 이는 부분적으로 전반적인 고학력화의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음으로 교육 성취와 사회이동의 관계는 우리나라에서 교육이 여전히 계층이동의 사다리로서 기능하고 있는지를 규명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부모의 배경에 따른 교육 수준의 분포를 연령대별로 비교하고, 낮은 사회계층에서 높은 학업성취도를 보인 집단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확인하였다. 그리고 교육 성취에 미치는 사회경제적 요인들을 연령대별로 비교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주요 변수는 아래 표와 같다.

〈표 2-2〉 교육 성취와 사회이동의 관계 분석 주요 변수

변수		대리변수	조작적 정의	
부	교육 수준	최종 학력	중졸 이하, 고졸, 전문대졸 이상	
	사회경제적 지위	15세 무렵 계층	하층, 중하층, 중간층, 중상층, 상층	
본인	교육 수준	최종 학력	중졸 이하, 고졸, 전문대졸, 대졸, 대학원졸	
		15세 무렵 학업 성적	하위, 중하위, 중위, 중상위, 상위	
	사회경제적 지위	근로 형태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고용주·자영자, 무급가족종사자, 실업자	
		근로소득	3개월 평균 월소득	
		근로소득 분위	1~5분위	
	종속 변수	교육 수준	15세 무렵 학업 성적	1. 최하~10. 최상
	독립 변수	부의 교육 수준	최종 학력	중졸 이하, 고졸, 대졸 이상
		부의 직업 위세	경제적 보상 수준	1. 매우 높다~5. 매우 낮다
		부의 계층	15세 무렵 주관적 계층	최하 1~최상 10
	통제 변수	성장 지역	15세 무렵 성장 지역	서울, 광역시, 중소도시, 농어촌
부의 동거 여부		15세 무렵 함께 생활	1 예. 2 아니요	
성별		첫째 자녀 성별	남성, 여성	

자료: 여유진 외(2015). 사회통합 실태진단 및 대응방안 II - 사회통합과 사회이동. p. 74.

분석 결과는 첫째, 부모의 학력 수준에 따른 자녀의 학업 성적과 학력 수준의 분포를 세대별로 비교해 본 결과 전반적인 학력 수준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자녀의 학업성취 상향이동성이 둔화하고 있었다. 둘째, 연령이 낮을수록 하위계층에서 성적이 우수한 학생이 나올 확률이 낮아졌으며, 노동시장 지위(근로 형태)나 근로소득(분위별 분포)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우 역시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감소하고 있었다. 셋째, 교육 성취 결정요인 분석 결과, 부의 학력은 기대만큼 자녀의 학업 성적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지

만, 15세 무렵의 주관적 계층수준과 사회적 자본의 수준은 모든 연령대에서 사회이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그러한 효과는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더 커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세대 내 사회이동과 세대 간 사회이동으로 구분하여 사회이동의 주관적 인식과 실제적 경험이 사회통합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주요 변수는 아래 표와 같다.

〈표 2-3〉 사회이동과 사회통합 인식 관계 분석 주요 변수

변수		측정	
중속 변수	사회통합 인식지수	- 사회통합인식지수 ① 한국 사회 소득 격차에 대한 인식 ② 한국 사회에 대한 신뢰 ③ 세대 내 사회 이동성에 대한 인식 ④ 세대 간 사회 이동성에 대한 인식	
독립 변수	사회 이동 경험	주관적 인식	① 본인의 사회적 계층 변화 ② 부모님과 본인의 사회적 계층 차이
		객관적 지표 (상대적)	① 본인의 교육 수준 변화 ② 배우자의 교육 수준과의 차이 ③ 부모님과 본인의 교육 수준 변화 ④ 본인과 자녀의 교육 수준 변화
		객관적 지표 (절대적)	① 본인의 교육 수준 변화 ② 배우자의 교육 수준과의 차이 ③ 부모님과 본인의 교육 수준 변화 ④ 본인과 자녀의 교육 수준 변화
통제 변수	개인요인	- 응답자의 나이 - 응답자의 고용 형태(기준: 상용정규직 외)	
	가족요인	- 가구 월평균 총소득(로그변환) - 주거 점유 형태(기준: 자가 외 기타) - 상속·증여 경험(기준: 없음)	
집단 변수	세대 구분	- 산업화 세대, 민주화 세대, 정보화세대로 구분 ① 산업화세대는 1959년 이전 출생자 ¹⁾ ② 민주화세대는 1960~1974년생 ③ 정보화세대는 1975년생 이상	
	소득계층	- 하위계층과 중산층 이상으로 구분 ① 소득계층 하층과 중하층 포함 ② 소득계층 중간층과 중상층, 상층 포함	

자료: 여유진 외(2015). 사회통합 실태진단 및 대응방안 II - 사회통합과 사회이동. pp. 111~112.

분석 결과는 첫째, 사회통합에 대한 인식은 산업화 세대에서 가장 높고 민주화 세대, 정보화 세대의 순으로 나타났다. 모든 세대에서 세대 간 사회이동의 주관적 인식이 사회통합 인식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사회통합 인식에는 연령이나, 소득계층(특히 소득 하위층), 주거 점유 형태, 고용 형태 등의 귀속적 요인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3. 사회통합과 국민 인식(2016년)

2016년 사회통합 실태 진단 주제모듈은 사회통합 국민 인식이었다. 한국인의 사회통합 인식 구성, 사회갈등과 사회통합 인식, 박탈과 사회통합 인식 간의 관계, 행복과 사회통합 인식 간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한국인의 사회통합 인식 구성에서는 첫째, 한국의 사회통합 정도에 4.18점을 주고 있는데, 이는 일반적 상태보다 통합의 정도가 낮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둘째, 사회적 포용 영역을 강조하는 경우 사회통합 상태를 긍정적으로, 사회적 이동성의 영역을 강조하는 경우 사회통합 상태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을 발견하였다. 셋째, 사회통합 중요도 평가에서 상이한 인식 구조를 가지는 네 집단을 확인하였는데, 대표적인 집단은 모든 영역이 대체로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집단이었다.

사회갈등과 사회통합과 관련한 분석에서는 첫째, 우리 국민들은 여러 갈등 중에서 정규직-비정규직 간 갈등을 가장 심각하게 인식했다. 둘째,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갈등으로는 빈부갈등, 이념갈등,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갈등 순으로 응답했다. 셋째, 사회갈등 인식 결정요인으로는 사회적 포용, 사회적 자본, 세대 간 사회이동성 인식이 부의 인과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확인된다. 분석에 사용된 주요 변수는 아래 표와 같다.

〈표 2-4〉 사회갈등과 사회통합 관계 분석 주요 변수

변수		설명	
종속 변수	사회갈등 수준	현재 우리 사회는 갈등이 심한 사회이다(0~10점)	
독립 변수	일반	이념 성향(보수적, 중도, 진보적) 지역(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부패 수준	정치 영역에서의 부패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0~6점) 경제 영역에서의 부패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0~6점)	
	사회 통합 요소	사회적 자본	한국 사회에 대한 평가: 서로 믿지 못하는 사회 또는 서로 믿고 살아가는 사회(0~10점)
		사회적 포용	한국 사회에 대한 평가: 차별과 소외가 심한 사회 또는 배려와 포용의 사회(0~10점)
사회이동성		(세대 내 이동성) 일생 동안 노력을 한다면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1~4점) (세대 간 이동성) 본인 세대에 비해 자식 세대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어떻게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1~4점)	
통제 변수	성	남=0, 여=1	
	연령	19~75세	
	학력	중졸 이하, 고졸, 대졸 이상	
	소득 수준	로그 총소득 주관적 소득 계층(하층, 중하층, 중간층, 중상층, 상층)	

자료: 정해식 외(2016). 사회통합 실태 진단 및 대응방안(III). - 사회통합 국민 인식. p. 117.

객관적 박탈의 상태가 심리사회적 결과로서 사회통합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는 첫째, 문화생활과 미래 불안정에 대한 대비 영역에서 박탈 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둘째, 연령별로 박탈의 양상이 달리 나타나는데 노인은 대부분의 영역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박탈을 경험하고 있으며, 중장년층에서 1년간 한 가지 이상의 박탈을 경험한 비율이 11.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청년의 경우 주거의 질이 다른 연령 집단에 비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복과 사회통합 인식 간의 관계는 사회통합의 궁극적인 목적이 사회 구성원 개개인의 행복의 질과 총량 증진에 있다는 점에서 실증적 규명이 필요하다. 분석 결과 첫째, 삶의 만족도가 높고 사회통합 인식이 긍정적일수록 소득, 자산, 부채 등 경제적 특성이 긍정적으로 나타나는 반면 소비는 사회통합 인식이 낮지만 삶의 만족도가 높은 집단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둘째, 사회통합 인식은 행복과 삶의 만족도, 유데모닉 행복을 증진시키고 우울을 감소시킨다.

4. 사회문제와 사회통합(2017년)

2017년 사회통합 실태 진단 주제모듈은 사회병리 등 사회문제로 설정하였다. 트라우마 경험과 정신건강 간 관계, 물질적 박탈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갈등과 정신건강의 사회경제적 맥락과 사회통합, 사회적 불안과 사회통합의 세부 연구 주제를 다루었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트라우마 경험과 정신건강 간의 관계는 불안, 불신, 불만이라는 사회문제 현상의 근저에 개인의 심리적 차원의 문제와 사회적 차원의 문제가 존재한다고 보고 관련 문제들의 상호관련성을 분석하는 목적을 가진다. 연구 결과 첫째, 최근 1년간 부정적 생활사건 경험, 평생의 부정적 생활사건 경험 빈도, 자아탄력성이 우울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둘째, 트라우마 경험과 정신건강 간 부적 연관성이 나타났고, 부정적 생활사건을 많이 경험할수록 우울할 가능성, 자살생각을 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물질적 박탈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다른 요인을 통제했을 경우 박탈 수준은 우울 수준을 설명하는 매우 유의미한 변수로 확인된다. 둘째, 박탈 상태는 특히 자살 생각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사회적 지지수준은 자살 생각을 줄이는 데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된다. 셋째, 박탈을 영역별로 보면 기초박탈은 자살 생각에는 유의미하지 않은 데 비해 주거박탈은 특히 중장년기 자살 생각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지지 전 연령층에서 자살 생각을 줄이는 데 매우 유의미한 변수로 확인된다.

갈등과 정신건강의 사회경제적 맥락과 사회통합 부분에서는 사회병리와 사회갈등을 유발하는 '원인의 원인'을 탐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에 사용된 주요 변수는 다음 표와 같다.

〈표 2-5〉 갈등과 정신건강의 사회경제적 맥락 분석 주요 변수

변수		설명
정신건강 (독립/종속 변수)	자아탄력성	14개 문항의 평균(1~4) (또는) 총점수(0~56)
	스트레스 척도	1~5점을 0~4점으로 변환. 일부 문항 역코딩. 10개 문항의 변환된 점수의 합(0~40점)
	우울 척도	1~4점을 0~3점으로 변환. 일부 문항 역코딩. 11개 문항의 변환된 점수의 합(0~33점) (또는) 총점이 9점 이상이면 1(우울), 미만이면 0(비우울)
사회갈등 (독립/종속 변수)	갈등 인식	전반적 갈등 인식 점수(0~3점)
	유형별 갈등 인식	9개 유형별 갈등 인식 점수(0~27점)
	원인별 갈등 경험	원인별 경험 갈등 수(1~5점)
	가족 간 갈등 경험	가족 간 갈등 경험 합계(1~8점)
사회경제적 특성 (변수)	빈곤	균등화 중위소득(총소득) 50% 기준
	박탈 지표	7개 물질적 박탈 지표 점수 합계(0~7점)
	비자발적 실업 경험 (더미)	지난 5년간 비자발적 실업 경험 여부
사회통합 (종속 변수)	사회통합 인식	사회통합 인식(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0~매우 잘 이루어지고 있다 10)
통제 변수	성(더미)	남=0, 여=1
	연령(더미)	청년(19~34세)=0, 중장년(35~64세)=1, 노인(65세 이상)=2
	학력(더미)	중졸 이하=0, 고졸=1, 대졸 이상=2
	소득 수준	로그 총소득

자료: 정해식 외(2017). 사회통합 실태 진단 및 대응방안(IV). - 사회문제와 사회통합, p. 131.

분석 결과 첫째, 갈등 유형 중 경제적 갈등이 증가세에 있으며 이념갈등이 급증한 것이 특징적이다. 갈등 경험의 원인은 정치적 견해, 세대, 문화 등의 순이었고 남성, 중장년, 대졸 이상 집단에서 갈등 경험이 많았다. 특히 빈곤, 실업과 같이 열악한 사회경제적 상황에서 갈등 경험을 많이 했다. 둘째, 정신건강 지표를 세대별로 비교한 결과 빈곤, 비자발적 실업 경험, 장기 실업자의 자아탄력성이 낮고, 스트레스는 실업과 매우 높은 상관관계를 보인다. 우울 역시 빈곤층, 실업 경험 집단에서 높게 나타난다. 셋째, 갈등과 정신건강의 사회경제적 맥락을 살펴본 결과 물질적 박탈과 비자발적 실업 경험과 같이 사회경제적 취약성에 노출된 경우 갈등 인식과 경험이 악화되었다. 이 경우 스

트레스와 우울에 대한 부정적 영향도 발견된다. 물질적 박탈과 비자발적 실업 경험은 갈등 경험과 정신건강을 매개로 사회통합 인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사회적 불안과 사회통합 관련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생애주기 관련 위험에 대한 불안과 경제생활 관련 위험에 대한 불안에는 개인의 자원 속성이 반영되었다. 둘째, 불안함의 정도는 사회통합 인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셋째, 공정성 및 부패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일수록 사회통합 인식이 부정적이었다. 넷째, 이러한 사회구조 인식은 사회적 위험 인식으로부터 나타나는 부정적인 사회통합 평가를 매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사회갈등과 사회통합(2018년)

2018년 사회통합 실태 진단 주제모듈은 사회갈등이다. 이 연구에서는 사회계층에 따른 갈등 인식과 (재)분배에 대한 태도, 젠더갈등과 사회통합, 세대별 인식의 분기와 사회통합, 공공갈등과 사회통합을 다루었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먼저 사회계층에 따른 갈등 인식과 재분배에 대한 태도 분석 결과 첫째, 우리 사회의 계층갈등은 객관적 소득계층보다는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계층 간에 더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둘째, 우리 사회가 불평등하고 불공정하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으며, 특히 하층이 중상층에 비해 이러한 인식이 더 강하게 나타난다. 셋째, 일생 동안 노력하면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것이라는 세대 내 이동의 가능성, 자식 세대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본인 세대보다 나아질 것이라는 세대 간 이동의 가능성에 대해 저소득층 혹은 하위 계층이 가장 비관적인 입장을 보였다. 넷째, 국가 개입과 복지 태도 등의 영역에서 중간층의 보수화, 혹은 자기 이해적 접근이 두드러지고 있다는 특징을 발견할 수 있었다.

젠더갈등과 사회통합과의 관계에서는 사회적·개인적 차원에서 젠더갈등의 현재적, 잠재적 현황을 파악하고 젠더갈등뿐만 아니라 젠더와 성차별 혹은 성폭력을 경험하거나 인식하는 당사자의 인구학적, 사회경제적, 심리적 요인에 따른 사회적·개인적 젠더갈등 양상과 젠더갈등의 요인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 젠더갈등 인식의 균열 지점을 찾아본 결과 성별보다는 미혼, 청년 세대일수록 사회적 젠더갈등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고 학력이나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실업자 혹은 임시일용직 근로자가 젠더갈등을 조금 더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사회적 젠더 불평등 인식에 대해서는 임금 또는 취업 및 승진 분야에서 특히 더 불평등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성폭력·성차별을 직접 경험하거나 성폭력·성차별 위협에 대한 두려움이 큰 집단일수록 같등이나 불평등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았다는 것이다. 셋째, 개인적 성폭력·성차별 경험은 ‘경험 없음’으로 응답한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지만 외모에 대한 지적, 비하 발언, 대중매체에서의 성차별적 표현, 운전·대중교통 이용 중 욕설, 무시, 비하, 야간 통행 시 위협에 대한 두려움, 공공장소 신체 접촉에 대한 두려움, 가사/돌봄 노동 강요 등 성폭력·성차별에 대한 노출이나 두려움의 빈도를 분석한 결과, 여성일수록, 이혼 또는 미혼의 경우, 청년일수록, 대도시 거주자일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상용직·일용직 임금근로자일수록, 성폭력·성차별 경험이 있을수록 두려움과 노출의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미투운동의 효과에 대한 인식을 분석한 결과, 미투운동이 성폭력 감소와 성차별 완화에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인식이 높은 반면, 성별 갈등 완화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세대별 인식의 분기 및 사회통합과 관련해서는 세대 문제를 가치관에 주목하여 살펴 보았다. 분석에는 이념적 가치관에 대한 질문, 탈물질주의 가치관에 대한 질문, 연령 관점의 가치관에 대한 질문, 분배가치관에 대한 질문 등이 사용되었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세대별 인식의 분기 상황을 분석한 결과 비교적 젊은 세대는 실제 소득과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계층의 간극이 크지 않은 집단으로, 계층적 이해와 세대의 이해가 일치할 가능성이 다른 어떤 집단보다 크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둘째, 자유와 평등의 가치 지향에서 민주화 이후 세대가 개인의 자유를 더 강조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1990년대 이후 출생 세대는 급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다른 세대에 비해서 높았다. 그리고 성공의 요소와 분배 기준에서는 세대별로 차이가 드러났다.

공공갈등과 사회통합 관련 분석은 공공갈등에 대한 시민들의 갖가지 의견으로부터 공공갈등의 발생 빈도에 대한 인식, 공공갈등 발생의 원인, 공공갈등 관리의 기제, 공공갈등 해결의 주체와 역할 등으로 구성된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공갈등의 발생 빈도에 대한 인식과 관련하여 많은 사람들이 공공갈등이 자주 발생한다는 일반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둘째, 공공갈등 발생의 원인에 대한 인식과 관련하여 많은 사람들이 ‘소통 문화의 부재’라든가 ‘전반적인 사회신뢰의 부재’를

언급하고 있었다. 셋째, 공공갈등의 해결과 관련하여 시민들은 대체로 정부나 지자체가 갈등 해결에 주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느끼고 있었으며, 가장 우선적인 역할은 갈등 해결에 적절한 법이나 제도를 마련하는 일이었다. 넷째, 공공갈등 해결에 필수적인 정책 관련 집단 간의 협력과 관련하여 시민들은 대부분의 행위자 간 협력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특별히 점점 더 공공갈등 발생의 중심 진원지가 되고 있는 ‘정부와 시민단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에 협력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보는 사람들의 비율이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율과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6. 연차별 연구의 사회통합 구성요소 변수 활용 방식

2014년 연구의 ‘사회통합 인식의 결정요인’ 분석에서 사회적 포용을 대표하는 지표로 빈곤과 불평등 인식을, 사회적 자본을 대표하는 지표로 신뢰·사회적 참여를 각각 선정하여 사회통합 구성요소 중 사회적 포용과 사회적 자본에 대한 인식과 실태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사회통합 정도(수준)에 대한 국민 인식을 별도로 조사하지 않고(이 문항은 2016년부터 포함되기 시작했다) 앞서 열거한 구성요소별 세부 변수들을 사회통합 인식 변수로 간주하고, 이들에 대한 인구사회적, 경제적 요인들의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즉, 이 연구에서는 사회적 포용과 사회적 자본을 종속변수로 본 것으로 사회적 포용과 사회적 자본이 사회통합 인식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하는 데까지 연구범위가 닿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2015년의 연구는 사회통합 세 구성요소 중 사회이동을 본격적으로 분석한 연구다. 사회이동에 관한 세부 연구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실태조사에서 확보된 사회이동성 관련 변수들을 통해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 우리 사회의 사회이동성을 진단하는 데 집중하였다. 그러나 사회이동과 사회통합의 관계에 대해서는 사회이동성 인식이 사회적 신뢰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이동 경험이 사회통합 인식지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으로 다루어졌다. 전자는 사회통합에 대한 영향이라기보다 사회통합의 구성요소 간의 인과관계를 규명한 것이고, 후자는 종속변수인 사회통합인식지수에 사회통합 구성요소가 포함되어 있는 구조였다. 사회통합인식지수는 ‘한국 사회 소득 격차에 대한 인식’, ‘한국 사회에 대한 신뢰’, ‘세대 내 사회 이동성에 대한 인식’, ‘세대 간 사회이동성

에 대한 인식'의 사회통합 하위요소를 측정하는 4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여유진 외, 2016. p. 117).

2016년 연구부터 사회통합에 대한 인식을 직접 설문하여 사회통합 인식 변수를 생성하여 이를 활용하기 시작했다. '사회통합 인식 구성' 부분에서는 사회통합의 구성요소를 사회적 포용, 사회적 자본, 사회적 이동, 갈등관리의 네 가지로 구분하고 각각의 요소가 사회통합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였다. 사회통합 구성요소의 설명변수는 두 가지의 종류를 활용하였는데, 하나는 우리 사회가 어떤 사회에 가까운지를 묻는 문항 5가지(부록의 조사표 문 21. 참조)를 변수로 사용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사회통합이 잘 되기 위해 중요한 항목들을 네 가지 구성요소로 분류하여 변수로 사용하는 것이다. 이 같은 분석은 이 연구에서 의도하는 것과 같이 사회통합 구성요소들의 사회통합 인식에 대한 영향을 종합적으로 규명하는 데 적합한 분석방법이다. 그러나 각 요인의 설명력을 확인하는 데 중점을 둔 나머지 인구사회경제적 변수들을 통제한 상태의 분석 결과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박탈과 사회통합 인식 간의 관계' 부분에서는 사회적 포용과 사회통합의 관계를 규명하였다. 총박탈점수와 함께 기초생계, 주거, 의료, 문화, 미래 대비, 교육에서의 박탈을 점수화하여 이들이 사회통합 인식과 사회적 포용인식, 사회적 신뢰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였다. 사회통합 구성요소 중 포용 상태를 나타낼 수 있는 여러 변수들 중에서 박탈을 선택했다.

2017년 연구는 트라우마 경험, 물질적 박탈, 갈등, 사회적 불안 등 사회문제를 사회통합의 관점에서 조망하면서 주로 이들 사회문제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 데 집중하였다. 사회통합에 대한 영향은 '갈등과 정신건강의 사회경제적 맥락'과 '사회적 불안과 사회통합' 부분에서 다루고 있지만 사회통합의 세 가지 구성요소는 모형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다만, 마지막 부분에서 사회구조의 인식이 사회통합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데 사회적 포용의 범주로 분류할 수 있는 분배 공정성 인식을 설명변수로 포함함으로써 이 연구와의 관련성을 찾을 수 있다.

2018년 연구는 사회갈등과 사회통합을 주제로 사회계층별 갈등인식과 재분배에 대한 태도를 비교하고 갈등 유형 중 젠더갈등, 세대갈등, 공공갈등이 사회통합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였다. 따라서 사회통합의 세 가지 구성요소는 주요한 변수로 활용하지 않았다.

〈표 2-6〉 사회통합 실태 진단 및 대응 방안 연구의 연구 주제와 영역(2014~2018년)

구분	주제	세부연구 주제	포용		자본		이동	
			독립	종속	독립	종속	독립	종속
2014	사회통합과 국민행복	사회통합의 개념 및 수준						
		사회통합 인식의 결정요인		빈곤, 불평등		신뢰, 사회 참여		
		행복의 개념 및 수준						
		행복의 결정요인			신뢰, 사회 참여			
2015	사회통합과 사회이동	코호트별 사회이동의 현황						
		교육 성취와 사회이동			사회적 자본			교육
		사회이동과 사회통합 인식		소득 격차 인식		신뢰	계층, 교육 변화	이동 인식
		사회이동 수준 국제 비교				신뢰	이동 인식	
2016	사회통합 국민 인식	사회통합 인식 구성	포용 인식		신뢰 인식		희망 인식	
			포용 중요도		신뢰 중요도		이동 중요도	
		사회통합 수준의 국제 비교						
		사회갈등과 사회통합 인식						
		박탈과 사회통합 인식 간의 관계	박탈					
행복과 사회통합 인식 간의 관계								
2017	사회문제와 사회통합	트라우마 경험과 정신건강 간 관계						
		물질적 박탈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갈등과 정신건강의 사회경제적 맥락						
		사회적 불인과 사회통합	분배 공정성					
2018	사회갈등과 사회통합	사회계층에 따른 갈등 인식과 (재)분배에 대한 태도						
		전대갈등과 사회통합						
		세대별 인식의 분기와 사회통합						
		공공갈등과 사회통합						

자료: 1) 김미곤 외(2014). 사회통합 실태진단 및 대응방안 연구 - 사회통합과 국민행복을 중심으로.
 2) 여유진 외(2015). 사회통합 실태진단 및 대응방안 II - 사회통합과 사회이동.
 3) 정해식 외(2016). 사회통합 실태 진단 및 대응 방안(III) - 사회통합 국민 인식.
 4) 정해식 외(2017). 사회통합 실태 진단 및 대응방안(IV) - 사회문제와 사회통합.
 5) 정해식 외(2018). 사회통합 실태 진단 및 대응 방안 연구(V) - 사회갈등과 사회통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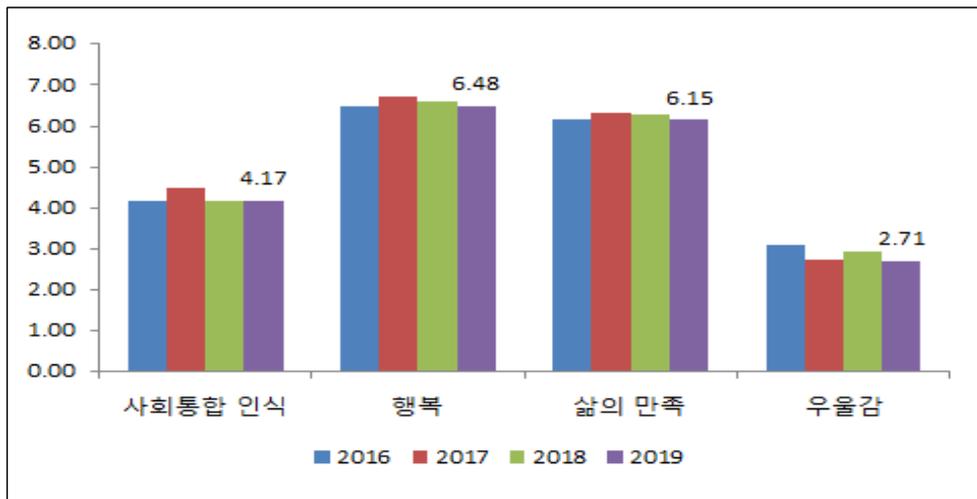
제2절 사회통합 인식의 변화

1. 사회통합 인식과 심리

우리나라의 사회통합 인식과 관련된 일반적인 문항들의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 동안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는 아래 그림과 같이 일괄할 수 있다. 사회통합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는지, 어제 어느 정도 행복했는지, 요즘 삶에 전반적으로 만족하는지에 대한 질문(10점 만점)에 대해서는 가장 높은 수준인 2017년 이후 미약하게 감소한 것을 알 수 있고, 어제 어느 정도 우울했는지에 대한 질문에서는 2019년이 가장 낮은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이하에서는 각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상황을 살펴보기로 한다.

[그림 2-1] 사회통합 관련 일반 인식 변화(2016~2019년)

(단위: 점)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6). '사회통합 실태 및 국민인식 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사회문제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8). '사회갈등과 사회통합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9). '사회통합 실태 진단을 위한 실태조사' 자료 분석.

사회통합 인식, 행복도, 삶의 만족도, 우울감에 대한 응답 결과를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 동안 살펴보았다. 이 기간 동안 정권이 교체되어 정치적 지형변화가 사회통합 인식에 미친 영향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인구사회학적 배경에 따른 인식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성, 연령(19~34세 청년, 35~64세 중고령, 65세 이상 노인), 학력 수준(중졸 이하, 고졸, 대졸 이상), 객관적 소득계층(중위소득 50% 미만 빈곤층, 50% 이상 150% 미만 중산층, 150% 이상 부유층), 주관적 소득계층(하층, 중층, 상층) 등으로 구분해서 살펴보았다.

먼저 사회통합에 대한 인식을 보면 2019년 우리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사회통합 정도는 10점 만점에 4.17점으로 중간값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확인된다. 2016년(4.18점)과 가장 높은 2017년(4.50점)을 정점으로 2018년에 이 수준으로 하락한 후 같은 점수를 유지하고 있다.

성별로는 전 기간에 걸쳐 여성이 남성보다 높은 사회통합 인식 수준을 보이고 있다. 연령대별로는 연도별로 인식의 차이가 발생하는데 2016년과 2017년에는 노인, 청년, 중고령의 순으로 사회통합에 긍정적 인식을 보인 반면 2018년에는 청년, 노인, 중고령의 순으로 바뀌었다가, 2019년에 청년, 중고령, 노인의 순으로 바뀌었다. 시간이 갈수록 청년들의 긍정적 인식이 증가한 반면 노인의 긍정적 인식이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이 시기 발생한 정치적 변화(2017년 3월 전임 대통령 탄핵, 2017년 5월 현 대통령 선출)와 세대별 정치적 성향이 결합된 결과로 유추할 수 있다. 학력별로도 연도별 분화가 발생하는데 2017년까지는 고졸, 대졸 이상, 중졸 이하의 순으로 사회통합 수준을 긍정적으로 인식했는데, 2018년 이후에는 중졸 이하, 대졸이상, 고졸의 순으로 바뀐 것을 알 수 있다.

객관적인 소득 수준에 따른 인식의 차이는 연도별로 매우 상이한 패턴을 보여 특징을 잡아내기가 어렵지만, 2018년을 제외하면 대체로 중산층이 사회통합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주관적 소득 수준에 따른 인식의 차이는 연도별로 일관된 특징을 보이는데 상층, 중층, 하층의 순으로 사회통합 수준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표 2-7〉 사회통합 정도에 대한 인식 변화(2016~2019년)

(단위: 점)

구분		2016	2017	2018	2019
전체		4.18	4.50	4.17	4.17
성	남성	4.11	4.41	4.14	4.10
	여성	4.26	4.59	4.21	4.24
연령대	청년	4.19	4.57	4.26	4.21
	중고령	4.17	4.44	4.13	4.16
	노인	4.21	4.63	4.20	4.11
학력	중졸 이하	4.05	4.45	4.28	4.24
	고졸	4.23	4.51	4.13	4.10
	대졸 이상	4.18	4.50	4.18	4.21
객관적 소득수준	빈곤	3.97	4.46	4.38	3.94
	중산	4.20	4.51	4.12	4.25
	부유	4.26	4.48	4.26	4.00
주관적 소득 수준	하	3.90	-	4.05	4.11
	중	4.46	-	4.29	4.20
	상	4.53	-	4.52	4.42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6). '사회통합 실태 및 국민인식 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사회문제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8). '사회갈등과 사회통합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9). '사회통합 실태 진단을 위한 실태조사' 자료 분석.

주관적 행복감은 2019년 6.48점으로 2017년 6.73점, 2018년 6.61점에 비해 다소 낮아졌다.

성별로는 전 기간에 걸쳐 여성이 남성보다 높은 행복감을 느끼고 있다. 연령대별로는 청년, 중고령, 노인의 순으로 행복감이 높은 것으로 확인된다. 학력별로도 역시 모든 시기에 일관적인 패턴을 보이는데 학력 수준이 높아질수록 행복감이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된다.

객관적인 소득 수준에 따른 행복도는 소득 수준이 높아질수록 행복감이 높아지는 패턴을 모든 시기에 일관적으로 발견할 수 있다. 주관적 소득 수준 역시 객관적 소득 수준과 동일한 패턴을 보인다. 즉, 주관적 소득 수준을 상층으로 인식할수록 행복감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2-8〉 주관적 행복감 변화(2016~2019년)

(단위: 점)

구분		2016	2017	2018	2019
전체		6.49	6.73	6.61	6.48
성	남성	6.48	6.64	6.56	6.36
	여성	6.50	6.82	6.67	6.59
연령대	청년	6.78	7.10	6.92	6.82
	중고령	6.41	6.65	6.51	6.42
	노인	6.16	6.26	6.43	5.95
학력	중졸 이하	5.97	6.06	6.14	5.78
	고졸	6.44	6.71	6.57	6.34
	대졸 이상	6.76	7.00	6.81	6.83
객관적 소득수준	빈곤	5.77	5.54	6.07	5.46
	중산	6.53	6.80	6.55	6.50
	부유	6.89	7.23	7.14	6.93
주관적 소득 수준	하	5.99	-	6.30	6.00
	중	6.93	-	6.90	6.87
	상	7.45	-	7.52	7.43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6). '사회통합 실태 및 국민인식 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사회문제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8). '사회갈등과 사회통합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9). '사회통합 상태 진단을 위한 실태조사' 자료 분석.

2019년 삶의 만족도는 6.15점으로 이전 연도에 비해 가장 낮은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성별로는 남성보다 여성의 삶의 만족도가 모든 시기에 높게 나타났으며, 연령대별로는 전 기간에 걸쳐 청년의 삶의 만족도가 뚜렷하게 높은 것으로 확인된다. 학력별로는 학력 수준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경향이 뚜렷하고 시기적으로도 일관적이다. 소득 수준은 객관적 소득과 주관적 소득 모두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는데, 이 역시 모든 시기에 일관적으로 뚜렷하게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2-9〉 삶의 만족도 변화(2016~2019년)

(단위: 점)

구분		2016	2017	2018	2019
전체		6.17	6.33	6.28	6.15
성	남성	6.15	6.25	6.28	6.05
	여성	6.19	6.41	6.32	6.26
연령대	청년	6.36	6.61	6.61	6.39
	중고령	6.12	6.26	6.18	6.11
	노인	5.91	5.98	6.00	5.84
학력	중졸 이하	5.65	5.71	5.75	5.62
	고졸	6.15	6.32	6.29	6.06
	대졸 이상	6.40	6.57	6.44	6.41
객관적 소득수준	빈곤	5.39	5.15	5.59	4.96
	중산	6.19	6.40	6.24	6.18
	부유	6.67	6.83	6.83	6.68
주관적 소득 수준	하	5.62	-	5.92	5.73
	중	6.63	-	6.60	6.48
	상	7.37	-	7.36	7.26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6). '사회통합 실태 및 국민인식 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사회문제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8). '사회갈등과 사회통합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9). '사회통합 실태 진단을 위한 실태조사' 자료 분석.

우울감은 2019년에 2.71점으로 이전 시기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복감과 삶의 만족도가 2019년에 악화한 것과 달리 우울감은 개선된 것으로 확인된다.

성별로는 전 시기에 걸쳐 일관되게 여성이 남성보다 우울감이 높으며 연령대별로는 연령대가 높을수록, 학력별로는 학력 수준이 낮을수록 전 시기에 걸쳐 일관되게 우울감이 높은 것으로 확인된다.

소득 수준별로는 객관적 소득 수준이든 주관적 소득 수준이든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우울감이 전 시기에 걸쳐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된다.

〈표 2-10〉 우울감의 변화(2016~2019년)

(단위: 점)

구분		2016	2017	2018	2019
전체		3.09	2.75	2.93	2.71
성	남성	2.95	2.72	2.83	2.69
	여성	3.23	2.78	3.03	2.73
연령대	청년	2.88	2.57	2.78	2.38
	중고령	3.16	2.77	2.95	2.77
	노인	3.26	3.07	3.16	3.18
학력	중졸 이하	3.63	3.30	3.21	3.33
	고졸	2.99	2.77	2.86	2.77
	대졸 이상	2.97	2.52	2.86	2.45
객관적 소득수준	빈곤	3.78	3.71	3.58	3.83
	중산	3.03	2.68	2.86	2.65
	부유	2.79	2.42	2.78	2.31
주관적 소득 수준	하	3.43	-	3.13	2.99
	중	2.78	-	2.76	2.51
	상	2.44	-	2.13	1.84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6). '사회통합 실태 및 국민인식 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사회문제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8). '사회갈등과 사회통합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9). '사회통합 상태 진단을 위한 실태조사' 자료 분석.

2. 사회상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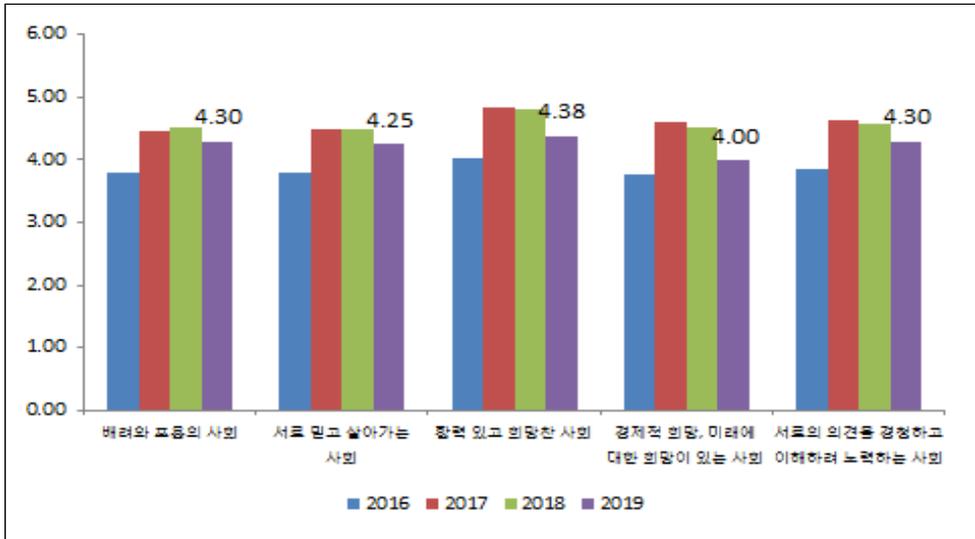
사회통합과 관련한 우리 사회의 5가지 상(象)에 대한 인식을 연도별로 비교해 보았다. 아래 그림에서 보면 5가지 모든 상에 대한 인식이 2019년은 2016년보다는 높은 수준이지만 2017년과 2018년에 비해서는 다소 낮아졌다.

2019년을 기준으로 5가지 사회상에 대한 인식수준을 비교해 보면 '활력 있고 희망찬 사회'에 4.38점을 부여해 상대적으로 가장 긍정적인 측면으로 평가하고 있다. 다음으로 '배려와 포용의 사회'와 '서로의 의견을 경청하고 이해하려 노력하는 사회'가 4.3점으로 뒤를 잇는다. 그다음으로 '서로 믿고 살아가는 사회'가 4.25점, '경제적 희망,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는 사회'가 4.0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다. 이 같은 점수와 순위가 함의하는 바를 부연해 보자면, 우리 국민은 포용(↔갈등), 신뢰, 활력, 희망의 모든 측면에서 우리 사회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기보다 부정적으로 인식(5점 미만)하고

있으며, 상대적인 관점에서 활력 있는 사회에 대한 동의 정도가 가장 높고 다음으로 포용, 신뢰 그리고 경제적 희망의 순으로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림 2-2] 5가지 사회상에 대한 인식 변화(2016~2019년)

(단위: 점)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6). '사회통합 실태 및 국민인식 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사회문제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8). '사회갈등과 사회통합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9). '사회통합 실태 진단을 위한 실태조사' 자료 분석.

각 사회상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인구하위집단별로 비교해 보았다. 먼저 사회적 포용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문항인 '차별과 소외가 심한 사회 또는 배려와 포용의 사회'에 대한 인식의 연도별, 인구하위집단별 분포는 아래 표와 같다.

성별로는 2016년과 2017년 여성이 남성보다 배려와 포용적인 사회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했으나 2018년과 2019년에는 그 차이가 사라져 여성의 배려와 포용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상대적으로 약해진 것을 알 수 있다. 연령대별 차이는 연도별로 상이한 패턴을 보인다. 2016년과 2018년은 배려와 포용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노인, 중고령, 청년 순이었으나 2019년에는 청년의 긍정적인 인식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별로도 배려와 포용 사회에 대한 인식이 연도별로 상이한 패턴을 보이는데, 2016년에는 학력 수준이 낮을수록 긍정적인 인식이 강해졌으나 2019년에는 이와 반대로 학력 수준이 높을수록 긍정적인 인식이 강해졌다.

객관적 소득 수준별로는 2018년을 제외하고 나머지 연도에는 중산층, 부유층, 빈곤층 순으로 배려와 포용 사회를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관적 소득 수준별로는 2016년을 제외하고 나머지 연도에는 상층, 중층, 하층 순으로 긍정적인 인식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층과 상층에서 객관적 소득 수준과 주관적 소득 수준에 따른 사회 인식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표 2-11〉 사회상: 차별과 소외가 심한 사회 또는 배려와 포용의 사회(2016~2019년)

(단위: 점)

구분		2016	2017	2018	2019
전체		3.79	4.47	4.53	4.30
성	남성	3.71	4.40	4.53	4.29
	여성	3.86	4.54	4.52	4.30
연령대	청년	3.58	4.50	4.44	4.41
	중고령	3.83	4.44	4.53	4.26
	노인	4.11	4.54	4.71	4.24
학력	중졸 이하	4.03	4.37	4.57	4.17
	고졸	3.81	4.54	4.48	4.29
	대졸 이상	3.67	4.44	4.53	4.35
객관적 소득수준	빈곤	3.75	4.24	4.50	3.91
	중산	3.80	4.50	4.49	4.37
	부유	3.76	4.48	4.66	4.25
주관적 소득 수준	하	3.63	-	4.29	4.16
	중	3.97	-	4.77	4.38
	상	3.80	-	4.96	4.85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6). '사회통합 실태 및 국민인식 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사회문제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8). '사회갈등과 사회통합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9). '사회통합 실태 진단을 위한 실태조사' 자료 분석.

사회적 자분을 나타내는 사회적 신뢰를 측정할 수 있는 문항인 '서로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사회 또는 서로 믿고 살아가는 사회'에 대한 인식의 연도별, 인구하위집단별 분포는 아래 표와 같다.

성별로는 2018년까지 여성이 남성보다 서로 믿고 살아가는 사회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지만 2019년 들어 그 차이가 사라진 것을 알 수 있다. 연령대별로는 2018년까지는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서로 믿고 살아가는 사회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해졌지만

2019년에는 반대로 청년의 긍정적 인식이 가장 높고 노인의 긍정적 인식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별로는 일관된 경향을 발견하기 어려운데 2016년에는 학력 수준이 낮을수록, 2019년에는 학력 수준이 높을수록 긍정적인 인식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객관적 소득 수준에 따른 인식의 차이에 일정한 패턴은 발견되지 않는다. 2019년에는 중산층, 부유층, 빈곤층의 순으로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주관적 소득 수준에 따라서는 상층으로 인식할수록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확인된다. 2019년에는 계층 간 인식의 차이가 가장 큰 것을 알 수 있다.

〈표 2-12〉 사회상: 서로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사회 또는 서로 믿고 살아가는 사회(2016~2019년)

(단위: 점)

구분		2016	2017	2018	2019
전체		3.80	4.48	4.48	4.25
성	남성	3.77	4.45	4.47	4.26
	여성	3.82	4.52	4.49	4.25
연령대	청년	3.57	4.46	4.37	4.31
	중고령	3.87	4.48	4.51	4.24
	노인	3.98	4.55	4.60	4.20
학력	중졸 이하	3.94	4.38	4.60	4.21
	고졸	3.87	4.56	4.40	4.21
	대졸 이상	3.66	4.45	4.49	4.31
객관적 소득수준	빈곤	3.70	4.43	4.59	3.86
	중산	3.82	4.50	4.44	4.34
	부유	3.75	4.44	4.56	4.15
주관적 소득 수준	하	3.62	-	4.27	4.10
	중	3.97	-	4.70	4.37
	상	3.97	-	4.82	4.67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6). '사회통합 실태 및 국민인식 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사회문제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8). '사회갈등과 사회통합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9). '사회통합 실태 진단을 위한 실태조사' 자료 분석.

사회이동성을 측정할 수 있는 문항인 '활력 없고 침체된 사회 또는 활력 있고 희망찬 사회'에 대한 인식의 연도별, 인구하위집단별 분포는 아래 표와 같다.

먼저 성별로는 모든 연도에 걸쳐서 여성이 남성보다 우리 사회를 활력 있고 희망찬

사회로 인식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연령대별로는 2018년까지는 대체로 노인 세대가 가장 긍정적인 인식을 보인 반면 2019년에는 청년의 긍정적 인식이 가장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별로는 2018년까지는 일정한 패턴을 발견할 수 없는데, 2019년에는 대졸이상, 중졸이하, 고졸 순으로 긍정적인 인식이 강하다

객관적 소득 수준별로 살펴보면 2016년을 제외하고 부유층이 가장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2019년에는 긍정적인 인식이 소득 수준에 완전히 비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주관적 소득 수준별로는 2018년과 2019년에는 긍정적인 인식이 소득계층에 완전히 비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객관적, 주관적 소득 수준별 인식의 차이는 중층과 상층의 격차보다 중층과 하층의 격차가 더 컸다는 사실로부터 소득 하층의 긍정적인 인식이 두드러지게 낮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표 2-13〉 사회상: 활력 없고 침체된 사회 또는 활력 있고 희망찬 사회(2016~2019년)

(단위: 점)

구분		2016	2017	2018	2019
전체		4.03	4.84	4.80	4.38
성	남성	4.00	4.77	4.75	4.36
	여성	4.07	4.91	4.84	4.41
연령대	청년	3.97	4.85	4.72	4.52
	중고령	4.02	4.82	4.80	4.35
	노인	4.28	4.92	4.96	4.19
학력	중졸 이하	4.07	4.81	4.97	4.34
	고졸	4.14	4.85	4.73	4.30
	대졸 이상	3.91	4.84	4.78	4.47
객관적 소득수준	빈곤	4.10	4.72	4.88	4.10
	중산	4.03	4.86	4.75	4.41
	부유	4.01	4.86	4.91	4.43
주관적 소득 수준	하	3.89	-	4.64	4.22
	중	4.19	-	4.96	4.51
	상	4.10	-	5.08	4.75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6). '사회통합 실태 및 국민인식 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사회문제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8). '사회갈등과 사회통합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9). '사회통합 실태 진단을 위한 실태조사' 자료 분석.

경제적 측면에서 사회이동성을 측정할 수 있는 문항인 ‘경제적 불안, 미래에 대한 불안이 가득한 사회 또는 경제적 희망,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는 사회’에 대한 인식의 연도별, 인구하위집단별 분포는 아래 표와 같다.

먼저 성별로는 인식의 차이가 거의 없지만 모든 연도에 걸쳐 대체로 여성의 긍정적인 인식이 조금 더 강한 것을 알 수 있다. 연령대별로는 2018년까지는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긍정적 인식이 강했는데, 2019년에는 연령대별 인식의 차이가 거의 사라진 것을 알 수 있다. 즉, 청년 세대의 긍정적인 인식이 이전 연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해진 것으로 해석된다. 학력별로는 뚜렷한 패턴을 발견하기 어렵다.

객관적 소득 수준별로는 연도별 일정한 패턴을 확인하기 어렵고, 유의할 만한 차이도 발견되지 않는다. 주관적 소득 수준별로는 모든 연도에 걸쳐 상층으로 인식할수록 긍정적인 인식이 강해지는 패턴을 확인할 수 있다.

〈표 2-14〉 사회상: 경제적, 미래 불안이 가득한 사회 또는 경제적, 미래 희망이 있는 사회(2016~2019년)

(단위: 점)

구분		2016	2017	2018	2019
전체		3.76	4.60	4.51	4.00
성	남성	3.72	4.57	4.49	3.97
	여성	3.80	4.65	4.54	4.02
연령대	청년	3.54	4.56	4.32	4.01
	중고령	3.81	4.60	4.57	4.01
	노인	4.11	4.76	4.71	3.93
학력	중졸 이하	3.94	4.58	4.73	4.03
	고졸	3.82	4.67	4.46	3.91
	대졸 이상	3.62	4.54	4.49	4.07
객관적 소득수준	빈곤	3.80	4.43	4.62	3.85
	중산	3.75	4.64	4.46	4.03
	부유	3.79	4.56	4.64	3.96
주관적 소득 수준	하	3.65	-	4.33	3.89
	중	3.86	-	4.70	4.07
	상	3.92	-	4.92	4.38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6). ‘사회통합 실태 및 국민인식 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사회문제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8). ‘사회갈등과 사회통합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9). ‘사회통합 실태 진단을 위한 실태조사’ 자료 분석.

갈등하고 배려하지 않는 사회와 대비되는 포용사회에 대한 인식 또는 갈등관리 상태를 측정할 수 있는 문항인 '서로의 주장만 내세우고 남을 배려하지 않는 갈등이 심한 사회 또는 서로의 의견을 경청하고, 이해하려 노력하는 사회'에 대한 인식의 연도별, 인구하위집단별 분포는 아래 표와 같다.

먼저 성별로는 2018년을 제외하고 모든 연도에 걸쳐 여성이 남성보다 우리 사회를 서로의 의견을 경청하고 이해하려 노력하는 사회로 인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2019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다. 연령대별로는 2018년까지는 연령대가 높아 질수록 긍정적인 인식이 강해졌으나 2019년에는 반대로 청년, 중고령, 노인의 순으로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그리고 이 차이는 통계적 유의성을 가진다.

학력별로는 연도별로 일정한 패턴을 발견할 수 없는 가운데, 2019년의 경우 대졸 이상의 고학력층이 가장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고졸자가 가장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학력별 인식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된다. 객관적 소득 수준에 따라 살펴보면 2018년을 제외한 모든 연도에 걸쳐 중산층이 가장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빈곤층과 부유층의 인식은 연도별로 상이했다. 2019년에는 중산층, 부유층, 빈곤층의 순으로 긍정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관적 소득 수준별로 살펴보면 2018년과 2019년에는 상층으로 갈수록 긍정적인 인식이 강해지는 패턴을 확인할 수 있다.

〈표 2-15〉 사회상: 갈등이 심한 사회 또는 서로의 의견을 경청하고, 이해하려 노력하는 사회(2016~2019년)

(단위: 점)

구분		2016	2017	2018	2019
전체		3.85	4.62	4.57	4.30
성	남성	3.80	4.58	4.59	4.24
	여성	3.90	4.66	4.55	4.36
연령대	청년	3.67	4.65	4.51	4.41
	중고령	3.91	4.59	4.58	4.26
	노인	3.96	4.67	4.67	4.21
학력	중졸 이하	3.98	4.48	4.67	4.31
	고졸	3.93	4.68	4.55	4.16
	대졸 이상	3.71	4.61	4.55	4.42
객관적 수득수준	빈곤	3.87	4.47	4.69	4.02
	중산	3.87	4.64	4.51	4.37
	부유	3.71	4.62	4.71	4.19
주관적 소득 수준	하	3.71	-	4.40	4.19
	중	4.00	-	4.76	4.38
	상	3.89	-	4.84	4.5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6). '사회통합 실태 및 국민인식 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사회문제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8). '사회갈등과 사회통합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9). '사회통합 실태 진단을 위한 실태조사' 자료 분석.

3. 정부의 역할

소득 격차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그와 관련한 정부의 역할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정부의 역할은 소득 격차 축소, 실업자에 대한 적절한 수준의 삶 제공, 빈곤층에 대한 혜택으로 구성되어 있다. '매우 반대한다'에서 '매우 동의한다'까지 5점 척도로 설문한 문항들로 '동의한다'와 '매우 동의한다'를 합친 '동의' 비율을 제시하였다. 정부 역할 축소를 질문한 마지막 문항은 '반대한다'와 '매우 반대한다'를 합친 '반대' 비율을 제시함으로써 모든 문항에서 비율이 높을수록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지지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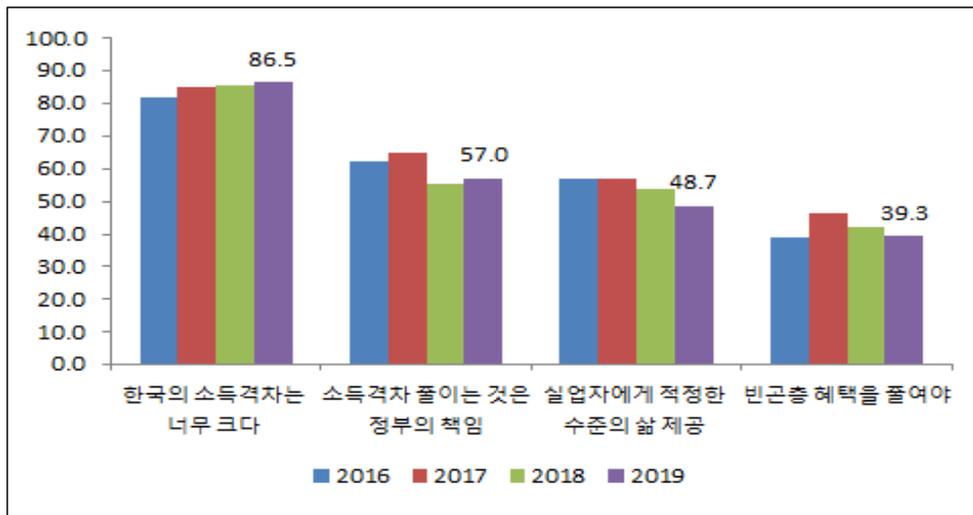
전체적으로 국민 10명 중 8명 이상이 우리나라의 소득 격차가 심각하다고 느끼고 있는데, 정부에 소득 격차를 줄이는 책임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10명 중 6명 정도가 동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업자에 대한 지원은 국민의 절반 정도가 지지하며, 빈곤층에 대한 지원은 국민 10명 중 4명 정도가 지지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전체적으로

우리 국민들은 정부의 역할에 대해 전반적인 소득재분배 정책, 실업자 지원 정책, 빈곤층 지원 정책의 순으로 지지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연도별로 각 문항에 대한 인식 변화를 살펴보자. ‘한국의 소득 격차가 너무 크다’는 문항에 대해서는 매년 조금씩 동의하는 비율이 증가해 2019년에는 86.5%에 달했다. 소득 격차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보다 민감해지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소득 격차를 줄이는 것은 정부의 책임이다’란 문항에 대해서 2017년에 65%로 가장 높았다가 2019년에는 57%로 비교적 큰 폭으로 감소했다. 과거보다 불평등이 더 심각하다고 느끼고 있지만 불평등을 시정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는 과거보다 덜 지지하는 다소 아이러니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보다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해 보인다. ‘정부는 실업자에게 적절한 수준의 삶을 제공해야 한다’에 대해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비율은 매년 조금씩 감소해 2019년에는 48.7% 수준에 머물렀다. ‘정부는 빈곤한 사람들에게 주는 혜택을 줄여야 한다’에 대해 적극 반대하는 비율은 2017년에 46.2%로 가장 높았고 이후 조금씩 낮아져 2019년에는 39.3% 수준에 머물렀다.

[그림 2-3] 정부의 역할에 대한 인식 변화(2016~2019년)

(단위: %)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6). '사회통합 실태 및 국민인식 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사회문제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8). '사회갈등과 사회통합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9). '사회통합 실태 진단을 위한 실태조사' 자료 분석.

2) 빈곤층에 대한 혜택을 축소해야 한다는 것에 반대하는 의견이 연평균 42% 수준이다.

‘한국의 소득 격차는 너무 크다’에 동의한 응답자의 비율을 연도별로 인구하위집단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성별로는 2017년까지 남성이 한국의 소득 격차가 크다는 데 동의하는 비율이 높았지만, 2019년에는 역전이 일어나 여성의 동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전 연도에 걸쳐 중고령층에서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청년과 노인은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학력별로는 2017년과 2018년에는 대졸 이상에서 가장 높은 동의를 보였으나 2019년에는 중졸 이하의 저학력층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는 특징이 발견된다.

객관적 소득 수준별로는 모든 연도에서 유의할 만한 차이가 없고, 소득 수준에 따른 일관적인 패턴도 발견되지 않는다. 주관적 소득수준은 2018년에 비해 2019년에 하층은 증가, 상층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2-16〉 한국의 소득 격차는 너무 크다(2016~2019년)

(단위: %)

구분		2016	2017	2018	2019
전체		81.7	85.1	85.4	86.5
성	남성	82.5	86.1	85.6	85.8
	여성	80.9	84.1	85.2	87.3
연령대	청년	80.9	83.0	82.0	84.8
	중고령	82.4	86.3	87.6	87.6
	노인	80.2	84.2	82.3	85.0
학력	중졸 이하	82.8	84.0	83.6	87.9
	고졸	81.5	83.8	85.3	86.0
	대졸 이상	81.5	87.0	86.3	86.5
객관적 소득수준	빈곤	80.0	84.8	84.4	84.9
	중산	82.6	85.4	84.8	86.5
	부유	79.1	84.1	88.0	87.5
주관적 소득수준	하	84.3	-	88.0	88.9
	중	78.9	-	81.8	84.2
	상	81.3	-	88.8	84.6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6). ‘사회통합 실태 및 국민인식 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사회문제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8). ‘사회갈등과 사회통합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9). ‘사회통합 실태 진단을 위한 실태조사’ 자료 분석.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소득 격차를 줄이는 것은 정부의 책임이다’란 의견에 동의한 응답자의 비율을 연도별로 인구하위집단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성별로 살펴보면 2016년에는 남성의 동의 비율이 살짝 높았으나 2017년 이후부터는 여성의 동의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상황이 바뀌었고, 2019년에는 차이가 거의 없어진 것을 알 수 있다. 연령대별로 보면 2017년 이전에는 청년의 동의 비율이 가장 높았는데, 2018년 이후에는 중고령자의 동의 비율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노인, 청년의 순으로 나타나 청년의 인식 변화가 특징적으로 읽힌다. 학력 수준별로는 연도마다 패턴이 다르게 나타나는데, 2018년 이후에는 중졸 이하의 저학력층에서 정부의 소득재분배 역할을 강조하는 경향이 강해졌다.

객관적 소득 수준별로 살펴보면 모든 연도에 걸쳐 빈곤층일수록 정부의 재분배 역할을 강조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발견된다. 주관적 소득 수준별로는 모든 연도에 걸쳐 하층에서 정부의 재분배 역할을 더욱 강조하고 있지만 객관적 소득 수준과 달리 소득 수준에 비례하지는 않는 특징을 보인다. 2016년과 2019년에는 하층, 상층, 중층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2-17〉 소득 격차를 줄이는 것은 정부의 책임이다(2016~2019년)

(단위: %)

구분		2016	2017	2018	2019
전체		62.2	65.0	55.6	57.0
성	남성	62.6	64.4	54.0	57.0
	여성	61.8	65.7	57.2	57.1
연령대	청년	63.2	64.9	53.0	56.1
	중고령	62.0	65.0	57.1	57.5
	노인	60.3	65.7	54.2	56.6
학력	중졸 이하	62.0	65.9	58.2	60.9
	고졸	61.2	66.4	54.5	56.1
	대졸 이상	63.3	63.2	55.6	56.6
객관적 소득수준	빈곤	64.6	70.3	59.5	64.0
	중산	62.5	65.5	55.6	56.3
	부유	58.8	59.5	53.1	55.8
주관적 소득 수준	하	64.3	-	59.4	61.0
	중	59.9	-	51.5	52.6
	상	62.2	-	50.6	58.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6). ‘사회통합 실태 및 국민인식 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사회문제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8). ‘사회갈등과 사회통합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9). ‘사회통합 실태 진단을 위한 실태조사’ 자료 분석.

‘정부는 실업자에게 적절한 수준의 삶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한 응답자의 비율을 연도별로 인구하위집단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성별로는 2017년과 2018년에는 유의할만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지만, 2016년과 2019년에는 실업자 지원에 대한 남성의 동의 정도가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2018년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청년들의 동의 정도가 강한 것으로 나타나 청년층이 실업문제에 상대적으로 민감한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학력별로는 2018년까지 학력 수준이 낮을수록 이에 대한 동의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발견되지만, 2019년에는 이 경향이 사라지고 집단간 유의할 만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객관적 소득 수준별로 살펴보면, 모든 연도에 걸쳐서 빈곤층에서 동의 정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2019년을 제외하면 소득에 완전히 반비례하는 패턴을 발견할 수 있다. 주관적 소득 수준별로는 연도마다 상이한 패턴을 보이는 가운데, 2019년에는 상층, 하층 중층의 순으로 높은 동의 비율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표 2-18〉 정부는 실업자에게 적절한 수준의 삶을 제공해야 한다(2016~2019년)

(단위: %)

구분		2016	2017	2018	2019
전체		57.0	57.2	53.8	48.7
성	남성	58.0	57.2	54.0	50.4
	여성	55.9	57.3	53.6	46.9
연령대	청년	58.4	57.2	49.7	52.8
	중고령	56.9	57.8	55.8	47.0
	노인	53.5	54.6	53.5	47.6
학력	중졸 이하	57.9	58.7	56.5	47.0
	고졸	57.3	57.3	53.0	49.1
	대졸 이상	56.2	56.6	53.5	48.8
객관적 소득수준	빈곤	61.9	61.1	60.0	52.0
	중산	56.9	57.1	53.2	48.0
	부유	53.4	55.0	52.5	49.4
주관적 소득 수준	하	59.4	-	55.9	50.9
	중	54.1	-	52.4	45.8
	상	57.7	-	43.7	53.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6). '사회통합 실태 및 국민인식 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사회문제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8). '사회갈등과 사회통합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9). '사회통합 상태 진단을 위한 실태조사' 자료 분석.

‘정부는 빈곤한 사람들에 주는 혜택을 줄여야 한다’는 것에 반대한 응답자의 비율을 연도별로 인구하위집단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성별로 살펴보면 2017년을 제외하면 모든 연도에 걸쳐 남성의 반대 비율이 유의할 수준으로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연령대별로는 2016년과 2019년에는 청년, 중고령, 노인의 순으로 반대 비율이 높는데 2019년에는 2016년에 비해 집단 간 차이가 줄어들었다. 2017년에는 노인의 비율이, 2018년에는 중고령층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일관된 패턴을 보이지는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학력별로는 연도별로 일관된 패턴을 발견하기 어려운 가운데 2019년에는 학력 수준이 높아질수록 저소득층 지원 정책에 반대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객관적 소득 수준별로 살펴보면 모든 연도에 걸쳐 빈곤층에서 반대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최근 들어(2018년 이후부터) 부유층과 빈곤층 간 인식의 격차가 더욱 커진 것을 알 수 있다. 주관적 소득 수준별로는 모든 연도에 걸쳐 하층에서 반대하는 비율이 가장 높으며, 중층과 상층의 인식은 연도에 따라 교차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2-19〉 정부는 빈곤한 사람들에게 주는 혜택을 줄여야 한다(2016~2019년)

(단위: %)

구분		2016	2017	2018	2019
전체		39.1	46.2	42.4	39.3
성	남성	40.0	45.1	44.3	41.5
	여성	38.1	47.2	40.4	37.1
연령대	청년	41.8	45.5	41.6	40.9
	중고령	38.4	46.1	43.1	39.0
	노인	35.4	48.3	40.8	37.8
학력	중졸 이하	39.4	48.4	46.5	33.7
	고졸	36.8	45.9	39.8	39.8
	대졸 이상	41.4	45.7	44.4	40.8
객관적 소득수준	빈곤	44.2	58.0	51.5	46.6
	중산	38.5	44.6	41.6	39.1
	부유	37.7	45.0	39.9	36.4
주관적 소득 수준	하	40.4	-	45.2	42.4
	중	37.8	-	38.8	36.9
	상	37.6	-	42.8	33.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6). ‘사회통합 실태 및 국민인식 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사회문제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8). ‘사회갈등과 사회통합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9). ‘사회통합 상태 진단을 위한 실태조사’ 자료 분석.

4. 사회통합의 조건

사회통합이 잘 되기 위한 조건은 2016년과 2019년에 조사가 되어 3년 사이에 국민들의 인식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 다만 두 조사의 척도가 다른데, 2019년에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조금 중요하다’, ‘대체로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와 같이 4점 척도로 질문을 했고, 2016년에는 일반적인 보통 수준으로 중요한 것을 1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5로 응답하도록 5점 척도로 질문을 했다. 두 조사의 척도 차이는 10점 척도로 표준화하는 방법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가장 낮은 척도의 기준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2019년)와 ‘보통이다’(2016)로 차이가 있어 이 역시 적절한 비교방법은 아니다. 따라서 두 조사의 순위를 비교하는 것이 적절한 방법으로 생각된다.

먼저 두 시기 모두 1, 2순위는 동일하다. 1순위는 ‘노력한 만큼 대가를 얻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고, 2순위는 ‘일자리를 가질 기회가 많은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이들은 모두 기회의 평등과 관련된 이슈로 분류할 수 있다. 사회통합의 구성요소 중에서는 사회이동성과 관련지을 수 있다. 이 중 1순위는 기회의 평등, 사회이동성뿐만 아니라 최근 우리나라에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공정성과도 관련이 된다. 2순위로 꼽힌 일자리 기회는 기회와 사회이동성으로 분류되지만 현재의 어려운 노동시장 상황을 개선하는 것이 사회통합의 조건으로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2016년에 3순위로 꼽혔던 ‘중산층이 두꺼운 사회를 만드는 것’은 2019년에는 11위로 순위에서 크게 밀려났다. 중산층 문제는 사회이동성의 이슈로 분류될 수 있지만(정해식 외, 2016, p. 42), 격차 또는 불평등을 줄임으로써 얻을 수 있는 포용성의 이슈로도 볼 수 있다. 대신 2019년에 3위로 꼽힌 것은 ‘법규칙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으로, 이는 공공에 대한 신뢰로서의 사회적 자본에 해당하는 이슈이자 동시에 부정 또는 불공정을 시정하는 공정성 이슈와 관련된다. 이것은 2016년에는 5순위로 꼽혔었다.

‘사회 구성원 각자가 주어진 역할에 충실한 것’은 두 시기 모두 4순위로 꼽혔다. 이는 사회적 자본의 이슈로 분류되었다(정해식 외, 2016). 2019년에 중산층 이슈를 밀어내고 5순위로 꼽힌 것은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사회를 이루는 것’이다. 이는 사회적 포용의 물질적 조건으로 분류할 수 있다. 2016년의 3순위인 중산층 이슈와 2019년의 5순위인 경제적 풍요는 모두 사회적 포용을 위한 물질적, 경제적 조건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이 중에서도 전자는 분배와 관련되고 후자는 성장에 관련되는 것으로 성격을 구분할 수 있다.

한편 사회통합을 위한 다양한 조건 중에서 우리 국민들이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로는 ‘문화적 다양성’(2016년, 2019년 19위), ‘양성 평등’(2016년 18위, 2019년 17위), ‘빈곤층 지원’(2016년 17위, 2019년 18위) 등의 순으로 확인된다. 다만 ‘투표 참여’는 2016년에 16위였던 것이 2019년에는 13위로 오르면서 그 중요성이 다소 커졌다.

〈표 2-20〉 사회통합이 이루어지기 위한 조건(2016년, 2019년)

분류	항목	2016년 순위	2019년 순위
이동, 공정	노력한 만큼 대가를 얻는 사회를 만드는 것	1	1
이동, 기회	일자리를 가질 기회가 많은 사회를 만드는 것	2	2
이동, 포용	중산층이 두꺼운 사회를 만드는 것	3	11
자본	사회 구성원 각자가 주어진 역할에 충실한 것	4	4
자본, 공정	법규칙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	5	3
포용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처우 차이를 줄이는 것	6	12
이동	충분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	7	7
자본	사회 구성원이 서로 믿고 살아가는 것	8	6
자본	사회 구성원이 자기만을 생각하지 않고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것	9	8
갈등관리	서로 다른 집단 간의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것	10	9
갈등관리	서로 다른 집단 간에 양보와 협력이 이뤄지는 것	11	10
포용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소득 차이를 줄이는 것	12	14
포용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사회를 이루는 것	13	5
갈등관리	정부가 나서서 갈등을 잘 조정하는 것	14	15
자본	사회 구성원이 여러 모임 등에서 다양하게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	15	16
자본	사회 구성원이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	16	13
포용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국민을 지원하는 것	17	18
포용	남성과 여성의 처우 차이를 줄이는 것	18	17
포용	사회 구성원이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	19	19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6). ‘사회통합 실태 및 국민인식 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사회문제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8). ‘사회갈등과 사회통합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9). ‘사회통합 실태 진단을 위한 실태조사’ 자료 분석.

사회통합을 위한 조건에 대한 인식을 인구집단별(성별, 연령대별)로 구분해서 두 시기를 비교해 보기로 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16년은 5점 척도로 5점 만점,

2019년은 4점 척도로 4점 만점이라는 차이가 있으므로 2개 연도의 점수를 그대로 비교하기에는 부적절하다. 따라서 성별로 중요한 요소로 꼽힌 항목을 연도별로 비교해보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먼저 2016년부터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노력한 만큼 대가를 얻는 사회를 만드는 것’을 4.36점으로 1순위로 꼽았고, 2순위로 ‘일자리를 가질 기회가 많은 사회를 만드는 것’, 3순위로 ‘중산층이 두꺼운 사회를 만드는 것’을 각각 꼽았다. 반면 여성은 ‘일자리를 가질 기회가 많은 사회를 만드는 것’에 1순위를 부여했고 2순위로 ‘노력한 만큼 대가를 얻는 사회를 만드는 것’을 꼽았다. 다만 남성과 같이 3순위에 ‘중산층이 두꺼운 사회를 만드는 것’을 꼽은 것과 더불어 ‘사회 구성원 각자가 주어진 역할에 충실한 것’을 같은 순위로 꼽은 것은 특징적이라 하겠다. 이 결과를 사회통합의 요소와 가치의 측면에서 일반화해 해석해 보면, 2016년에 남성은 사회통합의 조건으로 사회이동성과 공정성에 가장 높은 가치를 부여함으로써 ‘공정세계 신념’에 가장 큰 가치를 부여한 반면 여성은 사회이동성과 일자리 기회에 가장 높은 가치를 부여하였다고 할 수 있다.

2019년에는 ‘사회 고위층에 상응하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을 추가해서 총 20개의 문항으로 구성해 질문하였다. 사회통합에서 소위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중요성을 확인하고자 한 것인데, 이는 전체적으로 7순위에 꼽혀 비교적 높은 순위를 차지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 항목을 포함해서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1, 3순위는 2016년과 동일하였으나 3순위에 ‘중산층이 두꺼운 사회를 만드는 것’ 대신 ‘법규칙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을 꼽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여성의 경우는 2016년과 마찬가지로 ‘일자리를 가질 기회가 많은 사회를 만드는 것’을 1순위로, ‘노력한 만큼 대가를 얻는 사회를 만드는 것’을 2순위로 각각 꼽았고, 3순위는 같은 해 남성과 마찬가지로 ‘법규칙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을 꼽았다. 이 결과를 일반화해 해석해 보면, 2019년에는 사회통합의 조건으로 남성은 이동성과 공정성을, 여성은 이동성과 일자리 기회를 꼽아 2016년과 동일한 결과를 보였다고 할 수 있다.

3년이 지난 후 여전히 공정세계에 대한 신념과 일자리의 기회가 사회통합의 중요한 요소로 꼽히고 있으며, 두 시기 모두 양자 간의 우선순위에서 남녀 간 차이가 발견된다. 2016년과의 가장 큰 차이는 ‘중산층이 두꺼운 사회를 만드는 것’보다 ‘법규칙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에 보다 많은 가치를 부여함으로써 2019년에는 남녀 공히 사회통

합을 증진시키는 조건으로 공정성, 정의와 같은 가치에 높은 순위를 부여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고 할 수 있다.

〈표 2-21〉 사회통합이 이루어지기 위한 조건의 성별 비교(2016년, 2019년)

(단위: 점)

항목	2016년		2019년	
	남성	여성	남성	여성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국민을 지원하는 것	3.87	3.90	3.03	3.05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사회를 이루는 것	4.05	4.06	3.28	3.32
남성과 여성의 처우 차이를 줄이는 것	3.70	3.85	2.96	3.13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처우 차이를 줄이는 것	4.11	4.17	3.13	3.23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소득 차이를 줄이는 것	4.08	4.11	3.11	3.16
사회 구성원이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	3.61	3.63	2.75	2.77
사회 구성원이 서로 믿고 살아가는 것	4.07	4.17	3.27	3.28
사회 구성원이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	3.90	3.96	3.15	3.14
법규칙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	4.13	4.18	3.34	3.33
사회 구성원 각자가 주어진 역할에 충실한 것	4.13	4.19	3.32	3.31
사회 고위층에 상응하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	-	-	3.24	3.27
사회 구성원이 자기만을 생각하지 않고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것	4.09	4.14	3.24	3.25
사회 구성원이 여러 모임 등에서 다양하게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	3.91	3.97	3.06	3.11
충분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	4.10	4.15	3.23	3.27
노력한 만큼 대가를 얻는 사회를 만드는 것	4.36	4.39	3.45	3.41
중산층이 두꺼운 사회를 만드는 것	4.16	4.19	3.21	3.25
일자리를 가질 기회가 많은 사회를 만드는 것	4.33	4.40	3.38	3.46
서로 다른 집단 간의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것	4.08	4.14	3.23	3.24
정부가 나서서 갈등을 잘 조정하는 것	3.96	4.00	3.07	3.18
서로 다른 집단 간에 양보와 협력이 이뤄지는 것	4.06	4.13	3.20	3.28

주: 음영은 1~3순위, 굵은 글씨는 1순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6). '사회통합 실태 및 국민인식 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사회문제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8). '사회갈등과 사회통합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9). '사회통합 실태 진단을 위한 실태조사' 자료 분석.

다음으로 두 개 연도의 인식 차이를 연령대별로 구분해서 살펴보자. 먼저 2016년에는 청년과 노인의 경우 '노력한 만큼 대가를 얻는 사회를 만드는 것'을 1순위로, '일자리를 가질 기회가 많은 사회를 만드는 것'을 2순위로 그리고 '사회 구성원 각자가 주어

진 역할에 충실한 것'을 3순위로 각각 꼽아, 중요한 요소에 대한 우선순위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중고령층의 경우는 두 세대와 1, 2순위가 바뀐 것과 3순위로 두 세대에서 3순위 내에 들지 않았던 '중산층이 두꺼운 사회를 만드는 것'을 꼽았다는 차이가 있다.

〈표 2-22〉 사회통합이 이루어지기 위한 조건의 연령대별 비교(2016년, 2019년)

(단위: 점)

항목	2016년			2019년		
	청년	중고령	노인	청년	중고령	노인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국민을 지원하는 것	3.92	3.86	3.94	3.08	3.02	3.08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사회를 이루는 것	4.02	4.06	4.12	3.32	3.29	3.29
남성과 여성의 처우 차이를 줄이는 것	3.81	3.78	3.68	3.04	3.06	2.96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처우 차이를 줄이는 것	4.13	4.15	4.13	3.17	3.19	3.17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소득 차이를 줄이는 것	4.10	4.10	4.07	3.15	3.13	3.12
사회 구성원이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	3.64	3.62	3.56	2.77	2.76	2.73
사회 구성원이 서로 믿고 살아가는 것	4.09	4.13	4.15	3.28	3.30	3.18
사회 구성원이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	3.97	3.92	3.87	3.20	3.15	2.99
법규칙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	4.14	4.17	4.15	3.37	3.33	3.25
사회 구성원 각자가 주어진 역할에 충실한 것	4.17	4.16	4.16	3.34	3.31	3.26
사회 고위층에 상응하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	-	-	-	3.27	3.26	3.22
사회 구성원이 자기만을 생각하지 않고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것	4.09	4.12	4.11	3.23	3.26	3.20
사회 구성원이 여러 모임 등에서 다양하게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	3.93	3.95	3.93	3.06	3.10	3.06
충분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	4.17	4.12	4.04	3.30	3.23	3.26
노력한 만큼 대가를 얻는 사회를 만드는 것	4.40	4.37	4.36	3.44	3.44	3.40
중산층이 두꺼운 사회를 만드는 것	4.15	4.20	4.08	3.22	3.25	3.18
일자리를 가질 기회가 많은 사회를 만드는 것	4.38	4.38	4.27	3.44	3.41	3.40
서로 다른 집단 간의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것	4.12	4.11	4.08	3.27	3.24	3.15
정부가 나서서 갈등을 잘 조정하는 것	3.98	3.97	4.01	3.13	3.14	3.05
서로 다른 집단 간에 양보와 협력이 이뤄지는 것	4.09	4.10	4.09	3.21	3.26	3.20

주: 음영은 1~3순위, 굵은 글씨는 1순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6). '사회통합 실태 및 국민인식 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사회문제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8). '사회갈등과 사회통합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9). '사회통합 실태 진단을 위한 실태조사' 자료 분석.

2019년의 경우 연령대별 차이가 거의 없이 ‘노력한 만큼 대가를 얻는 사회를 만드는 것’과 ‘일자리를 가질 기회가 많은 사회를 만드는 것’이 청년층과 노인층에서는 공동 1순위로 꼽혔고, 중고령층에서는 각각 1, 2순위로 꼽혔다. 3순위에서는 연령대별 인식의 차이가 발견되는데, 청년층과 중고령층은 공히 3순위로 ‘법규칙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을 꼽았지만, 노인층은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사회를 이루는 것’을 꼽았다. 3순위만 놓고 보면 청년층과 중고령층은 사회적 자본과 공정 혹은 정의를 선택한 것과 달리 노인층은 경제적 측면의 포용을 선택한 것으로 일반화할 수 있다.

제 3 장

사회적 포용과 사회통합

제1절 서론

제2절 선행연구 검토

제3절 연구 방법

제4절 사회적 포용 상태의 진단

제5절 사회적 포용과 사회통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3

사회적 포용과 사회통합 <<

제1절 서론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룬 반면 양극화 및 불평등의 문제 그리고 삶의 질 측면에서의 개선은 미흡하다는 평가를 꾸준히 받고 있다. OECD의 사회통합지표(Social Cohesion Indicator) 중 삶의 질의 주관적 지표인 삶의 만족도 수준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삶의 만족도는 2016~17년 5.9점으로 OECD 평균 6.7점(0~10점)보다 낮다. 이는 OECD 36개국 중 31위에 해당하는 수준이다(OECD, 2019). 양적 성장에 주력함으로써 나타난 이러한 부정적 결과들에 대해 OECD는 ‘한국의 사회통합을 위한 제언’ 보고서 서문에서 “한국은 지난 수십 년간 급격한 성장과 고학력에 숙련된 국민들에 힘입어 엄청난 경제적 발전을 이뤘다. 그러나 최근 소득불평등이 심해지면서 향후 수년간 좀 더 강력하고 포용적인 성장을 위한 사회통합 강화 정책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OECD, 2013, p. 3).

우리 정부 역시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2019년을 ‘혁신적 포용국가의 원년’으로 선언하고 생애주기별 기본생활 보장을 내용으로 하는 ‘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혁신적 포용국가란 “국민 누구나 성별, 지역, 계층, 연령에 상관없이 차별이나 배제를 받지 않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으며 함께 잘 살 수 있도록 국가가 국민의 전 생애주기에 걸쳐 삶을 책임지며, 공정한 기회와 정의로운 결과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뒷받침하는 미래를 위해 혁신하는 나라를 말한다”(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사이트, 2019.10.17. 인출).

이처럼 ‘사회적 포용’은 OECD나 우리 정부 모두 사회통합(social cohesion) 및 사회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기본 토대로 인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OECD는 사회통합 의제 자체가 목표임과 동시에 성장이나 빈곤 감소 등의 사회적 목표 달성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다양한 사회적 관심사-사회적 포용(social inclusion),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 사회적 이동(social mobility)-를 통합하는 유용한 개념들이며,

특히 이 개념들은 질적 측면의 발전에 관심을 기울이도록 한다고 보고하고 있다(OECD, 2011, p. 28).

이 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사회통합 및 지속 가능한 성장 등 질적 측면의 발전을 위한 기본 토대라고 할 수 있는 사회적 포용을 다루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현재 사회적 포용 상태를 영역별, 집단별로 진단하고 사회적 포용을 구성하는 다양한 측면들이 우리나라의 사회통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사회적 포용이 낮은 것은 어떤 집단인지, 그들의 사회통합 수준은 어떠한지, 그들의 사회통합 수준에 사회적 포용 상태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는 일이라 할 수 있다. 이때 사회적 포용의 지표는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선별하고, 이 연구의 조사 자료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지표로 정리하고자 한다.

제2절 선행연구 검토

1. 사회적 포용과 사회적 배제

사회적 포용(social inclusion)은 앞서 언급하였듯이 OECD의 사회통합지표의 세 축 중 하나로 경제적 측면 이상의 사회의 질적 상태를 측정하는 하나의 영역이다. OECD는 사회통합(social cohesion)을 “모든 구성원들의 웰빙을 위해 작동하고 배제와 소외에 대항해 싸우며, 소속감을 만들고 신뢰를 증진시키며, 사회적 이동의 기회를 제공하는 상태”로 규정하고 있다(OECD, 2011, p. 53). 여기서 사회적 포용은 ‘모든 구성원들의 웰빙을 위해 작동하고 배제와 소외에 대항해 싸우’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사회적 포용은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과 사회적 이동(social mobility)의 구축과 실현을 위한 기본 토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빈곤과 불평등 그리고 사회적 양극화라는 사회적 배제의 측면이 심각하다면 개인이나 사회에 대한 신뢰와 시민참여 수준이 높기를 기대하기 어렵고, 사회 내에서의 지위 이동 또는 이동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기란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한편 사회의 질(social quality)을 측정하는 경우에도 사회적 포용은 하나의 구성요소로 포함된다. 사회의 질이란 의제 역시 유럽 사회의 노동시장 양극화 및 실업, 빈곤

과 같은 사회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소개되었는데 “개인들이 자신의 복지나 개인적 잠재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조건하에서 사회적·경제적·문화적 공동체의 삶에 참여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Beck et al, 1997, 이재열, 2015, p. 11에서 재인용). 사회의 질은 사회경제적 안전성(Socio-Economic Security), 사회적 응집성(Social Cohesion), 사회적 포용성(Social Inclusion), 사회적 역능성(Social Empowerment)으로 구성되는데, 여기서 사회적 포용성은 사회적 배제와 밀접히 관련되는 개념으로 사회 구성원 누구나 각 개인의 신념이나 가치와 무관하게 일상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제도적·정책적으로 제공되는 자원이나 혜택들을 평등하게 제공받고 접근 가능해야 한다는 규범적 판단에 기반을 둔 개념이다(이재열, 2018). 이와 다른 표현으로는 “사회 구성원이 시민권을 실현하고, 노동시장과 다양한 사회제도를 통해서 주어진 권리를 향유하며, 다양한 사회적 관계 속에 포용되어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정해식, 2012, pp. 23~24).

‘사회통합’과 ‘사회의 질’ 의제 모두에서 사회적 포용은 사회적 배제와 깊이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사회의 질’을 정의할 때 사회적 포용은 사회적 배제의 대응 개념으로 설명되었으나 Walker와 Wigfield는 사회적 포용(social inclusion)은 단순히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의 반대 개념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사회적 포용은 사회의 질적 맥락에서 사회적 배제와 달리 긍정적 지향을 가지고, 민주주의 사회에서 시민권의 의미를 명확히 표현할 수 있는 가능성의 지평을 열었으며, 단순한 포용이 아니라 질적 측면의 포용을 강조한다. 이러한 이유로 사회적 포용은 ‘사람들이 일상을 구성하는 다양한 관계, 조직, 하위체계와 구조에 통합된 정도 및 통합되어 있다고 느끼는 정도’로 다시 정의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비록 수량화나 명확한 분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지만 객관적 요인 못지않게 주관적인 요인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Walker and Wigfield, 2003).

그러나 사회적 포용이 사회적 배제의 대척점에 있다고 볼 수는 없을지라도 사회적 포용 개념의 핵심이 사회적으로 배제되지 않음을 의미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사회적 포용에 대한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사회적 포용의 개념을 그 자체로 규정하기보다는 사회적 배제를 통해 개념화하고 있다. 이에 대해 Cameron은 사회적 포용의 개념은 사회적 배제에 관한 문헌에서 간접적으로 언급될 뿐이며, 사회적 포용은 일반적으로 ‘사회적으로 배제되지 않는 것’으로 부정적으로 정의될 뿐이라고 지적하였다. 사회적 배제는 사회적 포용이 경험적으로 측정되고 개념적으로 정의되는 기준점이라고

주장하였다(Cameron, 2006). 이러한 이유로 이 장에서도 사회적 포용의 상태를 진단하기 위해 사회적 배제의 개념과 이를 측정하는 지표들을 검토하였다.

2. 사회적 배제의 개념 및 측정 지표

1977년 유럽연합에서 사회적 배제를 암스테르담 조약의 정식 의제로 채택하면서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했다. 실업과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확대되었던 2000년에는 이 같은 상황이 사회통합(social cohesion)을 저해한다는 인식에 따라 리스본 유럽정상회담에서 ‘사회적 배제에 관한 공동보고서’가 채택된 바 있다. 사회적 배제가 빈곤과 관련한 중요한 개념이기는 하지만 빈곤의 실증적 분석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정치적 쓰임에 의해 주목받은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명확히 합의된 사회적 배제의 개념은 존재하지 않지만, 빈곤의 개념이 외연적으로 확장되고 사회권의 의미가 보완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빈곤은 경제적 결핍으로 정의되는 반면 사회적 배제는 경제적 결핍을 포함한 교육, 문화, 건강 등과 같은 다양한 영역에서 발생하는 인간의 기본권 박탈에 주목하고 있다. 경제적 결핍에서 파생되는 다양한 삶의 기회의 박탈, 나아가 사회적 고립에 이르기까지 개인의 삶의 영역의 많은 부분을 포함한다. 또한 빈곤이 결과적 측면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사회적 배제는 과정에 집중한다고 볼 수 있다. Pierson은 사회적 배제란 “사회, 경제, 정치적 참여에 필요한 자원이 개인, 가족, 집단, 이웃으로부터 박탈되는 과정”이라고 정의하였다. 이러한 과정은 주로 빈곤에서 비롯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차별, 낮은 교육 수준, 열악한 주거환경 등에서도 기인하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사회적으로 배제된 사람의 대다수는 사회제도 및 서비스, 사회적 네트워크 측면에서도 기회가 박탈된다고 보고 있다 (Pierson, 2002).

한편 사회적 배제의 개념은 사회권 측면에서 기본적 권리의 박탈에 주목하고 있는데, 개인과 사회구조와의 관계에서 당사자들의 참여 기회가 박탈되거나 자원이 부족하거나 불이익을 당하는 등을 기본권 침해로 이해한다. 윤진호 외는 “사회적 배제란 빈곤과는 달리 일정한 기본적 권리를 부인당하는 것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즉, 한 사회의 시민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 예컨대 사회보장권, 경제적 복지권,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가지고 살아갈 권리 등을 누리지 못하는 상태가 바로 사회적 배제라는 개념으로

로 총괄될 수 있다”고 보았다(윤진호 외, 2004; 강신욱, 2005에서 재인용).

사회적 배제는 앞서 언급하였듯이 많은 연구에도 불구하고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 대표적인 예를 학술문헌과 정부 그리고 국제기구로 분류하여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표 3-1〉 사회적 배제의 정의

구분	정의
Levitas et al., 2007	사회적 배제는 복잡하고 다차원적인 과정임. 자원이나 권리, 재화와 서비스의 부족 및 거부 그리고 경제, 사회, 문화 또는 정치적 영역에서 한 사회의 대다수가 할 수 있는 일반적인 관계와 활동의 참여가 불가능한 것을 포함함. 그것은 개인의 삶의 질과 사회 전체의 형평과 사회통합(cohesion)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정의함.
Gordon et al., 2000	영국 사회의 대부분의 사람이 참여하는 사회적 관계, 사회적 관습 및 활동에 대한 접근의 부족 및 거부를 의미하며, 이는 종종 '상태'가 아니라 '과정'으로 간주됨.
Pierson, 2002	사회적 배제는 개인과 가족, 집단과 이웃에게 사회 전체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 활동에 참여하기 위한 자원을 박탈하는 과정임.
Burchardt et al., 2002	한 개인이 (a) 지리적으로 한 사회에 거주하지만, (b)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이유로 정상적인 시민으로서의 활동에 참여할 수 없는 상태에서, (c) 참여를 원하는 경우 사회적으로 배제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Alber & Fahey, 2004	사회적 배제란 개념은 빈곤이나 다차원적인 박탈의 동의어로 단순히 이해될 수 없음. 그 개념은 가족지원체계의 빈약함, 가족 외부의 사회적 지지체계의 허술함 그리고 물질적 자원 운용의 부족 등에 대한 사회적 포용 노력의 부족으로 이해됨.
Fleury, 1998	배제는 사회정치적 공동체에서 개인, 집단, 인구 전체의 포용을 금지하는 규범이 확립되는 문화적 과정임. 따라서 일반적으로 배제된 집단은 지배적인 경제적 관계(시장, 생산자 또는 소비자로서)와 정치적 관계, 그 영향으로 시민권 행사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함.
Fraser, 2003	사회적 배제는 일종의 불의(injustice)이지만 항상 재분배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경제적 박탈은 아님. 반대로 그 개념은 사회 불의의 두 가지 차원, 나쁜 분배와 인식의 부족이라는 교차점에 있음. 두 가지 차원의 정의는 그 해당 또한 이차원적이어야 함. 그러므로 사회적 배제를 막고자 하는 정책은 재분배 정책과 인식과 관련된 정책이 결합되어야 함. 그 두 가지 정책은 각각 그 자체로 충분하지 않음.
Juliano, 2001	현대 복잡한 사회에서 두 가지 유형의 상호 관련된 과정이 나타남. 그것은 소외와 배제임. 소외는 경제적 자원과 권력에 대한 접근성을 낮추는 결과를 가져옴. 특정 집단의 평가절하 및 낙인과 차별적 관행은 이러한 상황을 정상적인 것으로 보이게 하는 경향이 있음. 배제된 사람들에게 그들의 불안정한 상황에 대한 책임을 그들에게 돌리는 상징적인 폭력이 체계적으로 적용됨. 사회적 배제는 소외되는 과정의 극단에서 발견됨.

학술문헌

구분	정의	
Valencia, 2001	배제는 단지 차별과 소외가 아님. 그것은 다른 이들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사회적 관계의 한 유형임.	
Estivill, 2003	경제, 정치, 사회의 중심으로부터의 연속적인 파열로 인한 복합적인 과정의 누적은 점차적으로 개인, 집단, 지역사회에 권력과 자원, 지배적인 가치와 관련되어 열등한 지위를 갖게 함.	
정부 및 국제기구	영국의 사회적 배제 대책실 (SEU)	사회적 배제는 개인이나 어떤 영역이 실업, 비숙련, 저소득, 열악한 주거, 높은 범죄 환경, 불안강과 가족해체 등과 같이 연계된 문제들의 조합으로부터 고통받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일의 약칭이라고 규정함.
	2002년 호주 총리 Rann	사회적 배제는 어려운 사회적 환경에 의해 심화되고 무감각한 정부정책과 정부의 방지에 의해 악화되는 냉혹하고 불공평한(unjust) 경제적 조건에 의해 발생함. 사회적 배제는 개인, 가족 그리고 지역사회가 안전하고 보상이 적절하며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회에 대한 접근이 불가능할 때 경험하게 됨.
	DFID	사회적 배제는 특정 그룹이 그들의 민족, 인종, 종교, 성적 취향, 카스트, 혈통, 성별, 나이, 장애, HIV 상태, 이주자 지위 또는 사는 지역에 기초한 차별 때문에 체계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과정으로 설명함. 차별은 법적 체계나 교육 그리고 건강서비스와 같은 공적 제도에서뿐만 아니라 가구와 같은 사적 제도에서도 발생함.
	유럽의회	사회적 배제는 소비사회에서 참여를 넘어서며, 사회적·경제적·정치적 그리고 문화적 삶에서 부적절하고 불공평하거나 참여가 부족한 것을 포함함. 배제는 사회적 고립에서 사회와의 완전한 단절로 확대됨.
	유엔	배제는 인권위원회에 의해 정의된 유엔 비차별 조항으로 번역될 수 있음.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다른 의견, 국가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다른 지위를 근거로 한 차별, 배제, 제한 또는 선호를 의미함. 그리고 그것은 모든 권리와 자유에 대해 동등한 입장에서 모든 사람의 인식, 향유, 행사를 무효화하거나 손상시키는 목적 또는 효과를 가짐.
	ESRC (2004)	개인과 그들의 지역사회가 양극화되며 사회적으로 차별화되고 불평등해지는 과정을 의미함.

자료: Mathieson et al(2008), Social Exclusion: Meaning, Measurement and Experience and Links to Health Inequality. pp. 86-87, Levitas et al(2007). The multi-dimensional analysis of social exclusion. p. 21의 내용 수정보완.

위와 같이 사회적 배제의 개념이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지만 저소득 및 물질적 박탈의 상태, 복지제도 및 고용,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의 문제, 사회적 관계망으로부터의 배제, 사회적·정치적 참여 등의 문제와 관련된다는 의미는 다양한 정의 속에 공통적으로 내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물질적으로 빈곤하거나 자원이 부족한 상태뿐만 아니라 개인이나 집단이 사회에서 소외되는 과정에 대한 것이라는 공통점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배제의 과정은 경제·정치·사회적 중심으로부터 개인과 집단을 열등한 위치해 배치함으로써 불평등과 양극화를 야기하는 구조적 과정임을 지적

하고 있다.

사회적 배제를 진단하기 위한 측정 지표는 거시적 측면에서 한 국가의 상태(및 과정)에 초점을 맞추거나 미시적 측면에서 개인의 상태(및 과정)에 초점을 맞출 수 있다. 예를 들어 고용으로부터의 배제에 대한 측정은 거시적 측면에서 한 국가의 고용률 등을 통해 살펴볼 수 있으며 미시적 측면에서 개인의 취업 여부 등을 통해 진단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국민 개인의 사회적 배제 상태를 측정하고자 하는 것이기에 이에 주목하여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측정 지표를 정리하고자 한다.

먼저 영국의 PSE(Poverty and Social Exclusion)는 영국 사회에서 '대다수의 사람이 참여하는 사회적 관계, 사회적 관습 및 활동에 대한 접근의 부족 및 거부'를 사회적 배제로 정의(Gordon et al., 2000)하고 사회적 배제의 지표를 4개 차원으로 구성하고 있다. 4가지 사회적 배제의 차원은 적절한 소득 또는 자원의 배제 상태인 '빈곤(improvement)', '노동시장 배제', '서비스 배제', '사회적 관계 배제'이다. PSE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Levitas(2006)는 빈곤, 유급노동의 결핍, 실직 가구에서 사는 것, 서비스 배제, 사회적 활동 비참여, 사회적 고립, 열악한 사회적 지원, 시민적·정치적 비참여 등 8개 지표로 사회적 배제를 측정하기도 하였다. 또한 Barnes(2002)의 연구는 사회적 배제를 '사회통합을 결정하는 경제, 사회 및 문화적 체계로부터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폐쇄되는 다차원적이고 역동적인 과정'으로 정의(Walker and Walker's, 1997)하고, 영국의 패널 조사 자료 BHPS(British Household Panel Survey)를 활용하여 사회적 배제를 재정 상황, 내구재의 소유권, 주택의 질, 이웃 인식, 개인적인 사회적 관계, 육체적 건강, 심리적 안녕 등 7개 차원으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개인의 사회적 배제 상태를 진단한 국내 연구로는 김안나(2007)와 김교성, 노혜진(2008)의 연구가 대표적이다. 김안나의 연구에서는 사회적 배제를 '사회구조적으로 다양한 기회의 박탈 혹은 공동체에 사회적 연계의 결핍으로 정상적인 사회·경제적 활동에 참여하지 못함으로써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를 박탈당한 상태'로 규정하고 경제, 근로, 일자리, 주거, 교육, 건강, 사회적 관계망, 사회서비스 등 8개 차원으로 구분하였다(김안나, 2007, p. 236). 또한 김교성, 노혜진의 연구에서는 사회적 배제를 '다차원적인 영역에서 사회의 주류 질서로부터 유리되는 역동적인 과정을 경험하면서 빈곤을 형성하고 재생산하는 기제'로 정의하고 배제의 차원을 재정, 주거, 고용, 사회적 참여, 건강, 교육 등 6가지로 분류하였다.

〈표 3-2〉 사회적 배제의 측정 지표

구분	차원	측정 지표	측정 방법
Gordon et al. (2000)	빈곤	소득 빈곤	- OECD 및 PSE 균등화 평균 가구 소득 이하
		주관적 빈곤	- 스스로 빈곤층이라 생각하는지 여부 - 삶의 대부분을 빈곤층으로 살았는지 여부
		필수품의 부족	- 자동차, 세탁기, TV, 전화기, 컴퓨터, 인터넷 접근 등 - 하루 두 끼 식사, 이틀에 한 번 고기나 생선, 적절한 난방, 정기적 저축, 오래된 가구를 교체할 수 있는 충분한 돈, 1년에 한 번 가족이나 친구를 위한 선물, 정기적인 헤어 관리 여부 등 - 한 달에 한 번 외식, 1년에 한 번 해외로 휴가, 취미 또는 여가활동 등
	노동시장 배제	유급노동 배제	- 가구 내 유급 노동 가구 구성원 여부
	서비스 배제	공공 및 민간서비스 배제	- 도서관, 공공스포츠시설, 박물관 및 미술관, 영화관, 공공커뮤니티 센터, 응급실이 있는 병원, 우체국, 버스 정류장, 기차역 등
	사회적 관계 배제	사회적시민적정치적비참여, 사회적 접촉 배제, 고립	- 일반적인 사회활동 비참여 - 사회적 네트워크의 범위 및 고립 - 정치 및 시민 활동으로부터 분리 -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나 장애 및 다른 요인들로 인한 고립
Barnes (2002)	재정 상황	소득빈곤	- PSE 절대빈곤 소득 기준
	물질적 소유	박탈	- TV, 냉동실, 세탁기
	주거 환경	열악한 주거의 질	- 중앙난방장치, 가구원 과밀(방당 1.5명 기준)
	거주지 인식	거주지 불만족	- 이사 욕구(고압감, 교통체증, 불안전, 소음, 불친절 등의 원인)
	개인적인 사회적 관계	사회적 지지 부족	- 말할 욕구가 있을 때 귀담아들어 줄 의지가 되는 사람, 위기에 처했을 때 의지가 되는 사람, 화가 났을 때 편안하게 해 주는 사람 등이 한 명도 없는 경우
	육체적 건강	신체적 건강문제나 장애	- 건강문제나 장애가 있는지, 지난 12개월 동안의 주관적 건강, 일상적인 활동과 관련된 5가지 신체적 손상
	심리적 안녕	정신건강	- GHQ 점수가 7점 이상인 경우(집중력 부족, 불면증, 지속적인 긴장, 일상적 활동에 대한 무기력, 우울증, 자신감 상실 등 평가)
Burchard et al (1999)	소비활동	저소득	- 전체 가구 평균 소득의 50% 이하
	저축활동	저재산	- 비자가, 직업연금이나 노령연금 제도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평균 이하의 저축을 가진 사람
	생산활동	생산행위의 결여	- 취업, 자영업, 전업주부, 연금 수혜자, 학생이 아닌 사람
	정치활동	정치적인 비참여	- 주요 선거에 불참한 사람으로서 정치조직(정당의 회원이 아닌 사람
	사회활동	사회적 고립	- 지원받을 수 있는 주위 사람이 없는 사람
brads haw et al. (2000)	수입/자원	저소득	- 중위소득 60% 이하
		사회적 필수품의 결여	- 통년적인 필수품 중에서 2-3개 품목 결여
		주관적 빈곤	- 주관적으로 선정한 필수 생활비와 실제 수입을 비교
	노동시장	실직 상태	- 퇴직과 학생을 제외한 실업 상태
	공공 서비스	기본적인 서비스 접근의 결여	- 전기, 수도, 교통수단, 물품구매, 금융서비스 등 3개 이상의 기본적인 서비스를 받지 못할 경우
	사회적 관계	사회적 활동에 비참여	- 사회적으로 필요한 활동 중 3개 이상을 하지 못할 경우
		소외	- 매일 접하는 가족이나 친구의 부재
		지원	- 가사 및 정서적 지원(7개 상황에서 4가지 지원의 부재)
		이탈	- 지난 3년간 모든 조직 활동에 참여하지 않음 - 선거만 참여하고 모든 활동에 참여하지 않음
		사회적 활동의 제한	- 여러 개인적 여건상 사회활동을 할 수 없음 - 어둠 등 공포로 인해 일출 후 산책 불가능
김안나 (2007)	경제	빈곤	- OECD 가구균등화 자수를 적용한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
	근로	근로빈곤	- 가구원 중 한 명이라도 일을 하고 있지만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

구분	차원	측정 지표	측정 방법
	일자리	실업	- 가구주가 실업자인 경우
	주거	주거환경 미비	- 살고 있는 집에 전용 화장실이 없는 경우 - 돈이 없어 두 달 이상 집세를 미뤘거나 집세를 낼 수 없어 집을 옮긴 경우 - 가스, 기름 등 연료가 떨어져 추운 겨울에 난방을 하지 못한 경우
	교육	교육 기회 결여	- 중등교육 이하의 학력을 가진 경우 - 자녀가 원하는 데도 학원이나 과외를 시켜 주지 못한 경우
	건강	의료요구 미충족	- 가족이 장기질환을 앓지만 정기적 진료를 받지 못한 경우 - 몸이 아플 때 병원에 가서 주로 치료를 받지 못한 경우 - 돈이 없어서 병원에 갈 수 없었던 적이 있는 경우
	사회적 관계망	사회적 고립	- 어려울 때 이야기를 나누고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친척이나 친구가 없는 경우 - 물질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친척이나 친구가 없는 경우
	사회서비스	정보/서비스 소외	- 인터넷 연결망을 보유하지 못한 경우 - 걸어서 10분 안의 거리에 버스 정거장이나 전차역이 없는 경우
김교성, 노혜진 (2008)	재정	소득 규모	- 소득분포 5분류
		수입 만족도	- 만족도 평가
		소비수준	- 소비분포 5분류
	주거	주택 소유 여부	- 자가와 그 외
		주거환경 만족도	- 주거 만족도 평가
	고용	고용 상태	- 취업/미취업
		직장 부가급여와 복리후생	- 0-4/ 5-9/ 10-14/ 15-20 - 미취업 부가 급여 없는 것으로 봄
		노조 가입 여부	- 모르거나 없음/ 있으나 미가입/ 있으면서 가입 - 미취업은 노조가 없는 것으로 봄
	사회적 참여	여가활동 만족도	- 만족도 평가
		가족관계 만족도	- 만족도 평가
		사회적 친분 만족도	- 만족도 평가
		친인척 관계 만족도	- 만족도 평가
	건강	심리: 생활만족도	- 만족도 평가
		신체: 건강상태	- 건강상태 평가
	교육	직업훈련/교육 참여	- 참여함/참여하지 않음
학력		- 중졸 이하는 배제	

자료: 1) Gordon et al. (2000). Poverty and social exclusion in Britain.
 2) Barnes. (2002). Social exclusion in Great Britain: An empirical investigation and comparison with other European Union member states. p. 69.
 3) Burchardt et al. (1999). Social Exclusion in Britain 1991-1995. p. 233.
 4) Bradshaw et al. (2000). The Relationship between Poverty and Social Exclusion in Britain.
 5) 김안나. (2007). 한국의 사회적 배제 실태에 관한 실증적 연구. p. 239.
 6) 김교성, 노혜진. (2008). 사회적 배제의 실태와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퍼지 집합이론을 이용한 측정과 일반선형모델 분석. p. 140.

위와 같이 개인의 사회적 배제에 초점을 둔 연구들의 측정 지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소득이나 재산 등을 통해 개인의 경제적 상황을 중요한 사회적 배제의 차원으로 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Gordon et al., 2000; Barnes et al., 2002; Bradshaw et al., 2000; 김안나, 2007; 김교성, 노혜진, 2008). 사회적 배제가 빈곤의 외연적 확장이라는 측면에서 이것은 당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둘째, 소득과 개인

의 웰빙의 핵심 결정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고용을 또 하나의 사회적 배제의 차원으로 보고 있다(Gordon et al., 2000; Burchardt et al., 1999; 김안나, 2007; 김교성, 노혜진, 2008). 고용은 소득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도 중요하지만, 일을 통한 자아 인식과 사회적 상호작용의 측면에서도 사회적 배제의 측면으로서 그 중요성이 높다 하겠다. 비자발적 실업은 사회적이고 건강과 관련된 다양한 부정적인 결과와 연관된다(Stiglitz, 2002). 셋째, 일부 연구에서는 건강하지 못한 상태 또는 의료 욕구가 충족되지 못하는 상태를 사회적 배제의 한 영역으로 포함하고 있다(Barnes, 2002; 김안나, 2007; 김교성, 노혜진, 2008). 이때 건강은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건강, 즉 심리적 상태를 포함한다. 넷째, 대부분의 연구에서 주거의 상태도 사회적 배제의 영역으로 포함하고 있다. 주거 영역의 배제는 사회적 배제의 다른 영역들과 깊은 관련성을 갖는다(하성규, 서종녀, 2006; 김승연, 김세림, 이진석, 2013; 원재웅, 이재수, 2017). 경제적·사회적·정치적·문화적 관계에서의 배제는 건강과 웰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즉, 노동시장에서 배제되거나 불리한 조건은 낮은 소득을 야기하고, 이는 열악한 주거 상태로 이어져 거주자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섯째, 일부 연구에서는 서비스 배제도 사회적 배제의 한 영역으로 포함하고 있다(Gordon et al., 2000; Bradshaw et al., 2000; 김안나, 2007). 서비스에 대한 접근은 소득, 교육, 건강 등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예를 들어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성은 일자리, 학교, 병원 접근성에 영향을 미쳐 결과적으로 소득이나 교육 수준, 건강에 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여섯째, 교육의 사회적 배제이다. 적절한 교육은 취업능력 향상을 통해 소득 전망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교육 과정은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중요한 장이 되기 때문에 중요한 사회적 배제의 한 영역으로 볼 수 있다(김안나, 2007; 김교성, 노혜진, 2008). 마지막으로 대다수의 사회적 배제에 관한 연구들은 사회적 관계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Gordon et al., 2000; Barnes et al., 2002; Burchardt et al., 1999; Bradshaw et al., 2000; 김안나, 2007; 김교성, 노혜진, 2008). 사회적 관계의 영역은 개인적인 사회적 관계(사회적 지지의 원천 등)를 포함할 뿐만 아니라 정치·사회적인 활동 및 참여 등을 포함한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사회적 배제는 경제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춘 빈곤의 개념에서 사회·정치·문화적 측면으로 개념이 확장됨으로써 한 사회의 시민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의 배제 측면을 측정하고 있다.

제3절 연구 방법

1. 사회적 포용의 측정 지표

이 연구는 사회통합의 세 가지 구성 요소인 사회적 포용과 사회적 자본, 사회적 이동으로 구분하여 그 상태를 진단하고자 하기 때문에 사회적 자본의 영역으로 분류할 수 있는 '사회적 관계'에 대한 분석은 다음 장으로 미루고자 한다. 또한 다른 영역의 측정 지표들이 사회적 배제의 상태를 나타내는 결과적 특성과 사회적 배제의 상태를 야기하는 원인적 특성 모두를 가지고 있는 반면 교육의 영역은 사회적 배제를 야기하는 요인으로서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이 분석에서 제외하고자 한다. 또한 앞서 정리한 사회적 배제의 측정 지표에 대한 선행연구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으나 Estivill(2003), Fraser(2003), ESRC(2004), Levitas et al(2007) 등이 정의한 사회적 배제의 개념에서 '나쁜 분배', '권력과 자원, 지배적인 가치와 관련되어 열등한 지위', '양극화되고 사회적으로 차별화되며 불평등해지는 과정', '사회 전체의 형평' 등과 같은 단어들이 언급되고 있으며, 이러한 용어들은 사회적 배제의 상태가 아닌 개인이나 집단의 사회적 배제를 야기하는 사회구조적 과정과 관련된다고 볼 수 있다. OECD는 "불평등의 확대는 극빈층의 수가 감소할지라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인 생활수준으로부터 배제되게 함으로써 사회적 포용을 제한"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OECD, 2011, p. 94). 이에 이 연구는 객관적인 상태를 측정할 수 없는 한계가 있으나, 간접적으로 사회적 배제의 상태를 진단하는 지표로 기회의 평등, 분배의 평등, 특정 대상에 대한 대우의 평등(차별), 법 집행의 평등을 사회적 배제의 지표로 포함하고자 한다. 객관적인 배제의 상태, 즉 결과적 측면과 그러한 상태를 야기하고 야기된 결과를 개선하려는 과정이라 할 수 있는 사회구조에 대한 인식을 살펴봄으로써 사회적 배제 상태 진단의 폭을 넓히고자 한다.

한편 이하부터는 사회적 배제가 아니라 사회적 포용이란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사회적 포용은 사회적 배제 상태의 진단을 통해서 확인될 수 있기 때문에 개념 및 측정 지표를 검토함에 있어 사회적 배제에 초점을 맞추었으나, 이 연구는 사회적 배제가 개선된 상태인 사회적 포용 상태의 진단을 연구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이 연구의 사회적 포용은 경제, 노동, 건강, 주거, 서비스 등 5가지 차원

의 사회적 포용 상태와 기회의 평등 인식, 분배의 평등 인식, 특정 대상에 대한 평등 인식, 법 집행의 평등 인식 등 4개 차원의 사회적 포용의 구조적 과정에 대한 인식으로 구성하고(총 9개 차원), 측정 지표는 ‘2019년 사회통합의 상태 진단을 위한 실태조사’ 자료의 활용 가능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표 3-3〉 이 연구의 사회적 포용의 차원 및 지표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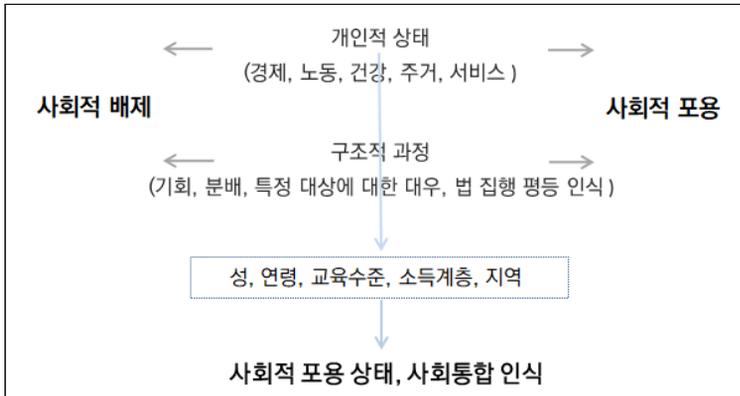
구분	차원	측정 지표	측정 방법	포용 상태
포용 상태 (개인)	경제	객관적 빈곤	- 가구균등화 소득 중위 50% 기준	비빈곤층
	노동	노동시장 참여 상태	- 유급 노동 (무급가족종사자, 실업자, 비경제활동 인구 제외)	유급 노동
	건강	신체건강 상태	- 만성질환 유무	만성질환 없으면서 우울도 보통 이하
		정신건강 상태	- 우울도	
	주거	물리적 주거 상태	- 적절한 난방 - 적절한 방의 수 - 지상 주택 거주 - 전용 수세식 화장실 및 온수 목욕시설	물리적 주거 조건 모두 충족하면서 주거비 부담 30% 이하
		주거비 부담	- 임대료가 가구 월 소득의 30% 이상인 가구(자가, 전세는 부담 없는 것으로 봄)	
서비스	서비스 접근성	- 문화시설 접근성 - 교육시설 접근성 - 의료시설 접근성 - 안전시설 접근성 - 생활편의시설 접근성 - 대중교통 접근성	모두 이용하고 있거나 필요하지 않아 이용 안 하는 경우	
포용 과정에 대한 인식 (구조)	기회의 평등 인식	- 교육 기회 인식 - 취업 기회 인식 - 승진승급 기회 인식	매우 불평등하다(1점)~매우 평등하다(5점)	
	분배 평등 인식	- 소득 분배 상태 인식 - 부(재산) 분배 상태 인식		
	특정 대상에 대한 평등 인식	- 여성에 대한 대우 - 남성에 대한 대우 - 장애인에 대한 대우 - 이주민(외국노동자, 결혼이주여성,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대우		
	법 집행 평등 인식	- 법 집행의 평등 인식		

2. 연구 모형

이 장에서는 위와 같은 사회적 배제의 측정 지표를 통해 사회적 포용의 상태를 측정하고 사회적 포용 정도가 낮은 집단은 누구인지, 그들의 사회통합 인식 수준은 어떠한

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사회적 통합 수준에 사회적 포용의 각 차원들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림 3-1] 사회적 포용과 사회통합 분석 모형



사회적 포용의 집단별 수준을 확인하는 작업은 성, 연령, 교육 수준, 소득계층 그리고 지역(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변수를 통해 살펴본다. 이러한 개인의 특성들은 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사회학적 특성들로서 사회적 배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서도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유의미성이 확인되었다. 여성은 남성에 비해 사회적 배제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았고, 중장년층은 청년층과 노년층에 비해 사회적 배제의 정도가 높았으며,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사회적 배제가 낮게 나타났다. 한편 대도시에 거주하는 경우가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경우보다 사회적 배제의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안나, 2007; 김교성, 노혜진, 2008; 이정은, 조미형, 2009).

다음으로 사회적 포용의 각 차원이 사회통합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본다. 이때 사회통합 인식은 직관적으로 ‘귀하는 현재 우리나라가 사회통합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십니까?’(0~10점 서열변수)라는 문항을 활용하며, 개인적 포용 상태(경제, 노동, 건강, 주거, 서비스)와 구조적 포용 과정에 대한 인식(기회, 분배, 특정 대상에 대한 대우, 법 집행 평등 인식)이 사회통합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세부적으로 검토한다.

제4절 사회적 포용 상태의 진단

1. 개인의 포용 상태

개인의 포용 상태는 경제, 노동, 건강, 주거, 서비스 등 5가지 차원으로 진단한다. 먼저 경제 차원의 포용 상태는 객관적 빈곤을 기준으로, 가구균등화 소득이 중위 50% 이상인 비빈곤 상태를 포용 상태로 본다. 이 조사 자료의 89.53%가 경제적으로 포용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성에 따른 포용 상태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으나 연령층(19~34세, 35~64세, 65세 이상), 학력(중졸 이하, 고졸, 대졸 이상), 주관적 소득계층(하층, 중하층, 중간층, 중상층), 지역(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에 따른 포용 정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즉, 65세 이상 노인층의 경우 62.8%, 학력이 중졸 이하인 경우 61.5%, 주관적 계층의식이 하층인 경우 60.4% 그리고 농어촌에 사는 경우 76.3%가 포용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표 3-4〉 경제 차원의 포용 상태

(단위: %)

구 분		경제 포용 상태	χ^2
전체		89.5	
성별	남	90.4	3.0187
	여	88.7	
연령층	19~34세	94.6	402.6248***
	35~64세	92.5	
	65세 이상	62.8	
학력	중졸 이하	61.5	561.3078***
	고졸	92.0	
	대졸 이상	96.3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60.4	523.0714***
	중하층	90.4	
	중간층	96.1	
	중상층(상층)	95.2	
지역	대도시	90.1	62.9111***
	중소도시	91.2	
	농어촌	76.3	

주: * $p < 0.05$, ** $p < 0.01$, *** $p < 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9). '사회통합 상태 진단을 위한 실태조사' 자료 분석.

노동 차원의 포용 상태는 유급노동에 참여하고 있는지를 통해 진단하는데, 조사 자료 전체의 66.7%가 유급노동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남성이 여성보다 유급노동에 참여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35~64세 연령층과 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경우 노동 차원 포용 상태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객관적 소득계층 구분에서는 중위소득의 150% 이상인 경우 유급노동에 참여하고 있는 비율이 77.6%로 가장 높았으나 주관적 소득계층 구분에서는 중하층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71.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중하층에게 노동은 선택사항이 아니란 점이 중하층의 노동 포용 상태가 중간층 이상보다 높게 나타난 이유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경제 차원의 포용 상태, 즉 빈곤/비빈곤 상태와 달리 지역에 따라서는 노동 차원의 포용 상태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는다.

〈표 3-5〉 노동 차원의 포용 상태

(단위: %)

구 분		노동 포용 상태	χ^2
전체		66.7	
성별	남	78.6	253.9627***
	여	54.5	
연령층	19~34세	61.8	171.4106***
	35~64세	73.5	
	65세 이상	43.5	
학력	중졸 이하	49.4	144.3891***
	고졸	63.3	
	대졸 이상	75.6	
객관적 소득계층 (중위소득 기준)	50% 이하	31.2	281.1319***
	50~150%	68.8	
	150% 이상	77.6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58.4	29.0361***
	중하층	71.0	
	중간층	65.3	
	중상층(상층)	68.7	
지역	대도시	65.0	4.7925
	중소도시	68.4	
	농어촌	65.4	

주: *p<0.05, **p<0.01,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9). '사회통합 상태 진단을 위한 실태조사' 자료 분석.

또한 건강 차원에서 포용 상태는 신체건강 상태와 정신건강 상태를 통해 진단해 보고자 한다. 신체적 건강 상태는 만성질환 여부를 통해, 정신건강 상태는 우울 정도를 통해 확인하며 만성질환이 없고 우울하지 않은 상태(전혀 우울하지 않았다 0점~보통 5점)를 건강 차원에서 포용 상태로 본다. 건강 차원에서 포용 상태에 있는 경우는 전체의 79.7%로 나타나며 만성질환이 없는 경우는 87.5%, 우울하지 않은 경우는 89.7%로 나타났다. 건강 포용 정도는 성별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 연령, 학력, 소득계층, 지역에 따라서는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건강 포용 상태는 연령이 낮을수록 높았으며(19~34세 92.4%), 학력이 높을수록 높았고(대졸 이상 89.8%), 객관적·주관적 소득계층 모두 소득이 높은 계층일수록 높게 나타났다(중위소득 150% 이상 91.4%, 중상층(상층) 91.2%). 지역별로는 중소도시 건강 포용 정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대도시, 농어촌 순으로 건강 포용 정도가 낮게 나타났다.

〈표 3-6〉 건강 차원의 포용 상태

(단위: %)

구 분		신체건강 상태	정신건강 상태	건강 포용 상태	χ^2
전체		87.5	89.7	79.7	
성별	남	87.8	89.7	80.1	0.255
	여	87.3	89.8	79.4	
연령층	19~34세	99.0	93.0	92.4	465.476***
	35~64세	89.5	89.3	80.9	
	65세 이상	50.5	84.6	44.3	
학력	중졸 이하	53.7	82.4	45.5	514.7238***
	고졸	89.6	89.3	80.9	
	대졸 이상	96.5	92.6	89.8	
객관적 소득계층 (중위소득 기준)	50% 이하	55.7	76.9	44.9	380.5871***
	50~150%	90.0	89.9	81.4	
	150% 이상	95.3	95.7	91.4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70.0	73.7	53.9	261.1255***
	중하층	87.5	89.5	78.9	
	중간층	91.6	93.4	86.1	
	중상층(상층)	93.2	97.8	91.2	
지역	대도시	87.2	87.2	78.2	40.7166***
	중소도시	89.9	89.9	83.0	
	농어촌	74.4	74.4	68.0	

주: 1) *p<0.05, **p<0.01, ***p<0.001

2) 카이제곱 값은 건강 포용(만성질환 없고 우울하지 않음)에 대한 값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9). '사회통합 상태 진단을 위한 실태조사' 자료 분석.

한 개인이 주거 차원에서 얼마나 포용되어 있는가의 문제는 주거의 물리적 상태와 주거비 부담 정도를 통해 진단한다. 주거의 문제는 열악한 주거 상태뿐만 아니라 주거비로 인한 부담이 높은 경우가 포함되며, 이 두 가지 문제가 모두 나타나는 가구는 주거의 차원에서 배제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주거의 물리적 상태는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하고 있는 최저주거기준의 최소 주거면적 등(가구 구성별 방의 개수)과 필수적인 설비의 기준(전용 수세식 화장실 및 온수 목욕시설) 그리고 구조·성능 및 환경기준(적정 채광 및 난방) 중에서 이 연구의 조사 자료에서 활용 가능한 문항을 통해 일부 조건의 충족 여부를 진단하고, 주거비는 월세가구에 한하여 월세가 가구의 월평균 가구균등화 소득의 30% 미만일 경우 부담이 없다고 진단한다. 자가와 전세 가구는 주거비 부담이 없는 것으로 본다. 주거 차원의 포용 상태는 물리적 주거 조건을 충족하면서 주거비 부담이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물리적 주거 상태는 전체의 92.9%가 적절한 난방, 적절한 방의 수, 지상 거주, 전용 수세식 화장실 및 온수 목욕시설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거비 부담은 전체의 83.3%가 월세로 인한 부담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물리적 주거 상태가 양호하고 주거비 부담이 없는 경우, 즉 주거 포용 상태는 전체의 78.2%로 조금 낮게 나타났다. 주거 포용 상태는 성별과 지역에 따른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으나 연령, 학력, 객관적·주관적 소득계층에 따라서는 포용 상태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주거 포용 상태에 있는 경우는 65세 이상(82.2%), 대졸 이상(81.8%), 중위소득 150% 이상(85.7%), 중간층(85.8%)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3-7〉 주거 차원의 포용 상태

(단위: %)

구 분		물리적 주거 상태	주거비 부담	주거 포용 상태	χ^2
전체		92.9	83.3	78.2	
성별	남	92.5	81.9	77.1	3.2696
	여	93.3	84.7	79.5	
연령층	19~34세	94.1	76.1	71.7	37.5596***
	35~64세	92.3	85.9	80.4	
	65세 이상	92.8	86.7	82.2	
학력	중졸 이하	92.2	82.5	78.3	26.853***
	고졸	91.4	80.5	74.4	
	대졸 이상	94.6	86.3	81.8	
객관적 소득계층 (중위소득 기준)	50% 이하	84.2	69.8	61.1	97.3307***
	50~150%	94.2	82.6	78.5	
	150% 이상	92.8	92.2	85.7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83.3	61.8	54.4	229.6416***
	중하층	93.3	81.0	75.9	
	중간층	95.4	89.9	85.8	
	중상층(상층)	91.6	92.6	85.1	
지역	대도시	91.4	82.3	76.7	5.0036
	중소도시	93.7	84.1	79.0	
	농어촌	96.3	84.3	81.6	

주: 1) *p<0.05, **p<0.01, ***p<0.001

2) 카이제곱 값은 주거 포용(물리적 주거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서 주거비 부담이 30% 이하)에 대한 값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9). '사회통합 상태 진단을 위한 실태조사' 자료 분석.

서비스 차원의 포용 상태는 문화시설, 교육시설, 의료시설, 안전시설, 생활편의시설, 대중교통 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통해 진단한다. 해당 시설을 '불편함 없이 이용함' 또는 '불편하지만 이용함'이라고 응답한 경우와 '필요하지 않아서 이용 안 함'이라고 응답한 경우를 서비스 포용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본다.

6가지의 서비스 중 접근성이 좋은 영역은 의료시설(98.7%), 생활편의시설(98.6%)로 나타났고 문화시설에 대한 접근성은 88.5%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6가지 영역의 서비스 접근성이 좋은 것으로 판단되는 서비스 포용 상태에 있는 경우는 전체의 83.1%로 확인된다. 서비스 포용 상태는 성별, 연령층, 학력, 주관적 소득계층, 지역에 따라 포용 정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나, 객관적 소득계층의 경우에는 포용 정도의 차이가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서비스 포용 정도가 남성보다 높

게 나타났고 연령이 높을수록 포용 정도가 낮아지는 것이 확인되었다. 또한 학력이 높을수록 포용 정도가 높게 나타났으며(대졸 이상, 88.1%), 중간층이라고 응답한 경우 서비스 포용이 88.6%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대도시는 86.4%, 중소도시는 81.6%, 농어촌은 73.9%로 나타나 지역에 따른 서비스 포용 정도의 차이를 보여 주고 있다.

〈표 3-8〉 서비스 차원의 포용 상태

(단위: %)

구 분		문화 시설	교육 시설	의료 시설	안전 시설	생활 편의 시설	대중 교통	서비스 포용 상태	χ^2
전체		88.5	95.6	98.7	96.1	98.6	96.8	83.1	
성별	남	87.8	95.2	97.9	95.1	97.7	95.8	82.4	11.2763 ****
	여	89.2	95.9	99.6	97.1	99.5	97.8	83.8	
연령층	19~34세	95.0	96.0	98.4	96.7	99.6	97.4	89.3	10.3789 ***
	35~64세	87.6	96.2	98.9	96.1	98.1	96.1	82.4	
	65세 이상	77.8	91.7	99.0	95.1	99.2	98.8	72.5	
학력	중졸 이하	70.0	92.6	99.0	90.6	94.8	98.2	65.6	8.8613 *
	고졸	89.6	96.4	99.1	97.7	99.6	95.9	83.9	
	대졸 이상	93.5	95.7	98.3	96.3	98.9	97.2	88.1	
객관적 소득계층 (중위소득 기준)	50% 이하	71.2	93.0	98.1	95.2	98.5	96.6	64.9	2.9969
	50~150%	89.3	96.2	99.0	96.1	98.6	97.1	84.2	
	150% 이상	94.5	95.0	98.3	96.7	98.6	95.9	88.7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74.6	95.6	97.9	95.7	99.2	98.4	70.6	22.524 ****
	중하층	86.3	95.5	99.3	95.4	97.6	96.1	80.4	
	중간층	93.8	96.2	99.1	97.2	99.7	97.5	88.6	
	중상층(상층)	90.7	90.6	93.7	92.7	95.1	92.3	83.2	
지역	대도시	90.4	96.5	99.3	98.2	99.5	99.0	86.4	46.7344 ****
	중소도시	88.3	94.9	98.2	94.2	97.6	95.1	81.6	
	농어촌	79.2	95.0	99.5	96.4	99.6	95.1	73.9	

주: 1) *p<0.05, **p<0.01, ***p<0.001

2) 카이제곱 값은 서비스 포용(6가지 서비스 모두 충족)에 대한 값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9). '사회통합 상태 진단을 위한 실태조사' 자료 분석.

2. 구조적 포용 과정에 대한 인식

이 부분에서는 기회의 평등과 분배 인식 그리고 특정 대상에 대한 대우와 범 집행의 평등 인식을 사회적 포용 및 배제의 상태를 야기하는 구조적 과정으로 간주하고 살펴 보고자 한다. 먼저 기회의 평등 측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 연구의 조사에서는 기회의 평등을 교육 기회, 취업 기회, 승진·승급 기회의 평등 3개 문항으로 나눠 조사하였는데 ‘①매우 평등하다’, ‘②대체로 평등하다’, ‘③보통이다’, ‘④대체로 불평등하다’, ‘⑤매우 불평등하다’로 응답한 자료를 ‘매우 불평등하다(1점)~‘매우 평등하다(5점)’로 역코딩하여 분석하였으며 기회의 불평등은 3가지 기회의 불평등의 총합(3~15점)으로 분석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평등한 것을 의미한다.

교육 기회의 평등은 평균 3.5점으로 승진·승급 기회(2.7점)나 취업기회(2.9점)의 평등보다 높게 인식하고 있으며 기회의 평등 총점은 9.0점으로 ‘보통’ 수준으로 나타났다. 기회의 평등 인식에서의 집단 간 차이는 학력과 소득계층, 지역에 따라 차이가 확인되는데 학력이 높을수록, 소득계층이 높을수록 기회의 평등이 높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계층은 객관적·주관적 소득계층 모두에서 같은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역별로는 대도시가 중도도시나 농어촌보다 기회의 평등이 낮게 나타났다.

〈표 3-9〉 기회의 평등 인식

(단위: 점)

구 분		교육 기회의 평등	취업 기회 평등	승진·승급 기회의 평등	기회의 평등	F value
전체		3.5	2.9	2.7	9.0	
성별	남	3.5	2.9	2.7	9.1	3.81
	여	3.5	2.8	2.7	9.0	
연령층	19~34세	3.5	2.8	2.7	9.0	1.62
	35~64세	3.5	2.9	2.7	9.1	
	65세 이상	3.3	2.7	2.7	8.7	
학력	중졸 이하	3.3	2.7	2.6	8.7	5.92**
	고졸	3.4	2.8	2.7	8.9	
	대졸 이상	3.5	2.9	2.8	9.2	
객관적 소득계층 (중위소득 기준)	50% 이하	3.3	2.6	2.6	8.4	10.34***
	50~150%	3.5	2.9	2.7	9.1	
	150% 이상	3.5	2.9	2.8	9.2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3.3	2.6	2.6	8.5	23.71***
	중하층	3.4	2.8	2.6	8.9	
	중간층	3.5	2.9	2.8	9.2	
	중상층(상층)	3.7	3.1	3.0	9.8	
지역	대도시	3.5	2.8	2.7	9.0	7.43***
	중소도시	3.4	2.9	2.7	9.1	
	농어촌	3.5	2.8	2.8	9.1	

주: 1) *p<0.05, **p<0.01, ***p<0.001

2) F value는 기회의 평등(3가지 기회의 평등 총점)에 대한 값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9). '사회통합 상태 진단을 위한 실태조사' 자료 분석.

다음으로 소득 및 부(재산)의 분배 인식을 살펴보면 점수가 높을수록 분배가 평등하게 이루어진다고 보는 것을 의미하는데(1~5점), 분배 인식은 소득과 부의 분배 인식의 총점을 분석한 것이다(2~10점). 소득분배와 부(재산)의 분배는 2.5점으로 동일한 점수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보통(3점)'보다 낮은 점수로 분배가 다소 불평등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뜻한다. 두 가지 분배의 총합인 분배 인식은 평균 4.9점으로 나타났으며, 집단 간 차이는 주관적 소득계층에서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소득 및 재산(부) 분배의 평등 인식은 집단별로 큰 차이가 없이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의미한다. 분배 인식 총점의 집단별 평균이 6점(보통) 이하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집단에 상관없이 소득 및 재산 분배가 다소 불평등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인식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주관적 소득계층을 낮게 인식할수록 분배가 불평등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표 3-10〉 소득 및 부(재산)의 분배 인식

(단위: 점)

구 분		소득 분배 인식	부(재산) 분배 인식	총 분배 인식	F value
전체		2.5	2.5	4.9	
성별	남	2.5	2.4	4.9	0.47
	여	2.5	2.5	4.9	
연령층	19~34세	2.5	2.5	4.9	0.59
	35~64세	2.5	2.5	5.0	
	65세 이상	2.4	2.4	4.8	
학력	중졸 이하	2.3	2.3	4.7	2.21
	고졸	2.5	2.5	5.0	
	대졸 이상	2.5	2.5	5.0	
객관적 소득계층 (중위소득 기준)	50% 이하	2.4	2.4	4.7	1.03
	50~150%	2.5	2.4	4.9	
	150% 이상	2.5	2.5	5.1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2.4	2.4	4.8	11.09***
	중하층	2.4	2.4	4.7	
	중간층	2.6	2.5	5.1	
	중상층(상층)	2.8	2.7	5.5	
지역	대도시	2.5	2.4	4.9	1.68
	중소도시	2.5	2.5	5.0	
	농어촌	2.4	2.4	4.8	

주: 1) *p<0.05, **p<0.01, ***p<0.001

2) F value는 분배 인식(소득 및 부의 분배 인식 총점)에 대한 값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9). '사회통합 상태 진단을 위한 실태조사' 자료 분석.

특정 대상에 대한 평등 인식은 여성, 남성, 장애인, 이주민(외국인노동자, 결혼이주 여성,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대우의 평등 정도에 대한 문항을 활용하였다. 평등 정도는 '①매우 평등하다'~'⑤매우 불평등하다'의 응답을 역코딩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평등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하였다.

먼저 각 대상에 대한 평등 정도를 보면, 남성에 대한 대우의 평등이 3.3점으로 가장 높고 이주민이 2.6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여성은 3.0점, 장애인은 2.7점으로 나

타났다. 이는 남성에 대한 대우는 ‘보통(3점)’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고 여성에 대한 대우는 ‘보통(3점)’ 수준이며 장애인이나 이주민에 대한 대우는 ‘보통(3점)’ 이하로 불평 등하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각 대상에 대한 총점(4~20점)을 통해 대상에 대한 평등 인식을 살펴보면 성별, 연령층, 주관적 소득계층에 따라 평등 인식에 차이가 발견되는데 남성이 여성보다 대상에 대한 평등 인식이 높게 나타나고 연령층이 높을수록, 주관적 소득계층이 높을수록 대상에 대한 평등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1〉 특정 대상에 대한 평등 인식

(단위: 점)

구 분	여성에 대한 대우	남성에 대한 대우	장애인에 대한 대우	이주민에 대한 대우	특정 대상에 대한 평등	F value	
전체	3.0	3.3	2.7	2.6	11.6		
성별	남	3.1	3.2	2.8	2.6	11.7	21.29***
	여	2.9	3.3	2.7	2.5	11.4	
연령층	19~34세	2.9	3.2	2.7	2.5	11.3	3.19*
	35~64세	3.0	3.3	2.8	2.6	11.7	
	65세 이상	3.1	3.3	2.8	2.6	11.8	
학력	중졸 이하	3.1	3.2	2.7	2.6	11.6	1.62
	고졸	3.0	3.2	2.8	2.6	11.5	
	대졸 이상	3.0	3.3	2.7	2.6	11.6	
객관적 소득계층 (중위소득 소준)	50% 이하	3.0	3.2	2.7	2.6	11.4	1.89
	50~150%	3.0	3.2	2.8	2.6	11.6	
	150% 이상	3.0	3.4	2.7	2.6	11.6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3.0	3.2	2.6	2.5	11.4	4.19**
	중하층	3.0	3.2	2.7	2.6	11.5	
	중간층	3.0	3.3	2.8	2.6	11.6	
	중상층(상층)	3.2	3.4	2.9	2.8	12.3	
지역	대도시	3.0	3.2	2.8	2.6	11.6	1.44
	중소도시	3.0	3.3	2.7	2.6	11.5	
	농어촌	3.1	3.2	2.8	2.6	11.7	

주: 1) *p<0.05, **p<0.01, ***p<0.001

2) F value는 집단 간 평등 인식(4개 집단에 대한 평등 인식 총점)에 대한 값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9). '사회통합 상태 진단을 위한 실태조사' 자료 분석.

마지막으로 법 집행에 대한 평등 정도는 ‘①매우 불평등하다’~‘⑤매우 평등하다’의 응답을 역코딩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평등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하였다. 법 집행의 평등 인식은 전체 평균이 2.6점으로 ‘보통(3점)’보다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낮은 법 집행 평등 인식은 성별, 연령층, 학력, 객관적 소득계층, 지역에 따라 통계적으로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 이는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관계없이 법 집행이 대체로 불평등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인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주관적 소득계층에 따라서 법 집행의 평등 인식 차이가 발견되는데 소득계층이 높을수록 ‘보통(3점)’에 가까워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중상층(상층)은 2.9점, 하층은 2.5점으로 인식의 차이를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역시 3점(보통) 이하로 나타나고 있다.

〈표 3-12〉 법 집행 평등 인식

(단위: 점)

구 분		소득 분배 인식	F value
전체		2.6	
성별	남	2.6	0.05
	여	2.7	
연령층	19~34세	2.6	0.25
	35~64세	2.7	
	65세 이상	2.6	
학력	중졸 이하	2.5	1.85
	고졸	2.6	
	대졸 이상	2.7	
객관적 소득계층 (중위소득 기준)	50% 이하	2.5	0.41
	50~150%	2.7	
	150% 이상	2.6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2.5	11.43***
	중하층	2.6	
	중간층	2.7	
	중상층(상층)	2.9	
지역	대도시	2.7	1.99
	중소도시	2.6	
	농어촌	2.6	

주: *p<0.05, **p<0.01,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9). ‘사회통합 상태 진단을 위한 실태조사’ 자료 분석.

3. 사회적 포용 차원의 중첩도 및 연관성

이 부분에서는 포용의 하위 차원들의 중첩도를 통해 포용의 정도를 보다 총괄적으로 진단해 보고자 한다. 그러나 포용의 구조적 과정에 대한 인식은 포용의 상태 ‘여부’는 판단할 수 없고 포용에 대한 인식의 ‘정도’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개인의 포용 상태를 측정할 5가지 차원에 대한 중첩도만을 살펴보기로 한다. 전체적으로 5가지 차원 중 4~5개 차원에서 포용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4개 차원에 포용된 비율이 38.2%로 가장 높고, 5개 차원에 포용된 비율이 36.6%로 그다음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5가지 차원 중 1가지 차원에서도 포용 상태에 있지 않은 비율이 0.8%로 나타났다.

포용 상태의 중첩도는 성별, 연령층, 학력, 소득계층, 지역에 따라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4개 이상의 차원에서 포용 상태에 있는 비율을 살펴보면 남성은 78.8%이나 여성은 70.9%로 다소 낮으며 연령에 따라서는 19~34세의 비율이 80.5%인 것에 비해 65세 노인층에서는 40.1%로 급격히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대졸 이상은 4개 이상 차원에 포용된 비율이 87.0%이나 고졸 이하 74.8%, 중졸 이하 38.2%로 나타나 학력이 낮을수록 포용되는 차원의 수가 적음을 볼 수 있다. 소득계층별로는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4개 이상 차원에 포용된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데, 중위소득의 150% 이상인 경우는 90.8%가 4개 이상의 차원에 포용되어 있으나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는 해당 비율이 7.4%에 불과하며, 주관적 소득계층에서 중상층(상층)으로 응답한 경우는 80.5%이나 하층으로 응답한 경우는 42.6%에 그쳤다. 한편 지역별로는 중소도시(77.3%), 대도시(74.1%), 농어촌(63.7%) 순으로 포용의 수준이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다시 개인의 포용 차원의 중첩도 개수로 살펴보면 전체 평균이 4개로 나타났다. 평균이 4개 미만인 집단은 여성, 65세 이상, 중졸 이하, 중위소득 50% 이하의 소득계층(빈곤층), 주관적 소득계층을 하층으로 응답한 경우, 농어촌에 거주하는 경우로 나타나 이들 집단의 포용 상태가 낮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표 3-13〉 개인의 포용 차원 중첩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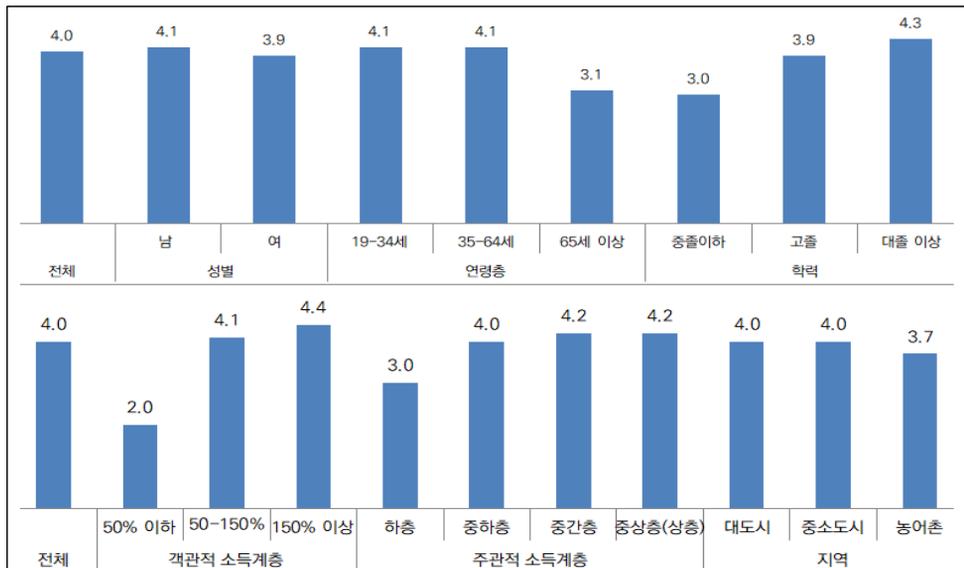
(단위: %)

구분		0개	1개	2개	3개	4개	5개	χ^2
전체		0.8	2.9	6.2	15.3	38.2	36.6	
성별	남	1.0	2.7	5.1	12.4	35.6	43.2	84.6633 ***
	여	0.6	3.0	7.2	18.3	41.0	29.9	
연령층	19~34세	0.0	0.8	4.2	14.4	45.5	35.0	450.9307 ***
	35~64세	0.9	2.3	4.7	13.0	36.6	42.5	
	65세 이상	2.2	10.3	18.2	29.3	29.6	10.5	
학력	중졸 이하	2.3	11.0	19.2	29.4	28.1	10.1	716.6241 ***
	고졸	0.9	1.7	5.9	16.8	43.2	31.6	
	대졸 이상	0.2	1.4	2.2	9.3	36.8	50.2	
객관적 소득계층 (중위소득 기준)	50% 이하	7.4	23.9	35.5	25.9	7.4	0.0	1988.458 ***
	50~150%	0.0	0.5	3.3	15.9	43.4	36.9	
	150% 이상	0.0	0.1	1.1	8.1	37.1	53.7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5.2	13.5	18.6	20.2	26.4	16.2	636.0686 ***
	중하층	0.3	2.2	6.3	17.2	39.9	34.2	
	중간층	0.0	0.8	3.1	12.5	40.8	42.9	
	중상층(상층)	0.0	0.8	3.2	15.5	32.9	47.6	
지역	대도시	1.0	3.3	6.7	14.8	35.5	38.6	51.8305 ***
	중소도시	0.5	2.1	5.0	15.1	40.9	36.4	
	농어촌	1.2	5.7	10.5	18.8	36.4	27.3	

주: 1) *p<0.05, **p<0.01,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9). '사회통합 상태 진단을 위한 실태조사' 자료 분석.

〔그림 3-2〕 개인의 포용 차원 중첩도

(단위: 개)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9). '사회통합 상태 진단을 위한 실태조사' 자료 분석.

이를 보다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포용의 차원 간 상관관계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이는 포용의 각 차원들이 연관되어 있는지 없는지, 배제의 중첩도와 어떤 차원의 연관성이 가장 높은지를 확인하게 해 준다. 우선 개인의 포용 상태에서는 경제 차원과 노동 차원의 상관계수가 0.267, 경제 차원과 건강 차원의 상관계수가 0.293으로 약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여 주고 있다. 이는 비빈곤 상태가 신체적·정신적으로 양호한 건강상태와 관련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다른 개인의 포용 상태를 보여 주는 차원들 간의 상관계수는 연관성이 거의 없다고 해석할 수 있을 정도로 낮게 나타났다($r=0.2$ 이하).

한편 구조적 포용 과정에 대한 인식에서는 차원들 간 양의 상관관계를 보여 주고 있다($r=0.3$ 이상). 기회의 평등 인식은 분배의 평등 인식과의 상관계수가 0.342, 특정 대상에 대한 대우의 평등 인식과의 상관계수 0.359, 법 집행의 평등 인식과의 상관계수는 0.418로 나타나 각 인식 간에 연관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분배의 평등 인식도 특정 대상에 대한 대우의 평등 인식, 법 집행의 평등 인식과 모두 양적 상관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r=0.3$ 이상). 특정 대상에 대한 대우의 평등 인식과 법 집행의 평등 인식 상관계수는 0.327로 양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기회, 분배, 특정 대상에 대한 대우, 법 집행의 평등 인식이 유사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 준다. 즉, 우리 사회에 기회의 평등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인식하는 경우 분배나 특정 대상에 대한 대우, 법 집행도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인식할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개인의 사회적 포용 상태 차원들과 구조적 포용 과정에 대한 인식 사이에는 연관성을 찾을 수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보다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지만, 사회적 포용의 차원별 상태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접근은 각 차원에 초점을 맞춰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경제 포용 상태와 주거나 서비스의 포용 상태는 거의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비빈곤 상태일지라도 주거가 열악하고 주거비 부담이 큰 상태일 수 있으며 서비스 접근성이 열악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 준다. 따라서 각 차원의 포용 상태를 증진하기 위해서는 개별적 접근이 필요한 것이다.

〈표 3-14〉 사회적 포용의 차원 간 상관관계

구분	개인의 포용 상태					구조적 포용 과정에 대한 인식			
	경제	노동	주거	건강	서비스	기회의 평등	분배의 평등	특정 대상에 대한 평등	법 집행의 평등
경제	1								
노동	0.267***	1							
주거	0.138***	-0.015	1						
건강	0.293***	0.147***	0.059***	1					
서비스	0.170***	0.044**	0.122***	0.125***	1				
기회의 평등	0.054***	0.014	0.034*	0.046**	0.049**	1			
분배의 평등	0.022	-0.012	-0.027	0.025	-0.034*	0.342***	1		
특정 대상에 대한 평등	0.025	0.025	0.009	0.007	0.011	0.359***	0.316***	1	
법 집행의 평등	0.010	-0.013	0.000	0.051**	0.005	0.418***	0.339***	0.327***	1

주: 1) *p<0.05, **p<0.01, ***p<0.001

2) spearman 상관계수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9). '사회통합 상태 진단을 위한 실태조사' 자료 분석.

제5절 사회적 포용과 사회통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 사회 포용성 및 사회통합 인식 수준

사회 포용성과 사회통합 인식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전 사회적 포용성과 사회통합 인식 수준에 대해 먼저 살펴보고자 한다. 우리 사회의 포용성 평가 정도는 우리 사회가 '차별과 소외가 심한 사회'(0점)인지, 아니면 '배려와 포용의 사회(10점)'인지에 대해 평가한 문항, 사회통합 인식은 '현재 우리나라가 사회통합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십니까?'라는 질문에 0~10점으로 응답한 문항을 활용하였다.

먼저 사회적 포용성은 4.3점으로 나타나 '배려와 포용의 사회'라기보다는 '차별과 소외가 심한 사회'라는 인식에 다소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사회통합 인식 역시 4.2점으로 보통(5점)보다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포용성 인식은 객관적·주관적 소득 계층에서 인식 차이가 발견된다. 객관적 소득계층에서는 중위소득 150% 이상 계층에서보다 50~150%에서 포용성 인식이 높았고 50% 이하 빈곤층에서 가장 낮았으며, 주관적 소득계층에서는 소득계층이 높을수록 포용성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사회통합 인

식은 성별에 따라서만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는데, 여성이 남성보다 사회통합 수준을 다소 높게 인식하고 있다.

〈표 3-15〉 사회적 포용성 및 사회통합 인식

(단위: 점)

구 분		사회적 포용성	F value	사회통합	F value
전체		43		42	
성별	남	43	0.38	41	9.40**
	여	43		42	
연령층	19~34세	44	2.37	42	1.36
	35~64세	43		42	
	65세 이상	42		41	
학력	중졸 이하	42	1.25	42	2.96
	고졸	43		41	
	대졸 이상	44		42	
객관적 소득계층 (중위소득 기준)	50% 이하	39	3.71*	39	2.42
	50~150%	44		42	
	150% 이상	42		40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40	9.36***	41	3.52
	중하층	42		41	
	중간층	44		42	
	중상층(상층)	48		44	
지역	대도시	43	0.04	42	2.26
	중소도시	43		41	
	농어촌	44		42	

주: *p<0.05, **p<0.01,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9). '사회통합 상태 진단을 위한 실태조사' 자료 분석.

2. 포용 상태가 사회 포용성 평가에 미치는 영향

개인의 포용 상태 및 구조적 포용 과정에 대한 인식이 사회통합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에 앞서 포용 상태가 우리 사회의 포용성 평가 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개인의 포용 상태는 개인이 인식하는 사회의 포용성 정도에 대한 설명력이 매우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Adj R-Sq=0.0139). 다만 그 영향의 통계적 유의성을 살펴보면 성별과 연령층, 교육 수준과 지역은 사회의 포용성 평가에 영향을 미

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주관적 소득계층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하층에 비해 중간층과 중상층(상층)의 경우 우리 사회가 '배려와 포용의 사회'라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의 포용 상태는 경제 차원과 건강 차원의 포용 정도가 사회의 포용성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경제적으로 비빈곤 상태인 경우와 신체적·정신적 건강이 양호한 경우 그렇지 못한 경우보다 우리 사회를 '배려와 포용의 사회'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음을 뜻한다.

다음으로 구조적 포용 과정에 대한 인식이 사회의 포용성 정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모형2는 모형1보다 설명력이 다소 증가하였다(Adj R-Sq=0.1011). 이는 개인의 사회적 포용 상태보다 구조적 과정에 대한 인식이 사회의 포용성에 대한 인식을 더 잘 설명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개인의 포용 상태 변수를 투입한 모형1과 달리 연령층의 통계적 유의미성이 나타났다. 즉, 청년층(19~34세)에 비해 중장년층(35~64세)은 우리 사회의 포용성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하층에 비해 중하층과 중상층(상층)은 우리 사회의 포용성을 좀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구조적 포용 과정에 대한 인식에서는 기회의 평등과 특정 집단에 대한 평등 인식 그리고 법 집행에서의 평등 인식이 사회의 포용성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회의 평등, 특정 집단에 대한 대우, 법 집행이 평등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인식할수록 사회의 포용성 평가가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결과이다.

또한 개인의 포용 상태와 구조적 포용 과정 인식에 대한 변수를 모두 투입한 모형3에서는 인구사회학적 변수 중 연령층과 주관적 소득계층, 지역변수가 통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의 포용 상태에서는 건강 포용 상태, 구조적 포용 과정 인식에서는 기회의 평등과 특정 대상에 대한 평등 그리고 법 집행 평등 인식이 사회적 포용성 평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분배의 평등에 대한 인식은 모형2와 모형3에서 모두 사회적 포용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분배의 평등에 대한 인식보다는 분배의 이전 과정이라 할 수 있는 기회나 법 집행과 같은 과정에서의 평등이 사회적 포용성 인식 제고에 중요한 함의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 준다.

〈표 3-16〉 포용 상태가 사회의 포용성 평가에 미치는 영향

구분		모형 1 (개인의 포용 상태)	모형 2 (구조적 포용 과정 인식)	모형 3 (전체)
성별 (여성=0)		-0.04597	-0.04643	-0.07111
연령층 (19~34세=0)	35~64세	-0.13166	-0.20872**	-0.20938**
	65세 이상	0.18841	0.07801	0.16421
교육 수준 (중졸 이하=0)	고졸	-0.04475	0.00681	-0.07889
	대졸 이상	-0.01809	-0.0371	-0.06229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0)	중하층	0.14122	0.20712*	0.10954
	중간층	0.13651*	0.07401	0.06442
	중상층(상층)	0.47371***	0.27266*	0.27729*
지역 (대도시=0)	중소도시	-0.07117	-0.06781	-0.08226
	농어촌	0.2461*	0.2108	0.22988*
개인의 포용 상태	경제	0.27738*		0.21261
	노동	0.08066		0.1059
	주거	-0.03992		0.00998
	건강	0.24157**		0.17705*
	서비스	0.05945		0.03452
구조적 포용 과정 인식	기회의 평등		0.11707***	0.11476***
	분배의 평등		0.0379	0.03881
	특정 대상에 대한 평등		0.0815***	0.08133***
	법 집행의 평등		0.28081***	0.27961***
상수		3.72983***	1.33221***	1.09921***
N		3888	3888	3888
Adj R-Sq		0.0139	0.1011	0.1035

주: *p<0.05, **p<0.01,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9), '사회통합 상태 진단을 위한 실태조사' 자료 분석.

3. 포용 상태가 사회통합 인식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포용 상태가 사회통합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앞서 사회의 포용성 평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결과와 마찬가지로 그 설명력에는 한계가 있다. 개인의 포용 상태만을 투입한 모형1의 설명력은 Adj R-Sq=0.0134로 가장 낮으며, 구조적 포용 과정 인식 변수를 투입한 모형2의 설명력은 Adj R-Sq=0.06로 약간 증가한다. 이는 사회통합 인식 수준을 개인의 포용 상태보다 구조적 과정에 대한 인식이 더 잘 설명한다는 것을 말해 준다.

개인의 포용 상태가 사회통합 인식에 미치는 모형 1에서 인구사회학적 변수 중에는 성별과 교육 수준이 사회통합 인식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에 비해 남성의 사회통합 인식이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중졸 이하인 경우에 비해 고졸인 경우 사회통합 인식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개인의 포용 상태에서는 주거, 건강, 서비스 차원의 포용 상태가 사회통합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물리적 주거 조건이 충족되고 주거비 부담도 양호한 경우, 신체적·정신적 건강이 양호한 경우, 문화·교육·의료·안전·생활편의시설 및 대중교통 접근성이 양호한 경우 그렇지 못한 배제의 상태에 있는 경우보다 사회통합 수준을 높게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구조적 포용 과정에 대한 변수를 투입한 모형2에서도 성별과 교육 수준이 사회통합 인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확인되며, 기회의 평등과 특정 집단에 대한 평등 인식 그리고 법 집행에서의 평등 인식이 사회통합 인식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포용 차원을 투입한 모형 3을 보면, 모형 1과 모형2에서 사회통합 인식에 영향을 미친 변수 모두 통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에는 성별과 교육 수준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개인의 포용 상태에서는 주거와 건강, 서비스 차원의 포용 상태, 구조적 포용 과정에 대한 인식에서는 기회의 평등, 특정 대상에 대한 평등, 법 집행 시 평등 인식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배의 평등 인식은 사회적 포용성 인식에서와 마찬가지로 사회통합 인식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통합 인식의 영향 요인 분석 역시 소득과 부의 분배 측면보다는 기회가 평등하고, 특정 대상에 대한 차별이 없으며, 법 집행이 평등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표 3-17〉 포용 상태가 사회통합 인식에 미치는 영향

구분		모형 1 (개인의 포용 상태)	(모형 2) 구조적 포용 과정 인식	(모형 3) 전체
성별 (여성=0)		-0.14214*	-0.14727**	-0.15266**
연령층 (19~34세=0)	35~64세	-0.0604	-0.11071	-0.11426
	65세 이상	-0.0588	-0.14517	-0.07957
교육 수준 (중졸 이하=0)	고졸	-0.36927***	-0.29709**	-0.40043***
	대졸 이상	0.04174	0.0499	0.0122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0)	중하층	-0.10508	0.02719	-0.12349
	중간층	0.0294	0.0274	-0.01932
	중상층(상층)	0.24437	0.10662	0.1146
지역 (대도시=0)	중소도시	-0.09902	-0.08511	-0.10301
	농어촌	0.08946	0.06601	0.08556
개인의 포용 상태	경제	0.19066		0.15294
	노동	0.04695		0.06312
	주거	0.20074**		0.23856***
	건강	0.30517***		0.25432***
	서비스	0.17589*		0.16843*
구조적 포용 과정 인식	기회의 평등		0.06532***	0.05912***
	분배의 평등		0.01468	0.01947
	특정 대상에 대한 평등		0.04453***	0.04487***
	법 집행의 평등		0.27511***	0.27789***
상수	3.95348***	2.66751***	2.24688***	
N	3888			
Adj R-Sq	0.0134	0.06	0.0687	

주: * $p < 0.05$, ** $p < 0.01$, *** $p < 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9). '사회통합 상태 진단을 위한 실태조사' 자료 분석.

제 4 장

사회적 자본과 사회통합 그리고 다문화수용성

제1절 서론

제2절 이론적 배경

제3절 연구 방법

제4절 사회적 자본의 상태 진단

제5절 사회적 자본이 사회통합 국민 인식에 미치는 영향

제6절 사회적 자본이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4

사회적 자본과 사회통합, << 그리고 다문화수용성

제1절 서론

사회적 자본은 종종 급속한 산업화, 도시화, 가족 구조의 변화 등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기제로 여겨진다(황선영, 어유경, 김순은, 2019, p. 33). Fukuyama(1995)는 한국이 압축적인 경제 성장을 거치면서 극빈곤에서 탈피하고 민주주의를 안착시켰지만, 이로 인해 사회 구성원 간의 협력 시스템은 약화되면서 구성원 간의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크게 발생하였음을 지적하며, 한국 사회에서 사회적 자본의 축적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일찍이 언급하였다(Fukuyama, 1995). 이러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사회적 자본에 대한 다양한 연구와 투자가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현재 한국의 사회적 자본 순위는 OECD 23개 국가 중 17위로 낮은 순위에 머무르고 있다(정갑영, 김동훈, 2019).

최근 사회적 자본은 사회통합의 한 영역으로, 사회통합을 이루는 데 빠져서는 안 될 핵심요소로 여겨진다(박상필, 2000). 사회적 자본은 공익을 추구하며, 사회의 안정과 통합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Putnam, 2001). 장용석, 정장훈, 조문석(2009, p. 47) 연구에서도 사회적 자본은 갈등 당사자 간의 의사소통, 상호존중 및 신뢰, 상호의존을 증대시키기 때문에 갈등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이를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 특히 사회적 자본 중 신뢰는 장기적으로 금융기관의 투자와 저축을 증가시켜 국부 창출에 기여하고, 이는 국내총생산(GDP)의 상승과 생산성 증진을 가져오는 순기능적 역할을 한다고 보고 있다(Zak and Knack, 2001). 현재 한국은 저성장과 양극화로 인해 사회통합에 어려움을 겪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사회통합 영역에서 사회적 자본은 심도 있게 논의되지 못하였다(정갑영, 김동훈, 2019; 황선영, 어유경, 김순은, 2019; Portes, 1998).

이러한 가운데 한국 내에서 차별과 배제를 경험하는 이질적인 집단이 등장하게 되면서 사회적 자본의 개념이 다시금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특히 인종적, 민족적, 문화적으로 다양한 이민자가 국내에 급증하면서 단순히 이민자들의 한국 사회에서의 적응을

넘어 이들이 내국인과 같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삶의 질에 점차 초점을 맞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김주희, 2011). 이러한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기존 연구에서는 아직도 이민자 집단이 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자본의 역할과 영향력에 초점을 두고 있는 실정이다. 사실 이민자들의 삶의 질은 곧 내국인이 이민자를 받아들이는 과정과 정도에 따라 차이가 나기 마련인데, 이러한 수용 과정은 개인과 개인 혹은 개인과 집단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현상이기 때문에, 사회적 자본의 개념이 이를 분석하는데 적합한 개념이다. 그렇지만 이를 활용하여 다문화수용성에 대해 분석한 연구는 아직 소수에 불과하다(김정훈, 임안나, 2010; 김형빈, 이진석, 2011; 김기홍, 허태영, 2012).

따라서 이 장에서는 사회적 자본 이론을 활용하여 사회통합 인식 및 다문화수용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 보고자 한다.

제2절 이론적 배경

1. 사회적 자본

사회적 자본이라는 개념을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쉽지 않다. 사회적 자본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킨 학자인 부르디외(Bourdieu, 1986, p. 88)는 사회적 자본을 ‘지속적인 네트워크 혹은 상호 면식이나 인식이 제도화된 관계 즉, 특정한 집단의 구성원이 됨으로써 획득되는 실제적인 혹은 잠재적인 자원의 총합’이라고 정의하였다(Bourdieu, 1986, p. 241). 또 다른 학자인 Coleman(1988, p. S98)은 사회적 자본을 “다른 형태의 자본과 마찬가지로 생산적이며, 그것이 없었더라면 이룩하기 어려운 목적을 성취할 수 있도록 해 준다”라고 보았다. Putnam(1993, p.35)은 사회적 자본을 공공재로 보았는데 “사회조직의 한 형태로서 구성원, 즉 사람과 사람 사이의 협력과 사회적 거래를 촉진시켜 사회적 효율성을 향상”시킨다고 보았다(이민자, 2015 재인용, p. 16).

이처럼 다양한 학자들에 의해 정의된 사회적 자본은 참여, 신뢰, 네트워크라는 3가지 핵심 구성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먼저 Putnam(1995)은 참여를 시민참여(civic engagement)와 정치참여

(political participation)로 구분하였다. 여기서 시민참여란 가족 혹은 친한 친구들 외의 다른 이들과 관련된 사회의 환경에 의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평범한 시민들에 의한 활동을 말한다(Alder and Goggin, 2005, p. 241). 그리고 정치참여는 학자마다 범위 설정에 어느 정도의 차이는 존재하지만 일반적으로 '시민이 정치엘리트의 충원이나 공공정책의 형성 및 집행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하는 행위'로 이해될 수 있다(Bennett and Bennett, 1986, p. 160-162). 이 연구에서는 Putnam이 제시한 신뢰의 유형화를 바탕으로 시민참여, 정치참여 그리고 정치집단참여로 나누어 살펴볼 것이다.

다음으로 신뢰는 서로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되는 믿음을 의미하는데, 사회적 자본에서 핵심적인 요소이며 결과로 간주되기도 한다(Putnam, 1993). 신뢰는 협력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공동체 내 신뢰의 수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협력의 가능성은 높아진다(한상미, 2007). Uslaner(2002)에 따르면 신뢰는 '타인에 대한 신뢰'와 '공적 신뢰'로 구분하는데 전자는 친구, 가족 및 낯선 타인들을 포함한 신뢰를 의미하고, 후자는 공공기관이나 제도 등 정부에 대한 신뢰를 지칭한다. Coleman(1988)의 경우 신뢰를 사적인 관계에서의 신뢰, 낯선 이와 신뢰 그리고 제도에 대한 신뢰로 구분하였다. 이처럼 신뢰의 유형은 학자마다 다르지만, 이들의 공통된 특성은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에서의 신뢰로 나누었다는 점이다(김기동, 이정희, 2017, p. 13).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신뢰의 유형을 공적신뢰, 사람(타인)신뢰 그리고 사회신뢰로 나눠 살펴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네트워크는 사회적 자본이 개인 간, 개인과 집단 간, 집단 간 상호작용하는 관계를 전제로 하며(박희봉, 2008) 이들 간의 상호작용은 사람들로 하여금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하고, 공동체를 유지하며, 사회구조를 형성하게 해 준다(이형하, 2014). Portes(1998)에 따르면 네트워크는 공식적 그리고 비공식적 네트워크로 나눌 수 있는데, 공식적 네트워크는 자발적인 협회 등과 관련된 유대를 지칭하고 비공식적 네트워크는 가족, 친척, 친구 및 이웃 사이에 형성된 관계들을 말한다. 이 연구에서는 비공식적 네트워크만을 살펴볼 것이다.

2. 다문화수용성

다문화수용성 역시 학자마다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다. 다문화수용성은 '자신과 다른

구성원이나 문화에 대하여 집단별 편견을 갖지 않고 자신의 문화와 동등하게 인정하고 그들과 조화로운 공존 관계를 설정하기 위하여 협력 및 노력하는 태도'를 의미한다(안상수, 민무숙, 김이선, 이명진, 김금미, 2012, p. 48). 또한 다문화수용성은 “다양한 인종적, 문화적 및 종교적 가치를 인정하고,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태도”라고 설명하였다(곽윤경, 양영미 2017, p. 151). 윤인진, 송영호(2009, p. 581)의 연구에서 다문화수용성을 ‘다문화사회로의 변화와 서로 다른 인종 문화적 배경을 가진 집단을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정도’라고 보았다. 이처럼 기존 연구들은 다문화수용성을 국적·시민권에 상관없는 보편적 인권과 권리에 대한 개념으로 이해한다는 특징이 있다(안상수, 김이선, 마경희, 문희영, 이명진, 2015; 황정미, 2010).

다문화수용성을 구성하는 차원은 다양하다. 2018년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에 따르면 다문화수용성은 다양성, 관계성 그리고 보편성 등 3개의 차원으로 구성하였다(김이선 외, 2018). 다양성 차원은 문화개방성, 국민정체성, 고정관념 및 차별로 구성되어 있고 관계성 차원은 일방적 동화 기대, 거부·회피 정서, 상호교류행동의지이고 마지막으로 보편성 차원은 이중적 평가와 세계시민 행동의지이다(김이선 외, 2018, p. ii).

〈표 4-1〉 다문화수용성 지수의 구성 개념

구성 요소		주요 측정 내용
다양성	문화개방성	다양한 문화적 배경의 이민자 유입·정주 인정
	국민정체성	국민 됨의 자격 기준에 대해 다양성 인정
	고정관념 및 차별	외국인 및 이민자에 대한 고정관념과 차별
관계성	일방적 동화 기대	이민자의 우리 문화 동화 및 순응 기대
	거부·회피정서	이민자 접촉 상황에서 비합리적인 부정적 정서
	상호교류행동의지	이민자와의 친교 관계를 맺고자 하는 의지
보편성	이중적 평가	경제개발 수준, 문화적 배경 등에 등급을 둠
	세계시민 행동의지	인류애와 같은 보편적 가치추구 및 실천의지

자료: 안상수(2012, p.45).

또한 기타 선행연구들에서는 다문화수용성의 구성요소들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황성욱, 조운용, 이철한(2014, p. 189)은 다문화수용성의 하위 개념을 외국인에 대한 이해와 개방, 이민자에 대한 차별, 이민자에 대한 거부 및 회피, 이민자

와의 상호교류행동, 이민자와 한국 사회의 쌍방향 동화, 이민자의 한국 사회로의 일방적인 동화 그리고 이민자에 대한 고정관념 등 7가지로 규정하였다. 백승대, 안태준(2013)의 연구에서는 다문화수용성을 다문화사회로의 변화에 대한 태도, 인지된 위협, 다문화정책에 대한 태도를 통해 측정하고자 하였다. 이를 종합하여 이 연구에서는 다문화수용성을 국민정체성,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태도 그리고 다문화주의에 대한 태도 즉, 3가지 차원으로 설정하였다.

3. 사회적 자본과 다문화수용성 관계

앞서 언급했듯이 사회적 자본과 다문화수용성 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드물다. 우선 국외연구에서는 유럽의 16개국을 대상으로 사회적 자본 중 신뢰가 내국인의 이민자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사회적 신뢰가 강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이민 및 이민자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Herreros and Criado, 2009). 물론 기존의 다른 연구들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 개인의 경제적 상황, 한 국가의 경제적 능력 혹은 한 국가 내의 이민자 숫자가 증가하는 정도에 따라 사람들의 이민에 대한 태도는 달라질 수 있으며 때로는 위협으로 느낄 수도 있다(Herreros and Criado, 2009). 그렇지만 비록 본인의 경제적 상황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일지라도 사회적 신뢰가 강하면, 이민자로 인한 위협이나 불안감을 증대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Herreros and Criado, 2009).

국내의 선행연구에서 사회적 자본과 다문화수용성 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 대표적으로 김혜선(2014)의 연구에서는 여성일수록, 젊은 층일수록 그리고 소득이 높을수록 다문화수용성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사회적 신뢰가 강한 사회일수록, 호혜성의 규범이 지켜지는 사회일수록, 교량적(bridging) 연결망을 가질수록, 다문화수용성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나타났다(김혜선, 2014). 다시 말하면 내국인들이 다양한 인종·민족과 문화를 가진 집단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다양성에 대한 이해를 쌓은 것이 이민자를 수용하는 데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보인다(김혜선, 2014; 김희조, 2011). 다음으로 이형하(2014)의 연구에서는 연령이 낮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가구 총소득이 높을수록 다문화수용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성일수록, 연령대가 낮을수록, 고학력일수록, 고소득일수록 다문화수용성이 높아지

는 것으로 나타났다(이형하, 2014). 특히 사회적 자본의 구성요소인 호혜성, 참여, 신뢰 중 사회적 신뢰만이 다문화수용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이형하, 2014).

두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보면 신뢰는 서로 간의 상호 믿음으로 사회 구성원을 결속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이는 다문화수용성에 긍정적인 효과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연령대와 소득 수준도 다문화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연구는 한국인의 사회적 자본을 신뢰, 참여, 네트워크로 구분하고, 이렇게 측정된 사회적 자본을 구성하는 변수 중 사회통합 국민 인식과 다문화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이 연구는 사회통합 및 한국인의 다문화수용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대응 방안을 제공하고자 한다.

제3절 연구 방법

1. 분석 자료

이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적 자본의 상태 진단과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해 보고자 한다. 이 연구의 분석 자료는 ‘2019년 사회통합 상태 진단을 위한 실태조사’로, 이 조사는 만 19~75세의 성인 남녀 가구원을 조사대상으로 하였고 개인 단위로 응답하였다.

2. 측정 변수

가. 독립변수: 사회적 자본

사회적 자본은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지속적으로 사회통합정책영향평가에 포함되어 있는 문항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 연구에서는 사회적 자본의 핵심 구성요소를 신뢰, 참여 그리고 네트워크로 보고 이 조사에서 아래 표에 제시된 문항을 활용하여 분

석하였다(〈표 4-2〉 참조).

이 연구는 앞서 언급한 선행연구에서 활용한 문항들을 참고하여 아래 〈표 4-2〉와 같은 문항들을 활용하였다. 우선 사회신뢰는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 믿을 수 있는 사회라고 생각하십니까’를 묻는 문항을 활용하였다. 공적 신뢰의 경우 김기동, 이정희(2017)의 연구에서 국회, 사법부, 중앙정부에 대한 신뢰를 공적 신뢰 범주에 두고 독립 변수로 활용한 것을 참고하여, 이 연구도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검찰·경찰’의 신뢰를 묻는 문항을 공적 신뢰로 구분하였다. 사람(타인) 신뢰는 ‘내가 완전히 믿을 수 있는 사람은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 ‘만약 조심하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들은 나를 이용하려 들 것이다’, ‘사람들은 대개 이기적이다’라는 3개 문항을 활용하였다.

〈표 4-2〉 사회적 자본 - 신뢰에 대한 문항

구분		주요 문항
신뢰	사회신뢰	문 31) 귀하는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 믿을 수 있는 사회라고 생각하십니까?
	공적신뢰	문 32) 귀하는 다음의 기관들을 어느 정도 신뢰하십니까? (7) 행정부(청와대, 중앙정부, 지방자치정부 등) (8) 입법부(국회) (9) 사법부(법원) (13) 검찰, 경찰
	사람(타인) 신뢰	문 41) 귀하는 다음 의견에 어느 정도 동의 또는 반대하십니까? (1) 내가 완전히 믿을 수 있는 사람은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 (2) 만약 조심하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들은 나를 이용하려 들 것이다 (3) 사람들은 대개 이기적이다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9). ‘사회통합 상태 진단을 위한 실태조사’.

둘째, 사회적 자본 중 참여에 관한 문항은 아래 〈표 4-3〉과 같다. 이 연구는 Putnam(1995)이 사회적 자본을 시민 참여와 정치 참여로 구분한 것을 참고하여 참여를 시민참여, 정치집단 참여 여부 및 활동 그리고 정치참여로 구분하였다. 우선 시민참여의 경우 지난 1년간 ‘자원봉사’, ‘사회단체나 기관에 기부’한 적이 있는지 묻는 문항과 더불어 ‘시민운동단체’에 소속되어 있는지의 여부와 활동 빈도에 대해 묻는 문항을 활용하였다. 또한 정치 모임 참여 여부 및 활동에 대해서는 ‘정당’과 ‘노조, 사업자단체 또는 직업조합’에 소속되어 있거나 소속되었다면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활동하는지 묻는 문항을 활용하였다. 정치참여의 경우 ‘2016년 국회의원 선거’, ‘2017년 대

통령 선거’, ‘2018년 지방선거’ 참여 여부를 묻는 문항을 정치참여로 활용하였다.

〈표 4-3〉 사회적 자본 - 참여에 대한 문항

구분		주요 문항
참여	시민 참여	문 33) 귀하는 지난 1년 동안 다음과 같은 활동을 얼마나 자주 하셨습니까? (1) 자원봉사 (2) 사회단체나 기관에 기부 문 34) 귀하는 다음과 같은 집단이나 모임 또는 단체에 소속되어 있으십니까? 소속되어 있으시다면 얼마나 적극적으로 활동하십니까? (2) 시민운동단체
	정치집단 참여	문 34) 귀하는 다음과 같은 집단이나 모임 또는 단체에 소속되어 있으십니까? 소속되어 있으시다면 얼마나 적극적으로 활동하십니까? (1) 정당 (3) 노조, 사업자단체 또는 직업조합
	정치 참여	문 35) 귀하는 다음의 선거 때 투표하셨습니까? (1) 2016년 4월 13일 국회의원 선거 (2) 2017년 5월 9일 제 19대 대통령 선거 (3) 2018년 6월 13일 지방선거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9). ‘사회통합 상태 진단을 위한 실태조사’.

셋째, 사회적 자본 중 네트워크, 특히 비공식적 네트워크와 관련된 문항들에 초점을 두었다(〈표 4-4〉 참조). 그 이유는 이 조사의 문항들은 비공식적 네트워크에만 활용하기에 적합하였기 때문이다. 이 조사에서 관련 문항으로는 ‘스포츠, 취미, 레저 모임 등 문화단체’, ‘동창모임’, ‘향우회’, ‘친목단체’, ‘기타 오프라인 모임이나 단체’, ‘SNS 등 온라인 모임(페이스북, 인스 타그램 등)’을 묻는 문항을 활용하였다.

〈표 4-4〉 사회적 자본 - 비공식적 네트워크에 대한 문항

구분		주요 문항
네트 워크	비공식적 네트워크	문 34) 귀하는 다음과 같은 집단이나 모임 또는 단체에 소속되어 있으십니까? 소속되어 있으시다면 얼마나 적극적으로 활동하십니까? (5) 스포츠, 취미, 레저 모임 등 문화단체 (6) 동창모임 (7) 향우회 (8) 친목단체 (9) 기타 오프라인 모임이나 단체 (10) SNS 등 온라인 모임(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9). ‘사회통합 상태 진단을 위한 실태조사’.

나. 종속변수 1: 사회통합 국민 인식

사회통합 인식에 관한 문항으로는 <표 4-5>에 제시된 문항을 활용하고자 한다. 아래 문항은 2016년 「사회통합 실태 진단 및 대응 방안(III) - 사회통합 국민 인식」에서 활용된 주요 변수를 적극 사용하였다. 앞서 언급된 보고서 중 제4장은 ‘사회갈등과 사회통합 인식’에서 종속변수로서 사회통합 수준 중 ‘현재 우리나라가 사회통합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십니까?’라는 문항을 활용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 연구에서도 종속변수로 사용하였다(정해식 외, 2016, p. 119). 또한 제2장인 ‘한국인의 사회통합 인식 구성’에서 ‘한국 사회에 대한 평가’에서 활용한 조사문항을, 이 연구에서도 활용하였다(정해식 외, 2016, p. 39). 사용된 변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표 4-5>에 제시되어 있다.

<표 4-5> 사회통합 국민 인식 - 우리 사회의 상태 진단에 대한 문항

구분		주요 문항
사회통합 국민 인식	사회통합 수준	문 22) 귀하는 현재 우리나라가 사회통합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한국 사회에 대한 평가	문 21) 귀하는 전반적으로 볼 때, 우리 사회가 다음 중 어떤 사회에 가깝다고 평가하십니까? - 차별과 소외가 심한 사회 < ----- > 배려와 포용의 사회 - 서로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사회 < ----- > 서로 믿고 살아가는 사회 - 활력 없고 침체된 사회 < ----- > 활력 있고 희망찬 사회 - 경제적 불안, 미래에 대한 불안이 가득한 사회 < ----- > 경제적 희망,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는 사회 - 서로의 주장만 내세우고 남을 배려하지 않는 갈등이 심한 사회 < ----- > 서로의 의견을 경청하고, 이해하고 노력하는 사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9). ‘사회통합 상태 진단을 위한 실태조사’.

다. 종속변수 2: 다문화수용성

2015년, 2018년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김이선 외, 2018; 안상수, 김이선, 마경희, 문희영, 이명진, 2015)를 비롯한 여러 관련 연구에서 활용한 변수들을 참고하여, 종속변수인 다문화수용성을 국민정체성,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태도 그리고 다문화주의에 대한 태도 즉, 3가지 차원으로 구성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아래 <표 4-6>과 같은 문항을 활용하였다. 국민정체성에 관련된 문항은 ‘한국 국민인 것을 어느 정도 자

‘랑스럽게 생각하십니까?’로,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태도는 ‘이민자’, ‘북한이탈주민’ 그리고 ‘성소수자’를 이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항을 활용하였다. 그리고 다문화주의에 대한 태도로는 ‘결혼이주자, 외국인 노동자, 탈북자 등의 이민자가 그들의 고유의 문화, 관습을 버리고 한국의 문화, 관습을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과 ‘그들 고유의 문화, 관습을 유지하면서 한국사회에 적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 중 어디에 더 가깝습니까?’라는 문항을 사용하였다.

〈표 4-6〉 다문화수용성에 대한 문항

구분		주요 문항
다문화 수용성	국민 정체성	문 37) 귀하는 한국 국민인 것을 어느 정도 자랑스럽게 생각하십니까?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태도	문 39) 귀하는 다음의 대상이 이웃이 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이민자 (2) 북한이탈주민 (3) 성소수자
	다문화주의에 대한 태도	문 40) 귀하는 결혼이주자, 외국인 노동자, 탈북자 등의 이민자가 ‘그들의 고유의 문화, 관습을 버리고 한국의 문화, 관습을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과 ‘그들 고유의 문화, 관습을 유지하면서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 중 어디에 더 가깝습니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9). ‘사회통합 상태 진단을 위한 실태조사’.

라. 통제변수

이 연구는 성별(남/여), 연령(35세 미만/ 35~64세/ 65세 이상), 교육 수준(중졸 이하/고졸/대졸 이상), 배우자 유무(있음/없음), 주관적 소득계층(하층/중하층/중간층/중상층(상층)), 경제활동 상태(상용직 임금근로자/임시직 임금근로자/일용직 임금근로자/고용주/자영업자/무급가족종사자/실업자/비경제활동인구)를 통제한 상태에서 사회적 자본이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마. 분석 방법

이 연구의 자료 분석을 위해 우선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사회적 자본(신뢰/참여/네트워크)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를 살펴보기 위해 T-test

와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는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통제한 상태에서도 사회적 자본이 사회통합 인식과 다문화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제4절 사회적 자본의 상태 진단

사회적 자본 인식 및 형태의 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경제활동 특성별로 분석을 시행하였다.

1.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사회적 자본의 차이

가.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신뢰의 차이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신뢰의 차이에 대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4-7〉 참조). 우선 공적 신뢰는 연령대 및 주관적 소득계층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청년층(만 19~34세), 소득계층을 중간층이라고 여기는 집단이 비교 집단보다 공적 신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사회신뢰는 교육 수준 그리고 주관적 소득계층에 따른 차이가 드러났다. 다시 말하면 대졸 이상, 중간층의 소득계층이 비교 집단보다 사회신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사람(타인) 신뢰는 주관적 소득계층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본인의 소득계층이 하층인 집단이 비교 집단보다 사람(타인) 신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본인의 소득계층을 중상층(상층)이라고 보는 집단은 사람(타인)에 대한 신뢰는 낮았다.

〈표 4-7〉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신뢰의 차이

(단위: 점)

구분	분류	공적신뢰			사회신뢰			사람(타인)신뢰		
		평균	표준 편차	T(F)/P	평균	표준 편차	T(F)/P	평균	표준 편차	T(F)/P
성별	남성	1.39	.40002	-1.539 (.124)	4.96	1.768	-.974 (.330)	3.66	.71963	-.388 (.698)
	여성	1.41	.41187		5.01	1.729		3.67	.69307	
연령대	19~34세	1.43	.43667	3.723 (.024)	5.00	1.740	.124 (.884)	3.63	.72584	1.562 (.210)
	35~64세	1.39	.39575		4.97	1.764		3.68	.70098	
	65세 이상	1.39	.38989		5.00	1.703		3.65	.69460	
교육 수준	중졸 이하	1.37	.37548	2.538 (.079)	4.98	1.673	6.389 (.002)	3.66	.69481	.005 (.995)
	고졸	1.39	.42074		4.88	1.782		3.66	.69399	
	대졸 이상	1.41	.40278		5.10	1.741		3.66	.72401	
배우자 유무	유배우	1.39	.39628	1.110 (.267)	5.02	1.750	-1.819 (.069)	3.65	.71058	1.177 (.239)
	무배우	1.41	.42235		4.92	1.746		3.68	.69942	
주관적 소득 계층	하층	1.39	.39468	5.397 (.001)	4.71	1.770	10.196 (.000)	3.76	.68758	21.605 (.000)
	중하층	1.37	.38448		4.89	1.706		3.75	.70455	
	중간층	1.43	.41779		5.13	1.738		3.57	.70435	
	중상층(상층)	1.42	.46240		5.11	1.943		3.54	.68400	
경제 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1.40	.40102	1.061 (.386)	5.08	1.700	1.201 (.298)	3.64	.71631	1.041 (.400)
	임시직 임금근로자	1.40	.38545		4.93	1.679		3.71	.70562	
	일용직 임금근로자 ³⁾	1.40	.41626		4.92	1.412		3.72	.61686	
	고용주	1.31	.41241		4.78	1.833		3.59	.82131	
	자영업자	1.38	.39388		4.95	1.846		3.68	.68962	
	무급가족 종사자	1.39	.37777		4.89	1.681		3.58	.68679	
	실업자 ⁴⁾	1.43	.45972		4.73	1.811		3.74	.77550	
	비경제 활동인구 ⁵⁾	1.41	.42306		4.97	1.763		3.66	.70464	

주: 공적신뢰: 매우신뢰한다 ① ~ 거의 신뢰하지 않는다 ③ 역코딩
 사람(타인)신뢰: 매우 동의한다 ① ~ 매우 반대한다 ⑤ 역코딩
 사회신뢰: 전혀 믿을 수 없다 ① ~ 매우 믿을 수 있다 ⑩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9). '사회통합 상태 진단을 위한 실태조사' 자료 분석.

3) 일용직 임금근로자는 자활근로, 공공근로, 노인일자리를 포함한다.
 4) 실업자는 2019년 5월 31일 기준 지난 4주 동안 일하지 않고 구직활동 중인 경우에 해당되는 자를 포함한다.
 5) 비경제활동인구는 주부, 학생, 군복무 등을 포함한다.

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참여의 차이

다음으로는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참여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표 4-8> 참조). 우선 시민참여는 연령대, 교육 수준, 배우자 유무, 주관적 소득계층, 경제활동 상태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중장년층(만 35~64세), 대졸 이상, 배우자가 있고 중상층(상층) 소득계층이며, 본인이 고용주인 경우 비교 집단보다 시민참여가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정치집단참여는 성별, 연령대, 교육 수준, 배우자 유무 및 경제활동 상태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즉 남성, 중장년층(만 35~64세), 대졸, 배우자가 있고 상용직 임금근로자인 경우 비교 집단보다 정치집단참여가 활발하였다. 마지막으로 정치참여는 연령대, 교육 수준, 배우자 유무, 주관적 소득계층 및 경제활동 상태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다. 청년층(만 19~34세), 고졸, 배우자가 없고 중상층(상층) 소득계층, 비경제활동인구 집단이 비교 집단보다 정치참여가 높았다.

<표 4-8>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참여의 차이

(단위: 점)

구분	분류	시민참여			정치집단참여			정치참여		
		평균	표준 편차	T(F)/P	평균	표준 편차	T(F)/P	평균	표준 편차	T(F)/P
성별	남성	1.64	.56471	-.103 (.918)	1.12	.40422	5.208 (.000)	2.64	14.79461	.541 (.588)
	여성	1.64	.55352		1.06	.30894		2.39	13.84905	
연령대	19~34세	1.58	.46186	22.983 (.000)	1.06	.32804	7.349 (.001)	9.79	27.33284	182.827 (.000)
	35~64세	1.69	.59556		1.11	.38006		0.08	.23939	
	65세 이상	1.54	.53437		1.06	.33205		0.03	.15745	
교육 수준	중졸 이하	1.52	.50020	32.638 (.000)	1.05	.30461	4.901 (.007)	0.34	5.42189	65.183 (.000)
	고졸	1.61	.51917		1.09	.38587		5.61	21.35466	
	대졸 이상	1.72	.60772		1.10	.35740		0.35	3.66912	
배우자 유무	유배우	1.68	.59404	6.512 (.000)	1.10	.37016	2.560 (.000)	0.12	2.11774	-14.088 (.000)
	무배우	1.57	.48424		1.07	.34532		6.71	23.02284	
주관적 소득 계층	하층	1.52	.51578	25.888 (.000)	1.06	.32366	2.0408 (.105)	2.07	12.77243	3.913 (.008)
	중하층	1.59	.52267		1.08	.34240		1.67	11.07382	
	중간층	1.69	.57494		1.10	.38860		3.15	16.36092	

구분	분류	시민참여			정치집단참여			정치참여		
		평균	표준 편차	T(F)/P	평균	표준 편차	T(F)/P	평균	표준 편차	T(F)/P
	중상층 (상층)	1.84	.66829		1.11	.34895		4.22	19.05262	
경제 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1.67	.56644	3.188 (.002)	1.11	.37867	2.678 (.009)	0.71	6.57938	20.684 (.000)
	임시직 임금근로자	1.58	.48583		1.07	.38885		5.66	21.24598	
	일용직 임금근로자	1.54	.49645		1.11	.43251		3.25	16.72961	
	고용주	1.70	.53397		1.11	.32011		0.09	.25372	
	자영업자	1.66	.58815		1.10	.36640		0.07	.22449	
	무급가족 종사자	1.64	.55742		1.06	.30914		0.47	4.53686	
	실업자	1.48	.36744		1.03	.14624		2.58	14.05187	
	비경제 활동인구	1.62	.56448		1.06	.34327		6.45	22.99926	

주: 시민참여: 일주일에 한 번 이상 ① ~ 전혀 안했다 ⑤ 역코딩
 정치집단참여: 소속되어서 적극적으로 활동한다 ① ~ 소속된 적이 없다 ④ 역코딩
 정치참여: 투표했다 ① ~ 투표하지 않았다 ② 역코딩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9). '사회통합 상태 진단을 위한 실태조사' 자료 분석.

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네트워크의 차이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비공식적 네트워크의 차이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표 4-9〉 참조). 남성이 여성보다 비공식적 네트워크에 소속되는 경우가 많았고 활동 참여가 높았다. 연령대에 따라서는 중장년층(만 35~54세) 집단이 비공식적 네트워크의 소속 및 참여 빈도가 높았으며 청년(만 19~34세), 만 65세 이상이 그 뒤를 이었다. 교육 수준에 따라서는 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집단이 비교 집단보다 비공식적 네트워크의 소속 및 참여 활동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 유무에 따라서는 배우자가 있는 집단이 배우자가 없는 집단보다 비공식적 네트워크의 소속 및 참여 활동이 높게 나타났다. 주관적 소득계층에 따라서는 본인을 중상층(상층)이라고 여기는 집단이 비공식적 네트워크의 소속 및 참여 빈도가 높았고 중간층, 중하층, 하층 순으로 나타났다. 경제활동 상태에 따라서는 고용주 집단이 비공식적 네트워크의 소속 및 참여가 가장 높은 반면 실업자 집단이 비공식적 네트워크에 소속되어 활동에 참여하는 정도가 가장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9〉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비공식적 네트워크의 차이

(단위: 점)

구분	분류	비공식적 네트워크		
		평균	표준 편차	T(F)/P
성별	여성	1.49	.51488	-9.863 (.000)
	남성	1.67	.62283	
연령대	19~34세	1.53	.55400	30.429 (.000)
	35~64세	1.63	.60142	
	65세 이상	1.43	.48796	
교육 수준	중졸 이하	1.38	.44967	56.556 (.000)
	고졸	1.59	.59080	
	대졸 이상	1.65	.59541	
배우자 유무	무배우	1.48	.54977	-7.819 (.000)
	유배우	1.63	.58874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1.34	.48639	59.111 (.000)
	중하층	1.53	.53697	
	중간층	1.66	.60621	
	중상층(상층)	1.80	.61805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1.64	.57926	18.743 (.000)
	임시직 임금근로자	1.50	.58091	
	일용직 임금근로자	1.42	.47929	
	고용주	1.87	.59723	
	자영업자	1.68	.59660	
	무급가족종사자	1.49	.51518	
	실업자	1.42	.45772	
	비경제활동인구	1.46	.55606	

주: 비공식적 네트워크: 소속되어서 적극적으로 활동한다 ① ~ 소속된 적이 없다 ④ 역코딩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9). '사회통합 상태 진단을 위한 실태조사' 자료 분석.

2.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다문화수용성의 차이

연구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다문화수용성의 차이에 대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4-10〉 참조). 우선 국민정체성은 연령, 교육 수준, 배우자 유무 및 주관적 소득계층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령으로는 만 65세 이상, 고졸, 배우자가 있고 본인의 주관적 소득계층을 중상층(상층)이라고 여기는 집단이 비교 집단보다 국민정체성이 강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음으로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태도는 성별, 연령, 교육 수준 그리고 경제활동 상태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구체적으로 남성, 청년층(만

19~34세), 대졸 이상 그리고 실업자 집단이 비교 집단보다 훨씬 수용적이고 관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다문화주의에 대한 태도는 연령과 교육 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중장년층(만 35~64세), 대졸 이상인 집단이 비교 집단보다 다문화주의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표 4-10〉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다문화수용성의 차이

(단위: 점)

구분	분류	국민정체성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태도			다문화주의에 대한 태도		
		평균	표준 편차	T(F)/P	평균	표준 편차	T(F)/P	평균	표준 편차	T(F)/P
성별	여성	2.92	.53759	1.289	1.82	.47478	-4.936	5.68	2.228	-5.65
	남성	2.90	.59729	(.197)	1.89	.47460	(.000)	5.72	2.242	(.572)
연령	19~34세	2.85	.54589	16.310 (.000)	1.88	.47128	12.331 (.000)	5.64	2.336	3.259 (.039)
	35~64세	2.91	.58315		1.86	.48013		5.77	2.198	
	65세 이상	3.03	.52854		1.76	.45738		5.51	2.198	
교육 수준	중졸 이하	0.53	.02051	19.507 (.000)	0.48	.01839	11.803 (.000)	2.19	.085	5.046 (.006)
	고졸	0.59	.01475		0.47	.01162		2.22	.055	
	대졸 이상	0.55	.01380		0.48	.01203		2.26	.056	
배우자 유무	무배우	2.88	.58493	-2.649	1.87	.48111	1.877	5.70	2.232	-0.65
	유배우	2.93	.55836	(.008)	1.84	.47298	(.061)	5.70	2.237	(.948)
주관적 소득 계층	하층	2.90	.58283	3.917 (.008)	1.84	.49221	1.205 (.306)	5.68	2.231	2.311 (.074)
	중하층	2.88	.56746		1.86	.46090		5.59	2.283	
	중간층	2.94	.56328		1.85	.48006		5.76	2.211	
	중상층 (상층)	2.97	.57105		1.91	.50135		5.94	2.085	
경제 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2.90	.55876	1.354 (.221)	1.87	.45452	2.225 (.030)	5.71	2.273	1.309 (.242)
	임시직 임금근로자	2.85	.59870		1.87	.47050		5.65	2.255	
	일용직 임금근로자	3.00	.60159		1.81	.49520		5.25	2.293	
	고용주	2.85	.60576		1.88	.49030		5.83	2.043	
	자영업자	2.91	.59646		1.86	.49949		5.68	2.192	
	무급가족 종사자	2.96	.54298		1.84	.44439		5.55	2.486	
	실업자	2.90	.57395		1.96	.51497		5.46	2.340	
	비경제 활동인구	2.93	.54161		1.82	.47589		5.81	2.177	

주: 국민정체성: 매우 자랑스럽다 ① ~ 전혀 자랑스럽지 않다 ④ 역코딩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태도: 좋음 ① ~ 안 좋음 ③ 역코딩

다문화주의에 대한 태도: 고유의 문화, 관습을 버리고 한국의 문화, 관습을 수용해야 한다 ① ~ 고유의 문화, 관습을 유지하면서 한국사회에 적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9). '사회통합 상태 진단을 위한 실태조사' 자료 분석.

제5절 사회적 자본이 사회통합 국민 인식에 미치는 영향

1. 사회적 자본과 사회통합 수준 간의 상관관계

사회적 자본과 사회통합 간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아래 <표 4-11>에 제시되어 있다. 우선 사회통합 수준과 공적 신뢰, 사회신뢰와는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낸 반면 사람(타인) 신뢰와는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표 4-11> 사회적 자본과 사회통합 변수들 간 상관관계 분석

구분	사회 통합 수준	공적 신뢰	사람(타인) 신뢰	사회 신뢰	시민 참여	정치 집단 참여	정치 참여	비공식적 네트워크
사회통합 인식	1.000							
공적신뢰	.209**	1.000						
사람(타인) 신뢰	-.171**	-.105**	1.000					
사회신뢰	.500**	.316**	-.192**	1.000				
시민참여	-.020	.051**	-.045**	.007	1.000			
정치집단참여	-.024	-.026	.021	-.027	.243**	1.000		
정치참여	.028	.075**	-.032*	.047**	-.005	-.022	1.000	
비공식적 네트워크	-.014	-.021	-.080**	.036*	.231**	.391**	-.057**	1.000

주: *p<.05, **p<.01, ***p<.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9). '사회통합 상태 진단을 위한 실태조사' 자료 분석.

2. 사회적 자본과 우리 사회의 상태 간의 상관관계

사회적 자본이 우리 사회의 상태 진단 간 상관관계를 분석하면 <표 4-12>와 같다. 우선 포용 사회와 공적신뢰, 사회신뢰, 정치참여와 비공식적 네트워크는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낸 반면 사람(타인)신뢰와 정치집단참여는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다음으로 신뢰사회와 공적신뢰, 사회신뢰 그리고 비공식적 네트워크는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낸 반면 사람(타인) 신뢰와 정치집단참여와는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또한 역동적 사회와는 공적신뢰, 사회신뢰, 시민참여 그리고 정치참여는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사람(타인)신뢰와 정치집단참여와는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그리고 희망 사회와

공적신뢰 및 사회신뢰는 정적 상관관계를, 사람(타인)신뢰와 정치집단참여는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협조 사회와 공적신뢰 및 사회신뢰는 정적 상관관계를, 사람(타인)신뢰와 정치집단참여는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표 4-12〉 사회적 자본과 우리 사회의 상태 변수들 간 상관관계 분석

구분	포용 사회	신뢰 사회	역동적 사회	희망 사회	협조 사회	공적 신뢰	사람(타인) 신뢰	사회 신뢰	시민 참여	정치집단 참여	정치 참여	비공식적 네트워크
포용사회	1.000											
신뢰사회	.737**	1.000										
역동적 사회	.616**	.668**	1.000									
희망사회	.604**	.626**	.748**	1.000								
협조사회	.645**	.696**	.674**	.723**	1.000							
공적신뢰	.198**	.211**	.263**	.244**	.210**	1.000						
사람(타인)신뢰	-.176**	-.193**	-.160**	-.160**	-.180**	-.105**	1.000					
사회신뢰	.390**	.434**	.395**	.399**	.415**	.316**	-.192**	1.000				
시민 참여	-.011	.027	.035*	.026	.027	.051**	-.045**	.007	1.000			
정치집단참여	-.036*	-.032*	-.040*	-.035*	-.045**	-.026	.021	-.027	.243**	1.000		
정치참여	.032*	.028	.039*	.017	.027	.075**	-.032*	.047**	-.005	-.022	1.000	
비공식적 네트워크	.053**	.042**	.027	.011	.020	-.021	-.080**	.036*	.231**	.391**	-.057**	1.000

주: *p<.05, **p<.01, ***p<.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9). '사회통합 상태 진단을 위한 실태조사' 자료 분석.

3. 사회적 자본이 사회통합 수준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자본이 사회통합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표 4-13〉과 같다. 독립변수들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공적신뢰와 사회신뢰는 모두 사회통합 인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사람(타인)신뢰와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통제변수 중 유일하게 성별이 사회통합 인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남자일수록 사회통합 인식은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표 4-13〉 사회적 자본이 사회통합 수준에 미치는 영향

변수		종속변수 - 사회통합 수준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계수	t	p
		B	표준오차	β		
(상수)		2.617	.213		12.273	.000
신뢰	공적신뢰	.216	.062	.052	3.502	.000
	사람(타인) 신뢰	-.185	.035	-.077	-5.340	.000
	사회신뢰	.455	.014	.471	31.392	.000
참여	시민참여	-.068	.044	-.023	-1.532	.126
	정치집단 참여	.042	.072	.009	.578	.563
	정치참여	.000	.002	-.004	-.237	.813
네트워크	비공식적 네트워크	-.063	.047	-.022	-1.353	.176
통제변수	성별	-.119	.049	-.035	-2.413	.016
	연령	-.022	.048	-.008	-.459	.646
	교육 수준	-.071	.040	-.031	-1.758	.079
	배우자 유무	.009	.055	.003	.168	.867
	주관적 소득계층	.004	.032	.002	.137	.891
	경제활동 참여 상태	.002	.009	.004	.266	.790
R ² (수정된 R ²)		.262 (.259)				
F (p)		103.042***(.000)				

주: *p<.05, **p<.01, ***p<.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9), '사회통합 상태 진단을 위한 실태조사' 자료 분석.

4. 사회적 자본이 우리 사회의 상태에 미치는 영향

〈표 4-14〉는 사회적 자본이 사회통합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회통합 인식을 종속변수로 한 모델의 유의성은 $p < .001$ 수준에서 유의하였고, 모델의 설명력은 17.0~20.7%로 나타났다. 다중공선성을 진단한 결과 VIF는 1~2로 기준 값인 10보다 훨씬 작은 것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수들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우리 사회 상태 중 하위 영역인 공적신뢰, 사회신뢰, 비공식적 네트워크 그리고 주관적 소득계층은 포용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난 반면 사람(타인)신뢰 및 정치집단참여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적신뢰, 사회신뢰, 비공식적 네트워크와 주관적 소득계층은 신뢰 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반면 사람(타인)신뢰, 정치집단참여 그리고 교육 수

준은 신뢰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적신뢰, 사회신뢰 그리고 주관적 소득계층은 역동적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사람(타인)신뢰, 정치집단참여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공적신뢰, 사회신뢰와 주관적 소득계층은 희망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사람(타인)신뢰는 희망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공적신뢰와 사회신뢰는 협조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사람(타인)신뢰, 정치집단참여, 성별 그리고 교육 수준은 협조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표 4-14〉 사회적 자본이 우리 사회의 상태 진단에 미치는 영향

변수	종속변수 - 한국 사회에 대한 평가										
	포용 사회		신뢰 사회		역동적 사회		희망 사회		협조 사회		
	B	β	B	β	B	β	B	β	B	β	
(상수)	3.092		2.805		2.361		2.049		2.897		
신뢰	공적신뢰	.367	.081***	.359	.078***	.663	.147***	.604	.128***	.364	.082***
	사람(타인)신뢰	-.234	-.089***	-.261	-.099***	-.174	-.067***	-.196	-.072***	-.236	-.092***
	사회신뢰	.359	.341***	.408	.384***	.347	.332***	.377	.343***	.380	.369***
참여	시민참여	-.082	-.025	.064	.019	.081	.025	.061	.018	.070	.022
	정치집단 참여	-.185	-.036*	-.165	-.032*	-.208	-.041*	-.138	-.026	-.211	-.042**
	정치참여	.000	.001	.000	-.003	-.001	-.007	-.002	-.013	.000	-.002
네트워크	비공식적 네트워크	.175	.055**	.110	.034*	.065	.021	.019	.006	.063	.020
통제 변수	성별	-.027	-.007	-.042	-.011	.027	.007	-.013	-.003	-.125	-.035*
	연령	-.027	-.009	-.015	-.005	-.074	-.025	.095	.031	.005	.002
	교육 수준	-.112	-.044	-.181	-.071***	-.076	-.030	-.088	-.033	-.098	-.040*
	배우자 유무	-.050	-.013	.003	.001	-.075	-.020	-.083	-.021	-.042	-.011
	주관적 소득계층	.100	.043**	.109	.047**	.127	.055**	.107	.044**	.068	.030
	경제활동 참여 상태	-.013	-.020	-.009	-.014	.012	.018	.000	.001	-.002	-.003
R ² (수정된 R ²)	.173(.170)		.210(.207)		.189(.186)		.185(.182)		.194(.191)		
F (p)	60.622(.000)		77.243(.000)		67.627(.000)		65.993(.000)		70.062(.000)		

주: *p<.05, **p<.01, ***p<.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9). '사회통합 상태 진단을 위한 실태조사' 자료 분석.

제6절 사회적 자본이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1. 사회적 자본과 다문화수용성의 상관관계

아래 <표 4-15>는 이 연구의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여 주고 있다. 우선 국민정체성과 공적신뢰, 사회신뢰 그리고 시민참여는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낸 반면 국민정체성과 사람(타인)신뢰는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또한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태도와 공적신뢰, 사회신뢰, 시민참여와 비공식적 네트워크는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낸 반면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태도와 사람(타인)신뢰는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마지막으로 다문화주의에 대한 태도와 사회신뢰, 정치집단참여 그리고 비공식적 네트워크는 정적 상관관계인 반면 다문화주의에 대한 태도와 사람(타인)신뢰는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표 4-15> 사회적 자본과 다문화수용성 변수들 간 상관관계 분석

구분	공적 신뢰	사람(타인) 신뢰	사회신뢰	시민 참여	정치 집단 참여	정치 참여	비공식적 네트워크	국민 정체성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태도	다문화주의에 대한 태도
공적신뢰	1.000									
사람(타인)신뢰	-.105**	1.000								
사회신뢰	.316**	-.192**	1.000							
시민참여	.051**	-.045**	.007	1.000						
정치집단참여	-.026	.021	-.027	.243**	1.000					
정치참여	.075**	-.032*	.047**	-.005	-.022	1.000				
비공식적 네트워크	-.021	-.080**	.036*	.231**	.391**	-.057**	1.000			
국민정체성	.162**	-.103**	.250**	.084**	.011	-.004	.011	1.000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태도	.108**	-.088**	.093**	.091**	.000	.023	.046**	.114**	1.000	
다문화주의에 대한 태도	-.013	-.053**	.105**	.030	.063**	.004	.073**	.046**	.165**	1.000

주: *p<.05, **p<.01, ***p<.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9). '사회통합 상태 진단을 위한 실태조사' 자료 분석.

2. 사회적 자본이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표 4-16〉은 사회적 자본이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증 결과를 보여 주고 있다. 다문화수용성의 첫 번째 하위요인인 ‘국민정체성’을 종속변수로 한 회귀분석모델의 유의성은 $p < .001$ 수준에서 유의하였으며, 모델의 설명력은 8.5%로 나타났다.

독립변수와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국민정체성은 공적신뢰, 사회신뢰 및 시민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사람(타인)신뢰는 국민 정체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통제변수 중에서는 교육 수준, 배우자 유무 그리고 주관적 소득계층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즉,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국민정체성은 낮은 반면 배우자가 있거나 본인의 주관적 소득계층을 중상층(상층)이라고 느낄수록 국민정체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수용성의 두 번째 하위요인인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태도를 종속변수로 한 회귀모델의 모델 유의성 역시 $p < .001$ 수준에서 유의하였으며 모델의 설명력은 3.7%인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수들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태도는 공적신뢰, 사회신뢰 및 시민참여 모두 다문화수용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사람(타인)신뢰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통제변수 중 성별과 연령이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태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남성일수록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태도는 긍정적인 반면 연령이 많을수록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태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다문화수용성 중 세 번째 하위요인인 다문화주의에 대한 태도를 종속변수로 한 모델의 유의성은 $p < .001$ 수준에서 유의하였고 모델의 설명력은 1.9%로 나타났다. 독립변수와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다문화주의에 대한 태도는 사회신뢰, 정치집단참여 및 비공식적 네트워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공적신뢰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변수 중에는 경제활동 참여 상태 여부가 다문화주의에 대한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즉, 경제활동에 참여할수록 다문화주의에 대한 태도가 수용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16〉 사회적 자본이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변수		종속변수 - 다문화수용성					
		국민정체성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태도		다문화주의에 대한 태도	
		B	β	B	β	B	β
(상수)		2.377		1.699		4.922	
신뢰	공적신뢰	.121	.086***	.093	.079***	-.298	-.054**
	사람(타인)신뢰	-.038	-.047**	-.044	-.065***	-.097	-.031
	사회신뢰	.069	.213***	.016	.057**	.151	.118***
참여	시민참여	.080	.079***	.076	.089***	.028	.007
	정치집단 참여	.015	.009	-.042	-.032	.279	.045*
	정치참여	.000	-.008	0	.001	.001	.004
네트 워크	비공식적 네트워크	-.022	-.023	.019	.023	.177	.046*
통제 변수	성별	-.001	-.001	.074	.077***	.010	.002
	연령	.059	.064	-.035	-.045*	.009	.002
	교육 수준	-.037	-.048*	.022	.034	.080	.026
	배우자 유무	.008	.007**	-.016	-.017	-.066	-.014
	주관적 소득계층	.024	.034*	-.016	-.026	.008	.003
	경제활동 참여 상태	.003	.013	.001	.005	.029	.037*
R ² (수정된 R ²)		.088 (.085)		.041 (.037)		.023 (.019)	
F		28.130***		12.311***		6.733***	

주: *p<.05, **p<.01, ***p<.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9). '사회통합 상태 진단을 위한 실태조사' 자료 분석.

제 5 장

사회이동의 실태와 함의

제1절 서론

제2절 선행연구 검토

제3절 사회이동성의 상태 진단

제4절 사회이동성 인식과 사회통합 인식의 관계 분석

5

사회이동의 실태와 함의 <<

제1절 서론

‘공정한 사회’에 대한 믿음이 사회통합의 한 요소라는 것은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사회통합정책영향평가 연구 사업에서 계속 확인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지난 2015년 「사회통합 실태진단 및 대응방안 II」(연구책임: 여유진, 정해식) 보고서를 발간하면서 “교육 성취와 숙련기술의 향상을 통해 어떤 산업화된 나라보다도 개방적이고 공정한 경쟁과 기회의 평등이 이루어져 왔다고 믿었던 이전 세대에 비해,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자신의 미래 경로가 상당 정도 결정된다고 믿는 현세대의 좌절은 사회통합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운다.”라고 머리말을 띄운 바가 있다. 그리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사회의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 설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밝힌 바 있다.

그렇지만 한국의 사회이동성이 높은가 낮은가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앞서 여유진 외(2015)에서도 최근 세대에 오면서 학력과 직업계층의 대물림이 강화된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지만, 동시에 여전히 국제적인 수준에서는 한국의 이동성이 평균적인 수준임을 밝힌 바 있다. 한국 사회는 사회이동성이 높아야 한다는 대중들의 지지와 달리 실제로는 불평등이 고착화되고 이동성이 저하하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 기대와 현실의 간극이 커짐에 따라 사회구조의 정상 기능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서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있다.

우리 사회의 당면 과제로 사회통합이 전면에 떠오르고 있으며, 그 한 축으로 사회이동성이 제시되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여유진 외 2015, p. 137). 지금의 계층질서가 수용될 수 있으려면 계층질서 이외의 요소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는 당연한 명제 외에 계층의 형성 과정도 공평해야 한다. ‘공평한 기회’와 ‘노력에 따른 보상’이 적절히 기능하는 사회에서는 결과의 불평등을 일정 부분 수용할 수 있게 하며(여유진 외 2015, p. 137), 이러한 사회에서는 이동성을 저하시키는 다양한 사회적 제약을 줄이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이뤄질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결과와 과정이 바

로 사회통합이라 할 수 있다. 이미 OECD(2011)가 사회통합의 세 축을 설정하면서 사회적 포용, 사회적 자본과 더불어 사회적 이동을 포함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한국 사회에서도 사회이동성을 제고하기 위해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예를 들어 기획재정부는 2017년 중장기전략 주요과제를 발표하면서 '취약계층에 대한 기회의 형평성 보장'을 강조하고 취약계층 집중지원을 통해 빈곤의 대물림 차단, 사회이동성 종합 지표 마련 및 정기적 공표, 주요 정책의 사회이동성 영향 평가 등을 통해 사회적 관심 제고와 정책 대응 강화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기획재정부, 2017). 이때 사회이동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지향은 대체로 저소득층 또는 취약계층의 이동성 제약 요소를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실제로 우리 국민들이 경험하고 인식하는 사회이동성의 저하와 관련된 부분은 보다 상층으로의 진입에서 경험하는 불합리성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수단은 뚜렷하지 않다. 이러한 분야에서는 이동성을 확보하는 것보다는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동성이 낮아졌다고 인식하는 것은 공정성에 대한 의심이 커지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5장에서는 한국인의 인식 속에서 사회이동성을 밝히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제2절 선행연구 검토

1. 사회이동성과 사회통합의 관계

사회이동성은 계급, 직업, 소득과 부로 구분되는 다양한 집단 간의 사회적 위계 내에서 이뤄지는 이동을 의미한다. 이것이 한 개인의 생애(한 세대) 안에서 이뤄지면 세대 내 사회이동이며,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및 그 이상의 관계(두 세대 이상)에서 이뤄진다면 세대 간 사회이동이다. 높은 이동성을 보이는 사회는 상층으로의 이동과 하층으로의 이동이 많은 인구집단 내에서 나타난다.

d'Addio(2007, p. 12)는 세대 간 이동성에 관심을 가지는 많은 이유로 세대 간 자원 배분이 전반적인 사회복지에 영향을 미치며, 그것이 높을수록 경제적 불평등을 줄여 공정성을 높이고 사회정의를 증진하며 자원의 보다 공평한 할당을 가능하게 하고,

경제적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한다는 점을 제시한다. 이는 낮은 사회이동을 보이는 사회에서는 최적이지 아닌 방식으로 재능의 할당이 이뤄지며, 결과적으로 전 사회적 관점에서 효율적 자원 배분이 이뤄지지 않게 된다(여유진 외, 2015, p. 14). 이렇듯 사회이동성은 효율성의 관점에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경제적·사회적 불평등의 결과는 교육, 건강 및 노동시장 참여 기회에서의 차이를 가져오며 이것은 결국 사회이동성에 영향을 미친다. 주로 소득 하위 40% 이하 집단과 그 이상 집단의 소득 격차를 특징으로 하는 높은 불평등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며, 이때 성장률을 낮추는 핵심 요인은 소득하위 계층이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에서 어려움을 겪기 때문이다(OECD 2015, p. 15). 즉, 높은 불평등 사회에서는 취약계층의 교육 접근성이 낮아지고, 이들의 사회이동 가능성을 제약함으로써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것이다. 이에 OECD(2015, pp. 16-17)는 비정형 근로(non-standard work)의 증가가 일자리 창출의 기회는 제공해 주지만 높은 불평등에 기여하며,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불평등을 줄일 수 있고, 높은 부의 집중은 투자 기회를 제약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불평등을 줄이고 모두에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으로 크게 네 가지를 제시한다. 첫째,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해 남성과 여성에 대한 노동시장 내의 불공평한 대우를 제거하고, 여성의 고용과 경력 확보를 위해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이다. 둘째, 일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노동시장의 분절성을 인정하며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고 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노동시장 통합에 나서는 것이다. 셋째, 교육 접근성에서 사회경제적 차이를 줄이기 위해 초기부터 개입해야 하며, 기술을 습득할 수 있게 지원해야 한다. 넷째, 근로연령대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급여의 재분배 효과성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소득 개인과 다국적기업이 더 많은 조세 부담을 지는 것이 필요하다. 소득지원 정책과 경기역행적 사회지출은 보다 크고 지속적인 규모로 추진되어야 한다.

사회이동성은 본질적으로 사회적 공정성과 관련된다. 사회이동성은 동등한 기회 보장의 원칙이 현실에서 어떻게 실행되는지를 보여 주는 척도이다(Nunn, 2012, p. 27). 기회의 공식적인 공평이라 함은 어떤 특정한 집단도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이러한 공식성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동등한 기회를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세대 간 사회이동에 주목하는 이유는 저소득 가구에서 태어난 어린이에게 이러한 제약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부자와 빈자 간의 격차를 줄이고, 기회의 증진을 위한 정책 패키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제도에 대한 강한 신뢰와 효과적인 사회적 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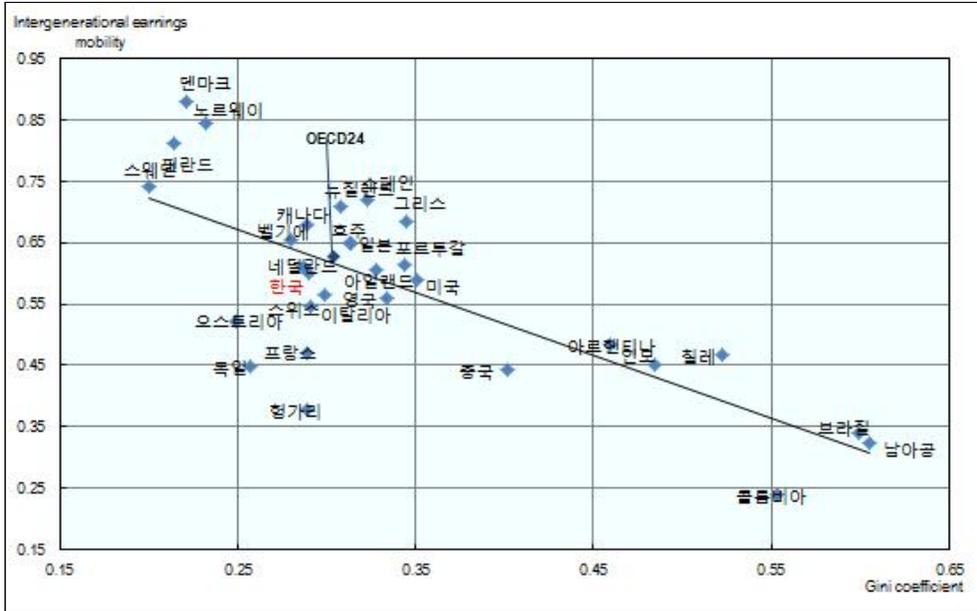
화가 필요한데(OECD, 2015, p. 16) 이것은 사회적 공정성에 대한 믿음을 필요로 한다.

2. 사회이동성 수준의 국제 비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018, p. 26)는 현재의 세대 간 불평등 정도 수준에서는 소득하위 10% 집단이 사회의 평균적 소득 수준에 이르는 데 4세대 또는 5세대를 뛰어넘는 기간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이런 결과는 크게 두 가지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 ([그림 5-1] 참조). 첫째는 부모와 자녀 간의 세대 간 이동성이다. 부모와 자녀의 소득 이동성은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과 같은 국가에서는 0.75를 넘어선다. 한국은 김수빈(2017)의 연구 결과를 활용하고 있는데 0.60의 값을 보이고 있다. 반대로 브라질, 콜롬비아, 남아공의 경우에는 이동성 값이 0.35 이하이다. 둘째는 현존하는 소득 불평등의 정도이다. OECD 국가 전체적으로 하위 10% 집단의 소득과 평균 소득의 비율은 1:3.5를 보이고, 지니계수는 0.30 수준이지만 국가별로 차이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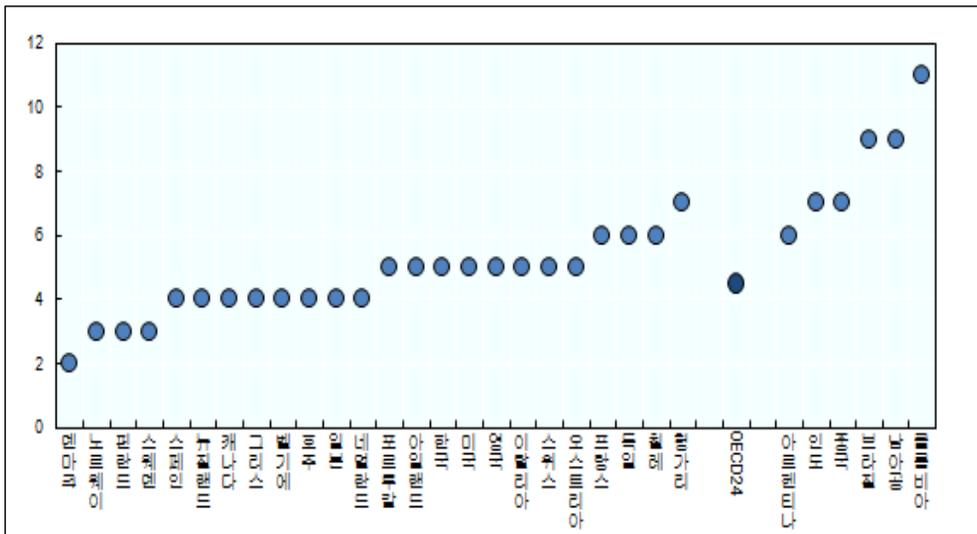
그런 결과로 [그림 5-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저소득 가구의 가구원이 평균 소득 수준에 이르기 위한 기간은 낮은 소득불평등과 높은 이동성을 보이는 사회에서는 4세대가 필요하지만, 높은 불평등과 낮은 이동성의 사회에서는 9세대 이상이 필요하다(OECD 2018, p. 27).

[그림 5-1] 소득불평등과 세대 간 사회이동성



자료: OECD. (2018, p. 196). A Broken Social Elevator? How to Promote Social Mobility. Paris: OECD Publish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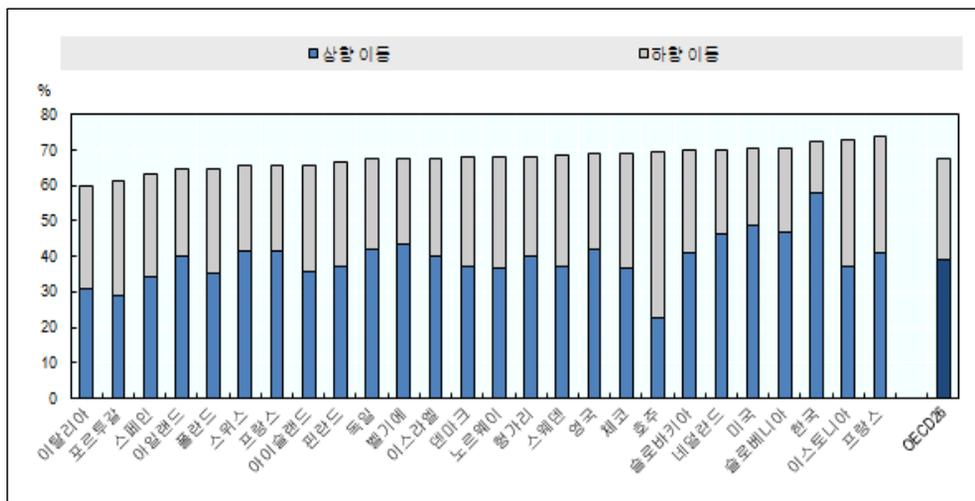
[그림 5-2] 소득탄력성을 이용한 세대 간 사회이동성



주: 아버지와 아들 간의 소득탄력성과 하위 10% 소득과 평균소득 간의 소득 비율을 이용하여 추정한 결과임.
 자료: OECD. (2018, p. 27). A Broken Social Elevator? How to Promote Social Mobility. Paris: OECD Publishing.

세대 간 절대적 직업계층 이동은 높은 편인데 남유럽의 60~63% 수준에 비해 한국은 72~74% 수준을 보인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OECD 2018, p. 183). 한편 호주를 제외하면 세대 간 직업계층의 상향이동이 보다 일반적이며 한국은 상향이동이 더 높고 하향이동은 더 적다는 특징을 보인다. 한국이 직업계층 이동에서 상승이동이 다른 나라보다 높고 하향이동도 낮다는 결과는 국제사회조사프로그램 자료를 이용하여 비교한 여유진 외(2015)의 연구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림 5-3] 2010년대 절대적 직업계층 이동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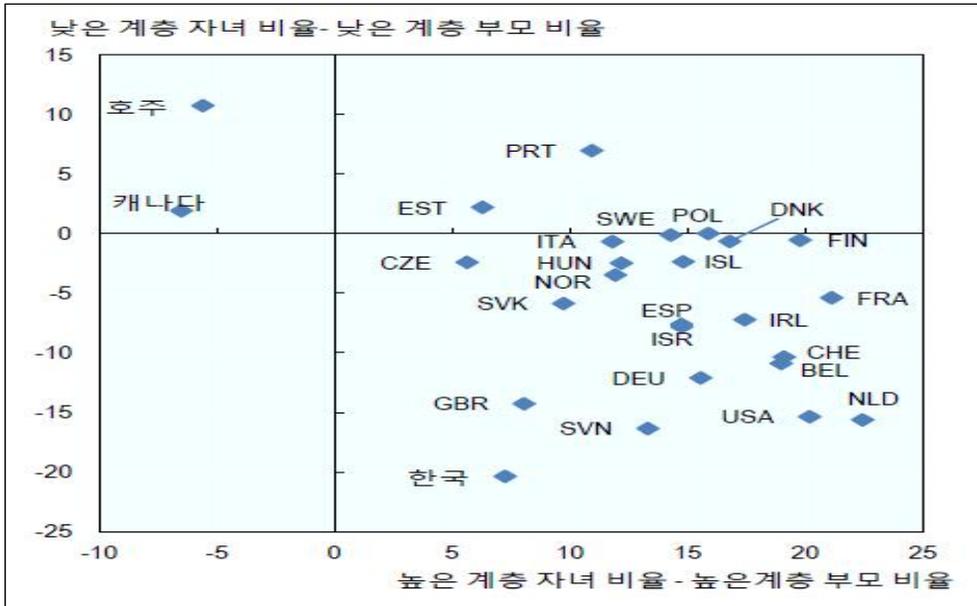
주: 원문에는 사회계층 이동성(social class mobility)으로 제시되어 있으나, 해석의 편의를 위해 직업계층 이동성으로 바꿔서 제시함.

자료: OECD. (2018, p. 183). A Broken Social Elevator? How to Promote Social Mobility. Paris: OECD Publishing.

그렇지만 이러한 이동성은 한 사회의 구조적 변화를 적절하게 제시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한국의 높은 세대 간 사회이동성에는 산업화 과정에서 수요가 크게 증가하였던 사무직, 관리직의 규모 증가가 배경에 있기 때문이다. 다음 [그림 5-4]는 이러한 산업구조 변화 등의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낮은 계층 자녀의 비율과 낮은 계층 부모의 비율 간의 차이, 높은 계층 자녀의 비율과 높은 계층 부모의 비율 간의 차이를 제시하고 있다. 한 사회에서 자녀 세대의 직업계층이 낮다고 응답하는 비율이 그들의 부모의 직업계층이 낮다고 응답하는 비율보다 높다면 그 사회에서는 직업계층의 전반적인 하향 이동이 일어난 것이라 유추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본인의 직업계층이 상위 계층에

있다고 응답한 자녀 비율과 부모의 직업이 상층에 있었다고 응답한 비율의 차이가 7.3% 수준이고, 반대로 본인의 직업계층이 하층에 있다고 응답한 자녀 비율과 부모의 직업이 하층에 있었다고 응답한 자녀 비율의 차이가 -20.4%이다. 이는 그만큼 우리 사회에서 하위 직업계층은 줄어들고, 상위 직업계층은 늘어났음을 의미한다.

[그림 5-4] 부모의 직업계층에 따른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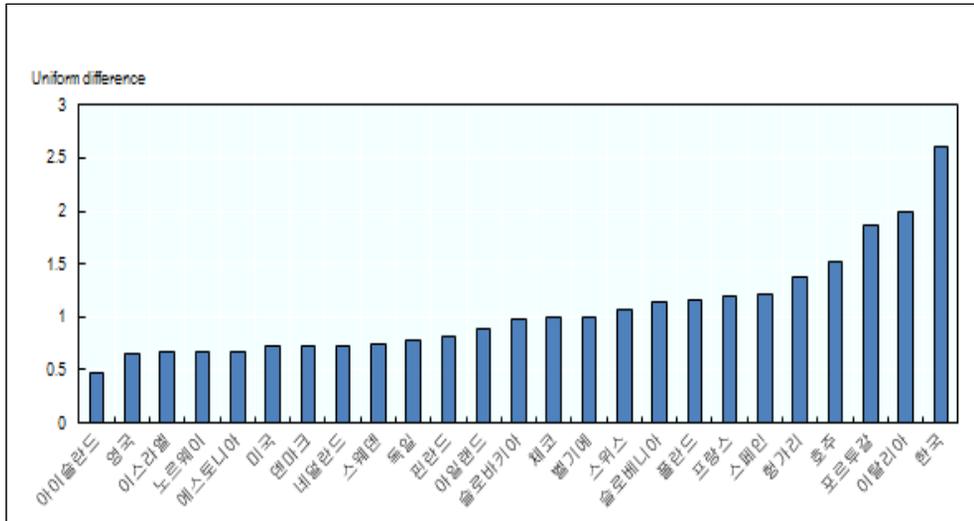


자료: OECD. (2018, p. 184). A Broken Social Elevator? How to Promote Social Mobility. Paris: OECD Publishing.

상대적 사회이동성은 특정 사회계층 구성원의 자손이 같은 사회계층에 남아 있을 가능성을 의미하며, 이는 사회가 얼마나 개방되어 있는지를 나타낸다. 오즈비를 이용하여 계산하는 사회계층의 상대적 지속성은 기댓값과 실제값의 차이를 보여 준다는 점에서 앞서의 결과와 차이가 있다. 사회계층의 상대적 지속성은 OECD 국가별 차이가 있다. 한국, 호주 및 남유럽 국가와 헝가리에서는 상대적 지속성이 높고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영국, 이스라엘, 에스토니아에서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OECD 2018, p. 190). 남부 유럽 국가, 호주와 한국은 사회계층의 상대적 이동성이 낮는데, 한편으로는 아버지와 아들의 이동성보다 엄마와 딸의 이동성이 더 낮다는 점도 특징이다. 이는 교육받은 여성이 사회계층에서 높은 위치에 있을 가능성이 높으며 그의 부모들도 높은

사회계층에 있었을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한편 여성의 사회참여 경향도 영향을 미치는데 여성이 파트타임이나 경력의 단절을 경험하면서도 노동시장에 참여하게 되면 비록 부모가 높은 사회계층이었다고 하더라도 딸의 사회계층은 낮을 수 있고, 그래서 사회 전체적으로는 사회이동성이 높은 것으로 보일 수 있다.

[그림 5-5] 사회계층의 상대적 지속성



자료: OECD. (2018, p. 190). A Broken Social Elevator? How to Promote Social Mobility. Paris: OECD Publishing.

한국 사회의 현실에서 보다 주목해야 할 사실은 한 사회의 이동성이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변화한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한 사회의 직업구조가 변화하는 과정에서 사회이동성이 어떻게 확보되는지를 보여 주기 때문에 중요하다. Eurofound(2017)는 1945년 이전 출생자, 1946~1964년 출생자, 1965~1974년 출생자 간 사회이동성이 높아진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그리스, 네덜란드, 슬로바키아에서는 사회계층 이동성이 증가하였고 오스트리아, 불가리아, 프랑스, 스웨덴에서는 오히려 줄었음을 밝히고 있다(OECD, 2018, p. 190 재인용).

3. 한국의 사회이동성 수준에 대한 진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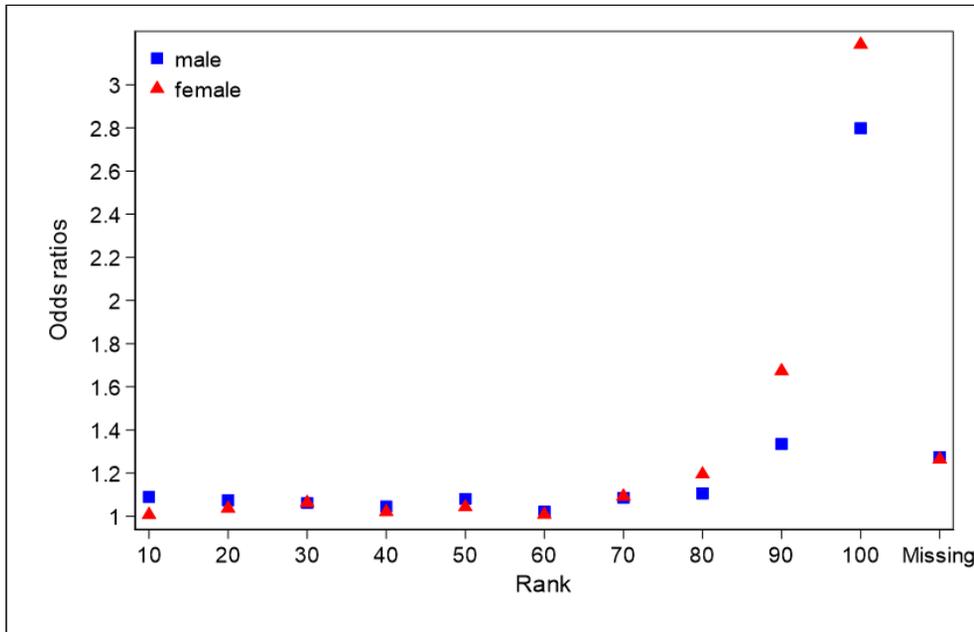
가. 객관적 차원의 사회이동성

최성수와 이수빈(2018, p. 105)은 한국에서 지난 세기에 걸쳐 교육 기회가 더 불평등해졌다고 답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들의 분석에서 대학 일반 졸업의 확률에서 부모 학력에 따른 격차는 1960년대 코호트에서 최대로 벌어지지만 이후 코호트에서 빠르게 감소하고, 4년제 대학 졸업 여부에서 격차는 1970년대 출생 코호트까지 증가했다가 1980년도 출생자들에게서는 정체 및 감소하기 시작했으며, 상위권 대학 졸업 여부 격차는 1950~60년도 출생자들에 비해 이후 출생 코호트에서 완만하지만 의미 있게 증가하는 양상이 나타난다. 결국 한국의 교육 기회 불평등은 전체적으로 감소했다고 보기 어렵지만, 교육 접근성이 전 계층에게 확대되는 양상으로 변해 왔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문수연(2016)은 상급학교 진학 여부에서 계급 격차가 감소한 반면 일반 계고교/실업계고교, 2년제 대학/4년제 대학과 같은 진학 유형 그리고 해외유학 경험에서 계급 격차가 증가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특히 중관계급과 자본계급 자녀의 해외유학 및 어학연수 경험은 약 13~14%로 도시 프티부르주아 계급 자녀의 7.71%의 약 2배를 넘어선다. 정한나(2016)는 대학 재학 중 생계형 일자리와 자기계발형 일자리를 경험한 사람을 비교하면 대학 평점 평균과 해외연수 경험 비율은 후자가 더 높고, 서울 4년제 대학 졸업자는 자기계발형 근로 경험 비율이 높지만 지방 2년제 대학 졸업자는 생계형 근로를 많이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분석은 한국 사회에서 교육을 통한 사회이동성의 맥락이 단순히 일반 대학 진학률에서 부모의 학력 격차 수준으로 설명되는 것을 넘어서고 있음을 보여 준다. 우리의 주요한 교육 정책, 사회통합 정책이 저소득층의 교육 투자 가능성을 확대하는 데 있는데, 이러한 일반적 정책의 범위 바깥에서 새로운 격차가 존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하여 정해식 외(2018b)는 소득분위의 세대 간 전이가 매우 비선형적인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어서 부모 소득 상위 20% 이상에서는 세대 간 전이가 매우 강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 이보다 낮은 소득 구간에서는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의 이동성이 관찰된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득 자료를 이용하여 세대 간 이동성을 측정된 결과로, 한국 사회의 세대 간 소득이동의 강도가 계층별로 차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 준다고 해석한다(정해식 외, 2018b, p. 141). 다음 [그림 5-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득기준 80% 수준까지 1~1.2 수준을 유지하던 오즈비가 90%, 100% 집단에서는 올라가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5-6] 부모와 본인의 개인 근로소득을 사용한 대수선형 분석 결과(odds sca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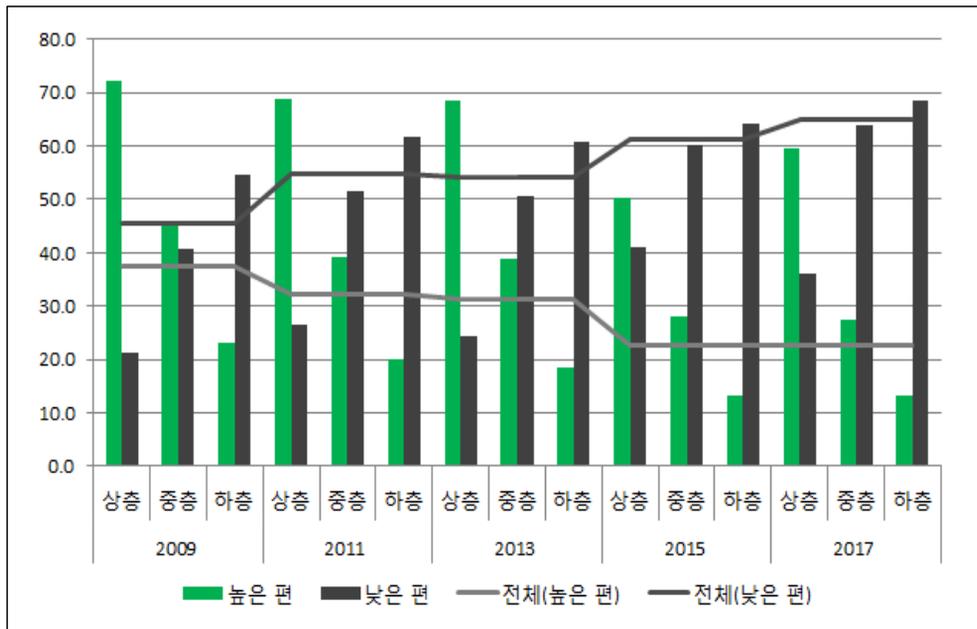
자료: 정해식 외 (2018b, p. 139). 소득불평등 심화의 원인과 정책적 대응 효과 연구2.

이러한 현상은 사회이동성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새롭게 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 준다. 즉 지금까지 우리가 주목하였던 사회이동성은 소득하위 계층 또는 직업하위 계층 자녀에게 차별 없는 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사회 자원의 효과적 할당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었다. 또 한편으로는 사회이동성의 저하가 구조적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하고 그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을 밝혔다. 여유진 외(2015, p. 179)는 “부모 세대가 경험하였던 높은 사회적 역동이 현세대에서도 계속될 수 있도록 하면서, 동시에 그러한 과거의 역동이 현재 사회에서 동질적인 수준에서 이뤄질 수 없다는 현실을 인식”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렇지만 최근 우리 국민들은 계층 집단의 최상부로 올라가는 사다리가 차별 없이 공정한가에 대한 관심의 차원에서 사회이동성을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 인식적 차원의 사회이동성

한국 사회의 사회이동성이 객관적 수치로 크게 악화되고 있음이 확인되지는 않지만 인식적 차원에서는 심각한 변화가 존재한다. 이에 대한 원인은 다음의 내용들로부터 유추해 볼 수 있다. 앞서 최성수와 이수빈(2018, p. 107)이 지적한 바와 같이 기회 불평등이 보다 좋은 학교(즉, 명문대)로의 진학으로 일부 이전되고 있음을 지적하였고, 정해식 외(2018b)에서 일부 확인한 바와 같이 사회 전반적인 이동성의 문제와 달리 최상층부에서의 세대 간 전이는 상당한 수준으로 존재한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즉, 한국 사회에서 사회이동성의 지향은 단순히 지금보다 나은 어떤 지점이 아니라 사회의 최상층부에 진입하는 것을 이동의 목표로 설정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인식의 결과가 점차 공고해지는 사회적 계층 지위의 불평등에 맞물려 이동성에 대한 불신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5-7] 본인 세대 계층이동 가능성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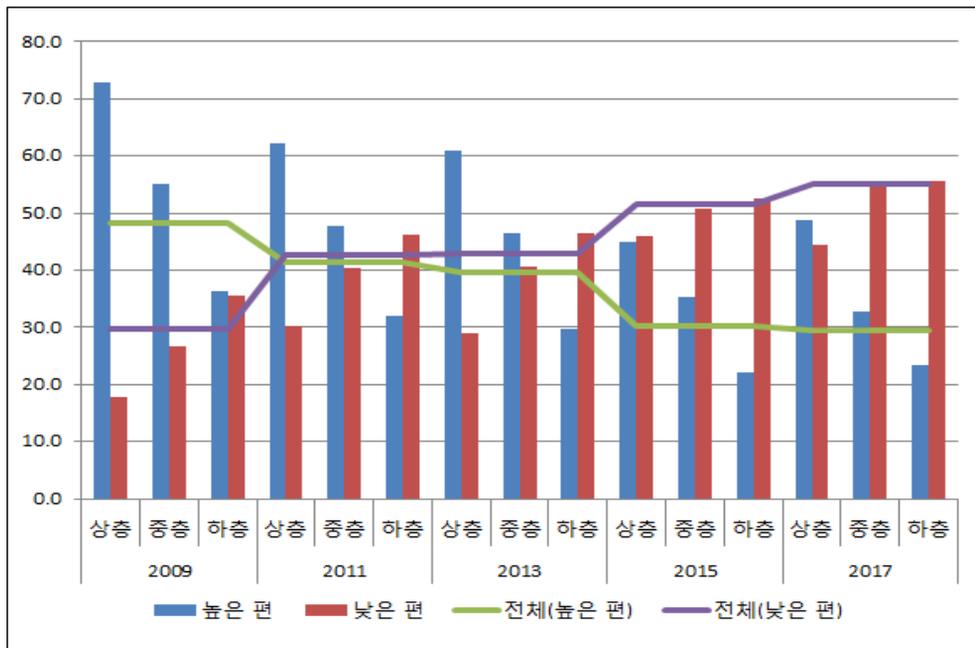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각년도). 사회조사. 본인 세대 계층 이동-19세 이상 인구(2019. 10. 20. 인출)

위 그림은 본인 세대 계층이동 가능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이에 대한 질문은 “우리 사회에서 일생 동안 노력을 한다면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까?”이며, 이것이 높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은 2009년 37.6%에서 2013년 31.2%까지 완만하게 낮아지다가 2015년 무렵부터 22.8% 수준으로 급격하게 하락했다. 반대로 그 가능성이 낮다고 응답하는 비율은 2009년 45.6%에서 점차 증가하기 시작하여 2017년에는 65.0%로 늘어났다.

한편 이러한 부정적 인식은 다음 세대의 계층이동 가능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 확산으로 연결되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현재의 본인 세대에 비해 다음 세대인 자식 세대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에서 높은 편이라는 응답은 2009년 48.3%에서 2017년에는 29.5%까지 낮아졌으며, 낮은 편이라는 응답은 2008년 29.8%에서 2017년에는 55.0%까지 늘어났다.

[그림 5-8] 다음 세대 계층이동 가능성 인식



자료: 통계청(각년도), 사회조사. 다음 세대 계층 이동-19세 이상 인구(2019. 10. 20. 인출)

제3절 사회이동성의 상태 진단

1. 분석 자료 개요

이 연구에서 활용하고자 하는 「사회통합 상태 진단을 위한 실태조사」는 한국 사회의 사회이동성을 측정하기 위해 응답자의 사회이동에 대한 인식, 15세 무렵의 본인 가족의 계층, 당시 부모님의 학력, 직업 및 사회적 위상을 묻고 있다. 또한 동시에 현재 자녀가 15세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자녀의 학력, 직업 및 사회적 위상을 확인하고 있다. 이러한 문항은 객관적 차원의 사회이동성을 진단하는 데 활용한다. 이 외에도 주관적 차원의 공정성 및 기회의 불평등에 대한 인식을 확인하고 있다. 이들 문항에 대한 세부 설명은 다음과 같다.

가. 공정성 및 기회의 불평등에 대한 인식

한국 사회에서 사회이동성이 낮다고 인식하는 원인에는 공정성 및 기회의 불평등에 대한 인식이 있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설문조사에 다음의 두 가지 질문을 포함하고 있다.

먼저 “한국 사회로부터 귀하가 받는 대우는 다음 사항들에 비하여 어느 정도 공정 또는 불공정하다고 느끼십니까?”에 대해서 그 하위 항목으로 1) 두뇌(능력)에 비해, 2) 일과 관련한 기술에 비해, 3) 노력에 비해, 4) 학력에 비해, 5) 경력에 비해를 포함하고 있다. 다음으로 한국 사회에서 다음의 사항이 어느 정도 평등 또는 불평등한지를 확인하고 있다. 여기서는 1) 교육 기회, 2) 취업 기회, 3) 승진·승급 기회의 세 가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나. 부모 세대의 영향력

지금까지 사회적 이동성에 관한 여러 연구에서는 부도의 사회경제적 지위, 교육 수준, 소득 수준의 영향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보다 직접적으로 한국 사회에서 자녀 세대의 소득이 부모 세대의 소득에 영향을 받는다고 인식하는 정도를 확

인해 보고자 하였다. 질문은 다음과 같다. “귀하는 자녀 세대의 소득이 부모 세대의 소득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다. 학령기 본인 가구의 계층과 현재 본인의 계층 간의 관계

이 연구에서는 응답자가 15세 무렵(중학교 3학년 즈음)에 속해 있던 계층을 최하 1부터 최상 10까지 응답하도록 하고 있고, 동시에 현재 본인의 소득계층을 1 하층부터 5 상층까지 응답하도록 하고 있다.

2. 세대 간 사회이동성

세대 간 사회이동성 분석에서는 크게 세 개의 코호트로 구분하여 접근하고자 한다. 첫째 코호트는 1943년 이후~1959년 출생자인 산업화 세대, 둘째 코호트는 1960~1974년생인 민주화 세대, 셋째 코호트는 1975~1995년생인 정보화 세대로 구분한다.⁶⁾ 「사회통합 상태 진단을 위한 실태조사」는 2000년생까지를 조사하고 있으나 1995년생부터 2000년생까지는 아직 대학 교육 등의 이유로 노동시장에 완전히 진입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제외하기로 한다. 이때 첫째 코호트라 할 수 있는 산업화 세대는 이제 대부분 정규 노동시장에서 은퇴할 연령으로, 이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직업이 그들의 생애주기 노동시장 참여 이력을 대표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음 <표 5-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들 연령대에서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사무 종사자의 비율은 크게 낮다. 이런 이유로 이 분석에서는 세대 간 사회이동성을 살펴볼 때 ‘민주화 세대, 정보화 세대 자녀와 그들의 부모’, ‘산업화 세대, 민주화 세대 부모와 그들의 자녀’라는 두 관계에 주목하고자 한다.

6) 이러한 세대 구분의 필요에 대해서는 여유진 외(2015, p. 33)를 참고할 수 있다.

〈표 5-1〉 코호트별 취업 특성

(단위: 명, %)

직업	산업화 세대		민주화 세대		정보화 세대	
	사례 수	비율	사례 수	비율	사례 수	비율
관리자	18	3.38	55	5.44	28	2.47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13	2.33	103	10.10	136	12.16
사무 종사자	12	2.23	141	13.88	391	35.00
서비스 종사자	157	29.12	277	27.18	258	23.05
판매 종사자	83	15.48	171	16.77	146	13.02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109	20.20	40	3.91	11	0.95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52	9.61	139	13.67	83	7.43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11	2.13	46	4.48	36	3.24
단순노무 종사자	84	15.51	47	4.58	30	2.68
군인	0	0.00	0	0.00	0	0.01
취업자 소계	538		1,019		1,118	
전체 응답자	892		1,271		1,490	

주: 가중치를 반영한 수치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9). '사회통합 상태 진단을 위한 실태조사' 자료 분석.

가. 민주화 세대, 정보화 세대 자녀와 그들의 부모 간의 사회이동성

다음 〈표 5-2〉는 민주화 세대와 정보화 세대에서 부(父)의 학력과 자녀 본인의 직업의 관계를 제시하고 있다. 먼저 민주화 세대에서 아버지의 학력이 대졸 이상인 경우는 많지 않은데, 이들의 직업은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사무 종사자가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대로 민주화 세대에서 아버지의 학력이 중졸 이하인 경우는 농림어업 숙련종사자, 기능, 조작 및 조립 종사자로 더 많이 일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정보화 세대에서는 아버지의 학력이 대졸 이상인 경우 사무 종사자로 일하고 있는 비율이 평균보다 높고 중졸 이하의 학력인 경우 기능, 조작 및 조립 종사자, 단순노무 노동자로 일하는 비율이 평균보다 높다.

〈표 5-2〉 15세 무렵 부의 학력과 본인의 직업

(단위: 명, %)

민주화 세대								
본인 직업	부의 학력							
	중졸 이하		고졸		대졸 이상		전체	
	사례 수	비율	사례 수	비율	사례 수	비율	사례 수	비율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90	(12.1)	46	(21.9)	24	(31.6)	159	(15.5)
사무 종사자	94	(12.7)	32	(15.6)	16	(20.9)	142	(13.9)
서비스 종사자	201	(27.1)	57	(27.5)	20	(26.9)	278	(27.2)
판매 종사자	125	(16.9)	35	(16.8)	11	(15.2)	172	(16.8)
농림어업 숙련종사자	39	(5.2)	1	(0.4)	1	(1.0)	40	(3.9)
기능, 조작 및 조립 종사자	156	(21.0)	27	(13.1)	3	(3.9)	186	(18.1)
단순노무 노동자	37	(4.9)	10	(4.8)	0	(0.6)	47	(4.6)
소계	741		208		75		1024	
정보화 세대								
본인 직업	부의 학력							
	중졸 이하		고졸		대졸 이상		전체	
	사례 수	비율	사례 수	비율	사례 수	비율	사례 수	비율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66	(19.2)	51	(11.3)	39	(14.5)	156	(14.6)
사무 종사자	86	(25.1)	143	(31.6)	144	(53.0)	373	(35.0)
서비스 종사자	83	(24.3)	116	(25.8)	46	(16.9)	245	(23.0)
판매 종사자	33	(9.6)	78	(17.2)	28	(10.4)	139	(13.0)
농림어업 숙련종사자	5	(1.4)	3	(0.7)	2	(0.8)	10	(0.9)
기능, 조작 및 조립 종사자	57	(16.7)	48	(10.6)	9	(3.2)	114	(10.7)
단순노무 노동자	13	(3.7)	12	(2.8)	3	(1.3)	29	(2.7)
소계	342		451		272		1065	

주: 1) 본인의 현재 직업이 군인인 경우 '기능, 조작 및 조립 종사자'에 포함함.

2) 15세 무렵 아버지가 '사망/생사불명'인 경우, 부의 학력을 중졸 이하로 처리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9). '사회통합 상태 진단을 위한 실태조사' 자료 분석.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현재 본인의 직업과 15세 무렵 부의 직업 사이의 관련성이다. 〈표 5-3〉은 본인의 현재 직업과 그들의 15세 무렵 부의 직업을 연관하여 제시하고 있다. 먼저 민주화 세대에서 현재 본인의 직업이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인 경우 그 부의 직업도 같은 직업군에 속하는 경우가 높지만, 이들의 부모는 서비스 종사자, 판매 종사자 또는 기능, 조작 및 조립 종사자일 가능성도 평균 이상이다. 정보화 세대의 특징으로 현재 본인이 사무 종사자일 경우 그 부모도 사무 종사자, 본인이 서비스 종사자일 경우 부모도 서비스 종사자일 가능성이 높다. 이는 정보화 세대에서 부의 직업과 본인의 직업 사이의 연관성이 더 커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표 5-3〉 15세 무렵 부의 직업과 본인의 직업

(단위: 명, %)

민주화 세대									
본인 직업	부의 직업							전체	
	1	2	3	4	5	6	7	사례 수	비율
	배율	배율	배율	배율	배율	배율	배율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3.09	0.45	1.32	1.29	0.57	0.78	0.70	129	(14.5)
사무 종사자	0.93	1.49	0.69	0.84	1.00	1.01	0.97	125	(14.1)
서비스 종사자	0.79	1.44	1.42	0.49	1.00	1.06	0.90	248	(27.9)
판매 종사자	0.48	1.53	1.17	2.34	0.86	0.69	0.30	151	(17.1)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0.49	0.10	0.00	0.29	1.93	0.15	1.12	36	(4.0)
기능, 조작 및 조립 종사자	0.37	0.26	0.44	0.62	1.29	1.34	1.86	155	(17.4)
단순노무 노동자	0.66	0.26	0.81	0.74	0.95	1.87	1.79	44	(5.0)
소계(사례 수)	98	84	59	91	380	131	45	888	
정보화 세대									
본인 직업	부의 직업							전체	
	1	2	3	4	5	6	7	사례 수	비율
	배율	배율	배율	배율	배율	배율	배율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1.29	1.05	0.92	0.99	1.28	0.65	1.17	128	(12.9)
사무 종사자	1.07	1.41	1.05	0.91	0.52	0.92	0.71	362	(36.6)
서비스 종사자	0.79	1.01	1.58	0.82	1.09	0.90	1.26	227	(22.9)
판매 종사자	1.02	0.57	0.82	1.71	1.09	1.07	0.25	135	(13.7)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1.11	0.08	0.00	0.00	4.78	0.80	2.63	10	(1.0)
기능, 조작 및 조립 종사자	0.75	0.39	0.22	1.05	1.70	1.59	1.51	102	(10.3)
단순노무 노동자	1.30	0.00	0.00	0.29	0.89	2.11	3.22	25	(2.5)
소계(사례 수)	173	185	109	141	102	241	39	990	

주: 1) 배율은 전체 비율 대비 해당 셀의 확률값을 의미함. 예를 들어, 부모가 사무 종사자인 경우 자녀가 사무 종사자인 경우의 비율은 전체 대비 1.49배로 나타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9). '사회통합 상태 진단을 위한 실태조사' 자료 분석.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현재 본인의 직업과 15세 무렵 부의 직업 위세와의 관련성이 다. 현재 자녀인 본인이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또는 사무 종사자일 경우 부의 직업 위세가 높았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난다. 주목해서 살펴볼 것은 정보화 세대에서 현재 기능, 조작 및 조립 종사자 또는 단순노무 종사자로 일하는 경우 그 부모의 직업 위세가 낮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한편 본인의 직업이 사무 종사자인 경우 민주화 세대에서는 그 부모의 직업 위세가 낮을 가능성이 평균적인 수준이었으나 정보화 세대에서는 직업 위세가 낮을 가능성이 적어지고 있다. 즉, 정보화 세대에 와서는 부의 학력 또는 직업 위세가 높은 경우에도 사무 종사자로 일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표 5-4〉 15세 무렵 부의 직업 위세와 본인의 직업

(단위: 명, %)

민주화 세대								
본인 직업	부의 직업 위세						전체	
	0	1	2	3	4	5	사례 수	비율
	배율	배율	배율	배율	배율	배율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0.93	0.93	1.21	0.72	0.82	1.82	159	(15.5)
사무 종사자	0.96	0.65	1.23	1.23	0.74	1.65	142	(13.9)
서비스 종사자	0.99	1.09	0.68	0.99	1.54	0.99	278	(27.2)
판매 종사자	0.90	1.37	1.09	1.48	1.00	0.53	172	(16.8)
농림어업 숙련종사자	0.98	1.17	1.16	0.85	1.68	0.17	40	(3.9)
기능, 조작 및 조립 종사자	1.15	0.76	1.02	0.81	0.66	0.66	186	(18.1)
단순노무 노동자	1.24	1.19	0.96	0.42	0.00	0.06	47	(4.6)
소계(사례 수)	586	133	110	70	57	69	1,024	
정보화 세대								
본인 직업	부의 직업 위세						전체	
	0	1	2	3	4	5	사례 수	비율
	배율	배율	배율	배율	배율	배율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1.10	0.73	0.87	0.88	1.45	1.06	156	(14.6)
사무 종사자	0.68	1.28	1.25	1.04	1.11	1.53	373	(35.0)
서비스 종사자	1.23	0.88	0.81	0.93	0.50	0.77	245	(23.0)
판매 종사자	1.01	0.84	1.21	1.04	1.76	0.55	139	(13.0)
농림어업 숙련종사자	1.07	1.67	1.06	0.83	0.61	0.00	10	(0.9)
기능, 조작 및 조립 종사자	1.33	0.81	0.77	1.09	0.36	0.42	114	(10.7)
단순노무 노동자	1.36	1.15	0.00	1.24	0.42	0.57	29	(2.7)
소계(사례 수)	476	169	140	110	53	116	1,065	

주: 1) 배율은 전체 비율 대비 해당 셀의 확률값을 의미함. 위 표의 주를 참조할 것.

2) 부의 직업 위세는 경제적 보상, 전문성, 사회적 위상, 일의 자율성, 조직통제권한 각각에서 '매우 높다' 또는 '높은 편이다'로 응답한 경우를 1로 하고, 그 합산값을 이용하여 측정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9), '사회통합 상태 진단을 위한 실태조사' 자료 분석.

나. 산업화 세대, 민주화 세대 부모와 그들의 자녀 간의 사회이동성

산업화 세대와 민주화 세대 부모가 그 자녀를 양육할 시점에서 계층의 특성을 유추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교육 수준이다. 다음 〈표 5-5〉에서와 같이 산업화 세대는 51.1%가 중졸 이하 학력을 보였지만, 민주화 세대에서는 이 비율이 7.19%로 줄어든다.

〈표 5-5〉 코호트별 학력 특성

(단위: 명, %)

직업	산업화 세대		민주화 세대		정보화 세대	
	사례 수	비율	사례 수	비율	사례 수	비율
무학	23	(2.55)	0	(0.03)	1	(0.10)
초등학교 졸	207	(23.17)	14	(1.10)	0	(0.01)
중학교 졸	227	(25.42)	77	(6.07)	7	(0.48)
고등학교 졸	341	(38.26)	661	(52.02)	416	(27.94)
대학 졸(전문대학 포함)	88	(9.91)	481	(37.82)	987	(66.25)
대학원 이상	6	(0.69)	38	(2.97)	78	(5.22)
전체 응답자	892		1,271		1,49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9). '사회통합 상태 진단을 위한 실태조사' 자료 분석.

다음 표는 산업화 세대인 본인의 학력에 따른 자녀의 직업을 제시하고 있다. 이때 자녀의 연령은 별도로 통제하지 않았다. 산업화 세대와 민주화 세대의 본인 학력의 최하 기준이 다르다는 점에서 고등학교 이상 졸업에만 집중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산업화 세대에서는 본인이 고등학교를 졸업할 경우 자녀가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또는 사무 종사자일 가능성은 67% 가까이 되며 민주화 세대의 비율도 66% 수준이다. 산업화 세대에서는 본인이 대학 졸(전문대 포함)인 경우 자녀가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또는 사무 종사자인 비율이 95%에 육박하지만, 민주화 세대에서는 그 비율이 51% 수준으로 낮아진다. 이는 이들의 자녀가 서비스 종사자의 지위를 가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표 5-6〉 본인의 학력과 자녀의 직업

(단위: 명, %)

본인 학력	산업화 세대								
	자녀의 직업								전체
	1	2	3	4	5	6	7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사례수
무학	12.06	26.46	20.77	19.76	1.17	19.77	0	20	(2.9)
초등학교 졸	10.4	32.64	15.53	10.94	1.94	25.95	2.59	165	(23.1)
중학교 졸	14.46	37.47	15.69	12.14	0	19.31	0.93	164	(23.0)
고등학교 졸	19.13	47.85	12.52	6.87	0.35	12.68	0.59	293	(41.1)
대학 졸(전문대 포함)	28.47	66.38	3.75	1.4	0	0	0	64	(9.0)
대학원 이상	49.93	39.64	10.43	0	0	0	0	6	(0.8)
비율	16.93	42.93	13.38	8.85	0.63	16.23	1.06	712	

민주화 세대										
본인 학력	자녀의 직업								전체	
	1	2	3	4	5	6	7	사례수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무학	0	0	0	0	0	100	0	0	(0.1)	
초등학교 졸	9.07	36.49	6.25	33.86	0	10.5	3.83	8	(1.7)	
중학교 졸	8.92	27.89	5.48	1.6	0	53.65	2.46	48	(11.1)	
고등학교 졸	15.84	50.26	15.94	5.18	0.28	11.86	0.64	270	(62.0)	
대학 졸(전문대 포함)	10.01	41.42	34.55	4.99	0	9.03	0	98	(22.6)	
대학원 이상	56.92	28.57	0	0	0	14.51	0	11	(2.4)	
비율	14.63	44.96	18.41	5.11	0.17	15.98	0.74	435		

주: 1) 직업은 '1.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2. 사무 종사자, 3. 서비스 종사자, 4. 판매 종사자, 5.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6. 기능, 조작 및 조립 종사자, 7. 단순노무 노동자'로 구분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9). '사회통합 상태 진단을 위한 실태조사' 자료 분석.

3. 사회이동성, 공정성 및 기회의 불평등에 대한 인식

가. 사회이동성에 대한 인식

다음 <표 5-7>은 세대 내 사회이동성 인식에 대한 이 조사의 결과이다. '우리 사회에서 일생 동안 노력을 한다면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얼마나 되느냐?'는 질문에 47.3%가 높다고 응답하였다. 소득계층별로 보면 소득 하위층에 비해 소득 상위층에서 높다고 응답하는 비율이 높았고, 학력으로 보면 중졸 이하 학력에 비해 대졸 이상 학력에서 높다고 응답하는 비율이 높았다. 연령으로 보면 고령일수록 높다고 응답하는 비율이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어서 <표 5-8>은 세대 간 사회이동성에 대한 인식이다. '일반적으로 본인 세대에 비해 자식 세대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어떻게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답으로 자녀 세대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것이라는 응답은 57.2%를 차지하였다. 이러한 긍정적 응답은 소득계층과 학력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표 5-7〉 세대 내 사회이동성에 대한 인식

(단위: 명, %)

구분	매우 높다	약간 높다	약간 낮다	매우 낮다	모르겠다	Total	
사례 수	55	1,784	1,448	473	129	3,889	
비율	1.4	45.87	37.24	12.16	3.32	100	
소득 계층	하층	1.61	30.54	42.27	22.22	3.36	480
	중하층	0.84	39.42	42.05	14.25	3.44	1423
	중간층	1.69	52.88	33.45	8.65	3.34	1772
	중상층(상층)	2.31	65.17	25.43	4.77	2.32	214
학력	중졸 이하	1.16	34.92	44.69	16.17	3.06	558
	고졸	1.55	42.33	40.49	12.46	3.17	1622
	대졸 이상	1.35	52.79	31.73	10.57	3.55	1709
연령	20대 이하	2.74	49.15	35.59	7.79	4.73	737
	30대	1.06	49.97	33.22	13.04	2.71	712
	40대	0.55	44.73	38	12.81	3.92	807
	50대	1.29	46.41	37.6	13.03	1.67	831
	60대 이상	1.47	39.79	41.22	13.84	3.69	8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9). '사회통합 상태 진단을 위한 실태조사' 자료 분석.

〈표 5-8〉 세대 간 사회이동성에 대한 인식

(단위: 명, %)

구분	매우 높아질 것이다	약간 높아질 것이다	약간 낮아질 것이다	매우 낮아질 것이다	모르겠다	Total	
사례 수	56	2,171	1,112	221	329	3,889	
비율	1.43	55.82	28.59	5.68	8.47	100	
소득 계층	하층	1.03	40.72	40.35	9.12	8.78	480
	중하층	1.15	55.03	27.8	6.93	9.09	1423
	중간층	1.61	59.23	26.79	3.98	8.39	1772
	중상층(상층)	2.79	66.83	22.42	3.65	4.31	214
학력	중졸 이하	0.5	51.71	33.97	7.58	6.24	558
	고졸	1.26	54.02	30.45	5.08	9.2	1622
	대졸 이상	1.9	58.88	25.08	5.63	8.51	1709
연령	20대 이하	1.64	54.41	27.73	4.1	12.12	737
	30대	1.67	56.87	28.09	5.4	7.96	712
	40대	1.64	59.59	25.2	4.1	9.46	807
	50대	1.7	57.56	26.94	6.35	7.45	831
	60대 이상	0.54	50.6	34.96	8.27	5.63	8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9). '사회통합 상태 진단을 위한 실태조사' 자료 분석.

나. 공정성에 대한 인식

우리 국민들이 사회로부터 받는 대우에서 느끼는 공정성, 불공정성에 대한 인식은 다음 <표 5-9>와 같다. 학력이나 능력에 맞는 대우를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공정하다는 인식(‘매우 공정하다’와 ‘약간 공정하다’의 합)이 30% 내외이며 불공정하다(‘매우 불공정하다’와 ‘약간 불공정하다’의 합)는 16~18% 수준이다. 그러나 ‘노력’에 비해 공정하다는 인식은 25.5%로 낮고, 불공정하다는 인식은 29.9%로 다른 분야보다 높았다. 특히 노력에 비해 불공정하다는 인식은 고령층에서도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5-9> 사회의 대우에 대한 공정성 인식

(단위: %)

구분	학력에 비해					
	전체	19~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75세
매우 공정하다	1.58	2.75	1.29	1.44	1.21	1.31
약간 공정하다	27.95	31.22	34.93	26.2	28.28	20.17
보통이다	51.93	48.04	47.63	51.48	53.18	58.5
약간 불공정하다	16.89	15.83	15.01	19.67	15.42	18.28
매우 불공정하다	1.64	2.15	1.15	1.21	1.91	1.74
구분	능력에 비해					
	전체	19~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75세
매우 공정하다	1.55	2.17	1.2	0.84	2.22	1.33
약간 공정하다	31.12	35.13	36.29	31.88	30.79	22.4
보통이다	51.06	49.31	48.5	50.47	50.68	55.96
약간 불공정하다	15.61	12.73	13.71	16.67	15.48	19.04
매우 불공정하다	0.65	0.66	0.3	0.14	0.83	1.27
구분	노력에 비해					
	전체	19~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75세
매우 공정하다	2.01	2.56	3.73	1.33	0.88	1.82
약간 공정하다	23.46	23.51	26.59	21.05	29.37	16.95
보통이다	44.61	47.62	42.16	47.65	40.02	45.7
약간 불공정하다	27.37	24.24	25.28	27.97	27	31.9
매우 불공정하다	2.55	2.07	2.24	2	2.72	3.63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9). '사회통합 상태 진단을 위한 실태조사' 자료 분석.

다. 기회의 평등에 대한 인식

이제부터 확인하는 표는 한국 사회에서 교육 기회, 취업 기회 및 승진·승급 기회가 어느 정도 평등한지, 불평등한지에 대한 응답 결과를 연령집단별, 계층별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먼저 연령집단별로 살펴보면 한국 사회에서 교육 기회가 평등하다는 인식은 전체적으로 58.9%에 이르고 있다. 취업 기회에서는 24.8%만이, 승진·승급 기회에서는 16.5%만이 평등하다(‘매우 평등하다’와 ‘대체로 평등하다’의 합)고 응답하고 있다. 이는 한국 사회에서 교육 기회의 확장은 이뤄졌지만 이것이 이후의 경제활동 단계에서는 아직 평등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취업 기회가 평등하다는 인식은 19~29세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낮은 편임을 알 수 있다.

〈표 5-10〉 연령집단별 기회의 평등에 대한 인식

(단위: %)

구분	교육 기회					
	전체	19~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75세
매우 평등하다	5.7	8.5	5.2	5.5	4.7	4.9
대체로 평등하다	51.2	48.2	56.6	51.5	49.7	50.3
보통이다	27.9	29.4	24.3	27.7	30.7	27.2
대체로 불평등하다	14.2	12.0	13.0	14.4	14.2	17.3
매우 불평등하다	0.9	2.0	0.9	0.9	0.8	0.4
구분	취업 기회					
	전체	19~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75세
매우 평등하다	1.7	1.5	1.7	1.4	2.2	1.5
대체로 평등하다	23.1	21.0	22.5	27.9	23.3	20.6
보통이다	38.1	41.3	42.1	34.6	39.3	34.0
대체로 불평등하다	33.1	31.9	30.0	32.6	29.9	40.6
매우 불평등하다	4.0	4.4	3.8	3.4	5.3	3.3
구분	승진·승급 기회					
	전체	19~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75세
매우 평등하다	0.7	0.3	0.5	0.2	2.2	0.2
대체로 평등하다	15.8	18.5	14.4	14.6	17.3	14.3
보통이다	40.6	39.9	42.8	42.3	37.4	40.8
대체로 불평등하다	39.5	37.9	37.6	39.4	40.0	42.3
매우 불평등하다	3.4	3.4	4.7	3.4	3.2	2.5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9). '사회통합 상태 진단을 위한 실태조사' 자료 분석.

기회의 평등 인식에서 중요한 또 다른 요소는 계층 집단이다. 한국 사회의 이동성에 대한 인식에서는 세대, 연령집단보다는 계층 집단에서 더 확연한 차이가 나타난다. 다음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교육 기회가 평등하다는 응답은 대체적으로 높은 편이지만 특히 계층 구분에서 중상층(상층 포함) 집단에서는 교육 기회가 평등하다는 응답이 72.4%에 이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취업 기회에 있어서도 하층은 15.9%만이 공정하다고 응답한 데 비해 중간층은 27.8%, 중상층(상층 포함)은 33.9%가 공정하다고 응답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승진·승급 기회에서 하층은 12.4%만이 공정하다고 응답하고 중상층(상층 포함)에서는 30.8%가 공정하다고 응답하여 소득계층별로 우리 사회의 평등성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보였다.

〈표 5-11〉 계층별 기회의 평등에 대한 인식

(단위: %)

구분	교육 기회				
	전체	하층	중하층	중간층	중상층(상층)
매우 평등하다	5.7	4.4	5.4	6.2	7.1
대체로 평등하다	51.2	44.5	49.3	52.8	65.3
보통이다	27.9	29.9	30.4	26.9	16.2
대체로 불평등하다	14.2	19.9	14.1	13.3	10.9
매우 불평등하다	0.9	1.4	0.9	0.9	0.6
구분	취업 기회				
	전체	하층	중하층	중간층	중상층(상층)
매우 평등하다	1.7	2.3	0.8	1.6	6.5
대체로 평등하다	23.1	13.6	21.8	26.2	27.4
보통이다	38.1	36.9	39.3	37.1	41.3
대체로 불평등하다	33.1	40.5	33.5	31.9	22.9
매우 불평등하다	4.0	6.7	4.6	3.1	1.9
구분	승진·승급 기회				
	전체	하층	중하층	중간층	중상층(상층)
매우 평등하다	0.7	1.1	0.2	0.5	5.5
대체로 평등하다	15.8	11.3	14.3	17.1	25.3
보통이다	40.6	36.0	40.1	43.1	33.5
대체로 불평등하다	39.5	47.3	41.2	36.6	34.7
매우 불평등하다	3.4	4.2	4.2	2.8	1.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9). '사회통합 상태 진단을 위한 실태조사' 자료 분석.

라. 부모 세대의 영향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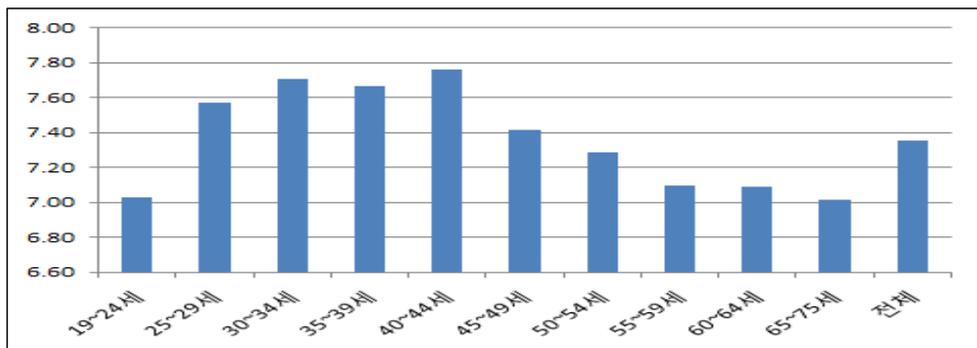
「사회통합 상태 진단을 위한 실태조사」에서 가장 특징적인 설문은 자녀 세대의 소득이 부모 세대의 소득에서 어느 정도 영향을 받는지를 조사한 것이다.

다음 그림은 연령대별로 부모 세대의 소득이 자녀 세대의 소득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정도를 보여 주고 있다. 완전히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10점으로 한 상태에서 평균 7.35점의 영향을 받는다고 응답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영향을 받는다고 평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영향 정도에 대한 인식은 연령대별로 미세하게 차이가 있다. 그런데 30~34세 집단은 7.71점, 35~39세 집단은 7.67점, 40~44세 집단은 7.76점, 45~49세 집단은 7.41점으로 소득 활동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연령대에서 부모의 영향력을 높게 평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5-9] 자녀 세대의 소득에 부모 세대의 소득이 미치는 영향의 정도에 대한 인식-연령집단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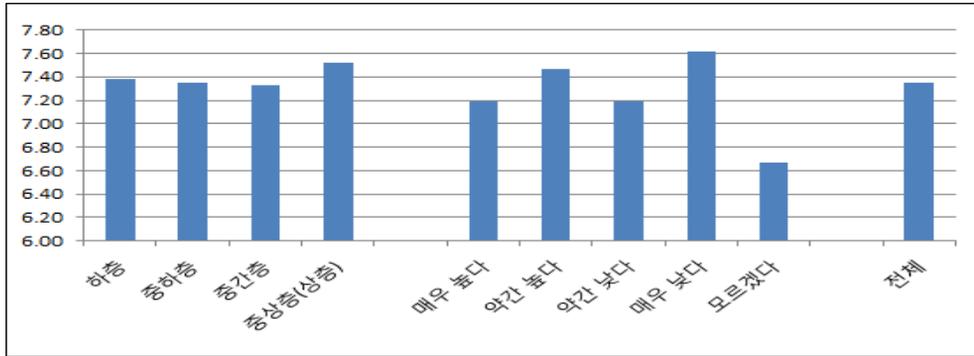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9). '사회통합 상태 진단을 위한 실태조사' 자료 분석.

다음 그림은 이런 인식을 주관적 소득계층과 '한국 사회에서 본인의 노력에 따라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에 대한 인식' 수준에 따라서 제시하고 있다. 주관적 소득계층이 하층일수록 그 영향력을 낮게 보고 있으며, 오히려 소득계층이 상층에 해당하는 집단에서 영향력을 높게 보고 있다. 이것은 우리 사회에서 부모 세대의 자녀 세대로의 소득 이전이 오히려 상층부 계층에서 빈번하게 목격되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림 5-10] 자녀 세대의 소득에 부모 세대의 소득이 미치는 영향의 정도에 대한 인식-주관적 소득계층, 사회이동성 인식 수준별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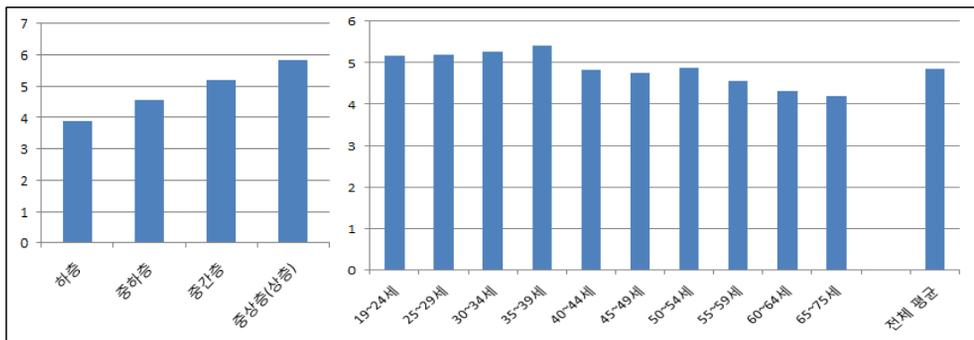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9). '사회통합 상태 진단을 위한 실태조사' 자료 분석.

마. 학령기 본인 가구의 계층과 현재 본인의 계층 간의 관계

먼저 주관적 소득계층별로 살펴보면 하층인 집단에서는 평균적으로 3.89점을, 중하층에서는 평균적으로 4.55점을, 중간층이라고 응답한 집단에서는 5.21점을, 중상층(및 상층)이라고 응답한 집단에서는 5.84점에 해당하는 계층에 속했다고 응답하였다. 다음으로 연령별로 보면 비교적 최근 세대에서는 대체적으로 평균 이상에 해당하는 계층이었다고 응답했지만, 그 이상 연령대에서는 본인의 15세 무렵 계층이 낮았다고 응답했다.

[그림 5-11] 주관적 소득계층별, 연령대별 15세 무렵 본인의 소득계층

(단위: 점)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9). '사회통합 상태 진단을 위한 실태조사' 자료 분석.

현재의 소득계층과 15세 무렵 본인의 소득계층 간의 상관관계는 40~49세 집단에서 0.203으로 가장 낮고 30~39세 집단에서는 0.308로 높아지고 있다. 물론 비교적 젊은 세대는 아직 본인의 계층이 구체적으로 발현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다. 가구주로 한정할 경우 30~39세 집단에서 상관관계는 조금 낮아진다.

〈표 5-12〉 연령별 현재 소득계층과 15세 무렵 본인의 소득계층

(단위: %)

구분	전체					30~39세 집단				
	하층	중하층	중간층	중상층 (상층)	전체	하층	중하층	중간층	중상층 (상층)	전체
최하 1계층~3계층	48.8	29.7	16.0	11.9	24.9	52.2	16.2	8.6	3.1	14.6
4~6계층	43.4	57.9	61.7	50.0	57.4	43.2	63.9	61.5	56.0	60.5
7계층~최상 10계층	7.8	12.4	22.3	38.1	17.8	4.6	20.0	29.9	41.0	25.0
구분	40~49세 집단					50~59세 집단				
최하 1계층~3계층	46.4	25.9	18.0	20.8	24.6	48.3	35.1	20.3	10.6	27.7
4~6계층	40.1	63.8	62.9	48.5	60.0	43.4	54.9	60.0	53.7	56.0
7계층~최상 10계층	13.5	10.4	19.1	30.8	15.5	8.3	10.0	19.8	35.7	16.3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9). '사회통합 상태 진단을 위한 실태조사' 자료 분석.

위 표는 현재 40~49세 집단에서 학령기에 최하 1계층에서 3계층에 속해 있었다고 하더라도 현재는 중상층(상층을 포함)에 속하는 비율이 20.8%로 높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이 비율은 50~59세 집단에서는 10.6%로 낮고, 30~39세 집단에서는 3.1%로 매우 낮다. 그렇지만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들 집단이 아직 소득의 확장기에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제4절 사회이동성 인식과 사회통합 인식의 관계 분석

이제 사회이동성 인식이 사회통합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로 한다. 이 장의 서론과 선행연구 검토에서 밝힌 바와 같이 사회이동성은 객관적인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주관적으로 인식되는 차원에서도 사회통합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사회통합의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사회이동성의 실질적 수준 확보와 더불어 사회이동성에 대한 믿음도 확보할 필요가 있다.

〈표 5-13〉은 한국 사회의 사회통합 수준에 대한 평가 정도를 설명하는 데 사회이동

인식을 변수로 투입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이때 사회통합 인식은 0점부터 10점으로 되어 있는 것을 모두 5개 그룹(0~2점, 3~4점, 5점, 6~7점, 8~10점)으로 재구성하였다. 먼저 빈곤 가구에서 사회통합 수준을 낮게 평가하고 있었고 남성에 비해 여성이 사회통합 수준을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20대에 비해 50대, 60대 이상 집단에서 사회통합 수준을 낮게 인식하는 경향이 확인되며,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사회통합 수준을 낮게 인식하는 경향이 확인된다.

다음으로 세대 내 이동성에 대한 인식을 모형에 투입하면 설명력이 높아지면서 빈곤 여부와 성별의 유의성은 사라진다. 세대 내 이동성 인식을 매우 낮게 평가하는 사람에 비해 ‘매우 높다’ 또는 ‘높다’고 평가하는 사람, ‘약간 낮다’고 평가하는 사람일수록 사회통합 수준이 높다고 평가하는 경향이 유의하게 확인된다. 이와 달리 노력에 대한 대우의 불공정성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사회통합 인식은 낮아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표 5-13> 사회이동 인식이 사회통합 인식에 미치는 영향

구분	기초모형	(모형 1) 세대 내 이동성 투입	(모형 2) 노력에 대한 대우의 공정성 투입	(모형 4)	(모형 5)	(모형 6)	
빈곤 여부 (비빈곤=0)	-0.155**	-0.095	-0.142*	-0.092	-0.115*	-0.107	
성별(남성=0)	0.065*	0.061	0.074*	0.069*	0.056	0.064*	
연령층 (20대=0)	30대	-0.062	-0.042	-0.060	-0.044	-0.068	-0.067
	40대	-0.113*	-0.088	-0.100	-0.082	-0.124*	-0.111*
	50대	-0.141**	-0.131*	-0.143**	-0.135**	-0.149**	-0.152**
	60대 이상	-0.230***	-0.226***	-0.223***	-0.221***	-0.232***	-0.228***
교육 수준 (중졸 이하=0)	고졸	-0.206***	-0.214***	-0.217***	-0.221***	-0.196***	-0.208***
	대졸 이상	-0.160*	-0.189**	-0.194**	-0.209**	-0.156*	-0.188**
세대 내 사회이동성 인식 (매우 낮다=0)	매우 높다 또는 높다		0.427***		0.371***		
	약간 낮다		0.290***		0.264***		
	모르겠다		0.031		-0.009		
세대 간 사회이동성 인식 (매우 낮다=0)	매우 높아질 것이다 또는 약간 높아질 것이다				0.358***	0.317***	
	약간 낮아질 것이다				0.220**	0.198**	
	모르겠다				0.011	-0.023	
노력에 대한 대우의 불공정성			-0.135***	-0.106***		-0.124***	
상수	2.769***	2.459***	3.190	2.825	2.500***	2.921	
N	3889	3889	3889	3889	3889	3889	
Adj R-Sq	0.0063	0.0252	0.0178	0.0319	0.0199	0.0294	

주: *p<0.05, **p<0.01,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9). ‘사회통합 상태 진단을 위한 실태조사’ 자료 분석.

제 6 장

사회통합 인식의 종합 진단

제1절 서론

제2절 사회통합 인식 결정요인의 다차원성 진단

제3절 불평등 인식과 사회통합 인식

6

사회통합 인식의 종합 진단 <<

제1절 서론

제3장부터 제5장까지는 사회통합의 구성요소별 실태를 진단하고, 각 요소들이 사회통합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였다. 이 장에서는 이들 구성요소의 사회통합 인식에 대한 종합적 영향력을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이번 조사에서 생산된 다양한 변수들을 사회적 포용, 사회적 자본, 사회이동성의 영역으로 분류하고 영역별 변수들의 사회통합 인식과의 상관관계를 밝히고, 여기서 상관성이 높은 변수들을 중심으로 사회통합 인식에 대한 영향력을 회귀모형을 통해서 규명해 보고자 한다. 또한 사회통합 정책영향평가 사업의 두 번째 회귀를 앞두고, 이론적으로나 시대적 조건상 사회통합의 중요한 요소임에도 첫 번째 회귀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지지 않았던 변수들을 탐색해 보기로 한다.

선행연구들 중에서 이와 가장 유사한 접근을 한 연구는 정해식 외(2016)로, 이 연구는 ‘한국인의 사회통합 인식 구성’ 부분에서 사회적 포용, 사회적 자본, 사회이동성, 사회갈등의 네 가지 영역에 해당하는 각 변수들이 사회통합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였다. 두 가지의 변수군을 활용하였는데, 하나는 우리 사회가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는 사회상(배려와 포용의 사회, 서로 믿고 살아가는 사회, 활력 있고 희망찬 사회, 경제적 희망·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는 사회, 서로의 의견을 경청하고 이해하려 노력하는 사회)이고 다른 하나는 앞서 제2장의 말미에서 소개한 사회통합이 잘 되기 위한 19가지 조건이다. 전자의 변수들의 사회통합 인식에 대한 영향력을 회귀모형으로 분석한 결과 포용사회 인식, 협조사회 인식, 희망사회 인식, 신뢰사회 인식의 순으로 영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정해식 외, 2016. p. 51). 사회갈등을 제외하고 세 가지의 구성요소별로 보자면 사회적 포용, 사회이동, 사회적 자본의 순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두 번째 변수군을 이용한 영향력 분석은 회귀분석, 구조모형 분석 등의 방법을 활용하였는데 여기서는 사회이동, 사회적 포용의 순으로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회적 자본과 갈등관리는 유의한 설명력을 보이지 않았다(정

해식 외, 2016. p. 54)

여기서는 사회통합의 구성요소별 변수들은 기본적으로 선행연구들이 분류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따르고, 선행연구에서는 다루지 않았던 새로운 변수들은 사회통합 인식 구조를 다룬 선행연구에서 사회통합의 조건 문항을 영역별로 분류한 기준을 참고하여 분류하였다(정해식 외, 2016, pp. 52-55). 이와 같이 분류된 영역별 문항들 중에서 사회통합 인식과 상관성이 높은 변수들을 선택하여 회귀모형을 구성하였다. 이렇게 구성된 회귀모형을 통해 사회통합의 세 가지 구성요소를 대표하는 변수들의 사회통합 인식에 미치는 영향력을 관찰함으로써 우리나라에서 사회통합 인식에 어떤 요소가 중요하게 작용하는지를 규명해 본다. 그리고 이 결과를 제2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살펴본 사회통합이 잘 되기 위한 조건의 순위와 비교하는 것을 통해 정책적 함의를 도출해 보기로 한다.

한편 빈곤과 불평등은 사회적 배제의 지표라 할 수 있다. 특히 불평등의 사회적 비용에 대해서는 많은 논리가 존재한다. 불평등이 심한 사회는 사회적 불안정성이 커짐에 따라 경제적 불확실성을 키우고 이는 결국 경제성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논리가 대표적이다. 최근에는 불평등이 유발하는 심리정서적 문제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윌킨슨과 피켓(R. Wilkinson and K. Pickett)은 최근 저서에서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불평등은 그것에 우리가 어떤 이름을 붙이든가와 상관없이 실질적인 고통을 유발한다. 불평등이 커질수록 사회적 위협과 지위 불안이 커지고 위축과 복종, 종속 본능으로 이어지는 수치심을 유발한다. 사회피라미드가 더 높고 가팔라지고 지위 불안이 증가하면 심리적 비용이 광범위하게 발생한다. 지위 경쟁과 불안이 증가하고 사람들은 상냥함과 이타심을 잃어가며 남을 폄훼하는 경향이 증가한다.”(Wilkinson & Pickett, 2019, pp. 107-108). 이것은 불평등 상태는 개인의 심리정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으로써 결국 사회통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을 함의한다. 한편 사회심리학적으로 불평등의 위협을 지적하는 최근 연구에 따르면 상대적으로 가난한 계층의 경우 “빈곤감을 느끼면 근시안이 되어 지금 당장 손에 넣을 수 있는 것을 취하고 미래를 무시”하게 될 수 있고(Payne, 2017, pp. 88-89), 상대적으로 부유한 계층의 경우는 “나는 절대로 옳고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은 어리석다고 믿는 성향”이 강해짐에 따라 갈등이 증폭될 수 있다(Payne, 2017, p. 133).

이와 같이 빈곤이나 불평등은 그 사회에 속한 구성원들의 심리정서에 영향을 미침으

로써 사회통합 상태에 영향을 준다. 즉 빈곤, 불평등은 그 자체로서 사회통합 상태의 지표이기도 하지만, 심리정서적 영향을 통해 사회통합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5년 동안의 선행연구에서 빈곤과 불평등은 사회통합의 주요 변수로 비중 있게 다루어지지 않았다. 1차 연구에서 사회적 포용을 대표하는 변수로 다루어지기는 했지만 후속 연구에서는 거의 관심을 받지 못했다. 이 연구에서 빈곤과 불평등에 관한 새로운 문항을 설문하여 변수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주요 변수들을 사회통합의 측면에서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해 본다.

제2절 사회통합 인식 결정요인의 다차원성 진단

1. 상관분석

사회통합 구성요소별(영역별) 변수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사회통합 실태조사는 매년 사회통합 구성요소를 대표하는 변수들을 생산하고 있는데 사회적 포용, 사회적 자본, 사회이동성과 관련한 인식과 실태를 나타내 주는 변수들이다. 2016년에는 사회통합 국민 인식 구성을 분석하기 위해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한 19가지 조건을 설문하였는데,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2019년 조사에서도 동일한 문항을 설문하였다. 2019년에는 ‘사회 고위층에 상응하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을 추가하여 총 20개의 문항으로 구성했다는 차이가 있다. 아래 표에서 좌측은 사회통합을 위한 조건 변수들을 구성요소별로 분류한 것이고 우측은 구성요소별 상태와 인식을 나타내는 변수들이다.

이들 변수와 사회통합 인식의 상관분석을 실시하는데, 아래 변수들이 모두 정규분포를 따르는 연속변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하는 Pearson 상관계수 대신 비모수적 방법인 Spearman 순위 상관계수를 이용해서 분석하였다.

〈표 6-1〉 사회통합 구성요소별 주요 변수

사회통합의 조건	변수명	분류	사회통합 상태, 인식	변수명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국민을 지원하는 것	Q23	사회적 포용	외로움	Q20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사회를 이루는 것	Q23_n2		포용사회	Q21_1
남성과 여성의 처우 차이를 줄이는 것	Q23_n3		주관적 빈곤	Q26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처우 차이를 줄이는 것	Q23_n4		국민으로서의 자부심	Q37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소득 차이를 줄이는 것	Q23_n5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	Q50
사회 구성원이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	Q23_n6		소득불평등 정도	Q51
사회 구성원이 서로 믿고 살아가는 것	Q23_n7	사회적 자본	사회적 신뢰	Q31
사회 구성원이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	Q23_n8		믿고 살아가는 사회	Q21_2
법 규칙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	Q23_n9		공공신뢰	trust_pub
사회 구성원 각자가 주어진 역할에 충실한 것	Q23_n10		자원봉사 활동	volunt
사회 고위층에 상응하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	Q23_n11		기부활동	dona
사회 구성원이 자기만을 생각하지 않고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것	Q23_n12		단체소속 활동	part
사회 구성원이 여러 모임 등에서 다양하게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	Q23_n13		사회 이동성	세대 간 소득탄력성
충분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	Q23_n14	세대 내 이동성		mob_intra
노력한 만큼 대가를 얻는 사회를 만드는 것	Q23_n15	세대 간 이동성		mob_inter
중산층이 두꺼운 사회를 만드는 것	Q23_n16	희망사회		Q21_4
일자리를 가질 기회가 많은 사회를 만드는 것	Q23_n17			

주: 사회통합의 조건 변수는 4점 척도(별로 중요하지 않다 0~매우 중요하다 4)

사회통합 상태와 사회통합 구성요소의 영역(사회적 포용, 사회적 자본, 사회이동성) 각각을 대표하는 지표들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영역별 지표는 사회통합 관련 인식이나 상태를 대표하는 변수군과 사회통합이 잘 되기 위한 조건을 대표하는 변수군으로 구분한다.

먼저 사회적 포용 영역에서 인식이나 상태를 대표하는 변수들로는 외로움, 포용사회에 대한 인식, 주관적 빈곤감, 국민으로서의 자부심,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 소득불평등 인식을 선택했다. 이들의 사회통합 인식과의 상관관계는 아래 표와 같다. 사회통합 인식과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는 변수로는 포용사회에 대한 인식(0.5444)이고, 그다음으로는 국민으로서의 자부심(0.1753), 외로움(0.1460), 소득불평등 인식(-0.1317), 주관적 빈곤감(0.1234),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0.1018)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6-2〉 사회통합 인식과 사회적 포용 지표(인식과 상태) 간 상관관계

구분	사회통합	외로움	포용사회	주관적 빈곤	국민자부심	여성지위	소득불평등
사회통합	1						
외로움	0.1460*	1					
포용사회	0.5444*	0.1458*	1				
주관적 빈곤	0.1234*	0.3693*	0.1430*	1			
국민자부심	0.1753*	0.1271*	0.1514*	0.0995*	1		
여성지위	0.1018*	0.0957*	0.1263*	0.0858*	0.0885*	1	
소득불평등	-0.1317*	-0.0364*	-0.1333*	-0.0383*	-0.0394*	0.0981*	1

주: 5% 이내 신뢰구간에서의 Spearman 검정.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9). '사회통합 상태 진단을 위한 실태조사' 자료 분석.

사회적 포용 영역 중에서 사회통합의 조건에 해당하는 변수들과 사회통합 인식 간의 상관관계는 아래 표와 같다. 여기서는 '남성과 여성의 처우 차이를 줄이는 것'과는 정(+)의 유의한 상관관계가 확인되고, 나머지 변수들에 대해서는 부(-)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가장 상관관계가 강한 조건은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사회를 이루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정(+)의 상관관계를 보인다.

〈표 6-3〉 사회통합 인식과 사회적 포용 지표(조건) 간 상관관계

구분	사회통합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민 지원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사회	남녀 간 차이 줄이는 것	정규직-비정규직 차이 줄이는 것	소득격차 줄이는 것	문화적 다양성 인정하는 것
사회통합	1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민 지원	-0.0394*	1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사회	-0.0479*	0.4515*	1				
남녀 간 차이 줄이는 것	0.0173*	0.3181*	0.3620*	1			
정규직-비정규직 차이 줄이는 것	-0.0181*	0.3680*	0.2694*	0.4515*	1		
소득격차 줄이는 것	-0.0121*	0.3835*	0.3264*	0.2712*	0.4486*	1	
문화적 다양성 인정하는 것	0.0214*	0.3125*	0.2546*	0.3534*	0.2560*	0.3297*	1

주: 5% 이내 신뢰구간에서의 Spearman 검정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9). '사회통합 상태 진단을 위한 실태조사' 자료 분석.

사회적 자본 영역에서 인식이나 상태를 대표하는 변수들로는 사회적 신뢰 정도, 서로 믿고 살아가는 사회에 대한 인식, 공공 신뢰(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경찰과 검찰에

대한 신뢰의 합)7), 자원봉사 빈도, 기부 빈도, 단체소속 활동(정당, 시민운동단체, 노조/사업자단체/직업조합, 종교단체, 문화단체, 동창모임, 향우회, 친목단체, 기타 오프라인 모임이나 단체, 온라인 모임 등 10개 단체활동의 합산)8)을 꼽았다.

먼저 이들 지표의 사회통합 인식 간 상관관계는 다음 표와 같다. 모든 변수 중에서 기부활동만 부(-)의 상관관계를 보일 뿐 나머지는 정(+)의 상관관계를 보인다. 가장 강한 상관관계를 보이는 변수는 우리 사회에 대한 평가 중 ‘서로 믿고 살아가는 사회’로 확인된다. 다음으로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 믿을 수 있는 사회라고 생각하십니까?’와 비슷한 수준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인다. 사회참여와 관련한 변수들에서는 유의할 만한 상관성을 확인하기 어렵다.

〈표 6-4〉 사회통합 인식과 사회적 자본 지표(인식과 실태) 간 상관관계

구분	사회통합	사회적 신뢰	믿고 살아가는 사회	공공신뢰	자원봉사 활동	기부활동	단체소속 활동
사회통합	1						
사회적 신뢰	0.5013*	1					
믿고 살아가는 사회	0.5412*	0.4339*	1				
공공신뢰	0.2434*	0.3473*	0.2306*	1			
자원봉사 활동	-0.0020	0.0211*	0.0470*	0.0710*	1		
기부활동	-0.0079	0.0242*	0.0326*	0.0461*	0.5111*	1	
단체소속 활동	0.0023	0.0532*	0.0470*	-0.004	0.2335*	0.2448*	1

주: 5% 이내 신뢰구간에서의 Spearman 검정 결과.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9). ‘사회통합 상태 진단을 위한 실태조사’ 자료 분석.

사회통합을 위한 조건들 중 사회적 자본과 관련되는 변수들과의 상관관계는 아래 표와 같다. 모든 변수가 사회통합 인식과는 부(-)의 상관관계를 가지는데, 이는 해당 조건을 중요하게 인식할수록 사회통합 수준을 낮게 인식하거나 사회통합 수준이 낮다고 인식할수록 이 조건을 중요하게 인식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 중 상관관계가 가장 강한 것은 ‘사회 구성원이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것’으로 확인된다.

7) 거의 신뢰하지 않는다 0점, 다소 신뢰한다 1점, 매우 신뢰한다 2점으로 코드 변환하여 4개 문항에 대한 응답 결과를 합산함.
 8) 소속된 적이 없다 0점, 소속되어 있지만 활동은 하지 않는다 1점, 소속되어서 가끔 활동한다 2점, 소속되어서 적극적으로 활동한다 3점으로 코드 변환하여 10개 문항에 대한 응답 결과를 합산함.

〈표 6-5〉 사회통합 인식과 사회적 자본 지표(조건) 간 상관관계

구분	사회통합	서로 믿고 살아가는 것	투표에 적극 참여하는 것	법 규칙 엄격 적용하는 것	각자 주어진 역할에 충실한 것	고위층이 사회적 책임 다하는 것	서로도우며 살아가는 것	다양하게 관계 맺으며 사는 것
사회통합	1							
서로 믿고 살아가는 것	-0.0465*	1						
투표에 적극 참여하는 것	-0.0398*	0.4222*	1					
법 규칙 엄격 적용하는 것	-0.0512*	0.3058*	0.4224*	1				
각자 주어진 역할에 충실한 것	-0.0637*	0.3944*	0.3006*	0.4284*	1			
고위층이 사회적 책임 다하는 것	-0.0533*	0.3759*	0.3332*	0.2800*	0.4551*	1		
서로도우며 살아가는 것	-0.0660*	0.4587*	0.3532*	0.2744*	0.3915*	0.4696*	1	
다양하게 관계 맺으며 사는 것	-0.0286*	0.3437*	0.3417*	0.2479*	0.3056*	0.2990*	0.4726*	1

주: 5% 이내 신뢰구간에서의 Spearman 검정 결과.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9). '사회통합 상태 진단을 위한 실태조사' 자료 분석.

사회이동성 영역에서 인식이나 실태를 나타내는 변수로는 세대 간 소득탄력성에 대한 인식, 세대 내 이동성 전망, 세대 간 이동성 전망, 경제적 희망과 미래 희망이 있는 사회에 대한 동의 정도를 선택했다. 이들의 사회통합과의 상관관계는 아래 표와 같다.

가장 강한 정(+)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변수는 '경제적 희망,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는 사회'로 확인된다. 세대 간 소득탄력성이나 세대 내 이동성, 세대 간 이동성에 대한 전망은 그리 강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표 6-6〉 사회통합 인식과 사회이동성 지표(인식과 실태) 간 상관관계

구분	사회통합 인식	세대 간 소득탄력성	세대 내 이동성	세대 간 이동성	희망사회
사회통합 인식	1				
세대 간 소득탄력성	-0.0787*	1			
세대 내 이동성	0.0994*	-0.0267*	1		
세대 간 이동성	0.0321*	0.0316*	0.3493*	1	
희망사회	0.5891*	-0.0791*	0.1177*	0.0560*	1

주: 5% 이내 신뢰구간에서의 Spearman 검정 결과.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9). '사회통합 상태 진단을 위한 실태조사' 자료 분석.

사회통합을 위한 조건 중 사회이동성과 관련되는 변수들과의 상관관계는 아래 표와 같다. 가장 강한 상관관계를 가지는 변수는 ‘노력한 만큼 대가를 얻는 사회를 만드는 것’으로 정(+)의 상관관계를 갖는다. 다음으로 ‘일자리를 가질 기회가 많은 사회를 만드는 것’과 ‘중산층이 두꺼운 사회를 만드는 것’의 순으로 확인된다.

〈표 6-7〉 사회통합 인식과 사회이동성 지표(조건) 간 상관관계

구분	사회통합	충부한 교육기회 제공	노력한 만큼 대가 얻는 사회	중산층이 두꺼운 사회	일자리 가질 기회가 많은 사회
사회통합	1				
충부한 교육기회 제공	0.0089	1			
노력한 만큼 대가 얻는 사회	-0.0561*	0.4583*	1		
중산층이 두꺼운 사회	-0.0337*	0.3205*	0.4013*	1	
일자리 가질 기회가 많은 사회	-0.0510*	0.3858*	0.4346*	0.3865*	1

주: 5% 이내 신뢰구간에서의 Spearman 검정 결과.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9). ‘사회통합 상태 진단을 위한 실태조사’ 자료 분석.

2. 회귀분석

가. 사회통합 인식 결정요인

여기서는 사회통합 인식의 결정요인을 회귀모형을 통해 살펴보기로 한다. 모형에는 사회통합의 세 구성요소별로 사회통합 인식과의 상관관계가 가장 큰 변수들을 하나씩 포함시켰고, 설명변수의 성격에 따라 인식과 실태를 보여 주는 변수를 포함한 모형과 사회통합의 조건을 보여 주는 변수를 포함한 모형으로 구분해서 분석한다. 그리고 시기별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2016년과 2019년 두 개 연도의 자료를 이용해서 분석한다. 성, 연령, 학력 수준, 소득 수준을 통제하기 위하여 이들 변수를 모형에 포함시켰다.

이 연구에서 사회통합의 주요 구성요소로 선정한 사회적 포용, 사회적 자본, 사회이동성의 사회통합 인식에 미치는 영향력의 상대적 크기를 파악하기 위하여 제약된 모형을 통한 회귀분석을 병행하여 실시한다. 이를 위하여 제약하 선형 회귀모형(constrained linear regression model) 또는 제한조건부 최소자승 추정법(restricted least squares)을 활용한다. 이 추정 방법은 특정 회귀계수에 대한 사전적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경우 이를 모형에 반영함으로써 여타 회귀계수 추정에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활용된다(이종원, 2007, pp. 460-461). 다만 여기서는 여타 회귀계수 추정의 정확도를 높이는 것과 더불어 특정 회귀계수들의 값에 대한 제약을 가함으로써 이들 값 간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활용된다. 즉, 사회통합의 세 가지 구성요소를 대표하는 변수들의 회귀계수 값의 합이 1이 되도록 제약을 가해 세 가지 구성요소의 사회통합에 대한 영향력의 상대적 크기를 파악하고자 한다.

먼저 2016년의 경우는 아래 표에서 보듯이 사회통합의 세 요소 중 사회통합 인식에 미치는 영향은 사회적 포용, 사회적 자본, 사회이동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아래의 2019년에 비해 사회이동성 인식의 영향은 크게 낮아진 것으로 확인된다. 2019년과 마찬가지로 여성의 사회통합 인식 수준이 남성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으며, 청년층에 비해 중고령층이 사회통합 상태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학력별로는 중졸 이하 저학력자보다 고졸 학력자와 대졸 이상의 고학력자가 보다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소득도 유의한 양의 회귀계수 값을 가짐으로써 소득 수준이 높아질수록 사회통합 상태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약하 회귀모형 분석 결과를 보면 사회적 포용이 42.2%, 사회적 자본이 26.0%, 사회이동성이 31.9%의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8〉 사회통합 구성요소별 인식변수의 사회통합 인식 영향(2016년)

구분		제약 없는 회귀모형	제약하 회귀모형 ($\beta_1 + \beta_2 + \beta_3 = 1$)
사회적 포용	포용사회 인식 정도	0.2595***	0.4217***
사회적 자본	믿고 살아가는 사회 인식 정도	0.1178***	0.2597***
사회이동성	경제적, 미래 희망 인식 정도	0.1934***	0.3186***
성별 (남성=0)	여성	0.1284*	0.0863
연령층 (청년=0)	중고령	-0.1411*	-0.2536***
	노인	-0.0139	-0.2486*
학력 (중졸 이하=0)	고졸	0.2176*	0.2318*
	대졸 이상	0.2424*	0.3346***
로그총소득		0.1225**	0.0524**
상수		1.1494***	-
N		3,645	
adjusted-R ²		0.2194	

주: * p<0.05, ** p<0.01, ***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9). '사회통합 상태 진단을 위한 실태조사' 자료 분석.

한편 2019년 기준 사회통합 구성요소별 인식변수의 사회통합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2019년 사회통합 인식의 결정요인 중 가장 큰 설명력을 보이는 요소는 사회이동성(‘경제적 희망, 미래 희망이 있는 사회’ 동의 정도)이고, 다음으로 사회적 포용(‘배려와 포용이 있는 사회’ 동의 정도)과 사회적 자본(‘서로 믿고 살아가는 사회’ 동의 정도)의 순으로 나타났다. 남성에 비해 여성의 사회통합 인식이 유의한 수준으로 높으며, 학력별로는 고졸 학력자가 중졸 이하 학력자보다 사회통합을 보다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대졸 이상의 고학력자는 고졸 학력자만큼은 아니지만 중졸 이하 저학력자보다 사회통합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와 소득 수준은 사회통합 인식에 유의할 만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세 가지 요소의 상대적 크기를 확인하기 위해 제약하 회귀모형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사회적 포용은 35.4%, 사회적 자본은 20.1% 그리고 사회이동성은 44.5%의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9〉 사회통합 구성요소별 인식변수의 사회통합 인식 영향(2019년)

구분		제약 없는 회귀모형	제약하 회귀모형 ($\beta_1 + \beta_2 + \beta_3 = 1$)
사회적 포용	포용사회 인식 정도	0.2352***	0.3543***
사회적 자본	믿고 살아가는 사회 인식 정도	0.0966***	0.2008***
사회이동성	경제적, 미래 희망 인식 정도	0.3276***	0.4449***
성별 (남성=0)	여성	0.1142**	0.1237**
연령층 (청년=0)	중고령	-0.0302	0.0270
	노인	-0.1315	-0.0211
학력 (중졸 이하=0)	고졸	-0.2028**	-0.1003
	대졸 이상	-0.1805*	-0.1020
로그총소득		0.0362	0.0155
상수		1.5375***	-
N		3,889	3,889
adjusted-R ²		0.4324	

주: * p<0.05, ** p<0.01, ***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9). ‘사회통합 상태 진단을 위한 실태조사’ 자료 분석.

사회통합을 위한 조건 변수군을 이용해서 사회통합 인식 구성요소별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2016년 제약 없는 회귀모형 분석 결과에 따르면 사회적 포용을 대표하는 사회통합 조건 변수는 사회통합 인식에 유의할 만한 긍정적인 영향을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며, 사회이동성은 유의할 만한 부정적인 영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자본은 유의할 만한 설명력을 갖지 않는다. 경제적 풍요를 사회통합의 조건으로 인식하는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회통합 수준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반면 노력에 맞는 대가를 얻는 사회를 사회통합 조건으로 인식하는 사람들은 사회통합 수준을 부정적으로 인식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다만 그 영향력은 후자가 더 크다. 역시 여성이 남성보다 사회통합 수준을 높게 평가하고 있으며, 연령과 학력은 유의할 만한 설명력을 가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사회통합을 긍정적으로 인식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같은 해 제약하 회귀모형 분석 결과를 보면 사회적 포용은 49.0%, 사회적 자본은 28.8%, 사회이동성은 22.2%의 영향력을 각각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10〉 사회통합 구성요소별 조건변수의 사회통합 인식 영향(2016년)

구분		제약 없는 회귀모형	제약하 회귀모형 ($\beta_1 + \beta_2 + \beta_3 = 1$)
사회적 포용	경제적 풍요	0.1311***	0.4901***
사회적 자본	서로 돕고 사는 것	-0.0303	0.2878***
사회이동성	노력에 맞는 대가	-0.3416***	0.2220***
성별 (남성=0)	여성	0.1917**	0.1227
연령층 (청년=0)	중고령	-0.0236	-0.0766
	노인	0.2277	0.0187
학력 (중졸 이하=0)	고졸	0.1924	0.2209*
	대졸 이상	0.1420	0.1855
로그총소득		0.1609**	-0.0229
상수		4.0995***	-
N		3,889	
adjusted-R ²		0.0255	

주: * p<0.05, ** p<0.01, ***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9). '사회통합 상태 진단을 위한 실태조사' 자료 분석.

2019년 제약 없는 회귀모형 분석 결과에 따르면 사회적 포용('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사회를 만드는 것')이 유의할 만한 수준에서 가장 큰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음으로는 사회적 자본('사회 구성원이 자기만을 생각하지 않고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것')도 유의할 만한 수준에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이동성('노력한 만큼 대가를 얻는 사회를 만드는 것')은 유의할 만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것으로 확인된다. 위의 모형에서 설명변수들의 회귀계수 값이 양의 값으로 나온 것과 달리 여기서는 음의 값으로 나온 것은 각각의 사회통합을 위한 조건을 강하게 지지할 수록 그와 관련된 사회통합의 상태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따라서 사회통합 조건의 관점에서 볼 경우 사회적 포용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사회적 자본을 강조하는 사람들보다 사회통합 수준을 낮게 인식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여성의 경우 남성보다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중졸 이하 저학력자보다 고졸 학력자와 대졸 이상 고학력자가 사회통합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연령층과 소득은 유의할 만한 영향력을 보이지 않는다.

한편 제약하 회귀모형 분석 결과에 따르면 사회적 포용은 21.8%, 사회적 자본은 20.3%, 사회이동성은 41.1%의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11〉 사회통합 구성요소별 조건변수의 사회통합 인식 영향(2019년)

구분		제약 없는 회귀모형	제약하 회귀모형 ($\beta_1 + \beta_2 + \beta_3 = 1$)
사회적 포용	경제적 풍요	-0.1210**	0.2181***
사회적 자본	서로 돕고 사는 것	-0.1072*	0.2025***
사회이동성	노력에 맞는 대가	-0.0285	0.4105***
성별 (남성=0)	여성	0.1350*	0.2975***
연령층 (청년=0)	중고령	-0.0728	0.2854***
	노인	-0.1780	0.8352***
학력 (중졸 이하=0)	고졸	-0.2720**	0.6104***
	대졸 이상	-0.1827*	0.6863***
로그총소득		0.1201	0.2916***
상수		5.0694***	-
N		3,889	3,889
adjusted-R ²		0.4324	

주: * p<0.05, ** p<0.01, ***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9). '사회통합 상태 진단을 위한 실태조사' 자료 분석.

제약하 회귀모형 분석 결과 확인된 세 가지 구성요소별 사회통합 인식에 대한 영향력의 크기를 연도별로 비교해 보면 아래 표와 같다. 먼저 사회통합 상태와 인식변수를 활용한 결과를 보면 2016년에는 사회적 포용(42.2%), 사회이동성(31.9%), 사회적 자본(26.0%)의 순이었는데 2019년에는 사회이동성(44.5%), 사회적 포용(35.4%), 사회적 자본(20.1%)의 순으로 순서가 바뀐다. 2016년에는 사회적 포용이 사회통합 인식의

가장 중요한 결정요인이었다가 2019년에는 사회이동성이 가장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바뀐 것이다.

사회통합을 위한 조건의 관점에서 비교해 보면 2016년에는 사회적 포용(49.0%), 사회적 자본(28.8%), 사회이동성(22.2%)의 순이었는데 2019년에는 사회이동성(41.0%), 사회적 포용(21.8%), 사회적 자본(20.2%)의 순으로 순서가 바뀐다. 상태, 인식변수와 마찬가지로 사회통합 인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2016년에는 사회적 포용이었는데 2019년에는 사회이동성으로 바뀌었다.

〈표 6-12〉 사회통합 구성요소별 사회통합 인식 영향력 비교

(단위: %)

구분	사회통합 상태, 인식		사회통합 조건	
	2016	2019	2016	2019
사회적 포용	42.2	35.4	49.0	21.8
사회적 자본	26.0	20.1	28.8	20.2
사회이동성	31.9	44.5	22.2	41.0
계	100.0	100.0	100.0	100.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9). '사회통합 상태 진단을 위한 실태조사' 자료 분석.

나. 사회통합 인식 결정요인의 성별 차이

사회통합 인식 결정요인을 성별로 구분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2016년의 제약 없는 회귀모형에서는 남녀 공히 세 가지 구성요소가 유의한 양(+)의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남성의 경우 사회적 자본이 사회통합 인식에 미치는 영향력의 통계적 유의성이 조금 낮은 특징이 있다. 남성의 경우는 중고령자가 청년에 비해 사회통합 정도를 낮게 인식하고, 중졸자보다 고졸자가 보다 높게 인식하며,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높게 인식하는 특성을 보인다. 반면 여성의 경우는 연령과 소득 수준은 유의할 만한 영향력을 가지지 않고 대졸 이상 고학력자가 중졸 이하 저학력자보다 높게 인식하는 정도의 차이를 볼 수 있다.

제약하 회귀모형 분석 결과를 통해 세 가지 구성요소의 상대적 크기를 비교해 보면 남녀 공히 사회적 포용, 사회이동성, 사회적 자본의 순으로 큰 영향력을 가지는데, 남

성의 경우 사회적 포용과 사회적 자본의 영향력이 여성보다 크게 나타나고, 여성은 사회이동성이 더 큰 영향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13〉 사회통합 구성요소별 인식변수의 사회통합 인식 영향: 성별 차이(2016년)

구분		제약 없는 회귀모형		제약하 회귀모형 ($\beta_1 + \beta_2 + \beta_3 = 1$)	
		남성	여성	남성	여성
사회적 포용	포용사회 인식 정도	0.2756***	0.2447***	0.4363***	0.4063***
사회적 자본	믿고 살아가는 사회 인식 정도	0.1046**	0.1243***	0.2649***	0.2490***
사회이동성	경제적, 미래 희망 인식 정도	0.1578***	0.2312***	0.2987***	0.3447***
연령층 (청년=0)	중고령	-0.2325**	-0.0063	-0.3066**	-0.1541
	노인	0.0137	0.0076	-0.2642	-0.1919
학력 (중졸 이하=0)	고졸	0.3105*	0.1436	0.3371*	0.1294
	대졸 이상	0.2500	0.3014*	0.3177*	0.3942**
로그총소득		0.1885**	0.0752	0.0509	0.0588*
상수		0.8914*	1.3574***	-	-
N		1,802	1,843		
adjusted-R ²		0.1934	0.2471		

주: * p<0.05, ** p<0.01, ***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9). '사회통합 상태 진단을 위한 실태조사' 자료 분석.

2019년의 경우 제약 없는 회귀모형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16년과 마찬가지로 남녀 공히 세 가지 구성요소가 양(+)의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2016년과 마찬가지로 남성의 경우 사회적 자본이 사회통합 인식에 미치는 영향력의 통계적 유의성이 조금 낮은 특징이 있다. 남성의 경우 중졸 이하 저학력자보다 고졸자 또는 대학 이상 고학력자가 사회통합 수준을 낮게 인식하는 것으로, 여성의 경우는 고졸자가 보다 낮게 인식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그 밖의 인구사회학적 변수는 유의한 영향력을 보이지 않는다.

제약하 회귀모형 분석 결과에 따르면 남녀 공히 사회이동성, 사회적 포용, 사회적 자본의 순으로 사회통합 인식에 강한 영향력을 보이고 있다. 남성은 사회적 포용이, 여성은 사회적 자본과 사회이동성이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된다. 한 가지 더 특징적인 것은 여성의 경우 세 가지 구성요소의 설명력 간 편차가 그리 크지 않은 편인데 반해 남성의 경우 사회적 자본의 설명력이 다른 두 요소에 비해 현저히 낮다는 것이다.

〈표 6-14〉 사회통합 구성요소별 인식변수의 사회통합 인식 영향: 성별 차이(2019년)

구분		제약 없는 회귀모형		제약하 회귀모형 ($\beta_1 + \beta_2 + \beta_3 = 1$)	
		남성	여성	남성	여성
사회적 포용	포용사회 인식 정도	0.2760***	0.1954***	0.3886***	0.3228***
사회적 자본	믿고 살아가는 사회 인식 정도	0.0852**	0.1016***	0.1702***	0.2281***
사회이동성	경제적, 미래 희망 인식 정도	0.3261***	0.3314***	0.4412***	0.4491***
연령층 (청년=0)	중고령	0.0279	-0.0853	0.1160	-0.0080
	노인	-0.0193	-0.2590	0.0982	-0.0084
학력 (중졸 이하=0)	고졸	-0.2200*	-0.2221*	-0.1427	0.0134
	대졸 이상	-0.2388*	-0.1724	-0.2236*	0.0890
로그총소득		0.0381	0.0319	0.0228	0.0203
상수		1.4010***	1.8456***	-	-
N		1,969	1,920		
adjusted-R ²		0.4647	0.3945		

주: * p<0.05, ** p<0.01, ***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9). '사회통합 상태 진단을 위한 실태조사' 자료 분석.

2016년 사회통합 조건 변수를 사용한 제약 없는 회귀모형 분석 결과에 따르면 남성의 경우 사회이동성에 포함되는 사회통합 조건이 부(-)의 영향력을 보이는 것을 제외하면 나머지 변수들은 유의한 영향력을 보이지 않는다. 이는 노력에 맞는 대가를 얻는 것을 사회통합의 조건으로 인식할수록 현재의 사회통합 수준을 부정적으로 인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고령자가 청년보다 사회통합 정도를 낮게 인식하고,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여성은 사회적 포용이 정(+)의 영향력을, 사회이동성이 부(-)의 영향력을 가지며 나머지 인구사회학적 변인들은 설명력을 갖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

제약하 회귀모형 분석 결과에 따르면 남녀 공히 사회적 포용, 사회적 자본, 사회이동성의 순으로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며 남성이 여성보다 사회적 자본과 사회이동성의 영향력이 크고, 반대로 여성은 남성보다 사회적 포용의 영향력이 큰 것으로 확인된다.

〈표 6-15〉 사회통합 구성요소별 조건변수의 사회통합 인식 영향: 성별 차이(2016년)

구분		제약 없는 회귀모형		제약하 회귀모형 ($\beta_1 + \beta_2 + \beta_3 = 1$)	
		남성	여성	남성	여성
사회적 포용	경제적 풍요	0.0892	0.1729**	0.4519***	0.5307***
사회적 자본	서로 돕고 사는 것	0.0188	-0.0797	0.3164***	0.2542***
사회이동성	노력에 맞는 대가	-0.2935***	-0.3930***	0.2317***	0.2151**
연령층 (청년=0)	중고령	-0.1893*	0.1788	-0.2844**	0.1904
	노인	0.2393	0.2490	-0.0599	0.1881
학력(중졸 이하=0)	고졸	0.2480	0.1461	0.1700	0.2627
	대졸 이상	0.1776	0.1602	0.0797	0.3460*
로그총소득		0.2200**	0.1150	0.0080	-0.0450
상수		3.5685***	4.6967***	-	-
N		1,802	1,843		
adjusted-R ²		0.0212	0.0309		

주: * p<0.05, ** p<0.01, ***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9). '사회통합 상태 진단을 위한 실태조사' 자료 분석.

2019년 사회통합 조건 변수를 사용한 제약 없는 회귀모형 분석 결과에 따르면 남성의 경우 사회적 포용이 부(-)의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즉 경제적 풍요를 사회통합의 조건으로 인식할수록 현재의 사회통합 수준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그 외에는 사회통합 인식에 유의한 설명력을 가지는 변수는 없다. 여성의 경우는 사회적 자본이 부(-)의 영향력을 가지는데 이는 서로 돕고 사는 것을 사회통합의 조건으로 인식할수록 현재의 사회통합 수준을 부정적으로 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학력별로는 중졸 이하의 저학력자가 고졸이나 대졸 이상 학력자보다 사회통합 수준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제약하 회귀모형 분석 결과에 따르면 남성의 경우는 사회이동성, 사회적 자본, 사회적 포용의 순으로 큰 영향력을 가지는 반면 여성은 사회이동성, 사회적 포용, 사회적 자본의 순으로 나타난다. 여타 모형들과 유사하게 남녀 공히 사회이동성이 중요한 변인인 가운데 남성은 사회적 자본을, 여성은 사회적 포용을 사회통합의 중요한 요소로 꼽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6-16〉 사회통합 구성요소별 조건변수의 사회통합 인식 영향: 성별 차이(2019년)

구분		제약 없는 회귀모형		제약하 회귀모형 ($\beta_1 + \beta_2 + \beta_3 = 1$)	
		남성	여성	남성	여성
사회적 포용	경제적 풍요	-0.2235***	-0.0114	0.1488*	0.4039***
사회적 자본	서로 돕고 사는 것	0.0183	-0.2293***	0.4101***	0.1419*
사회이동성	노력에 맞는 대가	-0.0653	0.0045	0.4410***	0.4542***
연령층 (청년=0)	중고령	-0.0818	-0.0741	0.0967	0.2785**
	노인	-0.0820	-0.3134	0.4355**	0.6555***
학력(중졸 이하=0)	고졸	-0.2254	-0.3573*	0.3428**	0.3427**
	대졸 이상	-0.0986	-0.3153*	0.4373***	0.3907**
로그총소득		0.1560	0.1064	0.2335**	0.2312*
상수		5.0226***	5.2501***	-	-
N		1,969	1,920		
adjusted-R ²		0.0089	0.0082		

주: * p<0.05, ** p<0.01, ***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9). '사회통합 상태 진단을 위한 실태조사' 자료 분석.

이상과 같이 제약하 회귀모형 분석 결과 확인된 세 가지 구성요소별 사회통합 인식에 대한 영향력의 크기를 성별로 비교해 보면 아래 표와 같다. 먼저 사회통합 상태와 인식변수를 통해 살펴본 영향력은 2016년 남성은 사회적 포용(43.6%), 사회이동성(29.9%), 사회적 자본(26.5%)의 순이고, 여성도 순서는 같지만 남성에 비해 사회적 포용의 비율이 조금 낮은 대신에 사회이동성의 비율이 더 높은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2019년의 경우 남성은 사회이동성(44.1%), 사회적 포용(38.9%), 사회적 자본(17.0%)의 순이고, 여성도 순서는 같지만 남성에 비해 사회적 포용의 비율은 조금 낮은 반면 사회적 자본의 비율이 더 높은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2016년에 비해 2019년은 남녀 공히 사회이동성의 비율이 더욱 높아졌지만, 이 비율은 여성보다 남성에서 더 큰 폭으로 확대되었다.

사회통합을 위한 조건의 관점에서 비교해 보면 2016년에 남성은 사회적 포용(45.2%), 사회적 자본(31.6%), 사회이동성(23.2%)의 순으로 나타났고, 여성도 순서는 남성과 같지만 남성보다 사회적 포용 비율은 높고 사회적 자본과 사회이동성 비율은 낮은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2019년의 경우 남성은 사회이동성(44.1%), 사회적 자본(41.1%), 사회적 포용(14.9%)의 순으로 사회이동성과 사회적 자본의 비율이 비슷하게 나타난다. 여성은 사회이동성(45.4%), 사회적 포용(40.4%), 사회적 자본(14.2%)의 순

으로 나타나 남성보다 사회적 포용의 비율이 월등히 크고, 사회적 자본의 비율이 크게 낮은 특징을 보인다.

〈표 6-17〉 사회통합 구성요소별 사회통합 인식 영향력 비교: 성별 차이

(단위: %)

구분	사회통합 상태, 인식				사회통합 조건			
	2016		2019		2016		2019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사회적 포용	43.6	40.6	38.9	32.3	45.2	53.1	14.9	40.4
사회적 자본	26.5	24.9	17.0	22.8	31.6	25.4	41.1	14.2
사회 이동성	29.9	34.5	44.1	44.9	23.2	21.5	44.1	45.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9). '사회통합 실태 진단을 위한 실태조사' 자료 분석.

제3절 불평등 인식과 사회통합 인식

앞서 제1장에서 이 연구에서 활용하기 위해 새롭게 추가한 변수를 소개하였다(〈표 1-6〉). 사회적 포용에 해당될 변수로 사회시설 이용 실태·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다문화 수용성·다문화 수용 방식을, 사회적 자본에 해당될 변수로 사회참여(SNS, 탄원서 및 청원서 작성, 집회 및 시회 참가), 사회이동성에 해당될 변수로 세대 간 소득탄력성을 포함하였다. 그밖에 불평등과 관련한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이와 관련한 문항들을 추가하였다. 문항별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아래 표를 참조할 수 있다.

〈표 6-18〉 2019년 추가 문항(상세)

구분	문항	척도
사회적 포용	사회시설 이용 여부(문화, 교육, 의료, 안전, 생활편의, 대중교통 각각)	불편함 없이 이용 1, 불편하지만 이용 2, 불편해서 이용 안 함 3, 필요하지 않아 이용 안 함 4, 여유가 없어 이용 안 함 5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 수준	매우 낮다 0~매우 높다 10
	이민자(외국인 노동자, 결혼이민자), 북한이탈주민, 성소수자가 이웃이 되는 것에 대한 생각	좋음 1, 그저 그러함 2, 안 좋음 3
	고유의 문화, 관습 유지하면서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것이 바람직	버리고 한국 문화, 관습 수용해야 0~유지하면서 한국 사회에 적응 10
사회적 자본	사회참여(SNS, 탄원서 및 청원서, 집회 및 시위)	있다 1, 없다 2

구분	문항	척도
사회 이동성	자녀 세대의 소득이 부모 세대의 소득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	전혀 영향 받지 않음 0~완전히 영향 받음 10
불평등	최근 한 달 동안 얼마나 자주 외로움을 느꼈는지	항상 1, 자주 2, 가끔 3, 전혀 4
	1년 동안 가난하다고 느낀 적이 있나	항상 1, 가끔 2, 전혀 3
	내가 가난하다고 느끼며 살았던 기간	항상 1, 삶의 대부분 2, 삶의 일부 3, 짧게 4, 전혀 5
	가난하게 살았다고 생각한 시기	아동청소년 1, 청년 2, 중장년 3, 노년 4
	소득불평등 상태	완전 평등 0~완전 불평등 10
	우리나라 소득분배 상태	4배, 4~5배, 5~6배, 6~7배, 7배 이상
	살고 싶은 소득분배 상태의 나라	4배, 4~5배, 5~6배, 6~7배, 7배 이상

이 절에서는 상기 변수들 중 소득불평등 상태에 대한 인식 변수를 중심으로 사회통합 요소와 관련된 다양한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와 소득분배 상황별 인식과 태도(선호)를 살펴보고 그 함의를 제시하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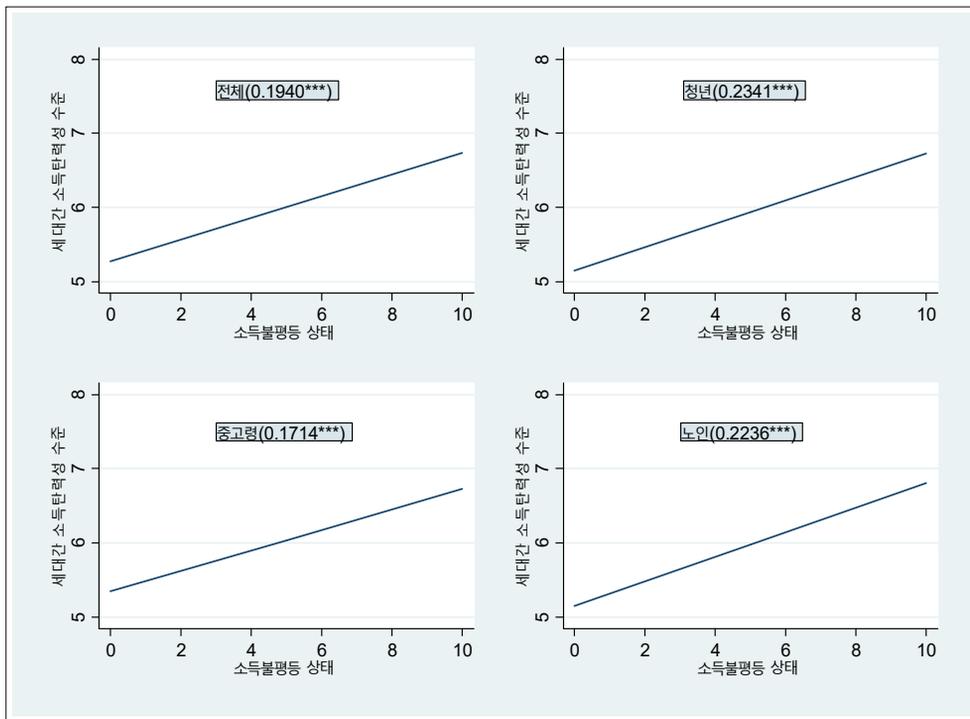
1. 소득불평등 상태에 대한 인식

이들 새로운 변수 중에서 소득불평등에 대한 인식과의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변수들을 선택해서 양자 간 상관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소득불평등 상태에 대한 인식과 자녀 세대의 소득이 부모 세대의 소득에 영향을 받는 정도에 대한 인식(세대 간 소득탄력성 인식) 간의 상관관계는 아래 그림과 같이 나타난다. 전체적으로 소득불평등에 대한 인식과 세대 간 소득탄력성 인식 간에는 정(+)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마일즈 코락이 소득불평등도와 세대 간 소득탄력성으로 표현되는 세대 간 계층이동성 간의 관계를 그린 ‘위대한 개츠비 곡선’이 보여 주는 것과 같은 결과이다(Corak, 2013, p. 82). 코락은 위대한 개츠비 곡선을 통해 소득불평등이 심한 나라는 세대 간 소득탄력성이 크다(사회이동성이 약하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후자는 미국, 영국, 핀란드, 스웨덴 등 OECD 13개국의 1985년도 가처분소득 지니계수(가로축)와 아버지의 소득에 대한 아들의 소득탄력성(세로축) 실측치를 이용하여 그린 그림이고, 아래 그림은 실측치가 아닌 우리나라 국민들의 인식 차원을 그린 그림이다. 실측치를 통해 확인된 양자 간의 관계를 인식의 측면에서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와 같은 관계를 연령대를 나누어 살펴보면, 우선 모든 연령대에서 정(+)의 상관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데, 기울기(상관계수의 크기)는 세대별로 차이를 보인다. 가장 강한 상관관계를 보이는 연령계층은 노인 세대(65~75세)이고, 중고령 세대(35~64세)에서 가장 약한 상관관계를 보인다. 청년 세대(19~34세)는 전체 평균을 약간 상회하지만 노인보다는 약한 상관관계를 보인다.

[그림 6-1] 소득불평등 상태에 대한 인식과 세대 간 소득탄력성 인식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9). '사회통합 상태 진단을 위한 실태조사' 자료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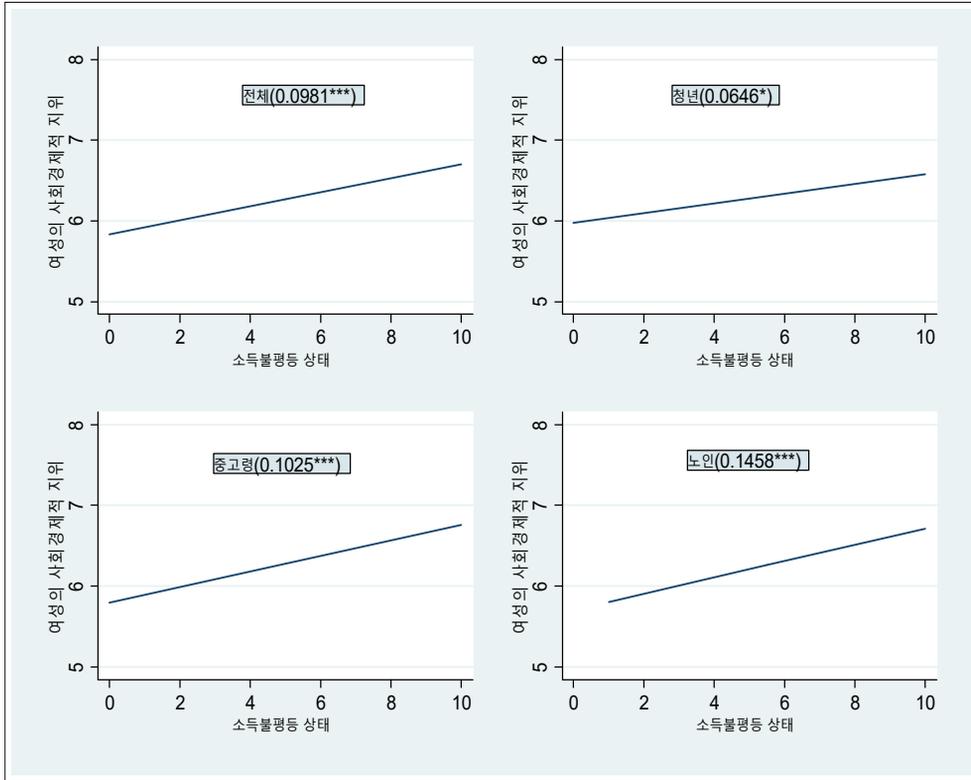
소득불평등에 대한 인식과 관련성이 있는 또 다른 변수로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관한 인식을 들 수 있다. 리처드 윌킨슨과 피켓은 불평등이 심한 사회에서 여성의 지위⁹⁾가 낮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데(Wilkinson & Pickett, 2009), 사회통합 실태조

9) 미국 내 주별 분석에서는 여성의 정치참여, 고용 및 소득, 사회경제적 자율성(autonomy)으로 측정 (Wilkinson & Pickett, p. 58), 국제 단위 분석에서는 여성 입법가의 비율, 성별 소득 격차, 여성의 고등 교육 이수율로 측정함(p. 59).

사를 통해 인식의 차원에서 둘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아래 그림과 같다.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대한 인식과 소득불평등 상태에 대한 인식 간에는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만, 다른 연령대와 달리 청년층에서 정(+)의 상관관계가 그렇게 뚜렷하지 않게 나타난 것은 특징적이다.

이는 Wilkinson & Pickett(2009)이 제시한 것과 상반되는 결과다. 이와 같이 상반된 결과가 나온 이유를 살펴보면, Wilkinson & Pickett(2019)은 두 가지의 데이터를 사용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는데, 그중 첫 번째는 미국의 주별로 불평등 지수와 여성의 정치참여, 고용 및 소득, 사회경제적 자율성(autonomy)으로 측정된 여성의 지위와의 관계를 본 것인데, 여기에는 부(-)의 상관관계가 존재하지만 그렇게 뚜렷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p. 58). 두 번째는 국제적인 차원에서 국가들의 불평등 지수와 여성 입법가의 비율, 성별 소득 격차, 여성의 고등교육 이수율로 측정된 여성의 지위와의 관계를 보인 것인데, 여기에는 강한 부(-)의 관계가 확인되었지만 예외적인 국가들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p. 59). 일본과 이탈리아의 경우는 불평등 정도에 비해 여성의 지위가 낮는데, 이들 국가는 전통적으로 남성에게 비해 여성의 지위가 낮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조사 결과에서 둘 간의 관계가 반대로 나타난 것은 일본, 이탈리아와 비슷한 전통적인 성별 격차가 있는 우리나라의 특징을 반영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미국 차원과 국가 차원의 분석에서 정의된 여성의 지위를 객관적인 지표를 합하여 정의한 것과 달리 본 조사에서는 사회경제적 지위라는 주관적인 지표를 사용했다는 차이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겠다.

[그림 6-2] 소득불평등 상태에 대한 인식과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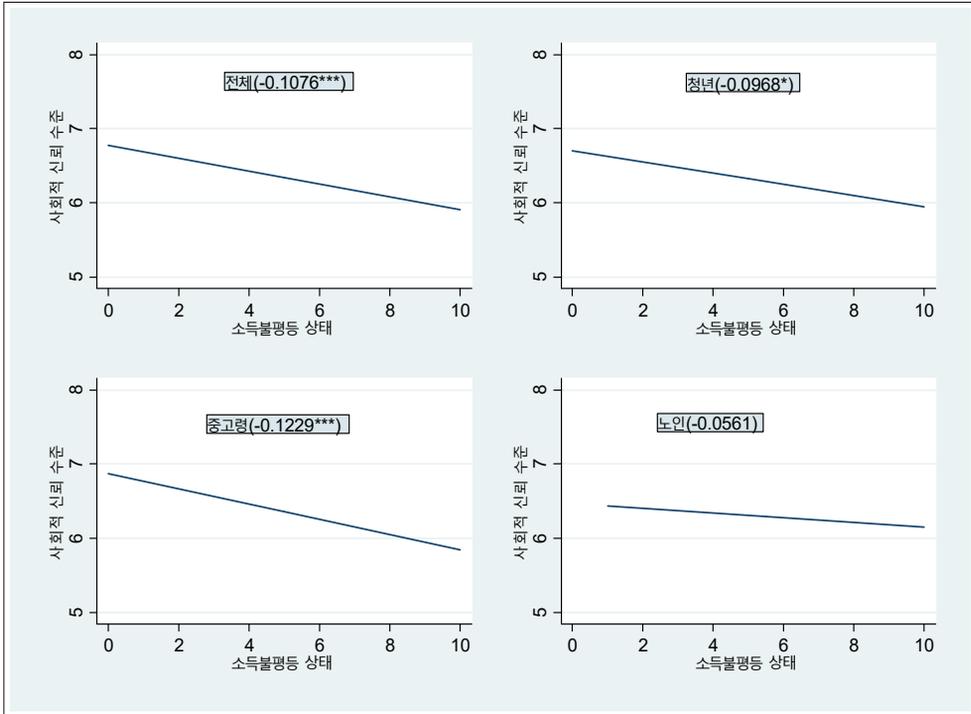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9). '사회통합 상태 진단을 위한 실태조사' 자료 분석.

소득불평등과 행복지수가 같은 방향의 시계열을 가지는 것을 실증한 오이시 시게히로의 심리학 연구진은 불평등이 심해지면 타인을 신뢰하지 못하게 되고, 그것이 불행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보았다(Oishi, Kesebir & Diener, 2011). 사회통합 실태조사에서는 불평등과 사회에 대한 신뢰 정도(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 믿을 수 있는 사회라고 생각하는지)를 인식의 차원에서 설문하였고, 인식 차원의 두 변수 간 상관관계를 살펴 보았다. 소득불평등 상태에 대한 인식과 사회적 신뢰에 대한 인식의 관계는 아래 그림과 같이 표현된다. 전체적으로 소득불평등 상태에 대한 인식과 사회적 신뢰 간에는 부(-)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윌킨슨과 피켓이 실증자료를 이용해서 밝힌 바와 같은 결과이다(Wilkinson & Pickett, 2012).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모든 계층에서 부(-)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는데, 중고령층의 상관관계가 가장 강하고 통계적 유의성도 크게 나타난 반면, 노인층에서는 통계적

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청년층의 경우는 전체 인구나 중고령층보다 약한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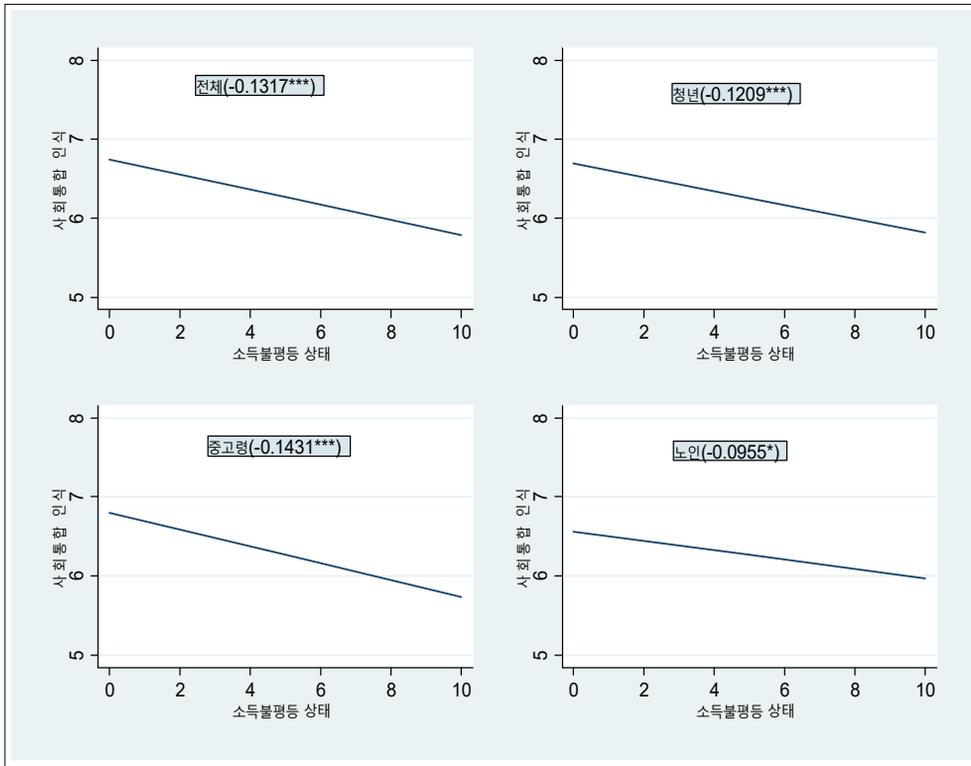
[그림 6-3] 소득불평등 상태에 대한 인식과 사회적 신뢰에 대한 인식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9). '사회통합 상태 진단을 위한 실태조사' 자료 분석.

지금까지 사회통합의 구성요소들인 사회이동성, 사회적 포용, 사회적 자본을 각각 대표하는 문항들과 소득불평등 상태에 대한 인식의 관계를 살펴보았는데, 이번에는 소득불평등 상태에 대한 인식과 사회통합 정도에 대한 인식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살펴보았다. 아래 그림에서 보듯이 전체적으로, 그리고 모든 연령대에서 유의미한 부(-)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소득불평등이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사회통합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인식하고, 반대로 소득불평등이 심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사회통합도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인식한다는 것을 보여 준다.

[그림 6-4] 소득불평등 상태에 대한 인식과 사회통합 상태에 대한 인식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9). '사회통합 상태 진단을 위한 실태조사' 자료 분석.

2. 소득분배 상태에 대한 인식과 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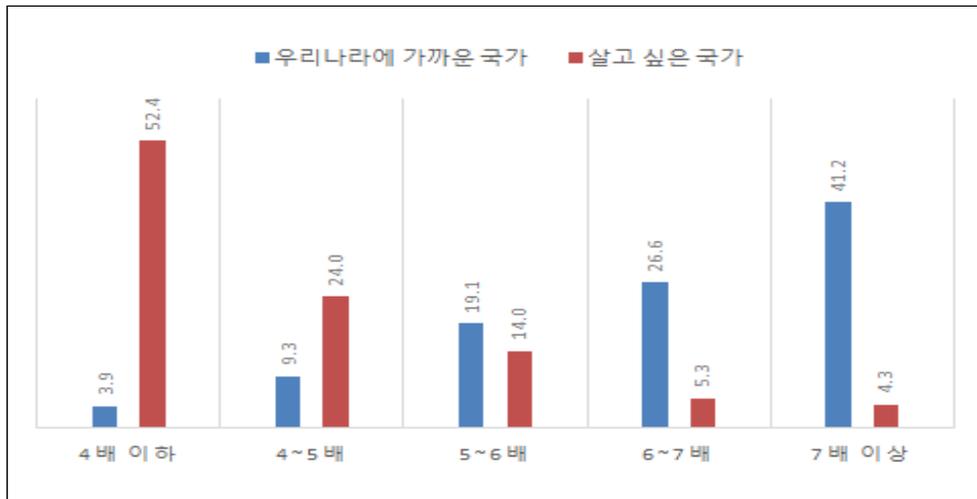
소득분배 상태에 대한 인식과 선호를 파악하기 위하여 부유한 계층의 소득과 가난한 계층의 소득 배율에 따라 5가지 유형의 소득분배 상태를 제시하였다. 이 5가지 유형 중에서 우리나라에 가까운 유형과 현재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살고 싶은 유형을 각각 설문하였다. 각각의 결과는 아래 그림과 같이 나타났다.

먼저, 우리나라에 가까운 국가에 대해서는 4배 이하가 3.9%로 가장 낮고, 7배 이상이 41.2%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로, 이 설문에서 정확하게 부유한 계층과 가난한 계층의 분위기를 제시하지는 않아서 정확한 비교는 어렵지만, 2017년 기준 상위 20%의 하위 20%에 대한 실제 배율(5분위 배율)은 시장소득 기준으로 11.3배, 가처분 소득 기준으로 7.0배다. 반면, 살고 싶은 국가에 대해서는 4배 이하가 52.4%로 가장

높은 반면, 7배 이상은 4.3%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우리 국민들은 우리나라 소득분배 상태를 불평등한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한 반면, 소득불평등이 심하지 않은 국가에서 살고 싶어 하는, 뚜렷이 대비되는 인식과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6-5] 소득분배 상태에 대한 인식과 선호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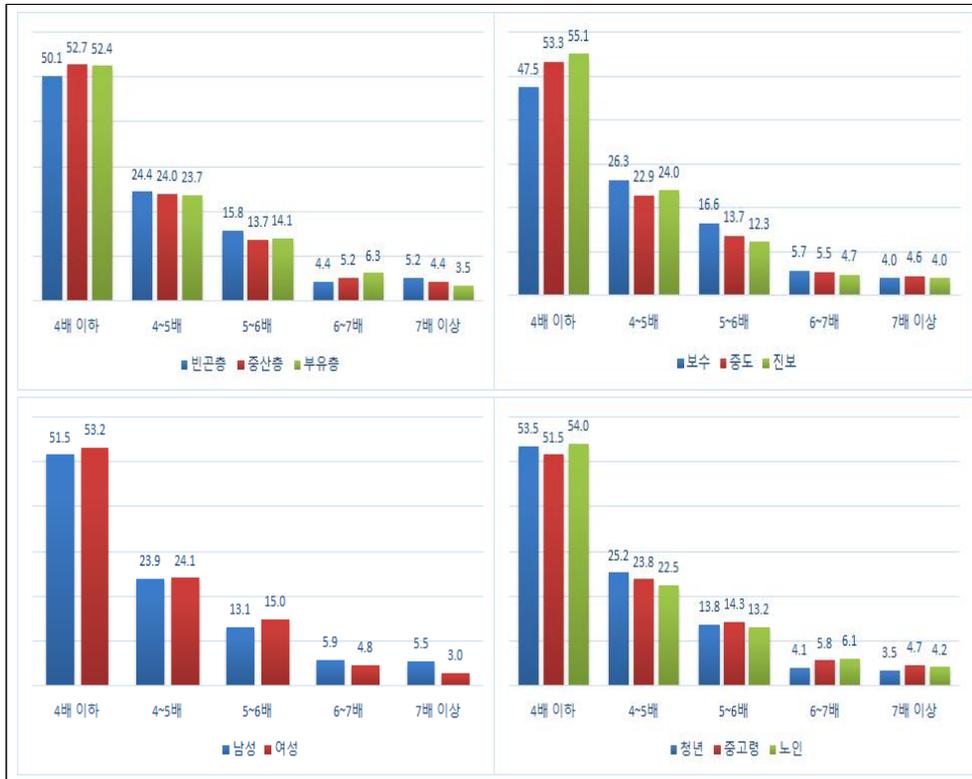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9). '사회통합 상태 진단을 위한 실태조사' 자료 분석.

이 설문은 롤스(John Rawls)의 '무지의 베일(veil of ignorance)'이라는 사고실험을 차용한 것으로서 합리적인 사람은 평등한 사회를 선택할 가능성이 클 것이라는 예측을 확인하기 위해 설계하였다. 실제 미국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를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미국인들은 롤스의 무지의 베일 앞에서 보다 평등한 사회를 선택한다는 사실과, 이 경향은 성, 소득 수준, 정치적 지향과 무관하게 일관된다는 사실을 보고하고 있다(Norton & Ariely, 2011; Payne, 2017, pp. 39-41에서 재인용). 아래 그림들은 소득분배 유형별 선호하는 국가 유형을 인구집단별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이다. 그림에서 보듯이 성별, 연령대별, 소득 수준별(빈곤층은 중위소득 50% 미만, 중산층은 중위소득 50~150% 미만, 부유층은 중위소득 150% 이상), 이념 성향별로 선호하는 소득분배 상태는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6-6] 인구집단별 소득분배 상태에 대한 인식과 선호

(단위: %)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9). '사회통합 상태 진단을 위한 실태조사' 자료 분석.

3. 함의

소득불평등 인식과 관계를 살펴보았던 세대 간 소득탄력성(사회이동성),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사회적 포용), 사회적 신뢰(사회적 자본)는 사회통합의 구성요소들을 나타내 주는 지표들이라 할 수 있다. 이 중에서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대한 인식과 소득불평등에 대한 인식의 관계에 대해서는 직관에 부합하지 않는 결과가 나왔지만, 세대 간 소득탄력성과 사회적 신뢰에 대한 인식과 소득불평등 인식은 실증적인 관계를 규명한 선행연구와 동일한 결과를 보여 주었다. 그리고 사회통합 정도에 대한 인식은 소득불평등 인식과 강한 부(-)의 상관관계를 나타낸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같은 결과를 조금 거칠게 정리하자면, 인식의 차원에서 소득불평등은 사회적 자본과 사회이동성, 그리고 사회통합과 뚜렷한 상관관계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소득 불평등 상태에 따라 사회통합 수준이 결정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따라서 소득분배 정책은 동시에 사회통합 정책으로서의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소득분배 상태에 대한 인식과 태도(선호)를 살펴본 결과, 우리나라 소득분배 상태를 실제보다 양호한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과 보다 평등한 분배 상태를 더욱 선호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 소득분배 상태를 실제보다 양호한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은 앞서 확인한 소득불평등 인식과 사회통합 인식의 관계를 생각할 때 실제 우리 국민들의 사회통합 인식이 과소평가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자신이 선택할 수 있다면 보다 평등한 사회에서 살고 싶다는 욕구는 불평등과 사회통합 간의 관계에 비추어 보다 통합된 사회에서 살고 싶다는 욕구를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소득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는 다각적인 정책들이 사회통합 증진의 관점에서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제 7 장 결론

제1절 연구 결과

제2절 정책적 함의

제1절 연구 결과

제2장의 분석 결과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사회통합 인식, 주관적 행복감, 삶의 만족도는 2017년에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가 이후 조금씩 감소해 2019년에는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인구집단별로는 세 가지 지표 모두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대체로 여성, 청년, 고소득층에서 높은 점수를 보였다. 학력별로는 사회통합 인식에서 연도별로 변화가 있는 정도이고, 주관적 행복감과 삶의 만족도는 고학력자에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우울감은 모든 시기에 걸쳐서 여성, 노인, 저학력, 저소득층에서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여성의 경우 사회통합 인식, 주관적 행복감, 삶의 만족도에서 높은 점수를 보인 것과 달리 우울감에서도 높은 점수가 확인되어 여성에게는 양자 간의 대립적인 관계가 약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사회적 포용, 사회적 자본, 사회이동성, 갈등관리의 측면에서 우리 사회에 대한 인식은 앞선 문항과 마찬가지로 2017년에 정점에 도달한 이후 감소하는 패턴을 확인할 수 있다. 인구집단별로는 항목에 따라 조금씩의 차이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여성, 청년, 고학력, 중산층(중층) 또는 고소득층(상층)이 보다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소득분배 상황과 정부의 소득재분배 역할에 대한 인식 결과는 2016년 이후 소득 격차가 크다는 인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소득 격차 축소 책임에 대해 동의하는 비율은 감소하는 다소 역설적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실업자 지원과 빈곤층 지원에 대한 정부의 책임에 대해서도 지지가 약해지고 있다. 인구집단별로는 소득 격차에 대해서는 여성, 중고령층, 고소득층이 보다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해법인 소득 격차 축소의 정부 역할에 대해서는 여성, 중고령층, 고소득층이 더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소득계층별로 분배 상태에 대한 인식과 해법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한 조건을 사회통합의 세 가지 구성요소별로 정리해 보면

2016년에는 사회이동성과 사회적 자본에 해당되는 조건들이 높은 순위를 점하고 있었는데, 2019년에는 사회적 포용에 해당되는 조건이 상위 순위에 오른 정도의 작은 변화가 있었다. 중산층이 두꺼운 사회를 만드는 것은 2016년에 세 번째 순위에 있었는데 2019년에는 11번째 순으로 밀려났다. 대신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사회를 만드는 것이 과거 13번째 순위에서 5번째 순위로 올라왔다. 일반화의 위험은 있지만 과거에 비해 소득분배보다 경제성장을 사회통합의 중요한 조건으로 꼽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제3장에서는 사회적 포용 상태와 인식의 실태를 살펴보고, 이 영역에 해당하는 변수들이 사회통합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해 보았다. 먼저 개인의 포용 상태(경제, 노동, 건강, 주거, 서비스 차원)는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차이가 발견되었다. 경제 차원(비빈곤)은 청년층(19~34세), 대졸 이상, 중간층,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비교 집단에 비해 포용 상태에 있는 비율이 높았으며 노동 차원(유급노동)은 남자, 중장년층(35~64세), 대졸 이상, 중위소득 150% 이상의 소득계층, 중하층이 비교 집단에 비해 포용 상태에 있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건강 차원(신체적·정신적 건강 양호)은 청년층(19~34세), 대졸 이상, 중위소득 150% 이상의 소득계층, 중상층(상층),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비교 집단에 비해 포용 상태에 있는 비율이 높았고 주거 차원(물리적 조건이 양호하고 주거비 부담이 없는 상태)은 65세 이상, 대졸 이상, 중위소득 150% 이상의 소득계층, 중간층이 비교 집단에 비해 포용 상태에 있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서비스 차원(문화·교육·의료·안전·생활편의시설, 대중교통 접근성 양호)은 여성, 청년층(19~34세), 대졸 이상, 중간층, 대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비교 집단에 비해 포용 상태에 있는 비율이 높았다. 개인의 포용 상태의 보다 총괄적 진단을 위해 중첩도를 살펴보면 평균적으로 4개의 차원에 포용 상태에 있는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포용 상태에 있는 차원이 4개 미만인 집단은 여성, 65세 이상, 중졸 이하, 중위소득 50% 미만의 소득계층(빈곤층), 주관적 소득계층을 하층으로 응답한 경우, 농어촌에 거주하는 집단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기회(교육, 취업, 승진·승급 기회)의 평등, 분배(소득 및 재산)의 평등, 특정 집단(여성, 남성, 장애인, 이주민)에 대한 대우의 평등, 법 집행의 평등 등 4가지 차원으로 분석한 포용의 구조적 과정에 대한 인식 역시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차이가 발견되었다. 기회의 평등 인식은 대졸 이상, 중위소득 150% 이상 소득계층, 중상층(상층), 중소도시와 대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비교 집단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특정 대상

에 대한 대우의 평등 인식은 남성과 노인층(65세 이상), 중상층(상층)에서 비교 집단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분배의 평등 인식과 법 집행 평등 인식은 주관적 소득계층에 따라 서만 인식의 차이가 발견되는데, 중상층(상층)은 비교 집단에 비해 분배나 법 집행이 평등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대체로 남성인 경우, 객관적·주관적 소득계층이 높은 경우, 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경우 우리 사회가 기회 및 분배 그리고 법 집행이 평등하게 이루어지고 성별이나 장애, 국적 등에 따른 차별이 없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한편 포용의 각 차원 간 상관관계 분석 결과는 개인의 포용 상태 간에는 경제 차원과 노동 차원 및 건강 차원의 상관관계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경제 포용 상태(비빈곤)가 노동 포용 상태(유급노동)나 건강 포용 상태(만성 질환이 없고 우울하지 않은 상태)와는 연관성이 있지만, 주거 포용 상태(물리적 조건이 충족되며 주거비 부담이 없는 상태)나 서비스 포용 상태(문화·교육·의료·안전·생활편의 시설, 대중교통 접근성)와는 연관성이 거의 없다는 것으로 주거나 서비스 포용 상태의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접근이 각 차원에 초점을 맞춰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다시 말해 비빈곤 상태에 있을지라도 주거 조건이 열악하거나 주거비 부담이 높을 수 있고, 다양한 차원의 서비스 접근에 한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주거나 서비스 차원의 포용 증진을 위해서는 (예산의 제약으로 인해 한계가 있으나) 소득 기준에 따른 대상자 선정에 집중하기보다는 각 차원의 욕구에 초점을 맞춘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 부분에서는 포용의 차원들이 사회적 포용성 평가나 사회통합 인식 수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는데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통제한 상태에서 개인의 포용 상태 변수(경제, 노동, 주거, 건강, 서비스 포용 상태)보다는 포용의 구조적 과정 인식(기회, 분배, 특정 대상, 법 집행의 평등)에 대한 변수가 사회적 포용성과 사회통합 인식 수준을 더 잘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종속변수가 인식변수이기 때문에 나타난 한계일 수 있으나 Fraser가 지적한 대로 '사회적 배제는 일종의 불의(injustice)이지만 항상 재분배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경제적 박탈은 아니며, 나쁜 분배와 인식의 부족이라는 교차점에 있기 때문에 사회적 배제를 막고자 하는 정책은 재분배 정책과 인식과 관련된 정책이 결합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 (Fraser, 2003).

제4장에서는 사회적 자본의 상태와 인식의 실태를 살펴보고 이에 해당하는 변수들이 사회통합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더불어 사회적 자본의 관점에서 다문화수용성을 점검해 보았다. 우선 사회적 자본 중 하위 영역인 신뢰, 참여 그리고 네트워크는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차이가 발견되었다. 신뢰 중 공적신뢰는 청년층(만 19~34세)과 주관적 소득계층 중 중간층에서 높았으며, 사회신뢰는 대졸 이상 그리고 중간층에서, 사람(타인)신뢰는 하층에서 매우 높게 나타났다. 또한 참여 중 시민참여는 중장년층(만 35~64세), 대졸 이상, 배우자가 있고, 중상층(상층)의 소득계층 그리고 고용주 집단이 비교 집단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정치집단참여의 경우 남성, 중장년층(만 35~64세), 대졸 이상, 배우자가 있는 경우, 중상층(상층) 그리고 상용직 임금 근로자 집단이 비교 집단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정치참여의 경우 청년층(만 19~34세), 고졸, 배우자가 있고, 중상층(상층) 그리고 비경제활동인구 집단이 비교 집단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네트워크의 경우 남성, 청년층(만 19~34세), 대졸 이상, 배우자가 있고, 중상층(상층), 고용주 집단이, 비교 집단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다문화수용성 역시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다. 우선 다문화수용성 중 하위 영역인 국민정체성은 노년층(만 65세 이상), 고졸, 배우자가 있고, 중상층(상층) 집단의 경우 비교 집단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태도는 남성, 청년층(만 19~34세), 대졸 이상 그리고 실업자인 경우 비교 집단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다문화주의에 대한 태도는 중장년층(만 35~64세)과 대졸 이상 집단이 비교 집단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한편 사회적 자본이 사회통합 국민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사회적 자본 중 공통적으로 공적신뢰와 사회신뢰는 사회통합 국민 인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사람(타인)신뢰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람(타인)신뢰와 성별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사회적 자본의 하위 영역 중 사회통합 국민 인식에 미치는 주요 변수는 아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 7-1> 참조).

〈표 7-1〉 분석 결과 요약: 사회통합 국민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

구분		종속변수 - 사회통합 국민 인식					
		사회통합 수준	한국 사회에 대한 평가				
			포용 사회	신뢰 사회	역동적 사회	희망 사회	협조 사회
신뢰	공적신뢰	●	●	●	●	●	●
	사람 (타인) 신뢰	▲	▲	▲	▲	▲	▲
	사회신뢰	●	●	●	●	●	●
참여	시민참여						
	정치집단참여		▲	▲	▲		▲
	정치참여						
네트워크	비공식적 네트워크		●	●			
통제변수	성별	▲					▲
	연령						
	교육 수준			▲			
	배우자 유무						
	주관적 소득계층		●	●	●	●	
	경제활동 참여 상태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9). '사회통합 상태진단을 위한 실태조사' 자료 분석.

다음으로 사회적 자본을 구성하는 변수 중 다문화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는 아래 표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표 7-2〉 참조). 사회적 자본 중 사회신뢰가 다문화수용성의 하위 영역인 국민 정체성,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태도 그리고 다문화주의에 대한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공적신뢰는 국민정체성 및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태도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다문화주의에 대한 태도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2〉 분석 결과 요약: 다문화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

구분		종속변수 - 다문화수용성		
		국민정체성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태도	다문화주의에 대한 태도
신뢰	공적신뢰	●	●	▲
	사람 (타인) 신뢰	▲	▲	
	사회신뢰	●	●	●
참여	시민참여	●	●	
	정치집단참여			●
	정치참여			
네트워크	비공식적 네트워크			●
통제변수	성별		●	
	연령		▲	
	교육 수준	▲		
	배우자 유무	●		
	주관적 소득계층	●		
	경제활동 참여 상태			●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9). '사회통합 상태진단을 위한 실태조사' 자료 분석.

제5장에서는 사회이동성의 상태와 인식의 실태를 살펴보고 이에 해당하는 변수들이 사회통합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한국 사회에서 세대 간, 세대 내 사회이동이 특정한 세대를 거치면서 늘었는지, 줄었는지에 대한 분석은 횡단면적으로 조사된 제한된 자료로는 확인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이 분석에서 살펴본 바는 몇 가지 점에서 의의가 있다.

먼저 최근 세대가 할 수 있는 정보화 세대에 접어들면서 부모의 직업이 사무 종사자인 경우 자녀의 직업 역시 사무 종사자인 비율이 늘고 있다. 이는 비교적 최근 세대로 올수록 부(父)의 직업과 본인의 직업 사이의 관련성이 높아지고 있음을 의미하였다. 그렇지만 한편으로 부의 학력 또는 직업 위세가 높은 경우에도 정보화 세대의 그들은 사무 종사자로 일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는 전체적으로 직업구조가 정착된 결과로도 해석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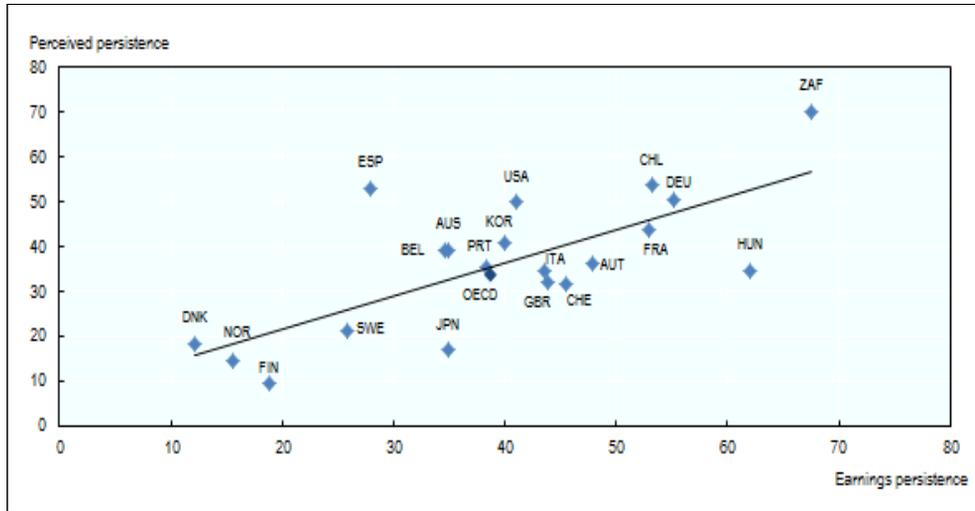
다음으로 사회이동성에 대한 인식은 최근 공개된 다른 조사와 달리 양호한 편으로 나타났다. 사회이동성의 차원은 아니지만 공정성의 맥락에서 보면 '노력'에 비해 공정

하지 못한 대우를 받았다는 응답이 높았다. 한편 교육 기회가 평등하다는 인식은 전체적으로 58.9%에 이르고 있지만 취업 기회에서는 24.8%만이, 승진·승급 기회에서는 16.5%만이 평등하다고 응답하였다.

우리 국민들이 판단하는 사회이동성 수준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것보다 부정적인데, 예를 들어 부모 세대의 소득이 자녀 세대의 소득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정도를 보면 평균적으로 7.35점의 영향을 받는다고 응답하여 상당한 영향이 있다고 답하고 있었다. 주목해야 하는 부분은 이러한 영향력에 대한 평가가 소득계층으로 보면 상층에서 더 두드러졌다는 점이다. 이러한 결과를 놓고 한국 사회에서 사회이동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교육의 기회가 제약되었다거나 하는 부분에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계층집단의 상층부로 이동하는 과정에 불공정성이 존재할 것이라는 의심에서 이뤄지는 것이라 판단해 볼 수 있다.

그러므로 현시점에서 우리는 한국 사회의 사회이동성에 대한 인식이 실제와 차이가 나는 근저의 원인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제5장에서 국가 간 세대 이동의 인식을 비교한 결과,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의 계층 지위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국가는 남아공, 이탈리아, 칠레, 미국, 독일 등이 있으며 낮다고 판단하는 국가는 핀란드, 일본,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등이 있다. 한국은 소득상관성은 0.40 수준이며, 인식된 차원의 상관성은 40.7이다. 이것은 실제로 부모 소득과 자녀 소득의 상관성에 비해 그것이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인식의 정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7-1] 세대 간 이동성의 인식적 차원과 실제



자료: OECD. (2018, p. 22). A Broken Social Elevator? How to Promote Social Mobility. Paris: OECD Publishing.

제6장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사회통합 인식을 구성하는 데 남녀 공히 사회이동성의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과 2019년 변수 유형에 관계 없이 남성은 사회적 자본의 영향력이 낮은 특징을 발견할 수 있었다. 반면 여성은 남성보다 세 가지 구성요소의 영향력이 조화롭게 균형을 갖추고 있다는 차이가 눈에 띈다. 그리고 사회통합 상태 및 인식변수와 조건변수가 사회통합 인식에 상반된 영향을 미치는 것도 특징으로 꼽을 수 있다. 전자는 정(+)의 비례 관계, 후자는 대체로 부(-)의 비례 관계에 있다. 따라서 사회통합 정책에 있어서는 후자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다만, 상관분석에서나 회귀분석에서나 사회통합에 대한 설명력과 유의성이 전자보다 낮다는 것은 문제로 꼽을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보완적 연구방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므로 향후 연구과제로 남겨 둔다.

한편, 사회통합 인식 그 자체와 사회통합을 구성하는 사회적 포용, 사회적 자본, 사회이동성을 대표하는 연속변수들과 소득불평등 상태에 대한 인식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사회통합 정도에 대한 인식, 전반적인 사회의 신뢰에 대한 인식은 소득불평등 상태에 대한 인식과 유의미한 부(-)의 관계를 보인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것은 소득불평등을 심각하게 인식하는 사람들은 사회통합 정도와 사회적 신뢰 정도를 부정적으로

로 인식한다는 점을 보여 준다. 그리고 세대 간 소득탄력성에 대한 인식은 소득불평등에 대한 인식과 정(+)의 상관관계를 가짐으로써, 자녀 소득이 부모 소득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고 인식하는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회통합의 정도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은 우리 사회의 소득불평등 정도를 실제보다 양호한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살기를 희망하는 사회는 평등한 분배가 이루어지는 사회였다.

제2절 정책적 함의

1. 사회통합 인식의 변화

지난 4년간 5가지 사회상에 대한 인식의 변화에서 특징적인 것으로 모든 인식에서 여성의 긍정적인 인식이 상대적으로 약해진 것과, 연령대별로는 청년층의 긍정적 인식이 강해진 반면 노인의 부정적 인식이 강해진 것을 꼽을 수 있다. 학력별로는 대체로 고학력자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뚜렷해진 것도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이 같은 결과는 전통적인 취약집단에서 부정적인 인식이 강해지고 있음을 보여 준다. 이것은 제6장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소득불평등에 대한 인식이 강할수록 사회통합 상태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과 연관 지어서 소득분배 정책의 필요성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소득불평등에 대한 심각성과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는 최근 들어 과거보다 불평등을 더 심각하게 느끼고 있는 반면, 정부의 불평등 해소 책임에 대해서는 과거보다 덜 지지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것을 거칠게 해석하자면 빈곤의 책임을 빈곤층에게 묻는 경향이 강해졌거나, 부유층이 많은 소득과 재산을 보유하는 것에 대한 대중적 수용성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스스로의 노력에 의한 경제적 성취에 대한 지지가 강해진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변화가 사회통합 측면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사회통합의 조건으로 우선시되어야 할 것으로 2016년과 2019년 모두 노력한 만큼 대가를 얻는 사회를 만드는 것과 일자리를 가질 기회가 많은 사회를 만드는 것이 각각 1, 2순위로 꼽혔다. 즉 공정성과 많은 일자리가 가장 핵심적인 조건으로 인식되고 있

다고 할 수 있다. 과거 3순위였던 중산층을 두껍게 만드는 것이 11순위로 밀리고,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사회를 만드는 것이 13순위에서 5순위로 부상하고, 법규칙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이 5순위에서 3순위로 올라왔는데, 이 같은 변동은 사회통합에 있어서 소득분배보다 풍요를 위한 경제성장을 중요시하고, 성장에 필요한 경쟁의 공정성을 보장할 필요성을 강조하게 되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공정성과 관련해 뜨겁게 달구어졌던 이슈들이 이번 조사에서도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회의 평등, 공정한 과정, 정의로운 결과를 보장할 수 있는 사회제도 구축이 사회통합의 측면에서도 중요한 정책과제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사회적 포용과 사회통합

사회적 포용에 대한 분석 결과가 함의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개인의 포용 상태를 나타내는 6가지 차원 중에서 사회의 포용성 평가에는 건강 차원이, 사회통합 수준 인식에는 주거, 건강, 서비스 차원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부분이라 하겠다. 빈곤이나 실직 및 비취업 등의 상태보다는 열악한 주거나 건강하지 못한 상태, 욕구에 따라 다양한 서비스에 접근할 수 없는 상태 등이 개인이 사회의 질적 측면을 낮게 평가하는 척도가 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 사회가 사회적 포용성이 높고, 사회통합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긍정적 인식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소득 및 고용 지원뿐만 아니라) 주거, 건강, 서비스 차원의 지원에 대한 관심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 주기 때문이다.

또한 구조적 포용 과정에 대한 인식(기회의 평등, 분배의 평등, 특정 대상에 대한 평등, 법 집행 평등)이 사회적 포용성 및 사회통합 수준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는 우리에게 최근 다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공정성’의 문제를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한다. 포용 과정에 대한 인식의 차원 중 분배의 평등 인식은 사회적 포용성 평가와 사회통합 수준에 대한 분석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기회의 평등, 특정 대상에 대한 평등, 법 집행의 평등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분배의 ‘결과’보다는 그 이전 ‘과정’에서의 평등을 증진시키는 것이 사회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높일 수 있음을 간접적으로 말해 준다.

3. 사회적 자본과 사회통합

사회적 자본에 대한 분석 결과가 함의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 자본을 구성하는 변수 중 사회신뢰는 사회통합 국민 인식과 다문화수용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신뢰가 사회통합 국민 인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나온 이유는, 사회신뢰가 사회 구성원들을 하나로 묶어 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즉, 사회신뢰를 통해 한 사회는 사회적 자본의 형성 및 축적이 용이하게 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사회통합을 더욱 강화시킬 수 있다(심규선, 2018, p. 54). 또한 사회신뢰가 내국인의 다문화수용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는 점은 기존의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김혜선, 2014; 권진, 진진주, 2015; 이형하, 2014; Herreos and Criado, 2009; Uslaner, 2003). 위와 같은 결과가 나온 이유는, 사회신뢰가 높은 사회에서 사는 사람들은 이타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타인과 지역사회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Mansbridge, 1999). 다시 말하면 사회적 신뢰는 같은 문화적·인종적 배경을 가진 동질적인 집단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이민자들에게도 적용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Herreos and Criado, 2009). 따라서 사회신뢰가 강할수록 사회통합 인식에 대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다문화수용성의 모든 하위 영역인 국민 정체성,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태도 그리고 다문화주의에 대한 태도 역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사회통합과 다문화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한국 사회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사회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이 적극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반면 사람(타인)에 대한 신뢰는 사회통합 국민 인식과 다문화수용성 중 국민 정체성과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에서 신뢰는 가족, 친구 등 동질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 간에 생성되는 연대감과 일체감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타인 특히 낯선 이민자 집단에 대한 신뢰감은 더욱 낮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 준다(Fukuyama, 1995; 최상진, 김기범, 강오순, 김지영, 김양하, 2005).

다음으로 공적 신뢰는 사회통합 국민 인식과 다문화수용성 중 하위요인인 국민 정체성과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다문화주의에 대한 태도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정부 및 관련 부

처에 대한 신뢰가 높은 집단은 이민자에 대한 관용적인 태도를 지닐지라도 국민국가의 배타적인 정서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민자에 대한 배타적 경계선은 크게 변화하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둘째, 참여의 경우 시민참여는 국민 정체성과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다양한 계층, 문화, 배경을 가진 이들과의 온·오프라인 교류가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사회적 소수자 전반에 대해 수용적인 태도를 형성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친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다문화수용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내국인의 시민참여를 독려하는 방안이 적극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반면 정치집단참여가 높을수록 한국 사회가 포용사회, 신뢰사회, 역동적 사회 그리고 협조사회라는 인식은 낮았다. 이 분석 결과를 해석하기 위한 기존 연구를 찾아보기는 매우 힘든 상황으로 이에 대한 면밀한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분석 결과의 의의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는 기존 사회통합과 다문화수용성의 연구와 달리 사회적 자본이라는 이론을 활용하여 심층적인 연구를 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즉, 사회적 통합 국가 및 다문화사회로의 진전을 위해서는 다수가 어떤 인식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며, 이들의 인식 및 태도는 결국 사회적 자본에 따라 크게 좌우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보여 주고 있다.

둘째, 신뢰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이를 향상하기 위한 여러 정책적 방안들이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기존 연구들에서는 소득 양극화와 불평등 문제를 사회신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지적하였듯이(Knack and Keefer, 1997; Uslaner, 2002) 이를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사회신뢰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대안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하겠다. 또한 공적 신뢰가 사회통합 국민 인식과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건전한 토론문화 조성을 비롯하여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안 등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홍영란 외, 2008). 이는 기존 연구에서 교육을 많이 받을수록 사회적 자본을 구성하는 변수 중 신뢰가 높아진다는 결과가 있기 때문이다(홍영란 외, 2008).

마지막으로 이 연구 결과는 사회통합과 다문화수용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과 더불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함께 제시했다는 데서 의의가 있다. 따라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적극 장려하는 방향으로 나가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자제하거나 조절하는 방향으로 관련 정책을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연령이 높을수록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태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를 바탕으로 고령층을 위한 다문화 이해 교육이나 여러 관련 프로그램 운영 방안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또한 지역사회 차원에서 고령자와 이민자 간의 교량적(bridging) 연결망을 형성할 수 있도록 관련 방안이 적극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4. 사회이동성과 사회통합

사회이동성에 대한 분석 결과가 함의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이 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교육에서의 기회 격차를 강하게 판단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즉, 교육과정에서의 기회 격차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당위적 접근 또는 교육 기회가 불평등, 불공정해졌다는 인식이 두드러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오히려 문제가 되는 것은 사회이동성에서 교육 이외의 가능성 즉, 취업의 기회 제공이라든지 승진, 승급의 기회에서 불공정하다는 인식을 키우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지금까지 한국 사회가 설정해 왔던 기회의 공정성에 대한 부분이 교육 기회와 같이 기계적인 절차적 공정성에 매몰되어 왔으나, 실제 우리 국민들이 판단하는 공정성에 대한 기대는 그 이상, 그 이후 과정의 문제에 있음을 말해 준다.

특히 부모 세대의 영향력이 중요하다는 인식은 지금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세대 그리고 소득계층에서 보다 상층에 해당하는 집단에서 두드러진다는 점도 중요하다. 이것은 한국 사회에서 이동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다 다양하고 실질적인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 주고 있다.

5. 사회통합 인식의 종합 진단

이상과 같은 분석 결과가 함의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먼저, 인식의 차원에서 소득불평등이 사회적 자본과 사회이동성, 그리고 사회통합과 뚜렷한 상관관계를 가진다는 것은 소득불평등 상태에 따라 사회통합 수준이 결정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그리고 이는 소득분배 정책이 사회통합 정책 차원에서 강구될 필요가 있다는 정책 함의를 제공한다. 그리고 소득분배 상태에 대한 인식과 태도(선호)를 살펴본 결과는 우리 국민들의 사회통합 인식이 과소평가되었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하며, 이는 역시 사회통합 증진 차원에서 소득재분배를 위한 정책들이 강구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참고문헌 <<

- 강신욱·김안나·박능후·김은희·유진영. (2005). 사회적 배제의 지표개발 및 적용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강신욱·이현주·김석호·박수진·박은경. (2012). 사회통합지수 개발연구. 사회통합위원회·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곽윤경·양영미. (2017). 중학생의 체육활동 참여가 다문화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다문화교육연구, 10(2), pp. 147-170.
- 권진·진진주. (2015). 청소년의 사회자본과 다문화수용성의 관계 연구: 중학생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보장학회 정기 학술대회. 한국사회보장학회
- 금희조. (2011). 소셜 미디어 이용과 다문화에 대한 관용: 교량형 사회자본의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55(4), pp. 162-186.
- 기획재정부. (2017). 중장기전략 주요과제-4차 산업혁명, 인구구조 변화. 사회자본. 중장기전략위원회 중장기전략 연구작업반.
- 김교성·노혜진. (2008). 사회적 배제의 실태와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퍼지 집합이론을 이용한 측정과 일반선형모델 분석. 사회복지정책. Vol 34. pp. 134-162.
- 김기동·이정희. (2017). 한국 시민들의 신뢰수준이 정치참여에 미치는 효과 연구. 아태연구. 24(2), pp. 5-39.
- 김기홍·허태영. (2012). 사회 자본을 통한 농촌의 지속가능한 다문화 사회 구축방안 연구. 농촌사회, 22(1), pp. 89-131.
- 김미곤·여유진·김태완·정해식·우선희·김성아. (2014). 사회통합 실태진단 및 대응방안 연구 - 사회통합과 국민행복을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승연·김세림·이진석. (2013). 주거환경이 건강수준에 미치는 영향. 보건과 사회과학, 34, pp. 109-133.
- 김안나. (2007). 한국의 사회적 배제 실태에 관한 실증적 연구. 사회이론, (32). pp. 227-256.
- 김이선·최윤정·윤지소·이재경·문희영·이명진·양계민. (2018). 2018년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가족부.
- 김정훈·임안나. (2010). 결혼이주여성들의 사회적 자본의 수준과 증진방안. 현대사회와 행정, 20(3), pp. 51-87.
- 김주희. (2011). 농촌 여성의 사회적 관계의 변화 : 사회적 자본 관점에서의 이해. 한국농촌사회학회, 21(2), pp. 7-48
- 김형빈·이진석. (2011). 부산지역 화교의 사회연결망 특성변화와 사회자본의 형성. 지방정부연

- 구, 14(4), pp. 129-148.
- 김혜선. (2014). 사회적 자본이 다문화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노대명·강신욱·전지현. (2010). 한국 사회통합지표 연구. 사회통합위원회.
- 박상필. (2000). 이익집단 갈등과 사회자본: 경실련의 한약분쟁 조정 사례연구. 한국행정학보. 34(2), pp. 121-138.
- 박희봉·전지용. (2008). 가족사회자본이 집단가치와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 현대사회와 행정. 제18권 제3호. pp. 51-76.
- 백승대·안태준. (2013). 국민정체성이 청소년의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대한정치학회, 21(2), pp. 1-24.
- 심규선. (2018). 다문화 사회통합에서 상호접촉의 의미 - 신뢰와 문화다양성을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안상수. (2012). 다문화수용성과 젠더. 젠더리뷰 25, pp. 42-52.
- 안상수·민무숙·김이선·이명진·김금미. (2012). 국민 다문화 수용성 조사 연구. 여성가족부.
- 안상수·김이선·마경희·문희영·이명진. (2015).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 연구. 여성가족부.
- 여유진·정해식·김미곤·김문길·강지원·우선희·김성아. (2015). 사회통합 실태진단 및 대응방안 II: 사회통합과 사회이동.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원재용·이재수. (2017). 주거환경이 공공임대주택 거주민의 사회자본 형성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 한국주택학회 2017년 하반기학술대회 자료집. pp. 223-236.
- 윤인진·송영호. (2009). 한국인의 국민정체성과 다문화수용성.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pp. 579-591.
- 윤진호 외 편역. (2004). 선진국의 빈부격차와 차별시정을 위한 국가행동계획 사례 연구. 서울사회경제연구소.
- 이재열. (2015). 사회의 질, 경쟁, 그리고 행복. 아시아리뷰, 4(2), pp. 3~29.
- 이재열. (2018). 시대적 전환과 사회적 가치. 사회적 가치연구원. Social Innovation Monitor, vol 16.
- 이정은·조미형. (2009). 사회적 배제 집단의 잠재적 유형 분류 및 성별과 학력에 따른 차이 분석. 사회복지정책. Vol 36, pp. 79-103.
- 이종원. (2007). 계량경제학. ㈜박영사
- 이형하. (2014). 한국인의 사회자본과 다문화 수용성 관계. 한국컴퓨터정보학회. 19(11), pp. 193-202.
- 장용석·정장훈·조문석. (2009). 한국의 사회적 자본과 갈등: 사회적 자본의 다면적 속성에 대

- 한 재조명. 조사연구. 10(2), pp. 45-69.
- 정갑영·김동훈. (2019). 사회적 자본 지수의 계측. 한국경제포럼 12.(1), pp. 1-26.
- 정해식. (2012). 사회의 질(SQ), 그 측정과 적용에 관한 비교사회정책 연구. 서울대학교.
- 정해식·김미곤·여유진·김문길·우선희·김성아. (2016) 사회통합 실태 진단 및 대응 방안(III) - 사회통합 국민 인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정해식·김미곤·여유진·김성근·류연규·우선희·김근혜. (2018a). 사회통합 실태 진단 및 대응 방안 연구(V) - 사회갈등과 사회통합.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정해식·김미곤·여유진·전진아·김문길·우선희·최준영. (2017). 사회통합 실태 진단 및 대응방 안(IV) - 사회문제와 사회통합.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정해식·박명호·이성균·전병유·주상영·한종석 ... 최준영. (2018b). 소득불평등 심화의 원인과 정책적 대응효과 연구2.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최상진·김기범·강오순·김지영·김양하. (2005). 한국문화에서 대인관계 신뢰불신의 기반과 심 리적 기능에 대한 문화심리학적 분석. 문화 및 사회문제, 11(1), pp. 1-20.
- 최성수·이수빈. (2018). 한국에서 교육 기회는 점점 더 불평등해져 왔는가?. 한국사회학, 52(4), pp. 77-113.
- 하성규·서종녀. (2006). 공공임대주택과 사회적 배제에 관한 연구. 주택연구, 14(3), pp. 159-181.
- 한상미. (2007). 지역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들의 사회자본 유형 연구. 사회복지정책, 제31권 단 일호. pp. 211-237.
- 홍영란 외. (2008). 사회적 자본형성을 위한 교육투자 방안.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황선영·어유경·김순은. (2019). 사회통합 관점에서 본 사회적 배제가 인지적 사회자본에 미치 는 영향 연구 - 세대 간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자치행정정보, 33(2), pp. 31-61.
- 황성욱·조운용·이철한. (2014). 다문화수용성,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다문화수용성 측정 지 수 개발. 분쟁해결연구, 12(3), pp. 167-196.
- 황정미. (2010). 한국인의 다문화 수용성 분석. 아세아연구, 53(4), pp. 152-184.
- 황필규. (2013). 외국인 혐오주의, 인종주의의 발호에 대하여. LEGAL INSIGHT. 06.20. [http://legalinsight.co.kr/archives/48515\(2019.11.14.\)](http://legalinsight.co.kr/archives/48515(2019.11.14.))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사이트.
[http://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148855401\(2019.10.17.\)](http://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148855401(2019.10.17.))
- 통계청. 2019~2017 사회조사 원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2019 사회통합 실태 및 국민인식 조사 원자료.

- Barnes, M., Heady, C., Middleton, S., Millar, J., Papadopoulos, F., Room, G., & Tsakoglou, P. (2002). *Poverty and Social Exclusion in Europe*. London: Edward Elgar Publishing Ltd.
- Beck, Wolfgang, Laurent J. G. van der Maesen, and Alan Walker. (1997). Theorizing Social Quality: The Concept's Validity. In Beck, van der Maesen and Walker eds. *The Social Quality of Europe*. The Hague: Kluwer Law International.
- Bennett, S. E. & Bennett, L. L. M. (1986). *Political participation. Annual Review of Political Science*, Norwood, NJ: Ablex Publishing Corporation, 157-204.
- Bourdieu, P. (1986). The forms of capital. *Handbook of Theory and Research for the Sociology of Education*, 241-258.
- Bradshaw, J. and others. (2000). The Relationship between Poverty and Social Exclusion in Britain. *Paper Presented for the 26th General Conference of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Research in Income and Wealth*. Poland
- Bulmer, M. & Solomos, J. (2017). Multiculturalism, Social Cohesion and Immigration: Shifting Conceptions in the UK. *Ethnic and Racial Studies*. New York: Taylor & Francis.
- Burchardt, T., J. Le Grand, and D. Piachaud(BLP). (1999). Social Exclusion in Britain 1991-1995. *Social Policy and Administration*, 33(3). 227-244.
- Cameron, C. (2006). Geographies of welfare and exclusion: Social Inclusion and Exception. *Progress in Human Geography*, 30(3), 396-404 .
- Coleman, J. S. (1988). Social capital in the Creation of Human Capital.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S95-S120.
- Corak, M. (2013). Income Inequality, Equality of Opportunity, and Intergenerational Mobility.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27(3): 79-102.
- Cote, R. R. & Erickson, B. H. (2009). Untangling the Roots of Tolerance: How Forms of Social Capital Shape Attitudes toward Ethnic Minorities and Immigrants.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52(12): 1664-1689.
- d'Addio, Anna Cristina. (2007).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Disadvantage: Mobility or Immobility Across Generation? A Review of the Evidence for OECD Countries*. OECD.
- ESRC (Economic and Social Research Council). (2004). www.esrc.ac.uk (retrieved August).

- Estivill, J. (2003). *Concepts and strategies for combating social exclusion*, Geneva: International Labour Office
- Eurofound. (2017). *Social mobility in the EU*. Publications Office of the European Union. Luxembourg.
- Fleury, S. (1998). *Política social, exclusión y equidad en América Latina*. Nueva Sociedad, N° 156, Julio-Agosto, 1-25(pdf version).
- Fraser, N. (2003). Redistribución, reconocimiento y exclusión social. In Departamento Administrativo de Bienestar Social (DABS) & Facultad de Ciencias Políticas y Relaciones Internacionales, Pontificia Universidad Javeriana (eds.) *Inclusión social y nuevas ciudadanías. Condiciones para la convivencia y seguridad democráticas. Seminario Internacional*. Memorias. Bogotá: DABS, PUJ: 55-69.
- Fukuyama, F. (1995). *Trust: The Social Virtues and the Creation of Prosperity*. New York: The Free Press
- Gordon, D., Adelman, L., Ashworth, K., Bradshaw, J., Levitas, R., Middleton, S., Pantazis, C., Patsios, D., Payne, S., Townsend, P. and Williams, J. (2000). *Poverty and social exclusion in Britain*, York: Joseph Rowntree Foundation.
- Herreros, F. & Criado, H. (2009). Social Trust, Social Capital and Perceptions of Immigration. *Political Studies*, 57(2): 337-355.
- Juliano, D. (2001). Género y exclusión. In Valencia, A. (ed) *Exclusión social y construcción de lo público en Colombia*. Bogotá: Centro de Estudios de la Realidad Colombiana (CEREC), *Facultad de Ciencias Económicas*, Universidad del Valle: 27-50.
- Kish, L. (1987). Weighting in Deft2. *The Survey Statistician*, June.
- Knack, S., Keefer, P. (1997). Does Social Capital Have an Economic Payoff? A Cross-Country Investigation.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12(4): 1251-1288
- Levitas, R. (2006). The concept and measurement of social exclusion, in C. Pantazis, D. Gordon and R. Levitas (eds) *Poverty and social exclusion in Britain: The Millennium Survey*, Bristol: The Policy Press, 123-60.
- Levitas, R., Pantazis, C., Fahmy, E., Gordon, D., Lloyd, E. & Patsios, D. (2007). *The multi-dimensional analysis of social exclusion*. Bristol Institute for Public

- Affairs, University of Bristol
- Mansbridge, J. (1999). *Altruistic Trust, in Democracy and Trust*. edited by Warren, M.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athieson J., Popay J., Enoch E., Escorel S., Hernández M., Johnston H., et al. (2008). Social Exclusion: Meaning, Measurement and Experience and Links to Health Inequality. *WHO Social Exclusion Knowledge Network Background Paper 1*. World Health Organization, Geneva.
- Nunn, Alex. (2012). *Fostering social mobility as a contribution to social cohesion. Strasbourg*: Council of Europe.
- OECD. (2011). *Perspectives on Global Development 2012: social cohesion in a shifting world*. Paris: OECD Publishing.
- OECD. (2013). *한국의 사회통합을 위한 제언*. OECD, OECD/대한민국정책센터.
- OECD. (2015). *In It Together: Why Less Inequality Benefits All*. Paris: OECD Publishing.
- OECD. (2018). *A Broken Social Elevator? How to Promote Social Mobility*. Paris: OECD Publishing.
- OECD. (2019). *Society at a Glance 2019*. OECD.
- Oishi, S., Kesebir, S., Diener, E. (2011). Income Inequality and Happiness. *Psychological Science*. 22: 1095-1100.
- Payne, K. (2017). *부러진 사다리 - 불평등은 어떻게 나를 조종하는가? (이영아 역)*. 와이즈베리 (원서출판 2017)
- Pierson, J. (2002). *Tackling Social Exclusion*. London: Routledge
- Portes, A. (1998). Social Capital: Origins and Applications. *Annual Review of Sociology*, 24: 1-24.
- Putnam, R. D. (1993). The Prosperous Community: Social Capital and Public Life. *The American Prospect*, 1993(13): 35-42.
- Putnam, R. D. (1995). Bowling alone: America's declining social capital. *Journal of democracy*, 6(1): 65-78.
- Putnam, R. D. (2000). *Bowling Alone: The Collapse and Revival of American Community*. New York: Simon & Schuster.
- Putnam, R. D. (2001) Social Capital. Measurement and Consequences. *Canadian Journal of Policy Research*, 2(1): 41-51.

- SEU (Social Exclusion Unit). (1997). *Social Exclusion Unit: Purpose, work priorities and working methods*, London: SEU.
- Stiglitz, J.E. (2002). Employment, Social Justice and Societal Well-Being. *International Labour Review*, Vol. 141, No. 1-2.
- UN. (2017). *International Migration Report*. New York: United Nations.
- Uslaner, E. M. & Conley, R. S. (2003). Civic Engagement and Particularized trust: *The Ties that Bind People to Their Ethnic Communities. American Politics Research*, 31(4): 331-360.
- Uslaner, T. R. (2002). *The Moral Foundation of Trust*.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Valencia, A. (2001). Exclusión social y construcción de lo público en Colombia. In Valencia, A. (ed.) *Exclusión social y construcción de lo público en Colombia. Bogotá: Centro de Estudios de la Realidad Colombiana (CEREC), Facultad de Ciencias Económicas, Universidad del Valle*: 11-25.
- Walker, A. and Walker, C. (Eds.). (1997). *Britain divided: the growth of social Exclusion in the 1980's and 1990's* (Poverty publication). CPAG, London.
- Walker, A., & van der Maesen, L. (2003). Social quality and quality of life. *Paper presented at the conference on ISQoLS Conference, July 2003*.
- Wilkinson, R., & Pickett, K. (2009). *The Spirit Level - Why Greater Equality Makes Societies Stronger*. New York, Berlin, London: Bloomsbury Press.
- Wilkinson, R., & Pickett, K. (2019). 불평등 트라우마 (이은경 역). 생각이음, (원서출판 2018)
- Xavier, F., Stephan, L., & Frances M.T.B. (2018). Social cohesion revisited: a new definition and how to characterize it. *Innovation The European Journal of Social Science Research*.
- Zak, P. J., & Knack, S. (2001). Trust and Growth. *The Economic Journal*, 111(470), 295-321.

【부록 1】 사회통합 상태 진단을 위한 실태조사 표본 설계

1. 표본 설계

가. 모집단 분석

□ 2017년 기준 집계구 분포를 분석하여 지역별 특성을 파악하고자 함.

□ 2017년 기준 전체 집계수는 10만 3990개이고 동부는 80.6%, 읍면부는 19.4%를 나타내고 있으며, 지역별로는 서울이 18.5%, 경기도가 24.3%를 차지하고 있음(<부표 1-1> 참조).

<부표 1-1> 모집단 집계구 분포

(단위: 개)

구분	동부		읍면부		계
	일반	아파트	일반	아파트	
서울	7,798	11,455	.	.	19,253
부산	1,793	4,801	74	254	6,922
대구	1,538	2,996	109	358	5,001
인천	1,889	3,792	202	24	5,907
광주	823	2,223	.	.	3,046
대전	1,051	2,023	.	.	3,074
울산	434	1,470	142	290	2,336
세종	19	340	107	96	562
경기	6,800	14,293	2,178	2,033	25,304
강원	614	1,295	802	459	3,170
충북	630	1,279	760	567	3,236
충남	518	1,445	1,529	915	4,407
전북	829	1,818	859	257	3,763
전남	450	1,143	1,934	643	4,170
경북	808	2,109	1,637	945	5,499
경남	1,207	3,199	1,381	1,171	6,958
제주	399	572	345	66	1,382
계	27,600	56,253	12,059	8,078	103,990

주: 총집계수와 분석 가능 집계수 간에는 차이가 있음.

- 가구와 인구 규모를 파악해 보면 전체 가구는 1900만 가구이며, 전체 인구는 4930만 명으로 파악되었음(〈부표 1-2〉 참조).
- 동부의 가구는 전체의 80.7%를 차지하며 읍면부는 19.3%로 나타났고, 인구 규모는 동부가 82%, 읍면부가 18%로 나타났음.
- 전체 인구 중 경기도의 인구 비율이 전체의 24%, 서울이 19%이며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인 인구 비율은 49%로 전체 인구의 절반이 수도권에 밀집되어 있음.

〈부표 1-2〉 모집단 가구 분포

(단위: 천 가구)

구분	동부		읍면부		계
	일반	아파트	일반	아파트	
서울	1,680.1	2,133.1	0.0	0.0	3,813.3
부산	359.4	936.2	12.9	45.9	1,354.4
대구	313.3	547.7	21.5	65.6	948.0
인천	367.0	677.9	30.9	4.5	1,080.3
광주	163.9	411.9	0.0	0.0	575.7
대전	225.4	372.3	0.0	0.0	597.7
울산	84.9	263.6	28.0	52.2	428.7
세종	1.0	59.8	24.7	18.8	104.3
경기	1,356.0	2,456.5	430.1	360.3	4,603.0
강원	126.5	245.6	159.0	89.6	620.7
충북	127.5	236.4	158.3	106.7	629.1
충남	112.9	260.8	286.7	174.6	835.0
전북	164.8	338.2	177.1	48.8	728.9
전남	88.5	218.4	309.4	117.4	733.7
경북	172.0	393.2	346.5	176.2	1,087.9
경남	237.4	582.3	262.3	210.9	1,293.0
제주	69.4	103.6	54.9	12.2	240.2
계	5,650.1	10,237.6	2,302.4	1,483.8	19,673.9

〈부표 1-3〉 모집단 인구 분포

(단위: 천 명)

구분	동부		읍면부		계
	일반	아파트	일반	아파트	
서울	3,621	5,676	0	0	9,296
부산	796	2,381	29	124	3,330
대구	692	1,469	51	179	2,392
인천	841	1,890	70	11	2,812
광주	347	1,104	0	0	1,452
대전	485	1,002	0	0	1,488
울산	188	717	63	147	1,115
세종	3	167	53	47	269
경기	3,066	7,100	1,043	1,003	12,211
강원	270	631	362	216	1,480
충북	288	630	354	273	1,545
충남	235	707	661	453	2,056
전북	364	895	390	123	1,772
전남	198	567	664	305	1,733
경북	367	1,025	745	447	2,584
경남	524	1,566	563	563	3,215
제주	178	271	134	30	614
계	12,463	27,798	5,181	3,921	49,363

〈부표 1-4〉 모집단 인구의 성별 분포

(단위: 천 명)

구분	동부				읍면부			
	일반		아파트		일반		아파트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서울	1,717	1,790	2,648	2,864	0	0	0	0
부산	381	386	1,116	1,199	14	14	58	62
대구	333	336	690	735	26	24	87	87
인천	416	399	897	938	34	32	5	5
광주	171	163	520	552	0	0	0	0
대전	242	226	474	498	0	0	0	0
울산	97	85	352	343	32	29	73	70
세종	1	1	78	83	27	23	23	22
경기	1,516	1,447	3,356	3,531	528	481	487	487
강원	133	127	297	315	178	169	106	102
충북	141	137	298	313	173	165	134	131
충남	118	108	337	346	323	309	223	216
전북	180	170	421	448	184	188	59	60
전남	99	92	272	278	309	323	146	149
경북	182	171	491	503	351	357	216	216
경남	264	242	753	766	263	273	271	275
제주	87	86	130	134	66	65	15	15
계	6,077	5,965	13,131	13,846	2,507	2,451	1,903	1,897

주: 〈표 1-3〉과 〈표 1-4〉의 총합의 차이는 자료에 따른 차이임.

224 사회통합 실태 진단 및 대응 방안 연구(VI): 사회통합 상태 진단

〈부표 1-5〉 시도별 인구의 연령별 분포

(단위: 천 명)

구분	연령대	동부		읍면부		계
		일반	아파트	일반	아파트	
서울	20대 미만	473	1,073	-	-	1,546
	20대	622	704	-	-	1,326
	30대	601	899	-	-	1,500
	40대	546	993	-	-	1,539
	50대	574	897	-	-	1,471
	60대	430	630	-	-	1,060
	70대 이상	340	430	-	-	770
부산	20대 미만	95	426	4	32	557
	20대	116	285	3	10	414
	30대	87	335	4	23	449
	40대	105	386	4	23	518
	50대	144	413	5	15	577
	60대	130	309	5	12	456
	70대 이상	111	206	5	8	330
대구	20대 미만	92	308	6	44	450
	20대	104	167	6	19	296
	30대	82	194	6	35	317
	40대	102	268	7	32	409
	50대	127	252	10	26	415
	60대	98	157	8	14	277
	70대 이상	80	110	8	7	205
인천	20대 미만	131	404	8	2	545
	20대	119	233	5	1	358
	30대	123	295	6	1	425
	40대	135	340	8	2	485
	50대	149	325	13	2	489
	60대	98	171	13	1	283
	70대 이상	78	104	15	1	198
광주	20대 미만	49	261	-	-	310
	20대	59	133	-	-	192
	30대	45	161	-	-	206
	40대	50	203	-	-	253
	50대	58	170	-	-	228
	60대	42	97	-	-	139
	70대 이상	40	69	-	-	109
대전	20대 미만	74	231	-	-	305
	20대	101	115	-	-	216
	30대	63	148	-	-	211
	40대	66	186	-	-	252
	50대	75	159	-	-	234
	60대	55	94	-	-	149
	70대 이상	46	60	-	-	106
울산	20대 미만	26	161	7	36	230
	20대	28	82	7	18	135
	30대	26	115	7	21	169
	40대	29	129	9	30	197
	50대	36	130	12	24	202
	60대	25	66	10	12	113
	70대 이상	16	27	10	6	59

〈부표 1-5〉 시도별 인구의 연령별 분포(계속)

(단위: 천 명)

구분	연령대	동부		읍면부		계
		일반	아파트	일반	아파트	
세종	20대 미만	1	53	7	10	71
	20대	0	13	12	7	32
	30대	0	37	5	7	49
	40대	0	35	6	8	49
	50대	0	16	8	7	31
	60대	0	8	7	4	19
	70대 이상	0	2	8	4	14
경기	20대 미만	476	1,664	149	251	2,540
	20대	473	801	124	101	1,499
	30대	482	1,094	125	160	1,861
	40대	501	1,368	143	193	2,205
	50대	530	1,118	195	143	1,986
	60대	321	586	149	83	1,139
	70대 이상	252	401	149	63	865
강원	20대 미만	37	142	41	47	267
	20대	46	61	38	23	168
	30대	28	86	27	31	172
	40대	35	117	41	36	229
	50대	46	106	72	34	258
	60대	36	63	64	22	185
	70대 이상	38	49	76	21	184
충북	20대 미만	47	146	38	68	299
	20대	51	74	37	27	189
	30대	36	90	28	48	202
	40대	40	118	38	49	245
	50대	47	104	67	39	257
	60대	34	55	63	22	174
	70대 이상	30	37	78	18	163
충남	20대 미만	36	185	74	116	411
	20대	46	80	72	43	241
	30대	35	121	50	78	284
	40대	32	134	71	85	322
	50대	36	101	117	63	317
	60대	25	48	117	36	226
	70대 이상	23	31	153	28	235
전북	20대 미만	58	211	42	29	340
	20대	59	98	30	11	198
	30대	43	120	27	18	208
	40대	50	165	41	21	277
	50대	56	144	68	18	286
	60대	46	87	71	13	217
	70대이상	48	63	107	12	230
전남	20대미만	29	137	74	80	320
	20대	26	57	45	26	154
	30대	21	83	47	46	197
	40대	27	105	71	57	260
	50대	34	96	117	44	291
	60대	29	51	116	26	222
	70대이상	29	32	186	22	269

〈부표 1-5〉 시도별 인구의 연령별 분포(계속)

(단위: 천 명)

구분	연령대	동부		읍면부		계
		일반	아파트	일반	아파트	
경북	20대 미만	54	236	69	101	460
	20대	62	106	65	42	275
	30대	46	153	54	67	320
	40대	49	189	76	81	395
	50대	59	173	136	73	441
	60대	49	101	144	44	338
	70대 이상	44	59	193	34	330
경남	20대 미만	78	365	56	140	639
	20대	79	163	42	50	334
	30대	72	234	43	94	443
	40대	80	299	62	103	544
	50대	93	263	106	85	547
	60대	67	144	107	51	369
	70대 이상	50	82	142	34	308
제주	20대 미만	38	66	23	6	133
	20대	21	29	12	3	65
	30대	26	39	15	4	84
	40대	30	50	22	5	107
	50대	27	43	23	5	98
	60대	17	25	17	4	63
	70대 이상	16	17	22	3	58
계		12,333	27,540	5,131	3,884	48,888

나. 2018년 자료 분석

□ 2018년 사회통합조사의 주요 변수별 만족도에 대한 상대표준오차를 계산하여 변수별 특성을 파악하고자 함.

□ 이를 위해 행복감의 평균점수와 삶의 전반적인 만족도에 대해 지역별, 연령별, 소득 수준별, 가구원 수별, 거주 유형별로 상대표준오차를 각각 추정하였음.

1) 행복감에 대한 분석

□ 2018년 조사 결과 가운데 지역별·연령별 행복감에 대한 상대표준오차를 추정한 결과 전체적으로 2.33~10.53%의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울산지역 40대 이상의

변동이 다른 지역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10.53%), 60~75세에서도 높게 나타남(〈부표 1-6〉 참조).

□ 타 지역에 비해 서울의 상대표준오차가 낮게 나타나고 있어 향후 서울의 표본 규모를 감소시킬 여지가 있음.

〈부표 1-6〉 지역별·연령별 행복감에 대한 상대표준오차

(단위 : %)

구분	응답자 연령대					
	19~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75세	계
서울	3.03	3.25	3.56	4.52	4.32	2.22
부산	4.25	3.97	3.65	4.47	4.00	2.17
대구	4.41	3.79	4.40	4.23	6.27	3.06
인천	3.11	5.32	6.76	4.29	4.81	2.05
광주	6.08	4.13	5.22	5.63	3.29	3.23
대전	6.01	4.49	7.10	5.63	5.35	3.30
세종	5.11	4.54	5.48	4.06	3.50	2.00
울산	5.72	2.70	10.53	7.86	9.93	4.62
경기	3.48	3.47	5.84	4.83	3.90	2.19
강원	6.27	7.65	4.59	4.51	4.59	2.73
충북	4.70	3.43	7.07	4.12	3.61	2.79
충남	3.35	4.76	4.66	5.32	4.27	2.60
전북	6.03	4.91	4.13	3.81	4.92	2.50
전남	6.02	8.22	2.63	7.53	2.33	2.17
경북	5.93	4.80	3.97	5.36	4.53	3.17
경남	3.34	2.47	5.35	5.21	4.02	2.34
제주	5.95	8.64	3.95	8.49	8.02	3.42
계	1.35	1.41	1.85	1.69	1.39	0.81

□ 2018년 조사 결과 가운데 지역별·소득 수준별 행복감에 대한 상대표준오차를 추정한 결과 울산에서 소득 수준별로 상대표준오차가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500만 원 이상의 고소득층의 경우 타 지역에 비해 낮게 나타나고 있음(〈부표 1-7〉 참조).

□ 전체적으로 200만 원 미만 저소득층의 상대표준오차의 변동이 크게 나타나고 있어 향후 저소득층의 표본 규모를 증가시킬 필요가 있음.

〈부표 1-7〉 지역별·소득 수준별 행복감에 대한 상대표준오차

(단위: %)

구분	월 가구소득					계
	200만 원 미만	200만~299만 원	300만~399만 원	400만~499만 원	500만 원 이상	
서울	6.17	4.39	4.67	5.08	2.56	2.22
부산	6.38	3.38	4.49	3.39	3.76	2.17
대구	6.42	4.68	5.85	4.74	3.97	3.06
인천	6.38	6.61	4.25	3.29	3.30	2.05
광주	4.77	2.98	6.05	7.27	7.64	3.23
대전	4.65	8.42	4.45	6.89	4.12	3.30
세종	4.33	4.64	6.16	5.02	2.94	2.00
울산	7.40	3.70	9.76	5.32	6.03	4.62
경기	5.76	5.22	3.04	5.27	3.82	2.19
강원	8.81	4.57	3.38	4.30	3.37	2.73
충북	7.34	4.63	5.54	4.61	2.86	2.79
충남	6.49	5.10	5.07	4.24	2.78	2.60
전북	4.40	4.43	5.54	5.52	3.36	2.50
전남	2.62	6.33	6.07	6.09	4.23	2.17
경북	4.27	5.63	4.85	7.27	4.75	3.17
경남	7.08	4.84	3.43	3.53	4.03	2.34
제주	11.56	9.47	4.96	4.22	4.19	3.42
계	1.87	1.61	1.42	1.71	1.35	0.81

□ 지역별·가구원 수별 행복감에 대한 상대표준오차를 추정된 결과 6인 이상 가구에 서 변동이 매우 심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다음으로 1인 가구의 경우도 변동이 심 하게 나타나고 있음(〈부표 1-8〉 참조).

□ 지역별로는 세종과 울산지역의 변동이 전체적으로 크게 나타나 지역별 표본 규모 에서 두 지역의 표본 규모를 증가시킬 필요가 있으며, 가구원 수별로는 4인 가구 의 상대표준오차가 가장 안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음.

〈부표 1-8〉 지역별·가구원 수별 행복감에 대한 상대표준오차

(단위: %)

구분	가구원 수						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이상	
서울	3.37	4.50	3.64	3.42	6.34	4.99	2.22
부산	8.07	3.56	3.80	3.17	6.05	9.58	2.17
대구	6.82	4.26	5.68	2.66	4.12	0.00	3.06
인천	5.88	4.78	3.06	3.78	7.97	12.67	2.05
광주	4.01	3.23	5.37	6.22	7.17	24.73	3.23
대전	3.58	4.52	5.94	4.79	8.39	-	3.30
세종	12.01	4.51	5.81	3.80	7.73	9.80	2.00
울산	11.80	8.18	2.91	7.77	21.00	0.00	4.62
경기	5.90	4.07	6.22	3.35	5.73	12.99	2.19
강원	6.70	3.25	4.53	3.35	16.77	13.69	2.73
충북	9.25	2.81	3.96	4.16	7.46	3.23	2.79
충남	4.36	4.27	4.99	4.30	6.76	18.38	2.60
전북	4.62	4.32	5.00	4.65	6.24	5.95	2.50
전남	5.24	3.53	5.37	5.16	5.05	3.09	2.17
경북	3.96	3.88	4.62	5.55	6.23	0.00	3.17
경남	7.86	3.91	3.12	3.02	6.73	5.30	2.34
제주	5.87	9.27	6.25	4.63	7.35	10.25	3.42
계	1.99	1.38	1.87	1.24	2.89	3.73	0.81

2) 삶의 전반적인 만족도에 대한 분석

- 2018년 조사 결과 가운데 지역별·연령별 삶의 만족도에 대한 상대표준오차를 추정된 결과 전체적으로 2.51~13.6%의 분포를 보이고 있고 울산지역 60대 이상의 변동이 다른 지역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19~29세에서도 높게 나타남(〈부표 1-9〉 참조).

〈부표 1-9〉 지역별·연령별 삶의 만족도에 대한 상대표준오차

(단위: %)

구분	응답자 연령대					계
	19~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75세	
서울	3.75	2.90	3.49	3.97	5.26	2.09
부산	3.49	4.42	4.98	4.43	4.10	2.55
대구	4.89	4.66	4.44	5.15	4.99	3.27
인천	6.00	4.88	4.87	4.14	5.51	2.30
광주	6.39	6.06	5.00	4.29	2.55	2.80
대전	6.10	3.58	5.63	6.06	4.60	2.95
세종	5.63	5.31	5.54	4.27	4.32	1.93
울산	7.05	3.36	8.79	7.11	13.60	4.30
경기	4.12	4.27	3.95	3.84	4.15	2.04
강원	6.68	7.84	5.08	4.57	3.21	2.38
충북	4.29	3.54	4.99	4.06	4.22	2.43
충남	3.39	5.17	5.62	4.29	3.77	2.33
전북	6.89	3.85	4.50	4.04	4.14	2.17
전남	7.45	8.49	2.85	7.78	2.51	2.38
경북	4.35	4.38	3.60	5.07	4.27	2.60
경남	3.50	3.00	3.90	3.20	4.26	2.07
제주	8.84	6.91	3.57	7.53	9.84	2.18
계	1.61	1.55	1.41	1.44	1.49	0.76

□ 2018년 조사 결과 가운데 지역별·소득 수준별 삶의 만족도에 대한 상대표준오차를 추정된 결과 전체적으로 2.71~12.02%의 분포를 보이고 울산의 소득 수준별 상대표준오차가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월소득 200만 원 미만 저소득층의 상대표준오차가 크게 변동하고 있어, 저소득층의 표본 규모를 증가시킬 필요가 있음(〈부표 1-10〉 참조).

□ 가구원 수별로는 5인 및 6인 이상 가구의 상대표준오차가 심하게 변동하고 있으며, 1인 가구의 경우 지역별로 변동이 심하게 나타나지만, 전체적으로는 1.71%로 낮게 나타남. 그러나 세종과 울산은 높게 나타나고 있음(〈부표 1-11〉 참조).

□ 지역별로는 울산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변동이 심하게 나타나고 있어 표본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상대적으로 4인 가구의 상대표준오차가 가장 안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음.

〈부표 1-10〉 지역별·소득 수준별 삶의 만족도에 대한 상대표준오차

(단위: %)

구분	월 가구소득					계
	200만 원 미만	200만~299만 원	300만~399만 원	400만~499만 원	500만 원 이상	
서울	6.15	4.62	4.13	4.08	2.65	2.09
부산	6.18	4.65	3.52	4.01	3.74	2.55
대구	4.26	4.63	5.50	6.16	4.23	3.27
인천	8.18	4.54	5.18	4.18	2.84	2.30
광주	4.17	4.08	5.34	5.85	6.39	2.80
대전	4.95	7.57	4.67	11.59	2.55	2.95
세종	6.25	7.83	4.39	4.31	2.62	1.93
울산	8.02	11.19	8.20	4.18	4.27	4.30
경기	6.65	4.17	3.24	4.85	2.81	2.04
강원	4.47	4.46	4.54	3.77	3.91	2.38
충북	3.19	5.52	3.16	6.03	3.19	2.43
충남	4.85	4.42	5.01	4.78	3.43	2.33
전북	4.94	4.23	4.74	5.02	3.73	2.17
전남	3.14	6.26	6.12	5.42	4.27	2.38
경북	3.68	6.11	4.92	4.14	3.29	2.60
경남	5.83	4.44	2.71	3.47	3.70	2.07
제주	12.02	6.21	4.24	7.48	4.47	2.18
계	1.90	1.48	1.33	1.63	1.20	0.76

〈부표 1-11〉 지역별·가구원 수별 삶의 만족도에 대한 상대표준오차

(단위 : %)

구분	가구원 수						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이상	
서울	3.80	4.64	3.16	3.20	5.81	7.22	2.09
부산	7.10	3.75	3.80	3.78	7.06	9.58	2.55
대구	6.44	4.33	5.08	4.41	4.53	0.00	3.27
인천	7.44	5.40	3.81	3.71	10.39	12.67	2.30
광주	2.39	3.03	4.81	5.20	9.89	24.73	2.80
대전	5.27	4.53	5.06	4.98	5.73	-	2.95
세종	8.30	5.50	5.82	4.53	6.81	31.79	1.93
울산	8.02	8.28	5.58	5.21	22.42	0.00	4.30
경기	5.72	3.45	4.86	3.15	5.08	19.60	2.04
강원	4.23	4.36	4.11	4.06	16.29	8.44	2.38
충북	4.80	3.08	4.36	3.58	8.22	4.85	2.43
충남	4.15	3.66	5.62	4.15	7.15	18.38	2.33
전북	4.65	3.97	4.39	3.86	4.13	8.38	2.17
전남	4.87	3.93	5.36	4.69	8.09	2.57	2.38
경북	3.49	3.89	3.64	4.24	7.18	0.00	2.60
경남	5.17	3.21	4.68	3.16	4.37	7.86	2.07
제주	7.86	6.74	6.44	5.13	6.53	3.93	2.18
계	1.71	1.31	1.62	1.20	2.78	4.84	0.76

2. 표본 설계

가. 표본 규모의 결정

□ 층화표본추출의 경우 비례배분의 가정하에서 전체 표본 규모를 결정하기 위한 산식은 다음과 같음.

$$n = \frac{\sum_{h=1}^L N_h S_h^2}{ND + \sum_{h=1}^L W_h S_h^2},$$

○ 여기서 S_h^2 은 h 층의 모집단 분산이며, $W_h = N_h/N$ 이고, $D = B^2/4$ 임.

나. 표본배분 방법

□ 방안 1: 지역별 집계구 수에 대한 제곱근 비례배분

- 지역별로 2018년 조사와 동일한 규모로 표본 집계구를 추출하여 자료의 시계열성이 유지되는 장점이 있음.
- 기존의 조사 결과를 활용하지 않고, 단순히 모집단 자료만을 이용하는 단점이 있음.

〈부표 1-12〉 표본 집계구 배분: 방안 1

(단위: 개)

구분	동부		읍면부		계
	일반	아파트	일반	아파트	
서울	21	25	-	-	46
부산	10	16	2	4	32
대구	9	13	2	4	28
인천	10	14	3	2	29
광주	7	11	-	-	18
대전	8	11	-	-	19
울산	5	9	3	4	21
세종	1	5	2	2	10
경기	19	28	11	11	69
강원	6	8	7	5	26
충북	6	8	6	6	26
충남	5	9	9	7	30
전북	7	10	7	4	28
전남	5	8	10	6	29
경북	7	11	9	7	34
경남	8	13	9	8	38
제주	5	6	4	2	17
계	139	205	84	72	500

□ 방안 2: 층별 거처 수의 변동에 따른 네이만 배분

- 시도별 표본 규모의 편차가 심하게 나타나고 있어 전체적으로 안정적이지 않은 방법임.
- 방안 1과 마찬가지로 조사 자료를 활용하지 않고, 모집단 자료만을 활용하는 단점이 있음.

〈부표 1-13〉 표본 집계구 배분: 방안 2

(단위: 개)

구분	동부		읍면부		계
	일반	아파트	일반	아파트	
서울	35	57	0	0	92
부산	8	26	0	1	35
대구	6	14	1	2	23
인천	10	17	1	0	28
광주	4	12	0	0	16
대전	5	9	0	0	14
울산	2	6	1	1	10
세종	0	2	1	0	3
경기	39	62	10	9	120
강원	3	6	4	2	15
충북	3	7	4	3	17
충남	3	7	7	5	22
전북	4	9	4	1	18
전남	2	6	12	3	23
경북	4	10	8	4	26
경남	6	14	7	5	32
제주	2	2	2	0	6
계	136	266	62	36	500

□ 방안 3: 2018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삶의 만족도에 대한 상대표준오차를 기준으로 배분

- 2018년 조사와 유사한 수준으로 추정치의 오차를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방안 1보다 효율적인 방법임.
- 방안 1과 방안 2의 단점을 보완하고 주기성 조사에서 시계열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다음과 같은 산식을 통해 2019년 표본을 산출함.

$$n_h^{(2019)} = n_h^{(2018)} \times \left(\frac{CV_h^{(2018)}}{CV_h^{(2019)}} \right)^2$$

- 삶의 만족도를 기준으로 일반 주택과 아파트의 목표오차를 각각 3~7%, 2~5%로 관리하도록 지역별 표본을 배분하고, 다음으로 동부와 읍면부의 가구 수에 따라 비례배분함.
- 배분 결과 방안 1보다는 동부의 아파트 집계구가 많이 배분되었고, 상대적으로 읍면부 표본이 적게 배분되었음.

〈부표 1-14〉 표본 집계구 배분: 방안 3

(단위: 개)

구분	동부		읍면부		계
	일반	아파트	일반	아파트	
서울	27	20	-	-	47
부산	16	19	1	1	37
대구	13	15	1	2	31
인천	27	12	2	-	41
광주	11	12	-	-	23
대전	8	9	-	-	17
울산	7	3	2	1	13
세종	-	5	9	2	16
경기	25	7	8	1	41
강원	6	9	7	3	25
충북	4	14	6	7	31
충남	6	7	16	5	34
전북	6	9	7	1	23
전남	4	8	14	5	31
경북	7	13	14	6	40
경남	6	7	7	2	22
제주	8	13	6	1	28
계	181	182	100	37	500

다. 표본 집계구 대체

- 조사 과정에서 응답 거부 또는 재개발 등으로 인한 집계구 소멸 등의 사유로 조사가 불가능한 경우 동일 지역의 집계구로 대체하도록 함.

라. 가구 내 응답자 선정 방법

- 이 조사는 표본 가구 내에서 대표 응답자를 선정하여 조사하는 방법으로 대표 가구원의 선정은 Kish(1987)에 의해 제안된 방법을 이용할 수 있으나, 조사 현장에서 조사원이 방법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생일법(last birthday)”을 이용할 수 있을 것임.
- 즉, 조사 시점을 기준으로 19세 이상 가구원 중 가장 근접한 시점의 생일인 가구원을 선정하여 이들로부터 응답을 받는 방법을 적용함(2019년 5월 현재 만 19~75세).

- 예를 들어 가구주 및 배우자 2인과 만 19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의 경우 대표 가구원 선정 대상은 가구주 또는 배우자이며, 이들 2명 중 조사 시점을 기준으로 생일이 가장 빠른 사람으로부터 응답을 받는 방법임.
- 그러나 조사 과정에서 빠른 생일자를 접촉하기 어려운 경우 가구주 또는 배우자를 응답 가구원으로 선정하여 조사를 완료하도록 함.

4. 추정 방법

가. 가중치의 계산

- 층별 모집단 규모에 따른 비례배분인 경우 자체 가중치로 처리가 가능하지만, 모집단 분포와 표본분포가 다르기 때문에 각 층에 대한 가중치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이 조사는 표본 집계구에서 표본가구를 선정하기 때문에 설계 가중치를 기본 가중치로 고려한 후 지역별, 조사구별, 가구원 수별로 서로 다른 가중치를 부여하는 과정이 필요함.

N : 모집단 총집계구 수($=\sum_{h=1}^H N_h$)

N_h : h 층의 모집단 집계구 수

n_h : h 층의 표본 집계구 수

M_{hi} : h 층의 i 번째 집계구의 총가구 수

m_{hi} : h 층의 i 번째 집계구 내 표본 가구 수

x_{hij} : h 층의 i 번째 집계구 내 j 번째 표본가구에서 만 18세 이상 가구원 수

r_{hi} : h 층의 i 번째 집계구의 응답 가구 수

w_{hij} : h 층의 i 번째 집계구의 j 번째 가구의 추출가중치

w_{hi}^r : h 층의 i 번째 집계구의 무응답 조정가중치

w_{hij}^p : h 층의 i 번째 집계구의 j 번째 가구의 사후가중치

W_{hij} : h 층의 i 번째 집계구의 j 번째 가구의 최종 가중치

① h 층의 j 번째 집계구의 i 번째 가구의 기본 가중치

$$w_{hij} = \frac{M_{hi}}{m_{hi}} \times x_{hij} \quad (1)$$

② 무응답 조정가중치

$$w_{hij}^r = w_{hij} \times \frac{m_{hi}}{r_{hi}} \quad (3)$$

③ 최종 가중치

$$W_{hij} = w_{hi}^r \times w_{hij}^p \quad (4)$$

나. 추정치의 계산

□ 평균 소득 및 지출

$$\widehat{Y} = \frac{\sum_h^L \sum_i^{n_h} \sum_j^{m_{hi}} W_{hij} y_{hij}}{W_{\dots}} \quad (5)$$

○ 여기서 $W_{\dots} = \sum_{h=1}^L \sum_{i=1}^{n_h} \sum_{j=1}^{m_{hi}} W_{hij}$ 이며, h 는 층을 나타내는 첨자로서 지역과 동부, 읍면부를 나타낸다. i 는 표본가구를 나타내는 첨자로서 $i = 1, 2, \dots, n_h$ 임.

○ 표본평균 \widehat{Y} 의 분산 추정치

$$\widehat{V}(\widehat{Y}) = \sum_{h=1}^L \frac{n_h(1-f_h)}{n_h-1} \sum_{i=1}^{n_h} (e_{hi} - \bar{e}_{h..})^2 \quad (6)$$

여기서 $e_{hi} = \left(\sum_{j=1}^{m_{hi}} W_{hij} (y_{hij} - \widehat{Y}) \right) / W_{\dots}$, $\bar{e}_{h..} = \sum_{i=1}^{n_h} e_{hi} / n_h$ 이다.

$$SE(\widehat{Y}) = \sqrt{\widehat{V}(\widehat{Y})}$$

○ 상대표준오차

$$\widehat{CV}(\widehat{Y}) = \frac{SE(\widehat{Y})}{\widehat{Y}} \times 100\% \quad (7)$$

【부록 2】 사회통합 상태 진단을 위한 실태조사 설문지

이 조사표에 기재된 내용은 통계법 제33조 및 34조에 의하여 비밀이 보장됩니다.

집계구
번호

응답자
ID

사회통합 상태진단을 위한 실태조사



안녕하세요?

저는 조사전문기관인 한국리서치의 면접원 _____입니다.

저희는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의뢰로 「사회통합 상태 진단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응답해 주시는 내용은 다른 분들의 의견과 함께 집계분석되어 우리나라의 사회통합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는 기초자료로 사용될 것입니다.

본 조사의 응답내용은 통계법 제33조 및 제34조에 의거 통계목적에만 사용되고 그 비밀은 반드시 보장됩니다. 귀하의 응답은 정부의 올바른 정책수립에 귀중한 기초자료로 이용되오니 시간을 내어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2019년 6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주관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기관 Hankook Research	문의처 한국리서치 김지혜 팀장 02-3014-0122
------------------------------	-------------------------------------	--

집계구 번호	표본가구 여부	① 표본가구	② 대체가구
	가구원 대체 여부	① 빠른생일자	② 대체가구원
응답자 선정	★ 만19~75세의 가구원 중 생일이 가장 빠른 가구원을 본 조사의 응답자로 선정합니다(주민등록 생월일기준). ★ 만19세 이상(2000년 5월 31일 이전 출생에서 만75세 이하(1943년 5월 31일 이후 출생)가 응답합니다.		
응답자 이름 (빠른생일자)	응답자 연락처 (빠른생일자)	-	-
응답자 성별 (빠른생일자)	① 남 ② 여	응답자 나이 (빠른생일자)	만 _____ 세 - 만18세 이하, 만76세 이상 조사 중단
주소	시/도 _____ 시/군/구 _____ 읍/면/동 _____ (세부주소)		
응답자 (빠른생일자)의 가구주와의 관계	① 가구주 본인 ② 가구주의 배우자 ③ 기타	가구주 및 가구주 배우자 응답 도움 여부	① 예 ② 아니오
※ 가구주란, 세대주와 관계없이 가구를 실질적으로 대표하고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		유치조사 여부	① 예 ② 아니오
1차 방문	월 일/ 시 분	방문결과	<input type="checkbox"/> 1) 조사완료 <input type="checkbox"/> 2) 응답거절 <input type="checkbox"/> 3) 부재중 <input type="checkbox"/> 4) 미완성 <input type="checkbox"/> 5) 조사불가
2차 방문	월 일/ 시 분	방문결과	<input type="checkbox"/> 1) 조사완료 <input type="checkbox"/> 2) 응답거절 <input type="checkbox"/> 3) 부재중 <input type="checkbox"/> 4) 미완성 <input type="checkbox"/> 5) 조사불가
3차 방문	월 일/ 시 분	방문결과	<input type="checkbox"/> 1) 조사완료 <input type="checkbox"/> 2) 응답거절 <input type="checkbox"/> 3) 부재중 <input type="checkbox"/> 4) 미완성 <input type="checkbox"/> 5) 조사불가
4차 방문	월 일/ 시 분	방문결과	<input type="checkbox"/> 1) 조사완료 <input type="checkbox"/> 2) 응답거절 <input type="checkbox"/> 3) 부재중 <input type="checkbox"/> 4) 미완성 <input type="checkbox"/> 5) 조사불가
최종면접일시	월 일 시 분	면접시간	_____ 분
면접원 성명		면접원 ID	
수퍼바이저 검증		검증결과	



1. 가구 일반 사항

※ 가구 상황을 잘 모르시는 경우 가구 상황을 가장 잘 아시는 가구주나 가구주의 배우자의 도움을 받아 응답해 주십시오.
 ※ 2019년 5월 31일을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문1. 귀택의 가구원수는 몇 명이십니까? 그리고 가구원 중 다음의 가구원은 몇 명이십니까?

구분	가구원수
1-1. 생계를 같이하는 가구원 수 (본인 포함) ※ 직장 때문에 따로 사는 가장, 학생, 기타의 이유로 같이 살고 있지 않은 가족도 포함 즉, 주거를 같이 하지 않더라도 소득을 공유하는 가족은 포함	명
1-2. 가구원 중 노인 수 ※ 만 65세 이상으로 주민등록기준 1954년 5월 31일 이전 출생한 자	명
1-3. 가구원 중 장애인 수 ※ 등록장애인(1~6등급) 기준, 국가보훈처 등록장애인(7~15등급)은 제외함	명
1-4. 가구원 중 만성질환자 수 ※ 만성질환이란, 3개월 이상 투병-투약하는 경우임 (경제적 사정으로 투약하고 있지 못하는 경우도 만성질환자에 포함, 질병 범위 면집월 지침서 참조)	명
1-5. 가구원 중 아동 수 ※ 만18세 미만으로 주민등록기준 2001년 5월 31일 이후 출생한 자	명
1-6. 가구원 중 실업자 수 ※ 2019년 5월 31일 기준, 지난 4주 동안 일을 하지 않고 구직활동 중인 자	명
1-7. 가구원 중 금융채무 불이행자(신용불량자) 수 ※ 2019년 5월 31일 기준, 3개월 이상 연체금액이 50만원을 초과하여 금융권에서 신규 대출이나 카드 발급 등이 제한된 자	명

문2. 귀택의 가구형태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되십니까?

- ① 단독가구(1인 가구)
- ② 모자가구(모와 만 18세미만 자녀, 단 취학(휴학)시 만 22세 미만)
- ③ 부자가구(부와 만 18세미만 자녀, 단 취학(휴학)시 만 22세 미만)
- ④ 조손가구(조부모와 만 18세 미만의 손자녀만으로 이루어진 가구)
- ⑤ 기타(일반가구)

※ 단위는 만원으로 작성하되 반올림하여 처리합니다. (예: 11만5천원의 경우 12만원으로 기입)

문3. 귀택의 총 생활비에 대한 질문입니다.

구분	해당항목	월평균 금액
총 생활비	지난 3개월(2019.3.1.~2019.5.31.) 동안 지출하신 월평균 생활비는 얼마입니까?	만원 천 백 십 일
	※총생활비는 【식료품비+주거비+광열수도비+가구진가사용품비+피복신발비+보건의료비+교육비+교양오락비+교통통신비+기타소비지출+비소비지출】 로 구성됩니다. ※가정생활을 위해 실제로 지출한 비용만 포함합니다. 따라서 사업용도의 비용은 제외합니다. ※저금, 저축성보험료, 계 부은 금액 등 재산 증가를 위한 지출도 제외합니다. - 단, 매월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이자, 할부금, 부채상환금은 포함합니다. ※할부 구매의 경우 월 할부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예) 2019년 1월 1,200만원짜리 자동차를 24개월 무이자 할부시→월 50만원 지출 ※친인척 및 이웃 등으로부터 보조받은 각종 현물(식료품, 의료, 난방용품 등)은 현금으로 환산하여 생활비에 포함하여 주십시오. - 단,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받은 현물, 서비스 및 비우체 형태의 지원(정부보육료, 무상급식 등)은 제외합니다.	

문4. 귀댁의 생활비 중 교육비, 의료비, 월세액에 대한 질문입니다.

구분	해당항목	월평균 금액 (※ 없음 0)
4-1	교육비	총 생활비 중에서 지난 3개월(2019.3.1.~2019.5.31.) 동안 지출하신 월평균 교육비는 얼마입니까? <small>※ 교육비 = 공교육비 + 사교육비 - 공교육비 : 등록금(초·중·고·대학·대학원), 납입금, 입학금, 교재비, 문방구비, 보충수업비(모든 학생이 다 하는 경우), 유학비, 아외학습비, 수험여행비 등 - 사교육비 : 학원비, 유치원비, 도서관 및 독서실 이용, 과외수업비, 검정고시비, 학생의 어학연수비, 학습바우처 등</small>
		만원 천 백 십 일
4-2	의료비	총 생활비 중에서 지난 3개월(2019.3.1.~2019.5.31.) 동안 지출하신 월평균 의료비는 얼마입니까? <small>※ 입원비, 외래진료비, 치료진료비, 수술비(임플란트, 성형수술 등도 포함), 약값, 간병비, 산후조리비, 건강진단비, 건강보조식품, 보건의료용품(안경, 콘택트렌즈 등), 보정구, 치료용바우처(비만아동바우처) 이용료 등이며, 본인부담금만 기입</small>
		만원 천 백 십 일
4-3	월세액	총 생활비 중에서 지난 3개월(2019.3.1.~2019.5.31.) 동안 지출하신 월평균 월세액은 얼마입니까? <small>※ 자가주택이나 전세인 경우에는 '0' 을 기입 ※ 3개월 이내 이사 혹은 계약약한 경우, 이사 혹은 계약약한 주택의 월평균 월세액을 기입</small>
		만원 천 백 십 일

문5. 지난 3개월(2019.3.1.~2019.5.31.) 동안 귀댁의 가구원 중 누구라도 아래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구분	해당항목	받았다	아무도 받지 않았다	모르겠다
5-1	생계급여 <small>※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와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 -매월 정기 적으로 현금으로 지급 일반생계급여, 시설통합급여에 대한 생계급여, 긴급 생계급여, 초·경부 생계급여 등</small>	①	②	③
5-2	주거급여 <small>※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수준을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 -임차가구는 전월세 비용 지원, 자가가구는 집수리 지원</small>	①	②	③
5-3	교육급여 <small>※ 학교 또는 시설(특수학교 등)에 다니는 초·중·고생에게 입학금 및 수업료(고등학생), 교과서대(부교재비 포함)(고등학생), 부교재비(초, 중학생) 및 학용품비(중, 고등학생) 등 지원 -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 대금은 수급자의 계좌로 직접 지급되나 수업료는 학교로 지급 ◆ 각 교육청에서 시행하는 '교육비지원사업'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등 지원)은 포함하지 않음</small>	①	②	③
5-4	의료급여 <small>※ 질병, 부상, 출산 등의 상황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무료 혹은 낮은 본인부담으로 이용</small>	①	②	③

문6. 지난 3개월(2019.3.1.~2019.5.31.) 동안 귀댁 전체 가구 총소득과 귀하의 근로소득에 대한 질문입니다. 세전소득을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구분	해당항목	월평균 금액 (※ 없음 0)
6-1	'가구' 총소득	지난 3개월(2019.3.1.~2019.5.31.)동안 귀댁의 월평균 총 가구소득은 얼마입니까? <small>※ 총 소득= 가구원 전체 근로소득+재산소득+사적 이전소득+공적 이전소득 ※ 공적이전소득은 현금으로 가계에 유입된 소득만 포함하고, 환물 및 바우처 형태의 지원은 제외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기초연금, 양육수당, 장애연금 등 포함)</small>
		만원 천 백 십 일
6-2	'응답자' 근로소득	지난 3개월(2019.3.1.~2019.5.31.)동안 귀하의 월평균 근로소득은 얼마입니까? <small>※ 근로소득= 임금 + 사업소득(자영업소득 포함) ※ 사업소득자는 순소득(총소득-경비)</small>
		만원 천 백 십 일



II. 응답자 일반 사항 (*이하 문항은 '빠른 생일자'께서 응답)

문12. 귀하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

문항		보기 (*해당사항에 체크)		
12-1	가구주와의 관계	① 가구주	② 배우자	③ 자녀
		④ 자녀의 배우자	⑤ 부모	⑥ 배우자의 부모
		⑦ 손자녀	⑧ 기타	
* 가구주란 세대주와는 관계없이 그 가구를 실질적으로 대표하고 사실상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				
12-2	태어난 연도 (주민등록상 생년)	_____ 년생		
12-3	성 별	① 남성	② 여성	
12-4	교육수준 (졸업 기준)	① 무학	② 초등학교 졸	③ 중학교 졸
		④ 고등학교 졸	⑤ 대학 졸(전문대학 포함)	⑥ 대학원 이상
* 재학 및 중퇴는 한 단계 아래 학력 기재 (예 : 중학교 재학이나 중퇴는 ②초등학교 졸)				
12-5	혼인상태	① 유배우	② 별거	③ 사별
		④ 이혼	⑤ 미혼(미혼 부·모 포함)	
12-6	주관적 건강상태	① 매우 좋다	② 좋다	③ 보통이다
		④ 나쁘다	⑤ 매우 나쁘다	
12-7	만성질환 유무	① 만성질환 없음		
		② 3개월 미만 투병, 투약하고 있다		
		③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투병, 투약하고 있다		
		④ 6개월 이상 투병, 투약하고 있다		
12-8	장애 여부	① 장애인 아님		
		② 등록 장애인 (→ 장애등급 : ① 1급 ② 2급 ③ 3급 ④ 4급 ⑤ 5급 ⑥ 6급)		
		③ 비등록 장애인(7급 이상, 보훈처 등록장애인 포함)		

문13. 귀하의 현재 경제활동 참여 상태는 어떻게 되십니까?

- ① 상용직 임금근로자 → 문14-1로
- ② 임시직 임금근로자 → 문14-1로
- ③ 일용직 임금근로자(자활근로, 공공근로, 노인일자리 포함) → 문14-1로
- ④ 고용주 → 문14-1로
- ⑤ 자영업자 → 문14-1로
- ⑥ 무급가족종사자 → 문14-1로
- ⑦ 실업자(*2019. 5. 31. 기준 지난 4주 동안 일하지 않고 구직활동중인 경우임) → 문13-1로
- ⑧ 비경제활동인구(주부, 학생, 군복무 등) → 문15로

문13-1. (문13에서 ⑦ 실업자만) 귀하는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구직활동) 기간이 얼마나 되셨습니까?

년 개월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표시)

→ 응답 후 문15로 이동

※ 문14-1 ~ 문14-5는 취업자만 응답합니다.

문14-1. 귀하의 직업은 어떻게 되십니까?

- ① 관리자
- ②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 ③ 사무 종사자
- ④ 서비스 종사자
- ⑤ 판매종사자
- ⑥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 ⑦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 ⑧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종사자
- ⑨ 단순노무종사자
- ⑩ 군인

문14-2. 귀하의 일주일 평균 일하는 시간은 몇 시간입니까? 초과 근로시간을 포함해 응답해 주십시오.

■ 1주 평균 시간 → 응답 후 문13에서 비임금근로자(④~⑥)는 문14-5로 이동

문14-3. (문13의 ①~③ 임금근로자만) 귀하의 근로시간 형태는 어떻게 되십니까?

- ① 전일제(풀타임)
- ② 시간제(파트타임)

※ 전일제 : 직장(일)에서 정한 소정의 근로시간대에 정상적으로 출근하여 정상 근로시간동안 근로(주당 정규근로시간이 36시간 이상)
 ※ 시간제 : 동일 사업장에서 동일한 종류의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소정 근로시간보다 1시간이라도 짧은 근로자 (주당 정규근로시간이 36시간 미만)

→ 문13에서 '①상용직 근로자' 는 문14-4로 이동
 → 문13에서 '임시·일용근로자(②~③)' 는 문14-5로 이동

문14-4. (문13의 ① 상용직 임금근로자만) 귀하의 고용형태는 어떻게 되십니까?

- ① 정규직
- ② 비정규직

문14-5. (모든 취업자) 귀하의 직업과 직장에서의 직위가 어느 정도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높다	높은 편이다	보통 수준이다	낮은 편이다	매우 낮다
(1) 경제적 보상(임금 또는 수입 수준)	①	②	③	④	⑤
(2) 전문성(국가공인자격증 여부, 업무처리를 위한 숙련수준 등)	①	②	③	④	⑤
(3) 사회적 위상·위세(직업군을 바라보는 사회의 시선)	①	②	③	④	⑤
(4) 일의 자율성(본인 업무를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권한, 독립적 오피스 등)	①	②	③	④	⑤
(5) 조직통제권한(관련 업무의 지시권한, 조직의 관리 권한 등)	①	②	③	④	⑤

※ 이하 모든 응답자 응답

문15. 귀하는 현재 다음의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까?

	가입되어 있다	가입되어 있지 않다	연금을 받고 있다	모르겠다
(1) 국민연금(특수직역 연금 포함)	①	②	③	④
(2) 건강보험(피부양자 포함)	①	②		④
(3) 고용보험	①	②		④
(4) 산재보험	①	②		④

※ 특수직역연금은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 등이 해당됩니다.



Ⅲ. 행복 및 사회통합 인식

문16. 귀하는 어제 어느 정도 행복하십니까?

전혀 행복하지 않았다		←				보통		→				매우 행복했다	
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문17. 귀하는 행복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2가지를 순서대로 응답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	--	-----	--

- ① 공정한 민주사회에 사는 것
- ② 적절한 수입
- ③ 친밀한 관계
- ④ 신체적 건강
- ⑤ 성취감과 몰입을 주는 일이 있는 것
- ⑥ 자신의 가치관과 결부된 삶의 목표
- ⑦ 안정적인 일자리
- ⑧ 삶의 의미와 목적을 제공하는 가치관/종교

문18. 귀하는 어제 어느 정도 우울하십니까?

전혀 우울하지 않았다		←				보통		→				매우 우울했다	
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문19. 귀하는 요즘 삶에 전반적으로 만족하십니까?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				보통		→				매우 만족한다	
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문20. 귀하는 최근 한달 동안 얼마나 자주 '외로움' 을 느끼셨나요?

- ① 항상 느끼고 있다
- ② 자주 느끼는 편이다
- ③ 가끔 느끼는 편이다
- ④ 전혀 느끼지 못했다

문21. 귀하는 전반적으로 볼 때, 우리사회가 다음 중 어떤 사회에 가깝다고 평가하십니까?

차별과 소외가 심한 사회					배려와 포용의 사회					
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서로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사회					서로 믿고 살아가는 사회					
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활력 없고 침체된 사회					활력 있고 희망찬 사회					
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경제적 불안, 미래에 대한 불안이 가득한 사회					경제적 희망,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는 사회					
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서로의 주장만 내세우고 남을 배려하지 않는 갈등이 심한 사회					서로의 의견을 경청하고, 이해하려 노력하는 사회					
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문22. 귀하는 현재 우리나라가 사회통합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전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보통				매우 잘 이뤄지고 있다			
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문23. 귀하는 사회통합이 잘 되기 위해서 다음 각각의 중요도는 어느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사회통합이 잘 되기 위해서,	별로 중요하지 않다	조금 중요하다	대체로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1)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국민을 지원하는 것	①	②	③	④
(2)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사회를 이루는 것	①	②	③	④
(3) 남성과 여성의 처우 차이를 줄이는 것	①	②	③	④
(4)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처우 차이를 줄이는 것	①	②	③	④
(5)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소득 차이를 줄이는 것	①	②	③	④
(6) 사회구성원이 문화적 다양성(이민자, 성소수자, 북한이탈주민 등)을 인정하는 것	①	②	③	④
(7) 사회구성원이 서로 믿고 살아가는 것	①	②	③	④
(8) 사회구성원이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	①	②	③	④
(9) 법·규칙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	①	②	③	④
(10) 사회구성원 각자가 주어진 역할에 충실한 것	①	②	③	④
(11) 사회 고위층에 상응하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노블레스 오블리주)	①	②	③	④
(12) 사회구성원이 자기만을 생각하지 않고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것	①	②	③	④
(13) 사회구성원이 여러 모임 등에서 다양하게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	①	②	③	④
(14) 충분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	①	②	③	④
(15) 노력한 만큼 대가를 얻는 사회를 만드는 것	①	②	③	④
(16) 중산층이 두터운 사회를 만드는 것	①	②	③	④
(17) 일자리를 가질 기회가 많은 사회를 만드는 것	①	②	③	④
(18) 서로 다른 집단 간의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것	①	②	③	④
(19) 정부가 나서서 갈등을 잘 조정하는 것	①	②	③	④
(20) 서로 다른 집단 간에 양보와 협력이 이뤄지는 것	①	②	③	④



IV. 사회적 포용

문24. 귀하는 다음 의견에 어느 정도 동의 또는 반대하십니까?

	매우 동의한다	약간 동의한다	동의도 반대도 아니다	약간 반대한다	매우 반대한다
(1) 한국의 소득 격차는 너무 크다	①	②	③	④	⑤
(2) 고소득자와 저소득자 사이의 소득격차를 줄이는 것은 정부의 책임이다	①	②	③	④	⑤
(3) 정부는 실업자에게 적절한 수준의 삶을 제공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4) 정부는 빈곤한 사람들에게 주는 혜택을 줄여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문25. 우리사회의 소득계층을 다섯 집단으로 구분할 때, 귀하는 다음 중 어느 계층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층	중하층	중간층	중상층	상층
①	②	③	④	⑤

문26. 귀하는 지난 1년 동안 가난하다고 느낀 적이 있습니까?

(※절대적 빈곤 여부와 상관없이 '가난하다' 고 느낀 경험을 기준으로 응답해주세요)

- ① 항상 가난하다고 느낀다
- ② 가끔 가난하다고 느낀 적이 있다
- ③ 가난하다고 생각한 적이 전혀 없다

문27. 과거부터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생활수준에 비추어볼 때, 귀하가 살면서 스스로 '내가 가난하다' 고 느끼며 살았던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 ① 항상 가난하게 살았다 → 문27-1로
- ② 삶의 대부분을 가난하게 살았다 → 문27-1로
- ③ 삶의 일부는 가난하게 살았다 → 문27-1로
- ④ 짧게나마 가난하게 살았던 적이 있다 → 문27-1로
- ⑤ 가난하게 산 적이 없다 → 문28로

문27-1. 귀하께서 가난하게 살았던 시기를 모두 응답해 주세요.

- ① 아동·청소년기(19세 이하)
- ② 청년기(20-30대)
- ③ 중장년기(40-50대)
- ④ 노년기(60대 이상)

문28. 귀택은 평소 아래의 사회 시설을 이용하십니까, 이용하지 않으십니까?

		불편함 없이 이용함	불편하지만 이용함	불편해서 이용안함	필요하지 않아서 이용안함	여유가 없어서 이용안함
1) 문화시설	극장, 미술관, 박물관 등	①	②	③	④	⑤
2) 교육시설	유치원, 초중고, 학원 등	①	②	③	④	⑤
3) 의료시설	병원, 의원, 한의원, 약국 등	①	②	③	④	⑤
4) 안전시설	소방서, 경찰서, 파출소 등	①	②	③	④	⑤
5) 생활편의시설	시장, 슈퍼마켓 등	①	②	③	④	⑤
6) 대중교통	버스, 지하철 등	①	②	③	④	⑤

문29. 지난 1년 동안의 경제적 상황을 감안하였을 때, 귀택에서는 다음과 같은 환경을 갖추고 계셨습니까?

※ 경제적 여력은 되나, 개인의 선호에 따라 하고(갖고) 있지 않거나 대체소비를 하고 있는 경우 ≡ '①하고(갖고) 있다' 로 응답
 ※ 아래의 문항들 중 필요가 없었던 경우 ≡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으면 '①하고(갖고) 있다' 로 응답
 (예: (7) 이가 아프지 않았으나, 아팠을 경우를 가정하고 치과에 갈 수 있었다면 '①하고(갖고) 있다' 로 응답)

우리 가정에서는		하고 (갖고) 있다	못 하고 (못 갖고) 있다	
식생활	(1)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한번 이상 고기나 생선을 사먹는다	①	②	
	(2)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한번 이상 신선한 과일을 사먹는다	①	②	
	(3) 가끔 기호식품(차, 커피, 과자류, 아이스크림, 음료 등)을 사먹는다	①	②	
의생활	(4) 매우 추운 날 입을 수 있는 외투(코트, 파카, 털이나 가죽옷 등)를 두 벌 정도는 가지고 있다	①	②	
	(5) 예식장 갈 때와 같은 특별한 날에 입을 수 있는 여름과 겨울 각각의 정장을 한 벌 정도는 가지고 있다	①	②	
의료 및 건강	(6) 질병으로 오랫동안(3개월 이상) 앓고 있는 경우 정기적으로 진료 받고(받을 수) 있다	①	②	
	(7) 이가 아프면 치과에 가고(갈 수) 있다	①	②	
	(8) 의사에게서 처방받은 의약품이나 필요한 (일반)의약품을 구입하고(할 수) 있다	①	②	
가족 활동 및 문화 생활	(9) 1년에 한 번 이상 (가족 또는 자녀와) 2~3일 정도의 여행(피서)을 다녀온다	①	②	
	(10) 가족의 생일 등 특별한 날을 기념(외식 등)하고 있다	①	②	
	(11) 정기적으로 혹은 종종 가족 또는 자녀와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영화, 공연)을 할 수 있다	①	②	
사회적 지지	(12) 어려울 때 이야기를 나누고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친척이나 친구가 있다	①	②	
	(13) 일상적이지 않은 지출에 대비(저축 등)하고 있다	①	②	
저축	(14) 노후를 위해 (국민·개인)연금에 가입하거나 저축하고 있다	①	②	
	(15) 사회보험 외의 사적보험(의료보험, 중신보험, 생명보험 등의 보장성 보험)에 가입해 있다	①	②	
	(16) 춤지 않도록 난방이 적절히 갖춰진 곳에서 생활하고 있다	①	②	
주택 및 주거 환경	(17) 가족 수나 구성원의 연령에 맞게 적절한 방을 나누어 사용하고 있다	①	②	
	(18) 걸어서 10분 안의 거리에 버스 정거장이나 전철역이 있다	①	②	
	(19) 옥탑방이나 (반)지하가 아닌 지상에 거주하고 있다	①	②	
	(20) 전용 수세식의 화장실 및 온수 목욕시설을 갖추고 있다	①	②	
우리 가정에서는	그런 적 있다	그런 적 없다	해당 없음	
경제적 어려움	(21) 전기요금, 전화요금, 수도요금 중 하나 이상을 내지 못해 전기, 전화, 수도 등이 끊긴 적이 있다	①	②	/
	(22) 집세(월세·전세금)가 밀렸거나 또는 그 이유로 집을 옮긴 적이 있다 ※ 자가 또는 무상인 경우 '③해당 없음'에 응답	①	②	

문30. 지난 1년 동안의 경제적 상황을 감안하였을 때, 자녀의 교육을 위해 다음과 같은 지원을 하고 있거나 또는 할 수 있습니까?

※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못하고 있는 경우에만 '②못 하고 있다' 로 응답
 ※ 현재 대학생 이하 자녀가 없는 경우 '③해당없음' 응답

우리 가정에서는		하고 있다	못 하고 있다	해당 없음
자녀 교육	(1) 자녀에게 고등교육(전문대학 및 대학교 이상)을 시키고 있다(시킬 수 있다)	①	②	③
	(2) 자녀가 원하는 경우 학원수강이나 과외를 시키고 있다(시킬 수 있다)	①	②	③
	(3) 자녀에게 필요한 기본참고서나 도서를 사주고 있다(사줄 수 있다)	①	②	③
	(4) 자녀의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경제적, 사회적, 정서적)양육을 책임질 수 있다	①	②	③



V. 사회적 자본

문31. 귀하는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 믿을 수 있는 사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믿을 수 없다		← 보통 →						매우 믿을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문32. 귀하는 다음의 기관들을 어느 정도 신뢰하십니까?

	매우 신뢰한다	다소 신뢰한다	거의 신뢰하지 않는다	모르겠다
(1) 대기업	①	②	③	④
(2) 종교계	①	②	③	④
(3) 교육계	①	②	③	④
(4) 노동조합	①	②	③	④
(5) 언론계(신문사, TV방송국 등)	①	②	③	④
(6) 의료계	①	②	③	④
(7) 행정부(청와대, 중앙정부, 지방자치정부 등)	①	②	③	④
(8) 입법부(국회)	①	②	③	④
(9) 사법부(법원)	①	②	③	④
(10) 군대	①	②	③	④
(11) 금융기관	①	②	③	④
(12) 시민운동단체	①	②	③	④
(13) 검찰, 경찰	①	②	③	④

문33. 귀하는 지난 1년 동안 다음과 같은 활동을 얼마나 자주 하셨습니까?

	일주일 한 번이상	한달에 한 두번	일년에 6-7번	일년에 한 두번	전혀 안했다
(1) 자원봉사	①	②	③	④	⑤
(2) 사회단체나 기관에 기부	①	②	③	④	⑤

문34. 귀하는 다음과 같은 집단이나 모임 또는 단체에 소속되어 있으십니까? 소속되어 있으시다면 얼마나 적극적으로 활동하십니까?

	소속되어서 적극적으로 활동한다	소속되어서 가끔 활동한다	소속되어 있지만 활동은 하지 않는다	소속된 적이 없다
(1) 정당	①	②	③	④
(2) 시민운동단체	①	②	③	④
(3) 노조, 사업자단체 또는 직업조합	①	②	③	④
(4) 종교단체	①	②	③	④
(5) 스포츠, 취미, 레저 모임 등 문화단체	①	②	③	④
(6) 동창모임	①	②	③	④
(7) 향우회	①	②	③	④
(8) 친목단체	①	②	③	④
(9) 기타 오프라인 모임이나 단체	①	②	③	④
(10) SNS 등 온라인 모임(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①	②	③	④

문35. 귀하는 다음의 선거 때 투표하셨습니까?

	투표했다	투표하지 않았다	모르겠다	투표권이 없었음
(1) 2016년 4월 13일 국회의원 선거	①	②	③	④
(2) 2017년 5월 9일 제19대 대통령선거	①	②	③	④
(3) 2018년 6월 13일 지방선거	①	②	③	④

문36. 귀하는 지난 1년 동안, 다음의 사회적 참여를 한 적이 있습니까?

	있다	없다
(1) SNS에 글을 올리거나 답변하기	①	②
(2) 탄원서 및 청원서에 서명하기	①	②
(3) 집회 및 시위에 참여하기	①	②

문37. 귀하는 한국 국민인 것을 어느 정도 자랑스럽게 생각하십니까?

매우 자랑스럽다	대체로 자랑스럽다	별로 자랑스럽지 않다	전혀 자랑스럽지 않다
①	②	③	④



VI. 사회 갈등

문44. 우리나라는 갈등이 어느 정도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갈등이 매우 심하다	갈등이 대체로 심하다	갈등이 별로 심하지 않다	갈등이 전혀 심하지 않다	모르겠다
①	②	③	④	⑤

문45. 귀하가 생각하시기에 한국에는 다음 집단들 간에 갈등이 어느 정도 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갈등이 매우 심하다	갈등이 대체로 심하다	갈등이 별로 심하지 않다	갈등이 전혀 심하지 않다	모르겠다
(1) 가난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 간의 갈등	①	②	③	④	⑤
(2) 경영자와 노동자 간의 갈등	①	②	③	④	⑤
(3) 주택소유자와 비소유자 간의 갈등	①	②	③	④	⑤
(4)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갈등	①	②	③	④	⑤
(5) 여성과 남성 간의 갈등	①	②	③	④	⑤
(6) 고령자와 젊은이 간의 갈등	①	②	③	④	⑤
(7) 기성세대(40~50대)와 청년세대(20~30대) 간의 갈등	①	②	③	④	⑤
(8) 진보와 보수 간의 갈등	①	②	③	④	⑤
(9) 지역 간의 갈등(수도권과 지방, 영남과 호남)	①	②	③	④	⑤
(10) 다문화갈등(외국인노동자, 결혼이주여성, 북한이탈주민 등)	①	②	③	④	⑤
(11) 개발주의자와 환경보호주의자 간의 갈등	①	②	③	④	⑤

문46. 귀하는 다음 중 세대갈등의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관참은 일자리 경쟁
- ② 소득·재산의 격차
- ③ 정치적 영향력의 차이
- ④ 언론 및 방송매체의 갈등 조장
- ⑤ 기타()

문47. 귀하는 다음 중 성별 갈등 발생의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성별에 따른 특혜와 차별
- ② 어려서부터 학습된 성별에 대한 고정관념
- ③ 언론 및 방송매체의 갈등 조장
- ④ 가부장적 사회문화
- ⑤ 기타()

문48. 한국사회로부터 귀하가 받는 대우는 다음 사항들에 비하여 어느 정도 공정 또는 불공정하다고 느끼십니까?

	매우 공정하다	약간 공정하다	보통이다	약간 불공정하다	매우 불공정하다
(1) 두뇌(능력) 에 비해	①	②	③	④	⑤
(2) 일과 관련된 기술 에 비해	①	②	③	④	⑤
(3) 노력 에 비해	①	②	③	④	⑤
(4) 학력 에 비해	①	②	③	④	⑤
(5) 경력 에 비해	①	②	③	④	⑤

문49. 귀하는 한국 사회에서 다음의 사항들이 어느 정도 평등 또는 불평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평등하다	대체로 평등하다	보통이다	대체로 불평등하다	매우 불평등하다
(1) 교육 기회	①	②	③	④	⑤
(2) 취업 기회	①	②	③	④	⑤
(3) 승진·승급 기회	①	②	③	④	⑤
(4) 법의 집행	①	②	③	④	⑤
(5) 여성에 대한 대우	①	②	③	④	⑤
(6) 남성에 대한 대우	①	②	③	④	⑤
(7) 장애인에 대한 대우	①	②	③	④	⑤
(8) 외국인노동자, 결혼이주여성,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대우	①	②	③	④	⑤
(9) 소득 분배	①	②	③	④	⑤
(10) 부(재산)의 분배	①	②	③	④	⑤
(11) 지역 간 발전수준	①	②	③	④	⑤

문50. 귀하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어느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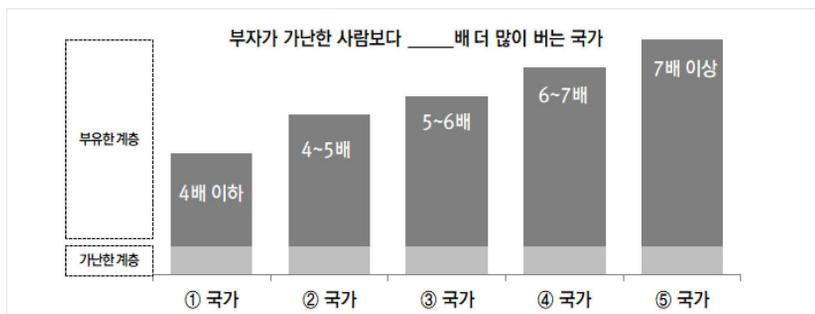
매우 낮다	←————— 보통 —————→									매우 높다
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문51. 귀하는 현재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 상태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심하지 않다 (완전 평등)	←————— 보통 —————→									매우 심하다 (완전 불평등)
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문52. 귀하는 우리나라가 부자가 가난한 사람보다 몇 배 더 많이 벌고 있는 나라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현재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귀하가 살고 싶은 나라는 몇 번입니까?
아래 그림을 보고 해당하는 국가 번호를 각각 응답해주세요.

(1) 우리나라에 가까운 국가		(2) 살고 싶은 국가	
------------------	--	--------------	--





Ⅶ. 사회적 이동

문53. 귀하는 자녀세대의 소득이 부모세대의 소득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받지 않음	← 보통 →									완전히 영향 받음
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문54. 지난 10년 동안 귀택의 생활수준은 어느 정도 바뀌었습니까?

상당히 좋아졌다	다소 좋아졌다	차이가 거의 없다	다소 나빠졌다	상당히 나빠졌다
①	②	③	④	⑤

문55. 앞으로 10년 이내에 귀택의 생활수준은 어느 정도 좋아질 것이라고 또는 나빠질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상당히 좋아질 것이다	다소 좋아질 것이다	차이가 거의 없을 것이다	다소 나빠질 것이다	상당히 나빠질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문56. 귀하는 우리 사회에서 일생동안 노력을 한다면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높다	약간 높다	약간 낮다	매우 낮다	모르겠다
①	②	③	④	⑤

문57. 귀하는 일반적으로 본인세대에 비해 자식세대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어떻게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높아질 것이다	약간 높아질 것이다	약간 낮아질 것이다	매우 낮아질 것이다	모르겠다
①	②	③	④	⑤

문58. 귀하가 15세일 무렵(중학교 3학년)에 학업 성적은 어느 정도 수준이었습니까?

※ 최종학력이 무학, 초등학교 학력, 중학교 1,2학년 재학/휴학/중퇴인 경우는 '99 비 해당'에 응답

최하	← 보통 →									최상	비 해당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99	

문59. 귀하가 15세일 무렵(중학교 3학년)에 귀하의 가족은 어느 계층에 속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림에서 해당하는 번호를 응답해 주세요.

15세일 무렵에 귀택의 계층

10	최상
9	
8	
7	
6	
5	
4	
3	
2	
1	최하

※ 문61번은 귀하의 '첫째 자녀'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61. 첫째 자녀의 연령은 어떻게 됩니까?

- ① 만15세 이상 → 문61-1로
- ② 자녀 없음/만15세 미만 → 설문 종료

문61-1. 귀하의 첫째 자녀에 대한 일반적인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것입니다.

61-1-1. 태어난 연도 (주민등록기준)	61-1-2. 성별	61-1-3. 혼인상태	61-1-4. 교육수준	61-1-5. 졸업여부	61-1-6. 고등학교 유형 (※입학당시 학교 유형을 기준으로 응답)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width: 100px; height: 20px; margin-bottom: 5px;"></div> 생 _____년	① 남성 ② 여성	① 유배우 ② 별거 ③ 사별 ④ 이혼 ⑤ 미혼 (미혼부, 미혼모 포함)	① 무학 →문61-2로 ② 초등학교 ③ 중학교 ④ 고등학교 ⑤ 전문대학 ⑥ 대학교 ⑦ 대학원(석사) ⑧ 대학원(박사)	① 재학 ② 휴학 ③ 중퇴 ④ 수료 ⑤ 졸업	① 비해당 (문61-1-4에서 ②,③ 응답) ① 일반고(종합고, 자율형 공립고 포함) ② 자사고, 특목고(과학외국어국제고) ③ 예술체육고 ④ 특성화고(상고, 농고, 공고, 수고, 마이스터고 등) ⑤ 기타(대안학교, 검정고시 등)

문61-2. 귀하의 첫째 자녀가 15세일 무렵(중학교 3학년)에 첫째 자녀의 학업성적은 어느 정도 수준이었습니까?

※ 첫째 자녀의 최종학력이 무학, 초등학교 학력, 중학교 1,2학년 재학/휴학/중퇴인 경우는 '99 비해당'에 응답

최하	← 보통 →									최상	비해당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99	

문61-3. 귀하의 첫째 자녀의 근로형태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 ① 상용직 임금근로자 → 문61-4로
- ② 임시직 임금근로자 → 문61-5로
- ③ 일용직 임금근로자 → 문61-5로
- ④ 고용주, 자영자 → 문61-5로
- ⑤ 무급가족종사자 → 문61-5로
- ⑥ 실업자 → 문61-7로
- ⑦ 비경제활동인구(주부, 학생, 군복무 등) → 문61-7로

문61-4. 귀하의 첫째 자녀는 정규직으로 일하고 계십니까?

- ① 예(정규직)
- ② 아니오(비정규직)

문61-5. 귀하의 첫째 자녀의 직업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 ① 관리자
- ②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 ③ 사무종사자
- ④ 서비스종사자
- ⑤ 판매종사자
- ⑥ 농림어업 숙련종사자
- ⑦ 기능원 및 관련기능종사자
- ⑧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종사자
- ⑨ 단순노무종사자
- ⑩ 군인

문61-6. 귀하의 첫째 자녀의 직업과 직장에서의 직위가 다음 중 어느 정도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높다	높은 편이다	보통 수준이다	낮은 편이다	매우 낮다
(1) 경제적 보상(임금 또는 수입 수준)	①	②	③	④	⑤
(2) 전문성(국가공인자격증 여부, 업무처리를 위한 숙련수준 등)	①	②	③	④	⑤
(3) 사회적 위상위세(직업군을 바라보는 사회의 시선)	①	②	③	④	⑤
(4) 일의 자율성(본인 업무를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권한, 독립적 오피스 등)	①	②	③	④	⑤
(5) 조직통제권한(관련 업무의 지시권한, 조직의 관리 권한 등)	①	②	③	④	⑤

문61-7. 귀하의 자녀가 귀하의 연령이 되었을 때 어느 계층에 속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림에서 해당하는 번호를 응답해 주세요.

자녀가 귀하의 연령이 되었을 때 계층

10	최상
9	
8	
7	
6	
5	
4	
3	
2	
1	

설문에 응해 주셔서 신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조사의 내용은 통계법에 의해 엄격하게 보호되며 통계적 목적만을 위해 사용될 것입니다.

「사회통합 상태 진단을 위한 실태조사」

조사참여·자료활용 동의서

■ 본인은 「사회통합 상태 진단을 위한 실태조사」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자의(自意)에 의해 「사회통합 실태조사」에 참여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 본인은 「사회통합 상태 진단을 위한 실태조사」 수행과 관련 통계작성의 과정에서 필요한 개인정보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조사·이용 목적] ① 사회통합의 상태에 대한 인식 파악
② 사회통합 증진을 위한 정책 수립 근거 마련

[개인정보 조사 항목] 성명, 전화번호, 주소 등
[민감정보 조사 항목] 소득, 생활비, 재산, 부채 등 설문문항 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상기 「개인정보의 조사·이용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기간 동안에 한하여 보유가 가능하며, 연구목적에 한하여 이용됩니다. 단, 성명, 전화번호, 주소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삭제 및 부호화 처리됩니다.

■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조사에 참여하는 것을 거절할 수 있고, 거절하더라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음을 이해하였습니다.

■ 본인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등의 요구를 언제든지 요청할 수 있음을 이해하였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2019년 월 일

응답자 : _____ (인)

조사원 : _____ (인)

【부록 3】 사회통합 상태 진단을 위한 실태조사 기초분석

□ 기초분석 결과의 유의수준은 *p<0.1, ** p<0.05, ***p<0.01을 의미함.

〈부표 3-1〉 어제 행복했던 정도

(단위 : %)

구분		㉠ 전혀 행복하지 않았다	①	②	③	④	⑤ 보통	⑥	⑦	⑧	⑨	⑩ 매우 행복했다	X ² (df)
전체		0.59	0.93	2.13	3.49	2.71	24.61	11.56	20.86	20.24	8.13	4.75	
성별	남성	0.84	1.09	2.87	3.39	3.04	26.76	10.68	19.39	19.24	7.50	5.21	14.506 (10)
	여성	0.33	0.77	1.36	3.59	2.37	22.39	12.47	22.38	21.27	8.79	4.28	
연령	20대 이하	0.68	1.06	1.68	2.69	2.27	21.52	8.76	24.05	23.14	7.48	6.68	165.669 (40)***
	30대	0.25	0.38	2.16	1.66	1.37	17.19	9.14	22.49	28.80	10.15	6.42	
	40대	0.22	1.58	1.77	3.08	3.33	28.39	13.51	19.64	15.52	9.27	3.70	
	50대	0.84	0.34	1.68	4.99	1.68	22.32	12.93	22.74	20.47	7.68	4.34	
지역1	수도권	0.59	0.77	2.11	2.85	2.36	25.57	13.00	23.97	18.54	6.77	3.46	42.511 (10)***
	비수도권	0.58	1.10	2.14	4.14	3.07	23.61	10.08	17.66	21.99	9.54	6.08	
지역2	대도시	0.55	1.40	2.48	4.27	2.65	24.80	11.22	19.88	20.34	7.43	4.99	48.146 (20)***
	중소도시	0.61	0.63	1.70	2.73	2.67	23.69	12.24	22.95	19.80	8.66	4.32	
	농어촌	0.62	0.28	2.81	3.92	3.33	29.27	9.21	13.27	22.42	8.73	6.14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1.85	3.72	7.28	8.41	5.78	33.19	12.35	11.94	8.20	4.81	2.46	380.342 (30)***
	중하층	0.61	0.80	1.86	4.20	2.17	28.76	14.82	20.15	16.81	6.41	3.40	
	중간층	0.29	0.39	0.96	1.94	2.52	19.99	9.59	24.10	24.86	9.81	5.56	
	중상층(상층)	0.00	0.00	2.00	0.52	0.97	16.03	4.43	18.83	31.83	13.19	12.21	
월 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1.27	2.31	5.96	7.28	5.18	30.44	10.88	16.45	12.89	4.54	2.80	248.118 (40)***
	200만 원대	0.52	2.00	3.34	4.53	3.48	31.70	12.52	14.01	14.32	6.93	6.65	
	300만 원대	0.70	0.57	0.94	3.31	2.63	24.63	13.13	23.72	19.91	7.59	2.87	
	400만 원대	0.45	0.66	1.04	2.48	2.64	27.37	11.49	19.78	22.43	6.74	4.93	
	500만 원 이상	0.38	0.30	1.27	2.26	1.63	18.75	10.78	24.28	24.35	10.60	5.39	
학력	중졸 이하	1.43	0.97	4.21	6.25	4.23	33.32	14.29	14.55	11.90	5.13	3.72	146.937 (20)***
	고졸	0.44	1.14	1.97	3.49	3.35	27.97	11.98	20.14	17.36	7.82	4.34	
	대졸 이상	0.45	0.73	1.60	2.59	1.60	18.57	10.28	23.60	25.70	9.41	5.48	
경제 활동 상태	상용직	0.01	0.94	1.63	2.73	1.62	23.38	13.27	21.60	23.43	7.33	4.07	135.735 (50)***
	임금근로자	1.06	0.57	1.17	7.99	3.45	32.30	11.80	18.90	13.33	6.06	3.36	
	임시·일용직	0.70	1.16	2.32	3.32	3.15	25.49	9.01	19.88	19.42	10.22	5.33	
	고용주·자영자	0.68	0.00	0.63	7.12	2.13	25.59	18.03	14.56	18.54	8.01	4.71	
	무급가족종사자	1.37	1.97	6.39	6.84	3.14	37.46	6.46	12.37	15.28	1.34	7.38	
실업자	0.91	0.80	2.48	2.33	3.39	21.05	11.73	23.03	20.16	8.88	5.23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0.01	0.93	1.52	2.23	1.51	23.08	13.56	21.89	23.95	7.17	4.16	76.649 (10)***
	비정규직	0.82	0.67	1.55	8.02	3.31	30.99	11.42	18.80	14.36	6.76	3.30	
이념적 성향	보수적	0.72	0.55	2.71	5.37	4.12	27.50	13.15	18.97	17.82	6.02	3.06	62.923 (20)***
	중도적	0.65	0.78	1.91	3.57	2.39	25.16	10.55	22.48	19.80	8.01	4.71	
	진보적	0.33	1.60	2.01	1.52	2.01	20.73	12.07	19.41	23.45	10.40	6.47	

주: “귀하는 어제 어느 정도 행복하셨습니다?”에 대한 응답임.

〈부표 3-2〉 행복의 조건: 1순위

(단위 : %)

구분		공정한 민주 사회에 사는 것	적절한 수입	친밀한 관계	신체적 건강	성취감과 몰입을 주는 일이 있는 것	자신의 가치관과 결부된 삶의 목표	안정적인 일자리	삶의 의미와 목적을 제공하는 가치관/종교	χ^2 (df)
전체		3.24	27.52	6.76	40.95	6.09	5.29	7.40	2.75	
성별	남성	3.97	29.35	5.32	38.04	6.27	6.00	9.31	1.74	37.654 (7)***
	여성	2.48	25.62	8.26	43.96	5.90	4.55	5.42	3.80	
연령	20대 이하	2.92	33.15	10.64	22.07	10.62	8.21	11.78	0.61	352.106 (28)***
	30대	5.15	28.85	7.89	34.70	6.46	7.62	6.96	2.38	
	40대	3.27	29.35	7.17	37.92	7.70	4.88	6.19	3.51	
	50대	3.18	25.27	4.08	47.30	3.74	3.41	8.36	4.67	
	60대 이상	1.87	21.64	4.57	60.35	2.40	2.89	3.98	2.30	
지역1	수도권	3.02	29.66	7.10	37.81	6.84	5.98	6.23	3.37	13.051 (7)
	비수도권	3.47	25.31	6.42	44.20	5.31	4.58	8.60	2.12	
지역2	대도시	3.42	25.73	8.38	40.29	7.71	5.01	7.20	2.25	38.992 (14)***
	중소도시	2.86	29.71	5.33	40.01	5.02	5.95	7.69	3.43	
	농어촌	4.61	23.69	6.78	50.48	3.75	2.70	6.67	1.32	
주관적 소득 계층	하층	3.16	32.25	4.22	47.58	4.16	1.45	5.29	1.90	90.258 (21)***
	중하층	2.46	30.17	5.71	40.29	6.13	3.52	9.24	2.49	
	중간층	3.94	24.64	7.99	39.51	6.54	7.49	6.56	3.33	
	중상층(상층)	2.80	23.06	9.37	42.47	6.36	7.49	6.85	1.60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2.26	25.00	5.05	54.99	3.97	2.82	4.44	1.46	114.229 (28)***
	200만 원대	2.09	31.73	6.77	41.72	3.82	3.69	6.83	3.34	
	300만 원대	4.43	28.43	5.87	38.63	4.02	8.79	7.71	2.13	
	400만 원대	2.58	28.72	6.76	38.86	8.24	5.62	7.51	1.69	
	500만 원 이상	3.78	25.86	7.71	37.69	7.73	5.15	8.45	3.63	
학력	중졸 이하	1.66	28.17	3.74	58.13	1.67	1.73	3.25	1.65	208.495 (14)***
	고졸	2.96	28.19	6.46	42.34	5.07	5.04	8.19	1.75	
	대졸 이상	4.01	26.66	8.04	34.04	8.49	6.69	8.00	4.06	
경제 활동 상태	상용직	4.02	31.34	5.82	34.96	6.58	4.83	10.75	1.70	160.368 (35)***
	임금근로자	0.81	30.95	6.71	35.10	8.30	4.11	9.66	4.36	
	임사·일용직 임금근로자	3.92	29.85	3.83	44.43	4.96	4.13	6.18	2.70	
	고용주, 자영자	3.04	23.57	5.16	56.04	3.55	4.38	1.40	2.86	
	무급가족종사자	3.32	27.61	9.20	37.83	6.28	5.70	9.93	0.13	
	실업자	2.54	20.01	10.26	46.43	5.88	7.25	3.77	3.85	
직업 안정성 (임금 근로자)	정규직	3.79	31.12	5.54	34.53	6.95	5.20	11.04	1.82	12.754 (7)
	비정규직	2.14	31.59	7.21	36.15	6.96	3.36	9.16	3.43	
이념적 성향	보수적	3.23	24.73	6.21	46.62	4.68	3.81	8.03	2.69	78.427 (14)***
	중도적	2.85	30.12	7.17	40.80	5.15	4.61	6.60	2.69	
	진보적	4.02	24.95	6.47	35.83	9.33	8.07	8.40	2.93	

주: “귀하는 행복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부표 3-3〉 행복의 조건: 2순위

(단위 : %)

구분		공정한 민주 사회에 사는 것	적절한 수입	친밀한 관계	신체적 건강	성취감과 몰입을 주는 일이 있는 것	자신의 가치관과 결부된 삶의 목표	안정적인 일자리	삶의 의미와 목적 재공하는 가치관/종교	2순위 모름 /무응답	X ² (df)
전체		3.52	30.03	7.01	22.25	10.26	9.90	12.08	4.37	0.58	
성별	남성	3.90	27.45	6.90	22.67	11.24	9.79	13.80	3.70	0.56	26.729 (8)***
	여성	3.13	32.70	7.13	21.82	9.25	10.01	10.30	5.06	0.60	
연령	20대 이하	1.83	18.87	8.08	23.26	13.27	12.84	16.62	4.38	0.84	176.602 (32)***
	30대	4.61	24.63	6.15	17.60	16.75	12.71	11.76	5.66	0.14	
	40대	4.78	32.92	6.05	22.25	6.83	10.53	12.76	3.12	0.77	
	50대	3.42	31.85	6.30	24.39	8.17	9.37	12.86	2.83	0.81	
	60대 이상	2.95	40.28	8.51	23.25	7.35	4.62	6.69	6.07	0.28	
지역1	수도권	3.28	28.55	5.43	20.61	11.24	10.98	13.35	5.90	0.66	17.937 (8)*
	비수도권	3.77	31.55	8.65	23.95	9.25	8.78	10.77	2.79	0.49	
지역2	대도시	4.80	27.94	7.89	22.25	10.67	9.88	11.73	3.96	0.87	49.044 (16)***
	중소도시	2.50	30.78	5.78	21.67	10.67	10.61	12.59	5.10	0.31	
	농어촌	2.85	36.91	9.87	25.89	5.43	5.61	10.78	2.08	0.59	
주관적 소득 계층	하층	2.38	37.73	6.68	25.90	8.60	4.23	11.21	2.97	0.29	82.035 (24)***
	중하층	3.32	31.96	6.58	22.96	8.10	11.98	11.48	3.05	0.56	
	중간층	4.05	27.25	7.56	20.82	11.76	9.05	12.97	5.82	0.72	
	중상층(상층)	3.01	22.86	6.09	21.22	15.87	15.84	10.64	4.31	0.17	
월 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3.57	39.66	8.76	19.33	5.49	5.98	15.28	1.75	0.18	94.546 (32)***
	200만 원대	3.14	29.15	7.88	27.24	9.90	6.88	10.76	4.64	0.41	
	300만 원대	1.98	32.28	6.69	20.76	11.18	10.88	11.82	3.77	0.64	
	400만 원대	4.33	27.49	7.49	22.71	9.30	7.69	12.26	7.21	1.52	
	500만 원 이상	3.99	27.14	6.03	21.73	12.00	12.86	11.56	4.29	0.38	
학력	중졸 이하	3.39	35.83	10.41	25.40	5.48	6.97	7.29	4.63	0.59	106.371 (16)***
	고졸	3.43	31.57	6.73	23.00	9.16	8.66	12.83	4.04	0.60	
	대졸 이상	3.65	26.67	6.18	20.52	12.87	12.03	12.93	4.60	0.56	
경제 활동 상태	상용직	3.70	24.65	7.44	19.63	13.04	13.30	13.63	3.88	0.73	132.799 (40)***
	임금근로자	1.70	29.04	6.80	28.24	4.79	9.37	15.75	3.71	0.60	
	임시·일용직	3.13	29.64	6.40	28.07	10.76	9.22	9.79	2.68	0.31	
	고용주, 자영자	1.86	43.31	9.08	25.09	6.49	4.16	5.32	4.03	0.65	
	무급가족	8.54	27.45	5.82	19.25	5.24	4.53	25.70	2.73	0.72	
	종사자	3.77	36.50	7.08	18.55	9.24	7.65	9.75	6.86	0.59	
직업 안정성 (임금 근로자)	정규직	3.45	24.32	7.54	19.34	13.35	13.66	13.65	4.10	0.58	26.090 (8)**
	비정규직	2.77	28.86	6.70	26.99	5.91	9.38	15.20	3.19	1.00	
이념적 성향	보수적	3.49	30.31	8.06	22.27	9.67	9.45	11.38	4.89	0.49	46.948 (16)***
	중도적	2.57	30.18	7.00	23.72	10.72	8.75	11.78	4.48	0.80	
	진보적	5.47	29.45	6.04	19.27	9.91	12.64	13.36	3.65	0.22	

주: “귀하는 행복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262 사회통합 실태 진단 및 대응 방안 연구(VI): 사회통합 상태 진단

〈부표 3-4〉 어제 우울했던 정도

(단위 : %)

구분		㉠	㉡	㉢	㉣	㉤	㉥ 보통	㉦	㉧	㉨	㉩	㉪	X ² (df)
전체		16.90	19.26	19.20	12.76	5.68	15.95	4.13	3.13	1.74	0.71	0.56	
성별	남성	16.92	19.94	20.00	11.44	6.46	14.92	3.69	3.34	1.79	0.85	0.67	3.612(10)
	여성	16.87	18.55	18.39	14.12	4.86	17.01	4.58	2.90	1.70	0.57	0.45	
연령	20대 이하	23.36	19.14	19.26	9.67	4.97	16.51	3.44	1.61	1.92	0.02	0.10	90.568 (40)***
	30대	15.99	21.05	22.37	12.88	8.08	11.55	4.55	1.48	1.05	0.34	0.66	
	40대	17.68	20.75	16.76	11.64	5.32	17.26	3.60	3.70	2.14	0.43	0.72	
	50대	15.06	18.44	22.23	15.17	4.26	15.06	3.82	3.01	1.36	0.95	0.64	
	60대 이상	12.88	17.11	15.66	14.10	6.01	18.94	5.22	5.52	2.20	1.70	0.64	
지역1	수도권	12.69	16.35	18.39	14.93	6.70	19.52	5.02	3.24	1.73	0.90	0.55	89.631 (10)***
	비수도권	21.23	22.25	20.05	10.52	4.62	12.27	3.21	3.01	1.76	0.51	0.57	
지역2	대도시	15.35	19.20	19.53	12.04	5.83	16.58	4.90	3.47	1.94	0.80	0.36	37.871 (20)**
	중소도시	17.97	18.79	19.14	13.69	5.52	16.02	3.45	2.86	1.21	0.66	0.69	
	농어촌	18.73	22.49	17.83	10.90	5.78	11.99	4.06	2.87	3.99	0.52	0.84	
주관적 소득 계층	하층	11.41	10.71	12.85	12.60	5.45	20.65	7.93	8.58	5.84	2.97	1.01	251.284 (30)***
	중하층	16.98	19.35	20.97	10.63	6.17	15.34	4.38	3.70	1.33	0.51	0.64	
	중간층	17.73	20.20	19.23	14.86	5.22	16.12	3.24	1.54	1.08	0.34	0.43	
	중상층(상층)	21.78	30.02	21.57	9.79	6.65	7.99	1.23	0.17	0.79	0.00	0.00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9.53	14.94	13.32	12.29	6.37	20.12	7.02	9.80	3.72	1.57	1.33	204.981 (40)***
	200만 원대	17.95	13.81	16.17	12.13	7.63	18.37	4.94	3.48	3.66	1.19	0.66	
	300만 원대	15.93	18.42	26.50	9.83	5.08	14.31	5.02	2.79	0.91	0.54	0.69	
	400만 원대	15.99	20.55	15.49	13.13	10.05	14.48	4.81	2.63	1.78	0.65	0.43	
	500만 원 이상	19.74	22.72	20.77	14.25	3.22	14.84	2.18	1.06	0.66	0.32	0.25	
학력	중졸 이하	11.47	13.91	20.71	13.16	6.20	16.93	5.37	5.95	2.73	2.74	0.83	90.786 (20)***
	고졸	16.99	19.34	17.26	12.33	5.33	18.01	4.80	3.36	1.66	0.43	0.48	
	대졸 이상	18.58	20.92	20.56	13.02	5.83	13.67	3.09	1.98	1.50	0.31	0.54	
경제 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17.95	19.67	23.85	11.56	6.27	13.54	2.92	2.26	1.53	0.03	0.42	98.371 (50)***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14.97	17.12	18.14	9.24	6.80	15.90	8.99	5.95	2.40	0.37	0.12	
	고용주, 자영자	19.83	21.37	17.40	11.82	5.02	15.17	3.47	2.26	1.72	0.87	1.06	
	무급가족 종사자	19.87	15.27	20.14	6.94	9.56	15.53	8.33	2.63	1.05	0.68	0.00	
	실업자	15.27	17.51	14.03	10.37	6.36	16.54	5.51	8.60	2.18	2.89	0.73	
	비경제활동인구	13.72	18.19	16.05	16.95	4.74	19.51	4.00	3.32	1.80	1.24	0.47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18.49	19.74	23.88	11.62	6.55	13.13	2.51	1.97	1.65	0.01	0.46	51.002 (10)***
	비정규직	14.30	17.54	19.40	9.63	5.97	16.41	8.60	5.83	1.89	0.33	0.09	
이념적 성향	보수적	14.16	21.40	16.18	11.99	5.87	18.07	5.37	4.50	1.78	0.59	0.09	57.904 (20)***
	중도적	16.02	18.71	19.57	12.95	6.49	16.05	3.89	3.07	1.55	0.85	0.84	
	진보적	21.30	18.30	21.36	13.10	3.84	13.70	3.41	1.92	2.09	0.53	0.45	

주: “귀하는 어제 어느 정도 우울하셨습니다?”에 대한 응답임.

〈부표 3-5〉 삶의 만족도

(단위 : %)

구분		⑨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보통	⑥	⑦	⑧	⑨	⑩ 매우 만족 한다	χ² (df)
전체		0.77	0.93	2.34	4.84	3.83	25.98	15.05	21.01	16.84	6.29	2.11	
성별	남성	0.99	1.13	3.18	5.22	3.60	26.52	15.22	20.80	14.21	6.85	2.27	9.958 (10)
	여성	0.55	0.72	1.46	4.45	4.07	25.43	14.87	21.23	19.56	5.71	1.94	
연령	20대 이하	1.24	0.30	1.01	4.08	3.86	21.70	16.95	26.88	13.83	7.05	3.11	119.933 (40)***
	30대	0.67	0.82	3.40	4.66	2.42	22.15	11.55	23.70	19.58	9.07	1.99	
	40대	0.70	1.05	2.22	4.59	4.13	27.47	14.30	22.34	16.36	4.59	2.25	
	50대	0.62	1.56	2.36	6.16	2.45	24.73	16.05	17.26	20.35	6.60	1.86	
	60대 이상	0.67	0.83	2.71	4.60	6.21	33.14	16.13	15.79	14.01	4.50	1.41	
지역1	수도권	0.54	0.76	2.61	5.20	3.38	27.21	17.43	22.58	14.15	4.84	1.31	59.874 (10)***
	비수도권	1.01	1.11	2.06	4.47	4.31	24.72	12.60	19.40	19.62	7.78	2.94	
지역2	대도시	1.00	1.30	2.10	4.19	4.39	25.99	15.76	20.20	17.23	5.78	2.07	31.293 (20)
	중소도시	0.41	0.64	2.44	5.57	3.28	25.31	15.15	21.98	16.34	6.89	2.01	
	농어촌	1.78	0.67	3.04	3.94	4.26	30.19	10.51	19.52	17.82	5.35	2.93	
주관적 소득 계층	하층	1.49	2.51	6.88	12.84	9.04	37.68	7.91	10.13	8.68	2.22	0.63	463.401 (30)***
	중하층	1.16	0.82	1.92	4.01	4.35	27.90	19.43	20.74	14.46	3.69	1.53	
	중간층	0.36	0.66	1.67	3.63	1.95	22.90	14.36	24.49	19.61	7.81	2.55	
	중상층(상층)	0.00	0.29	0.44	2.46	4.31	12.57	7.68	18.44	28.10	20.07	5.64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1.80	2.52	5.51	9.94	9.78	30.28	11.74	15.92	9.39	2.47	0.64	291.664 (40)***
	200만 원대	1.06	1.46	3.31	6.00	4.91	29.77	15.63	17.55	14.15	3.19	2.97	
	300만 원대	0.24	0.62	3.39	3.81	4.15	29.26	18.55	18.94	13.95	5.72	1.38	
	400만 원대	1.02	0.65	1.28	4.11	2.64	30.20	13.76	22.37	17.09	5.25	1.64	
	500만 원 이상	0.45	0.42	0.85	3.38	1.72	20.01	14.97	24.46	21.55	9.44	2.76	
학력	중졸 이하	0.87	1.22	4.57	5.80	6.34	33.07	18.08	13.67	10.67	3.25	2.47	154.743 (20)***
	고졸	0.50	1.09	1.75	5.34	4.60	28.18	15.40	19.88	16.19	5.24	1.84	
	대졸 이상	1.00	0.68	2.17	4.06	2.29	21.59	13.73	24.48	19.47	8.27	2.25	
경제 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0.71	0.54	2.75	3.20	2.41	24.88	15.79	22.76	18.96	6.16	1.84	155.583 (50)***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0.97	1.93	2.20	4.84	8.33	29.91	19.43	18.63	8.09	4.12	1.55	
	고용주, 자영자	0.34	1.03	1.37	5.96	3.30	26.10	13.50	21.14	17.44	8.16	1.66	
	무급가족 종사자	0.68	0.00	0.71	2.34	2.54	27.26	18.85	23.91	11.77	10.08	1.87	
	실업자	2.25	1.93	4.36	10.47	3.63	38.93	11.50	17.43	5.67	2.10	1.73	
	비경제활동인구	0.98	0.92	2.59	5.36	4.62	24.18	14.15	19.81	18.51	5.79	3.07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0.56	0.59	2.84	3.10	2.14	24.28	16.32	23.01	19.04	6.26	1.85	67.440 (10)***
	비정규직	1.29	1.49	2.12	4.71	7.63	30.25	17.23	18.97	10.41	4.32	1.59	
이념적 성향	보수적	0.36	0.68	2.21	6.21	5.13	29.46	16.20	18.72	15.63	4.15	1.27	65.682 (20)***
	중도적	0.94	1.22	2.39	4.28	3.73	26.13	14.16	21.63	18.16	5.32	2.04	
	진보적	0.82	0.59	2.36	4.67	2.81	22.36	15.74	21.97	15.34	10.28	3.06	

주: “귀하는 요즘 삶에 전반적으로 만족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부표 3-6〉 최근 한 달 동안 외로움을 느낀 정도

(단위 : %)

구분		① 항상 느끼고 있다	② 자주 느끼는 편이다	③ 가끔 느끼는 편이다	④ 전혀 느끼지 못했다	X ² (df)
전체		2.41	6.22	44.03	47.33	
성별	남성	3.01	6.44	43.25	47.29	2.488(3)
	여성	1.79	5.99	44.84	47.38	
연령	20대 이하	1.58	4.39	39.20	54.83	78.490(12)***
	30대	1.73	5.63	38.77	53.86	
	40대	1.82	5.85	47.25	45.09	
	50대	2.00	6.53	45.14	46.33	
	60대 이상	4.82	8.48	48.78	37.93	
지역1	수도권	2.46	6.14	49.02	42.39	26.994(3)***
	비수도권	2.37	6.30	38.90	52.43	
지역2	대도시	2.66	7.22	42.28	47.84	8.996(6)
	중소도시	2.19	4.86	46.87	46.08	
	농어촌	2.47	9.15	36.01	52.37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8.39	15.24	45.71	30.67	265.597(9)***
	중하층	2.21	7.05	48.42	42.32	
	중간층	1.19	3.51	41.81	53.49	
	중상층(상층)	0.49	2.90	29.49	67.13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8.90	14.01	48.01	29.07	273.560(12)***
	200만 원대	4.10	8.03	48.42	39.46	
	300만 원대	0.96	4.39	47.22	47.43	
	400만 원대	1.42	6.59	46.90	45.09	
	500만 원 이상	0.55	3.49	38.50	57.46	
학력	중졸 이하	6.51	8.84	51.79	32.86	85.707(6)***
	고졸	1.62	6.36	45.56	46.45	
	대졸 이상	1.83	5.23	40.05	52.89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1.20	5.94	42.56	50.30	71.469(15)***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3.11	6.15	47.46	43.28	
	고용주, 자영자	2.05	5.29	40.08	52.58	
	무급가족 종사자	0.00	4.33	47.52	48.14	
	실업자	4.47	8.67	51.17	35.68	
	비경제활동인구	3.70	7.20	46.39	42.71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0.56	0.59	2.84	3.10	34.049(3)***
	비정규직	1.29	1.49	2.12	4.71	
이념적 성향	보수적	2.02	8.27	50.27	39.44	33.507(6)***
	중도적	2.54	5.70	41.95	49.81	
	진보적	2.53	5.30	42.26	49.91	

주: “귀하는 최근 한 달 동안 얼마나 자주 ‘외로움’을 느끼셨습니까?”에 대한 응답임.

〈부표 3-7〉 현재 우리 사회 평가: (1) 배려와 포용의 사회

(단위 : %)

구분		◎ 차별과 소외가 심한 사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배려와 포용의 사회	X ² (df)
전체		1.25	4.01	14.11	17.71	13.70	24.08	11.48	9.75	3.22	0.57	0.13	
성별	남성	1.62	5.15	13.52	16.56	12.98	24.41	11.55	10.21	3.48	0.30	0.24	9.958 (10)
	여성	0.86	2.84	14.72	18.90	14.45	23.73	11.40	9.27	2.96	0.85	0.03	
연령	20대 이하	1.67	2.30	13.02	17.47	13.75	23.79	13.05	11.42	2.65	0.46	0.41	119.933 (40)***
	30대	1.62	2.08	13.21	17.28	15.81	24.12	11.14	10.43	2.89	1.41	0.00	
	40대	1.68	3.78	15.34	17.20	11.63	26.19	11.08	9.09	3.11	0.70	0.19	
	50대	0.75	7.74	13.07	18.06	12.38	24.99	10.19	8.45	4.29	0.08	0.00	
	60대 이상	0.61	3.66	15.75	18.46	15.22	21.23	12.05	9.61	3.04	0.29	0.08	
지역1	수도권	1.49	5.27	16.16	17.60	12.87	22.82	10.97	10.01	1.96	0.85	0.00	59.874 (10)***
	비수도권	0.99	2.72	11.99	17.83	14.55	25.37	12.00	9.48	4.52	0.28	0.27	
지역2	대도시	0.84	3.63	14.18	17.71	15.33	24.18	8.81	10.86	3.74	0.64	0.08	31.293 (20)
	중소도시	1.42	4.50	14.74	17.77	12.02	23.81	13.69	8.50	2.84	0.53	0.16	
	농어촌	2.36	3.08	9.75	17.35	15.15	25.23	12.42	11.38	2.70	0.36	0.23	
주관적 소득 계층	하층	1.48	6.06	17.06	24.71	11.59	17.16	8.53	9.33	3.68	0.40	0.00	463.401 (30)***
	중하층	2.06	4.34	13.41	19.01	12.87	23.79	11.72	9.47	2.83	0.35	0.15	
	중간층	0.67	3.36	14.37	15.05	14.61	26.59	12.40	9.34	2.77	0.66	0.18	
	중상층(상층)	0.09	2.60	10.01	15.30	16.43	20.72	8.79	15.91	8.50	1.65	0.00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1.07	5.17	18.94	18.90	13.61	20.98	7.85	10.39	2.76	0.34	0.00	291.664 (40)***
	200만 원대	1.22	4.10	12.40	19.59	12.26	24.78	11.74	9.51	3.66	0.48	0.27	
	300만 원대	0.87	6.48	12.58	16.79	14.51	22.00	11.82	9.77	4.57	0.53	0.08	
	400만 원대	0.79	2.99	13.21	16.69	13.95	28.83	11.01	9.49	2.88	0.08	0.09	
	500만 원 이상	1.66	2.95	14.14	17.35	13.86	23.88	12.64	9.72	2.77	0.89	0.17	
학력	중졸 이하	0.37	9.08	12.42	17.69	15.57	19.85	11.10	10.29	3.25	0.38	0.00	154.743 (20)***
	고졸	1.38	2.89	15.71	17.88	12.58	24.69	11.24	10.24	2.75	0.38	0.26	
	대졸 이상	1.41	3.43	13.14	17.55	14.15	24.88	11.82	9.10	3.65	0.81	0.06	
경제 활동 상태	상용직	0.75	5.31	12.74	18.25	13.11	25.16	11.77	9.23	2.72	0.80	0.15	155.583 (50)***
	임금근로자	1.36	3.40	16.34	20.57	15.64	21.73	10.28	6.90	3.38	0.24	0.15	
	임시·일용직	2.19	3.81	12.27	14.77	13.84	21.45	15.02	11.45	4.51	0.65	0.06	
	고용주, 자영자	0.00	0.00	6.18	15.97	22.12	25.70	18.32	6.74	4.51	0.46	0.00	
	무급가족	1.12	9.65	16.13	19.52	16.46	18.57	5.34	9.69	3.09	0.43	0.00	
	종사자	1.12	2.43	16.96	18.52	12.63	26.38	8.70	10.13	2.58	0.35	0.20	
직업 안정성 (임금 근로자)	정규직	0.82	5.64	12.39	18.29	13.00	24.88	12.02	9.38	2.54	0.88	0.16	67.440 (10)***
	비정규직	1.05	3.02	16.39	19.93	15.34	23.23	10.01	7.06	3.68	0.19	0.11	
이념적 성향	보수적	1.84	3.49	16.52	20.57	11.70	23.23	9.99	9.62	2.12	0.85	0.07	65.682 (20)***
	중도적	0.91	5.21	14.67	17.27	13.65	25.25	10.87	9.18	2.50	0.39	0.10	
	진보적	1.37	2.09	10.66	15.86	15.72	22.54	14.12	11.02	5.73	0.65	0.26	

주: “귀하는 전반적으로 볼 때, 우리 사회가 다음 중 어떤 사회에 가깝다고 평가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부표 3-8> 현재 우리 사회 평가: (2) 서로 믿고 살아가는 사회

(단위 : %)

구분		㉔서로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사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㉕서로 믿고 살아 가는 사회	X ² (df)
전체		0.89	5.32	12.39	19.39	16.36	21.14	11.04	9.00	3.58	0.77	0.11	
성별	남성	0.92	6.12	12.63	18.91	16.28	19.31	10.60	10.14	4.41	0.51	0.18	8.640 (10)
	여성	0.85	4.50	12.14	19.89	16.45	23.03	11.50	7.83	2.72	1.05	0.05	
연령	20대 이하	0.99	4.17	11.70	20.64	13.13	23.70	11.48	10.46	2.90	0.57	0.26	62.573 (40)*
	30대	1.22	5.40	10.06	18.43	18.82	20.71	9.45	8.07	6.31	1.53	0.00	
	40대	0.99	3.76	12.69	20.44	15.57	22.75	11.47	8.64	2.60	0.89	0.19	
	50대	0.55	7.79	12.56	19.86	18.11	18.70	9.88	9.05	3.07	0.37	0.05	
	60대 이상	0.75	5.31	14.62	17.56	16.13	20.08	12.82	8.80	3.28	0.58	0.08	
지역1	수도권	1.18	7.47	12.39	20.09	17.03	19.17	10.59	7.49	3.84	0.76	0.00	35.809 (10)***
	비수도권	0.59	3.10	12.40	18.68	15.68	23.17	11.51	10.56	3.30	0.79	0.23	
지역2	대도시	0.74	5.29	12.87	19.25	17.59	19.42	10.71	9.21	4.04	0.80	0.08	25.027 (20)
	중소도시	1.09	5.68	12.22	19.82	14.81	23.09	10.90	8.43	3.04	0.76	0.16	
	농어촌	0.50	3.20	10.82	17.54	19.24	18.48	13.75	11.41	4.37	0.69	0.00	
주관적 소득 계층	하층	0.88	6.38	15.45	23.92	15.01	18.66	9.18	6.26	3.05	1.19	0.00	69.400 (30)***
	중하층	1.36	4.85	13.90	20.90	14.74	21.75	10.62	7.81	3.56	0.37	0.14	
	중간층	0.61	5.26	10.76	17.31	18.27	21.93	11.25	10.13	3.46	0.87	0.14	
	중상층(상층)	0.09	6.52	8.96	16.42	14.38	16.11	16.32	13.72	5.82	1.65	0.00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0.93	6.49	15.46	23.75	13.33	18.38	11.61	6.87	2.76	0.42	0.00	47.427 (40)
	200만 원대	0.89	3.35	13.96	16.48	18.10	20.48	11.77	10.50	3.82	0.39	0.27	
	300만 원대	1.36	7.51	10.54	18.48	14.89	20.47	12.43	9.26	3.28	1.65	0.14	
	400만 원대	0.54	2.05	11.41	21.15	16.98	25.74	8.31	9.12	4.47	0.15	0.09	
	500만 원 이상	0.81	6.05	11.90	18.77	17.08	20.83	11.04	8.98	3.54	0.91	0.09	
학력	중졸 이하	0.38	7.50	13.28	17.23	15.26	21.60	12.01	8.20	4.02	0.51	0.00	40.921 (20)**
	고졸	0.98	4.66	14.60	18.95	17.16	19.03	11.01	9.25	3.37	0.74	0.24	
	대졸 이상	0.97	5.24	10.01	20.52	15.96	22.99	10.75	9.03	3.62	0.88	0.03	
경제 활동 상태	상용직	0.62	5.23	10.74	19.76	17.94	21.40	11.26	8.99	3.05	0.90	0.11	55.752 (50)
	임금근로자	1.17	4.32	12.41	22.02	18.14	19.20	12.81	7.41	2.32	0.07	0.15	
	임시·일용직	0.39	5.34	13.07	16.39	16.16	21.05	11.41	9.93	5.32	0.89	0.06	
	고용주, 자영업자	0.00	2.48	5.23	14.69	18.77	31.48	11.53	13.27	1.41	0.69	0.46	
	무급가족	0.73	10.37	13.90	28.63	11.95	15.15	4.32	6.92	7.73	0.30	0.00	
	종사자	1.64	5.34	14.18	19.86	14.38	21.51	10.67	8.69	2.79	0.82	0.14	
직업 안정성 (임금 근로자)	정규직	0.68	5.40	10.43	19.59	18.87	20.91	10.76	9.15	3.10	0.98	0.12	6.818 (10)
	비정규직	0.90	4.11	12.80	21.90	15.75	20.92	13.70	7.37	2.36	0.06	0.11	
이념적 성향	보수적	1.32	7.66	14.44	20.26	15.96	17.35	11.49	8.60	2.28	0.58	0.07	55.878 (20)***
	중도적	0.85	5.35	12.81	19.23	17.84	21.24	10.88	7.61	3.56	0.53	0.10	
	진보적	0.55	3.01	9.59	18.89	13.77	24.56	10.93	12.20	4.86	1.45	0.19	

주: "귀하는 전반적으로 볼 때, 우리 사회가 다음 중 어떤 사회에 가깝다고 평가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부표 3-9〉 현재 우리 사회 평가: (3) 활력 있고 희망찬 사회

(단위 : %)

구분		⑩활력 없고 침체된 사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활력 있고 희망찬 사회	X ² (df)
전체		0.79	4.06	11.54	17.23	15.66	25.86	12.03	8.90	2.77	0.92	0.23	
성별	남성	0.76	4.23	11.71	18.43	14.45	25.19	12.37	9.43	2.58	0.52	0.33	13.201 (10)
	여성	0.83	3.89	11.37	15.98	16.92	26.55	11.69	8.35	2.97	1.32	0.12	
연령	20대 이하	0.60	3.25	9.85	15.17	14.77	28.37	14.13	8.52	3.58	1.31	0.45	80.759 (40)***
	30대	1.08	3.20	8.54	14.60	18.54	28.77	14.23	7.43	2.79	0.66	0.17	
	40대	1.12	3.77	10.48	17.66	16.13	26.41	9.34	12.42	1.87	0.51	0.30	
	50대	0.37	4.59	12.61	20.90	15.39	23.22	11.44	6.86	2.80	1.67	0.15	
	60대 이상	0.81	5.33	15.74	17.22	13.75	23.14	11.49	9.14	2.89	0.41	0.08	
지역1	수도권	1.03	3.76	11.54	18.19	15.78	26.60	11.15	8.57	2.07	1.25	0.06	18.097 (10)
	비수도권	0.55	4.38	11.54	16.24	15.55	25.10	12.94	9.25	3.49	0.57	0.40	
지역2	대도시	0.85	4.24	8.67	18.56	15.72	25.91	12.95	8.90	3.01	1.00	0.19	23.168 (20)
	중소도시	0.81	3.88	13.90	16.26	15.55	26.08	11.16	8.76	2.42	0.96	0.24	
	농어촌	0.36	4.19	12.71	15.93	16.08	24.21	12.42	9.84	3.69	0.21	0.36	
주관적 소득 계층	하층	0.47	4.27	13.23	21.94	13.86	26.71	8.52	7.79	1.72	1.19	0.27	70.213 (30)***
	중하층	1.13	4.25	11.67	18.61	15.54	27.60	11.59	7.63	1.32	0.48	0.17	
	중간층	0.58	3.83	11.76	14.90	16.08	25.08	12.71	9.56	4.00	1.23	0.27	
	중상층(상층)	0.97	4.28	5.11	16.80	17.06	18.79	17.25	14.40	4.64	0.58	0.11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0.52	4.12	16.04	19.46	13.71	21.75	11.50	10.03	2.13	0.73	0.00	55.020 (40)
	200만 원대	0.32	4.51	10.48	19.71	16.66	26.12	11.49	7.01	2.44	0.67	0.58	
	300만 원대	1.66	3.39	12.94	13.55	15.71	27.30	13.21	9.67	1.84	0.59	0.14	
	400만 원대	0.65	4.33	13.04	15.89	14.75	28.17	12.65	7.91	1.52	0.70	0.39	
	500만 원 이상	0.76	4.05	9.27	17.56	16.27	25.65	11.69	9.33	4.00	1.30	0.14	
학력	중졸 이하	0.18	5.15	12.89	16.49	14.37	26.11	11.96	9.35	2.88	0.63	0.00	32.138 (20)*
	고졸	1.04	3.62	14.09	18.01	15.22	23.99	11.21	8.36	2.70	1.27	0.47	
	대졸 이상	0.75	4.13	8.69	16.72	16.51	27.55	12.84	9.27	2.81	0.67	0.07	
경제 활동 상태	상용직	0.61	4.09	10.82	15.75	16.67	27.66	10.95	8.89	2.91	1.51	0.13	65.190 (50)
	임금근로자	0.61	2.80	11.97	25.24	14.65	26.23	10.29	6.20	1.41	0.19	0.41	
	임시·일용직	1.00	5.09	13.13	16.96	12.78	22.66	13.71	10.05	3.52	0.94	0.15	
	고용주, 자영자	0.00	0.36	9.53	7.67	16.85	36.73	12.18	11.67	4.54	0.46	0.00	
	무급가족	0.00	5.08	9.80	23.06	12.74	25.07	13.88	7.60	2.17	0.30	0.30	
	실업자	1.04	3.74	11.30	16.55	17.54	25.55	12.25	8.79	2.37	0.52	0.35	
직업 안정성 (임금 근로자)	정규직	0.67	3.84	10.52	16.00	17.08	28.50	10.49	8.37	2.98	1.42	0.14	9.258 (10)
	비정규직	0.47	3.74	12.46	22.43	14.09	24.44	11.60	8.14	1.59	0.73	0.32	
이념적 성향	보수적	0.48	6.20	16.03	19.66	13.96	22.21	10.09	8.95	1.78	0.56	0.09	81.766 (20)***
	중도적	1.04	3.70	11.57	18.24	16.14	25.94	11.43	8.44	2.35	1.00	0.15	
	진보적	0.58	2.75	7.18	12.87	16.34	29.21	15.12	9.79	4.56	1.08	0.51	

주: “귀하는 전반적으로 볼 때, 우리 사회가 다음 중 어떤 사회에 가깝다고 평가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부표 3-10> 현재 우리 사회 평가: (4) 경제적 희망,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는 사회

(단위 : %)

구분		⑩경제적 불안, 미래에 대한 불안이 가득한 사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경제적 희망,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는 사회	X ² (df)
전체		2.04	8.27	14.46	16.57	17.62	19.36	10.77	7.12	3.09	0.53	0.17	
성별	남성	1.80	8.93	15.84	15.77	17.79	17.47	10.83	7.56	3.39	0.41	0.22	16.681 (10)
	여성	2.30	7.58	13.03	17.40	17.46	21.32	10.71	6.66	2.78	0.65	0.11	
연령	20대 이하	3.31	6.85	14.87	17.62	13.17	17.09	14.16	8.35	3.52	0.78	0.28	58.999 (40)*
	30대	3.11	9.06	12.38	14.79	21.49	17.01	12.75	5.50	2.92	1.01	0.00	
	40대	2.12	8.04	10.71	14.88	20.35	23.58	8.88	7.83	3.05	0.16	0.38	
	50대	1.27	7.55	18.53	19.62	16.14	17.72	7.99	7.15	3.27	0.67	0.08	
	60대 이상	0.66	9.86	15.47	15.72	17.07	21.01	10.69	6.67	2.70	0.08	0.08	
지역1	수도권	2.78	9.21	14.69	16.66	18.41	17.44	10.71	6.36	3.14	0.61	0.00	31.606 (10)***
	비수도권	1.28	7.30	14.22	16.48	16.82	21.35	10.84	7.90	3.04	0.44	0.34	
지역2	대도시	2.31	5.71	13.97	18.63	18.15	18.72	11.02	7.79	2.99	0.66	0.05	46.314 (20)***
	중소도시	1.84	11.38	14.95	14.93	16.84	19.71	10.36	6.25	3.00	0.49	0.26	
	농어촌	1.87	3.06	14.06	15.43	19.59	20.78	11.96	8.80	4.21	0.00	0.23	
주관적 소득 계층	하층	2.51	8.27	14.83	18.16	15.58	22.48	7.84	5.72	4.00	0.29	0.32	47.264 (30)*
	중하층	2.91	8.40	14.05	17.73	18.83	18.28	10.92	5.77	2.51	0.42	0.16	
	중간층	1.27	8.32	14.97	15.09	17.72	19.97	10.99	7.69	3.13	0.70	0.14	
	중상층(상층)	1.61	6.94	12.07	17.54	13.38	14.50	14.60	14.50	4.53	0.32	0.00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1.76	7.95	15.48	18.23	16.67	20.21	10.91	6.20	2.09	0.24	0.26	39.212 (40)
	200만 원대	1.99	7.58	15.78	18.23	17.90	17.21	10.05	7.62	2.31	0.90	0.42	
	300만 원대	2.27	9.04	15.17	14.38	17.44	22.51	8.08	7.72	2.76	0.56	0.08	
	400만 원대	2.06	6.76	13.59	15.92	20.09	20.75	10.23	6.48	3.72	0.32	0.09	
	500만 원 이상	2.06	8.92	13.62	16.53	16.96	18.06	12.36	7.23	3.63	0.54	0.10	
학력	중졸 이하	0.49	6.57	17.92	15.78	17.43	20.64	11.64	5.89	3.48	0.16	0.00	37.632 (20)**
	고졸	2.68	8.34	15.59	16.58	17.61	20.07	8.33	6.49	3.43	0.56	0.32	
	대졸 이상	1.94	8.76	12.25	16.82	17.70	18.28	12.81	8.12	2.64	0.62	0.07	
경제 활동 상태	상용직	1.20	6.83	15.20	16.35	19.78	20.05	9.98	6.17	3.46	0.83	0.16	74.265 (50)*
	임금근로자	3.14	8.27	14.50	20.25	16.37	23.23	5.39	6.77	1.94	0.15	0.00	
	임시·일용직	2.17	8.36	15.07	14.18	16.35	16.93	13.06	9.25	4.14	0.43	0.06	
	고용주, 자영자	0.00	7.44	10.96	8.17	23.75	24.58	16.54	6.11	1.98	0.46	0.00	
	무급가족	2.53	11.79	15.66	16.56	17.19	12.84	12.83	4.75	5.35	0.00	0.51	
	종사자	2.69	9.57	13.14	18.30	16.10	19.73	10.88	6.93	1.93	0.44	0.29	
직업 안정성 (임금 근로자)	정규직	1.28	6.74	15.13	15.75	20.34	19.62	10.21	6.53	3.33	0.89	0.18	14.806 (10)
	비정규직	2.47	8.16	14.82	20.85	15.74	23.58	5.87	5.72	2.63	0.16	0.00	
이념적 성향	보수적	2.21	12.20	17.10	14.47	17.69	19.73	10.11	3.79	1.85	0.70	0.14	70.550 (20)***
	중도적	1.76	8.39	15.19	16.98	17.02	19.29	10.15	7.38	3.39	0.35	0.09	
	진보적	2.45	4.25	10.43	17.75	18.78	19.16	12.67	9.78	3.67	0.71	0.35	

주: “귀하는 전반적으로 볼 때, 우리 사회가 다음 중 어떤 사회에 가깝다고 평가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부표 3-11〉 현재 우리 사회 평가: (5) 서로의 의견을 경청하고 이해하려 노력하는 사회

(단위 : %)

구분		⑩주장만 내세우고 남을 배려하지 않는 갈등이 심한 사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의견을 경청하고 이해하려 노력하는 사회	X ² (df)
전체		1.21	4.47	11.28	17.75	15.94	25.86	12.27	8.17	2.30	0.62	0.14	
성별	남성	1.76	5.05	10.69	18.46	17.26	23.38	11.59	9.04	2.10	0.47	0.21	20.075
	여성	0.64	3.87	11.88	17.02	14.58	28.42	12.96	7.27	2.51	0.78	0.07	(10)*
연령	20대 이하	1.72	3.93	7.18	15.98	14.88	30.41	14.81	8.65	1.35	0.76	0.35	71.114 (40)**
	30대	1.43	4.49	10.54	17.12	13.89	26.75	12.58	8.46	3.46	1.08	0.19	
	40대	1.37	3.93	11.85	15.23	13.17	28.83	13.24	9.06	2.80	0.40	0.11	
	50대	1.01	3.95	13.79	22.84	16.42	21.00	9.32	9.42	1.78	0.48	0.00	
	60대 이상	0.57	6.04	12.51	17.20	21.03	22.91	11.73	5.27	2.17	0.48	0.08	
지역1	수도권	1.59	5.00	11.33	18.33	14.17	27.32	11.92	7.54	2.20	0.53	0.07	25.937
	비수도권	0.81	3.93	11.22	17.15	17.77	24.35	12.63	8.82	2.39	0.72	0.22	(10)**
지역2	대도시	1.05	4.11	11.24	18.05	15.78	25.26	12.89	7.68	3.01	0.76	0.16	18.152 (20)
	중소도시	1.40	4.83	11.26	17.52	15.79	26.90	11.68	8.42	1.65	0.43	0.11	
	농어촌	0.82	4.23	11.60	17.53	17.71	22.64	12.46	9.30	2.39	1.10	0.23	
주관적 소득 계층	하층	0.69	6.39	12.29	20.76	15.75	21.98	12.80	5.62	2.65	0.87	0.19	50.139 (30)*
	중하층	1.69	3.79	10.80	19.75	17.37	25.36	11.29	7.59	1.66	0.55	0.14	
	중간층	0.96	4.46	11.30	15.62	14.99	28.18	12.62	8.57	2.49	0.67	0.15	
	중상층(상층)	1.15	4.81	11.97	15.32	14.70	18.61	14.65	14.47	4.17	0.15	0.00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0.54	5.64	11.55	21.62	17.43	22.02	12.98	5.26	2.34	0.62	0.00	37.503 (40)
	200만 원대	1.09	3.93	10.64	20.69	17.79	24.01	10.59	7.66	2.75	0.59	0.26	
	300만 원대	0.42	4.08	10.16	17.77	19.59	24.05	12.17	8.63	2.31	0.75	0.08	
	400만 원대	0.36	3.81	10.54	16.73	17.32	29.18	11.62	7.90	2.11	0.21	0.22	
	500만 원 이상	2.14	4.71	12.19	15.67	12.63	27.36	12.98	9.27	2.17	0.75	0.14	
학력	중졸 이하	0.00	3.47	10.41	17.65	22.76	24.41	12.51	5.42	2.68	0.69	0.00	37.038 (20)*
	고졸	1.67	4.67	12.67	18.44	17.10	23.55	12.42	6.89	1.80	0.54	0.25	
	대졸 이상	1.16	4.61	10.24	17.13	12.62	28.52	12.04	10.28	2.65	0.69	0.08	
경제 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1.09	3.74	10.59	19.71	15.38	25.40	13.63	7.55	2.10	0.79	0.04	58.621 (50)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1.04	3.21	13.69	19.83	15.87	24.87	11.85	6.90	2.31	0.28	0.15	
	고용주, 자영자	1.47	5.37	11.64	15.68	16.68	22.95	11.41	11.29	2.38	0.98	0.14	
	무급가족종사자	0.00	6.57	2.93	11.57	16.83	37.90	15.48	6.99	1.25	0.46	0.00	
	실업자	1.91	4.08	10.21	22.64	18.98	22.64	8.06	7.67	3.51	0.30	0.00	
	비경제활동인구	1.18	4.91	11.76	16.31	15.56	28.71	11.77	6.83	2.40	0.29	0.29	
직업 안정성 (임금 근로자)	정규직	1.19	3.52	10.72	19.40	15.53	25.83	13.92	6.91	2.16	0.77	0.04	3.465 (10)
	비정규직	0.80	3.88	12.64	20.60	15.36	23.89	11.53	8.64	2.10	0.44	0.11	
이념적 성향	보수적	2.56	7.37	12.27	19.71	17.59	20.97	11.83	5.13	1.71	0.80	0.07	60.068 (20)***
	중도적	0.68	4.11	12.27	18.66	16.16	25.91	12.00	7.12	2.59	0.37	0.12	
	진보적	0.97	2.42	8.32	14.03	13.92	30.43	13.22	13.19	2.27	0.97	0.25	

주: "귀하는 전반적으로 볼 때, 우리 사회가 다음 중 어떤 사회에 가깝다고 평가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270 사회통합 실태 진단 및 대응 방안 연구(VI): 사회통합 상태 진단

〈부표 3-12〉 우리나라 사회통합의 정도

(단위 : %)

구분		◎전혀 이루이지 못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보통	⑥	⑦	⑧	⑨	⑩매우 잘 이루 지고 있다	χ² (df)
전체		2.01	4.16	10.44	18.14	17.61	29.19	10.78	5.56	1.77	0.28	0.07	
성별	남성	3.10	3.74	11.02	18.82	17.68	26.78	11.13	5.68	1.76	0.20	0.08	32.786 (10)***
	여성	0.87	4.58	9.83	17.43	17.55	31.69	10.41	5.43	1.77	0.36	0.07	
연령	20대 이하	1.78	4.66	9.87	16.42	15.49	30.04	12.40	6.24	2.82	0.12	0.18	46.206 (40)
	30대	2.38	3.61	8.70	19.06	16.71	30.11	11.66	5.72	1.46	0.58	0.00	
	40대	2.38	4.04	9.69	17.72	18.32	30.09	12.16	4.72	0.56	0.21	0.11	
	50대	1.42	5.75	8.75	20.50	19.26	27.09	8.22	6.15	2.44	0.41	0.00	
	60대 이상	2.11	2.65	14.99	16.86	17.95	28.89	9.76	5.02	1.59	0.10	0.08	
지역1	수도권	1.85	4.58	10.57	19.06	18.98	27.71	10.08	4.86	2.01	0.30	0.00	15.508 (10)
	비수도권	2.17	3.72	10.30	17.18	16.20	30.72	11.49	6.28	1.52	0.26	0.15	
지역2	대도시	2.04	3.37	9.79	19.83	18.06	26.56	11.84	6.15	1.90	0.42	0.05	27.444 (20)
	중소도시	2.02	4.80	11.15	17.21	16.86	30.86	10.02	4.95	1.81	0.21	0.11	
	농어촌	1.75	4.48	9.55	14.53	19.82	33.35	9.64	6.08	0.81	0.00	0.00	
주관적 소득 계층	하층	1.48	3.21	10.17	23.17	21.46	24.85	7.71	6.26	1.49	0.00	0.19	40.356 (30)
	중하층	1.99	4.61	9.17	20.50	17.82	27.36	11.85	5.09	1.42	0.15	0.05	
	중간층	2.00	4.27	11.65	14.90	16.87	31.79	10.63	5.92	1.69	0.20	0.08	
	중상층(상층)	3.32	2.36	9.41	17.94	13.76	29.57	11.71	4.09	5.37	2.48	0.00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1.53	4.16	11.86	19.15	17.97	26.62	10.74	6.48	1.49	0.00	0.00	43.232 (40)
	200만 원대	1.72	5.13	11.00	20.73	16.86	30.47	6.86	5.13	1.42	0.42	0.26	
	300만 원대	2.22	2.07	10.45	20.61	15.40	31.61	10.59	5.48	1.17	0.33	0.08	
	400만 원대	1.08	5.59	9.19	16.86	20.03	30.63	8.96	5.76	1.79	0.12	0.00	
	500만 원 이상	2.55	4.09	10.21	16.22	17.78	27.98	13.12	5.37	2.24	0.36	0.06	
학력	중졸 이하	0.50	1.28	11.52	21.82	17.46	30.02	9.49	5.82	2.08	0.00	0.00	38.273 (20)***
	고졸	2.82	3.85	10.90	18.44	17.87	29.42	9.35	5.45	1.33	0.40	0.18	
	대졸 이상	1.73	5.39	9.65	16.65	17.42	28.70	12.56	5.57	2.08	0.26	0.00	
경제활 동상태	상용직	1.61	5.06	10.27	19.91	18.15	27.66	10.21	4.96	1.89	0.24	0.04	61.657 (50)
	임금근로자												
	임시·일용직	1.31	4.37	9.71	21.06	19.96	29.63	6.65	6.45	0.83	0.00	0.00	
	임금근로자												
	고용주, 자영자	3.54	3.58	9.20	16.25	14.14	27.28	15.79	7.22	2.42	0.58	0.00	
	무급가족	0.47	1.11	9.03	12.15	23.70	36.72	11.71	4.03	0.61	0.46	0.00	
중사자													
실업자	2.71	7.06	15.26	22.12	13.37	24.68	4.86	5.11	4.83	0.00	0.00		
비경제활동인구	1.43	3.36	11.46	16.59	19.21	32.52	9.22	4.73	1.08	0.18	0.22		
직업안 정성 (임금근 로자)	정규직	1.74	5.38	10.11	20.06	17.62	27.77	10.39	4.94	1.76	0.19	0.04	4.174 (10)
	비정규직	1.07	3.72	10.25	20.40	20.87	28.92	7.01	6.17	1.41	0.18	0.00	
이념적 성향	보수적	3.69	4.76	14.24	19.32	15.10	26.41	10.67	3.99	1.56	0.19	0.07	64.296 (20)***
	중도적	1.52	3.57	9.76	18.77	19.60	30.54	8.96	5.79	1.08	0.39	0.02	
	진보적	1.38	4.76	8.16	15.73	16.01	29.14	14.55	6.59	3.36	0.14	0.18	

주: “귀하는 현재 우리나라가 사회통합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부표 3-13〉 사회통합을 위한 조건: (1)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국민을 지원하는 것

(단위 : %)

구분		①별로 중요하지 않다	②조금 중요하다	③대체로 중요하다	④매우 중요하다	X ² (df)
전체		1.28	20.75	50.41	27.56	
성별	남성	1.68	20.71	50.06	27.55	1.191(3)
	여성	0.86	20.78	50.78	27.58	
연령	20대 이하	1.05	17.28	49.96	31.71	17.353(12)
	30대	1.07	19.66	56.32	22.95	
	40대	1.48	21.06	47.38	30.08	
	50대	1.23	25.53	49.18	24.05	
	60대 이상	1.52	19.62	49.91	28.95	
지역1	수도권	1.05	17.28	49.96	31.71	4.638(3)
	비수도권	1.07	19.66	56.32	22.95	
지역2	대도시	1.09	19.62	50.81	28.48	15.560(6)*
	중소도시	1.24	21.27	50.07	27.42	
	농어촌	2.58	23.67	50.37	23.37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0.46	18.72	50.15	30.67	28.392(9)***
	중하층	1.73	21.08	46.79	30.40	
	중간층	1.11	20.86	53.74	24.28	
	중상층(상층)	1.48	22.15	47.54	28.84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1.27	20.56	48.10	30.07	22.929(12)*
	200만 원대	0.61	19.57	52.05	27.77	
	300만 원대	0.39	20.19	52.50	26.92	
	400만 원대	0.98	23.59	49.49	25.94	
	500만 원 이상	2.03	20.40	50.03	27.53	
학력	중졸 이하	1.26	23.24	46.28	29.22	2.526(6)
	고졸	1.55	19.78	50.39	28.28	
	대졸 이상	1.03	20.85	51.78	26.34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0.76	21.28	51.56	26.39	32.366(15)**
	임금근로자	1.09	24.21	44.46	30.25	
	임시·일용직	2.66	21.46	47.92	27.96	
	임금근로자	0.79	21.27	49.19	28.74	
	고용주, 자영자	1.19	17.89	49.68	31.24	
	무급가족 종사자	0.83	18.63	53.37	27.18	
	실업자	0.83	18.63	53.37	27.18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0.79	21.15	51.78	26.28	4.656(3)
	비정규직	0.93	23.86	45.55	29.65	
이념적 성향	보수적	2.68	22.56	47.53	27.23	24.130(6)***
	중도적	0.97	19.50	52.88	26.65	
	진보적	0.56	21.51	48.21	29.72	

주: “귀하는 사회통합이 잘 되기 위해서 다음 각각의 중요도는 어느 정도라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부표 3-14〉 사회통합을 위한 조건: (2)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사회를 이루는 것

(단위 : %)

구분		①별로 중요하지 않다	②조금 중요하다	③대체로 중요하다	④매우 중요하다	X ² (df)
전체		0.68	11.44	45.14	42.74	
성별	남성	0.68	13.21	43.77	42.35	1.860(3)
	여성	0.68	9.62	46.56	43.14	
연령	20대 이하	0.49	9.42	47.11	42.98	9.767(12)
	30대	0.61	11.83	44.21	43.34	
	40대	0.32	12.97	46.35	40.36	
	50대	0.67	10.48	45.79	43.06	
지역1	수도권	0.19	10.70	44.61	44.49	8.797(3)*
	비수도권	1.18	12.21	45.68	40.93	
지역2	대도시	0.19	10.74	44.91	44.15	22.773(6)***
	중소도시	0.99	11.62	44.85	42.55	
	농어촌	1.43	14.24	48.18	36.15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1.57	10.80	48.47	39.16	22.226(9)**
	중하층	0.54	10.38	42.95	46.13	
	중간층	0.52	12.45	46.09	40.95	
	중상층(상층)	0.95	11.67	44.37	43.01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0.74	13.72	45.09	40.45	5.124(12)
	200만 원대	0.92	12.92	44.18	41.99	
	300만 원대	0.79	10.42	46.24	42.55	
	400만 원대	0.30	13.17	46.70	39.82	
	500만 원 이상	0.66	9.85	44.47	45.02	
학력	중졸 이하	1.02	11.74	41.29	45.95	1.562(6)
	고졸	0.80	11.78	46.81	40.61	
	대졸 이상	0.45	11.02	44.82	43.71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0.35	10.13	46.23	43.29	16.246(15)
	임금근로자	0.71	11.71	45.01	42.58	
	임시·일용직	1.17	14.73	43.03	41.07	
	임금근로자	1.22	11.32	39.86	47.61	
	고용주, 자영자	0.41	8.51	50.10	40.98	
	무급가족 종사자	0.64	10.50	45.46	43.40	
	실업자	0.41	8.51	50.10	40.98	
비경제활동인구	0.64	10.50	45.46	43.40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0.28	9.80	46.13	43.79	2.358(3)
	비정규직	0.80	12.16	45.55	41.48	
이념적 성향	보수적	1.06	14.12	40.50	44.33	19.603(6)**
	중도적	0.50	10.01	46.01	43.49	
	진보적	0.69	11.78	47.84	39.70	

주: “귀하는 사회통합이 잘 되기 위해서 다음 각각의 중요도는 어느 정도라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부표 3-15〉 사회통합을 위한 정조건: (3) 남성과 여성의 처우 차이를 줄이는 것

(단위 : %)

구분		①별로 중요하지 않다	②조금 중요하다	③대체로 중요하다	④매우 중요하다	X ² (df)
전체		1.78	20.82	48.53	28.86	
성별	남성	2.52	23.88	48.61	24.99	35.032(3)***
	여성	1.02	17.65	48.45	32.87	
연령	20대 이하	2.80	17.29	49.25	30.66	28.289(12)**
	30대	1.79	19.93	52.17	26.11	
	40대	2.02	19.70	46.98	31.31	
	50대	1.22	20.06	48.43	30.29	
	60대 이상	1.20	26.77	46.32	25.72	
지역1	수도권	1.66	18.38	51.27	28.69	4.672(3)
	비수도권	1.91	23.33	45.71	29.05	
지역2	대도시	0.19	10.74	44.91	44.15	40.350(6)***
	중소도시	0.99	11.62	44.85	42.55	
	농어촌	1.43	14.24	48.18	36.15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1.50	22.05	47.98	28.47	14.549(9)
	중하층	1.65	18.61	49.27	30.47	
	중간층	4.20	27.78	46.98	21.05	
	중상층(상층)	0.95	11.67	44.37	43.01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3.30	25.53	47.33	23.84	16.827(12)
	200만 원대	1.50	24.98	44.87	28.66	
	300만 원대	1.25	21.44	47.59	29.72	
	400만 원대	1.53	17.42	50.95	30.10	
	500만 원 이상	1.71	18.64	49.84	29.81	
학력	중졸 이하	1.31	27.04	45.33	26.32	30.419(6)***
	고졸	1.68	19.92	49.23	29.17	
	대졸 이상	2.04	19.64	48.92	29.40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1.43	21.33	45.79	31.46	39.898(15)***
	임금근로자	2.09	18.12	48.73	31.06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2.64	23.67	49.31	24.38	
	고용주, 자영자	1.23	25.80	51.89	21.07	
	무급가족 종사자	6.13	23.71	41.79	28.36	
	실업자	0.88	17.91	51.71	29.50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1.39	21.60	45.83	31.19	1.122(3)
	비정규직	2.03	18.18	47.95	31.83	
이념적 성향	보수적	2.95	27.80	45.41	23.84	36.380(6)***
	중도적	1.35	19.14	49.19	30.31	
	진보적	1.54	17.51	50.20	30.76	

주: “귀하는 사회통합이 잘 되기 위해서 다음 각각의 중요도는 어느 정도라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부표 3-16> 사회통합을 위한 조건: (4)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처우 차이를 줄이는 것

(단위 : %)

구분		①별로 중요하지 않다	②조금 중요하다	③대체로 중요하다	④매우 중요하다	X ² (df)
전체		1.22	13.83	50.43	34.52	
성별	남성	1.36	15.00	52.46	31.18	5.874(3)
	여성	1.08	12.62	48.33	37.97	
연령	20대 이하	2.26	12.78	49.73	35.22	28.039(12)**
	30대	1.41	10.70	53.25	34.64	
	40대	0.74	13.47	52.86	32.93	
	50대	0.67	14.21	47.31	37.81	
	60대 이상	1.15	17.53	49.36	31.96	
지역1	수도권	1.09	11.43	52.79	34.68	9.140(3)*
	비수도권	1.35	16.29	48.00	34.35	
지역2	대도시	1.43	13.27	50.53	34.77	11.835(6)
	중소도시	1.10	13.32	50.60	34.98	
	농어촌	0.83	20.03	48.89	30.25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1.07	13.96	55.51	29.46	9.700(9)
	중하층	0.93	15.61	47.04	36.42	
	중간층	1.30	12.89	51.20	34.61	
	중상층(상층)	2.84	9.43	55.23	32.50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1.80	17.07	47.94	33.19	34.249(12)***
	200만 원대	0.67	16.32	49.94	33.07	
	300만 원대	1.07	12.52	51.80	34.61	
	400만 원대	0.93	13.96	55.10	30.00	
	500만 원 이상	1.42	12.25	49.08	37.26	
학력	중졸 이하	1.26	18.73	48.02	31.99	23.952(6)***
	고졸	1.14	14.50	49.02	35.33	
	대졸 이상	1.28	11.58	52.56	34.58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1.35	11.51	51.38	35.76	45.138(15)***
	임금근로자					
	임시·일용직	0.62	12.98	49.74	36.67	
	임금근로자					
	고용주, 자영자	1.87	17.78	49.58	30.77	
	무급가족 종사자	0.00	15.81	58.65	25.54	
실업자	4.11	15.58	46.89	33.42		
비경제활동인구	0.45	13.16	50.04	36.35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1.31	11.72	51.67	35.30	1.279(3)
	비정규직	0.90	12.10	49.40	37.60	
이념적 성향	보수적	1.58	16.94	47.80	33.68	11.154(6)
	중도적	1.04	12.61	52.27	34.08	
	진보적	1.24	13.30	49.25	36.21	

주: “귀하는 사회통합이 잘 되기 위해서 다음 각각의 중요도는 어느 정도라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부표 3-17〉 사회통합을 위한 조건: (5)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소득 차이를 줄이는 것

(단위 : %)

구분		①별로 중요하지 않다	②조금 중요하다	③대체로 중요하다	④매우 중요하다	χ² (df)
전체		2.27	15.91	48.03	33.79	
성별	남성	2.85	15.85	48.68	32.61	6.474(3)
	여성	1.66	15.97	47.37	35.00	
연령	20대 이하	3.33	14.92	42.67	39.09	22.598(12)*
	30대	1.69	13.00	53.04	32.28	
	40대	2.89	15.55	47.94	33.62	
	50대	1.58	16.36	50.28	31.78	
	60대 이상	1.88	19.33	46.29	32.50	
지역1	수도권	2.48	13.55	49.82	34.15	8.220(3)*
	비수도권	2.05	18.35	46.19	33.41	
지역2	대도시	2.16	14.66	49.35	33.83	14.455(6)*
	중소도시	2.37	16.10	46.96	34.58	
	농어촌	2.22	21.71	47.43	28.63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1.75	15.55	48.54	34.16	18.858(9)*
	중하층	2.85	14.62	46.92	35.61	
	중간층	1.70	17.03	48.85	32.42	
	중상층(상층)	4.22	16.05	47.56	32.18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1.26	17.14	47.89	33.72	18.390(12)
	200만 원대	3.01	13.50	49.45	34.04	
	300만 원대	2.37	13.44	52.01	32.18	
	400만 원대	0.81	19.70	49.24	30.25	
	500만 원 이상	2.83	16.02	45.38	35.77	
학력	중졸 이하	1.11	17.53	48.90	32.45	12.422(6)
	고졸	3.10	17.44	46.76	32.71	
	대졸 이상	1.85	13.94	48.96	35.25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1.66	15.82	47.95	34.57	14.152(15)
	임금근로자	1.75	18.51	52.42	27.32	
	임시·일용직	2.73	17.88	46.69	32.70	
	임금근로자	0.95	13.68	50.01	35.36	
	고용주, 자영자	4.70	14.16	40.19	40.96	
	무급가족 종사자	2.58	13.85	48.62	34.95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1.67	15.65	48.66	34.01	1.314(3)
	비정규직	1.68	18.31	49.60	30.41	
이념적 성향	보수적	3.87	17.65	45.84	32.65	11.455(6)
	중도적	1.50	15.75	48.98	33.77	
	진보적	2.26	14.58	48.24	34.92	

주: “귀하는 사회통합이 잘 되기 위해서 다음 각각의 중요도는 어느 정도라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부표 3-18〉 사회통합을 위한 조건: (6) 사회 구성원이 문화적 다양성(이민자, 성소수자, 북한이탈주민 등)을 인정하는 것

(단위: %)

구분		①별로 중요하지 않다	②조금 중요하다	③대체로 중요하다	④매우 중요하다	X ² (df)
전체		7.35	28.60	44.81	19.24	
성별	남성	8.18	27.91	44.74	19.17	3.769(3)
	여성	6.48	29.31	44.89	19.31	
연령	20대 이하	8.64	25.48	43.32	22.57	12.889(12)
	30대	7.28	27.28	42.72	22.71	
	40대	5.98	32.49	46.48	15.05	
	50대	7.03	29.24	44.52	19.22	
	60대 이상	7.93	28.06	46.67	17.34	
지역1	수도권	8.02	27.46	44.60	19.92	2.758(3)
	비수도권	6.65	29.77	45.03	18.54	
지역2	대도시	6.95	29.39	45.23	18.43	18.603(6)**
	중소도시	7.11	27.36	45.18	20.35	
	농어촌	11.05	31.95	40.19	16.81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8.02	32.28	45.66	14.04	17.353(9)*
	중하층	8.52	31.96	40.70	18.83	
	중간층	6.55	25.67	47.47	20.31	
	중상층(상층)	4.70	22.24	48.22	24.84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8.64	31.27	44.91	15.18	11.801(12)
	200만 원대	8.21	28.05	44.13	19.61	
	300만 원대	9.09	27.89	43.43	19.58	
	400만 원대	5.89	30.34	42.50	21.27	
	500만 원 이상	6.40	27.53	46.53	19.54	
학력	중졸 이하	1.11	17.53	48.90	32.45	13.181(6)*
	고졸	3.10	17.44	46.76	32.71	
	대졸 이상	1.85	13.94	48.96	35.25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7.01	30.13	41.41	21.44	17.413(15)
	임금근로자	9.15	31.22	44.92	14.71	
	임시·일용직	7.28	28.47	48.32	15.93	
	임금근로자	11.37	37.56	42.44	8.63	
	고용주, 자영자	11.35	23.35	42.40	22.90	
	무급가족 종사자	6.39	25.92	46.37	21.32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7.11	30.37	41.31	21.20	4.851(3)
	비정규직	8.40	30.36	44.35	16.88	
이념적 성향	보수적	10.00	30.83	43.36	15.81	15.434(6)*
	중도적	6.89	28.19	44.19	20.73	
	진보적	5.72	27.29	47.46	19.53	

주: “귀하는 사회통합이 잘 되기 위해서 다음 각각의 중요도는 어느 정도라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부표 3-19> 사회통합을 위한 조건: (7) 사회 구성원이 서로 믿고 살아가는 것

(단위 : %)

구분		①별로 중요하지 않다	②조금 중요하다	③대체로 중요하다	④매우 중요하다	X' (df)
전체		0.82	11.19	47.47	40.52	
성별	남성	0.88	11.65	47.10	40.37	1.379(3)
	여성	0.75	10.71	47.86	40.68	
연령	20대 이하	0.79	9.82	47.33	42.06	9.422(12)
	30대	0.58	11.55	47.43	40.43	
	40대	0.56	10.13	47.03	42.28	
	50대	1.20	10.89	45.42	42.50	
	60대 이상	0.91	13.50	50.22	35.37	
지역1	수도권	0.58	8.30	47.07	44.05	16.614(3)***
	비수도권	1.06	14.16	47.89	36.89	
지역2	대도시	0.95	10.80	47.23	41.02	17.440(6)**
	중소도시	0.69	10.38	48.15	40.79	
	농어촌	0.89	18.34	44.63	36.15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1.32	12.01	51.63	35.04	4.411(9)
	중하층	0.91	9.73	46.81	42.56	
	중간층	0.60	12.09	47.25	40.06	
	중상층(상층)	0.84	11.57	44.42	43.17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0.45	13.97	50.96	34.62	17.950(12)
	200만 원대	0.95	13.40	49.31	36.34	
	300만 원대	1.15	11.11	41.65	46.09	
	400만 원대	1.12	10.72	47.48	40.67	
	500만 원 이상	0.63	9.58	48.02	41.77	
학력	중졸 이하	1.18	16.25	47.51	35.06	22.088(6)**
	고졸	1.12	12.05	48.77	38.05	
	대졸 이상	0.40	8.71	46.23	44.66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0.91	10.73	47.48	40.88	13.057(15)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0.17	9.81	45.94	44.08	
	고용주, 자영자	0.88	13.27	48.87	36.97	
	무급가족 종사자	1.37	6.17	48.35	44.11	
	실업자	0.00	8.04	48.98	42.98	
	비경제활동인구	0.92	11.20	46.53	41.35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0.89	10.56	47.64	40.91	2.945(3)
	비정규직	0.39	10.45	45.90	43.27	
이념적 성향	보수적	1.03	13.49	50.04	35.45	15.795(6)*
	중도적	0.68	11.09	47.21	41.01	
	진보적	0.88	9.17	45.54	44.40	

주: "귀하는 사회통합이 잘 되기 위해서 다음 각각의 중요도는 어느 정도라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부표 3-20> 사회통합을 위한 조건: (8) 사회 구성원이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

(단위 : %)

구분		①별로 중요하지 않다	②조금 중요하다	③대체로 중요하다	④매우 중요하다	X ² (df)
전체		1.65	16.59	47.18	34.57	
성별	남성	2.06	16.86	44.80	36.28	3.860 (3)
	여성	1.22	16.32	49.65	32.81	
연령	20대 이하	1.08	15.38	42.79	40.75	31.229 (12)**
	30대	1.85	17.03	45.78	35.34	
	40대	1.78	14.16	49.95	34.10	
	50대	2.01	14.80	51.39	31.80	
	60대 이상	1.49	21.62	45.33	31.55	
지역1	수도권	1.76	13.64	49.39	35.21	5.771 (3)
	비수도권	1.53	19.64	44.91	33.92	
지역2	대도시	2.29	17.82	46.75	33.14	44.321 (6)***
	중소도시	0.84	13.67	49.35	36.14	
	농어촌	3.18	27.96	36.10	32.76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3.42	16.72	51.17	28.69	18.651 (9)*
	중하층	1.69	16.02	46.08	36.21	
	중간층	1.16	17.25	47.03	34.56	
	중상층(상층)	1.46	14.63	46.84	37.07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3.29	19.27	43.52	33.92	20.981 (12)
	200만 원대	1.51	18.90	48.42	31.17	
	300만 원대	0.87	18.09	42.06	38.97	
	400만 원대	1.43	15.21	52.83	30.53	
	500만 원 이상	1.56	14.68	47.90	35.86	
학력	중졸 이하	2.28	21.94	46.30	29.48	34.066 (6)***
	고졸	1.48	18.41	46.21	33.90	
	대졸 이상	1.60	13.12	48.40	36.88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1.71	13.32	48.50	36.46	21.378 (15)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2.62	16.70	46.94	33.74	
	고용주, 자영자	1.85	19.63	44.32	34.20	
	무급가족 종사자	1.32	22.26	42.63	33.79	
	실업자	2.20	17.46	47.75	32.59	
	비경제활동인구	1.03	17.36	48.41	33.20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1.81	13.24	48.51	36.44	3.537 (3)
	비정규직	2.16	16.12	47.30	34.42	
이념적 성향	보수적	2.04	22.18	44.96	30.82	35.629 (6)***
	중도적	1.26	15.89	49.03	33.82	
	진보적	2.07	12.64	45.60	39.69	

주: "귀하는 사회통합이 잘 되기 위해서 다음 각각의 중요도는 어느 정도라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부표 3-21〉 사회통합을 위한 조건: (9) 법·규칙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

(단위 : %)

구분		①별로 중요하지 않다	②조금 중요하다	③대체로 중요하다	④매우 중요하다	X ² (df)
전체		0.89	10.87	42.17	46.07	
성별	남성	0.82	10.85	41.54	46.79	0.899 (3)
	여성	0.97	10.88	42.82	45.33	
연령	20대 이하	1.06	8.88	40.95	49.12	13.259 (12)
	30대	1.30	11.84	40.56	46.30	
	40대	0.49	9.80	41.20	48.51	
	50대	1.02	10.14	45.24	43.60	
	60대 이상	0.65	13.66	42.52	43.18	
지역1	수도권	0.73	9.76	44.98	44.54	6.660 (3)
	비수도권	1.06	12.01	39.28	47.65	
지역2	대도시	0.85	10.18	43.71	45.26	7.868 (6)
	중소도시	0.85	10.95	41.59	46.60	
	농어촌	1.38	14.13	37.27	47.23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0.47	10.16	42.28	47.09	4.837 (9)
	중하층	1.06	9.37	40.70	48.87	
	중간층	0.82	12.28	43.86	43.04	
	중상층(상층)	1.36	10.67	37.64	50.33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0.86	12.86	41.76	44.52	38.731 (12)***
	200만 원대	0.96	9.76	45.65	43.63	
	300만 원대	1.20	14.77	37.06	46.97	
	400만 원대	0.68	10.44	47.71	41.16	
	500만 원 이상	0.83	9.15	40.93	49.10	
학력	중졸 이하	0.67	10.86	43.64	44.84	13.202 (6)*
	고졸	0.89	12.44	43.05	43.62	
	대졸 이상	0.97	9.37	40.86	48.80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0.99	8.84	41.80	48.37	13.983 (15)
	임금근로자	1.61	10.70	40.96	46.73	
	임시·일용직	1.07	13.10	40.88	44.95	
	임금근로자	0.79	8.79	37.51	52.90	
	고용주, 자영자	0.00	7.15	39.93	52.92	
	무급가족 종사자	0.50	12.09	44.77	42.64	
	실업자	0.00	7.15	39.93	52.92	
비경제활동인구	0.50	12.09	44.77	42.64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0.96	8.48	42.71	47.86	2.066 (3)
	비정규직	1.55	11.19	38.88	48.39	
이념적 성향	보수적	0.76	14.31	41.75	43.18	12.168 (6)
	중도적	1.05	10.15	43.00	45.81	
	진보적	0.71	9.01	40.90	49.38	

주: “귀하는 사회통합이 잘 되기 위해서 다음 각각의 중요도는 어느 정도라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부표 3-22〉 사회통합을 위한 조건: (10) 사회 구성원 각자가 주어진 역할에 충실한 것

(단위 : %)

구분		①별로 중요하지 않다	②조금 중요하다	③대체로 중요하다	④매우 중요하다	X ² (df)
전체		0.62	8.85	48.91	41.61	
성별	남성	0.63	9.28	47.24	42.85	0.907 (3)
	여성	0.61	8.41	50.64	40.33	
연령	20대 이하	0.38	7.07	49.17	43.39	8.340 (12)
	30대	0.69	11.39	50.12	37.79	
	40대	0.53	8.62	48.80	42.04	
	50대	1.25	6.79	49.26	42.71	
	60대 이상	0.23	10.61	47.37	41.79	
지역1	수도권	0.43	6.52	50.82	42.22	10.476 (3)*
	비수도권	0.82	11.25	46.95	40.98	
지역2	대도시	0.69	8.27	50.76	40.28	21.833 (6)**
	중소도시	0.57	8.51	47.42	43.51	
	농어촌	0.60	14.21	48.08	37.10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0.36	9.82	54.06	35.76	9.409 (9)
	중하층	0.66	7.17	48.56	43.62	
	중간층	0.69	9.42	47.93	41.95	
	중상층(상층)	0.40	13.17	47.85	38.57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0.28	11.08	48.38	40.26	14.406 (12)
	200만 원대	0.27	8.71	50.90	40.13	
	300만 원대	1.05	9.91	45.81	43.24	
	400만 원대	0.40	9.61	49.59	40.39	
	500만 원 이상	0.79	7.41	49.36	42.44	
학력	중졸 이하	0.36	9.89	47.67	42.08	8.359 (6)
	고졸	0.40	8.93	49.34	41.33	
	대졸 이상	0.92	8.44	48.92	41.72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1.09	6.95	49.49	42.47	15.858 (15)
	임금근로자	0.42	7.48	49.84	42.26	
	임시·일용직	0.66	10.96	49.91	38.46	
	임금근로자	0.42	7.20	45.97	46.41	
	고용주, 자영자	0.00	9.76	45.08	45.15	
	무급가족 종사자	0.18	9.83	47.76	42.23	
	실업자	0.18	9.83	47.76	42.23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1.08	7.04	50.74	41.13	2.799 (3)
	비정규직	0.60	7.12	46.60	45.69	
이념적 성향	보수적	0.44	11.87	51.68	36.00	24.484 (6)***
	중도적	0.55	8.03	48.48	42.94	
	진보적	0.94	7.61	47.14	44.31	

주: “귀하는 사회통합이 잘 되기 위해서 다음 각각의 중요도는 어느 정도라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부표 3-23> 사회통합을 위한 조건: (11) 사회 고위층에 상응하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노블레스 오블리주)

(단위 : %)

구분		①별로 중요하지 않다	②조금 중요하다	③대체로 중요하다	④매우 중요하다	X ² (df)
전체		0.98	11.51	48.40	39.11	
성별	남성	0.99	12.33	48.35	38.33	0.496 (3)
	여성	0.97	10.66	48.45	39.92	
연령	20대 이하	1.21	9.89	48.87	40.03	23.567 (12)*
	30대	0.49	11.74	50.86	36.91	
	40대	0.91	12.54	43.21	43.35	
	50대	1.58	8.92	49.27	40.23	
	60대 이상	0.65	14.45	50.11	34.79	
지역1	수도권	0.81	9.65	50.85	38.70	5.023 (3)
	비수도권	1.16	13.43	45.88	39.54	
지역2	대도시	0.69	8.27	50.76	40.28	31.057 (6)***
	중소도시	0.57	8.51	47.42	43.51	
	농어촌	0.60	14.21	48.08	37.10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0.99	11.77	55.74	31.50	10.015 (9)
	중하층	1.21	11.29	45.62	41.87	
	중간층	0.84	11.47	49.25	38.44	
	중상층(상층)	0.56	12.79	43.29	43.36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0.60	14.77	49.23	35.40	18.846 (12)
	200만 원대	0.71	11.13	47.00	41.16	
	300만 원대	1.51	12.02	48.20	38.27	
	400만 원대	0.59	13.59	48.71	37.10	
	500만 원 이상	1.14	9.53	48.63	40.69	
학력	중졸 이하	0.62	14.82	51.97	32.59	30.728 (6)***
	고졸	1.26	12.11	49.62	37.00	
	대졸 이상	0.83	9.86	46.07	43.24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1.19	10.91	49.62	38.28	17.377 (15)
	임금근로자					
	임시·일용직	0.66	9.71	46.77	42.87	
	임금근로자					
	고용주, 자영자	0.74	13.32	48.65	37.29	
	무급가족 종사자	0.42	15.35	44.28	39.94	
실업자	2.76	15.39	36.81	45.04		
비경제활동인구	0.86	10.52	49.02	39.60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1.16	10.60	50.89	37.35	1.407
	비정규직	0.88	10.77	44.22	44.13	(3)
이념적 성향	보수적	1.09	16.37	47.21	35.32	19.316 (6)**
	중도적	0.73	10.15	49.25	39.87	
	진보적	1.38	9.59	47.83	41.21	

주: “귀하는 사회통합이 잘 되기 위해서 다음 각각의 중요도는 어느 정도라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부표 3-24〉 사회통합을 위한 조건: (12) 사회 구성원이 자기만을 생각하지 않고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것
(단위: %)

구분		①별로 중요하지 않다	②조금 중요하다	③대체로 중요하다	④매우 중요하다	X ² (df)
전체		0.49	10.75	52.35	36.41	
성별	남성	0.45	11.22	51.94	36.38	0.248 (3)
	여성	0.53	10.26	52.77	36.45	
연령	20대 이하	0.42	10.87	53.23	35.49	10.688 (12)
	30대	0.73	11.15	51.46	36.67	
	40대	0.33	8.52	48.68	42.48	
	50대	0.87	9.97	55.68	33.48	
	60대 이상	0.10	13.35	52.58	33.97	
지역1	수도권	0.23	7.82	53.94	38.01	19.302 (3)***
	비수도권	0.76	13.77	50.71	34.77	
지역2	대도시	0.56	9.85	54.40	35.19	15.918 (6)*
	중소도시	0.44	10.76	50.82	37.98	
	농어촌	0.42	15.64	50.56	33.37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0.82	10.33	54.18	34.66	9.764 (9)
	중하층	0.68	9.93	53.99	35.39	
	중간층	0.30	11.31	51.40	36.99	
	중상층(상층)	0.00	12.46	45.17	42.37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0.70	14.10	52.20	32.99	9.060 (12)
	200만 원대	0.44	10.53	54.89	34.14	
	300만 원대	0.67	11.36	49.25	38.72	
	400만 원대	0.50	10.13	49.52	39.85	
	500만 원 이상	0.35	9.68	53.80	36.16	
학력	중졸 이하	0.30	13.79	55.17	30.74	18.082 (6)**
	고졸	0.52	9.99	54.92	34.57	
	대졸 이상	0.52	10.48	48.99	40.01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0.77	11.18	50.79	37.25	11.766 (15)
	임금근로자	0.39	9.49	54.77	35.36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0.28	12.67	52.81	34.24	
	고용주, 자영자					
	무급가족 종사자	0.00	6.81	54.18	39.01	
실업자	0.00	11.16	54.09	34.76		
비경제활동인구	0.46	9.26	52.66	37.62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1.16	10.60	50.89	37.35	0.515 (3)
	비정규직	0.88	10.77	44.22	44.13	
이념적 성향	보수적	1.09	16.37	47.21	35.32	11.664 (6)
	중도적	0.73	10.15	49.25	39.87	
	진보적	1.38	9.59	47.83	41.21	

주: “귀하는 사회통합이 잘 되기 위해서 다음 각각의 중요도는 어느 정도라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부표 3-25〉 사회통합을 위한 조건: (13) 사회 구성원이 여러 모임 등에서 다양하게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
(단위: %)

구분		①별로 중요하지 않다	②조금 중요하다	③대체로 중요하다	④매우 중요하다	χ² (df)
전체		1.34	16.82	53.81	28.03	
성별	남성	1.70	17.70	53.55	27.05	2.506 (3)
	여성	0.97	15.92	54.07	29.04	
연령	20대 이하	1.72	15.64	56.09	26.55	8.415 (12)
	30대	1.43	18.35	55.21	25.01	
	40대	0.78	15.97	50.51	32.75	
	50대	1.48	17.18	51.75	29.60	
	60대 이상	1.35	17.04	55.92	25.69	
지역1	수도권	1.11	14.12	55.43	29.33	7.028 (3)
	비수도권	1.58	19.61	52.13	26.68	
지역2	대도시	1.51	17.32	55.91	25.26	25.675 (6)***
	중소도시	1.19	16.01	51.34	31.46	
	농어촌	1.37	19.19	57.49	21.96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1.99	17.12	56.61	24.28	7.418 (9)
	중하층	1.33	18.45	52.72	27.50	
	중간층	1.09	15.35	54.75	28.81	
	중상층(상층)	2.08	17.54	46.88	33.50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1.14	18.77	55.24	24.85	11.241 (12)
	200만 원대	1.75	16.59	53.34	28.32	
	300만 원대	1.08	20.57	51.38	26.98	
	400만 원대	1.76	16.40	53.16	28.67	
	500만 원 이상	1.20	14.85	54.77	29.18	
학력	중졸 이하	1.85	19.59	54.92	23.64	7.907 (6)
	고졸	1.33	16.17	54.69	27.82	
	대졸 이상	1.19	16.54	52.61	29.66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1.16	17.81	51.36	29.66	17.406 (15)
	임금근로자	1.00	15.71	54.89	28.40	
	임시·일용직	1.70	18.76	56.06	23.48	
	임금근로자	0.91	14.16	53.89	31.04	
	고용주, 자영자	0.55	20.08	49.70	29.66	
	무급가족 종사자	1.50	14.14	54.97	29.39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1.14	17.95	51.70	29.21	0.974 (3)
	비정규직	1.09	15.84	53.24	29.83	
이념적 성향	보수적	1.34	18.01	52.75	27.90	8.527 (6)
	중도적	1.27	17.05	53.25	28.43	
	진보적	1.49	15.22	55.94	27.35	

주: “귀하는 사회통합이 잘 되기 위해서 다음 각각의 중요도는 어느 정도라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부표 3-26〉 사회통합을 위한 조건: (14) 충분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

(단위 : %)

구분		①별로 중요하지 않다	②조금 중요하다	③대체로 중요하다	④매우 중요하다	X ² (df)
전체		0.52	12.10	49.01	38.36	
성별	남성	0.47	13.34	48.43	37.76	1.979(3)
	여성	0.58	10.82	49.62	38.98	
연령	20대 이하	0.57	9.19	47.71	42.53	10.845(12)
	30대	0.78	12.64	51.98	34.60	
	40대	0.22	11.09	50.37	38.33	
	50대	0.85	13.27	46.48	39.40	
	60대 이상	0.22	14.12	48.84	36.81	
지역1	수도권	0.20	12.08	50.81	36.92	2.219(3)
	비수도권	0.86	12.14	47.17	39.84	
지역2	대도시	0.51	11.67	49.13	38.69	11.276(6)
	중소도시	0.48	12.36	47.74	39.41	
	농어촌	0.84	12.92	56.28	29.97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0.76	12.22	54.49	32.53	12.798(9)
	중하층	0.78	11.20	48.98	39.04	
	중간층	0.24	12.62	48.32	38.83	
	중상층(상층)	0.64	13.64	42.77	42.95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0.34	13.59	50.59	35.49	11.127(12)
	200만 원대	0.67	12.97	48.95	37.41	
	300만 원대	1.03	12.93	46.51	39.52	
	400만 원대	0.40	11.55	51.55	36.50	
	500만 원 이상	0.36	11.13	48.57	39.94	
학력	중졸 이하	0.54	16.90	47.78	34.78	5.314(6)
	고졸	0.54	11.61	49.99	37.86	
	대졸 이상	0.50	11.00	48.49	40.00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0.59	13.33	50.65	35.43	10.526(15)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0.36	11.34	50.92	37.38	
	고용주, 자영자	0.44	12.26	47.20	40.10	
	무급가족종사자	1.37	7.30	51.20	40.13	
	실업자	0.00	11.30	43.46	45.24	
	비경제활동인구	0.57	11.22	48.47	39.74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0.52	13.51	51.45	34.52	0.805(3)
	비정규직	0.59	11.36	48.84	39.21	
이념적 성향	보수적	0.31	15.48	53.04	31.17	26.919(6)***
	중도적	0.43	11.42	48.17	39.98	
	진보적	0.91	10.26	46.85	41.98	

주: “귀하는 사회통합이 잘 되기 위해서 다음 각각의 중요도는 어느 정도라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부표 3-27〉 사회통합을 위한 조건: (15) 노력한 만큼 대가를 얻는 사회를 만드는 것

(단위 : %)

구분		①별로 중요하지 않다	②조금 중요하다	③대체로 중요하다	④매우 중요하다	X ² (df)
전체		0.46	7.39	40.52	51.64	
성별	남성	0.42	7.26	38.92	53.40	3.438(3)
	여성	0.50	7.52	42.16	49.82	
연령	20대 이하	0.34	5.31	44.93	49.41	11.789(12)
	30대	0.92	8.58	41.34	49.17	
	40대	0.13	6.84	38.62	54.41	
	50대	0.57	5.34	40.28	53.80	
	60대 이상	0.37	10.91	37.88	50.84	
지역1	수도권	0.33	6.41	41.41	51.84	1.758(3)
	비수도권	0.59	8.39	39.60	51.43	
지역2	대도시	0.32	6.13	39.19	54.36	16.016(6)*
	중소도시	0.60	7.94	41.98	49.48	
	농어촌	0.38	10.92	38.70	50.00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0.19	7.36	37.72	54.73	7.815(9)
	중하층	0.56	6.49	41.48	51.46	
	중간층	0.44	8.47	40.28	50.81	
	중상층(상층)	0.49	4.42	42.36	52.73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0.67	11.64	38.10	49.59	13.880(12)
	200만 원대	0.05	7.12	37.45	55.37	
	300만 원대	0.69	7.52	39.64	52.15	
	400만 원대	0.75	7.04	44.21	48.00	
	500만 원 이상	0.33	6.13	41.48	52.06	
학력	중졸 이하	0.75	8.93	34.95	55.36	8.857(6)
	고졸	0.34	7.25	42.89	49.52	
	대졸 이상	0.48	7.01	40.08	52.43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0.86	5.58	43.65	49.91	19.458(15)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0.65	4.43	40.29	54.62	
	고용주, 자영자	0.16	8.83	39.54	51.47	
	무급가족종사자	0.42	4.20	38.15	57.23	
	실업자	0.00	12.11	28.90	58.99	
	비경제활동인구	0.22	9.00	39.27	51.51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0.71	5.34	44.48	49.47	4.289(3)
	비정규직	1.07	5.32	38.97	54.64	
이념적 성향	보수적	0.39	11.67	39.08	48.86	22.049(6)**
	중도적	0.41	5.55	41.72	52.32	
	진보적	0.62	6.98	39.46	52.93	

주: “귀하는 사회통합이 잘 되기 위해서 다음 각각의 중요도는 어느 정도라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부표 3-28〉 사회통합을 위한 조건: (16) 중산층이 두꺼운 사회를 만드는 것

(단위 : %)

구분		①별로 중요하지 않다	②조금 중요하다	③대체로 중요하다	④매우 중요하다	X ² (df)
전체		1.07	11.44	50.54	36.95	
성별	남성	1.21	11.86	51.27	35.67	1.010(3)
	여성	0.93	11.00	49.79	38.28	
연령	20대 이하	1.15	11.79	49.66	37.40	12.831(12)
	30대	1.08	14.29	50.14	34.48	
	40대	0.34	11.17	46.27	42.22	
	50대	1.29	8.75	54.43	35.53	
	60대 이상	1.50	11.62	51.98	34.89	
지역1	수도권	0.96	10.82	52.83	35.39	6.824(3)
	비수도권	1.19	12.07	48.18	38.56	
지역2	대도시	0.88	11.61	51.67	35.84	16.923(6)**
	중소도시	1.10	11.04	49.33	38.53	
	농어촌	1.95	12.92	51.85	33.29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1.64	12.78	52.92	32.67	5.638(9)
	중하층	0.82	10.71	52.16	36.31	
	중간층	1.13	11.91	48.60	38.35	
	중상층(상층)	0.98	9.26	50.54	39.22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0.75	15.16	52.82	31.27	25.395(12)*
	200만 원대	1.10	12.13	51.64	35.12	
	300만 원대	1.49	12.46	52.21	33.83	
	400만 원대	1.84	11.67	49.48	37.01	
	500만 원 이상	0.69	9.38	49.05	40.89	
학력	중졸 이하	1.92	12.39	53.29	32.40	19.456(6)**
	고졸	1.07	11.79	52.39	34.74	
	대졸 이상	0.79	10.79	47.89	40.53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0.79	9.87	51.33	38.01	19.696(15)
	임금근로자	0.37	12.45	51.11	36.07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고용주, 자영자	1.40	12.50	50.50	35.61	
	무급가족종사자	1.86	9.82	54.98	33.34	
	실업자	3.51	12.39	48.95	35.15	
비경제활동인구	1.00	12.08	49.29	37.63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0.72	9.47	51.86	37.95	6.958(3)
	비정규직	0.67	12.85	49.81	36.66	
이념적 성향	보수적	1.76	13.07	49.76	35.41	15.872(6)*
	중도적	0.83	10.96	49.85	38.36	
	진보적	0.91	10.82	52.67	35.60	

주: “귀하는 사회통합이 잘 되기 위해서 다음 각각의 중요도는 어느 정도라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부표 3-29〉 사회통합을 위한 조건: (17) 일자리를 가질 기회가 많은 사회를 만드는 것

(단위 : %)

구분		①별로 중요하지 않다	②조금 중요하다	③대체로 중요하다	④매우 중요하다	X ² (df)
전체		0.45	7.71	41.39	50.46	
성별	남성	0.44	8.96	42.82	47.77	6.079(3)
	여성	0.45	6.41	39.91	53.23	
연령	20대 이하	0.35	4.95	43.47	51.23	11.774(12)
	30대	0.46	7.96	45.02	46.55	
	40대	0.31	5.84	38.41	55.44	
	50대	0.54	11.25	39.71	48.50	
	60대 이상	0.57	8.22	40.99	50.23	
지역1	수도권	0.18	5.82	42.50	51.50	14.036(3)**
	비수도권	0.72	9.65	40.24	49.38	
지역2	대도시	0.35	6.33	42.89	50.43	12.335(6)
	중소도시	0.48	8.38	39.89	51.25	
	농어촌	0.83	11.11	42.42	45.64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0.53	9.12	39.82	50.53	5.232(9)
	중하층	0.50	7.29	43.46	48.75	
	중간층	0.49	11.34	36.74	51.43	
	중상층(상층)	0.31	6.84	46.23	46.61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0.43	6.19	41.18	52.19	14.662(12)
	200만 원대	14.21	10.36	4.68	12.36	
	300만 원대	12.90	6.94	6.05	8.79	
	400만 원대	38.14	5.56	3.42	5.40	
	500만 원 이상	29.13	7.70	5.95	5.98	
학력	중졸 이하	0.70	12.46	39.82	47.03	9.110(6)
	고졸	0.58	7.36	42.75	49.31	
	대졸 이상	0.24	6.48	40.61	52.67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0.45	8.83	43.01	47.72	16.730(15)
	임금근로자	0.72	9.69	39.66	49.93	
	임시·일용직	0.42	8.12	44.27	47.19	
	임금근로자	0.00	6.92	39.14	53.94	
	고용주, 자영자	0.00	6.00	32.22	61.78	
	무급가족종사자	0.46	5.59	38.86	55.08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0.37	9.10	43.51	47.01	2.319(3)
	비정규직	0.86	8.79	39.15	51.20	
이념적 성향	보수적	0.41	8.49	42.26	48.84	14.942(6)*
	중도적	0.44	6.95	41.68	50.93	
	진보적	0.50	8.48	39.96	51.06	

주: “귀하는 사회통합이 잘 되기 위해서 다음 각각의 중요도는 어느 정도라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부표 3-30> 사회통합을 위한 조건: (18) 서로 다른 집단 간의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것

(단위 : %)

구분		①별로 중요하지 않다	②조금 중요하다	③대체로 중요하다	④매우 중요하다	X ² (df)
전체		0.62	9.47	55.47	34.44	
성별	남성	0.55	8.90	57.18	33.36	3.776(3)
	여성	0.69	10.05	53.70	35.56	
연령	20대 이하	0.76	8.48	51.23	39.53	7.549(12)
	30대	0.46	9.61	60.19	29.74	
	40대	0.62	8.18	56.07	35.14	
	50대	0.77	8.94	54.00	36.29	
	60대 이상	0.47	12.10	56.10	31.33	
지역1	수도권	0.42	6.86	56.76	35.96	8.972(3)*
	비수도권	0.83	12.15	54.14	32.88	
지역2	대도시	0.68	8.82	56.32	34.18	22.688(6)***
	중소도시	0.42	8.93	55.21	35.43	
	농어촌	1.51	16.34	52.40	29.75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0.39	8.87	61.34	29.40	15.484(9)
	중하층	0.80	9.30	50.28	39.62	
	중간층	0.61	9.92	58.15	31.32	
	중상층(상층)	0.00	8.22	54.62	37.16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0.34	13.17	55.51	30.99	21.955(12)*
	200만 원대	0.24	10.66	54.92	34.17	
	300만 원대	0.66	9.05	54.81	35.49	
	400만 원대	1.00	10.33	61.00	27.67	
	500만 원 이상	0.70	7.58	53.80	37.92	
학력	중졸 이하	0.74	13.96	53.19	32.11	25.545(6)***
	고졸	0.79	9.03	57.32	32.87	
	대졸 이상	0.42	8.42	54.47	36.70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0.72	7.77	55.83	35.68	17.288(15)
	임금근로자	0.51	10.44	57.78	31.27	
	임시·일용직	0.68	12.65	53.23	33.45	
	임금근로자	0.42	9.12	54.62	35.84	
	고용주, 자영자	1.79	11.24	51.55	35.42	
	무급가족종사자	0.35	8.27	56.73	34.64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0.74	7.61	56.53	35.12	2.001(3)
	비정규직	0.51	10.22	55.56	33.71	
이념적 성향	보수적	0.57	12.69	56.57	30.17	12.797(6)*
	중도적	0.54	8.96	56.03	34.47	
	진보적	0.83	7.40	53.28	38.49	

주: “귀하는 사회통합이 잘 되기 위해서 다음 각각의 중요도는 어느 정도라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부표 3-31〉 사회통합을 위한 조건: (19) 정부가 나서서 갈등을 잘 조정하는 것

(단위 : %)

구분		①별로 중요하지 않다	②조금 중요하다	③대체로 중요하다	④매우 중요하다	χ² (df)
전체		1.18	14.20	55.53	29.10	
성별	남성	1.74	16.64	54.59	27.04	11.414(3)**
	여성	0.61	11.67	56.50	31.23	
연령	20대 이하	1.44	13.41	55.12	30.03	6.614(12)
	30대	1.84	13.53	60.64	23.99	
	40대	0.88	13.18	54.76	31.17	
	50대	0.65	13.49	52.72	33.14	
	60대 이상	1.21	17.27	55.04	26.49	
지역1	수도권	1.30	13.82	54.97	29.92	2.015(3)
	비수도권	1.06	14.58	56.10	28.25	
지역2	대도시	1.82	13.97	55.67	28.54	18.775(6)**
	중소도시	0.59	13.52	55.76	30.13	
	농어촌	1.32	19.68	53.27	25.73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0.46	14.60	60.99	23.95	8.031(9)
	중하층	1.74	13.24	53.07	31.94	
	중간층	1.01	15.18	57.14	26.67	
	중상층(상층)	0.45	11.52	46.23	41.79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1.23	15.27	56.23	27.27	11.389(12)
	200만 원대	1.14	15.62	52.76	30.48	
	300만 원대	1.94	11.99	57.02	29.05	
	400만 원대	1.15	12.88	63.94	22.03	
	500만 원 이상	0.88	14.71	52.47	31.94	
학력	중졸 이하	0.67	15.84	54.22	29.27	10.412(6)
	고졸	0.82	15.33	57.20	26.65	
	대졸 이상	1.69	12.58	54.37	31.37	
경제활동상태	상용직	0.93	13.39	55.77	29.91	15.196(15)
	임금근로자					
	임시·일용직	1.03	13.88	54.90	30.18	
	임금근로자					
	고용주, 자영자	1.76	17.34	55.08	25.82	
	무급가족종사자	1.74	16.86	49.89	31.50	
실업자	5.20	13.63	49.68	31.49		
비경제활동인구	0.50	12.43	57.00	30.07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0.93	13.43	56.30	29.34	1.915(3)
	비정규직	0.99	13.68	53.77	31.57	
이념적 성향	보수적	1.65	17.86	54.50	26.00	12.508(6)
	중도적	0.63	13.51	55.27	30.60	
	진보적	1.85	12.07	57.03	29.05	

주: “귀하는 사회통합이 잘 되기 위해서 다음 각각의 중요도는 어느 정도라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부표 3-32> 사회통합을 위한 조건: (20) 서로 다른 집단 간에 양보와 협력이 이뤄지는 것

(단위 : %)

구분		①별로 중요하지 않다	②조금 중요하다	③대체로 중요하다	④매우 중요하다	X ² (df)
전체		0.50	8.76	57.30	33.44	
성별	남성	0.39	10.89	57.26	31.46	2.909(3)
	여성	0.62	6.57	57.34	35.47	
연령	20대 이하	0.67	7.71	61.37	30.25	13.331(12)
	30대	0.41	8.95	59.95	30.69	
	40대	0.70	6.18	56.43	36.69	
	50대	0.74	9.78	52.79	36.69	
	60대 이상	0.00	11.10	56.74	32.16	
지역1	수도권	0.44	7.87	57.61	34.08	5.169(3)
	비수도권	0.57	9.69	56.98	32.77	
지역2	대도시	0.51	7.37	60.32	31.80	47.912(6)***
	중소도시	0.35	9.04	55.28	35.32	
	농어촌	1.39	14.71	53.19	30.70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0.28	8.71	62.50	28.50	5.229(9)
	중하층	0.33	9.64	55.85	34.18	
	중간층	0.68	8.18	58.00	33.14	
	중상층(상층)	0.73	7.88	49.39	41.99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0.08	9.12	59.68	31.12	14.435(12)
	200만 원대	0.28	8.52	56.97	34.22	
	300만 원대	0.33	14.90	52.46	32.31	
	400만 원대	0.74	8.04	61.65	29.58	
	500만 원 이상	0.72	6.43	56.96	35.88	
학력	중졸 이하	0.07	14.84	54.97	30.12	19.646(6)**
	고졸	0.80	7.45	60.77	30.99	
	대졸 이상	0.37	8.02	54.77	36.84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0.47	9.20	58.64	31.70	23.213(15)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1.14	8.78	57.28	32.79	
	고용주, 자영자	0.51	11.23	56.39	31.87	
	무급가족종사자	0.95	7.86	53.39	37.79	
	실업자	0.00	10.99	58.47	30.54	
	비경제활동인구	0.35	5.90	56.62	37.13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0.51	9.05	59.55	30.89	4.522(3)
	비정규직	0.88	9.26	55.29	34.57	
이념적 성향	보수적	0.70	10.27	56.44	32.59	16.391(6)*
	중도적	0.28	8.88	58.42	32.42	
	진보적	0.77	7.08	55.87	36.29	

주: “귀하는 사회통합이 잘 되기 위해서 다음 각각의 중요도는 어느 정도라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부표 3-33〉 사회인식: (1) 한국의 소득 격차는 너무 크다

(단위 : %)

구분		①매우 동의한다	②약간 동의한다	③동의도 반대도 안 한다	④약간 반대한다	⑤매우 반대한다	χ² (df)
전체		37.18	49.34	11.26	1.95	0.27	
성별	남성	40.05	45.72	11.73	2.12	0.38	17.532 (4)**
	여성	34.21	53.07	10.77	1.78	0.17	
연령	20대 이하	31.67	52.65	13.56	1.84	0.28	40.635 (16)***
	30대	35.91	48.58	13.21	2.03	0.27	
	40대	42.38	45.54	11.12	0.63	0.33	
	50대	39.25	50.68	7.60	2.30	0.17	
	60대 이상	35.99	49.40	11.33	2.95	0.32	
지역1	수도권	39.07	48.28	10.43	1.87	0.35	23.623 (4)***
	비수도권	35.23	50.42	12.11	2.04	0.19	
지역2	대도시	40.66	45.83	10.37	2.89	0.24	19.486 (8)*
	중소도시	34.71	51.17	12.60	1.18	0.35	
	농어촌	33.34	57.31	7.80	1.55	0.00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45.37	44.59	6.90	2.59	0.56	58.522 (12)***
	중하층	39.82	48.66	9.86	1.37	0.29	
	중간층	33.25	50.99	13.39	2.15	0.21	
	중상층(상층)	33.73	50.84	12.69	2.74	0.00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37.68	46.81	12.27	3.03	0.20	8.208 (16)
	200만 원대	36.79	49.94	10.91	1.96	0.40	
	300만 원대	39.19	48.08	10.66	1.84	0.22	
	400만 원대	37.30	47.64	12.31	2.43	0.32	
	500만 원 이상	36.27	51.14	10.89	1.44	0.25	
학력	중졸 이하	36.99	50.93	9.65	2.25	0.19	3.464 (8)
	고졸	36.30	49.72	11.63	1.92	0.42	
	대졸 이상	38.07	48.46	11.43	1.88	0.16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37.11	48.55	11.89	2.03	0.42	18.309 (20)
	임금근로자	40.25	45.78	11.75	2.00	0.21	
	임시·일용직	35.35	50.79	12.01	1.67	0.19	
	임금근로자	39.19	56.07	3.99	0.75	0.00	
	고용주, 자영자	50.73	36.65	11.80	0.81	0.00	
	무급가족종사자	35.94	51.31	10.18	2.32	0.24	
	실업자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35.72	49.83	12.22	1.77	0.46	1.196 (4)
	비정규직	43.01	43.20	10.96	2.67	0.16	
이념적 성향	보수적	35.78	48.33	12.97	2.92	0.00	9.641 (8)
	중도적	36.02	50.80	10.80	1.94	0.44	
	진보적	40.86	47.34	10.55	1.04	0.21	

주: “귀하는 다음 의견에 어느 정도 동의 또는 반대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부표 3-34> 사회인식: (2) 고소득자와 저소득자 사이의 소득 격차를 줄이는 것은 정부의 책임이다

(단위 : %)

구분		①매우 동의한다	②약간 동의한다	③동의도 반대도 안 한다	④약간 반대한다	⑤매우 반대한다	χ² (df)
전체		14.97	42.04	30.11	10.83	2.05	
성별	남성	15.52	41.44	28.76	11.52	2.76	11.490 (4)*
	여성	14.41	42.65	31.51	10.12	1.32	
연령	20대 이하	15.02	38.84	33.53	10.47	2.15	20.654 (16)
	30대	15.11	40.91	32.90	9.90	1.17	
	40대	14.65	44.72	28.45	8.99	3.19	
	50대	16.45	42.22	26.44	12.68	2.21	
	60대 이상	13.59	43.08	29.98	11.91	1.43	
지역1	수도권	15.23	40.16	32.49	10.29	1.83	3.751 (4)
	비수도권	14.70	43.97	27.66	11.38	2.28	
지역2	대도시	15.63	39.75	30.86	11.74	2.01	23.076 (8)**
	중소도시	14.80	43.91	29.56	9.64	2.09	
	농어촌	12.41	42.96	29.42	13.20	2.01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17.74	47.02	24.53	8.49	2.22	42.511 (12)***
	중하층	16.75	43.00	29.93	8.22	2.11	
	중간층	13.00	39.59	32.17	13.20	2.03	
	중상층(상층)	13.29	44.66	26.78	13.80	1.46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15.53	42.81	29.61	10.44	1.61	21.792 (16)
	200만 원대	15.48	45.97	26.60	10.27	1.68	
	300만 원대	15.72	46.61	28.77	7.93	0.97	
	400만 원대	11.38	46.98	28.72	10.60	2.31	
	500만 원 이상	15.66	36.37	32.77	12.49	2.70	
학력	중졸 이하	17.61	43.30	28.60	9.13	1.36	7.548 (8)
	고졸	13.80	42.27	30.10	11.45	2.38	
	대졸 이상	15.22	41.40	30.62	10.80	1.96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16.38	43.39	26.92	11.31	2.00	24.680 (20)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12.56	43.03	31.88	10.94	1.58	
	고용주, 자영자	13.07	39.62	33.00	10.95	3.36	
	무급가족종사자	16.97	48.48	28.34	6.20	0.00	
	실업자	22.88	41.87	18.15	12.15	4.94	
	비경제활동인구	14.57	41.64	32.53	10.30	0.95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15.35	43.63	27.50	11.45	2.06	1.561 (4)
	비정규직	16.04	42.51	29.28	10.66	1.51	
이념적 성향	보수적	14.01	41.86	30.03	11.30	2.79	3.374 (8)
	중도적	16.13	41.93	30.63	9.52	1.78	
	진보적	13.55	42.41	29.14	13.02	1.88	

주: "귀하는 다음 의견에 어느 정도 동의 또는 반대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부표 3-35〉 사회인식: (3) 정부는 실업자에게 적절한 수준의 삶을 제공해야 한다

(단위 : %)

구분		①매우 동의한다	②약간 동의한다	③동의도 반대도 안 한다	④약간 반대한다	⑤매우 반대한다	χ² (df)
전체		10.33	38.34	32.80	15.57	2.97	
성별	남성	10.79	39.56	31.26	15.08	3.30	12.403(4)*
	여성	9.85	37.07	34.40	16.07	2.62	
연령	20대 이하	9.76	42.04	31.61	14.92	1.67	30.988 (16)*
	30대	8.59	38.90	36.01	13.79	2.71	
	40대	13.55	35.58	34.78	14.47	1.62	
	50대	11.10	36.50	28.46	19.97	3.98	
	60대 이상	8.34	39.12	33.55	14.29	4.69	
지역1	수도권	9.03	39.17	33.54	15.13	3.14	0.610(4)
	비수도권	11.67	37.48	32.04	16.02	2.79	
지역2	대도시	9.81	34.02	34.25	18.67	3.25	23.225(8)*
	중소도시	11.02	41.80	31.52	13.15	2.51	
	농어촌	8.87	40.60	32.82	13.50	4.22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14.37	46.94	27.57	8.94	2.18	63.141 (12)***
	중하층	10.60	36.75	31.86	18.29	2.50	
	중간층	8.41	37.37	35.81	14.71	3.71	
	중상층(상층)	15.34	37.62	25.86	19.48	1.69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8.93	41.41	34.14	13.05	2.47	32.918 (16)**
	200만 원대	11.26	37.63	29.90	16.67	4.53	
	300만 원대	8.95	40.12	31.94	17.57	1.43	
	400만 원대	10.07	41.02	31.94	14.11	2.86	
	500만 원 이상	11.11	35.78	34.19	15.71	3.21	
학력	중졸 이하	7.02	39.95	33.15	15.91	3.96	28.509 (8)***
	고졸	11.37	37.72	30.13	17.28	3.50	
	대졸 이상	10.42	38.40	35.22	13.83	2.13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11.51	34.83	33.45	16.99	3.23	25.301(20)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8.36	39.96	35.76	13.30	2.62	
	고용주, 자영자	10.17	38.55	31.39	16.37	3.53	
	무급가족종사자	6.93	39.68	37.27	13.41	2.71	
	실업자	15.15	41.56	27.38	13.67	2.25	
	비경제활동인구	9.36	41.36	32.56	14.34	2.39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10.89	34.91	33.79	17.20	
비정규직	10.63	38.56	34.37	13.62	2.82		
이념적 성향	보수적	9.31	35.53	32.52	18.68	3.95	19.439(8)*
	중도적	10.73	37.31	33.55	15.38	3.03	
	진보적	10.49	43.10	31.55	12.97	1.89	

주: “귀하는 다음 의견에 어느 정도 동의 또는 반대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부표 3-36〉 사회인식: (4) 정부는 빈곤한 사람들에게 주는 혜택을 줄여야 한다

(단위 : %)

구분		①매우 동의한다	②약간 동의한다	③동의도 반대도 안 한다	④약간 반대한다	⑤매우 반대한다	χ² (df)
전체		4.77	24.36	31.53	27.97	11.37	
성별	남성	4.61	23.35	30.51	28.74	12.78	5.540(4)
	여성	4.94	25.39	32.58	27.16	9.92	
연령	20대 이하	3.57	23.36	30.98	30.37	11.72	21.527(16)
	30대	4.38	20.79	39.77	25.59	9.47	
	40대	5.34	20.38	27.34	31.32	15.62	
	50대	4.90	29.33	30.23	25.63	9.90	
	60대 이상	5.52	27.29	30.27	26.93	9.99	
지역1	수도권	4.50	24.70	30.54	29.76	10.50	9.754(4)*
	비수도권	5.06	24.00	32.54	26.12	12.27	
지역2	대도시	4.49	20.21	32.67	29.92	12.71	22.078(8)* *
	중소도시	4.80	27.81	29.47	27.40	10.52	
	농어촌	6.21	25.75	38.05	20.71	9.28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3.03	21.26	19.82	35.05	20.84	101.684 (12)***
	중하층	4.67	27.11	30.43	26.94	10.86	
	중간층	4.78	22.49	35.87	27.21	9.64	
	중상층(상층)	9.34	28.50	29.17	25.17	7.83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5.01	18.77	29.51	30.69	16.01	31.407 (16)*
	200만 원대	4.90	23.37	31.33	27.16	13.23	
	300만 원대	3.09	28.37	32.37	26.08	10.09	
	400만 원대	4.77	24.21	32.36	27.20	11.46	
	500만 원 이상	5.35	25.01	31.61	28.45	9.58	
학력	중졸 이하	5.91	28.83	31.54	23.34	10.39	11.816(8)
	고졸	5.03	24.64	30.57	29.83	9.93	
	대졸 이상	4.16	22.63	32.44	27.71	13.06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4.59	21.74	32.66	29.35	11.66	45.617 (20)***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4.19	20.48	29.90	34.93	10.51	
	고용주, 자영자	6.09	29.66	29.38	24.52	10.35	
	무급가족종사자	5.52	23.60	33.61	29.73	7.54	
	실업자	4.51	15.97	29.79	25.94	23.79	
	비경제활동인구	4.04	25.40	32.60	27.01	10.95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3.83	22.06	33.17	29.60	11.33	2.928(4)
	비정규직	6.20	19.95	29.25	33.01	11.60	
이념적 성향	보수적	5.98	27.32	31.43	27.33	7.95	49.694 (8)***
	중도적	5.07	23.53	32.97	27.18	11.26	
	진보적	3.03	23.19	28.72	30.17	14.89	

주: “귀하는 다음 의견에 어느 정도 동의 또는 반대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부표 3-37〉 주관적 빈곤 인식(1)

(단위 : %)

구분		① 항상 가난하다고 느낀다	② 가끔 가난하다고 느낀 적이 있다	③ 가난하다고 생각한 적이 전혀 없다	X ² (df)
전체		10.54	36.65	52.81	
성별	남성	12.40	34.91	52.70	2.069(2)
	여성	8.62	38.45	52.93	
연령	20대 이하	7.42	33.28	59.30	58.065(8)***
	30대	7.12	34.92	57.97	
	40대	8.89	41.68	49.43	
	50대	12.30	36.54	51.15	
	60대 이상	16.28	36.34	47.38	
지역1	수도권	10.70	43.24	46.06	53.765(2)***
	비수도권	10.37	29.87	59.76	
지역2	대도시	11.53	38.70	49.77	17.289(4)**
	중소도시	9.72	35.42	54.87	
	농어촌	10.16	33.04	56.79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40.57	41.98	17.45	966.294(6)***
	중하층	12.15	48.34	39.50	
	중간층	2.36	28.44	69.20	
	중상층(상층)	0.10	14.97	84.94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29.37	39.85	30.79	468.123(8)***
	200만 원대	18.33	41.86	39.81	
	300만 원대	10.27	40.58	49.14	
	400만 원대	4.50	40.57	54.93	
	500만 원 이상	3.55	30.33	66.12	
학력	중졸 이하	24.92	36.59	38.49	137.333(4)***
	고졸	10.26	40.64	49.10	
	대졸 이상	6.11	32.89	61.00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9.10	32.95	57.95	137.334(10)***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15.68	51.02	33.31	
	고용주, 자영자	7.81	35.35	56.84	
	무급가족종사자	7.22	31.37	61.41	
	실업자	22.54	47.95	29.51	
	비경제활동인구	11.65	36.39	51.95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9.36	32.15	58.49	71.090(2)***
	비정규직	13.49	48.86	37.65	
이념적 성향	보수적	12.28	38.51	49.21	14.824(4)**
	중도적	11.29	36.01	52.70	
	진보적	7.34	36.17	56.49	

주: “귀하는 지난 1년 동안 가난하다고 느낀 적이 있습니까?”에 대한 응답임.

〈부표 3-38〉 주관적 빈곤 인식(2)

(단위 : %)

구분		① 항상 가난하게 살았다	② 삶의 대부분을 가난하게 살았다	③ 삶의 일부는 가난하게 살았다	④ 짧게나마 가난하게 살았던 적이 있다	⑤ 가난하게 산 적이 없다	X ² (df)
전체		4.99	11.35	27.48	22.12	34.07	
성별	남성	6.09	12.19	26.15	21.89	33.69	7.356(4)
	여성	3.85	10.49	28.85	22.35	34.46	
연령	20대 이하	3.58	9.24	18.14	16.54	52.50	304.561 (16)***
	30대	2.70	8.81	19.73	21.31	47.44	
	40대	4.76	7.85	33.79	25.39	28.20	
	50대	4.40	13.85	28.24	25.94	27.57	
	60대 이상	9.14	16.49	35.79	20.70	17.88	
지역1	수도권	4.67	12.58	31.15	20.15	31.45	38.598 (4)***
	비수도권	5.31	10.08	23.69	24.15	36.77	
지역2	대도시	5.10	10.65	25.74	23.57	34.94	4.463(8)
	중소도시	4.66	12.21	28.60	20.95	33.58	
	농어촌	6.43	9.83	30.05	21.42	32.27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22.07	25.72	32.73	11.50	7.98	916.666 (12)***
	중하층	4.82	15.24	34.20	21.82	23.91	
	중간층	1.09	5.27	22.49	24.56	46.59	
	중상층(상층)	0.00	3.55	12.24	27.72	56.49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16.52	17.95	33.81	14.68	17.04	509.764 (16)***
	200만 원대	8.71	17.69	33.46	21.87	18.28	
	300만 원대	3.68	13.33	29.95	19.73	33.31	
	400만 원대	1.41	10.68	29.18	19.44	39.29	
	500만 원 이상	1.55	6.04	21.27	26.79	44.35	
학력	중졸 이하	13.25	24.10	35.25	15.54	11.84	324.730 (8)***
	고졸	5.16	12.35	28.29	22.65	31.55	
	대졸 이상	2.12	6.24	24.17	23.76	43.71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2.56	12.53	24.83	20.89	39.19	122.543 (20)***
	임금근로자	10.27	15.26	32.42	22.27	19.78	
	임시·일용직	4.35	10.59	25.27	26.21	33.59	
	임금근로자	3.29	14.52	31.61	21.24	29.35	
	고용주, 자영자	6.38	16.32	41.49	11.21	24.60	
	무급가족종사자	6.65	8.38	28.84	21.47	34.67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2.48	12.48	24.51	20.74	39.79	88.629 (4)***
	비정규직	8.69	14.76	31.45	22.33	22.76	
이념적 성향	보수적	6.33	11.84	33.23	21.80	26.80	44.493 (8)***
	중도적	5.03	12.04	25.29	22.19	35.45	
	진보적	3.61	9.50	26.36	22.28	38.26	

주: “과거부터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생활수준에 비추어볼 때, 귀하가 살면서 스스로 ‘내가 가난하다’고 느끼며 살았던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에 대한 응답임.

〈부표 3-39〉 주관적 빈곤 인식(3)

(단위 : %)

구분		① 아동·청소년기 (19세 이하)	② 청년기 (20~30대)	③ 중장년기 (40~50대)	④ 노년기 (60대 이상)
전체		64.71	45.45	21.85	7.02
성별	남성	64.79	48.59	21.44	6.77
	여성	64.63	42.16	22.28	7.29
연령	20대 이하	78.89	36.97	0.00	0.00
	30대	63.81	55.75	1.09	0.00
	40대	60.59	47.09	26.82	0.15
	50대	61.87	43.77	30.56	1.50
	60대 이상	63.91	44.18	32.95	25.87
지역1	수도권	61.75	49.67	22.12	6.80
	비수도권	68.02	40.73	21.55	7.28
지역2	대도시	63.26	43.95	21.13	8.70
	중소도시	66.11	47.05	20.78	5.00
	농어촌	63.84	43.62	32.23	10.51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66.41	54.20	42.26	23.34
	중하층	62.62	47.23	24.46	5.51
	중간층	66.02	40.11	10.85	1.78
	중상층(상층)	67.69	37.44	6.38	0.45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59.75	50.50	42.18	26.34
	200만 원대	66.99	51.94	25.65	7.27
	300만 원대	62.22	44.36	23.32	2.60
	400만 원대	67.52	38.22	19.26	4.33
	500만 원 이상	65.96	42.76	9.73	0.50
학력	중졸 이하	66.30	52.22	39.20	24.29
	고졸	65.37	44.42	22.85	4.32
	대졸 이상	63.14	43.17	11.83	1.31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66.56	44.53	14.95	2.27
	임금근로자	67.07	45.49	31.73	9.45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63.07	49.58	21.77	5.81
	고용주, 자영자	67.18	39.68	30.73	12.64
	무급가족종사자	54.20	52.77	23.20	7.48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64.39	42.29	24.66	11.90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65.58	44.10	14.65	2.14
	비정규직	68.88	46.14	28.92	8.24
이념적 성향	보수적	64.44	45.11	25.13	12.76
	중도적	64.02	46.91	22.77	6.14
	진보적	66.48	42.76	16.19	2.38

주: “귀하께서 가난하게 살았던 시기를 모두 응답해 주세요”에 대한 응답임.

<부표 3-40> 서비스 시설 접근성: (1) 문화시설

(단위 : %)

구분		①불편함 없이 이용함	②불편하지 만 이용함	③불편해서 이용 안 함	④필요하지 않아서 이용 안 함	⑤여유가 없어서 이용 안 함	χ² (df)
전체		57.65	15.35	4.37	15.50	7.14	
성별	남성	56.68	14.75	4.72	16.33	7.51	1.127(4)
	여성	58.65	15.96	4.00	14.64	6.76	
연령	20대 이하	73.74	16.48	2.11	5.18	2.49	904.920 (16)***
	30대	71.01	17.19	4.23	4.27	3.30	
	40대	64.86	17.84	1.77	10.63	4.90	
	50대	51.51	15.61	6.18	15.87	10.83	
	60대 이상	30.07	9.88	7.31	39.48	13.26	
지역1	수도권	62.40	14.39	3.28	12.04	7.90	55.577 (4)***
	비수도권	52.76	16.34	5.49	19.06	6.35	
지역2	대도시	65.93	12.56	2.15	11.89	7.47	268.749 (8)***
	중소도시	55.77	17.22	5.21	15.32	6.48	
	농어촌	23.65	19.06	11.42	36.48	9.39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31.31	14.00	7.04	29.25	18.39	343.672 (12)***
	중하층	50.24	17.87	4.58	18.14	9.17	
	중간층	69.65	13.91	3.03	10.25	3.17	
	중상층(상층)	66.74	13.45	8.08	10.50	1.23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25.86	10.53	6.18	38.86	18.57	710.415 (16)***
	200만 원대	46.47	15.18	5.82	22.23	10.31	
	300만 원대	54.38	15.48	6.17	15.33	8.63	
	400만 원대	62.38	19.49	3.52	9.95	4.66	
	500만 원 이상	72.37	15.38	2.75	7.15	2.35	
학력	중졸 이하	20.15	7.35	8.10	42.53	21.87	860.589 (8)***
	고졸	55.60	17.64	4.32	16.33	6.11	
	대졸 이상	71.83	15.78	3.19	5.88	3.31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68.71	15.48	1.73	9.24	4.85	276.155 (20)***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47.53	18.93	3.49	21.85	8.20	
	고용주, 자영자	50.62	14.28	8.06	20.14	6.88	
	무급가족종사자	23.73	23.48	8.07	32.53	12.20	
	실업자	51.41	15.42	4.13	13.09	15.94	
	비경제활동인구	57.13	14.24	4.43	15.92	8.28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69.64	15.23	1.60	8.85	4.69	103.723 (4)***
	비정규직	50.08	18.77	3.41	19.90	7.82	
이념적 성향	보수적	51.26	11.98	4.79	24.82	7.15	114.363 (8)***
	중도적	57.53	15.89	4.15	13.65	8.78	
	진보적	64.01	17.48	4.40	10.29	3.81	

주: "귀택은 평소 아래의 사회 시설을 이용하십니까, 이용하지 않으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부표 3-41〉 서비스 시설 접근성: (2) 교육시설

(단위 : %)

구분		①불편함 없이 이용함	②불편하지 만 이용함	③불편해서 이용 안 함	④필요하지 않아서 이용 안 함	⑤여유가 없어서 이용 안 함	χ² (df)
전체		44.03	6.90	1.21	44.65	3.22	
성별	남성	40.81	5.99	1.78	48.44	2.99	6.657(4)
	여성	47.36	7.84	0.62	40.72	3.46	
연령	20대 이하	55.59	5.92	0.41	35.47	2.61	787.470 (16)***
	30대	54.88	9.79	1.35	30.41	3.57	
	40대	61.35	8.20	0.19	28.79	1.47	
	50대	35.92	6.93	3.02	51.12	3.00	
	60대 이상	14.71	3.87	0.96	75.01	5.45	
지역1	수도권	47.42	6.47	1.38	41.36	3.38	3.220(4)
	비수도권	40.54	7.34	1.03	48.04	3.06	
지역2	대도시	48.28	4.79	0.68	43.42	2.82	156.608 (8)***
	중소도시	44.74	8.00	1.59	42.10	3.56	
	농어촌	16.09	11.64	1.74	67.26	3.28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21.39	6.06	1.16	68.13	3.26	226.558 (12)***
	중하층	36.66	8.54	0.98	50.31	3.51	
	중간층	55.54	5.82	0.93	34.86	2.85	
	중상층(상층)	48.51	6.76	5.16	35.33	4.25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17.54	4.13	0.95	71.22	6.15	537.980 (16)***
	200만 원대	24.60	6.48	1.81	64.46	2.66	
	300만 원대	38.74	7.32	1.19	49.07	3.68	
	400만 원대	52.04	10.23	0.35	34.23	3.14	
	500만 원 이상	59.78	6.52	1.40	30.02	2.28	
학력	중졸 이하	11.03	3.91	1.97	77.65	5.44	552.309 (8)***
	고졸	41.83	7.15	0.83	47.47	2.73	
	대졸 이상	56.89	7.63	1.32	31.20	2.95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50.32	6.80	0.76	39.45	2.68	124.259 (20)***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41.13	8.54	0.78	42.70	6.85	
	고용주, 자영자	35.89	6.97	2.37	51.56	3.21	
	무급가족종사자	19.87	3.85	0.19	67.55	8.54	
	실업자	32.27	8.47	0.00	57.19	2.08	
	비경제활동인구	47.74	6.44	1.14	42.32	2.37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51.66	6.49	0.80	38.84	2.21	30.897 (4)***
	비정규직	39.86	8.92	0.67	43.49	7.05	
이념적 성향	보수적	32.19	6.19	0.94	56.98	3.70	107.046 (8)***
	중도적	45.76	6.29	1.26	43.83	2.86	
	진보적	51.89	8.80	1.36	34.47	3.48	

주: “귀택은 평소 아래의 사회 시설을 이용하십니까, 이용하지 않으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부표 3-42> 서비스 시설 접근성: (3) 의료시설

(단위 : %)

구분		①불편함 없이 이용함	②불편하지 만 이용함	③불편해서 이용 안 함	④필요하지 않아서 이용 안 함	⑤여유가 없어서 이용 안 함	χ² (df)
전체		76.68	18.33	0.91	3.73	0.36	
성별	남성	76.11	16.70	1.50	5.09	0.59	17.057 (4)**
	여성	77.26	20.01	0.29	2.33	0.11	
연령	20대 이하	82.58	9.26	0.76	6.38	1.03	182.872 (16)***
	30대	82.46	12.25	1.05	4.17	0.06	
	40대	80.05	15.38	0.28	4.05	0.24	
	50대	71.36	23.60	1.77	3.04	0.23	
	60대 이상	68.23	29.59	0.64	1.29	0.25	
지역1	수도권	77.47	17.34	1.05	3.58	0.57	6.671(4)
	비수도권	75.87	19.36	0.76	3.88	0.14	
지역2	대도시	84.53	12.19	0.51	2.55	0.23	268.073 (8)***
	중소도시	73.90	19.58	1.32	4.67	0.53	
	농어촌	50.63	44.47	0.50	4.40	0.00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64.59	29.68	0.99	3.66	1.08	77.529 (12)***
	중하층	75.01	20.33	0.59	3.99	0.08	
	중간층	80.77	14.68	0.49	3.64	0.43	
	중상층(상층)	81.02	9.82	6.26	2.90	0.00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58.42	35.23	0.86	3.71	1.78	182.079 (16)***
	200만 원대	71.19	20.34	1.02	7.02	0.43	
	300만 원대	75.94	18.62	1.07	4.30	0.08	
	400만 원대	80.42	16.10	0.65	2.83	0.00	
	500만 원 이상	83.89	12.55	0.91	2.55	0.10	
학력	중졸 이하	60.27	36.50	0.59	2.21	0.43	164.256 (8)***
	고졸	76.68	18.90	0.65	3.50	0.28	
	대졸 이상	82.03	11.86	1.25	4.44	0.41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80.67	14.84	0.68	3.77	0.04	149.545 (20)***
	임금근로자						
	임시·일용직	72.27	17.52	1.22	6.96	2.03	
	임금근로자						
	고용주, 자영자	74.02	20.32	1.91	3.54	0.22	
	무급가족종사자	53.52	44.50	0.19	1.80	0.00	
실업자	68.73	23.53	0.00	6.22	1.52		
비경제활동인구	78.42	18.43	0.38	2.59	0.17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81.35	14.24	0.63	3.73	0.04	18.351 (4)**
	비정규직	72.51	18.41	1.20	6.31	1.56	
이념적 성향	보수적	75.59	19.96	0.75	3.45	0.25	22.272 (8)**
	중도적	75.94	19.22	0.68	3.73	0.44	
	진보적	79.20	14.99	1.52	4.00	0.29	

주: "귀력은 평소 아래의 사회 시설을 이용하십니까, 이용하지 않으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부표 3-43〉 서비스 시설 접근성: (4) 안전시설

(단위 : %)

구분		①불편함 없이 이용함	②불편하지 만 이용함	③불편해서 이용 안 함	④필요하지 않아서 이용 안 함	⑤여유가 없어서 이용 안 함	χ² (df)
전체		56.54	9.54	2.14	30.02	1.76	
성별	남성	55.45	9.28	2.58	30.42	2.28	1.197(4)
	여성	57.68	9.81	1.69	29.61	1.21	
연령	20대 이하	59.51	7.19	2.36	29.83	1.11	82.475(16) ***
	30대	63.19	9.52	1.79	24.48	1.03	
	40대	59.38	7.52	0.55	31.17	1.38	
	50대	55.06	10.72	3.01	27.59	3.62	
	60대 이상	46.59	12.54	2.95	36.47	1.45	
지역1	수도권	57.73	8.06	2.69	28.72	2.81	11.871(4) *
	비수도권	55.31	11.07	1.58	31.36	0.67	
지역2	대도시	59.63	7.30	1.46	31.22	0.39	142.170(8) ***
	중소도시	55.50	9.41	2.68	29.33	3.09	
	농어촌	45.99	22.74	2.60	27.68	1.00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38.55	10.91	3.21	46.29	1.05	65.764(12) ***
	중하층	53.97	10.88	1.98	30.50	2.66	
	중간층	63.02	7.98	1.50	26.21	1.29	
	중상층(상층)	60.38	10.52	6.07	21.81	1.23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37.12	13.97	2.30	43.93	2.67	125.413(16) ***
	200만 원대	49.60	12.01	1.84	34.54	2.01	
	300만 원대	56.40	9.29	1.40	29.15	3.77	
	400만 원대	60.85	6.48	3.24	28.67	0.76	
	500만 원 이상	64.25	8.36	2.09	24.41	0.89	
학력	중졸 이하	39.78	14.55	3.43	36.30	5.94	73.027(8) ***
	고졸	57.65	9.67	1.53	30.42	0.74	
	대졸 이상	60.97	7.79	2.31	27.59	1.35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59.51	8.48	1.56	28.01	2.44	67.563(20) ***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49.32	13.33	1.05	31.45	4.86	
	고용주, 자영자	52.34	10.91	3.78	32.38	0.59	
	무급가족종사자	39.15	16.47	2.25	40.29	1.84	
	실업자	51.70	10.79	6.83	29.84	0.85	
	비경제활동인구	60.97	7.67	1.21	29.16	0.99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59.75	8.51	1.71	27.59	2.44	15.720(4) **
	비정규직	51.06	12.15	0.80	31.69	4.30	
이념적 성향	보수적	55.41	10.10	1.41	32.08	1.00	0.676(8)
	중도적	56.43	9.57	2.52	29.12	2.37	
	진보적	57.86	8.95	2.09	29.86	1.24	

주: “귀택은 평소 아래의 사회 시설을 이용하십니까, 이용하지 않으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부표 3-44〉 서비스 시설 접근성: (5) 생활편의시설

(단위 : %)

구분		①불편함 없이 이용함	②불편하지 만 이용함	③불편해서 이용 안 함	④필요하지 않아서 이용 안 함	⑤여유가 없어서 이용 안 함	χ^2 (df)
전체		83.67	14.30	0.70	0.64	0.70	
성별	남성	83.25	13.81	0.96	0.67	1.31	6.467(4)
	여성	84.10	14.80	0.42	0.60	0.07	
연령	20대 이하	88.90	9.90	0.37	0.56	0.27	138.243 (16)***
	30대	87.81	11.22	0.78	0.18	0.01	
	40대	87.26	10.75	0.33	1.64	0.01	
	50대	80.32	15.30	1.27	0.30	2.81	
	60대 이상	75.03	23.60	0.69	0.45	0.22	
지역1	수도권	85.17	12.19	0.92	0.40	1.32	21.486 (4)***
	비수도권	82.13	16.47	0.46	0.88	0.06	
지역2	대도시	89.67	9.53	0.34	0.33	0.13	262.596 (8)***
	중소도시	82.03	14.72	1.05	0.88	1.32	
	농어촌	60.75	37.97	0.45	0.83	0.00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73.24	25.47	0.13	0.51	0.65	70.547 (12)***
	중하층	82.32	14.39	0.85	0.91	1.54	
	중간층	87.06	12.06	0.23	0.53	0.13	
	중상층(상층)	88.00	7.13	4.87	0.00	0.00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68.99	29.40	0.88	0.32	0.42	159.685 (16)***
	200만 원대	80.69	17.27	0.36	1.19	0.49	
	300만 원대	83.15	12.81	0.30	0.33	3.40	
	400만 원대	87.46	11.64	0.62	0.26	0.02	
	500만 원 이상	88.56	9.67	0.96	0.80	0.01	
학력	중졸 이하	69.22	24.68	0.97	0.88	4.25	156.163 (8)***
	고졸	83.75	15.02	0.26	0.81	0.16	
	대졸 이상	88.31	10.22	1.02	0.39	0.06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88.14	9.35	0.34	0.49	1.68	163.098 (20)***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83.12	15.57	0.61	0.14	0.57	
	고용주, 자영자	78.20	18.62	1.80	1.37	0.02	
	무급가족종사자	60.16	37.91	0.00	1.93	0.00	
	실업자	82.57	15.67	0.00	0.34	1.42	
	비경제활동인구	85.12	14.13	0.35	0.29	0.11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88.32	8.96	0.37	0.51	1.83	14.982 (4)**
	비정규직	83.81	15.12	0.47	0.16	0.44	
이념적 성향	보수적	30.96	82.26	15.95	0.22	1.49	12.979(8)
	중도적	24.85	83.49	14.30	0.55	0.37	
	진보적	18.25	85.39	12.71	1.45	0.34	

주: “귀택은 평소 아래의 사회 시설을 이용하십니까, 이용하지 않으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부표 3-45〉 서비스 시설 접근성: (6) 대중교통

(단위 : %)

구분		①불편함 없이 이용함	②불편하지 만 이용함	③불편해서 이용 안 함	④필요하지 않아서 이용 안 함	⑤여유가 없어서 이용 안 함	χ² (df)
전체		76.10	13.97	3.04	6.70	0.18	
성별	남성	73.88	12.64	3.82	9.32	0.34	69.807 (4)***
	여성	78.40	15.35	2.23	4.00	0.03	
연령	20대 이하	85.30	9.73	2.36	2.60	0.00	117.030 (16)***
	30대	78.38	10.14	3.17	8.25	0.06	
	40대	74.35	11.52	4.11	9.80	0.21	
	50대	72.93	15.53	3.67	7.31	0.56	
	60대 이상	70.68	22.13	1.79	5.36	0.05	
지역1	수도권	81.33	12.44	2.53	3.64	0.06	105.067 (4)***
	비수도권	70.72	15.55	3.56	9.86	0.31	
지역2	대도시	87.69	8.71	0.81	2.60	0.20	381.059 (8)***
	중소도시	69.87	15.61	4.77	9.61	0.14	
	농어촌	50.98	32.84	4.55	11.23	0.40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70.19	23.15	1.25	5.04	0.36	66.357 (12)***
	중하층	75.61	14.53	3.83	5.93	0.11	
	중간층	78.63	11.86	2.32	6.97	0.22	
	중상층(상층)	71.80	7.20	7.67	13.33	0.00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68.38	25.96	2.85	2.47	0.33	136.578 (16)***
	200만 원대	74.25	16.13	3.08	6.47	0.07	
	300만 원대	73.99	14.92	1.87	9.13	0.08	
	400만 원대	77.06	14.55	2.73	5.54	0.12	
	500만 원 이상	79.97	8.43	3.69	7.66	0.25	
학력	중졸 이하	65.87	28.88	1.71	3.40	0.14	135.023 (8)***
	고졸	74.73	14.63	4.09	6.49	0.06	
	대졸 이상	80.75	8.48	2.47	7.98	0.32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78.76	12.10	2.03	6.97	0.13	167.884 (20)***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79.00	16.63	1.38	2.99	0.00	
	고용주, 자영자	67.45	15.02	5.23	11.91	0.39	
	무급가족종사자	60.11	32.26	3.60	4.03	0.00	
	실업자	80.12	13.30	2.88	2.63	1.07	
	비경제활동인구	80.08	13.10	2.90	3.88	0.04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78.99	11.74	2.03	7.10	0.14	24.801 (4)***
	비정규직	78.36	16.49	1.54	3.60	0.00	
이념적 성향	보수적	75.36	16.35	2.48	5.65	0.16	22.813 (8)**
	중도적	77.05	13.18	3.39	6.28	0.11	
	진보적	74.92	13.30	2.84	8.57	0.37	

주: “귀택은 평소 아래의 사회 시설을 이용하십니까, 이용하지 않으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304 사회통합 실태 진단 및 대응 방안 연구(VI): 사회통합 상태 진단

<부표 3-46> 박탈: (1)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고기나 생선을 먹는다

(단위 : %)

구분		하고(갓고) 있다	못 하고 (못 갓고) 있다	X ² (df)
전체		95.08	4.92	
성별	남성	94.01	5.99	0.161(1)
	여성	96.19	3.81	
연령	20대 이하	97.20	2.80	66.597(4)***
	30대	98.66	1.34	
	40대	96.13	3.87	
	50대	93.07	6.93	
	60대 이상	90.97	9.03	
지역1	수도권	94.44	5.56	0.901(1)
	비수도권	95.74	4.26	
지역2	대도시	95.55	4.45	1.365(2)
	중소도시	94.56	5.44	
	농어촌	95.73	4.27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82.36	17.64	228.599(3)***
	중하층	94.87	5.13	
	중간층	98.74	1.26	
	중상층(상층)	94.72	5.28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82.27	17.73	263.998(4)***
	200만 원대	94.78	5.22	
	300만 원대	93.33	6.67	
	400만 원대	98.43	1.57	
	500만 원 이상	98.98	1.02	
학력	중졸 이하	84.89	15.11	84.360(2)***
	고졸	95.61	4.39	
	대졸 이상	97.90	2.10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95.94	4.06	41.507(5)***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93.38	6.62	
	고용주, 자영자	96.73	3.27	
	무급가족종사자	96.84	3.16	
	실업자	90.56	9.44	
	비경제활동인구	93.62	6.38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95.79	4.21	10.343(1)**
	비정규직	94.36	5.64	
이념적 성향	보수적	94.04	5.96	17.371(2)***
	중도적	94.85	5.15	
	진보적	96.55	3.45	

주: “지난 1년 동안의 경제적 상황을 감안하였을 때, 귀책에서는 다음과 같은 환경을 갖추고 계셨습니까?”에 대한 응답임.

〈부표 3-47〉 박탈: (2)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신선한 과일을 사 먹는다

(단위 : %)

구분		하고(갓고) 있다	못 하고 (못 갓고) 있다	χ^2 (df)
전체		95.41	4.59	
성별	남성	94.96	5.04	0.085(1)
	여성	95.87	4.13	
연령	20대 이하	94.62	5.38	33.537(4)***
	30대	97.85	2.15	
	40대	95.80	4.20	
	50대	96.42	3.58	
	60대 이상	92.51	7.49	
지역1	수도권	95.72	4.28	0.492(1)
	비수도권	95.08	4.92	
지역2	대도시	94.96	5.04	0.376(2)
	중소도시	96.09	3.91	
	농어촌	93.66	6.34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81.83	18.17	259.755(3)***
	중하층	95.13	4.87	
	중간층	98.81	1.19	
	중상층(상층)	99.51	0.49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80.16	19.84	267.040(4)***
	200만 원대	94.79	5.21	
	300만 원대	97.07	2.93	
	400만 원대	97.80	2.20	
	500만 원 이상	99.19	0.81	
학력	중졸 이하	88.10	11.90	87.662(2)***
	고졸	94.98	5.02	
	대졸 이상	98.19	1.81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98.03	1.97	68.331(5)***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90.86	9.14	
	고용주, 자영자	96.71	3.29	
	무급가족종사자	94.18	5.82	
	실업자	83.28	16.72	
	비경제활동인구	94.27	5.73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98.08	1.92	22.332(1)***
	비정규직	92.37	7.63	
이념적 성향	보수적	94.24	5.76	4.278(2)
	중도적	95.51	4.49	
	진보적	96.31	3.69	

주: “지난 1년 동안의 경제적 상황을 감안하였을 때, 귀택에서는 다음과 같은 환경을 갖추고 계셨습니까?”에 대한 응답임.

〈부표 3-48〉 박탈: (3) 가끔 기호식품(차, 커피, 과자류, 아이스크림, 음료 등)을 사 먹는다

(단위 : %)

구분		하고(갖고) 있다	못 하고 (못 갖고) 있다	χ^2 (df)
전체		97.90	2.10	
성별	남성	97.88	2.12	1.950(1)
	여성	97.93	2.07	
연령	20대 이하	99.26	0.74	67.497(4)***
	30대	98.96	1.04	
	40대	99.03	0.97	
	50대	97.81	2.19	
	60대 이상	94.68	5.32	
지역1	수도권	98.17	1.83	0.220(1)
	비수도권	97.63	2.37	
지역2	대도시	98.07	1.93	3.026(2)
	중소도시	98.23	1.77	
	농어촌	94.99	5.01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91.66	8.34	117.637(3)***
	중하층	98.08	1.92	
	중간층	99.37	0.63	
	중상층(상층)	98.64	1.36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89.64	10.36	202.513(4)***
	200만 원대	97.36	2.64	
	300만 원대	98.96	1.04	
	400만 원대	99.68	0.32	
	500만 원 이상	99.79	0.21	
학력	중졸 이하	93.18	6.82	75.378(2)***
	고졸	98.00	2.00	
	대졸 이상	99.35	0.65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99.30	0.70	51.575(5)***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94.86	5.14	
	고용주, 자영자	98.86	1.14	
	무급가족종사자	95.67	4.33	
	실업자	94.10	5.90	
	비경제활동인구	97.07	2.93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99.31	0.69	23.385(1)***
	비정규직	95.86	4.14	
이념적 성향	보수적	96.87	3.13	16.513(2)***
	중도적	97.76	2.24	
	진보적	99.19	0.81	

주: “지난 1년 동안의 경제적 상황을 감안하였을 때, 귀댁에서는 다음과 같은 환경을 갖추고 계셨습니까?”에 대한 응답임.

〈부표 3-49〉 박탈: (4) 매우 추운 날 입을 수 있는 외투(코트, 파카, 털이나 가죽옷 등을 두 벌 정도는 가지고 있다 (단위 : %)

구분		하고(갖고) 있다	못 하고 (못 갖고) 있다	χ^2 (df)
전체		95.84	4.16	
성별	남성	95.17	4.83	0.570(1)
	여성	96.54	3.46	
연령	20대 이하	96.67	3.33	17.826(4)**
	30대	97.26	2.74	
	40대	95.54	4.46	
	50대	96.28	3.72	
	60대 이상	93.68	6.32	
지역1	수도권	95.43	4.57	15.617(1)***
	비수도권	96.27	3.73	
지역2	대도시	96.40	3.60	0.749(2)
	중소도시	95.33	4.67	
	농어촌	95.96	4.04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85.80	14.20	124.976(3)***
	중하층	95.96	4.04	
	중간층	98.07	1.93	
	중상층(상층)	99.16	0.84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86.93	13.07	118.817(4)***
	200만 원대	92.46	7.54	
	300만 원대	96.88	3.12	
	400만 원대	97.19	2.81	
	500만 원 이상	99.24	0.76	
학력	중졸 이하	93.28	6.72	26.002(2)***
	고졸	94.73	5.27	
	대졸 이상	97.74	2.26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97.50	2.50	26.376(5)***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92.17	7.83	
	고용주, 자영자	97.35	2.65	
	무급가족종사자	98.61	1.39	
	실업자	90.32	9.68	
	비경제활동인구	94.26	5.74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97.78	2.22	14.212(1)***
	비정규직	92.69	7.31	
이념적 성향	보수적	94.19	5.81	5.922(2)
	중도적	95.82	4.18	
	진보적	97.47	2.53	

주: “지난 1년 동안의 경제적 상황을 감안하였을 때, 귀댁에서는 다음과 같은 환경을 갖추고 계셨습니까?”에 대한 응답임.

<부표 3-50> 박탈: (5) 예식장 갈 때와 같은 특별한 날에 입을 수 있는 여름과 겨울 각각의 정장을 한별 정도는 가지고 있다

(단위 : %)

구분		하고(갖고) 있다	못 하고 (못 갖고) 있다	χ^2 (df)
전체		90.65	9.35	
성별	남성	89.68	10.32	0.748(1)
	여성	91.65	8.35	
연령	20대 이하	92.29	7.71	24.797(4)***
	30대	94.78	5.22	
	40대	90.44	9.56	
	50대	88.79	11.21	
	60대 이상	87.60	12.40	
지역1	수도권	89.10	10.90	14.721(1)***
	비수도권	92.24	7.76	
지역2	대도시	90.07	9.93	7.808(2)*
	중소도시	90.64	9.36	
	농어촌	93.84	6.16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73.42	26.58	289.027(3)***
	중하층	88.76	11.24	
	중간층	96.08	3.92	
	중상층(상층)	96.89	3.11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74.62	25.38	233.552(4)***
	200만 원대	87.98	12.02	
	300만 원대	88.30	11.70	
	400만 원대	93.50	6.50	
	500만 원 이상	97.01	2.99	
학력	중졸 이하	79.67	20.33	66.331(2)***
	고졸	89.87	10.13	
	대졸 이상	94.97	5.03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93.54	6.46	82.433(5)***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84.03	15.97	
	고용주, 자영자	94.70	5.30	
	무급가족종사자	94.93	5.07	
	실업자	84.00	16.00	
	비경제활동인구	86.40	13.60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93.75	6.25	51.310(1)***
	비정규직	85.70	14.30	
이념적 성향	보수적	90.58	9.42	7.153(2)*
	중도적	89.22	10.78	
	진보적	93.58	6.42	

주: “지난 1년 동안의 경제적 상황을 감안하였을 때, 귀덕에서는 다음과 같은 환경을 갖추고 계셨습니까?”에 대한 응답임.

〈부표 3-51〉 박탈: (6) 질병으로 오랫동안(3개월 이상) 앓고 있는 경우 정기적으로 진료 받고(받을 수) 있다
(단위 : %)

구분		하고(갖고) 있다	못 하고 (못 갖고) 있다	X ² (df)
전체		94.90	5.10	
성별	남성	93.88	6.12	2.426(1)
	여성	95.95	4.05	
연령	20대 이하	97.57	2.43	3.922(4)
	30대	96.11	3.89	
	40대	95.11	4.89	
	50대	91.28	8.72	
	60대 이상	94.89	5.11	
지역1	수도권	93.50	6.50	7.085(1)**
	비수도권	96.33	3.67	
지역2	대도시	95.35	4.65	6.417(2)*
	중소도시	94.06	5.94	
	농어촌	97.62	2.38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88.16	11.84	73.894(3)***
	중하층	93.62	6.38	
	중간층	97.85	2.15	
	중상층(상층)	94.01	5.99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89.08	10.92	52.755(4)***
	200만 원대	94.75	5.25	
	300만 원대	92.42	7.58	
	400만 원대	95.19	4.81	
	500만 원 이상	97.85	2.15	
학력	중졸 이하	90.38	9.62	2.952(2)
	고졸	94.76	5.24	
	대졸 이상	96.50	3.50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94.59	5.41	23.348(5)***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93.85	6.15	
	고용주, 자영자	95.54	4.46	
	무급가족종사자	99.05	0.95	
	실업자	89.14	10.86	
	비경제활동인구	95.46	4.54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94.44	5.56	4.579(1)*
	비정규직	94.39	5.61	
이념적 성향	보수적	95.45	4.55	3.150(2)
	중도적	94.75	5.25	
	진보적	94.66	5.34	

주: “지난 1년 동안의 경제적 상황을 감안하였을 때, 귀댁에서는 다음과 같은 환경을 갖추고 계셨습니까?”에 대한 응답임.

310 사회통합 실태 진단 및 대응 방안 연구(VI): 사회통합 상태 진단

〈부표 3-52〉 박탈: (7) 이가 아프면 치과에 가고(갈 수) 있다

(단위: %)

구분		하고(갖고) 있다	못 하고 (못 갖고) 있다	X ² (df)
전체		96.60	3.40	
성별	남성	96.13	3.87	0.036(1)
	여성	97.08	2.92	
연령	20대 이하	98.66	1.34	23.206(4)***
	30대	98.65	1.35	
	40대	95.51	4.49	
	50대	96.37	3.63	
	60대 이상	94.23	5.77	
지역1	수도권	96.83	3.17	3.311(1)
	비수도권	96.37	3.63	
지역2	대도시	95.00	5.00	18.599(2)***
	중소도시	97.71	2.29	
	농어촌	98.49	1.51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88.75	11.25	154.876(3)***
	중하층	95.27	4.73	
	중간층	99.39	0.61	
	중상층(상층)	100.00	0.00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88.53	11.47	125.703(4)***
	200만 원대	94.38	5.62	
	300만 원대	97.35	2.65	
	400만 원대	98.02	1.98	
	500만 원 이상	99.35	0.65	
학력	중졸 이하	91.00	9.00	52.614(2)***
	고졸	95.94	4.06	
	대졸 이상	99.06	0.94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97.93	2.07	48.412(5)***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94.12	5.88	
	고용주, 자영자	97.91	2.09	
	무급가족종사자	98.72	1.28	
	실업자	90.21	9.79	
	비경제활동인구	95.34	4.66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98.13	1.87	12.030(1)***
	비정규직	94.50	5.50	
이념적 성향	보수적	95.57	4.43	11.255(2)**
	중도적	96.26	3.74	
	진보적	98.27	1.73	

주: “지난 1년 동안의 경제적 상황을 감안하였을 때, 귀책에서는 다음과 같은 환경을 갖추고 계셨습니까?”에 대한 응답임.

〈부표 3-53〉 박탈: (8) 의사에게서 처방받은 의약품이나 필요한 (일반)의약품을 구입하고(할 수) 있다
(단위 : %)

구분		하고(갖고) 있다	못 하고 (못 갖고) 있다	χ^2 (df)
전체		99.14	0.86	
성별	남성	98.93	1.07	1.597(1)
	여성	99.36	0.64	
연령	20대 이하	99.26	0.74	1.585(4)
	30대	99.60	0.40	
	40대	99.38	0.62	
	50대	98.46	1.54	
	60대 이상	99.10	0.90	
지역1	수도권	99.12	0.88	0.011(1)
	비수도권	99.16	0.84	
지역2	대도시	99.54	0.46	1.366(2)
	중소도시	98.78	1.22	
	농어촌	99.18	0.82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98.41	1.59	17.393(3)***
	중하층	99.23	0.77	
	중간층	99.74	0.26	
	중상층(상층)	95.21	4.79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98.75	1.25	15.573(4)**
	200만 원대	98.63	1.37	
	300만 원대	99.14	0.86	
	400만 원대	99.64	0.36	
	500만 원 이상	99.28	0.72	
학력	중졸 이하	99.30	0.70	2.529(2)
	고졸	99.16	0.84	
	대졸 이상	99.07	0.93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99.54	0.46	4.744(5)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98.85	1.15	
	고용주, 자영자	98.20	1.80	
	무급가족종사자	100.00	0.00	
	실업자	99.05	0.95	
	비경제활동인구	99.50	0.50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99.60	0.40	3.154(1)
	비정규직	98.86	1.14	
이념적 성향	보수적	99.30	0.70	1.059(2)
	중도적	99.45	0.55	
	진보적	98.37	1.63	

주: “지난 1년 동안의 경제적 상황을 감안하였을 때, 귀책에서는 다음과 같은 환경을 갖추고 계셨습니까?”에 대한 응답임.

312 사회통합 실태 진단 및 대응 방안 연구(VI): 사회통합 상태 진단

〈부표 3-54〉 박탈: (9) 1년에 한 번 이상 (가족 또는 자녀와) 2~3일 정도의 여행(피서)을 다녀온다
(단위 : %)

구분		하고(갖고) 있다	못 하고 (못 갖고) 있다	χ^2 (df)
전체		75.64	24.36	
성별	남성	73.38	26.62	0.028(1)
	여성	77.97	22.03	
연령	20대 이하	81.75	18.25	254.128(4)***
	30대	87.49	12.51	
	40대	80.39	19.61	
	50대	73.48	26.52	
	60대 이상	56.93	43.07	
지역1	수도권	75.83	24.17	6.107(1)*
	비수도권	75.44	24.56	
지역2	대도시	74.17	25.83	12.837(2)**
	중소도시	78.45	21.55	
	농어촌	66.21	33.79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41.93	58.07	478.722(3)***
	중하층	71.17	28.83	
	중간층	86.54	13.46	
	중상층(상층)	90.78	9.22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39.09	60.91	623.062(4)***
	200만 원대	62.76	37.24	
	300만 원대	76.85	23.15	
	400만 원대	83.04	16.96	
	500만 원 이상	89.71	10.29	
학력	중졸 이하	46.98	53.02	373.447(2)***
	고졸	71.74	28.26	
	대졸 이상	88.69	11.31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82.72	17.28	142.588(5)***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62.62	37.38	
	고용주, 자영자	77.34	22.66	
	무급가족종사자	66.32	33.68	
	실업자	51.50	48.50	
	비경제활동인구	73.74	26.26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83.00	17.00	81.392(1)***
	비정규직	66.56	33.44	
이념적 성향	보수적	69.03	30.97	46.444(2)***
	중도적	75.02	24.98	
	진보적	83.22	16.78	

주: “지난 1년 동안의 경제적 상황을 감안하였을 때, 귀책에서는 다음과 같은 환경을 갖추고 계셨습니까?”에 대한 응답임.

〈부표 3-55〉 박탈: (10) 가족의 생일 등 특별한 날을 기념(외식 등)하고 있다

(단위 : %)

구분		하고(갖고) 있다	못 하고 (못 갖고) 있다	χ^2 (df)
전체		89.30	10.70	
성별	남성	86.90	13.10	4.067(1)*
	여성	91.79	8.21	
연령	20대 이하	93.38	6.62	155.878(4)***
	30대	93.99	6.01	
	40대	91.88	8.12	
	50대	88.26	11.74	
	60대 이상	79.86	20.14	
지역1	수도권	90.04	9.96	0.360(1)
	비수도권	88.54	11.46	
지역2	대도시	89.15	10.85	18.068(2)***
	중소도시	90.80	9.20	
	농어촌	80.81	19.19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62.04	37.96	502.932(3)***
	중하층	87.89	12.11	
	중간층	96.72	3.28	
	중상층(상층)	98.42	1.58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57.59	42.41	625.004(4)***
	200만 원대	84.15	15.85	
	300만 원대	91.10	8.90	
	400만 원대	96.17	3.83	
	500만 원 이상	98.65	1.35	
학력	중졸 이하	69.35	30.65	236.176(2)***
	고졸	89.59	10.41	
	대졸 이상	95.54	4.46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93.26	6.74	120.456(5)***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79.29	20.71	
	고용주, 자영자	92.29	7.71	
	무급가족종사자	88.10	11.90	
	실업자	72.02	27.98	
	비경제활동인구	87.58	12.42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93.47	6.53	86.734(1)***
	비정규직	82.01	17.99	
이념적 성향	보수적	87.34	12.66	17.567(2)***
	중도적	88.66	11.34	
	진보적	92.47	7.53	

주: “지난 1년 동안의 경제적 상황을 감안하였을 때, 귀책에서는 다음과 같은 환경을 갖추고 계셨습니까?”에 대한 응답임.

314 사회통합 실태 진단 및 대응 방안 연구(VI): 사회통합 상태 진단

〈부표 3-56〉 박탈: (11) 정기적으로 혹은 종종 가족 또는 자녀와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영화, 공연)을 할 수 있다

(단위 : %)

구분		하고(갖고) 있다	못 하고 (못 갖고) 있다	χ^2 (df)
전체		79.58	20.42	
성별	남성	77.98	22.02	0.481(1)
	여성	81.24	18.76	
연령	20대 이하	89.60	10.40	399.843(4)***
	30대	90.22	9.78	
	40대	83.63	16.37	
	50대	77.31	22.69	
	60대 이상	59.19	40.81	
지역1	수도권	82.16	17.84	0.178(1)
	비수도권	76.93	23.07	
지역2	대도시	80.41	19.59	49.729(2)***
	중소도시	81.56	18.44	
	농어촌	62.68	37.32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50.11	49.89	443.518(3)***
	중하층	75.38	24.62	
	중간층	89.31	10.69	
	중상층(상층)	93.15	6.85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42.61	57.39	697.687(4)***
	200만 원대	67.29	32.71	
	300만 원대	80.88	19.12	
	400만 원대	88.51	11.49	
	500만 원 이상	92.94	7.06	
학력	중졸 이하	47.75	52.25	536.359(2)***
	고졸	77.72	22.28	
	대졸 이상	91.73	8.27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85.63	14.37	137.054(5)***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70.88	29.12	
	고용주, 자영자	79.91	20.09	
	무급가족종사자	63.15	36.85	
	실업자	59.83	40.17	
	비경제활동인구	78.66	21.34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85.36	14.64	49.379(1)***
	비정규직	74.97	25.03	
이념적 성향	보수적	71.58	28.42	66.876(2)***
	중도적	79.65	20.35	
	진보적	87.10	12.90	

주: “지난 1년 동안의 경제적 상황을 감안하였을 때, 귀택에서는 다음과 같은 환경을 갖추고 계셨습니까?”에 대한 응답임.

〈부표 3-5〉 박탈: (12) 어려울 때 이야기를 나누고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친척이나 친구가 있다
(단위 : %)

구분		하고(갖고) 있다	못 하고 (못 갖고) 있다	χ^2 (df)
전체		95.81	4.19	
성별	남성	94.85	5.15	1.908(1)
	여성	96.80	3.20	
연령	20대 이하	99.00	1.00	97.129(4)***
	30대	98.19	1.81	
	40대	96.27	3.73	
	50대	96.31	3.69	
	60대 이상	89.78	10.22	
지역1	수도권	96.47	3.53	2.563(1)
	비수도권	95.13	4.87	
지역2	대도시	95.66	4.34	0.811(2)
	중소도시	96.39	3.61	
	농어촌	93.03	6.97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84.36	15.64	190.769(3)***
	중하층	95.85	4.15	
	중간층	98.52	1.48	
	중상층(상층)	98.77	1.23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83.68	16.32	229.951(4)***
	200만 원대	93.59	6.41	
	300만 원대	97.49	2.51	
	400만 원대	98.95	1.05	
	500만 원 이상	98.87	1.13	
학력	중졸 이하	87.68	12.32	127.918(2)***
	고졸	95.76	4.24	
	대졸 이상	98.51	1.49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98.29	1.71	59.777(5)***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92.63	7.37	
	고용주, 자영자	96.41	3.59	
	무급가족종사자	93.09	6.91	
	실업자	90.59	9.41	
	비경제활동인구	94.23	5.77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98.33	1.67	27.337(1)***
	비정규직	93.82	6.18	
이념적 성향	보수적	94.50	5.50	16.756(2)***
	중도적	95.39	4.61	
	진보적	97.90	2.10	

주: “지난 1년 동안의 경제적 상황을 감안하였을 때, 귀책에서는 다음과 같은 환경을 갖추고 계셨습니까?”에 대한 응답임.

〈부표 3-58〉 박탈: (13) 일상적이지 않은 지출에 대비(저축 등)하고 있다

(단위: %)

구분		하고(갖고) 있다	못 하고 (못 갖고) 있다	χ^2 (df)
전체		80.13	19.87	
성별	남성	78.06	21.94	0.169(1)
	여성	82.26	17.74	
연령	20대 이하	77.52	22.48	109.740(4)***
	30대	89.91	10.09	
	40대	81.73	18.27	
	50대	83.11	16.89	
	60대 이상	69.11	30.89	
지역1	수도권	77.98	22.02	31.852(1)***
	비수도권	82.34	17.66	
지역2	대도시	81.49	18.51	0.772(2)
	중소도시	78.99	21.01	
	농어촌	79.64	20.36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48.33	51.67	480.168(3)***
	중하층	76.57	23.43	
	중간층	89.69	10.31	
	중상층(상층)	95.99	4.01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47.57	52.43	509.072(4)***
	200만 원대	74.33	25.67	
	300만 원대	80.99	19.01	
	400만 원대	85.15	14.85	
	500만 원 이상	91.13	8.87	
학력	중졸 이하	60.11	39.89	179.451(2)***
	고졸	78.37	21.63	
	대졸 이상	88.33	11.67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88.61	11.39	180.711(5)***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69.37	30.63	
	고용주, 자영자	83.77	16.23	
	무급가족종사자	80.70	19.30	
	실업자	58.56	41.44	
	비경제활동인구	73.00	27.00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88.74	11.26	76.677(1)***
	비정규직	73.51	26.49	
이념적 성향	보수적	77.52	22.48	5.714(2)
	중도적	80.02	19.98	
	진보적	82.85	17.15	

주: “지난 1년 동안의 경제적 상황을 감안하였을 때, 귀책에서는 다음과 같은 환경을 갖추고 계셨습니까?”에 대한 응답임.

〈부표 3-59〉 박탈: (14) 노후를 위해 (국민, 개인)연금에 가입하거나 저축하고 있다

(단위 : %)

구분		하고(갖고) 있다	못 하고 (못 갖고) 있다	X ² (df)
전체		81.49	18.51	
성별	남성	81.22	18.78	4.351(1)*
	여성	81.76	18.24	
연령	20대 이하	74.74	25.26	144.803(4)***
	30대	89.18	10.82	
	40대	84.92	15.08	
	50대	87.76	12.24	
	60대 이상	70.88	29.12	
지역1	수도권	81.15	18.85	16.793(1)***
	비수도권	81.83	18.17	
지역2	대도시	81.24	18.76	2.944(2)
	중소도시	81.85	18.15	
	농어촌	80.59	19.41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52.25	47.75	385.764(3)***
	중하층	79.67	20.33	
	중간층	89.31	10.69	
	중상층(상층)	94.39	5.61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49.57	50.43	495.833(4)***
	200만 원대	75.30	24.70	
	300만 원대	83.79	16.21	
	400만 원대	86.31	13.69	
	500만 원 이상	91.90	8.10	
학력	중졸 이하	66.01	33.99	172.258(2)***
	고졸	77.87	22.13	
	대졸 이상	89.97	10.03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92.86	7.14	312.380(5)***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70.57	29.43	
	고용주, 자영자	85.80	14.20	
	무급가족종사자	82.94	17.06	
	실업자	56.87	43.13	
	비경제활동인구	70.64	29.36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93.32	6.68	121.309(1)***
	비정규직	74.58	25.42	
이념적 성향	보수적	78.48	21.52	3.436(2)
	중도적	82.34	17.66	
	진보적	82.65	17.35	

주: “지난 1년 동안의 경제적 상황을 감안하였을 때, 귀책에서는 다음과 같은 환경을 갖추고 계셨습니까?”에 대한 응답임.

〈부표 3-60〉 박탈: (15) 사회보험 외의 사적보험(의료보험·종신보험·생명보험 등의 보장성 보험)에 가입해 있다
(단위 : %)

구분		하고(갖고) 있다	못 하고 (못 갖고) 있다	X ² (df)
전체		87.52	12.48	
성별	남성	85.67	14.33	1.681(1)
	여성	89.43	10.57	
연령	20대 이하	85.87	14.13	186.974(4)***
	30대	93.79	6.21	
	40대	91.49	8.51	
	50대	90.88	9.12	
	60대 이상	75.99	24.01	
지역1	수도권	85.94	14.06	28.377(1)***
	비수도권	89.15	10.85	
지역2	대도시	85.81	14.19	3.286(2)
	중소도시	89.68	10.32	
	농어촌	83.51	16.49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64.22	35.78	285.536(3)***
	중하층	87.59	12.41	
	중간층	93.13	6.87	
	중상층(상층)	92.95	7.05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60.24	39.76	478.375(4)***
	200만 원대	80.69	19.31	
	300만 원대	89.14	10.86	
	400만 원대	94.81	5.19	
	500만 원 이상	95.95	4.05	
학력	중졸 이하	70.14	29.86	260.119(2)***
	고졸	86.56	13.44	
	대졸 이상	94.11	5.89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93.46	6.54	165.066(5)***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80.69	19.31	
	고용주, 자영자	90.87	9.13	
	무급가족종사자	85.32	14.68	
	실업자	70.36	29.64	
	비경제활동인구	82.08	17.92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93.75	6.25	79.574(1)***
	비정규직	82.90	17.10	
이념적 성향	보수적	84.11	15.89	27.803(2)***
	중도적	87.90	12.10	
	진보적	90.02	9.98	

주: “지난 1년 동안의 경제적 상황을 감안하였을 때, 귀댁에서는 다음과 같은 환경을 갖추고 계셨습니까?”에 대한 응답임.

〈부표 3-61〉 박탈: (16) 흡지 않도록 난방이 적절히 갖춰진 곳에서 생활하고 있다

(단위 : %)

구분		하고(갖고) 있다	못 하고 (못 갖고) 있다	χ^2 (df)
전체		99.20	0.80	
성별	남성	99.08	0.92	0.004(1)
	여성	99.32	0.68	
연령	20대 이하	99.65	0.35	15.140(4)**
	30대	99.53	0.47	
	40대	99.61	0.39	
	50대	98.77	1.23	
	60대 이상	98.50	1.50	
지역1	수도권	99.45	0.55	0.097(1)
	비수도권	98.94	1.06	
지역2	대도시	99.25	0.75	5.539(2)
	중소도시	99.09	0.91	
	농어촌	99.56	0.44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97.13	2.87	31.553(3)***
	중하층	99.26	0.74	
	중간층	99.72	0.28	
	중상층(상층)	99.10	0.90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97.46	2.54	40.361(4)***
	200만 원대	98.91	1.09	
	300만 원대	99.35	0.65	
	400만 원대	99.16	0.84	
	500만 원 이상	99.85	0.15	
학력	중졸 이하	98.44	1.56	12.247(2)**
	고졸	99.01	0.99	
	대졸 이상	99.62	0.38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99.62	0.38	28.186(5)***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98.83	1.17	
	고용주, 자영자	99.34	0.66	
	무급가족종사자	100.00	0.00	
	실업자	96.89	3.11	
	비경제활동인구	98.92	1.08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99.73	0.27	5.652(1)*
	비정규직	98.73	1.27	
이념적 성향	보수적	99.08	0.92	2.485(2)
	중도적	99.10	0.90	
	진보적	99.50	0.50	

주: “지난 1년 동안의 경제적 상황을 감안하였을 때, 귀택에서는 다음과 같은 환경을 갖추고 계셨습니까?”에 대한 응답임.

320 사회통합 실태 진단 및 대응 방안 연구(VI): 사회통합 상태 진단

〈부표 3-62〉 박탈: (17) 가족 수나 구성원의 연령에 맞게 적절한 방을 나누어 사용하고 있다

(단위: %)

구분		하고(갖고) 있다	못 하고 (못 갖고) 있다	χ^2 (df)
전체		97.62	2.38	
성별	남성	97.18	2.82	0.391(1)
	여성	98.07	1.93	
연령	20대 이하	98.39	1.61	8.073(4)
	30대	98.06	1.94	
	40대	96.30	3.70	
	50대	97.27	2.73	
	60대 이상	98.21	1.79	
지역1	수도권	97.38	2.62	10.124(1)**
	비수도권	97.86	2.14	
지역2	대도시	96.97	3.03	3.465(2)
	중소도시	98.08	1.92	
	농어촌	98.36	1.64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92.00	8.00	66.880(3)***
	중하층	97.57	2.43	
	중간층	98.99	1.01	
	중상층(상층)	99.18	0.82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94.87	5.13	23.640(4)***
	200만 원대	96.56	3.44	
	300만 원대	97.36	2.64	
	400만 원대	99.27	0.73	
	500만 원 이상	98.44	1.56	
학력	중졸 이하	97.14	2.86	7.536(2)*
	고졸	96.91	3.09	
	대졸 이상	98.44	1.56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98.87	1.13	27.128(5)***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92.50	7.50	
	고용주, 자영자	98.07	1.93	
	무급가족종사자	98.32	1.68	
	실업자	97.80	2.20	
	비경제활동인구	97.37	2.63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98.97	1.03	20.646(1)***
	비정규직	93.73	6.27	
이념적 성향	보수적	97.93	2.07	2.289(2)
	중도적	97.19	2.81	
	진보적	98.19	1.81	

주: “지난 1년 동안의 경제적 상황을 감안하였을 때, 귀택에서는 다음과 같은 환경을 갖추고 계셨습니까?”에 대한 응답임.

〈부표 3-63〉 박탈: (18) 걸어서 10분 안의 거리에 버스 정거장이나 전철역이 있다

(단위 : %)

구분		하고(갖고) 있다	못 하고 (못 갖고) 있다	χ^2 (df)
전체		98.11	1.89	
성별	남성	98.22	1.78	0.999(1)
	여성	98.00	2.00	
연령	20대 이하	99.60	0.40	38.930(4)***
	30대	98.64	1.36	
	40대	98.66	1.34	
	50대	98.27	1.73	
	60대 이상	95.54	4.46	
지역1	수도권	98.51	1.49	0.316(1)
	비수도권	97.69	2.31	
지역2	대도시	98.80	1.20	67.010(2)***
	중소도시	98.37	1.63	
	농어촌	92.63	7.37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97.34	2.66	2.258(3)
	중하층	98.79	1.21	
	중간층	97.75	2.25	
	중상층(상층)	98.31	1.69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95.89	4.11	31.524(4)***
	200만 원대	97.82	2.18	
	300만 원대	98.71	1.29	
	400만 원대	98.10	1.90	
	500만 원 이상	98.73	1.27	
학력	중졸 이하	96.44	3.56	20.828(2)***
	고졸	98.22	1.78	
	대졸 이상	98.55	1.45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98.56	1.44	46.902(5)***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98.37	1.63	
	고용주, 자영자	97.59	2.41	
	무급가족종사자	91.81	8.19	
	실업자	98.49	1.51	
	비경제활동인구	98.36	1.64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98.50	1.50	0.065(1)
	비정규직	98.55	1.45	
이념적 성향	보수적	96.16	3.84	15.991(2)***
	중도적	98.59	1.41	
	진보적	99.00	1.00	

주: “지난 1년 동안의 경제적 상황을 감안하였을 때, 귀책에서는 다음과 같은 환경을 갖추고 계셨습니까?”에 대한 응답임.

322 사회통합 실태 진단 및 대응 방안 연구(VI): 사회통합 상태 진단

〈부표 3-64〉 박탈: (19) 옥탑방이나 (반)지하가 아닌 지상에 거주하고 있다

(단위 : %)

구분		하고(갖고) 있다	못 하고 (못 갖고) 있다	χ^2 (df)
전체		95.31	4.69	
성별	남성	95.27	4.73	0.196(1)
	여성	95.35	4.65	
연령	20대 이하	97.10	2.90	14.187(4)**
	30대	96.24	3.76	
	40대	97.14	2.86	
	50대	90.91	9.09	
	60대 이상	95.57	4.43	
지역1	수도권	92.77	7.23	60.037(1)***
	비수도권	97.93	2.07	
지역2	대도시	94.19	5.81	16.500(2)***
	중소도시	95.97	4.03	
	농어촌	97.41	2.59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91.22	8.78	15.217(3)**
	중하층	95.56	4.44	
	중간층	96.46	3.54	
	중상층(상층)	93.31	6.69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90.68	9.32	19.707(4)***
	200만 원대	95.57	4.43	
	300만 원대	98.03	1.97	
	400만 원대	95.93	4.07	
	500만 원 이상	95.39	4.61	
학력	중졸 이하	95.09	4.91	1.653(2)
	고졸	94.56	5.44	
	대졸 이상	96.09	3.91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94.39	5.61	17.393(5)**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92.71	7.29	
	고용주, 자영자	96.72	3.28	
	무급가족종사자	96.46	3.54	
	실업자	92.45	7.55	
	비경제활동인구	96.37	3.63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94.15	5.85	7.810(1)**
	비정규직	93.70	6.30	
이념적 성향	보수적	94.89	5.11	3.375(2)
	중도적	95.82	4.18	
	진보적	94.69	5.31	

주: “지난 1년 동안의 경제적 상황을 감안하였을 때, 귀책에서는 다음과 같은 환경을 갖추고 계셨습니까?”에 대한 응답임.

〈부표 3-65〉 박탈: (20) 전용 수세식의 화장실 및 온수 목욕시설을 갖추고 있다

(단위 : %)

구분		하고(갖고) 있다	못 하고 (못 갖고) 있다	χ^2 (df)
전체		99.64	0.36	
성별	남성	99.48	0.52	0.706(1)
	여성	99.80	0.20	
연령	20대 이하	99.60	0.40	4.656(4)
	30대	99.60	0.40	
	40대	99.83	0.17	
	50대	99.52	0.48	
	60대 이상	99.64	0.36	
지역1	수도권	99.72	0.28	0.749(1)
	비수도권	99.56	0.44	
지역2	대도시	99.64	0.36	1.050(2)
	중소도시	99.60	0.40	
	농어촌	99.88	0.12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99.29	0.71	5.677(3)
	중하층	99.49	0.51	
	중간층	99.81	0.19	
	중상층(상층)	100.00	0.00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99.42	0.58	4.722(4)
	200만 원대	99.21	0.79	
	300만 원대	99.78	0.22	
	400만 원대	99.62	0.38	
	500만 원 이상	99.83	0.17	
학력	중졸 이하	99.53	0.47	0.108(2)
	고졸	99.61	0.39	
	대졸 이상	99.70	0.30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99.46	0.54	5.331(5)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99.82	0.18	
	고용주, 자영자	99.51	0.49	
	무급가족종사자	100.00	0.00	
	실업자	99.78	0.22	
	비경제활동인구	99.85	0.15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99.49	0.51	0.335(1)
	비정규직	99.66	0.34	
이념적 성향	보수적	99.50	0.50	3.680(2)
	중도적	99.84	0.16	
	진보적	99.37	0.63	

주: “지난 1년 동안의 경제적 상황을 감안하였을 때, 귀택에서는 다음과 같은 환경을 갖추고 계셨습니까?”에 대한 응답임.

324 사회통합 실태 진단 및 대응 방안 연구(VI): 사회통합 상태 진단

<부표 3-66> 박탈: (21) 전기요금, 전화요금, 수도요금 중 하나 이상을 내지 못해 전기, 전화, 수도 등이 끊긴 적이 있다

(단위: %)

구분		그런 적 있다	그런 적 없다	해당 없음	X ² (df)
전체		3.68	96.29	0.03	
성별	남성	3.90	96.05	0.04	0.648(2)
	여성	3.45	96.53	0.01	
연령	20대 이하	2.47	97.53	0.00	10.290(8)
	30대	2.25	97.71	0.04	
	40대	3.70	96.30	0.00	
	50대	5.99	93.91	0.10	
	60대 이상	3.65	96.35	0.00	
지역1	수도권	3.54	96.45	0.01	0.939(2)
	비수도권	3.83	96.13	0.05	
지역2	대도시	4.00	95.98	0.02	1.784(4)
	중소도시	3.50	96.46	0.05	
	농어촌	3.03	96.97	0.00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7.60	92.40	0.00	21.670(6)**
	중하층	3.24	96.72	0.04	
	중간층	2.42	97.55	0.03	
	중상층(상층)	8.25	91.75	0.00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4.58	95.35	0.07	20.799(8)**
	200만 원대	5.53	94.42	0.04	
	300만 원대	2.50	97.50	0.00	
	400만 원대	4.11	95.89	0.00	
	500만 원 이상	2.97	96.99	0.03	
학력	중졸 이하	4.75	95.18	0.06	3.971(4)
	고졸	4.13	95.85	0.02	
	대졸 이상	2.90	97.07	0.03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3.28	96.70	0.02	10.006(10)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3.93	95.98	0.10	
	고용주, 자영자	4.00	95.94	0.06	
	무급가족종사자	2.36	97.64	0.00	
	실업자	7.19	92.81	0.00	
	비경제활동인구	3.47	96.53	0.00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2.95	97.02	0.02	1.878(2)
	비정규직	4.59	95.33	0.07	
이념적 성향	보수적	4.01	95.92	0.07	10.331(4)*
	중도적	3.81	96.19	0.00	
	진보적	3.10	96.85	0.05	

주: “지난 1년 동안의 경제적 상황을 감안하였을 때, 귀책에서는 다음과 같은 환경을 갖추고 계셨습니까?”에 대한 응답임.

〈부표 3-67〉 박탈: (22) 집세(월세, 전세금)가 밀렸거나 또는 그 이유로 집을 옮긴 적이 있다
(단위: %)

구분		그런 적 있다	그런 적 없다	해당 없음	χ^2 (df)
전체		1.64	44.24	54.12	
성별	남성	2.31	46.93	50.76	3.554(2)
	여성	0.94	41.45	57.60	
연령	20대 이하	1.53	49.86	48.61	128.753(8)***
	30대	0.68	60.36	38.95	
	40대	1.36	41.06	57.57	
	50대	3.06	35.67	61.27	
	60대 이상	1.39	36.82	61.79	
지역1	수도권	2.41	60.00	37.59	252.853(2)***
	비수도권	0.85	28.00	71.15	
지역2	대도시	1.55	45.34	53.11	38.745(4)***
	중소도시	1.88	46.61	51.51	
	농어촌	0.61	23.40	75.99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5.79	52.43	41.78	134.257(6)***
	중하층	1.23	44.00	54.77	
	중간층	0.46	43.05	56.49	
	중상층(상층)	4.79	37.21	58.00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5.24	50.90	43.86	87.004(8)***
	200만 원대	2.24	48.50	49.26	
	300만 원대	0.89	48.96	50.15	
	400만 원대	0.50	46.34	53.17	
	500만 원 이상	0.94	37.49	61.57	
학력	중졸 이하	2.74	31.99	65.27	58.587(4)***
	고졸	1.66	43.86	54.49	
	대졸 이상	1.26	48.60	50.14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0.90	50.91	48.18	72.140(10)***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2.52	50.21	47.28	
	고용주, 자영자	2.10	35.10	62.79	
	무급가족종사자	0.81	20.49	78.70	
	실업자	5.79	39.96	54.25	
	비경제활동인구	1.38	44.36	54.26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0.99	51.16	47.86	2.303(2)
	비정규직	1.94	49.76	48.31	
이념적 성향	보수적	2.25	40.82	56.93	13.396(4)**
	중도적	1.10	45.38	53.52	
	진보적	2.14	45.21	52.65	

주: “지난 1년 동안의 경제적 상황을 감안하였을 때, 귀댁에서는 다음과 같은 환경을 갖추고 계셨습니까?”에 대한 응답임.

〈부표 3-68〉 박탈: (23) 자녀에게 고등교육(전문대학 및 대학교 이상)을 시키고 있다(시킬 수 있다)
(단위: %)

구분		하고 있다	못 하고 있다	해당 없음	X ² (df)
전체		40.56	1.42	58.02	
성별	남성	37.58	1.07	61.35	9.966(2)**
	여성	43.63	1.79	54.58	
연령	20대 이하	27.82	1.31	70.87	868.113(8)***
	30대	50.86	1.80	47.35	
	40대	70.28	2.54	27.18	
	50대	41.09	1.12	57.79	
	60대 이상	12.64	0.37	86.99	
지역1	수도권	44.88	1.83	53.28	4.503(2)
	비수도권	36.10	1.00	62.90	
지역2	대도시	38.52	0.70	60.78	30.295(4)***
	중소도시	44.45	2.18	53.37	
	농어촌	27.60	0.65	71.75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20.80	2.55	76.65	123.998(6)***
	중하층	37.18	0.69	62.14	
	중간층	47.73	1.78	50.49	
	중상층(상층)	48.02	0.84	51.14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7.77	1.21	91.03	610.564(8)***
	200만 원대	17.05	1.71	81.24	
	300만 원대	41.81	0.84	57.35	
	400만 원대	52.49	2.24	45.27	
	500만 원 이상	55.77	1.30	42.93	
학력	중졸 이하	11.20	0.76	88.04	432.745(4)***
	고졸	38.63	1.74	59.63	
	대졸 이상	51.98	1.33	46.69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43.45	0.91	55.64	92.546(10)***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34.03	1.78	64.19	
	고용주, 자영자	40.63	0.51	58.86	
	무급가족종사자	20.28	1.16	78.57	
	실업자	18.23	3.07	78.70	
	비경제활동인구	43.59	2.51	53.90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43.87	0.76	55.37	45.543(2)***
	비정규직	35.15	1.96	62.90	
이념적 성향	보수적	33.52	1.45	65.03	70.572(4)***
	중도적	41.85	0.89	57.26	
	진보적	44.70	2.46	52.84	

주: “지난 1년 동안의 경제적 상황을 감안하였을 때, 자녀의 교육을 위해 다음과 같은 지원을 하고 있거나 또는 할 수 있습니까?”에 대한 응답임.

〈부표 3-69〉 박탈: (24) 자녀가 원하는 경우 학원수강이나 과외를 시키고 있다(시킬 수 있다)

(단위 : %)

구분		하고 있다	못 하고 있다	해당 없음	χ^2 (df)
전체		39.51	2.35	58.14	
성별	남성	36.39	2.23	61.38	12.274(2)**
	여성	42.73	2.48	54.79	
연령	20대 이하	26.61	2.52	70.87	901.071(8)***
	30대	50.43	2.22	47.35	
	40대	69.43	3.22	27.34	
	50대	38.68	3.32	58.00	
	60대 이상	12.36	0.44	87.20	
지역1	수도권	44.37	2.21	53.43	3.442(2)
	비수도권	34.50	2.50	63.00	
지역2	대도시	37.01	2.21	60.78	30.847(4)***
	중소도시	43.82	2.60	53.58	
	농어촌	26.43	1.58	72.00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17.71	5.62	76.67	158.177(6)***
	중하층	35.46	2.46	62.09	
	중간층	47.65	1.59	50.76	
	중상층(상층)	47.89	0.65	51.46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6.62	2.34	91.04	635.757(8)***
	200만 원대	15.35	3.20	81.45	
	300만 원대	38.15	4.63	57.21	
	400만 원대	52.20	2.18	45.62	
	500만 원 이상	55.81	1.12	43.07	
학력	중졸 이하	10.73	1.41	87.86	433.420(4)***
	고졸	36.88	3.18	59.94	
	대졸 이상	51.39	1.88	46.73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42.07	1.96	55.97	117.501(10)***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31.28	5.18	63.54	
	고용주, 자영자	39.47	1.47	59.06	
	무급가족종사자	17.85	1.16	80.99	
	실업자	16.78	5.04	78.19	
	비경제활동인구	43.75	2.38	53.87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42.59	1.68	55.73	55.064(2)***
	비정규직	32.47	5.14	62.39	
이념적 성향	보수적	32.30	2.68	65.03	68.141(4)***
	중도적	40.77	1.94	57.29	
	진보적	43.87	2.87	53.26	

주: “지난 1년 동안의 경제적 상황을 감안하였을 때, 자녀의 교육을 위해 다음과 같은 지원을 하고 있거나 또는 할 수 있습니까?”에 대한 응답임.

〈부표 3-70〉 박탈: (25) 자녀에게 필요한 기본참고서나 도서를 사 주고 있다(사 줄 수 있다)

(단위: %)

구분		하고 있다	못 하고 있다	해당 없음	X ² (df)
전체		41.29	0.67	58.04	
성별	남성	37.77	0.75	61.48	9.598(2)**
	여성	44.92	0.58	54.50	
연령	20대 이하	28.19	0.60	71.21	885.956(8)***
	30대	51.72	0.94	47.35	
	40대	72.35	0.93	26.72	
	50대	41.34	0.63	58.03	
	60대 이상	12.71	0.27	87.02	
지역1	수도권	45.99	0.57	53.44	3.203(2)
	비수도권	36.44	0.77	62.79	
지역2	대도시	39.02	0.62	60.36	27.731(4)***
	중소도시	45.47	0.73	53.79	
	농어촌	27.72	0.53	71.75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21.12	2.23	76.65	135.138(6)***
	중하층	37.38	0.30	62.33	
	중간층	48.98	0.63	50.39	
	중상층(상층)	48.86	0.00	51.14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7.96	1.01	91.03	612.175(8)***
	200만 원대	17.20	1.52	81.28	
	300만 원대	41.64	0.51	57.85	
	400만 원대	55.03	0.09	44.87	
	500만 원 이상	56.58	0.51	42.91	
학력	중졸 이하	11.54	0.60	87.86	417.013(4)***
	고졸	39.61	0.94	59.46	
	대졸 이상	52.59	0.44	46.97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44.14	0.30	55.56	90.521(10)***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34.02	1.43	64.54	
	고용주, 자영자	40.63	0.36	59.01	
	무급가족종사자	19.33	1.16	79.52	
	실업자	19.93	2.19	77.88	
	비경제활동인구	45.23	0.90	53.87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44.08	0.33	55.60	37.664(2)***
	비정규직	36.52	1.10	62.38	
이념적 성향	보수적	33.90	0.80	65.30	71.041(4)***
	중도적	42.36	0.66	56.98	
	진보적	46.20	0.56	53.24	

주: “지난 1년 동안의 경제적 상황을 감안하였을 때, 자녀의 교육을 위해 다음과 같은 지원을 하고 있거나 또는 할 수 있습니까?”에 대한 응답임.

〈부표 3-71〉 박탈: (26) 자녀의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양육(경제적, 사회적, 정서적)을 책임질 수 있다
(단위: %)

구분		하고 있다	못 하고 있다	해당 없음	X ² (df)
전체		40.74	0.63	58.62	
성별	남성	37.68	0.60	61.73	10.837(2)**
	여성	43.91	0.67	55.42	
연령	20대 이하	27.97	0.70	71.33	885.127(8)***
	30대	51.82	0.83	47.35	
	40대	71.89	0.90	27.21	
	50대	39.83	0.72	59.45	
	60대 이상	12.22	0.04	87.74	
지역1	수도권	45.27	0.48	54.25	3.192(2)
	비수도권	36.08	0.79	63.13	
지역2	대도시	37.93	0.56	61.51	29.522(4)***
	중소도시	45.40	0.68	53.92	
	농어촌	27.26	0.74	72.00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22.01	1.34	76.65	109.865(6)***
	중하층	36.47	0.31	63.22	
	중간층	48.55	0.59	50.86	
	중상층(상층)	46.57	1.55	51.88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8.35	0.62	91.03	583.665(8)***
	200만 원대	17.70	0.86	81.44	
	300만 원대	40.50	0.56	58.93	
	400만 원대	54.19	0.35	45.46	
	500만 원 이상	55.67	0.69	43.64	
학력	중졸 이하	11.90	0.06	88.04	415.482(4)***
	고졸	38.58	1.03	60.39	
	대졸 이상	52.21	0.44	47.34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43.17	0.48	56.35	81.971(10)***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34.11	0.70	65.20	
	고용주, 자영자	40.38	0.31	59.31	
	무급가족종사자	19.47	1.16	79.37	
	실업자	21.27	0.10	78.63	
	비경제활동인구	44.45	1.10	54.45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43.43	0.43	56.14	38.381(2)***
	비정규직	35.55	0.78	63.67	
이념적 성향	보수적	33.43	0.79	65.78	71.216(4)***
	중도적	41.62	0.63	57.76	
	진보적	45.99	0.50	53.51	

주: “지난 1년 동안의 경제적 상황을 감안하였을 때, 자녀의 교육을 위해 다음과 같은 지원을 하고 있거나 또는 할 수 있습니까?”에 대한 응답임.

330 사회통합 실태 진단 및 대응 방안 연구(VI): 사회통합 상태 진단

〈부표 3-72〉 우리 사회에 대한 신뢰도

(단위 : %)

구분		◎전혀 믿을 수 없다	①	②	③	④	⑤보통	⑥	⑦	⑧	⑨	⑩매우 믿을 수 있다	X ² (df)
전체		0.80	1.86	6.02	12.53	12.06	29.68	16.05	13.87	5.92	1.00	0.21	
성별	남성	1.03	1.76	5.79	13.48	13.04	30.30	15.31	13.68	4.41	0.97	0.24	9.543 (10)
	여성	0.55	1.98	6.27	11.56	11.05	29.03	16.81	14.07	7.47	1.04	0.18	
연령	20대 이하	1.35	1.27	3.75	14.07	11.01	29.28	15.18	17.91	5.28	0.64	0.25	48.364 (40)
	30대	1.06	0.98	2.90	12.51	14.91	34.04	11.67	14.99	5.62	1.27	0.04	
	40대	0.54	1.49	8.39	11.01	9.95	29.58	19.58	13.13	5.61	0.58	0.14	
	50대	0.41	2.46	7.44	12.66	13.45	27.57	14.33	10.64	8.55	2.21	0.26	
지역1	수도권	0.50	1.63	6.23	13.98	12.94	28.90	15.91	12.53	5.82	1.35	0.21	18.405 (10)*
	비수도권	1.10	2.11	5.81	11.04	11.16	30.48	16.19	15.25	6.01	0.65	0.20	
지역2	대도시	0.96	1.75	5.43	13.70	10.88	30.88	15.89	13.90	5.55	0.75	0.31	23.331 (20)
	중소도시	0.61	1.85	6.74	11.42	12.97	28.53	16.06	13.83	6.63	1.21	0.15	
	농어촌	1.06	2.57	4.84	13.02	12.93	30.17	16.86	13.99	3.43	1.14	0.00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1.45	0.75	8.56	19.97	14.85	25.15	13.81	9.41	5.20	0.66	0.19	76.047 (30)***
	중하층	0.99	2.18	6.59	11.99	12.14	29.32	16.87	14.09	5.21	0.49	0.11	
	중간층	0.45	1.91	4.94	11.48	11.52	31.35	16.35	14.60	6.17	0.91	0.31	
	중상층(상층)	0.97	1.91	5.48	8.15	9.72	28.27	13.09	16.41	10.08	5.92	0.00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0.04	1.12	7.58	14.69	15.67	25.83	17.77	12.37	4.17	0.39	0.39	92.584 (40)***
	200만 원대	1.06	2.20	7.80	15.94	9.25	31.43	13.47	12.88	4.54	0.75	0.68	
	300만 원대	1.15	2.63	4.52	11.39	17.86	30.53	13.67	13.91	4.35	0.00	0.00	
	400만 원대	0.00	2.52	7.21	10.11	9.10	35.74	17.68	12.35	4.47	0.73	0.08	
	500만 원 이상	1.11	1.41	4.97	11.88	10.66	27.56	16.85	15.35	8.27	1.84	0.10	
학력	중졸 이하	0.36	1.50	6.59	13.60	14.19	27.80	18.83	12.75	3.74	0.29	0.36	35.839 (20)*
	고졸	0.91	2.40	6.91	12.74	11.67	31.28	15.95	12.28	4.88	0.64	0.34	
	대졸 이상	0.83	1.47	5.00	11.99	11.74	28.77	15.24	15.74	7.61	1.58	0.03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0.78	1.60	5.60	13.35	14.70	29.64	15.37	12.65	5.37	0.72	0.23	59.091 (50)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1.02	0.52	6.72	14.91	10.84	31.43	14.93	14.96	4.67	0.00	0.00	
	고용주, 자영자	1.02	2.78	6.44	12.00	9.40	29.18	14.77	17.31	5.37	1.75	0.00	
	무급가족종사자	0.00	3.61	3.98	11.80	10.49	35.87	17.35	12.30	4.59	0.00	0.00	
	실업자	2.51	1.11	9.58	16.38	14.83	26.45	12.76	10.17	5.65	0.57	0.00	
	비경제활동인구	0.40	1.81	5.66	10.78	11.34	29.47	18.67	12.62	7.61	1.18	0.48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0.79	1.50	5.86	13.24	14.81	30.25	14.88	12.86	5.00	0.57	0.25	10.727 (10)
	비정규직	0.93	1.02	5.82	14.82	11.45	29.49	16.27	13.91	5.75	0.54	0.00	
이념적 성향	보수적	1.12	2.77	7.69	15.11	12.88	23.80	18.98	11.57	5.40	0.52	0.15	73.103 (20)***
	중도적	0.38	1.72	5.28	12.47	12.67	33.67	14.99	12.36	5.52	0.91	0.02	
	진보적	1.32	1.29	5.92	10.19	10.05	27.26	15.37	19.12	7.20	1.64	0.64	

주: “귀하는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 믿을 수 있는 사회라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부표 3-73〉 기관에 대한 신뢰도: (1) 대기업

(단위 : %)

구분		①매우 신뢰한다	②다소 신뢰한다	③거의 신뢰하지 않는다	④모르겠다	χ² (df)
전체		4.22	51.07	41.34	3.36	
성별	남성	4.54	50.64	41.79	3.03	20.261(3)***
	여성	3.90	51.51	40.88	3.71	
연령	20대 이하	5.70	51.31	39.82	3.18	38.297(12)** *
	30대	2.46	54.01	41.11	2.43	
	40대	3.14	54.34	38.61	3.91	
	50대	4.85	44.78	47.47	2.91	
	60대 이상	4.88	51.48	39.35	4.29	
지역1	수도권	5.86	51.50	39.78	2.86	33.943(3)***
	비수도권	2.54	50.63	42.95	3.88	
지역2	대도시	4.48	51.74	39.88	3.89	33.676(6)***
	중소도시	4.37	51.99	41.15	2.48	
	농어촌	1.87	41.63	50.58	5.93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2.41	41.79	52.47	3.33	24.082(9)**
	중하층	3.28	51.24	41.84	3.64	
	중간층	4.69	53.66	38.41	3.25	
	중상층(상층)	10.75	49.38	37.28	2.58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4.10	47.01	43.62	5.27	36.285(12)** *
	200만 원대	4.65	45.02	46.00	4.33	
	300만 원대	3.00	53.74	40.80	2.46	
	400만 원대	3.13	51.93	39.67	5.28	
	500만 원 이상	5.04	53.37	39.62	1.97	
학력	중졸 이하	4.16	46.18	44.37	5.30	32.959(6)***
	고졸	4.71	50.42	42.00	2.87	
	대졸 이상	3.79	53.28	39.73	3.20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3.97	50.84	41.74	3.46	28.813(15)*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4.48	47.53	44.58	3.41	
	고용주, 자영자	4.01	49.67	42.87	3.45	
	무급가족종사자	2.63	52.61	38.75	6.01	
	실업자	6.50	51.46	40.69	1.35	
	비경제활동인구	4.48	53.59	38.73	3.20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3.52	51.01	41.79	3.67	5.562(3)
	비정규직	5.47	47.84	43.79	2.89	
이념적 성향	보수적	5.83	53.44	38.13	2.60	27.316(6)***
	중도적	3.59	49.97	42.51	3.93	
	진보적	3.96	51.01	42.07	2.96	

주: “귀하는 다음의 기관들을 어느 정도 신뢰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부표 3-74〉 기관에 대한 신뢰도: (2) 종교계

(단위 : %)

구분		①매우 신뢰한다	②다소 신뢰한다	③거의 신뢰하지 않는다	④모르겠다	X ² (df)
전체		5.42	36.36	53.78	4.43	
성별	남성	4.99	34.04	55.92	5.06	23.866(3)***
	여성	5.86	38.77	51.58	3.79	
연령	20대 이하	4.00	30.55	59.24	6.20	54.614(12)** *
	30대	5.26	35.95	55.27	3.53	
	40대	4.27	35.03	56.08	4.61	
	50대	5.82	37.01	53.90	3.27	
	60대 이상	7.59	42.76	45.01	4.64	
지역1	수도권	7.47	34.55	54.17	3.80	48.520(3)***
	비수도권	3.30	38.23	53.38	5.09	
지역2	대도시	7.53	38.41	49.22	4.85	27.653(6)***
	중소도시	3.64	35.22	57.41	3.73	
	농어촌	4.82	32.21	56.43	6.54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3.13	34.05	59.06	3.76	7.803(9)
	중하층	4.74	38.29	52.42	4.55	
	중간층	5.65	35.48	54.07	4.81	
	중상층(상층)	13.12	36.11	48.68	2.10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7.71	35.63	51.17	5.49	15.826(12)
	200만 원대	5.41	37.37	52.03	5.19	
	300만 원대	5.17	37.74	53.63	3.46	
	400만 원대	4.97	36.97	53.38	4.68	
	500만 원 이상	4.92	35.40	55.59	4.09	
학력	중졸 이하	7.59	39.44	48.44	4.53	25.539(6)***
	고졸	4.52	34.83	55.00	5.64	
	대졸 이상	5.55	36.81	54.38	3.26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5.17	35.61	55.59	3.62	14.805(15)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6.09	34.75	56.16	3.00	
	고용주, 자영자	5.21	38.69	52.02	4.09	
	무급가족종사자	5.18	40.80	50.26	3.76	
	실업자	6.55	27.88	52.67	12.90	
	비경제활동인구	5.54	36.54	52.72	5.20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5.22	34.81	56.36	3.60	1.510(3)
	비정규직	5.75	36.96	54.09	3.20	
이념적 성향	보수적	6.58	35.29	54.05	4.08	12.215(6)
	중도적	4.98	35.46	54.56	5.01	
	진보적	5.18	39.23	51.98	3.62	

주: “귀하는 다음의 기관들을 어느 정도 신뢰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부표 3-75〉 기관에 대한 신뢰도: (3) 교육계

(단위 : %)

구분		①매우 신뢰한다	②다소 신뢰한다	③거의 신뢰하지 않는다	④모르겠다	χ² (df)
전체		7.32	50.08	38.82	3.78	
성별	남성	7.14	48.60	40.57	3.69	10.689(3)*
	여성	7.50	51.61	37.02	3.87	
연령	20대 이하	8.27	47.74	38.60	5.40	20.927(12)
	30대	9.05	51.18	37.39	2.39	
	40대	6.66	52.37	37.25	3.72	
	50대	6.71	47.10	42.98	3.21	
	60대 이상	6.19	52.05	37.56	4.19	
지역1	수도권	9.77	43.14	43.55	3.54	38.811(3)***
	비수도권	4.79	57.23	33.95	4.03	
지역2	대도시	8.52	50.74	36.73	4.01	18.065(6)**
	중소도시	6.69	48.61	41.54	3.16	
	농어촌	4.56	55.62	33.41	6.41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4.51	50.64	40.03	4.83	32.040(9)***
	중하층	7.01	47.40	41.52	4.07	
	중간층	7.44	51.81	37.30	3.46	
	중상층(상층)	14.66	52.41	30.72	2.21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6.47	47.52	39.87	6.14	25.402(12)*
	200만 원대	5.99	51.78	37.77	4.46	
	300만 원대	7.56	50.28	38.94	3.21	
	400만 원대	5.19	49.01	41.59	4.21	
	500만 원 이상	8.85	50.61	37.75	2.79	
학력	중졸 이하	6.00	49.52	40.16	4.32	18.486(6)**
	고졸	6.01	51.43	38.20	4.36	
	대졸 이상	8.99	48.98	38.97	3.05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7.66	50.38	38.90	3.06	27.570(15)*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9.06	53.56	35.02	2.35	
	고용주, 자영자	8.44	49.33	38.58	3.65	
	무급가족종사자	4.21	62.36	26.76	6.67	
	실업자	7.63	44.18	37.83	10.35	
	비경제활동인구	5.55	48.96	41.28	4.21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7.98	50.13	38.64	3.24	1.520(3)
	비정규직	7.91	53.45	36.57	2.06	
이념적 성향	보수적	6.60	49.45	40.67	3.28	26.629(6)***
	중도적	6.03	49.37	40.85	3.75	
	진보적	10.60	52.12	32.96	4.32	

주: “귀하는 다음의 기관들을 어느 정도 신뢰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334 사회통합 실태 진단 및 대응 방안 연구(VI): 사회통합 상태 진단

〈부표 3-76〉 기관에 대한 신뢰도: (4) 노동조합

(단위: %)

구분		①매우 신뢰한다	②다소 신뢰한다	③거의 신뢰하지 않는다	④모르겠다	X ² (df)
전체		2.11	32.03	58.45	7.40	
성별	남성	2.25	31.81	59.95	5.99	32.524(3)***
	여성	1.98	32.26	56.90	8.86	
연령	20대 이하	2.17	35.32	50.82	11.69	34.354(12)** *
	30대	2.85	30.12	61.94	5.09	
	40대	2.16	30.26	61.86	5.73	
	50대	2.21	30.91	60.37	6.51	
	60대 이상	1.26	33.67	56.95	8.12	
지역1	수도권	1.60	27.11	63.89	7.39	21.836(3)***
	비수도권	2.65	37.10	52.84	7.41	
지역2	대도시	2.27	30.75	58.68	8.31	10.531(6)
	중소도시	1.94	33.34	58.60	6.12	
	농어촌	2.36	30.98	56.26	10.40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2.16	27.80	63.01	7.03	8.531(9)
	중하층	2.16	32.40	57.76	7.68	
	중간층	2.01	32.26	58.48	7.24	
	중상층(상층)	2.56	37.18	52.53	7.73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1.48	33.16	54.89	10.48	13.997(12)
	200만 원대	2.79	32.69	56.20	8.31	
	300만 원대	2.31	32.63	58.72	6.35	
	400만 원대	1.33	27.25	64.06	7.35	
	500만 원 이상	2.29	33.00	58.25	6.46	
학력	중졸 이하	2.01	39.90	48.98	9.11	21.700(6)**
	고졸	2.14	29.71	60.50	7.65	
	대졸 이상	2.12	31.67	59.60	6.61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2.44	33.92	57.92	5.72	57.671(15)** *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3.84	31.85	58.64	5.67	
	고용주, 자영자	1.88	30.71	62.18	5.23	
	무급가족종사자	0.67	39.32	49.06	10.95	
	실업자	1.35	35.57	48.23	14.84	
	비경제활동인구	1.55	29.93	57.84	10.69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2.56	33.36	58.13	5.95	0.708(3)
	비정규직	3.20	33.74	57.96	5.10	
이념적 성향	보수적	1.58	28.73	62.39	7.30	33.288(6)***
	중도적	1.75	30.38	60.56	7.32	
	진보적	3.38	38.54	50.43	7.66	

주: “귀하는 다음의 기관들을 어느 정도 신뢰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부표 3-77〉 기관에 대한 신뢰도: (5) 언론계(신문사, TV방송국 등)

(단위 : %)

구분		①매우 신뢰한다	②다소 신뢰한다	③거의 신뢰하지 않는다	④모르겠다	X ² (df)
전체		2.35	31.85	60.50	5.29	
성별	남성	1.88	30.90	62.19	5.03	12.362(3)**
	여성	2.83	32.84	58.76	5.57	
연령	20대 이하	2.07	31.24	60.45	6.24	15.345(12)
	30대	1.33	32.52	61.00	5.15	
	40대	2.16	28.41	64.60	4.84	
	50대	3.40	33.39	57.74	5.47	
	60대 이상	2.61	33.71	58.85	4.83	
지역1	수도권	3.08	32.13	60.17	4.62	7.540(3)
	비수도권	1.59	31.57	60.85	5.98	
지역2	대도시	2.35	35.14	57.06	5.45	12.028(6)
	중소도시	2.23	29.09	63.61	5.06	
	농어촌	3.07	30.94	60.12	5.87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1.55	33.40	60.78	4.27	15.838(9)
	중하층	2.11	29.10	63.17	5.63	
	중간층	1.99	33.90	58.51	5.60	
	중상층(상층)	8.68	29.79	58.69	2.84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3.44	36.85	54.11	5.59	24.886(12)*
	200만 원대	1.64	30.70	62.32	5.34	
	300만 원대	2.68	33.46	58.30	5.56	
	400만 원대	0.99	29.18	64.44	5.40	
	500만 원 이상	2.64	30.98	61.35	5.02	
학력	중졸 이하	3.18	38.36	53.24	5.22	15.906(6)*
	고졸	2.43	30.63	60.99	5.94	
	대졸 이상	1.99	30.89	62.41	4.70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2.27	30.73	62.16	4.83	33.791(15)**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1.69	34.23	59.89	4.20	
	고용주, 자영자	2.95	29.48	63.76	3.80	
	무급가족종사자	0.67	39.63	49.78	9.92	
	실업자	3.06	38.02	55.75	3.18	
	비경제활동인구	2.19	33.07	57.33	7.41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2.28	30.79	62.11	4.82	3.188(3)
	비정규직	1.79	33.27	60.56	4.38	
이념적 성향	보수적	2.00	29.34	64.28	4.37	10.538(6)
	중도적	2.34	33.67	58.15	5.84	
	진보적	2.69	30.61	61.63	5.07	

주: “귀하는 다음의 기관들을 어느 정도 신뢰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부표 3-78〉 기관에 대한 신뢰도: (6) 의료계

(단위: %)

구분		①매우 신뢰한다	②다소 신뢰한다	③거의 신뢰하지 않는다	④모르겠다	X ² (df)
전체		10.73	57.78	29.06	2.43	
성별	남성	10.70	57.57	29.72	2.01	7.759(3)
	여성	10.77	58.00	28.38	2.85	
연령	20대 이하	14.61	56.49	26.08	2.82	50.073(12)** *
	30대	8.12	59.97	29.70	2.21	
	40대	8.58	60.47	28.08	2.87	
	50대	9.48	54.70	33.65	2.16	
	60대 이상	12.95	57.52	27.43	2.09	
지역1	수도권	11.58	57.55	29.13	1.74	11.915(3)**
	비수도권	9.85	58.03	28.98	3.14	
지역2	대도시	11.36	57.85	28.70	2.09	14.754(6)*
	중소도시	10.23	58.79	28.52	2.46	
	농어촌	10.41	51.15	34.39	4.05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8.66	56.20	33.02	2.12	24.578(9)**
	중하층	7.65	61.00	28.97	2.39	
	중간층	12.27	56.67	28.50	2.56	
	중상층(상층)	23.13	49.23	25.34	2.30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12.82	56.66	27.29	3.22	17.665(12)
	200만 원대	8.88	57.46	31.11	2.55	
	300만 원대	9.61	61.37	26.32	2.70	
	400만 원대	8.94	56.43	31.33	3.30	
	500만 원 이상	11.92	57.31	29.11	1.65	
학력	중졸 이하	11.78	59.11	26.99	2.12	6.324(6)
	고졸	11.75	57.74	27.74	2.78	
	대졸 이상	9.42	57.40	30.99	2.19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8.65	58.34	31.20	1.81	25.255(15)*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12.59	57.41	26.58	3.42	
	고용주, 자영자	9.99	59.23	28.52	2.26	
	무급가족종사자	11.02	63.19	23.13	2.66	
	실업자	17.39	52.92	25.00	4.68	
	비경제활동인구	12.41	56.17	28.73	2.69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8.91	58.90	30.27	1.92	4.885(3)
	비정규직	11.02	56.23	29.99	2.77	
이념적 성향	보수적	11.94	58.47	27.21	2.37	0.410(6)
	중도적	10.17	57.93	29.64	2.26	
	진보적	10.71	56.83	29.65	2.81	

주: “귀하는 다음의 기관들을 어느 정도 신뢰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부표 3-79〉 기관에 대한 신뢰도: (7) 행정부(청와대, 중앙정부, 지방자치정부 등)

(단위 : %)

구분		①매우 신뢰한다	②다소 신뢰한다	③거의 신뢰하지 않는다	④모르겠다	X ² (df)
전체		4.17	36.56	53.46	5.81	
성별	남성	2.59	37.53	53.82	6.06	1.567(3)
	여성	5.80	35.56	53.10	5.54	
연령	20대 이하	7.14	31.08	54.11	7.67	39.968(12)** *
	30대	2.48	39.29	52.93	5.30	
	40대	6.10	43.21	45.34	5.36	
	50대	3.14	35.75	56.74	4.37	
	60대 이상	2.05	33.32	58.14	6.50	
지역1	수도권	5.21	35.30	53.89	5.61	9.251(3)*
	비수도권	3.09	37.86	53.03	6.02	
지역2	대도시	3.23	35.56	53.91	7.30	11.901(6)
	중소도시	5.31	37.57	52.63	4.49	
	농어촌	2.20	35.82	56.21	5.76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1.69	39.35	52.44	6.52	15.539(9)
	중하층	3.93	36.12	54.96	4.99	
	중간층	5.13	35.52	53.29	6.06	
	중상층(상층)	3.25	41.89	47.26	7.60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2.01	36.35	53.64	8.00	26.701(12)**
	200만 원대	2.98	34.57	56.47	5.98	
	300만 원대	3.38	39.98	52.16	4.48	
	400만 원대	2.45	35.60	56.20	5.75	
	500만 원 이상	6.36	36.35	51.71	5.58	
학력	중졸 이하	1.48	36.58	55.81	6.13	19.587(6)**
	고졸	3.94	35.16	55.00	5.90	
	대졸 이상	5.26	37.89	51.24	5.61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4.84	39.52	51.10	4.54	37.483(15)**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2.36	38.11	52.79	6.74	
	고용주, 자영자	5.32	34.55	55.81	4.32	
	무급가족종사자	1.64	40.72	54.64	3.00	
	실업자	4.07	33.55	52.17	10.21	
	비경제활동인구	3.18	34.22	54.62	7.97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4.44	40.63	50.10	4.83	6.383(3)
	비정규직	3.94	35.64	54.92	5.50	
이념적 성향	보수적	3.18	30.61	61.32	4.89	53.040(6)***
	중도적	2.66	37.52	53.69	6.13	
	진보적	8.15	40.33	45.48	6.04	

주: “귀하는 다음의 기관들을 어느 정도 신뢰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부표 3-80> 기관에 대한 신뢰도: (8) 입법부(국회)

(단위 : %)

구분		①매우 신뢰한다	②다소 신뢰한다	③거의 신뢰하지 않는다	④모르겠다	X ² (df)
전체		1.28	14.63	76.34	7.75	
성별	남성	1.46	14.03	76.74	7.77	3.529(3)
	여성	1.11	15.24	75.92	7.73	
연령	20대 이하	2.44	15.85	71.74	9.98	35.365(12)** *
	30대	1.09	17.06	73.89	7.95	
	40대	0.93	12.75	79.05	7.27	
	50대	1.69	14.12	77.33	6.86	
	60대 이상	0.33	13.77	78.97	6.93	
지역1	수도권	1.19	11.50	78.72	8.59	18.229(3)***
	비수도권	1.38	17.86	73.88	6.89	
지역2	대도시	1.53	16.46	71.28	10.74	22.114(6)**
	중소도시	1.16	13.02	80.44	5.38	
	농어촌	0.69	14.58	78.68	6.05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0.55	15.40	76.78	7.27	19.828(9)*
	중하층	0.88	13.93	78.26	6.93	
	중간층	1.17	14.66	75.66	8.51	
	중상층(상층)	6.54	17.30	68.13	8.03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0.85	16.32	73.68	9.15	8.730(12)
	200만 원대	0.98	15.08	76.48	7.47	
	300만 원대	1.22	13.78	78.38	6.62	
	400만 원대	0.61	15.77	75.92	7.70	
	500만 원 이상	1.84	13.79	76.48	7.88	
학력	중졸 이하	0.16	12.49	81.80	5.56	16.404(6)*
	고졸	1.37	15.80	74.26	8.56	
	대졸 이상	1.57	14.22	76.52	7.69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1.22	14.77	78.09	5.93	27.461(15)*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0.30	18.13	71.31	10.25	
	고용주, 자영자	1.81	12.15	77.99	8.06	
	무급가족종사자	0.00	18.59	71.23	10.18	
	실업자	4.51	20.18	65.11	10.20	
	비경제활동인구	0.94	14.40	76.30	8.36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1.20	15.17	78.03	5.60	10.601(3)*
	비정규직	0.56	16.35	73.02	10.08	
이념적 성향	보수적	0.97	12.63	79.34	7.06	33.478(6)***
	중도적	0.93	13.62	76.50	8.95	
	진보적	2.29	18.57	73.13	6.00	

주: “귀하는 다음의 기관들을 어느 정도 신뢰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부표 3-81〉 기관에 대한 신뢰도: (9) 사법부(법원)

(단위 : %)

구분		①매우 신뢰한다	②다소 신뢰한다	③거의 신뢰하지 않는다	④모르겠다	X ² (df)
전체		2.21	28.97	62.38	6.44	
성별	남성	2.41	27.15	64.46	5.99	5.068(3)
	여성	2.01	30.85	60.24	6.91	
연령	20대 이하	3.37	29.85	59.56	7.22	23.775(12)*
	30대	2.03	31.10	61.45	5.42	
	40대	1.30	30.55	59.80	8.35	
	50대	2.67	24.40	67.50	5.43	
	60대 이상	1.75	29.40	63.10	5.75	
지역1	수도권	1.92	25.31	65.53	7.25	19.640(3)***
	비수도권	2.52	32.74	59.14	5.60	
지역2	대도시	2.77	29.48	60.51	7.25	15.183(6)*
	중소도시	1.97	27.82	64.17	6.05	
	농어촌	0.69	33.34	61.57	4.40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2.05	24.15	67.65	6.15	25.514(9)**
	중하층	1.23	30.10	62.72	5.94	
	중간층	2.04	29.43	61.66	6.87	
	중상층(상층)	10.52	28.43	54.26	6.79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1.87	28.97	61.13	8.02	12.829(12)
	200만 원대	2.66	25.53	66.01	5.80	
	300만 원대	1.78	29.84	63.02	5.36	
	400만 원대	1.35	26.19	64.04	8.41	
	500만 원 이상	2.67	31.03	60.46	5.84	
학력	중졸 이하	1.06	28.66	64.88	5.40	17.571(6)**
	고졸	2.64	28.94	61.53	6.88	
	대졸 이상	2.18	29.09	62.37	6.36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1.98	26.50	66.28	5.24	22.522(15)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1.63	30.64	59.74	7.99	
	고용주, 자영자	2.92	30.00	62.62	4.46	
	무급가족종사자	0.10	37.68	58.28	3.94	
	실업자	6.11	32.85	51.29	9.75	
	비경제활동인구	1.76	29.34	60.05	8.85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1.75	26.04	66.85	5.36	3.687(3)
	비정규직	2.29	30.85	59.82	7.05	
이념적 성향	보수적	2.91	29.32	62.19	5.59	14.632(6)*
	중도적	1.34	27.29	64.89	6.48	
	진보적	3.30	32.02	57.51	7.17	

주: “귀하는 다음의 기관들을 어느 정도 신뢰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부표 3-82〉 기관에 대한 신뢰도: (10) 군대

(단위 : %)

구분		①매우 신뢰한다	②다소 신뢰한다	③거의 신뢰하지 않는다	④모르겠다	X ² (df)
전체		4.29	51.62	38.69	5.41	
성별	남성	4.67	52.25	39.46	3.63	33.088(3)***
	여성	3.89	50.96	37.89	7.25	
연령	20대 이하	5.70	44.00	44.93	5.37	29.361(12)**
	30대	2.43	56.68	36.31	4.58	
	40대	2.98	55.15	35.39	6.48	
	50대	5.15	49.68	40.75	4.42	
	60대 이상	5.05	52.57	36.24	6.14	
지역1	수도권	4.92	52.13	37.15	5.80	24.634(3)***
	비수도권	3.63	51.08	40.28	5.01	
지역2	대도시	5.20	47.93	41.52	5.34	31.343(6)***
	중소도시	3.72	56.43	34.57	5.28	
	농어촌	2.76	41.97	48.66	6.61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2.88	50.38	41.44	5.30	15.388(9)
	중하층	3.68	49.39	41.33	5.60	
	중간층	4.47	54.37	35.77	5.39	
	중상층(상층)	9.96	46.39	39.11	4.54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4.95	49.90	38.45	6.70	34.740(12)** *
	200만 원대	3.29	48.10	43.17	5.44	
	300만 원대	3.45	55.34	33.99	7.22	
	400만 원대	4.20	47.33	40.80	7.68	
	500만 원 이상	4.84	53.68	38.16	3.32	
학력	중졸 이하	4.69	51.99	36.52	6.80	19.193(6)**
	고졸	4.49	51.32	37.90	6.28	
	대졸 이상	3.95	51.77	40.14	4.13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3.26	53.36	39.22	4.16	37.698(15)** *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6.31	47.16	38.94	7.60	
	고용주, 자영자	4.76	51.98	39.53	3.73	
	무급가족종사자	1.58	56.90	32.62	8.91	
	실업자	9.06	42.43	43.32	5.18	
	비경제활동인구	4.05	51.44	37.13	7.38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3.17	53.43	39.42	3.98	8.095(3)*
	비정규직	5.83	48.41	38.51	7.26	
이념적 성향	보수적	4.65	53.75	35.69	5.91	3.394(6)
	중도적	3.67	51.20	40.17	4.96	
	진보적	5.18	50.40	38.58	5.84	

주: “귀하는 다음의 기관들을 어느 정도 신뢰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부표 3-83〉 기관에 대한 신뢰도: (11) 금융기관

(단위 : %)

구분		①매우 신뢰한다	②다소 신뢰한다	③거의 신뢰하지 않는다	④모르겠다	X ² (df)
전체		8.36	60.09	28.96	2.58	
성별	남성	8.48	58.51	31.19	1.82	11.522(3)**
	여성	8.24	61.73	26.66	3.37	
연령	20대 이하	9.08	58.45	29.32	3.15	19.325(12)
	30대	7.47	60.77	28.82	2.93	
	40대	8.27	59.30	29.71	2.72	
	50대	9.16	59.46	29.47	1.91	
	60대 이상	7.77	62.45	27.47	2.31	
지역1	수도권	9.32	55.29	32.76	2.63	23.805(3)***
	비수도권	7.38	65.03	25.05	2.54	
지역2	대도시	10.30	59.74	27.54	2.42	19.808(6)**
	중소도시	6.83	60.49	29.90	2.78	
	농어촌	7.27	59.50	30.97	2.27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5.32	53.90	37.80	2.98	38.392(9)***
	중하층	5.77	63.29	28.77	2.17	
	중간층	9.83	60.08	27.28	2.81	
	중상층(상층)	20.32	52.81	24.27	2.59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9.28	58.57	29.63	2.51	14.967(12)
	200만 원대	6.51	63.42	26.90	3.17	
	300만 원대	8.29	58.13	30.34	3.24	
	400만 원대	6.95	59.41	30.45	3.19	
	500만 원 이상	9.37	60.38	28.39	1.87	
학력	중졸 이하	9.49	57.89	29.24	3.38	12.292(6)
	고졸	9.13	61.65	26.70	2.51	
	대졸 이상	7.27	59.33	31.02	2.39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8.45	58.93	30.75	1.86	38.253(15)** *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10.83	52.13	33.07	3.97	
	고용주, 자영자	9.02	62.92	26.64	1.43	
	무급가족종사자	4.69	67.49	23.81	4.02	
	실업자	9.44	59.93	26.30	4.32	
	비경제활동인구	7.01	61.21	28.13	3.65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8.58	58.42	31.13	1.87	6.966(3)
	비정규직	9.96	55.00	31.59	3.46	
이념적 성향	보수적	9.83	63.63	24.58	1.96	19.456(6)**
	중도적	8.38	56.79	32.00	2.83	
	진보적	6.93	63.35	27.04	2.68	

주: “귀하는 다음의 기관들을 어느 정도 신뢰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부표 3-84〉 기관에 대한 신뢰도: (12) 시민운동단체

(단위 : %)

구분		①매우 신뢰한다	②다소 신뢰한다	③거의 신뢰하지 않는다	④모르겠다	X ² (df)
전체		3.03	39.80	50.88	6.29	
성별	남성	3.50	38.36	53.24	4.90	16.255(3)**
	여성	2.54	41.29	48.43	7.73	
연령	20대 이하	4.30	45.02	42.06	8.62	42.287(12)** *
	30대	3.91	37.17	54.90	4.03	
	40대	2.42	40.78	48.74	8.06	
	50대	3.50	39.87	52.65	3.97	
	60대 이상	1.21	36.27	55.72	6.80	
지역1	수도권	2.85	34.51	56.06	6.57	28.734(3)***
	비수도권	3.21	45.25	45.53	6.01	
지역2	대도시	2.60	40.67	49.50	7.23	15.358(6)*
	중소도시	3.63	39.19	51.96	5.22	
	농어촌	1.74	38.75	51.76	7.76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1.43	34.89	57.75	5.93	13.731(9)
	중하층	2.37	40.90	50.48	6.25	
	중간층	3.13	40.65	49.50	6.72	
	중상층(상층)	10.21	36.41	49.51	3.87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2.10	39.76	49.04	9.10	39.943(12)** *
	200만 원대	1.93	36.52	54.15	7.40	
	300만 원대	4.03	35.91	54.61	5.46	
	400만 원대	2.10	39.50	51.06	7.34	
	500만 원 이상	3.73	42.86	48.57	4.85	
학력	중졸 이하	1.08	39.63	52.16	7.12	43.630(6)***
	고졸	3.12	36.66	53.51	6.71	
	대졸 이상	3.59	42.84	47.96	5.62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3.34	40.15	51.61	4.90	40.234(15)** *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3.29	39.37	53.43	3.91	
	고용주, 자영자	3.75	38.71	52.45	5.10	
	무급가족종사자	0.45	44.29	48.19	7.06	
	실업자	0.58	44.16	41.35	13.91	
	비경제활동인구	2.46	39.56	49.17	8.81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3.32	39.61	52.42	4.65	4.334(3)
	비정규직	3.35	40.93	50.95	4.77	
이념적 성향	보수적	1.79	35.52	57.71	4.98	72.057(6)***
	중도적	2.46	36.47	54.39	6.68	
	진보적	5.37	50.62	37.23	6.78	

주: “귀하는 다음의 기관들을 어느 정도 신뢰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부표 3-85〉 기관에 대한 신뢰도: (13) 검찰, 경찰

(단위 : %)

구분		①매우 신뢰한다	②다소 신뢰한다	③거의 신뢰하지 않는다	④모르겠다	X ² (df)
전체		3.17	36.80	55.99	4.04	
성별	남성	3.35	35.47	57.71	3.47	13.246(3)**
	여성	2.98	38.17	54.21	4.63	
연령	20대 이하	6.42	37.36	52.13	4.09	31.785(12)**
	30대	2.86	35.38	58.71	3.05	
	40대	2.33	32.15	58.96	6.55	
	50대	3.27	37.96	55.25	3.53	
	60대 이상	1.20	41.02	54.91	2.87	
지역1	수도권	3.02	33.44	59.50	4.03	10.105(3)*
	비수도권	3.32	40.25	52.37	4.05	
지역2	대도시	3.47	39.95	52.49	4.10	33.528(6)***
	중소도시	3.04	33.75	58.96	4.25	
	농어촌	2.33	38.40	56.86	2.42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2.09	29.38	64.42	4.11	26.611(9)**
	중하층	1.88	38.19	55.96	3.97	
	중간층	3.71	38.55	53.42	4.32	
	중상층(상층)	9.76	29.66	58.60	1.98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3.01	38.16	54.72	4.11	13.063(12)
	200만 원대	2.54	34.83	57.39	5.24	
	300만 원대	2.36	39.88	53.77	3.99	
	400만 원대	2.05	35.55	57.86	4.54	
	500만 원 이상	4.25	36.30	56.08	3.37	
학력	중졸 이하	1.18	44.90	50.91	3.01	21.968(6)**
	고졸	3.85	34.13	57.52	4.51	
	대졸 이상	3.18	36.69	56.20	3.93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2.93	36.77	56.64	3.67	39.516(15)** *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2.37	39.91	53.38	4.34	
	고용주, 자영자	3.12	36.36	57.97	2.55	
	무급가족종사자	0.00	48.71	47.99	3.30	
	실업자	5.31	36.07	54.89	3.74	
	비경제활동인구	3.76	35.31	55.16	5.76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2.97	37.18	56.22	3.63	2.811(3)
	비정규직	2.38	38.15	55.19	4.29	
이념적 성향	보수적	2.63	40.18	55.30	1.89	8.548(6)
	중도적	2.84	35.07	57.32	4.76	
	진보적	4.36	37.03	53.96	4.65	

주: “귀하는 다음의 기관들을 어느 정도 신뢰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부표 3-86〉 사회참여 활동: (1) 자원봉사 참여 정도

(단위 : %)

구분		⑥전혀 안 했다	④일 년에 한두 번	②한 달에 한두 번	①일주일에 한 번 이상	③일 년에 6-7번	X ² (df)
전체		80.53	11.15	3.87	2.24	2.22	
성별	남성	80.94	11.79	4.29	1.46	1.52	4.216(4)
	여성	80.10	10.49	3.43	3.04	2.94	
연령	20대 이하	80.07	14.68	2.22	0.63	2.39	83.337 (16)***
	30대	79.70	15.00	2.03	1.05	2.21	
	40대	79.13	11.52	3.96	3.71	1.67	
	50대	79.28	10.01	5.88	2.35	2.48	
	60대 이상	84.37	5.29	4.83	3.15	2.37	
지역1	수도권	82.98	9.51	3.47	2.05	1.99	21.312 (4)***
	비수도권	78.00	12.84	4.28	2.43	2.45	
지역2	대도시	82.85	10.30	3.51	1.17	2.16	55.383 (8)***
	중소도시	78.92	12.30	3.73	2.73	2.33	
	농어촌	77.68	8.70	6.68	5.04	1.90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90.34	3.40	2.73	2.36	1.18	120.492 (12)***
	중하층	84.75	9.01	2.89	1.78	1.57	
	중간층	76.94	13.75	3.86	2.65	2.80	
	중상층(상층)	60.03	21.28	12.97	1.62	4.11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87.22	5.28	3.22	2.71	1.57	87.256 (16)***
	200만 원대	83.28	7.99	4.71	1.80	2.22	
	300만 원대	83.40	8.67	3.31	1.99	2.61	
	400만 원대	73.95	16.94	2.81	3.35	2.95	
	500만 원 이상	78.52	13.18	4.40	1.91	1.99	
학력	중졸 이하	87.79	3.56	3.99	2.32	2.32	58.590 (8)***
	고졸	81.25	11.53	3.51	1.74	1.97	
	대졸 이상	77.46	13.27	4.16	2.68	2.43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81.09	13.06	2.28	1.77	1.80	41.351 (20)**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84.86	7.31	4.33	1.39	2.11	
	고용주, 자영자	79.91	10.77	5.35	2.09	1.88	
	무급가족종사자	74.10	7.11	14.01	3.08	1.70	
	실업자	93.21	4.58	1.05	0.00	1.17	
	비경제활동인구	77.83	11.60	3.92	3.43	3.23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81.28	13.47	2.33	1.14	1.77	16.483 (4)**
	비정규직	83.49	7.61	3.73	3.07	2.11	
이념적 성향	보수적	84.03	9.15	3.89	1.78	1.15	17.985 (8)*
	중도적	81.59	10.48	3.57	1.85	2.51	
	진보적	75.01	14.42	4.45	3.45	2.67	

주: “귀하는 지난 1년 동안 다음과 같은 활동을 얼마나 자주 하셨습니까?”에 대한 응답임.

〈부표 3-87〉 사회참여 활동: (2) 사회단체나 기관에 기부

(단위 : %)

구분		⑥전혀 안 했다	④일 년에 한두 번	②한 달에 한두 번	③일 년에 6-7번	①일 주일에 한 번 이상	X ² (df)
전체		74.92	14.14	8.41	1.70	0.83	
성별	남성	74.44	14.11	8.95	1.70	0.80	1.351(4)
	여성	75.41	14.18	7.85	1.69	0.87	
연령	20대 이하	83.01	11.78	3.47	1.34	0.39	137.815 (16)***
	30대	68.59	19.47	9.13	2.40	0.42	
	40대	69.94	15.08	11.56	2.00	1.41	
	50대	68.78	15.38	12.99	2.27	0.57	
	60대 이상	84.47	9.35	4.39	0.50	1.29	
지역1	수도권	75.40	13.42	9.59	1.27	0.32	14.334(4)* *
	비수도권	74.42	14.88	7.20	2.14	1.36	
지역2	대도시	76.57	12.51	8.81	1.64	0.47	29.849 (8)***
	중소도시	73.47	15.54	8.56	1.67	0.76	
	농어촌	74.83	14.43	5.31	2.18	3.25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88.88	5.48	3.70	0.82	1.12	137.715 (12)***
	중하층	76.89	12.44	8.54	1.42	0.70	
	중간층	71.59	16.73	8.85	2.04	0.79	
	중상층(상층)	57.97	23.49	14.48	2.70	1.36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88.17	6.38	3.38	0.88	1.19	167.128 (16)***
	200만 원대	79.25	13.02	5.17	1.69	0.88	
	300만 원대	75.75	9.66	11.06	2.30	1.22	
	400만 원대	70.71	17.93	8.36	2.05	0.96	
	500만 원 이상	70.00	17.63	10.30	1.59	0.48	
학력	중졸 이하	85.73	5.72	7.15	0.26	1.14	175.976 (8)***
	고졸	78.00	13.07	7.00	1.56	0.37	
	대졸 이상	68.47	17.90	10.17	2.30	1.16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68.32	17.97	11.16	1.73	0.81	89.714 (20)***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81.14	8.60	9.21	0.92	0.13	
	고용주, 자영자	72.61	15.34	8.56	2.38	1.12	
	무급가족종사자	78.34	17.37	2.67	0.42	1.20	
	실업자	88.61	6.34	4.13	0.87	0.06	
	비경제활동인구	80.81	11.07	5.67	1.53	0.91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68.01	18.32	11.08	1.82	0.77	28.464 (4)***
	비정규직	78.96	9.88	9.87	0.89	0.40	
이념적 성향	보수적	80.34	11.31	6.75	1.08	0.52	33.427 (8)***
	중도적	76.12	13.01	8.13	1.66	1.08	
	진보적	67.30	19.14	10.59	2.35	0.62	

주: “귀하는 지난 1년 동안 다음과 같은 활동을 얼마나 자주 하셨습니까?”에 대한 응답임.

〈부표 3-88〉 단체 소속 여부 및 활동 빈도: (1) 정당

(단위: %)

구분		①소속되어서 적극적으로 활동한다	②소속되어서 가끔 활동한다	③소속되어 있지만 활동은 하지 않는다	④소속된 적이 없다	X ² (df)
전체		0.87	1.31	4.00	93.82	
성별	남성	1.20	1.27	4.34	93.20	17.726(3)***
	여성	0.54	1.35	3.65	94.46	
연령	20대 이하	0.96	0.53	1.88	96.63	56.879(12)** *
	30대	0.56	0.11	1.97	97.37	
	40대	1.59	1.56	3.55	93.30	
	50대	0.64	3.62	9.04	86.70	
	60대 이상	0.60	0.43	2.98	95.99	
지역1	수도권	0.00	1.66	4.43	93.90	15.440(3)**
	비수도권	1.77	0.94	3.55	93.73	
지역2	대도시	1.29	0.16	2.68	95.87	35.289(6)***
	중소도시	0.45	2.24	5.14	92.17	
	농어촌	1.20	1.84	4.17	92.79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0.56	0.75	1.72	96.97	10.082(9)
	중하층	0.65	1.84	4.95	92.55	
	중간층	1.08	0.99	3.23	94.71	
	중상층(상층)	1.36	1.68	9.17	87.79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0.71	0.54	1.86	96.89	13.150(12)
	200만 원대	1.09	0.78	3.35	94.78	
	300만 원대	0.73	0.56	3.32	95.39	
	400만 원대	0.70	0.38	5.31	93.62	
	500만 원 이상	0.97	2.45	4.76	91.82	
학력	중졸 이하	0.54	0.47	1.50	97.49	9.179(6)
	고졸	0.96	0.88	4.39	93.77	
	대졸 이상	0.90	1.99	4.45	92.66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0.57	0.67	4.32	94.44	23.267(15)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1.16	0.82	3.15	94.87	
	고용주, 자영자	1.29	1.56	5.03	92.11	
	무급가족종사자	0.43	0.00	12.83	86.74	
	실업자	0.00	1.49	2.81	95.70	
	비경제활동인구	0.92	2.11	2.46	94.50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0.63	0.73	4.09	94.55	0.616(3)
	비정규직	0.89	0.63	4.00	94.48	
이념적 성향	보수적	0.20	0.78	4.62	94.40	27.675(6)***
	중도적	0.87	1.44	2.83	94.86	
	진보적	1.53	1.56	5.75	91.16	

주: “귀하는 다음과 같은 집단이나 모임 또는 단체에 소속되어 있으십니까? 소속되어 있으시다면 얼마나 적극적으로 활동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부표 3-89〉 단체 소속 여부 및 활동 빈도: (2) 시민운동단체

(단위 : %)

구분		①소속되어서 적극적으로 활동한다	②소속되어서 가끔 활동한다	③소속되어 있지만 활동은 하지 않는다	④소속된 적이 없다	X ² (df)
전체		0.75	1.07	1.56	96.62	
성별	남성	0.90	0.70	1.97	96.42	5.822(3)
	여성	0.60	1.44	1.13	96.83	
연령	20대 이하	0.96	0.34	0.71	97.99	27.206(12)**
	30대	0.29	0.00	1.90	97.80	
	40대	0.92	1.18	1.08	96.82	
	50대	0.69	3.45	3.13	92.72	
	60대 이상	0.87	0.10	0.86	98.16	
지역1	수도권	0.13	1.43	2.43	96.01	15.694(3)**
	비수도권	1.40	0.69	0.65	97.25	
지역2	대도시	1.25	0.48	1.11	97.16	23.641(6)***
	중소도시	0.37	1.58	2.12	95.93	
	농어촌	0.42	1.13	0.48	97.97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0.74	0.66	0.99	97.61	15.614(9)
	중하층	0.66	1.61	1.93	95.81	
	중간층	0.87	0.52	0.82	97.80	
	중상층(상층)	0.48	2.97	6.51	90.04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1.18	0.27	0.98	97.57	18.136(12)
	200만 원대	1.14	0.33	2.47	96.06	
	300만 원대	0.78	0.26	0.21	98.76	
	400만 원대	0.53	0.39	2.72	96.36	
	500만 원 이상	0.54	2.23	1.51	95.72	
학력	중졸 이하	0.99	0.14	0.70	98.17	12.207(6)
	고졸	1.00	0.62	1.63	96.75	
	대졸 이상	0.44	1.80	1.76	96.00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0.53	0.50	1.84	97.14	16.241(15)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1.13	0.22	1.66	96.99	
	고용주, 자영자	0.71	1.22	1.99	96.08	
	무급가족종사자	0.43	0.00	0.95	98.62	
	실업자	0.00	0.00	2.18	97.82	
	비경제활동인구	1.06	2.13	0.78	96.04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0.49	0.55	1.66	97.30	5.115(3)
	비정규직	1.07	0.17	2.16	96.60	
이념적 성향	보수적	0.27	0.49	0.45	98.79	27.420(6)***
	중도적	0.71	1.44	0.78	97.06	
	진보적	1.31	0.86	4.18	93.66	

주: “귀하는 다음과 같은 집단이나 모임 또는 단체에 소속되어 있으십니까? 소속되어 있으시다면 얼마나 적극적으로 활동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부표 3-90〉 단체 소속 여부 및 활동 빈도: (3) 노조, 사업자단체 또는 직업조합

(단위: %)

구분		①소속되어서 적극적으로 활동한다	②소속되어서 가끔 활동한다	③소속되어 있지만 활동은 하지 않는다	④소속된 적이 없다	χ² (df)
전체		1.30	0.87	2.71	95.12	
성별	남성	1.71	1.34	3.16	93.78	38.654(3)***
	여성	0.87	0.39	2.25	96.50	
연령	20대 이하	1.22	1.01	1.35	96.42	35.371(12)***
	30대	0.65	0.70	2.01	96.63	
	40대	2.78	1.08	1.87	94.26	
	50대	1.13	0.84	7.14	90.89	
	60대 이상	0.62	0.73	0.83	97.81	
지역1	수도권	0.42	0.24	3.46	95.87	19.083(3)***
	비수도권	2.20	1.52	1.94	94.34	
지역2	대도시	1.39	0.65	2.27	95.68	17.682(6)**
	중소도시	1.25	1.13	3.30	94.32	
	농어촌	1.08	0.46	1.50	96.96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0.57	0.67	1.40	97.36	16.218(9)
	중하층	1.29	0.54	2.84	95.34	
	중간층	1.41	1.29	2.17	95.14	
	중상층(상층)	2.08	0.09	9.35	88.47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0.56	0.10	0.61	98.72	22.517(12)*
	200만 원대	1.04	0.79	2.74	95.43	
	300만 원대	0.94	0.72	1.67	96.67	
	400만 원대	0.96	0.88	2.04	96.12	
	500만 원 이상	1.93	1.23	4.12	92.73	
학력	중졸 이하	0.68	0.33	0.67	98.33	21.304(6)**
	고졸	1.77	0.69	1.92	95.63	
	대졸 이상	1.06	1.23	4.13	93.59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1.61	1.90	3.26	93.24	82.032(15)***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1.17	0.45	1.20	97.17	
	고용주, 자영자	1.62	0.45	3.48	94.46	
	무급가족종사자	0.43	0.64	0.00	98.93	
	실업자	0.00	0.00	0.00	100.00	
	비경제활동인구	0.92	0.26	2.46	96.35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1.75	1.82	3.48	92.95	18.025(3)***
	비정규직	0.90	0.97	1.12	97.01	
이념적 성향	보수적	1.36	0.87	1.53	96.24	20.234(6)**
	중도적	0.84	0.69	2.87	95.61	
	진보적	2.16	1.26	3.54	93.04	

주: “귀하는 다음과 같은 집단이나 모임 또는 단체에 소속되어 있으십니까? 소속되어 있으시다면 얼마나 적극적으로 활동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부표 3-91〉 단체 소속 여부 및 활동 빈도: (4) 종교단체

(단위 : %)

구분		①소속되어서 적극적으로 활동한다	②소속되어서 가끔 활동한다	③소속되어 있지만 활동은 하지 않는다	④소속된 적이 없다	X ² (df)
전체		6.03	6.30	5.51	82.16	
성별	남성	4.74	5.16	3.73	86.38	35.101(3)***
	여성	7.37	7.47	7.36	77.80	
연령	20대 이하	3.69	4.54	5.61	86.16	27.566(12)**
	30대	3.65	5.59	4.22	86.54	
	40대	7.25	5.82	4.05	82.88	
	50대	7.71	8.50	8.56	75.23	
	60대 이상	7.32	6.74	4.90	81.04	
지역1	수도권	5.88	6.60	7.20	80.32	15.075(3)**
	비수도권	6.19	5.98	3.77	84.06	
지역2	대도시	6.34	6.66	5.32	81.68	1.892(6)
	중소도시	5.77	5.87	5.83	82.53	
	농어촌	5.97	6.97	4.57	82.48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3.54	4.30	2.54	89.62	16.107(9)
	중하층	6.26	6.69	6.38	80.67	
	중간층	5.81	6.31	5.46	82.42	
	중상층(상층)	11.95	8.03	6.81	73.21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5.90	6.25	5.02	82.84	14.200(12)
	200만 원대	6.90	5.60	4.20	83.29	
	300만 원대	5.98	8.02	3.89	82.11	
	400만 원대	4.65	6.50	6.19	82.66	
	500만 원 이상	6.29	5.78	6.62	81.31	
학력	중졸 이하	6.38	5.87	4.67	83.08	17.279(6)**
	고졸	5.47	6.29	4.75	83.49	
	대졸 이상	6.44	6.44	6.52	80.60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4.56	5.52	6.52	83.39	18.828(15)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8.81	7.24	3.74	80.21	
	고용주, 자영자	7.95	6.04	3.47	82.54	
	무급가족종사자	4.89	5.94	3.99	85.18	
	실업자	0.92	9.67	1.19	88.22	
	비경제활동인구	5.95	6.75	7.31	80.00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4.70	5.03	6.56	83.70	1.597(3)
	비정규직	7.48	8.07	4.28	80.17	
이념적 성향	보수적	7.64	6.92	3.57	81.86	7.244(6)
	중도적	5.08	6.15	5.45	83.32	
	진보적	6.39	6.00	7.49	80.12	

주: “귀하는 다음과 같은 집단이나 모임 또는 단체에 소속되어 있으십니까? 소속되어 있으시다면 얼마나 적극적으로 활동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350 사회통합 실태 진단 및 대응 방안 연구(VI): 사회통합 상태 진단

〈부표 3-92〉 단체 소속 여부 및 활동 빈도: (5) 스포츠, 취미, 레저 모임 등 문화단체

(단위: %)

구분		①소속되어서 적극적으로 활동한다	②소속되어서 가끔 활동한다	③소속되어 있지만 활동은 하지 않는다	④소속된 적이 없다	χ² (df)
전체		6.04	11.92	5.07	76.97	
성별	남성	7.81	12.86	6.03	73.30	66.394(3)***
	여성	4.20	10.96	4.07	80.77	
연령	20대 이하	4.83	10.11	6.66	78.40	57.289(12)***
	30대	7.81	15.21	5.06	71.92	
	40대	7.42	12.21	3.96	76.40	
	50대	7.06	12.92	5.40	74.62	
	60대 이상	3.11	9.36	4.38	83.15	
지역1	수도권	5.04	13.36	6.11	75.49	11.345(3)**
	비수도권	7.06	10.44	4.00	78.50	
지역2	대도시	4.71	11.45	6.21	77.63	10.968(6)
	중소도시	7.24	12.70	4.50	75.56	
	농어촌	5.82	9.72	2.35	82.12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3.03	2.40	1.26	93.31	138.453(9)***
	중하층	4.47	8.66	4.23	82.64	
	중간층	7.08	15.67	6.04	71.20	
	중상층(상층)	14.56	24.00	11.10	50.34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2.02	4.50	3.08	90.40	114.069(12)***
	200만 원대	4.55	9.03	4.93	81.48	
	300만 원대	6.12	11.11	5.42	77.35	
	400만 원대	4.19	12.48	5.52	77.81	
	500만 원 이상	8.67	15.71	5.47	70.15	
학력	중졸 이하	2.81	4.71	1.72	90.76	114.594(6)***
	고졸	5.10	9.71	6.26	78.93	
	대졸 이상	7.98	16.38	5.03	70.61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6.68	15.06	5.01	73.25	66.587(15)***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3.24	5.20	4.42	87.15	
	고용주, 자영자	8.24	12.37	5.32	74.06	
	무급가족종사자	2.29	10.08	1.63	86.00	
	실업자	1.05	5.02	4.33	89.60	
	비경제활동인구	5.23	11.02	5.50	78.25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6.32	15.72	4.84	73.12	36.215(3)***
	비정규직	4.94	5.82	4.99	84.24	
이념적 성향	보수적	4.84	10.90	3.58	80.68	29.156(6)***
	중도적	4.35	12.27	5.71	77.68	
	진보적	10.59	12.22	5.21	71.98	

주: “귀하는 다음과 같은 집단이나 모임 또는 단체에 소속되어 있으십니까? 소속되어 있으시다면 얼마나 적극적으로 활동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부표 3-93〉 단체 소속 여부 및 활동 빈도: (6) 동창모임

(단위 : %)

구분		①소속되어서 적극적으로 활동한다	②소속되어서 가끔 활동한다	③소속되어 있지만 활동은 하지 않는다	④소속된 적이 없다	X ² (df)
전체		9.09	25.70	13.05	52.16	
성별	남성	13.43	26.95	12.10	47.51	112.444(3)***
	여성	4.60	24.40	14.04	56.96	
연령	20대 이하	5.54	17.35	11.79	65.32	166.006 (12)***
	30대	7.32	28.29	16.13	48.26	
	40대	9.59	26.12	15.16	49.13	
	50대	12.99	33.83	13.56	39.62	
	60대 이상	9.38	22.20	8.84	59.57	
지역1	수도권	8.85	25.87	17.53	47.75	29.741(3)***
	비수도권	9.34	25.51	8.44	56.70	
지역2	대도시	10.14	26.66	12.70	50.50	14.287(6)*
	중소도시	7.98	25.23	14.06	52.73	
	농어촌	10.24	23.27	8.77	57.72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7.69	10.53	8.42	73.36	153.972(9)***
	중하층	6.66	25.34	12.50	55.50	
	중간층	10.15	28.62	15.21	46.02	
	중상층(상층)	19.65	37.92	9.33	33.10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5.22	14.38	7.65	72.75	185.944 (12)***
	200만 원대	6.84	23.63	13.24	56.29	
	300만 원대	8.96	25.82	9.11	56.12	
	400만 원대	11.03	25.18	15.59	48.20	
	500만 원 이상	10.59	30.49	15.49	43.42	
학력	중졸 이하	5.10	17.58	6.82	70.49	109.539(6)***
	고졸	10.36	25.71	12.14	51.79	
	대졸 이상	9.19	28.33	15.95	46.52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9.95	27.08	16.33	46.65	133.757 (15)***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7.11	16.10	10.46	66.33	
	고용주, 자영자	14.00	30.31	10.21	45.48	
	무급가족종사자	4.56	28.35	14.37	52.72	
	실업자	11.85	17.60	12.16	58.39	
	비경제활동인구	4.52	24.11	12.41	58.95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10.06	27.49	15.70	46.75	31.136(3)***
	비정규직	7.49	17.58	13.41	61.52	
이념적 성향	보수적	10.51	24.83	10.52	54.14	3.989(6)
	중도적	9.47	26.05	12.86	51.62	
	진보적	6.96	25.82	15.88	51.34	

주: “귀하는 다음과 같은 집단이나 모임 또는 단체에 소속되어 있으십니까? 소속되어 있으시다면 얼마나 적극적으로 활동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부표 3-94〉 단체 소속 여부 및 활동 빈도: (7) 향우회

(단위 : %)

구분		①소속되어서 적극적으로 활동한다	②소속되어서 가끔 활동한다	③소속되어 있지만 활동은 하지 않는다	④소속된 적이 없다	X ² (df)
전체		3.56	7.53	4.18	84.73	
성별	남성	5.78	9.19	5.46	79.58	119.192(3)***
	여성	1.26	5.82	2.87	90.05	
연령	20대 이하	1.49	2.17	2.08	94.25	137.437(12)** *
	30대	0.64	4.85	3.76	90.75	
	40대	2.82	6.06	3.03	88.10	
	50대	6.70	12.46	5.49	75.35	
	60대 이상	5.54	11.22	6.31	76.94	
지역1	수도권	2.87	8.17	4.19	84.76	5.854(3)
	비수도권	4.27	6.87	4.17	84.69	
지역2	대도시	3.39	6.06	4.59	85.96	23.226(6)***
	중소도시	3.77	8.20	3.72	84.31	
	농어촌	3.17	11.54	4.82	80.47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1.74	6.15	2.54	89.57	30.034(9)***
	중하층	2.51	7.50	4.37	85.62	
	중간층	3.91	6.96	4.15	84.98	
	중상층(상층)	11.69	15.57	6.90	65.84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2.57	6.30	3.92	87.20	13.609(12)
	200만 원대	2.57	7.50	6.23	83.70	
	300만 원대	3.34	8.39	2.72	85.54	
	400만 원대	2.13	6.04	4.85	86.97	
	500만 원 이상	4.93	8.18	3.82	83.07	
학력	중졸 이하	3.34	8.14	4.37	84.16	9.453(6)
	고졸	4.07	7.91	4.32	83.70	
	대졸 이상	3.14	6.98	3.99	85.89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2.75	5.64	4.01	87.60	69.824(15)***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3.42	3.05	2.95	90.58	
	고용주, 자영자	6.74	11.36	5.64	76.25	
	무급가족종사자	3.64	14.21	2.03	80.12	
	실업자	3.02	7.29	6.83	82.86	
	비경제활동인구	1.91	7.56	3.39	87.13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2.98	5.61	3.74	87.68	3.696(3)
	비정규직	2.69	3.73	3.88	89.70	
이념적 성향	보수적	4.45	9.69	4.65	81.21	18.478(6)**
	중도적	2.99	7.38	4.58	85.04	
	진보적	3.84	5.77	2.92	87.46	

주: “귀하는 다음과 같은 집단이나 모임 또는 단체에 소속되어 있으십니까? 소속되어 있으시다면 얼마나 적극적으로 활동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부표 3-95〉 단체 소속 여부 및 활동 빈도: (8) 친목단체

(단위 : %)

구분		①소속되어서 적극적으로 활동한다	②소속되어서 가끔 활동한다	③소속되어 있지만 활동은 하지 않는다	④소속된 적이 없다	χ² (df)
전체		14.81	30.12	6.61	48.46	
성별	남성	17.31	27.93	6.88	47.88	21.894(3)***
	여성	12.22	32.39	6.33	49.06	
연령	20대 이하	11.19	21.25	4.26	63.30	134.862 (12)***
	30대	11.92	31.63	5.93	50.52	
	40대	14.14	27.60	6.85	51.40	
	50대	19.24	35.58	8.18	37.00	
	60대 이상	16.78	33.83	7.49	41.90	
지역1	수도권	10.33	30.23	7.10	52.33	56.246(3)***
	비수도권	19.42	30.02	6.10	44.46	
지역2	대도시	15.72	31.60	6.50	46.18	20.404(6)**
	중소도시	13.37	29.34	6.82	50.47	
	농어촌	18.77	26.84	5.88	48.51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9.26	23.96	7.64	59.14	82.719(9)***
	중하층	15.53	27.50	7.02	49.95	
	중간층	14.36	33.89	6.11	45.63	
	중상층(상층)	26.15	30.25	5.69	37.92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8.97	27.37	7.15	56.51	79.947 (12)***
	200만 원대	13.57	30.23	10.14	46.05	
	300만 원대	10.94	30.31	4.67	54.07	
	400만 원대	15.53	27.70	6.42	50.36	
	500만 원 이상	18.62	31.88	5.92	43.57	
학력	중졸 이하	13.14	29.58	7.84	49.44	3.024(6)
	고졸	14.68	31.40	5.95	47.97	
	대졸 이상	15.47	29.09	6.83	48.60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14.85	28.39	5.76	50.99	129.193 (15)***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11.60	26.22	9.40	52.78	
	고용주, 자영자	24.00	34.28	6.13	35.58	
	무급가족종사자	19.12	37.97	5.69	37.22	
	실업자	10.02	14.34	10.79	64.85	
	비경제활동인구	8.20	31.33	6.65	53.81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15.04	29.14	5.72	50.10	4.773(3)
	비정규직	11.88	24.84	8.67	54.61	
이념적 성향	보수적	16.65	35.16	6.74	41.45	23.328(6)***
	중도적	13.15	30.06	6.61	50.18	
	진보적	16.39	25.44	6.48	51.69	

주: “귀하는 다음과 같은 집단이나 모임 또는 단체에 소속되어 있으십니까? 소속되어 있으시다면 얼마나 적극적으로 활동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부표 3-96> 단체 소속 여부 및 활동 빈도: (9) 기타 오프라인 모임이나 단체

(단위: %)

구분		①소속되어서 적극적으로 활동한다	②소속되어서 가끔 활동한다	③소속되어 있지만 활동은 하지 않는다	④소속된 적이 없다	X² (df)
전체		4.71	11.63	4.44	79.22	
성별	남성	5.38	11.47	4.22	78.93	13.581(3)**
	여성	4.01	11.80	4.67	79.51	
연령	20대 이하	8.38	12.99	6.09	72.53	93.804(12)***
	30대	2.96	16.06	6.92	74.05	
	40대	6.35	8.70	4.48	80.47	
	50대	4.80	14.44	2.67	78.09	
	60대 이상	1.12	6.49	2.51	89.88	
지역1	수도권	4.11	14.13	5.77	75.98	25.046(3)***
	비수도권	5.32	9.06	3.07	82.55	
지역2	대도시	4.61	12.36	4.75	78.28	17.790(6)**
	중소도시	4.89	11.37	4.58	79.16	
	농어촌	4.06	9.23	1.90	84.81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1.71	7.10	3.21	87.98	58.442(9)***
	중하층	4.91	11.00	3.83	80.27	
	중간층	4.67	13.51	5.16	76.66	
	중상층(상층)	10.38	10.52	5.36	73.74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1.03	8.50	3.02	87.45	54.313(12)***
	200만 원대	3.97	10.32	4.27	81.44	
	300만 원대	3.57	10.91	4.57	80.96	
	400만 원대	3.14	12.03	5.08	79.75	
	500만 원 이상	7.33	13.37	4.69	74.61	
학력	중졸 이하	0.68	4.51	0.66	94.14	94.718(6)***
	고졸	4.47	10.73	4.54	80.26	
	대졸 이상	6.24	14.82	5.58	73.36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3.94	11.33	5.76	78.97	34.016(15)**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2.96	11.20	3.04	82.80	
	고용주, 자영자	8.89	11.91	3.06	76.14	
	무급가족종사자	2.30	11.71	2.01	83.98	
	실업자	2.71	5.98	4.08	87.22	
	비경제활동인구	3.08	12.61	4.74	79.57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3.92	11.87	6.06	78.16	16.804(3)***
	비정규직	3.24	9.87	2.91	83.98	
이념적 성향	보수적	3.11	8.75	3.99	84.15	42.266(6)***
	중도적	3.01	11.72	3.53	81.74	
	진보적	9.66	14.22	6.70	69.42	

주: “귀하는 다음과 같은 집단이나 모임 또는 단체에 소속되어 있으십니까? 소속되어 있으시다면 얼마나 적극적으로 활동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부표 3-97〉 단체 소속 여부 및 활동 빈도: (10) SNS 등 온라인 모임(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단위 : %)

구분		①소속되어서 적극적으로 활동한다	②소속되어서 가끔 활동한다	③소속되어 있지만 활동은 하지 않는다	④소속된 적이 없다	χ² (df)
전체		5.72	9.70	5.01	79.58	
성별	남성	5.48	10.24	4.76	79.52	0.906 (3)
	여성	5.97	9.13	5.26	79.63	
연령	20대 이하	13.76	17.29	7.12	61.82	293.130 (12)***
	30대	4.89	16.62	7.94	70.55	
	40대	5.79	8.36	6.77	79.08	
	50대	3.32	6.10	3.05	87.53	
	60대 이상	1.50	1.62	0.70	96.18	
지역1	수도권	5.25	11.33	4.99	78.43	13.200 (3)**
	비수도권	6.21	8.01	5.02	80.76	
지역2	대도시	5.27	10.39	5.58	78.76	14.684 (6)*
	중소도시	6.43	9.79	4.94	78.84	
	농어촌	3.83	5.28	2.24	88.64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2.71	4.05	4.40	88.84	48.517 (9)***
	중하층	6.45	9.77	4.93	78.85	
	중간층	5.82	10.84	5.04	78.30	
	중상층(상층)	6.85	12.42	6.57	74.16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1.76	4.67	3.14	90.43	64.737 (12)***
	200만 원대	5.39	10.09	5.20	79.32	
	300만 원대	5.51	9.03	4.04	81.41	
	400만 원대	4.67	10.28	5.26	79.78	
	500만 원 이상	7.70	11.30	5.86	75.14	
학력	중졸 이하	0.71	0.72	0.46	98.11	164.031 (6)***
	고졸	5.26	7.90	5.53	81.31	
	대졸 이상	7.80	14.33	5.99	71.88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5.04	11.66	6.63	76.67	41.597 (15)***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3.66	7.50	4.82	84.02	
	고용주, 자영자	7.86	6.57	3.41	82.15	
	무급가족종사자	1.02	5.38	4.39	89.21	
	실업자	2.30	10.66	10.69	76.35	
	비경제활동인구	6.21	10.95	3.80	79.04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5.50	11.97	6.07	76.46	17.431 (3)***
	비정규직	2.81	7.69	6.67	82.83	
이념적 성향	보수적	2.73	7.34	4.45	85.48	72.054 (6)***
	중도적	4.33	8.67	4.14	82.86	
	진보적	11.41	14.02	7.28	67.29	

주: “귀하는 다음과 같은 집단이나 모임 또는 단체에 소속되어 있으십니까? 소속되어 있으시다면 얼마나 적극적으로 활동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부표 3-98> 투표 여부: (1) 2016년 4월 13일 국회의원 선거

(단위 : %)

구분		투표했다	투표하지 않았다	모르겠다	투표권이 없었음	χ^2 (df)
전체		81.17	13.35	2.28	3.20	
성별	남성	81.12	12.94	2.37	3.57	0.188 (3)
	여성	81.22	13.78	2.19	2.81	
연령	20대 이하	49.12	26.14	7.87	16.87	1,037.149 (12)***
	30대	81.45	16.89	1.66	0.00	
	40대	87.66	10.69	1.66	0.00	
	50대	88.14	11.67	0.19	0.00	
	60대 이상	96.65	2.86	0.49	0.00	
지역1	수도권	79.77	15.43	2.15	2.65	5.438 (3)
	비수도권	82.62	11.20	2.41	3.76	
지역2	대도시	81.95	12.33	2.28	3.44	27.714 (6)***
	중소도시	79.16	15.03	2.57	3.23	
	농어촌	89.42	8.50	0.45	1.63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78.25	16.78	1.55	3.43	28.228 (9)***
	중하층	78.39	16.97	2.23	2.42	
	중간층	83.83	10.12	2.46	3.59	
	중상층(상층)	84.27	8.30	2.82	4.61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81.71	11.42	3.21	3.65	27.671 (12)**
	200만 원대	80.62	14.33	2.26	2.79	
	300만 원대	78.41	16.17	1.85	3.58	
	400만 원대	83.66	9.21	3.86	3.28	
	500만 원 이상	81.40	14.04	1.54	3.01	
학력	중졸 이하	90.51	8.27	0.90	0.32	184.557 (6)***
	고졸	75.09	14.89	3.08	6.94	
	대졸 이상	83.89	13.55	1.97	0.58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80.76	16.44	1.69	1.12	187.656 (15)***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77.94	12.22	3.16	6.69	
	고용주, 자영자	90.11	7.68	2.21	0.00	
	무급가족종사자	90.05	9.01	0.00	0.94	
	실업자	68.36	22.65	6.25	2.74	
	비경제활동인구	76.00	14.04	2.45	7.52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80.57	16.56	1.72	1.15	31.944 (3)***
	비정규직	79.09	12.87	2.74	5.30	
이념적 성향	보수적	86.99	10.81	1.41	0.78	49.557 (6)***
	중도적	78.27	15.71	2.57	3.45	
	진보적	81.44	11.03	2.53	5.00	

주: “귀하는 다음의 선거 때 투표하셨습니까?”에 대한 응답임.

〈부표 3-99〉 투표 여부: (2) 2017년 5월 9일 제19대 대통령선거

(단위 : %)

구분		투표했다	투표하지 않았다	모르겠다	투표권이 없었음	X ² (df)
전체		89.61	6.92	1.30	2.17	
성별	남성	89.47	6.40	1.35	2.78	2.205 (3)
	여성	89.75	7.46	1.26	1.53	
연령	20대 이하	70.95	12.67	4.94	11.44	661.102 (12)***
	30대	90.57	8.62	0.82	0.00	
	40대	94.47	4.71	0.81	0.00	
	50대	93.04	6.91	0.05	0.00	
	60대 이상	97.45	2.36	0.20	0.00	
지역1	수도권	89.53	7.40	1.33	1.74	3.057 (3)
	비수도권	89.68	6.42	1.28	2.61	
지역2	대도시	90.11	6.35	1.28	2.26	13.005 (6)*
	중소도시	89.05	7.24	1.46	2.26	
	농어촌	90.33	8.07	0.47	1.13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84.96	11.82	0.99	2.23	38.261 (9)***
	중하층	88.68	8.98	1.38	0.95	
	중간층	91.19	4.50	1.45	2.86	
	중상층(상층)	93.11	2.23	0.29	4.37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86.65	8.46	2.48	2.41	27.118 (12)**
	200만 원대	88.09	8.93	0.80	2.18	
	300만 원대	90.76	6.48	1.65	1.11	
	400만 원대	89.42	6.42	1.30	2.86	
	500만 원 이상	90.80	5.98	0.96	2.26	
학력	중졸 이하	95.37	3.92	0.38	0.32	132.670 (6)***
	고졸	85.45	7.70	1.79	5.06	
	대졸 이상	91.67	7.16	1.15	0.03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91.60	7.04	1.18	0.18	158.300 (15)***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86.83	6.94	1.99	4.24	
	고용주, 자영자	95.35	3.65	1.00	0.00	
	무급가족종사자	96.80	2.26	0.94	0.00	
	실업자	83.23	11.87	3.09	1.81	
	비경제활동인구	83.44	9.32	1.29	5.95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91.61	7.00	1.19	0.20	24.614 (3)***
	비정규직	87.91	7.05	1.78	3.26	
이념적 성향	보수적	94.12	4.82	0.59	0.47	42.394 (6)***
	중도적	87.44	8.67	1.35	2.53	
	진보적	89.65	5.40	1.90	3.06	

주: “귀하는 다음의 선거 때 투표하셨습니까?”에 대한 응답임.

〈부표 3-100〉 투표 여부: (3) 2018년 6월 13일 지방선거

(단위 : %)

구분		투표했다	투표하지 않았다	모르겠다	투표권이 없었음	χ ² (df)
전체		81.88	14.97	1.63	1.52	
성별	남성	81.86	14.26	1.86	2.03	2.053 (3)
	여성	81.90	15.71	1.38	1.00	
연령	20대 이하	57.44	28.79	5.73	8.04	602.947 (12)***
	30대	81.85	17.02	1.13	0.00	
	40대	85.93	13.05	1.03	0.00	
	50대	86.06	13.72	0.23	0.00	
	60대 이상	95.98	3.68	0.34	0.00	
지역1	수도권	79.59	17.48	1.56	1.36	9.488 (3)*
	비수도권	84.24	12.38	1.69	1.69	
지역2	대도시	84.31	12.60	1.54	1.55	23.693 (6)***
	중소도시	78.60	17.85	1.86	1.69	
	농어촌	88.91	10.10	0.65	0.33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77.63	19.45	1.35	1.57	41.811 (9)***
	중하층	77.79	20.30	1.28	0.63	
	중간층	85.86	10.12	1.76	2.26	
	중상층(상층)	85.65	9.63	3.45	1.27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82.04	14.36	2.20	1.40	14.167 (12)
	200만 원대	81.88	14.94	1.15	2.03	
	300만 원대	80.10	17.65	1.24	1.02	
	400만 원대	84.62	10.75	2.80	1.83	
	500만 원 이상	81.51	15.70	1.32	1.46	
학력	중졸 이하	89.95	9.15	0.58	0.32	126.723 (6)***
	고졸	76.96	16.97	2.55	3.52	
	대졸 이상	83.91	14.98	1.09	0.03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81.61	16.62	1.63	0.13	125.522 (15)***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79.57	14.98	2.19	3.26	
	고용주, 자영자	87.02	11.57	1.41	0.00	
	무급가족종사자	90.93	9.07	0.00	0.00	
	실업자	76.64	21.65	0.92	0.78	
	비경제활동인구	78.51	15.52	1.83	4.14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81.43	16.68	1.75	0.15	20.022 (3)***
	비정규직	80.51	15.22	1.77	2.51	
이념적 성향	보수적	85.75	13.13	0.90	0.21	31.176 (6)***
	중도적	79.80	16.36	2.12	1.73	
	진보적	82.36	13.94	1.33	2.36	

주: “귀하는 다음의 선거 때 투표하셨습니까?”에 대한 응답임.

〈부표 3-101〉 사회적 참여 여부: (1) SNS에 글을 올리거나 답변하기

(단위 : %)

구분		있다	없다	χ^2 (df)
전체		15.27	84.73	
성별	남성	15.89	84.11	0.625(1)
	여성	14.63	85.37	
연령	20대 이하	31.82	68.18	296.781(4)***
	30대	21.80	78.20	
	40대	13.91	86.09	
	50대	8.27	91.73	
	60대 이상	2.87	97.13	
지역1	수도권	17.82	82.18	9.454(1)**
	비수도권	12.64	87.36	
지역2	대도시	15.71	84.29	11.789(2)**
	중소도시	16.17	83.83	
	농어촌	7.27	92.73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10.08	89.92	32.999(3)***
	중하층	13.78	86.22	
	중간층	17.10	82.90	
	중상층(상층)	21.65	78.35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10.57	89.43	47.049(4)***
	200만 원대	15.42	84.58	
	300만 원대	15.50	84.50	
	400만 원대	13.12	86.88	
	500만 원 이상	17.54	82.46	
학력	중졸 이하	0.77	99.23	152.018(2)***
	고졸	14.79	85.21	
	대졸 이상	20.46	79.54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18.80	81.20	24.425(5)***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13.93	86.07	
	고용주, 자영자	11.91	88.09	
	무급가족종사자	7.17	92.83	
	실업자	16.13	83.87	
	비경제활동인구	14.85	85.15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19.73	80.27	16.859(1)***
	비정규직	12.71	87.29	
이념적 성향	보수적	8.54	91.46	87.230(2)***
	중도적	13.85	86.15	
	진보적	24.57	75.43	

주: “귀하는 지난 1년 동안, 다음의 사회적 참여를 한 적이 있습니까?”에 대한 응답임.

〈부표 3-102〉 사회적 참여 여부: (2) 탄원서 및 청원서에 서명하기

(단위 : %)

구분		있다	없다	X ² (df)
전체		12.89	87.11	
성별	남성	11.86	88.14	5.191(1)*
	여성	13.95	86.05	
연령	20대 이하	22.49	77.51	218.486(4)***
	30대	17.59	82.41	
	40대	15.86	84.14	
	50대	7.46	92.54	
	60대 이상	2.52	97.48	
지역1	수도권	15.58	84.42	21.077(1)***
	비수도권	10.12	89.88	
지역2	대도시	14.18	85.82	15.637(2)***
	중소도시	12.67	87.33	
	농어촌	7.13	92.87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7.84	92.16	25.655(3)***
	중하층	10.71	89.29	
	중간층	15.07	84.93	
	중상층(상층)	20.66	79.34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9.10	90.90	38.376(4)***
	200만 원대	10.28	89.72	
	300만 원대	11.13	88.87	
	400만 원대	13.61	86.39	
	500만 원 이상	15.66	84.34	
학력	중졸 이하	1.31	98.69	128.078(2)***
	고졸	11.38	88.62	
	대졸 이상	18.10	81.90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13.58	86.42	17.972(5)**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13.30	86.70	
	고용주, 자영자	12.49	87.51	
	무급가족종사자	1.39	98.61	
	실업자	13.34	86.66	
	비경제활동인구	13.10	86.90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13.60	86.40	5.228(1)*
	비정규직	13.31	86.69	
이념적 성향	보수적	5.73	94.27	86.894(2)***
	중도적	10.97	89.03	
	진보적	23.62	76.38	

주: “귀하는 지난 1년 동안, 다음의 사회적 참여를 한 적이 있습니까?”에 대한 응답임.

〈부표 3-103〉 사회적 참여 여부: (3) 집회 및 시위에 참여하기

(단위 : %)

구분		있다	없다	χ^2 (df)
전체		5.64	94.36	
성별	남성	6.43	93.57	3.196(1)
	여성	4.83	95.17	
연령	20대 이하	9.56	90.44	43.659(4)****
	30대	6.80	93.20	
	40대	6.50	93.50	
	50대	4.10	95.90	
	60대 이상	1.75	98.25	
지역1	수도권	7.40	92.60	24.983(1)****
	비수도권	3.83	96.17	
지역2	대도시	6.38	93.62	6.664(2)*
	중소도시	5.26	94.74	
	농어촌	3.93	96.07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3.44	96.56	9.587(3)*
	중하층	5.08	94.92	
	중간층	5.74	94.26	
	중상층(상층)	13.56	86.44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4.39	95.61	16.308(4)**
	200만 원대	4.41	95.59	
	300만 원대	5.01	94.99	
	400만 원대	6.01	93.99	
	500만 원 이상	6.68	93.32	
학력	중졸 이하	0.26	99.74	47.633(2)****
	고졸	4.29	95.71	
	대졸 이상	8.68	91.32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7.10	92.90	9.357(5)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8.03	91.97	
	고용주, 자영자	5.15	94.85	
	무급가족종사자	0.52	99.48	
	실업자	1.40	98.60	
	비경제활동인구	4.42	95.58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7.49	92.51	5.705(1)*
	비정규직	6.82	93.18	
이념적 성향	보수적	4.03	95.97	39.317(2)****
	중도적	4.09	95.91	
	진보적	10.32	89.68	

주: “귀하는 지난 1년 동안, 다음의 사회적 참여를 한 적이 있습니까?”에 대한 응답임.

〈부표 3-104〉 국가에 대한 자긍심

(단위 : %)

구분		①매우 자랑스럽다	②대체로 자랑스럽다	③별로 자랑스럽지 않다	④전혀 자랑스럽지 않다	X ² (df)
전체		9.48	69.61	20.11	0.80	
성별	남성	11.27	66.05	21.91	0.77	21.677(3)***
	여성	7.63	73.30	18.24	0.83	
연령	20대 이하	6.44	68.87	23.63	1.07	44.257(12)***
	30대	6.06	71.47	21.56	0.91	
	40대	8.56	69.33	21.51	0.61	
	50대	13.04	65.92	20.08	0.95	
	60대 이상	12.55	72.77	14.20	0.49	
지역1	수도권	7.74	68.62	23.12	0.52	29.374(3)***
	비수도권	11.27	70.64	17.00	1.09	
지역2	대도시	7.80	67.63	23.42	1.15	28.929(6)***
	중소도시	10.06	71.37	18.08	0.50	
	농어촌	15.11	69.66	14.49	0.74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9.37	70.55	19.27	0.80	13.074(9)
	중하층	8.83	68.19	22.03	0.95	
	중간층	9.29	70.86	19.14	0.72	
	중상층(상층)	15.63	66.63	17.28	0.46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11.85	72.72	14.48	0.95	21.868(12)*
	200만 원대	11.04	62.98	25.21	0.77	
	300만 원대	10.56	70.44	17.91	1.08	
	400만 원대	6.99	72.74	19.22	1.05	
	500만 원 이상	8.57	69.61	21.28	0.54	
학력	중졸 이하	17.90	70.55	11.27	0.28	42.108(6)***
	고졸	7.79	68.09	22.98	1.14	
	대졸 이상	8.33	70.76	20.27	0.65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9.53	67.81	21.96	0.70	18.139(15)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8.39	67.59	22.50	1.52	
	고용주, 자영자	10.80	68.90	19.24	1.07	
	무급가족종사자	8.85	78.58	11.47	1.10	
	실업자	11.99	69.23	18.79	0.00	
	비경제활동인구	8.39	72.45	18.64	0.52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8.81	67.68	22.89	0.62	5.588(3)
	비정규직	10.46	67.97	20.04	1.53	
이념적 성향	보수적	10.51	67.55	20.68	1.27	21.770(6)**
	중도적	8.86	68.29	22.15	0.70	
	진보적	9.73	74.26	15.45	0.55	

주: “귀하는 한국 국민인 것을 어느 정도 자랑스럽게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부표 3-105〉 이민 의사

(단위 : %)

구분		있다	없다	χ^2 (df)
전체		23.88	76.12	
성별	남성	23.04	76.96	0.019(1)
	여성	24.75	75.25	
연령	20대 이하	36.19	63.81	274.063(4)***
	30대	34.41	65.59	
	40대	29.97	70.03	
	50대	15.38	84.62	
	60대 이상	5.89	94.11	
지역1	수도권	27.71	72.29	38.091(1)***
	비수도권	19.94	80.06	
지역2	대도시	27.57	72.43	30.174(2)***
	중소도시	22.27	77.73	
	농어촌	13.55	86.45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15.71	84.29	14.019(3)**
	중하층	25.86	74.14	
	중간층	24.61	75.39	
	중상층(상층)	23.06	76.94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13.84	86.16	46.859(4)***
	200만 원대	21.13	78.87	
	300만 원대	23.52	76.48	
	400만 원대	24.57	75.43	
	500만 원 이상	28.26	71.74	
학력	중졸 이하	4.56	95.44	166.951(2)***
	고졸	21.74	78.26	
	대졸 이상	32.23	67.77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25.99	74.01	36.694(5)***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21.85	78.15	
	고용주, 자영자	24.96	75.04	
	무급가족종사자	7.70	92.30	
	실업자	34.02	65.98	
	비경제활동인구	21.09	78.91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26.83	73.17	7.005(1)**
	비정규직	20.70	79.30	
이념적 성향	보수적	18.94	81.06	23.239(2)***
	중도적	24.09	75.91	
	진보적	28.21	71.79	

주: “귀하는 기회가 된다면 이민을 갈 생각이 있으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부표 3-106〉 이민을 생각하는 이유

(단위 : %)

구분		더 나은 교육환경 을 위해서	취업이 어려워서	집값이 너무 비싸서	안전 및 안보가 불안해서	사회적 불평등 (빈부격차 등)이 커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해서	환경문제 (미세먼지 등)가 심해서	기타	χ^2 (df)
전체		24.05	8.50	5.37	7.20	24.76	6.91	14.27	8.94	
성별	남성	19.48	14.17	7.66	6.68	25.72	4.47	10.59	11.23	56.462 (7)***
	여성	28.45	3.05	3.18	7.70	23.83	9.26	17.80	6.73	
연령	20대 이하	14.05	22.52	4.95	4.33	27.01	5.70	12.58	8.86	176.190 (28)***
	30대	31.55	2.41	10.35	2.63	23.65	6.82	15.02	7.57	
	40대	38.16	3.23	1.87	4.03	21.71	9.96	15.29	5.75	
	50대	11.82	2.99	4.81	17.27	24.51	4.74	17.53	16.33	
지역1	수도권	25.81	6.42	6.93	6.57	25.12	7.54	13.25	8.35	9.261(7)
	비수도권	21.54	11.49	3.14	8.10	24.24	6.00	15.72	9.78	
지역2	대도시	21.56	8.12	5.73	7.09	23.13	7.94	17.07	9.37	10.345 (14)
	중소도시	26.50	9.12	5.20	6.97	27.19	5.98	10.79	8.24	
	농어촌	27.02	6.51	3.16	10.76	18.11	4.80	18.40	11.23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7.73	13.92	6.86	6.92	30.10	9.33	11.35	13.78	50.943 (21)***
	중하층	21.27	9.44	8.56	5.02	31.84	7.45	9.39	7.04	
	중간층	29.67	6.89	3.03	7.33	19.25	6.81	17.92	9.10	
	중상층(상층)	20.25	7.50	0.00	22.79	12.33	0.00	22.79	14.34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5.80	19.33	5.66	5.67	27.50	7.59	14.42	14.04	59.869 (28)***
	200만 원대	14.21	10.36	4.68	12.36	29.79	12.28	8.91	7.41	
	300만 원대	12.90	6.94	6.05	8.79	30.33	1.69	13.60	19.70	
	400만 원대	38.14	5.56	3.42	5.40	24.76	4.91	12.77	5.03	
	500만 원 이상	29.13	7.70	5.95	5.98	20.86	7.72	16.56	6.09	
학력	중졸 이하	5.08	10.61	0.00	29.85	36.28	2.90	2.55	12.73	64.798 (14)***
	고졸	15.31	12.54	3.86	9.17	23.66	6.62	15.41	13.42	
	대졸 이상	30.53	5.82	6.59	4.89	24.92	7.27	14.08	5.89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27.56	5.51	5.36	4.23	25.50	10.03	11.24	10.58	106.448 (35)***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22.28	15.57	13.12	6.70	14.58	5.03	17.53	5.20	
	고용주, 자영자	14.11	1.64	7.27	7.77	35.01	4.97	19.01	10.22	
	무급가족종사자	0.00	0.00	0.00	59.45	30.00	0.00	0.00	10.55	
	실업자	12.46	19.48	3.09	3.65	31.68	1.07	15.20	13.38	
비경제활동인구	32.58	15.50	1.37	10.46	15.26	6.24	13.04	5.55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28.59	5.44	5.41	3.21	26.21	10.22	10.30	10.63	26.248 (7)***
	비정규직	19.91	13.91	11.49	9.55	14.29	5.38	19.41	6.07	
이념적 성향	보수적	30.96	10.10	1.17	13.55	21.14	5.32	5.79	11.96	28.856 (14)*
	중도적	24.85	8.56	4.60	4.87	24.47	6.95	16.62	9.09	
	진보적	18.25	7.37	9.41	7.12	27.58	7.86	15.66	6.74	

주: “이민을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에 대한 응답임.

〈부표 3-107〉 수용도: (1) 이민자(외국인노동자, 결혼이민자 등)

(단위 : %)

구분		좋음	그저 그러함	안 좋음	χ^2 (df)
전체		17.48	67.87	14.65	
성별	남성	18.13	68.57	13.30	12.545(2)**
	여성	16.80	67.16	16.04	
연령	20대 이하	17.87	68.93	13.20	18.323(8)*
	30대	16.09	67.27	16.64	
	40대	18.24	69.43	12.33	
	50대	19.01	68.20	12.79	
	60대 이상	16.00	65.54	18.47	
지역1	수도권	17.42	67.99	14.59	0.889(2)
	비수도권	17.53	67.76	14.71	
지역2	대도시	14.00	69.65	16.35	37.438(4)***
	중소도시	20.41	65.99	13.60	
	농어촌	18.42	69.78	11.80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19.22	64.32	16.47	6.623(6)
	중하층	18.33	68.84	12.83	
	중간층	15.61	68.46	15.93	
	중상층(상층)	23.35	64.61	12.04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15.47	65.00	19.53	15.814(8)*
	200만 원대	18.45	67.49	14.06	
	300만 원대	14.57	71.40	14.03	
	400만 원대	16.74	71.94	11.31	
	500만 원 이상	19.28	65.93	14.79	
학력	중졸 이하	15.06	66.73	18.21	11.921(4)*
	고졸	16.33	70.00	13.67	
	대졸 이상	19.35	66.23	14.41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13.41	73.55	13.03	26.910(10)**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16.47	68.27	15.26	
	고용주, 자영자	25.04	63.61	11.34	
	무급가족종사자	21.20	65.79	13.01	
	실업자	23.31	56.21	20.48	
	비경제활동인구	15.22	66.13	18.64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13.27	73.59	13.13	0.970(2)
	비정규직	16.12	69.40	14.49	
이념적 성향	보수적	14.30	67.74	17.96	23.188(4)***
	중도적	14.71	71.46	13.83	
	진보적	26.10	60.78	13.12	

주: “귀하는 다음 대상의 이웃이 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부표 3-108〉 수용도: (2) 북한이탈주민

(단위: %)

구분		좋음	그저 그러함	안 좋음	χ^2 (df)
전체		15.47	67.99	16.55	
성별	남성	16.84	68.76	14.40	4.029(4)
	여성	14.05	67.19	18.77	
연령	20대 이하	13.17	69.81	17.01	28.274 (16)*
	30대	11.54	68.28	20.17	
	40대	17.39	71.76	10.85	
	50대	18.71	67.24	14.05	
	60대 이상	15.76	63.01	21.23	
지역1	수도권	14.06	69.61	16.33	34.706 (4)***
	비수도권	16.91	66.31	16.77	
지역2	대도시	12.32	69.75	17.93	33.214 (8)***
	중소도시	17.81	66.73	15.46	
	농어촌	18.23	66.07	15.71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19.75	64.15	16.10	38.647 (12)***
	중하층	14.55	71.14	14.32	
	중간층	14.11	66.88	19.01	
	중상층(상층)	23.21	64.80	11.99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15.60	65.37	19.03	20.683(16)
	200만 원대	17.80	65.48	16.71	
	300만 원대	15.24	70.73	14.03	
	400만 원대	16.01	70.90	13.08	
	500만 원 이상	14.38	67.57	18.05	
학력	중졸 이하	14.90	65.47	19.62	10.788(8)
	고졸	15.70	68.32	15.98	
	대졸 이상	15.43	68.49	16.08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11.76	71.59	16.66	23.693(20)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19.01	66.67	14.32	
	고용주, 자영자	20.25	66.10	13.65	
	무급가족종사자	16.64	66.14	17.23	
	실업자	20.05	61.99	17.97	
	비경제활동인구	13.99	66.58	19.42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11.73	71.48	16.78	2.473(4)
	비정규직	17.39	68.07	14.54	
이념적 성향	14.35	65.24	20.42	22.17	16.541(8)*
	12.72	71.84	15.44	21.55	
	22.08	62.85	15.07	17.79	

주: “귀하는 다음 대상의 이웃이 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부표 3-109〉 수용도: (3) 성소수자(동성애자, 성전환자 등)

(단위 : %)

구분		좋음	그저 그러함	안 좋음	X ² (df)
전체		6.12	44.43	49.45	
성별	남성	6.09	45.57	48.34	13.541(2) **
	여성	6.14	43.26	50.61	
연령	20대 이하	8.63	53.97	37.40	142.374(8) ***
	30대	4.51	50.99	44.49	
	40대	7.22	51.26	41.52	
	50대	6.32	36.23	57.45	
	60대 이상	3.90	31.44	64.65	
지역1	수도권	6.28	46.40	47.32	1.264(2)
	비수도권	5.94	42.40	51.66	
지역2	대도시	5.68	42.87	51.44	22.534(4) ***
	중소도시	6.67	47.15	46.18	
	농어촌	5.04	36.12	58.84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7.34	38.97	53.69	20.102(6) **
	중하층	6.24	44.65	49.11	
	중간층	5.25	46.40	48.35	
	중상층(상층)	9.76	38.91	51.32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5.54	37.70	56.76	29.461(8)***
	200만 원대	6.96	43.90	49.13	
	300만 원대	5.68	41.75	52.57	
	400만 원대	5.50	50.48	44.03	
	500만 원 이상	6.40	45.70	47.90	
학력	중졸 이하	3.71	30.69	65.60	68.977(4) ***
	고졸	6.77	44.04	49.19	
	대졸 이상	6.28	49.29	44.43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5.23	52.35	42.42	63.576(10) ***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8.47	42.19	49.34	
	고용주, 자영자	7.52	38.80	53.68	
	무급가족종사자	4.06	25.60	70.34	
	실업자	5.73	61.15	33.11	
	비경제활동인구	5.39	39.82	54.79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5.39	52.85	41.75	7.152(2) *
	비정규직	7.32	43.26	49.43	
이념적 성향	14.35	3.01	38.28	58.71	59.225(4) ***
	12.72	5.60	46.17	48.23	
	22.08	10.14	46.81	43.05	

주: “귀하는 다음 대상의 이웃이 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부표 3-110〉 이민자의 한국 사회 적응 방법에 대한 인식

(단위 : %)

구분	⑩ 고유의 문화, 관습을 유지하 면서 한국 사회에 적응 하는 것이 바람직	①	②	③	④	⑤보통	⑥	⑦	⑧	⑨	X ² (df)	
												⑪ 고유의 문화, 관습을 유지하 면서 한국 사회에 적응 하는 것이 바람직
전체		1.36	2.05	5.66	7.22	7.00	21.80	13.79	18.63	14.40	5.69	2.39
성별	남성	1.17	1.59	6.57	6.29	6.04	22.35	14.64	18.07	14.60	6.39	2.28
	여성	1.56	2.52	4.72	8.19	7.99	21.22	12.91	19.21	14.20	4.97	2.51
연령	20대 이하	2.41	2.29	4.52	8.00	10.17	20.79	11.75	16.75	15.09	5.81	2.43
	30대	1.45	2.09	6.84	5.13	7.17	23.25	15.87	17.92	12.88	4.72	2.67
	40대	1.18	1.73	4.17	10.28	4.47	21.96	14.10	18.13	13.08	8.03	2.87
	50대	0.87	2.49	6.67	3.84	5.74	23.02	11.99	20.05	17.29	5.60	2.44
	60대 이상	1.01	1.65	6.13	8.81	7.77	19.99	15.38	20.03	13.47	4.20	1.58
지역1	수도권	1.22	1.58	5.89	6.92	7.84	21.18	13.80	19.01	13.61	6.08	2.88
	비수도권	1.51	2.53	5.42	7.54	6.13	22.44	13.78	18.24	15.22	5.29	1.89
지역2	대도시	1.29	2.14	3.07	5.87	6.67	20.93	15.35	21.26	15.81	5.84	1.78
	중소도시	1.37	1.80	7.50	8.38	7.40	22.59	13.13	16.62	12.62	5.67	2.91
	농어촌	1.73	3.09	8.50	7.49	6.28	21.64	9.24	16.66	17.75	5.07	2.54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0.99	1.62	5.49	7.31	5.02	24.74	15.15	19.88	12.27	5.13	2.40
	중하층	1.33	2.80	6.35	7.93	6.58	19.60	13.66	18.73	15.01	5.33	2.68
	중간층	1.55	1.70	5.53	6.81	7.75	21.90	13.31	18.49	14.92	6.02	2.01
	중상층(상층)	0.84	0.90	2.53	5.80	7.98	28.98	15.56	16.31	10.88	6.64	3.58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1.67	2.59	4.49	9.50	6.75	22.37	12.83	18.26	15.44	5.35	0.75
	200만 원대	1.64	1.02	5.21	7.29	8.82	23.36	15.02	18.18	11.92	4.13	3.42
	300만 원대	1.92	2.31	7.98	5.84	4.05	21.56	14.14	22.08	11.95	5.07	3.10
	400만 원대	1.12	2.43	5.45	6.59	6.25	20.56	15.63	18.25	16.84	5.66	1.21
	500만 원 이상	1.01	2.01	5.34	7.25	7.90	21.57	12.77	17.63	15.11	6.70	2.71
학력	중졸 이하	1.54	2.33	9.15	9.99	7.09	19.17	13.34	18.70	14.78	2.47	1.44
	고졸	1.21	1.90	5.01	6.83	7.07	23.08	13.75	18.92	12.59	6.31	3.32
	대졸 이상	1.45	2.09	5.14	6.69	6.90	21.44	13.97	18.33	16.00	6.16	1.82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1.10	3.12	6.40	6.20	5.27	25.62	14.43	16.97	13.72	5.34	1.83
	임금근로자											
	임시·일용직	1.60	2.26	5.10	8.48	9.10	16.85	10.27	25.35	9.86	8.73	2.40
	임금근로자											
	고용주, 자영자	0.93	1.40	4.78	9.14	6.37	21.52	14.73	18.31	13.88	7.23	1.70
	무급가족종사자	2.99	5.66	4.14	6.36	7.62	14.77	12.09	18.14	15.30	11.13	1.80
직업 안정성 (임금근로자)	실업자	3.94	3.59	3.25	4.80	6.14	29.17	10.86	16.42	13.71	2.32	5.80
	비경제활동인구	1.52	0.76	6.13	6.76	8.98	18.71	13.89	18.94	17.24	3.78	3.29
	정규직	1.03	2.90	6.84	5.93	5.28	25.17	14.67	17.41	13.49	5.29	1.99
이념적 성향	비정규직	1.66	3.03	4.30	8.63	8.18	20.01	10.64	22.31	11.35	8.05	1.85
	보수적	1.27	3.08	6.19	9.60	7.14	19.71	16.23	20.97	9.07	4.90	1.84
	중도적	1.76	1.95	5.82	5.92	6.80	23.52	12.75	18.80	14.39	6.01	2.27
	진보적	0.64	1.27	4.84	7.56	7.26	20.32	13.54	16.05	19.54	5.82	3.16

주: “귀하는 결혼이주자, 외국인 노동자, 탈북자 등의 이민자가 ‘그들의 고유의 문화, 관습을 버리고 한국의 문화, 관습을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과 ‘그들 고유의 문화, 관습을 유지하면서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 중 어디에 더 가깝습니까?”에 대한 응답임.

〈부표 3-111〉 대인 신뢰도: (1) 내가 완전히 믿을 수 있는 사람은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

(단위 : %)

구분		①매우 동의한다	②약간 동의한다	③동의도 반대도 아니다	④약간 반대한다	⑤매우 반대한다	χ^2 (df)
전체		14.57	53.47	20.75	9.59	1.62	
성별	남성	16.15	52.38	19.79	9.52	2.17	4.029(4)
	여성	12.95	54.60	21.75	9.66	1.04	
연령	20대 이하	13.47	47.95	24.80	10.60	3.18	28.274 (16)*
	30대	12.09	59.79	17.99	8.82	1.31	
	40대	17.74	51.81	20.32	8.95	1.19	
	50대	16.40	52.61	21.40	8.17	1.42	
	60대 이상	12.72	55.50	19.26	11.45	1.08	
지역1	수도권	14.92	55.20	17.28	10.83	1.78	34.706 (4)***
	비수도권	14.22	51.69	24.33	8.31	1.45	
지역2	대도시	13.17	53.64	20.23	11.24	1.72	33.214 (8)***
	중소도시	16.27	52.81	21.28	8.41	1.24	
	농어촌	11.77	56.63	20.37	7.84	3.39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16.60	57.91	18.94	5.81	0.74	38.647 (12)***
	중하층	18.32	53.11	18.46	8.65	1.47	
	중간층	11.01	53.06	22.91	11.06	1.97	
	중상층(상층)	14.64	49.31	22.22	12.18	1.66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15.25	55.83	17.93	8.68	2.31	20.683(16)
	200만 원대	14.93	52.25	23.35	7.84	1.63	
	300만 원대	16.79	52.23	18.70	10.77	1.50	
	400만 원대	10.65	57.47	21.32	9.61	0.95	
	500만 원 이상	14.80	52.12	21.33	10.08	1.68	
학력	중졸 이하	16.16	54.81	19.72	7.92	1.39	10.788(8)
	고졸	14.31	52.42	22.10	9.71	1.45	
	대졸 이상	14.30	54.03	19.81	10.01	1.85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14.10	50.74	23.23	10.13	1.80	23.693(20)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17.51	52.34	20.79	8.35	1.00	
	고용주, 자영자	15.48	53.91	19.18	10.34	1.09	
	무급가족종사자	18.62	47.83	18.14	10.65	4.75	
	실업자	17.91	52.86	17.41	5.14	6.68	
	비경제활동인구	12.64	57.31	19.71	9.17	1.17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14.52	50.73	22.95	9.91	1.89	2.473(4)
	비정규직	15.66	52.00	22.06	9.33	0.95	
이념적 성향	보수적	14.88	52.24	22.17	9.02	1.69	16.541(8)*
	중도적	14.29	54.12	21.55	8.93	1.12	
	진보적	14.86	53.34	17.79	11.47	2.54	

주: “귀하는 다음 의견에 어느 정도 동의 또는 반대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370 사회통합 실태 진단 및 대응 방안 연구(VI): 사회통합 상태 진단

〈부표 3-112〉 대인 신뢰도: (2) 만약 조심하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들은 나를 이용하려 들 것이다
(단위: %)

구분		①매우 동의한다	②약간 동의한다	③동의도 반대도 아니다	④약간 반대한다	⑤매우 반대한다	χ² (df)
전체		9.88	47.22	29.36	12.19	1.35	
성별	남성	10.64	46.50	28.54	13.00	1.32	7.631(4)
	여성	9.11	47.96	30.22	11.34	1.38	
연령	20대 이하	10.56	42.43	31.86	13.86	1.29	16.154(16)
	30대	9.82	44.76	31.79	12.56	1.08	
	40대	9.43	46.54	31.38	11.13	1.52	
	50대	9.30	53.46	25.29	10.90	1.06	
	60대 이상	10.39	48.02	27.10	12.73	1.76	
지역1	수도권	9.04	52.16	26.86	11.13	0.81	28.383 (4)***
	비수도권	10.76	42.12	31.94	13.27	1.91	
지역2	대도시	9.73	46.10	31.11	12.10	0.95	31.907 (8)***
	중소도시	10.33	48.27	27.73	12.18	1.49	
	농어촌	7.95	46.84	29.85	12.70	2.65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13.70	49.33	27.75	8.43	0.79	71.772 (12)***
	중하층	10.68	50.13	27.60	10.67	0.92	
	중간층	8.45	44.48	31.35	14.11	1.60	
	중상층(상층)	7.85	45.82	28.25	14.70	3.38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10.95	47.64	27.85	12.64	0.92	20.059(16)
	200만 원대	10.54	48.59	29.01	10.94	0.91	
	300만 원대	8.77	50.66	26.53	11.87	2.18	
	400만 원대	11.07	46.02	28.61	13.39	0.93	
	500만 원 이상	9.28	45.55	31.51	12.19	1.48	
학력	중졸 이하	10.80	50.72	26.47	10.65	1.36	10.835(8)
	고졸	10.54	45.56	29.90	12.90	1.09	
	대졸 이상	8.96	47.64	29.80	12.01	1.59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8.49	46.00	31.04	13.26	1.20	29.091(20)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12.15	47.50	26.35	12.95	1.05	
	고용주, 자영자	10.44	44.47	31.33	12.16	1.62	
	무급가족종사자	8.64	47.83	25.87	11.83	5.82	
	실업자	18.10	45.04	24.91	8.78	3.16	
	비경제활동인구	9.40	51.18	27.50	11.10	0.82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7.87	45.86	31.89	13.15	1.24	4.061(4)
	비정규직	12.88	47.51	25.31	13.31	0.99	
이념적 성향	보수적	11.31	47.73	28.78	11.27	0.91	24.326 (8)***
	중도적	9.02	47.79	29.74	12.11	1.32	
	진보적	10.25	45.57	29.15	13.21	1.81	

주: “귀하는 다음 의견에 어느 정도 동의 또는 반대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부표 3-113〉 대인 신뢰도: (3) 사람들은 대개 이기적이다

(단위 : %)

구분		①매우 동의한다	②약간 동의한다	③동의도 반대도 아니다	④약간 반대한다	⑤매우 반대한다	X ² (df)
전체		16.31	52.23	24.26	6.85	0.35	
성별	남성	16.87	53.01	22.71	6.93	0.48	2.854(4)
	여성	15.74	51.42	25.86	6.76	0.22	
연령	20대 이하	13.91	53.77	25.91	5.61	0.80	19.006(16)
	30대	16.35	52.50	24.09	6.89	0.18	
	40대	17.81	49.71	23.90	8.26	0.32	
	50대	17.58	52.99	22.48	6.59	0.36	
	60대 이상	15.66	52.31	25.11	6.79	0.12	
지역1	수도권	16.86	53.62	23.23	6.07	0.21	8.762(4)
	비수도권	15.75	50.79	25.32	7.64	0.50	
지역2	대도시	15.89	49.65	27.37	6.56	0.53	29.743 (8)***
	중소도시	16.82	53.21	22.55	7.24	0.18	
	농어촌	15.46	60.34	17.75	5.99	0.46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15.31	58.11	21.67	4.46	0.45	49.174 (12)***
	중하층	19.17	53.38	21.86	5.25	0.33	
	중간층	14.88	49.07	27.02	8.72	0.30	
	중상층(상층)	11.38	57.44	23.18	7.30	0.70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14.29	56.69	22.01	6.76	0.26	20.403(16)
	200만 원대	14.44	55.75	24.26	5.04	0.51	
	300만 원대	17.61	49.31	24.64	8.08	0.36	
	400만 원대	13.65	55.09	24.22	6.89	0.14	
	500만 원 이상	18.22	49.44	24.88	7.06	0.40	
학력	중졸 이하	17.86	52.83	23.10	6.03	0.18	15.921(8)*
	고졸	15.40	52.38	24.78	7.33	0.12	
	대졸 이상	16.68	51.89	24.15	6.66	0.63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15.60	50.92	25.89	7.29	0.31	31.946 (20)*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17.13	53.63	20.84	8.01	0.39	
	고용주, 자영자	16.98	51.84	23.66	7.34	0.18	
	무급가족종사자	17.97	50.91	27.33	3.79	0.00	
	실업자	18.57	49.69	23.25	5.10	3.40	
	비경제활동인구	15.91	54.10	23.84	5.95	0.19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15.28	50.40	26.54	7.52	0.26	7.165(4)
	비정규직	17.58	54.31	20.37	7.26	0.48	
이념적 성향	보수적	20.75	48.57	22.78	7.66	0.24	8.580(8)
	중도적	14.43	53.16	26.19	5.94	0.29	
	진보적	15.86	53.87	21.79	7.90	0.58	

주: “귀하는 다음 의견에 어느 정도 동의 또는 반대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372 사회통합 실태 진단 및 대응 방안 연구(VI): 사회통합 상태 진단

〈부표 3-114〉 대인 신뢰도: (4) 오늘날 한국에서 높은 지위에 오르려면 부패할 수밖에 없다

(단위: %)

구분		①매우 동의한다	②약간 동의한다	③동의도 반대도 아니다	④약간 반대한다	⑤매우 반대한다	X ² (df)
전체		11.57	40.46	31.20	11.96	4.82	
성별	남성	12.45	37.66	32.49	11.62	5.77	3.877(4)
	여성	10.66	43.35	29.86	12.30	3.83	
연령	20대 이하	12.15	39.83	33.07	10.78	4.17	19.553(16)
	30대	10.66	41.33	32.17	12.25	3.59	
	40대	11.82	38.10	31.11	13.78	5.19	
	50대	11.13	42.99	28.01	11.74	6.13	
	60대 이상	12.04	40.01	32.01	11.18	4.77	
지역1	수도권	11.09	45.53	27.97	12.33	3.08	30.059 (4)***
	비수도권	12.07	35.23	34.53	11.57	6.60	
지역2	대도시	11.03	38.83	32.82	12.86	4.47	14.389(8)
	중소도시	11.55	41.99	29.91	11.46	5.09	
	농어촌	14.71	39.87	30.30	10.09	5.03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8.31	40.10	35.11	12.81	3.66	40.828 (12)***
	중하층	12.94	41.63	27.89	12.16	5.38	
	중간층	11.85	39.26	32.81	11.31	4.76	
	중상층(상층)	7.45	43.35	31.08	14.08	4.05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10.92	41.46	32.05	12.49	3.07	12.062(16)
	200만 원대	13.56	38.92	31.80	11.79	3.93	
	300만 원대	10.17	34.91	33.55	13.38	7.99	
	400만 원대	10.67	42.18	33.41	9.81	3.93	
	500만 원 이상	11.94	42.39	28.82	12.08	4.76	
학력	중졸 이하	10.47	38.16	33.77	10.13	7.47	15.128(8)
	고졸	11.52	39.27	31.03	14.07	4.12	
	대졸 이상	11.98	42.33	30.52	10.55	4.61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10.15	39.80	31.14	12.46	6.45	18.336(20)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14.18	38.97	28.91	13.36	4.57	
	고용주, 자영자	10.86	42.37	31.73	11.35	3.69	
	무급가족종사자	5.52	41.28	29.73	15.50	7.97	
	실업자	20.07	32.98	27.59	15.68	3.68	
	비경제활동인구	12.43	40.99	32.16	10.65	3.77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9.48	39.74	31.51	12.72	6.55	6.392(4)
	비정규직	14.93	39.31	28.49	12.50	4.76	
이념적 성향	보수적	16.53	38.82	29.70	11.93	3.02	51.945 (8)***
	중도적	9.87	39.12	34.05	11.52	5.44	
	진보적	10.25	44.73	26.89	12.86	5.28	

주: “귀하는 다음 의견에 어느 정도 동의 또는 반대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부표 3-115〉 부패 인식: (1) 정치 영역

(단위 : %)

구분		⑥부패가 전혀 심하지 않다	①	②	③보통	④	⑤	⑥부패가 매우 심하다	X ² (df)
전체		0.51	0.56	2.43	11.74	22.00	38.36	24.39	
성별	남성	0.55	0.49	2.44	12.16	21.12	38.88	24.35	2.513(6)
	여성	0.47	0.64	2.42	11.30	22.90	37.83	24.44	
연령	20대 이하	0.05	0.04	1.83	15.65	28.24	31.77	22.43	49.978 (24)**
	30대	0.24	0.96	3.35	9.94	23.18	39.80	22.53	
	40대	1.58	0.18	2.77	8.74	20.85	38.39	27.49	
	50대	0.45	0.90	1.73	13.04	16.31	42.80	24.76	
	60대 이상	0.16	0.73	2.54	11.42	22.25	38.52	24.37	
지역1	수도권	0.59	0.53	2.24	9.76	20.37	42.12	24.38	6.827(6)
	비수도권	0.43	0.60	2.62	13.78	23.67	34.49	24.41	
지역2	대도시	0.05	0.52	1.76	10.33	22.46	38.14	26.73	28.050 (12)**
	중소도시	0.96	0.54	3.09	12.59	20.71	39.42	22.69	
	농어촌	0.27	0.94	1.97	14.28	27.47	32.99	22.09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0.13	0.85	3.46	12.13	23.77	36.12	23.54	34.214 (18)*
	중하층	0.43	0.33	2.17	9.36	18.91	42.52	26.28	
	중간층	0.61	0.54	2.30	13.07	24.01	36.38	23.08	
	중상층(상층)	1.09	1.65	2.85	15.71	21.90	32.18	24.61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0.19	0.37	2.70	15.36	23.70	34.96	22.72	29.447 (24)
	200만 원대	0.47	0.73	2.95	11.27	19.67	42.61	22.30	
	300만 원대	0.32	0.79	2.82	10.55	23.90	36.72	24.90	
	400만 원대	0.11	0.28	2.94	12.61	22.14	36.68	25.23	
	500만 원 이상	0.87	0.58	1.77	10.86	21.48	39.19	25.25	
학력	중졸 이하	0.05	0.43	2.74	12.04	21.86	40.53	22.35	9.230 (12)
	고졸	0.36	0.50	2.39	12.57	21.69	37.17	25.31	
	대졸 이상	0.80	0.67	2.36	10.85	22.33	38.79	24.19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0.79	0.40	2.23	9.59	22.41	41.47	23.11	32.665 (30)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0.90	1.02	3.60	12.34	21.22	29.41	31.50	
	고용주, 자영자	0.68	0.75	2.29	12.26	19.46	39.91	24.65	
	무급가족종사자	0.00	0.62	1.67	15.98	16.51	34.60	30.62	
	실업자	0.00	1.92	2.18	17.47	19.05	36.64	22.73	
	비경제활동인구	0.00	0.28	2.47	12.65	24.73	36.81	23.05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0.86	0.43	2.32	9.28	22.81	42.42	21.87	5.822(6)
	비정규직	0.70	0.78	3.07	12.47	20.51	29.81	32.66	
이념적 성향	보수적	0.39	0.55	2.45	8.45	18.97	38.41	30.79	33.936 (12)***
	중도적	0.51	0.60	2.43	12.92	22.49	38.64	22.41	
	진보적	0.62	0.50	2.40	12.52	23.91	37.77	22.27	

주: “정치 및 경제 영역에서의 부패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374 사회통합 실태 진단 및 대응 방안 연구(VI): 사회통합 상태 진단

〈부표 3-116〉 부패 인식: (2) 경제 영역

(단위: %)

구분		㉔부패가 전혀 심하지 않다	①	②	③보통	④	⑤	⑥부패가 매우 심하다	X ² (df)
전체		0.47	0.71	3.48	20.84	32.86	29.45	12.18	
성별	남성	0.49	0.68	3.75	21.11	33.14	28.53	12.30	5.086(6)
	여성	0.46	0.74	3.21	20.57	32.56	30.41	12.05	
연령	20대 이하	0.13	0.53	3.28	23.15	32.76	26.62	13.53	41.816 (24)*
	30대	0.00	1.06	4.66	20.59	36.70	26.30	10.69	
	40대	1.58	0.27	3.56	18.05	31.97	27.47	17.10	
	50대	0.45	1.02	2.90	21.72	28.27	34.56	11.08	
	60대 이상	0.12	0.70	3.15	20.83	35.19	31.57	8.43	
지역1	수도권	0.59	0.63	3.48	20.97	33.68	28.99	11.66	7.425(6)
	비수도권	0.36	0.79	3.49	20.70	32.01	29.93	12.71	
지역2	대도시	0.05	0.46	3.69	20.00	33.38	29.53	12.89	20.474 (12)
	중소도시	0.88	0.88	3.50	21.92	31.88	29.60	11.33	
	농어촌	0.27	1.02	2.28	18.79	36.03	28.12	13.49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0.13	1.01	2.45	17.87	33.90	31.02	13.61	46.419 (18)***
	중하층	0.33	0.26	3.30	18.08	30.37	32.98	14.67	
	중간층	0.61	0.74	3.81	24.08	34.03	26.42	10.30	
	중상층(상층)	1.09	2.79	4.31	19.01	37.34	27.54	7.93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0.19	0.54	2.95	22.15	33.72	29.06	11.38	26.252 (24)
	200만 원대	0.47	0.79	3.32	20.17	31.18	31.44	12.62	
	300만 원대	0.05	0.83	4.62	19.32	35.91	27.75	11.51	
	400만 원대	0.07	0.25	3.72	21.38	36.07	25.58	12.93	
	500만 원 이상	0.91	0.86	3.16	21.09	30.70	31.03	12.26	
학력	중졸 이하	0.00	0.45	2.34	18.97	36.87	32.65	8.72	24.219 (12)*
	고졸	0.38	0.84	3.75	21.28	33.15	27.44	13.16	
	대졸 이상	0.72	0.68	3.60	21.04	31.28	30.32	12.37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0.70	0.42	3.79	20.07	32.34	30.09	12.58	38.586 (30)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0.83	0.82	3.09	24.27	30.78	25.27	14.93	
	고용주, 자영자	0.68	1.13	3.28	19.10	30.83	33.35	11.64	
	무급가족종사자	0.00	0.00	1.57	21.19	28.05	42.99	6.20	
	실업자	0.00	1.19	4.57	18.42	36.88	22.36	16.59	
	비경제활동인구	0.00	0.66	3.43	22.38	35.81	26.58	11.14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0.77	0.40	3.99	20.01	33.65	29.53	11.65	6.600(6)
	비정규직	0.64	0.77	2.77	23.47	27.84	27.78	16.72	
이념적 성향	보수적	0.42	0.79	2.68	15.79	32.82	33.07	14.43	32.652 (12)**
	중도적	0.43	0.68	3.66	23.06	33.99	27.66	10.52	
	진보적	0.62	0.69	3.89	21.20	30.62	29.60	13.36	

주: “정치 및 경제 영역에서의 부패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부표 3-117〉 이념적 성향

(단위 : %)

구분		①매우 보수적	②대체로 보수적	③중도적	④대체로 진보적	⑤매우 진보적	X ² (df)
전체		2.62	21.49	50.72	23.23	1.93	
성별	남성	2.66	22.42	48.77	24.55	1.60	23.517 (4)***
	여성	2.59	20.54	52.74	21.86	2.28	
연령	20대 이하	1.38	9.75	52.93	32.67	3.27	429.202 (16)***
	30대	0.47	10.76	58.42	28.98	1.36	
	40대	1.02	19.20	48.68	28.05	3.06	
	50대	2.12	25.43	53.42	18.23	0.80	
	60대 이상	7.82	40.09	41.10	9.75	1.24	
지역1	수도권	2.87	18.25	53.54	23.76	1.59	16.713 (4)**
	비수도권	2.38	24.84	47.82	22.68	2.29	
지역2	대도시	1.96	21.23	52.88	22.96	0.99	45.576 (8)***
	중소도시	3.23	20.20	49.33	24.29	2.95	
	농어촌	2.55	31.02	47.52	18.08	0.83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5.44	24.23	51.04	16.63	2.66	51.256 (12)***
	중하층	2.25	22.95	49.83	23.01	1.97	
	중간층	2.22	19.36	51.90	24.58	1.94	
	중상층(상층)	2.18	23.31	46.19	28.32	0.00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6.25	31.98	47.50	13.37	0.89	119.451 (16)***
	200만 원대	3.80	23.86	52.17	17.38	2.79	
	300만 원대	2.64	17.31	51.83	26.81	1.40	
	400만 원대	1.20	19.45	53.11	24.91	1.33	
	500만 원 이상	1.47	19.56	49.85	26.71	2.40	
학력	중졸 이하	4.71	37.25	48.14	8.87	1.03	243.408 (8)***
	고졸	3.27	23.88	51.30	19.72	1.83	
	대졸 이상	1.33	14.09	51.01	31.24	2.32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1.75	15.76	54.41	26.29	1.78	82.054 (20)***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1.74	26.68	48.80	19.22	3.57	
	고용주, 자영자	2.32	26.52	48.08	21.47	1.61	
	무급가족종사자	2.79	24.23	56.04	16.94	0.00	
	실업자	9.85	14.40	42.57	28.75	4.43	
	비경제활동인구	3.33	23.05	49.77	22.17	1.68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1.12	15.67	55.17	26.79	1.26	23.994 (4)***
	비정규직	3.35	24.39	48.18	19.59	4.49	
이념적 성향	보수적	10.88	89.12	0.00	0.00	0.00	7,778.000 (8)***
	중도적	0.00	0.00	100.00	0.00	0.00	
	진보적	0.00	0.00	0.00	92.32	7.68	

주: “귀하의 이념적 성향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부표 3-118〉 우리나라의 갈등 정도

(단위 : %)

구분		①갈등이 매우 심하다	②갈등이 대체로 심하다	③갈등이 별로 심하지 않다	④갈등이 전혀 심하지 않다	⑤모르겠다	X ² (df)
전체		9.25	71.57	17.09	0.88	1.20	
성별	남성	10.21	70.48	17.09	0.91	1.32	10.188(4)*
	여성	8.27	72.71	17.09	0.86	1.08	
연령	20대 이하	8.30	69.63	18.72	0.44	2.90	30.295(16)*
	30대	6.58	74.77	17.08	1.11	0.46	
	40대	9.89	70.46	17.69	0.70	1.26	
	50대	10.56	71.64	15.64	1.07	1.09	
	60대 이상	10.51	71.57	16.51	1.07	0.34	
지역1	수도권	8.87	70.99	17.98	0.95	1.21	6.110(4)
	비수도권	9.65	72.18	16.17	0.81	1.19	
지역2	대도시	8.83	70.85	17.28	1.34	1.71	8.931(8)
	중소도시	9.73	71.82	17.09	0.47	0.89	
	농어촌	8.61	74.07	16.10	0.91	0.31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10.93	68.85	18.65	0.30	1.26	27.709 (12)**
	중하층	10.31	72.71	15.47	0.91	0.60	
	중간층	7.68	71.50	18.31	0.97	1.54	
	중상층(상층)	11.49	70.73	14.28	1.25	2.24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11.02	70.38	17.64	0.14	0.83	19.399(16)
	200만 원대	10.79	70.49	15.94	0.63	2.15	
	300만 원대	7.11	74.44	17.10	0.75	0.60	
	400만 원대	9.05	68.65	18.07	2.10	2.13	
	500만 원 이상	9.03	72.34	16.98	0.81	0.84	
학력	중졸 이하	7.59	73.10	18.22	0.72	0.37	22.120(8)**
	고졸	10.41	68.62	17.97	0.97	2.03	
	대졸 이상	8.70	73.88	15.89	0.85	0.68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10.00	71.86	15.87	1.18	1.10	23.090(20)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8.04	73.71	16.13	0.91	1.21	
	고용주, 자영자	11.22	69.48	17.49	0.54	1.27	
	무급가족종사자	4.83	74.47	20.70	0.00	0.00	
	실업자	18.47	60.14	18.86	0.53	2.00	
	비경제활동인구	6.27	73.51	18.06	0.92	1.25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9.36	72.34	15.82	1.28	1.20	2.138(4)
	비정규직	10.10	72.07	16.20	0.70	0.93	
이념적 성향	보수적	11.31	72.78	13.98	1.14	0.79	29.703(8)***
	중도적	7.77	70.01	19.82	0.88	1.51	
	진보적	10.27	73.57	14.56	0.64	0.97	

주: “우리나라는 갈등이 어느 정도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부표 3-119〉 집단 간 갈등 수준: (1) 가난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 간의 갈등

(단위 : %)

구분		①갈등이 매우 심하다	②갈등이 대체로 심하다	③갈등이 별로 심하지 않다	④갈등이 전혀 심하지 않다	⑤모르겠다	X ² (df)
전체		12.89	57.59	25.22	2.06	2.24	
성별	남성	12.41	57.13	25.93	2.26	2.26	3.090(4)
	여성	13.38	58.07	24.48	1.86	2.21	
연령	20대 이하	11.69	55.33	26.86	1.58	4.54	39.655 (16)***
	30대	10.96	59.36	25.14	1.68	2.86	
	40대	14.24	55.94	26.24	2.00	1.58	
	50대	17.49	54.59	24.00	2.01	1.90	
	60대 이상	9.57	62.88	24.02	2.97	0.56	
지역1	수도권	13.70	58.47	23.21	2.29	2.32	5.699(4)
	비수도권	12.05	56.68	27.29	1.84	2.15	
지역2	대도시	13.09	56.99	24.33	2.63	2.96	39.058(8)***
	중소도시	13.46	56.89	26.15	1.71	1.80	
	농어촌	8.26	65.29	24.37	1.10	0.98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13.96	60.23	20.51	2.98	2.33	43.894 (12)***
	중하층	17.48	57.66	21.76	1.47	1.64	
	중간층	8.99	57.50	28.92	2.23	2.36	
	중상층(상층)	12.30	51.97	28.14	2.57	5.02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15.92	58.91	19.29	3.59	2.30	27.613(16)*
	200만 원대	10.34	62.32	22.94	1.39	3.02	
	300만 원대	12.11	57.30	26.80	1.26	2.53	
	400만 원대	11.16	58.32	26.79	2.01	1.72	
	500만 원 이상	13.87	55.12	26.85	2.17	1.99	
학력	중졸 이하	13.29	59.58	24.54	2.01	0.59	14.313(8)
	고졸	10.53	58.88	25.39	2.44	2.76	
	대졸 이상	14.99	55.72	25.28	1.73	2.28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11.69	55.96	28.04	1.50	2.82	28.475(20)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14.23	60.37	21.39	1.78	2.24	
	고용주, 자영자	12.64	58.09	25.54	1.76	1.97	
	무급가족종사자	13.60	55.45	28.50	1.63	0.81	
	실업자	14.43	45.09	27.65	5.02	7.80	
	비경제활동인구	13.86	59.93	22.26	2.77	1.18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11.68	55.26	28.50	1.60	2.97	2.813(4)
	비정규직	13.67	61.12	21.77	1.47	1.98	
이념적 성향	보수적	13.36	56.78	25.12	3.21	1.52	9.205(8)
	중도적	13.30	56.68	25.56	1.48	2.98	
	진보적	11.61	60.20	24.63	2.14	1.43	

주: “귀하가 생각하시기에 한국에는 다음 집단들 간의 갈등이 어느 정도 심하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부표 3-120〉 집단 간 갈등 수준: (2) 경영자와 노동자 간의 갈등

(단위: %)

구분		①갈등이 매우 심하다	②갈등이 대체로 심하다	③갈등이 별로 심하지 않다	④갈등이 전혀 심하지 않다	⑤모르겠다	X ² (df)
전체		20.78	54.74	20.54	2.38	1.57	
성별	남성	21.74	53.19	21.29	2.35	1.42	4.866 (9)
	여성	19.78	56.34	19.76	2.40	1.71	
연령	20대 이하	19.02	56.94	18.08	3.27	2.69	937.026 (36)***
	30대	21.18	50.90	24.19	1.88	1.86	
	40대	20.82	57.10	18.22	1.86	2.00	
	50대	24.58	54.67	17.48	2.48	0.78	
	60대 이상	18.04	53.81	25.08	2.42	0.66	
지역1	수도권	20.34	56.41	19.64	1.52	2.10	106.548 (9)***
	비수도권	21.23	53.02	21.47	3.26	1.02	
지역2	대도시	19.49	56.92	20.05	2.40	1.14	184.477 (18)***
	중소도시	22.59	51.56	21.18	2.57	2.10	
	농어촌	16.56	62.52	19.27	1.08	0.58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26.38	49.70	20.09	2.98	0.85	186.953 (27)***
	중하층	23.20	55.71	18.47	1.98	0.64	
	중간층	16.82	55.98	22.53	2.42	2.25	
	중상층(상층)	24.85	49.26	18.85	3.37	3.67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20.13	56.79	19.04	3.28	0.76	255.433 (36)***
	200만 원대	22.14	51.33	23.23	1.62	1.68	
	300만 원대	18.73	57.54	20.17	1.74	1.82	
	400만 원대	18.40	55.13	19.96	3.11	3.41	
	500만 원 이상	22.24	54.05	20.37	2.36	0.97	
학력	중졸 이하	17.91	57.19	23.12	1.15	0.63	628.471 (18)***
	고졸	18.87	54.94	21.34	3.28	1.56	
	대졸 이상	23.52	53.74	18.94	1.93	1.88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17.65	57.00	21.73	2.15	1.47	253.230 (45)***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20.24	55.81	20.38	2.01	1.56	
	고용주, 자영자	21.36	52.61	22.72	2.23	1.07	
	무급가족종사자	21.41	54.74	21.64	1.40	0.81	
	실업자	25.65	50.98	17.95	3.30	2.12	
	비경제활동인구	23.59	53.93	17.51	2.87	2.10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16.86	57.27	22.43	1.84	1.60	35.513 (9)***
	비정규직	21.61	55.41	18.94	2.84	1.20	
이념적 성향	보수적	21.93	52.74	21.80	2.35	1.18	114.876 (18)***
	중도적	18.59	56.64	21.03	2.17	1.57	
	진보적	24.08	52.82	18.35	2.83	1.92	

주: “귀하가 생각하시기에 한국에는 다음 집단들 간의 갈등이 어느 정도 심하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부표 3-121〉 집단 간 갈등 수준: (3) 주택 소유자와 비소유자 간의 갈등

(단위: %)

구분		①갈등이 매우 심하다	②갈등이 대체로 심하다	③갈등이 별로 심하지 않다	④갈등이 전혀 심하지 않다	⑤모르겠다	X ² (df)
전체		9.32	36.12	43.82	7.45	3.30	
성별	남성	9.48	36.42	44.58	6.52	3.00	4.866 (9)
	여성	9.14	35.81	43.04	8.40	3.62	
연령	20대 이하	6.60	33.79	48.21	6.17	5.23	937.026 (36)***
	30대	8.09	38.81	44.77	6.96	1.37	
	40대	10.70	36.13	39.09	10.27	3.81	
	50대	13.12	33.06	44.20	6.77	2.86	
	60대 이상	7.57	39.03	43.30	6.91	3.20	
지역1	수도권	9.98	34.58	46.14	5.36	3.93	106.548 (9)***
	비수도권	8.63	37.70	41.42	9.59	2.65	
지역2	대도시	8.80	36.54	43.09	8.21	3.36	184.477 (18)***
	중소도시	10.34	35.59	43.65	7.04	3.37	
	농어촌	5.76	37.06	48.90	5.75	2.54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10.15	40.11	41.78	5.91	2.05	186.953 (27)***
	중하층	10.76	35.66	44.42	6.31	2.86	
	중간층	8.02	34.71	45.05	8.40	3.82	
	중상층(상층)	8.55	41.89	34.19	10.56	4.81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8.41	38.16	42.98	6.84	3.62	255.433 (36)***
	200만 원대	9.42	41.71	38.12	6.87	3.89	
	300만 원대	11.32	36.22	42.54	7.36	2.56	
	400만 원대	7.76	35.30	44.91	7.66	4.38	
	500만 원 이상	9.34	33.50	46.46	7.84	2.86	
학력	중졸 이하	10.70	36.67	44.32	4.89	3.43	628.471 (18)***
	고졸	8.28	36.99	42.26	8.52	3.94	
	대졸 이상	9.84	35.11	45.13	7.26	2.66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7.83	37.33	44.45	8.53	1.85	253.230 (45)***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10.48	33.52	48.15	4.89	2.96	
	고용주, 자영자	10.27	36.74	41.94	7.44	3.61	
	무급가족종사자	7.88	33.18	45.27	10.86	2.81	
	실업자	13.66	31.50	43.56	4.34	6.94	
	비경제활동인구	9.47	35.80	43.12	7.12	4.50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8.00	36.48	44.71	8.91	1.90	35.513 (9)***
	비정규직	9.44	36.55	46.63	4.79	2.59	
이념적 성향	보수적	10.60	36.17	40.54	9.44	3.25	114.876 (18)***
	중도적	9.10	37.86	43.16	6.75	3.13	
	진보적	8.51	32.56	48.28	6.94	3.71	

주: “귀하가 생각하시기에 한국에는 다음 집단들 간의 갈등이 어느 정도 심하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부표 3-122〉 집단 간 갈등 수준: (4)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갈등

(단위: %)

구분		①갈등이 매우 심하다	②갈등이 대체로 심하다	③갈등이 별로 심하지 않다	④갈등이 전혀 심하지 않다	⑤모르겠다	X ² (df)
전체		23.36	52.56	19.15	2.75	2.19	
성별	남성	24.18	50.02	20.56	3.00	2.24	3.560(4)
	여성	22.51	55.18	17.68	2.48	2.14	
연령	20대 이하	19.44	51.01	20.77	4.46	4.32	36.005(16)**
	30대	24.41	50.46	20.56	1.85	2.72	
	40대	23.11	53.44	19.81	2.91	0.73	
	50대	26.80	54.30	14.64	2.18	2.07	
	60대 이상	22.72	53.14	20.40	2.39	1.35	
지역1	수도권	23.84	52.63	19.19	2.02	2.32	6.757(4)
	비수도권	22.87	52.49	19.10	3.49	2.06	
지역2	대도시	21.45	54.75	18.23	3.18	2.39	25.494(8)**
	중소도시	25.50	49.44	20.31	2.72	2.03	
	농어촌	20.59	59.90	16.90	0.51	2.10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25.64	50.29	20.90	1.28	1.90	47.002 (12)***
	중하층	26.43	54.18	15.80	2.17	1.41	
	중간층	20.71	52.57	20.73	3.50	2.49	
	중상층(상층)	19.75	46.74	24.35	3.59	5.57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18.83	54.04	21.18	1.87	4.08	20.763(16)
	200만 원대	25.21	51.32	17.36	3.78	2.33	
	300만 원대	24.01	49.80	19.35	4.46	2.38	
	400만 원대	22.91	53.45	18.58	2.74	2.32	
	500만 원 이상	24.07	53.36	19.29	1.92	1.36	
학력	중졸 이하	25.57	48.20	22.88	1.35	2.00	20.051(8)*
	고졸	20.99	55.56	18.16	3.22	2.07	
	대졸 이상	24.89	51.13	18.86	2.75	2.37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21.85	53.26	19.99	3.44	1.46	26.214(20)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26.05	51.52	18.92	1.52	1.99	
	고용주, 자영자	23.57	54.97	17.11	2.09	2.27	
	무급가족종사자	26.16	52.66	16.05	1.57	3.56	
	실업자	19.82	47.91	19.96	3.36	8.95	
	비경제활동인구	24.33	50.56	20.09	2.91	2.12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21.42	53.65	19.89	3.45	1.60	3.365(4)
	비정규직	26.16	50.96	19.43	1.93	1.53	
이념적 성향	보수적	25.64	52.30	17.96	1.76	2.34	9.820(8)
	중도적	22.14	53.13	19.43	2.91	2.39	
	진보적	23.63	51.66	19.71	3.35	1.65	

주: “귀하가 생각하시기에 한국에는 다음 집단들 간의 갈등이 어느 정도 심하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부표 3-123〉 집단 간 갈등 수준: (5) 여성과 남성 간의 갈등

(단위: %)

구분		①갈등이 매우 심하다	②갈등이 대체로 심하다	③갈등이 별로 심하지 않다	④갈등이 전혀 심하지 않다	⑤모르겠다	X ² (df)
전체		8.65	37.18	44.09	8.63	1.45	
성별	남성	9.04	36.97	43.33	9.19	1.47	15.008(4)**
	여성	8.24	37.41	44.87	8.06	1.43	
연령	20대 이하	14.00	35.68	42.54	5.94	1.85	74.020 (16)***
	30대	7.97	40.88	41.38	8.51	1.27	
	40대	8.94	39.46	38.89	11.68	1.04	
	50대	8.25	34.28	49.77	6.20	1.50	
	60대 이상	4.45	35.99	47.26	10.69	1.61	
지역1	수도권	9.44	37.57	43.77	7.71	1.51	13.722(4)**
	비수도권	7.83	36.79	44.41	9.59	1.38	
지역2	대도시	8.16	41.80	40.85	8.20	0.99	14.656(8)
	중소도시	9.39	33.72	45.94	9.08	1.86	
	농어촌	6.69	33.25	50.40	8.25	1.42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7.93	40.46	44.37	6.02	1.22	23.136(12)*
	중하층	9.43	38.76	42.70	8.17	0.94	
	중간층	7.78	34.67	46.06	9.63	1.86	
	중상층(상층)	12.24	40.13	36.36	9.28	1.99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8.51	37.79	42.50	8.55	2.65	17.730(16)
	200만 원대	9.49	40.32	40.22	8.12	1.85	
	300만 원대	6.19	36.29	45.98	9.39	2.15	
	400만 원대	10.06	40.53	39.72	8.67	1.01	
	500만 원 이상	8.84	34.82	47.05	8.54	0.75	
학력	중졸 이하	4.31	37.14	48.32	8.11	2.12	33.177(8)***
	고졸	9.57	36.99	42.34	9.27	1.83	
	대졸 이상	9.19	37.38	44.36	8.20	0.87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6.54	39.86	43.29	9.23	1.08	50.474 (20)***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10.01	38.67	39.90	8.24	3.18	
	고용주, 자영자	9.30	35.05	47.00	7.15	1.50	
	무급가족종사자	4.84	30.78	51.77	10.61	2.01	
	실업자	15.50	42.89	33.77	5.35	2.49	
	비경제활동인구	9.62	35.05	44.66	9.58	1.09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6.70	39.77	43.02	9.34	1.18	4.971(4)
	비정규직	8.81	39.17	41.39	8.19	2.44	
이념적 성향	보수적	10.44	34.62	41.15	11.93	1.86	12.287(8)
	중도적	7.17	38.90	45.06	7.27	1.60	
	진보적	9.89	36.18	44.94	8.23	0.75	

주: “귀하가 생각하시기에 한국에는 다음 집단들 간의 갈등이 어느 정도 심하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부표 3-124〉 집단 간 갈등 수준: (6) 고령자와 젊은이 간의 갈등

(단위: %)

구분		①갈등이 매우 심하다	②갈등이 대체로 심하다	③갈등이 별로 심하지 않다	④갈등이 전혀 심하지 않다	⑤모르겠다	X ² (df)
전체		9.90	40.20	39.76	8.47	1.67	
성별	남성	9.15	39.36	41.80	7.60	2.09	2.600(4)
	여성	10.66	41.06	37.66	9.38	1.23	
연령	20대 이하	10.97	35.42	37.87	12.66	3.08	23.867(16)
	30대	9.22	43.20	37.82	7.97	1.80	
	40대	9.51	41.16	39.85	7.80	1.67	
	50대	11.80	38.88	42.27	6.02	1.02	
	60대 이상	7.93	42.31	40.53	8.29	0.93	
지역1	수도권	11.10	39.69	37.63	9.63	1.95	7.983(4)
	비수도권	8.66	40.71	41.96	7.28	1.38	
지역2	대도시	9.62	42.27	37.21	9.30	1.59	14.780(8)
	중소도시	10.70	37.96	41.65	7.78	1.91	
	농어촌	6.43	42.63	42.10	8.21	0.63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7.92	46.17	38.46	5.72	1.73	18.720(12)
	중하층	8.29	41.50	41.88	7.53	0.80	
	중간층	11.08	37.91	38.57	10.05	2.38	
	중상층(상층)	15.23	37.00	38.49	7.83	1.45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6.49	40.38	44.14	7.07	1.92	25.320(16)
	200만 원대	8.65	43.35	38.78	6.92	2.31	
	300만 원대	8.02	39.04	42.44	8.02	2.48	
	400만 원대	12.29	40.35	38.10	6.26	3.00	
	500만 원 이상	11.40	39.32	38.19	10.62	0.47	
학력	중졸 이하	7.38	43.18	41.97	6.63	0.84	11.201(8)
	고졸	9.42	40.85	39.59	8.08	2.05	
	대졸 이상	11.17	38.61	39.20	9.45	1.58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8.36	39.97	41.18	8.38	2.10	37.188(20)*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7.89	39.36	43.19	6.86	2.71	
	고용주, 자영자	9.60	41.47	38.46	9.73	0.75	
	무급가족종사자	9.40	37.82	45.69	7.09	0.00	
	실업자	8.93	35.34	41.57	8.38	5.78	
	비경제활동인구	12.85	40.45	37.32	8.17	1.20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7.76	41.01	40.06	8.88	2.30	4.276(4)
	비정규직	9.51	36.89	45.55	5.96	2.08	
이념적 성향	보수적	10.66	37.75	41.71	7.98	1.89	10.294(8)
	중도적	8.60	42.08	40.25	7.33	1.74	
	진보적	11.78	38.73	36.93	11.25	1.31	

주: “귀하가 생각하시기에 한국에는 다음 집단들 간의 갈등이 어느 정도 심하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부표 3-125〉 집단 간 갈등 수준: (7) 기성세대(40~50대)와 청년세대(20~30대) 간의 갈등

(단위: %)

구분		①갈등이 매우 심하다	②갈등이 대체로 심하다	③갈등이 별로 심하지 않다	④갈등이 전혀 심하지 않다	⑤모르겠다	X ² (df)
전체		12.78	40.18	38.48	6.80	1.75	
성별	남성	11.45	41.87	39.02	5.56	2.10	5.226(4)
	여성	14.15	38.44	37.94	8.08	1.39	
연령	20대 이하	12.76	41.26	34.03	9.40	2.56	27.521(16)*
	30대	11.45	48.41	31.81	5.93	2.39	
	40대	14.13	34.68	42.16	7.98	1.06	
	50대	13.25	37.59	43.61	4.86	0.69	
	60대 이상	12.12	40.10	39.51	6.02	2.26	
지역1	수도권	14.27	40.50	36.72	6.72	1.79	15.121(4)**
	비수도권	11.24	39.86	40.30	6.88	1.72	
지역2	대도시	12.46	39.72	38.62	7.49	1.70	31.556(8)***
	중소도시	14.22	41.25	36.58	6.02	1.93	
	농어촌	5.55	36.07	49.57	7.86	0.95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12.52	38.74	40.14	6.63	1.96	21.079(12)*
	중하층	12.33	41.01	38.57	6.39	1.70	
	중간층	12.44	41.30	37.29	7.32	1.65	
	중상층(상층)	19.06	28.62	44.16	5.66	2.50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9.59	39.04	41.18	7.13	3.06	29.135(16)*
	200만 원대	10.06	45.13	34.51	7.32	2.99	
	300만 원대	14.12	42.61	35.34	5.17	2.76	
	400만 원대	12.93	39.09	41.06	5.78	1.15	
	500만 원 이상	14.30	38.03	39.46	7.57	0.64	
학력	중졸 이하	9.94	40.27	42.53	4.89	2.36	8.260(8)
	고졸	12.35	40.59	38.32	6.99	1.75	
	대졸 이상	14.11	39.77	37.32	7.25	1.56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10.97	39.38	41.58	6.06	2.00	27.932(20)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15.15	39.83	35.07	7.77	2.18	
	고용주, 자영자	12.82	39.97	37.38	8.46	1.38	
	무급가족종사자	6.88	37.81	47.93	6.65	0.73	
	실업자	12.66	40.50	36.14	7.95	2.76	
	비경제활동인구	14.60	41.60	36.39	5.82	1.58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10.93	39.90	41.00	6.01	2.16	1.183(4)
	비정규직	14.28	38.43	38.05	7.49	1.75	
이념적 성향	보수적	15.94	37.46	38.27	6.57	1.76	2.015(8)
	중도적	11.68	42.15	38.68	5.82	1.67	
	진보적	11.97	38.82	38.29	9.00	1.92	

주: “귀하가 생각하시기에 한국에는 다음 집단들 간의 갈등이 어느 정도 심하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부표 3-126〉 집단 간 갈등 수준: (8) 진보와 보수 간의 갈등

(단위: %)

구분		①갈등이 매우 심하다	②갈등이 대체로 심하다	③갈등이 별로 심하지 않다	④갈등이 전혀 심하지 않다	⑤모르겠다	X ² (df)
전체		48.16	38.00	10.72	1.64	1.48	
성별	남성	47.84	39.16	9.91	1.61	1.48	13.615(4)**
	여성	48.48	36.81	11.56	1.67	1.47	
연령	20대 이하	44.84	36.26	14.21	1.81	2.87	31.078(16)*
	30대	50.13	35.00	11.54	1.44	1.89	
	40대	51.56	38.73	7.27	1.68	0.76	
	50대	49.31	38.52	9.61	1.81	0.76	
	60대 이상	44.83	41.01	11.42	1.46	1.28	
지역1	수도권	52.92	35.98	8.54	0.79	1.77	24.553(4)***
	비수도권	43.25	40.09	12.97	2.52	1.17	
지역2	대도시	46.01	40.27	10.11	1.88	1.73	21.202(8)**
	중소도시	51.28	35.26	10.50	1.51	1.45	
	농어촌	40.58	42.59	15.46	1.14	0.23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47.40	37.69	12.52	1.39	0.99	9.579(12)
	중하층	48.49	39.27	9.81	1.00	1.44	
	중간층	47.56	37.48	11.23	2.00	1.73	
	중상층(상층)	52.52	34.64	8.59	3.52	0.72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40.58	41.12	14.63	1.19	2.48	41.371 (16)***
	200만 원대	46.75	40.42	8.31	2.22	2.30	
	300만 원대	46.42	39.90	11.24	1.09	1.34	
	400만 원대	41.79	43.39	10.78	1.86	2.17	
	500만 원 이상	54.49	33.10	10.11	1.72	0.59	
학력	중졸 이하	41.46	43.01	13.14	1.04	1.35	31.853(8)***
	고졸	45.57	39.95	10.67	2.01	1.81	
	대졸 이상	52.79	34.53	9.99	1.49	1.20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46.86	38.57	11.95	1.33	1.28	25.984(20)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48.69	37.67	10.95	1.08	1.61	
	고용주, 자영자	49.48	37.25	9.89	2.47	0.91	
	무급가족종사자	44.10	41.72	12.36	0.00	1.82	
	실업자	46.29	39.82	7.64	1.21	5.05	
	비경제활동인구	48.96	37.56	10.12	1.68	1.68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47.14	38.24	12.06	1.28	1.28	6.470(4)
	비정규직	47.57	38.71	10.91	1.27	1.55	
이념적 성향	보수적	51.33	37.10	8.48	1.66	1.43	9.921(8)
	중도적	45.82	37.85	12.60	1.82	1.91	
	진보적	49.82	39.18	9.08	1.27	0.65	

주: “귀하가 생각하시기에 한국에는 다음 집단들 간의 갈등이 어느 정도 심하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부표 3-127〉 집단 간 갈등 수준: (9) 지역 간의 갈등(수도권과 지방, 영남과 호남)

(단위: %)

구분		①갈등이 매우 심하다	②갈등이 대체로 심하다	③갈등이 별로 심하지 않다	④갈등이 전혀 심하지 않다	⑤모르겠다	X ² (df)
전체		19.72	45.53	28.23	4.35	2.17	
성별	남성	19.41	45.95	28.57	4.43	1.64	6.366(4)
	여성	20.03	45.10	27.88	4.26	2.72	
연령	20대 이하	17.14	42.89	28.33	4.97	6.67	88.921 (16)***
	30대	22.72	43.37	30.00	2.13	1.78	
	40대	20.64	45.73	28.15	4.57	0.91	
	50대	19.16	47.44	27.56	4.86	0.97	
	60대 이상	19.07	47.71	27.34	5.00	0.89	
지역1	수도권	25.24	45.04	24.80	2.22	2.71	78.127(4)***
	비수도권	14.03	46.04	31.76	6.54	1.62	
지역2	대도시	17.03	47.32	28.16	4.90	2.59	53.320(8)***
	중소도시	23.54	44.11	26.76	3.45	2.13	
	농어촌	10.72	44.54	37.73	6.89	0.12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19.33	45.72	28.80	5.32	0.82	12.049(12)
	중하층	17.75	48.49	28.19	3.69	1.88	
	중간층	20.75	44.13	28.02	4.45	2.64	
	중상층(상층)	25.11	37.07	28.88	5.67	3.27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12.49	48.61	30.60	6.72	1.58	37.308 (16)***
	200만 원대	19.17	46.11	28.33	3.08	3.31	
	300만 원대	19.11	43.87	31.52	3.90	1.59	
	400만 원대	15.66	47.50	30.88	3.42	2.54	
	500만 원 이상	24.22	44.20	24.97	4.60	2.02	
학력	중졸 이하	14.02	46.10	33.53	4.94	1.41	40.541(8)***
	고졸	17.86	47.69	26.83	5.26	2.37	
	대졸 이상	23.34	43.30	27.83	3.30	2.23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20.85	43.26	29.78	3.87	2.24	58.698 (20)***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16.06	45.48	28.79	6.38	3.29	
	고용주, 자영자	17.57	49.45	27.85	4.16	0.97	
	무급가족종사자	12.90	48.86	32.82	5.41	0.00	
	실업자	16.31	40.76	33.95	4.17	4.80	
	비경제활동인구	22.38	45.28	25.40	4.35	2.58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21.27	42.62	29.65	4.09	2.38	7.206(4)
	비정규직	16.13	46.57	29.36	5.24	2.70	
이념적 성향	보수적	20.86	45.86	26.45	5.80	1.03	9.987(8)
	중도적	17.52	46.12	29.78	3.88	2.71	
	진보적	23.06	44.04	26.80	3.91	2.18	

주: "귀하가 생각하시기에 한국에는 다음 집단들 간의 갈등이 어느 정도 심하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부표 3-128〉 집단 간 갈등 수준: (10) 다문화갈등(외국인노동자, 결혼이주여성, 북한이탈주민 등)
(단위: %)

구분		①갈등이 매우 심하다	②갈등이 대체로 심하다	③갈등이 별로 심하지 않다	④갈등이 전혀 심하지 않다	⑤모르겠다	X ² (df)
전체		7.37	42.16	42.32	4.82	3.34	
성별	남성	6.54	40.93	44.53	4.83	3.16	8.624(4)
	여성	8.23	43.43	40.03	4.80	3.52	
연령	20대 이하	6.51	36.88	45.04	5.58	6.00	49.042 (16)***
	30대	4.53	46.71	43.03	3.40	2.33	
	40대	7.26	46.99	39.74	3.92	2.09	
	50대	12.20	38.79	42.29	4.79	1.93	
	60대 이상	5.79	41.59	41.81	6.30	4.51	
지역1	수도권	9.44	41.61	41.62	3.50	3.82	12.764(4)*
	비수도권	5.24	42.72	43.03	6.17	2.84	
지역2	대도시	6.59	44.53	41.20	5.15	2.53	36.087(8)***
	중소도시	8.16	40.69	42.46	4.24	4.45	
	농어촌	6.73	38.27	47.56	6.60	0.84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5.04	45.63	43.19	3.97	2.17	6.518(12)
	중하층	8.64	41.29	42.27	5.02	2.77	
	중간층	6.44	42.01	43.01	4.40	4.14	
	중상층(상층)	11.90	41.38	34.91	8.78	3.03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5.02	41.23	44.47	5.69	3.59	10.372(16)
	200만 원대	5.86	46.30	39.15	5.22	3.47	
	300만 원대	5.72	39.65	45.08	6.05	3.50	
	400만 원대	6.20	45.28	41.60	2.92	4.00	
	500만 원 이상	9.92	40.68	41.95	4.58	2.87	
학력	중졸 이하	5.23	38.08	45.71	7.00	3.98	14.704(8)
	고졸	6.36	43.24	41.52	4.95	3.94	
	대졸 이상	9.03	42.47	41.97	3.98	2.56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6.17	43.07	42.56	4.74	3.46	38.175 (20)**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6.22	46.96	36.42	6.71	3.70	
	고용주, 자영자	6.80	41.31	45.15	4.51	2.24	
	무급가족종사자	5.61	40.55	45.27	7.02	1.54	
	실업자	4.54	34.36	51.98	4.25	4.87	
	비경제활동인구	10.21	41.27	40.15	4.42	3.96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6.11	43.05	42.37	4.88	3.59	3.117(4)
	비정규직	6.34	46.09	38.34	5.91	3.32	
이념적 성향	보수적	5.74	43.95	42.26	5.10	2.95	9.438(8)
	중도적	6.56	42.21	43.27	4.51	3.44	
	진보적	10.56	40.34	40.45	5.16	3.49	

주: “귀하가 생각하시기에 한국에는 다음 집단들 간의 갈등이 어느 정도 심하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부표 3-129〉 집단 간 갈등 수준: (11) 개발주의자와 환경보호주의자 간의 갈등

(단위: %)

구분		①갈등이 매우 심하다	②갈등이 대체로 심하다	③갈등이 별로 심하지 않다	④갈등이 전혀 심하지 않다	⑤모르겠다	X ² (df)
전체		13.02	49.08	30.79	2.58	4.53	
성별	남성	13.19	49.16	30.30	2.62	4.72	2.811(4)
	여성	12.84	48.99	31.30	2.53	4.34	
연령	20대 이하	8.43	40.73	37.37	2.06	11.42	83.744 (16)***
	30대	10.32	54.78	28.15	2.29	4.47	
	40대	12.55	52.91	28.21	2.81	3.52	
	50대	21.44	47.61	26.97	2.41	1.57	
	60대 이상	11.38	49.37	33.66	3.25	2.35	
지역1	수도권	14.68	45.82	32.01	1.79	5.70	21.370(4)***
	비수도권	11.31	52.44	29.54	3.39	3.33	
지역2	대도시	11.70	51.99	28.99	2.50	4.82	30.040(8)***
	중소도시	14.00	45.16	33.45	2.57	4.82	
	농어촌	14.14	57.47	24.20	3.06	1.12	
주관적 소득 계층	하층	9.82	54.18	29.86	3.21	2.93	21.370(12)*
	중하층	16.00	49.11	29.44	2.01	3.45	
	중간층	11.10	48.37	32.20	2.44	5.89	
	중상층(상층)	16.26	43.31	30.20	6.10	4.13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10.23	48.54	33.25	2.81	5.17	22.918(16)
	200만 원대	9.58	53.21	29.40	2.55	5.26	
	300만 원대	13.56	45.98	32.64	2.84	4.98	
	400만 원대	9.70	47.56	33.18	3.81	5.75	
	500만 원 이상	16.38	49.54	28.79	1.92	3.37	
학력	중졸 이하	14.02	46.99	32.88	3.79	2.32	13.861(8)
	고졸	12.09	48.93	32.50	2.42	4.06	
	대졸 이상	13.57	49.91	28.49	2.33	5.70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12.17	48.93	32.09	1.92	4.90	58.548 (20)***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13.65	49.16	28.59	4.27	4.34	
	고용주, 자영자	14.30	49.05	31.90	3.05	1.70	
	무급가족종사자	16.05	49.95	32.43	0.92	0.65	
	실업자	13.28	41.95	27.39	1.99	15.40	
	비경제활동인구	12.46	50.09	29.30	2.60	5.54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11.55	49.89	31.73	1.74	5.09	5.388(4)
	비정규직	14.87	46.68	30.31	4.17	3.98	
이념적 성향	보수적	16.35	46.57	32.56	1.59	2.93	21.795(8)**
	중도적	11.19	50.61	30.89	2.94	4.37	
	진보적	13.51	48.41	28.89	2.78	6.40	

주: “귀하가 생각하시기에 한국에는 다음 집단들 간의 갈등이 어느 정도 심하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부표 3-130〉 세대갈등의 가장 큰 원인

(단위: %)

구분		① 관할은 일자리 경쟁	② 소득·재산의 격차	③ 정치적 영향력의 차이	④ 언론 및 방송매체의 갈등 조장	⑤ 기타	X ² (df)
전체		10.67	46.52	19.87	20.95	1.99	
성별	남성	10.60	46.35	19.46	21.25	2.34	4.866 (9)
	여성	10.74	46.70	20.29	20.65	1.63	
연령	20대 이하	14.65	42.42	18.17	22.65	2.12	937.026 (36)***
	30대	9.97	44.87	21.32	22.01	1.83	
	40대	8.40	46.05	18.92	23.51	3.13	
	50대	10.09	48.78	18.40	20.51	2.23	
	60대 이상	10.51	49.90	22.63	16.34	0.62	
지역1	수도권	11.53	42.65	20.05	23.04	2.74	106.548 (9)***
	비수도권	9.78	50.51	19.69	18.81	1.22	
지역2	대도시	11.47	45.76	22.44	19.10	1.23	184.477 (18)***
	중소도시	10.22	45.63	17.75	23.59	2.81	
	농어촌	9.03	56.24	18.88	14.79	1.06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8.89	55.57	20.52	14.50	0.52	186.953 (27)***
	중하층	9.75	46.89	18.56	22.53	2.28	
	중간층	10.88	45.08	20.65	21.21	2.18	
	중상층(상층)	19.05	35.63	20.64	22.83	1.86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10.59	50.96	17.84	18.57	2.04	255.433 (36)***
	200만 원대	9.80	50.37	20.67	17.41	1.74	
	300만 원대	9.86	52.52	17.64	19.09	0.89	
	400만 원대	12.36	50.60	17.70	17.66	1.69	
	500만 원 이상	10.71	39.38	22.03	25.22	2.65	
학력	중졸 이하	11.35	57.21	15.98	14.24	1.21	628.471 (18)***
	고졸	11.04	47.04	18.26	21.55	2.10	
	대졸 이상	10.09	42.54	22.66	22.57	2.14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9.98	45.93	21.03	19.90	3.16	253.230 (45)***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14.16	47.01	15.14	21.54	2.16	
	고용주, 자영자	10.79	45.54	18.22	23.45	2.00	
	무급가족종사자	4.68	53.59	26.23	14.13	1.37	
	실업자	9.63	50.41	21.13	15.38	3.45	
	비경제활동인구	10.81	46.88	20.83	21.11	0.38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9.04	46.40	20.93	20.32	3.31	35.513 (9)***
	비정규직	15.57	45.56	16.74	20.11	2.02	
이념적 성향	보수적	7.25	47.76	20.54	21.94	2.50	114.876 (18)***
	중도적	11.81	47.45	20.04	18.84	1.86	
	진보적	11.65	43.45	18.87	24.28	1.75	

주: “귀하는 다음 중 세대갈등의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부표 3-131〉 성별 갈등 발생의 가장 큰 원인

(단위: %)

구분		① 성별에 따른 특혜와 차별	② 어려서부터 학습된 성별에 대한 고정관념	③ 언론 및 방송매체의 갈등 조장	④ 가부장적 사회문화	⑤ 기타	X ² (df)
전체		22.90	36.06	20.08	20.71	0.26	
성별	남성	24.01	35.23	21.27	19.05	0.44	24.876(4)***
	여성	21.75	36.91	18.84	22.43	0.07	
연령	20대 이하	22.11	35.26	22.63	18.94	1.06	46.496 (16)***
	30대	26.09	35.51	21.72	16.61	0.07	
	40대	28.57	34.06	17.06	20.30	0.01	
	50대	22.81	35.60	18.16	23.34	0.09	
	60대 이상	15.16	39.78	21.29	23.67	0.10	
지역1	수도권	25.41	33.07	21.58	19.61	0.33	15.625(4)**
	비수도권	20.31	39.14	18.52	21.84	0.18	
지역2	대도시	21.78	36.28	18.95	22.87	0.12	26.933(8)***
	중소도시	24.87	33.39	21.89	19.48	0.38	
	농어촌	16.76	51.52	14.99	16.48	0.25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18.77	38.59	16.17	26.31	0.16	20.626(12)
	중하층	22.84	34.25	22.16	20.58	0.18	
	중간층	24.23	36.88	19.44	19.26	0.20	
	중상층(상층)	21.49	35.62	20.29	21.09	1.50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19.86	37.45	19.09	22.85	0.76	34.398 (16)**
	200만 원대	17.94	38.02	21.30	22.62	0.11	
	300만 원대	24.68	37.15	17.84	20.33	0.00	
	400만 원대	28.42	37.15	17.60	16.84	0.00	
	500만 원 이상	22.98	33.94	21.83	20.90	0.35	
학력	중졸 이하	21.94	42.32	15.37	20.17	0.20	17.888(8)*
	고졸	20.40	37.91	20.24	21.28	0.18	
	대졸 이상	25.58	32.26	21.46	20.35	0.35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26.66	34.75	20.81	17.57	0.21	21.226(20)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25.31	33.56	18.78	21.64	0.70	
	고용주, 자영자	20.83	36.81	21.86	20.36	0.14	
	무급가족종사자	16.95	40.40	14.99	27.11	0.56	
	실업자	21.10	33.54	20.00	23.83	1.53	
	비경제활동인구	19.98	37.83	18.49	23.62	0.08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26.64	34.08	21.25	17.80	0.23	1.564(4)
	비정규직	25.69	35.50	18.15	20.12	0.54	
이념적 성향	보수적	17.39	33.74	25.48	22.71	0.68	17.945(8)*
	중도적	25.84	37.56	17.19	19.22	0.19	
	진보적	22.24	35.24	20.72	21.79	0.00	

주: “귀하는 다음 중 성별 갈등 발생의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390 사회통합 실태 진단 및 대응 방안 연구(VI): 사회통합 상태 진단

〈부표 3-132〉 공정성 인식: (1) 두뇌(능력)

(단위: %)

구분		①매우 공정하다	②약간 공정하다	③보통이다	④약간 불공정하다	⑤매우 불공정하다	X ² (df)
전체		1.55	31.12	51.06	15.61	0.65	
성별	남성	1.72	31.97	49.77	15.90	0.64	13.064(4)*
	여성	1.38	30.23	52.40	15.32	0.66	
연령	20대 이하	2.17	35.13	49.31	12.73	0.66	65.240 (16)***
	30대	1.20	36.29	48.50	13.71	0.30	
	40대	0.84	31.88	50.47	16.67	0.14	
	50대	2.22	30.79	50.68	15.48	0.83	
	60대 이상	1.33	22.40	55.96	19.04	1.27	
지역1	수도권	1.72	31.55	50.57	15.59	0.57	3.497(4)
	비수도권	1.38	30.67	51.57	15.64	0.73	
지역2	대도시	1.92	29.39	51.93	16.14	0.62	26.097(8)**
	중소도시	1.28	34.44	49.13	14.61	0.54	
	농어촌	1.25	19.92	58.31	19.00	1.52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1.10	21.49	51.10	24.70	1.62	132.036 (12)***
	중하층	0.65	25.23	56.48	17.33	0.30	
	중간층	2.19	35.87	48.91	12.28	0.75	
	중상층(상층)	3.30	52.59	32.72	11.39	0.00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1.72	20.28	52.27	24.06	1.68	102.582 (16)***
	200만 원대	1.11	23.73	55.44	19.01	0.71	
	300만 원대	0.87	29.52	54.24	14.62	0.76	
	400만 원대	0.34	31.70	51.77	16.09	0.09	
	500만 원 이상	2.43	38.16	47.32	11.65	0.45	
학력	중졸 이하	0.98	18.65	59.03	20.60	0.73	76.190(8)***
	고졸	1.10	27.11	53.56	17.47	0.75	
	대졸 이상	2.17	38.99	46.09	12.22	0.53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1.78	32.90	50.71	14.48	0.13	50.086 (20)***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0.85	29.06	52.17	17.58	0.33	
	고용주, 자영자	1.34	32.82	51.36	14.01	0.49	
	무급가족종사자	0.00	14.84	65.49	18.71	0.96	
	실업자	1.32	23.47	46.16	27.03	2.02	
	비경제활동인구	1.86	30.43	50.34	16.04	1.34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1.95	33.51	50.61	13.83	0.10	16.619(4)**
	비정규직	0.66	28.41	52.09	18.49	0.36	
이념적 성향	보수적	1.69	29.26	51.71	16.30	1.04	16.091(8)*
	중도적	1.55	30.13	53.16	14.49	0.66	
	진보적	1.43	34.89	46.21	17.22	0.25	

주: “한국 사회로부터 귀가 받는 대우는 다음 사항들에 비하여 어느 정도 공정 또는 불공정하다고 느끼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부표 3-133〉 한국 사회로부터 귀하가 받는 대우의 공정성: (2) 일과 관련된 기술

(단위: %)

구분		①매우 공정하다	②약간 공정하다	③보통이다	④약간 불공정하다	⑤매우 불공정하다	X ² (df)
전체		2.25	30.91	44.67	20.67	1.51	
성별	남성	2.28	32.95	42.10	20.89	1.78	19.567(4)***
	여성	2.21	28.79	47.33	20.45	1.22	
연령	20대 이하	2.34	30.27	47.39	19.30	0.69	42.194 (16)***
	30대	3.19	37.87	40.38	17.74	0.83	
	40대	1.46	30.74	47.25	19.34	1.20	
	50대	2.21	32.71	42.09	21.41	1.58	
	60대 이상	2.15	23.60	46.04	25.11	3.09	
지역1	수도권	2.61	35.06	39.87	21.25	1.21	19.246(4)***
	비수도권	1.87	26.63	49.61	20.08	1.81	
지역2	대도시	2.75	29.60	46.05	20.46	1.14	7.281(8)
	중소도시	1.85	33.39	42.38	20.59	1.78	
	농어촌	1.94	22.64	51.30	22.31	1.81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2.54	21.99	43.51	27.68	4.27	112.969 (12)***
	중하층	1.35	25.76	47.21	24.17	1.50	
	중간층	2.54	35.87	43.56	17.19	0.85	
	중상층(상층)	5.12	44.08	39.55	10.44	0.80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2.19	18.86	49.36	25.74	3.86	106.408 (16)***
	200만 원대	1.71	23.73	47.46	25.71	1.39	
	300만 원대	1.31	29.36	45.81	22.35	1.16	
	400만 원대	1.17	28.82	50.12	18.25	1.64	
	500만 원 이상	3.29	39.29	39.38	17.20	0.85	
학력	중졸 이하	1.37	18.51	48.19	28.72	3.21	65.064(8)***
	고졸	1.65	27.77	47.63	21.47	1.49	
	대졸 이상	3.10	37.94	40.71	17.29	0.97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3.04	35.41	39.23	21.33	0.99	79.345 (20)***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0.97	23.72	50.51	23.47	1.33	
	고용주, 자영자	1.77	36.77	41.88	17.91	1.68	
	무급가족종사자	1.86	22.19	52.53	23.00	0.42	
	실업자	1.60	23.89	37.75	32.79	3.97	
	비경제활동인구	2.23	24.41	51.94	19.60	1.82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3.16	36.68	37.92	21.31	0.92	35.001(4)***
	비정규직	1.16	23.22	51.18	23.03	1.42	
이념적 성향	보수적	2.12	29.73	43.94	21.89	2.32	22.128(8)**
	중도적	2.37	30.16	46.17	19.76	1.55	
	진보적	2.12	33.55	42.34	21.34	0.65	

주: “한국 사회로부터 귀하가 받는 대우는 다음 사항들에 비하여 어느 정도 공정 또는 불공정하다고 느끼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부표 3-134〉 공정성 인식: (3) 노력

(단위: %)

구분		①매우 공정하다	②약간 공정하다	③보통이다	④약간 불공정하다	⑤매우 불공정하다	X ² (df)
전체		2.01	23.46	44.61	27.37	2.55	
성별	남성	2.44	24.85	44.16	26.14	2.41	12.766(4)*
	여성	1.56	22.03	45.07	28.64	2.69	
연령	20대 이하	2.56	23.51	47.62	24.24	2.07	56.816 (16)***
	30대	3.73	26.59	42.16	25.28	2.24	
	40대	1.33	21.05	47.65	27.97	2.00	
	50대	0.88	29.37	40.02	27.00	2.72	
	60대 이상	1.82	16.95	45.70	31.90	3.63	
지역1	수도권	2.07	23.52	46.52	26.09	1.80	7.723(4)
	비수도권	1.94	23.41	42.63	28.69	3.32	
지역2	대도시	2.63	23.86	41.58	28.70	3.22	18.590(8)*
	중소도시	1.49	24.29	47.11	25.09	2.02	
	농어촌	1.78	16.12	45.70	34.23	2.16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1.34	15.32	43.12	34.78	5.44	115.377 (12)***
	중하층	1.26	18.94	47.92	29.01	2.88	
	중간층	2.45	27.37	43.49	25.07	1.62	
	중상층(상층)	4.83	39.50	35.18	18.89	1.61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1.60	17.45	44.15	31.64	5.15	99.851 (16)***
	200만 원대	1.53	18.20	43.72	33.77	2.78	
	300만 원대	1.28	19.96	51.17	24.40	3.19	
	400만 원대	0.88	20.63	46.12	30.05	2.31	
	500만 원 이상	3.08	30.15	41.75	23.61	1.40	
학력	중졸 이하	0.22	14.86	49.49	31.74	3.69	60.934(8)***
	고졸	1.67	20.89	45.55	29.24	2.65	
	대졸 이상	2.91	28.71	42.12	24.17	2.09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3.11	25.95	43.51	25.67	1.75	72.225 (20)***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0.42	17.14	46.76	32.75	2.94	
	고용주, 자영자	1.46	23.87	46.91	25.26	2.49	
	무급가족종사자	1.76	18.62	40.48	35.77	3.36	
	실업자	1.60	20.53	33.61	37.51	6.73	
	비경제활동인구	1.74	22.99	44.92	27.50	2.85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3.33	26.28	43.55	25.07	1.77	30.335(4)***
	비정규직	0.49	18.35	45.93	32.62	2.61	
이념적 성향	보수적	1.78	21.40	43.04	30.64	3.15	14.269(8)
	중도적	1.94	23.85	45.72	25.85	2.65	
	진보적	2.37	24.67	43.87	27.32	1.78	

주: “한국 사회로부터 귀가 받는 대우는 다음 사항들에 비하여 어느 정도 공정 또는 불공정하다고 느끼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부표 3-135〉 공정성 인식: (4) 학력

(단위: %)

구분		①매우 공정하다	②약간 공정하다	③보통이다	④약간 불공정하다	⑤매우 불공정하다	X ² (df)
전체		1.58	27.95	51.93	16.89	1.64	
성별	남성	1.72	29.84	50.54	16.34	1.55	4.866 (9)
	여성	1.44	25.99	53.38	17.47	1.72	
연령	20대 이하	2.75	31.22	48.04	15.83	2.15	937.026 (36)***
	30대	1.29	34.93	47.63	15.01	1.15	
	40대	1.44	26.20	51.48	19.67	1.21	
	50대	1.21	28.28	53.18	15.42	1.91	
	60대 이상	1.31	20.17	58.50	18.28	1.74	
지역1	수도권	1.33	32.42	49.80	15.06	1.39	106.548 (9)***
	비수도권	1.85	23.35	54.13	18.78	1.89	
지역2	대도시	1.92	26.21	53.50	17.57	0.81	184.477 (18)***
	중소도시	1.50	31.07	49.10	16.02	2.30	
	농어촌	0.25	18.12	60.94	18.65	2.05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0.98	19.91	55.69	21.31	2.10	186.953 (27)***
	중하층	0.72	24.39	54.49	18.54	1.85	
	중간층	2.20	31.39	49.72	15.25	1.44	
	중상층(상층)	3.54	41.22	44.76	9.66	0.82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1.47	19.06	54.44	22.85	2.18	255.433 (36)***
	200만 원대	1.37	22.42	52.44	22.18	1.59	
	300만 원대	0.98	26.67	55.11	16.08	1.16	
	400만 원대	0.78	25.48	53.51	17.91	2.32	
	500만 원 이상	2.27	34.65	48.93	12.74	1.41	
학력	중졸 이하	0.77	15.56	63.13	17.43	3.11	628.471 (18)***
	고졸	1.31	23.64	55.17	18.61	1.27	
	대졸 이상	2.11	36.09	45.20	15.09	1.51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1.81	32.62	49.87	14.34	1.36	253.230 (45)***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0.55	21.65	51.50	23.00	3.30	
	고용주, 자영자	1.35	29.48	54.14	13.83	1.20	
	무급가족종사자	0.00	20.15	62.92	15.97	0.96	
	실업자	4.41	19.75	41.69	31.45	2.71	
비경제활동인구	1.63	24.74	53.11	18.81	1.71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1.98	33.51	49.48	13.56	1.48	35.513 (9)***
	비정규직	0.42	21.95	52.12	22.96	2.54	
이념적 성향	보수적	1.65	25.33	55.39	15.59	2.03	114.876 (18)***
	중도적	1.40	26.92	53.65	16.46	1.57	
	진보적	1.89	32.54	45.16	19.02	1.39	

주: “한국 사회로부터 귀하가 받는 대우는 다음 사항들에 비하여 어느 정도 공정 또는 불공정하다고 느끼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부표 3-136〉 공정성 인식: (5) 경력

(단위: %)

구분		①매우 공정하다	②약간 공정하다	③보통이다	④약간 불공정하다	⑤매우 불공정하다	X ² (df)
전체		1.88	24.52	53.65	18.05	1.90	
성별	남성	2.23	26.83	51.44	17.65	1.86	4.866 (9)
	여성	1.51	22.13	55.94	18.47	1.95	
연령	20대 이하	2.92	24.58	57.21	13.42	1.87	937.026 (36)***
	30대	2.62	30.84	48.92	16.48	1.14	
	40대	1.32	21.99	55.11	19.01	2.57	
	50대	0.99	28.73	50.33	18.04	1.91	
	60대 이상	1.74	17.00	56.56	22.76	1.94	
지역1	수도권	1.86	26.99	52.53	16.97	1.66	106.548 (9)***
	비수도권	1.90	21.97	54.81	19.17	2.15	
지역2	대도시	2.30	24.60	52.96	18.86	1.28	184.477 (18)***
	중소도시	1.62	25.76	52.99	17.13	2.50	
	농어촌	1.14	16.34	61.54	19.39	1.60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0.64	18.26	56.04	22.52	2.54	186.953 (27)***
	중하층	1.12	21.17	54.50	21.28	1.94	
	중간층	2.93	27.01	53.57	14.68	1.81	
	중상층(상층)	1.03	40.22	43.35	14.43	0.97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1.52	16.82	54.10	25.16	2.39	255.433 (36)***
	200만 원대	1.79	17.26	54.87	23.71	2.36	
	300만 원대	1.03	21.17	58.24	17.71	1.85	
	400만 원대	1.46	23.77	53.73	19.34	1.69	
	500만 원 이상	2.55	31.69	51.05	13.05	1.66	
학력	중졸 이하	0.26	14.26	60.91	22.86	1.71	628.471 (18)***
	고졸	1.66	22.19	54.86	19.52	1.78	
	대졸 이상	2.62	30.07	50.14	15.10	2.09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2.50	29.54	50.86	14.87	2.24	253.230 (45)***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0.63	16.71	57.65	23.83	1.18	
	고용주, 자영자	1.82	28.01	51.52	16.71	1.94	
	무급가족종사자	0.96	18.56	63.20	16.33	0.95	
	실업자	1.98	17.48	43.13	34.17	3.23	
비경제활동인구	1.65	19.41	58.08	19.24	1.62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2.69	30.15	50.53	15.02	1.61	35.513 (9)***
	비정규직	0.59	18.12	56.92	21.36	3.01	
이념적 성향	보수적	2.20	21.79	55.81	17.69	2.51	114.876 (18)***
	중도적	1.78	24.29	54.02	18.27	1.63	
	진보적	1.77	27.58	50.83	17.97	1.86	

주: “한국 사회로부터 귀하가 받는 대우는 다음 사항들에 비하여 어느 정도 공정 또는 불공정하다고 느끼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부표 3-137〉 평등 인식: (1) 교육 기회

(단위 : %)

구분		①매우 평등하다	②대체로 평등하다	③보통이다	④대체로 불평등하다	⑤매우 불평등하다	X ² (df)
전체		5.72	51.18	27.93	14.23	0.94	
성별	남성	5.22	50.03	30.51	13.68	0.57	2.670(4)
	여성	6.23	52.36	25.27	14.80	1.33	
연령	20대 이하	8.45	48.20	29.42	11.97	1.95	20.144(16)
	30대	5.23	56.64	24.32	12.96	0.86	
	40대	5.49	51.50	27.73	14.42	0.87	
	50대	4.70	49.67	30.65	14.20	0.78	
	60대 이상	4.91	50.31	27.16	17.28	0.35	
지역1	수도권	6.26	51.80	27.80	13.04	1.11	3.025(4)
	비수도권	5.16	50.54	28.07	15.46	0.78	
지역2	대도시	7.17	50.48	27.17	13.86	1.32	11.680(8)
	중소도시	4.46	51.04	29.34	14.43	0.73	
	농어촌	5.55	55.93	23.33	14.99	0.20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4.35	44.49	29.89	19.88	1.38	61.384(12)***
	중하층	5.39	49.32	30.36	14.05	0.88	
	중간층	6.18	52.79	26.86	13.25	0.92	
	중상층(상층)	7.13	65.26	16.21	10.85	0.55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4.82	44.15	30.87	18.80	1.36	27.466(16)*
	200만 원대	3.90	51.88	28.84	15.18	0.21	
	300만 원대	3.39	52.15	31.60	12.04	0.82	
	400만 원대	4.63	54.68	25.47	14.93	0.30	
	500만 원 이상	8.14	51.51	25.99	12.96	1.40	
학력	중졸 이하	2.90	46.54	32.30	17.48	0.78	22.378(8)**
	고졸	5.21	48.37	31.04	14.96	0.41	
	대졸 이상	7.11	55.36	23.56	12.47	1.51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6.49	51.02	28.62	12.89	0.99	26.654(20)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5.30	55.17	21.04	17.29	1.19	
	고용주, 자영자	7.27	48.34	28.96	14.51	0.91	
	무급가족종사자	3.58	52.10	32.24	11.05	1.02	
	실업자	3.71	48.57	27.44	19.37	0.90	
비경제활동인구	4.00	52.71	28.27	14.18	0.83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6.45	51.74	28.64	12.11	1.06	13.537(4)**
	비정규직	5.68	52.39	22.73	18.24	0.96	
이념적 성향	보수적	5.08	46.37	28.90	19.46	0.19	30.532(8)***
	중도적	4.16	53.04	28.25	12.97	1.58	
	진보적	9.45	52.04	26.36	11.76	0.38	

주: “귀하는 한국 사회에서 다음의 사항들이 어느 정도 평등 또는 불평등하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부표 3-138〉 평등 인식: (2) 취업 기회

(단위: %)

구분		①매우 평등하다	②대체로 평등하다	③보통이다	④대체로 불평등하다	⑤매우 불평등하다	χ ² (df)
전체		1.65	23.12	38.11	33.08	4.04	
성별	남성	2.11	21.88	40.77	31.66	3.59	5.361(4)
	여성	1.19	24.39	35.36	34.55	4.52	
연령	20대 이하	1.47	20.98	41.26	31.93	4.36	24.388(16)
	30대	1.67	22.48	42.07	30.01	3.78	
	40대	1.40	27.94	34.60	32.62	3.44	
	50대	2.22	23.29	39.28	29.93	5.27	
	60대 이상	1.47	20.60	34.02	40.58	3.32	
지역1	수도권	2.11	21.71	39.67	31.81	4.70	19.285(4)***
	비수도권	1.18	24.56	36.50	34.38	3.37	
지역2	대도시	1.75	21.99	37.48	33.63	5.14	38.193(8)***
	중소도시	1.75	24.20	38.94	31.67	3.44	
	농어촌	0.48	22.56	36.42	38.80	1.73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2.30	13.63	36.87	40.53	6.66	64.642 (12)***
	중하층	0.76	21.84	39.27	33.52	4.61	
	중간층	1.61	26.20	37.13	31.92	3.14	
	중상층(상층)	6.52	27.40	41.29	22.91	1.88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0.73	17.73	32.69	41.18	7.67	28.624(16)*
	200만 원대	1.75	19.15	38.53	37.45	3.12	
	300만 원대	0.99	20.46	42.70	32.73	3.12	
	400만 원대	1.61	25.49	39.24	30.90	2.76	
	500만 원 이상	2.22	26.70	37.41	29.60	4.07	
학력	중졸 이하	0.95	17.69	36.33	40.49	4.54	25.048(8)**
	고졸	1.69	21.97	36.98	35.46	3.90	
	대졸 이상	1.85	25.98	39.76	28.39	4.02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1.57	24.27	40.14	29.46	4.56	45.277(20)**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0.77	24.48	33.68	32.55	8.51	
	고용주, 자영자	2.16	23.61	36.15	34.98	3.10	
	무급가족종사자	0.92	26.90	33.04	35.19	3.96	
	실업자	1.58	15.69	34.33	44.30	4.11	
	비경제활동인구	1.68	21.46	39.71	34.44	2.71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1.70	24.70	40.20	28.91	4.50	17.283(4)**
	비정규직	0.64	23.37	35.02	33.24	7.73	
이념적 성향	보수적	0.81	22.55	35.54	36.87	4.23	15.180(8)
	중도적	1.40	21.01	40.20	32.77	4.63	
	진보적	2.98	27.91	36.37	30.06	2.68	

주: “귀하는 한국 사회에서 다음의 사항들이 어느 정도 평등 또는 불평등하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부표 3-139〉 평등 인식: (3) 승진, 승급기회

(단위 : %)

구분		①매우 평등하다	②대체로 평등하다	③보통이다	④대체로 불평등하다	⑤매우 불평등하다	X ² (df)
전체		0.71	15.80	40.58	39.51	3.40	
성별	남성	1.04	15.85	41.62	38.31	3.19	6.448(4)
	여성	0.38	15.75	39.50	40.75	3.62	
연령	20대 이하	0.31	18.48	39.93	37.93	3.35	19.045(16)
	30대	0.53	14.41	42.77	37.58	4.71	
	40대	0.24	14.56	42.33	39.44	3.43	
	50대	2.16	17.33	37.37	39.96	3.19	
	60대 이상	0.22	14.25	40.77	42.28	2.47	
지역1	수도권	0.84	16.04	38.55	41.08	3.49	11.921(4)*
	비수도권	0.58	15.56	42.67	37.89	3.31	
지역2	대도시	0.52	15.27	40.33	38.60	5.28	40.700(8)***
	중소도시	0.96	16.37	39.82	40.76	2.09	
	농어촌	0.23	15.23	46.69	36.69	1.17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1.14	11.31	36.03	47.30	4.22	66.035(12)***
	중하층	0.16	14.31	40.06	41.23	4.23	
	중간층	0.47	17.07	43.08	36.59	2.79	
	중상층(상층)	5.45	25.33	33.48	34.72	1.03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0.72	10.48	43.05	40.39	5.36	28.866(16)*
	200만 원대	0.54	11.61	40.14	45.96	1.76	
	300만 원대	0.31	14.38	39.15	42.59	3.58	
	400만 원대	0.18	14.20	45.99	37.05	2.58	
	500만 원 이상	1.15	20.49	38.41	36.33	3.63	
학력	중졸 이하	0.11	11.74	41.42	43.45	3.27	15.679(8)*
	고졸	0.65	15.13	39.78	41.58	2.85	
	대졸 이상	0.96	17.77	41.05	36.25	3.96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0.66	15.36	41.82	38.85	3.31	36.173(20)*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0.37	14.00	31.05	45.90	8.68	
	고용주, 자영자	1.39	16.52	42.19	36.78	3.11	
	무급가족종사자	0.00	17.90	42.65	38.09	1.36	
	실업자	0.00	9.22	42.24	43.86	4.68	
	비경제활동인구	0.45	16.99	40.54	40.05	1.96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0.70	15.96	40.92	38.83	3.58	8.690(4)
	비정규직	0.33	12.81	35.82	44.31	6.74	
이념적 성향	보수적	0.59	14.24	40.27	42.23	2.67	22.070(8)**
	중도적	0.31	14.11	43.31	38.51	3.76	
	진보적	1.63	20.72	35.36	38.92	3.37	

주: “귀하는 한국 사회에서 다음의 사항들이 어느 정도 평등 또는 불평등하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부표 3-140〉 평등 인식: (4) 법의 집행

(단위: %)

구분		①매우 평등하다	②대체로 평등하다	③보통이다	④대체로 불평등하다	⑤매우 불평등하다	χ ² (df)
전체		1.98	16.80	34.08	37.90	9.24	
성별	남성	2.00	16.20	34.14	38.65	9.02	8.896(4)
	여성	1.96	17.43	34.03	37.12	9.46	
연령	20대 이하	1.00	16.33	35.36	38.40	8.92	14.217(16)
	30대	1.86	17.99	34.53	34.63	10.99	
	40대	2.14	19.57	31.87	35.90	10.52	
	50대	2.89	17.60	33.64	37.89	7.99	
	60대 이상	1.89	12.57	35.21	42.36	7.98	
지역1	수도권	1.89	19.91	32.49	35.75	9.95	17.666(4)**
	비수도권	2.07	13.60	35.72	40.11	8.50	
지역2	대도시	1.73	15.83	38.08	34.99	9.37	29.707(8)***
	중소도시	2.32	18.42	30.28	39.37	9.60	
	농어촌	1.23	12.10	35.70	44.75	6.22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1.88	10.83	35.83	42.79	8.67	55.194(12)***
	중하층	0.89	17.48	31.62	39.64	10.37	
	중간층	1.79	18.25	35.37	35.83	8.76	
	중상층(상층)	11.04	13.72	35.93	32.41	6.89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1.73	13.02	38.95	36.29	10.00	11.298(16)
	200만 원대	0.65	13.03	35.57	40.71	10.03	
	300만 원대	1.08	12.16	39.12	39.52	8.11	
	400만 원대	1.57	21.13	30.56	36.63	10.12	
	500만 원 이상	3.12	19.84	31.10	37.14	8.80	
학력	중졸 이하	1.41	10.76	34.09	45.01	8.73	14.959(8)
	고졸	1.99	14.53	36.72	38.60	8.16	
	대졸 이상	2.15	20.93	31.58	34.91	10.43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1.71	18.69	32.37	38.85	8.38	15.319(20)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0.42	12.36	34.49	40.22	12.52	
	고용주, 자영자	3.45	15.25	35.20	38.57	7.52	
	무급가족종사자	1.71	12.92	28.32	46.40	10.65	
	실업자	2.22	16.21	32.83	39.30	9.44	
	비경제활동인구	1.56	17.73	35.68	34.54	10.50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1.87	19.32	30.69	39.29	8.83	13.228(4)*
	비정규직	0.32	12.23	38.22	38.78	10.45	
이념적 성향	보수적	3.09	12.63	33.15	39.24	11.89	18.626(8)*
	중도적	1.25	16.15	36.13	37.91	8.56	
	진보적	2.38	22.12	30.84	36.58	8.07	

주: “귀하는 한국 사회에서 다음의 사항들이 어느 정도 평등 또는 불평등하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부표 3-141〉 평등 인식: (5) 여성에 대한 대우

(단위 : %)

구분		①매우 평등하다	②대체로 평등하다	③보통이다	④대체로 불평등하다	⑤매우 불평등하다	X ² (df)
전체		1.63	25.32	46.73	23.98	2.34	
성별	남성	2.46	27.39	48.74	19.23	2.18	62.677(4)***
	여성	0.77	23.18	44.65	28.89	2.51	
연령	20대 이하	3.05	21.54	49.77	22.44	3.21	45.573(16)***
	30대	0.59	23.01	49.12	24.17	3.11	
	40대	1.47	21.30	45.00	29.74	2.48	
	50대	1.88	28.48	45.82	21.84	1.98	
	60대 이상	1.14	31.62	44.50	21.64	1.10	
지역1	수도권	1.54	25.31	45.43	24.88	2.85	22.587(4)***
	비수도권	1.73	25.33	48.08	23.05	1.82	
지역2	대도시	1.13	28.18	44.32	23.35	3.02	30.991(8)***
	중소도시	2.01	22.69	47.81	25.45	2.04	
	농어촌	1.98	25.89	53.36	18.24	0.53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1.61	26.15	43.13	26.80	2.32	25.393(12)*
	중하층	1.12	25.07	48.26	23.13	2.43	
	중간층	1.32	24.56	47.62	24.13	2.37	
	중상층(상층)	7.65	31.39	37.30	22.05	1.62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2.62	27.51	44.69	23.00	2.18	10.880(16)
	200만 원대	1.30	22.38	51.73	22.22	2.37	
	300만 원대	1.01	25.26	49.02	22.06	2.65	
	400만 원대	0.72	26.93	46.57	23.84	1.94	
	500만 원 이상	2.04	25.13	44.55	25.86	2.42	
학력	중졸 이하	1.00	27.99	49.00	21.14	0.87	11.776(8)
	고졸	1.76	25.70	44.75	25.96	1.83	
	대졸 이상	1.72	24.09	47.87	23.02	3.31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1.05	23.44	49.55	23.94	2.03	26.811(20)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0.64	32.72	38.65	24.48	3.51	
	고용주, 자영자	2.11	28.55	45.73	20.85	2.75	
	무급가족종사자	3.16	28.17	45.87	21.49	1.30	
	실업자	5.63	20.30	44.03	24.46	5.58	
	비경제활동인구	1.63	22.72	47.32	26.67	1.66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1.12	23.49	49.09	24.15	2.15	7.270(4)
	비정규직	0.57	30.45	42.32	23.81	2.86	
이념적 성향	보수적	2.20	26.92	45.51	23.58	1.79	15.902(8)*
	중도적	0.81	25.59	46.40	25.38	1.82	
	진보적	2.74	23.24	48.58	21.53	3.92	

주: “귀하는 한국 사회에서 다음의 사항들이 어느 정도 평등 또는 불평등하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400 사회통합 실태 진단 및 대응 방안 연구(VI): 사회통합 상태 진단

〈부표 3-142〉 평등 인식: (6) 남성에 대한 대응

(단위 : %)

구분		①매우 평등하다	②대체로 평등하다	③보통이다	④대체로 불평등하다	⑤매우 불평등하다	X ² (df)
전체		2.28	35.40	49.29	11.90	1.13	
성별	남성	2.61	34.66	48.96	12.32	1.45	0.676(4)
	여성	1.93	36.17	49.63	11.47	0.80	
연령	20대 이하	2.44	31.56	49.46	14.64	1.90	31.348(16)*
	30대	1.97	34.33	51.79	11.07	0.84	
	40대	2.99	32.11	49.08	14.35	1.48	
	50대	2.60	37.83	50.26	8.43	0.88	
	60대 이상	1.36	40.69	46.12	11.26	0.57	
지역1	수도권	2.75	37.79	47.77	10.71	0.99	9.566(4)*
	비수도권	1.79	32.95	50.86	13.13	1.27	
지역2	대도시	2.05	35.09	49.29	12.52	1.05	10.578(8)
	중소도시	2.69	36.17	48.26	11.64	1.23	
	농어촌	0.95	32.34	55.67	10.13	0.92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1.59	35.09	49.48	12.47	1.37	16.406(12)
	중하층	1.35	35.09	48.71	13.32	1.52	
	중간층	2.71	35.17	50.29	11.00	0.84	
	중상층(상층)	6.41	40.13	44.43	8.70	0.32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1.51	32.42	50.69	14.80	0.58	23.466(16)
	200만 원대	0.85	31.14	53.62	12.68	1.71	
	300만 원대	2.42	36.97	49.21	9.38	2.03	
	400만 원대	1.13	31.89	54.16	12.28	0.54	
	500만 원 이상	3.48	38.80	45.25	11.53	0.93	
학력	중졸 이하	0.58	33.68	53.05	12.14	0.55	21.935(8)**
	고졸	2.45	33.94	49.02	13.58	1.02	
	대졸 이상	2.67	37.36	48.32	10.23	1.42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2.08	36.00	49.59	11.46	0.87	20.436(20)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2.12	43.39	39.11	14.17	1.21	
	고용주, 자영자	3.68	32.62	50.81	11.52	1.37	
	무급가족종사자	2.07	34.52	54.52	7.91	0.98	
	실업자	1.03	25.09	55.53	15.40	2.95	
	비경제활동인구	1.54	35.72	49.88	11.87	0.99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1.64	36.19	50.01	11.23	0.94	3.411(4)
	비정규직	3.21	41.20	40.49	14.12	0.97	
이념적 성향	보수적	1.21	38.49	45.54	14.04	0.71	13.107(8)
	중도적	1.88	33.80	51.47	11.49	1.36	
	진보적	4.11	35.67	48.48	10.68	1.06	

주: “귀하는 한국 사회에서 다음의 사항들이 어느 정도 평등 또는 불평등하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부표 3-143〉 평등 인식: (7) 장애인에 대한 대우

(단위 : %)

구분		①매우 평등하다	②대체로 평등하다	③보통이다	④대체로 불평등하다	⑤매우 불평등하다	X ² (df)
전체		1.50	18.69	37.89	35.96	5.96	
성별	남성	1.42	19.24	39.21	34.75	5.38	12.588(4)*
	여성	1.59	18.11	36.52	37.22	6.56	
연령	20대 이하	1.88	16.38	34.63	39.34	7.76	16.979(16)
	30대	1.58	15.19	42.33	35.58	5.31	
	40대	0.97	19.50	36.40	35.45	7.68	
	50대	1.55	22.31	36.47	33.61	6.07	
	60대 이상	1.57	19.34	39.90	36.15	3.03	
지역1	수도권	1.42	19.77	34.67	35.64	8.50	65.947(4)***
	비수도권	1.58	17.58	41.21	36.29	3.34	
지역2	대도시	2.44	20.31	33.74	38.41	5.09	32.028(8)***
	중소도시	0.83	17.18	41.43	33.35	7.20	
	농어촌	0.46	19.11	38.69	38.70	3.04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2.21	16.67	33.52	38.57	9.03	25.803(12)*
	중하층	0.84	19.26	35.79	37.55	6.57	
	중간층	1.75	17.74	41.54	34.54	4.44	
	중상층(상층)	2.31	27.34	31.46	31.33	7.56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2.19	16.18	36.09	41.85	3.69	12.860(16)
	200만 원대	1.71	17.70	38.41	36.36	5.83	
	300만 원대	1.48	18.64	39.01	36.92	3.94	
	400만 원대	1.90	16.74	38.22	36.32	6.82	
	500만 원 이상	1.04	20.71	37.69	33.27	7.29	
학력	중졸 이하	2.06	15.45	38.79	41.05	2.66	11.635(8)
	고졸	1.68	19.80	36.31	37.17	5.04	
	대졸 이상	1.15	18.69	39.09	33.16	7.91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1.35	19.90	37.08	35.37	6.30	22.300(20)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2.31	14.46	35.96	37.20	10.06	
	고용주, 자영자	1.06	19.39	42.37	32.49	4.70	
	무급가족종사자	3.45	24.80	46.89	23.88	0.98	
	실업자	1.03	15.04	30.58	47.55	5.80	
	비경제활동인구	1.70	18.03	35.88	38.75	5.64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1.39	20.32	36.90	34.79	6.60	5.195(4)
	비정규직	1.98	14.68	36.66	38.23	8.45	
이념적 성향	보수적	1.25	18.90	39.29	34.69	5.87	6.285(8)
	중도적	1.83	18.95	37.95	36.36	4.90	
	진보적	1.07	17.96	36.41	36.38	8.18	

주: “귀하는 한국 사회에서 다음의 사항들이 어느 정도 평등 또는 불평등하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402 사회통합 실태 진단 및 대응 방안 연구(VI): 사회통합 상태 진단

<부표 3-144> 평등 인식: (8) 외국인노동자, 결혼이주여성,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대응

(단위 : %)

구분		①매우 평등하다	②대체로 평등하다	③보통이다	④대체로 불평등하다	⑤매우 불평등하다	X ² (df)
전체		0.76	11.26	39.76	41.95	6.27	
성별	남성	0.94	11.82	40.76	41.20	5.28	9.995(4)*
	여성	0.57	10.68	38.72	42.72	7.31	
연령	20대 이하	0.33	13.72	31.87	46.57	7.50	13.591(16)
	30대	0.74	10.15	42.12	41.50	5.49	
	40대	0.35	9.10	41.10	40.23	9.23	
	50대	1.94	12.57	41.65	39.13	4.70	
	60대 이상	0.36	10.79	41.58	42.76	4.51	
지역1	수도권	0.81	12.30	38.47	40.32	8.10	28.237(4)***
	비수도권	0.71	10.19	41.08	43.63	4.40	
지역2	대도시	0.30	12.78	36.77	43.75	6.41	14.539(8)
	중소도시	1.06	9.89	42.14	40.50	6.42	
	농어촌	1.46	11.41	41.42	41.05	4.65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0.75	9.27	41.11	38.79	10.08	12.966(12)
	중하층	0.40	11.87	37.86	43.31	6.56	
	중간층	0.41	10.43	42.18	41.93	5.06	
	중상층(상층)	6.12	18.52	29.24	40.18	5.94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0.55	11.25	40.93	41.64	5.64	6.045(16)
	200만 원대	0.90	10.80	40.29	41.48	6.53	
	300만 원대	0.12	11.58	40.52	43.46	4.31	
	400만 원대	0.40	9.16	42.81	42.20	5.43	
	500만 원 이상	1.19	12.13	37.64	41.51	7.54	
학력	중졸 이하	0.46	8.21	47.87	39.64	3.82	10.293(8)
	고졸	0.49	10.96	37.75	44.86	5.94	
	대졸 이상	1.12	12.53	39.01	39.94	7.40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0.55	12.37	39.30	40.90	6.88	31.423(20)*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0.00	8.28	38.68	41.45	11.59	
	고용주, 자영자	1.83	11.46	40.38	42.07	4.26	
	무급가족종사자	0.00	17.24	47.45	33.04	2.28	
	실업자	0.00	9.79	40.55	42.14	7.52	
	비경제활동인구	0.51	10.47	39.43	43.96	5.63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0.60	12.70	39.00	40.38	7.32	6.038(4)
	비정규직	0.00	8.39	39.59	42.64	9.39	
이념적 성향	보수적	0.45	10.00	41.02	41.66	6.87	10.027(8)
	중도적	0.42	12.00	41.49	40.83	5.26	
	진보적	1.74	10.99	35.04	44.50	7.74	

주: "귀하는 한국 사회에서 다음의 사항들이 어느 정도 평등 또는 불평등하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부표 3-145〉 평등 인식: (9) 소득 분배

(단위 : %)

구분		①매우 평등하다	②대체로 평등하다	③보통이다	④대체로 불평등하다	⑤매우 불평등하다	X ² (df)
전체		0.92	10.82	32.12	48.32	7.82	
성별	남성	1.05	11.06	32.95	46.07	8.87	4.903(4)
	여성	0.79	10.58	31.27	50.63	6.73	
연령	20대 이하	1.02	10.84	35.31	43.49	9.34	21.460(16)
	30대	0.77	12.88	29.35	49.11	7.89	
	40대	0.53	8.88	31.13	51.90	7.57	
	50대	2.10	12.90	31.32	46.89	6.79	
	60대 이상	0.14	8.79	33.49	49.92	7.66	
지역1	수도권	1.19	12.82	31.22	49.56	5.21	10.938(4)*
	비수도권	0.64	8.76	33.05	47.03	10.50	
지역2	대도시	0.45	10.23	32.38	48.18	8.75	35.435(8)***
	중소도시	1.48	11.61	32.59	47.18	7.14	
	농어촌	0.00	9.17	27.81	56.15	6.87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0.77	8.26	29.30	51.91	9.76	53.974(12)** *
	중하층	0.49	8.09	29.73	52.52	9.17	
	중간층	0.37	13.15	35.28	44.77	6.42	
	중상층(상층)	8.66	15.51	28.23	41.62	5.99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0.40	9.28	31.49	47.25	11.58	15.562(16)
	200만 원대	1.67	6.46	33.06	51.00	7.82	
	300만 원대	0.47	12.74	30.43	48.77	7.59	
	400만 원대	0.32	13.17	32.04	46.34	8.13	
	500만 원 이상	1.22	11.35	32.72	48.20	6.51	
학력	중졸 이하	0.07	6.38	29.83	55.35	8.36	21.114(8)**
	고졸	0.50	9.83	36.27	45.78	7.62	
	대졸 이상	1.59	13.21	28.94	48.42	7.83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0.30	11.70	30.83	49.07	8.09	21.987(20)
	임금근로자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고용주, 자영자						
	무급가족종사자						
실업자	0.00	11.70	27.23	57.40	3.67		
비경제활동인구	0.59	12.26	33.44	47.01	6.70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0.24	11.86	31.18	48.81	7.91	2.965(4)
	비정규직	0.94	7.41	30.02	52.79	8.84	
이념적 성향	보수적	0.61	9.97	30.02	50.97	8.43	14.166(8)
	중도적	0.68	11.46	34.20	47.26	6.39	
	진보적	1.70	10.35	29.95	47.91	10.10	

주: “귀하는 한국 사회에서 다음의 사항들이 어느 정도 평등 또는 불평등하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404 사회통합 실태 진단 및 대응 방안 연구(VI): 사회통합 상태 진단

〈부표 3-146〉 평등 인식: (10) 부(재산)의 분배

(단위: %)

구분		①매우 평등하다	②대체로 평등하다	③보통이다	④대체로 불평등하다	⑤매우 불평등하다	X ² (df)
전체		1.17	8.29	33.70	48.08	8.76	
성별	남성	1.57	7.73	34.60	46.32	9.78	7.508(4)
	여성	0.77	8.87	32.76	49.89	7.72	
연령	20대 이하	2.10	8.71	35.39	45.25	8.55	27.705(16)*
	30대	0.74	7.26	35.59	47.03	9.38	
	40대	0.56	5.35	35.50	48.55	10.04	
	50대	1.90	12.33	27.35	50.78	7.64	
	60대 이상	0.56	7.60	35.21	48.33	8.29	
지역1	수도권	1.71	7.25	35.44	49.36	6.23	15.636(4)**
	비수도권	0.62	9.36	31.90	46.75	11.38	
지역2	대도시	1.16	9.36	30.56	49.78	9.14	34.469(8)***
	중소도시	1.31	7.27	37.09	45.87	8.47	
	농어촌	0.39	8.77	29.87	52.45	8.52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0.88	7.47	31.44	50.77	9.44	43.263(12)** *
	중하층	0.45	6.71	31.49	50.32	11.04	
	중간층	1.17	8.93	36.38	46.61	6.91	
	중상층(상층)	6.66	15.37	31.23	39.25	7.48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0.42	8.57	31.53	48.79	10.69	4.407(16)
	200만 원대	1.15	7.54	33.13	48.85	9.34	
	300만 원대	0.68	6.30	35.00	48.58	9.44	
	400만 원대	0.75	7.03	34.77	48.49	8.96	
	500만 원 이상	1.82	9.82	33.68	47.16	7.52	
학력	중졸 이하	0.14	7.01	29.16	54.72	8.98	19.383(8)*
	고졸	1.21	7.24	34.78	49.15	7.62	
	대졸 이상	1.48	9.70	34.15	44.89	9.78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0.48	7.35	34.47	47.75	9.96	27.165(20)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0.38	7.55	32.13	52.54	7.40	
	고용주, 자영자	2.24	8.06	36.14	44.16	9.41	
	무급가족종사자	0.00	13.62	28.73	52.53	5.12	
	실업자	2.60	5.45	24.52	54.19	13.25	
	비경제활동인구	1.29	9.82	32.73	49.22	6.94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0.52	7.41	34.82	47.51	9.74	1.240(4)
	비정규직	0.29	7.36	31.78	52.02	8.56	
이념적 성향	보수적	0.70	8.45	34.55	47.89	8.40	29.258(8)***
	중도적	0.78	7.31	34.53	49.49	7.89	
	진보적	2.41	10.11	31.20	45.41	10.88	

주: “귀하는 한국 사회에서 다음의 사항들이 어느 정도 평등 또는 불평등하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부표 3-147〉 평등 인식: (11) 지역 간 발전수준

(단위 : %)

구분		①매우 평등하다	②대체로 평등하다	③보통이다	④대체로 불평등하다	⑤매우 불평등하다	X ² (df)
전체		0.83	9.05	40.53	44.15	5.44	
성별	남성	1.12	7.98	38.83	46.47	5.60	4.558(4)
	여성	0.54	10.15	42.30	41.75	5.27	
연령	20대 이하	0.87	11.22	41.67	40.80	5.44	26.005(16)
	30대	0.99	6.09	41.40	44.77	6.75	
	40대	0.67	6.34	43.17	44.64	5.18	
	50대	1.49	12.91	34.34	45.71	5.55	
	60대 이상	0.14	8.40	42.49	44.56	4.41	
지역1	수도권	1.35	10.10	39.77	43.55	5.23	9.361(4)
	비수도권	0.30	7.96	41.32	44.76	5.65	
지역2	대도시	0.64	10.34	39.29	43.77	5.95	15.763(8)*
	중소도시	1.14	8.23	41.01	44.59	5.03	
	농어촌	0.00	7.00	44.41	43.45	5.13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0.89	7.72	42.27	43.06	6.06	42.905(12)** *
	중하층	0.29	7.63	37.94	48.58	5.56	
	중간층	0.58	9.72	42.73	41.35	5.62	
	중상층(상층)	6.45	15.86	35.69	40.25	1.76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0.20	7.63	40.81	45.86	5.50	14.376(16)
	200만 원대	1.11	8.86	39.87	44.29	5.87	
	300만 원대	0.45	6.01	37.68	48.68	7.19	
	400만 원대	0.86	5.50	43.16	45.56	4.92	
	500만 원 이상	1.09	12.26	40.88	41.05	4.71	
학력	중졸 이하	0.07	7.66	39.70	47.95	4.62	10.571(8)
	고졸	0.74	8.52	39.39	46.33	5.01	
	대졸 이상	1.17	10.00	41.89	40.83	6.11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0.15	8.91	41.04	44.03	5.87	24.989(20)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0.18	7.76	45.48	42.62	3.97	
	고용주, 자영자	2.21	8.71	40.29	43.64	5.15	
	무급가족종사자	0.00	13.16	41.81	36.15	8.88	
	실업자	4.25	4.54	36.75	49.49	4.97	
	비경제활동인구	0.34	10.18	38.83	45.19	5.45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0.09	9.13	40.34	44.67	5.77	5.564(4)
	비정규직	0.34	7.46	46.21	41.34	4.65	
이념적 성향	보수적	0.87	9.89	36.71	47.32	5.21	31.294(8)***
	중도적	0.38	8.26	43.05	43.71	4.60	
	진보적	1.73	9.82	39.13	41.98	7.34	

주: “귀하는 한국 사회에서 다음의 사항들이 어느 정도 평등 또는 불평등하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406 사회통합 실태 진단 및 대응 방안 연구(VI): 사회통합 상태 진단

〈부표 3-148〉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 인식

(단위 : %)

구분		㉔매우 낮다	①	②	③	④	⑤보통	⑥	⑦	⑧	⑨	㉕매우 높다	χ² (df)
전체		0.06	0.50	1.84	5.59	9.72	28.35	19.46	21.24	10.18	2.17	0.88	
성별	남성	0.07	0.42	1.73	5.68	8.82	29.99	19.60	20.06	10.08	2.44	1.10	20.681 (10)*
	여성	0.05	0.58	1.95	5.49	10.66	26.66	19.31	22.45	10.28	1.90	0.66	
연령	20대 이하	0.11	0.89	1.96	5.32	7.47	28.42	20.06	21.75	10.91	1.58	1.54	58.672 (40)*
	30대	0.22	0.54	2.53	5.20	10.77	25.44	24.71	18.62	9.58	1.67	0.72	
	40대	0.01	0.37	2.22	8.33	14.59	25.78	16.66	20.10	10.04	1.73	0.17	
	50대	0.00	0.42	1.78	4.82	6.23	31.68	18.67	22.78	9.49	3.32	0.80	
	60대 이상	0.00	0.33	0.80	4.20	9.59	30.01	17.89	22.64	10.90	2.42	1.22	
지역1	수도권	0.10	0.25	2.26	5.93	11.47	26.86	21.06	19.49	9.86	1.80	0.91	26.543 (10)**
	비수도권	0.02	0.76	1.41	5.24	7.92	29.88	17.81	23.04	10.51	2.56	0.86	
지역2	대도시	0.06	0.76	2.23	5.60	9.81	26.09	20.90	23.58	8.86	1.21	0.89	73.488 (20)***
	중소도시	0.08	0.29	1.65	5.81	9.73	30.51	18.43	19.18	10.97	2.61	0.74	
	농어촌	0.00	0.38	0.90	4.16	9.20	27.36	17.93	21.14	12.49	4.73	1.70	
주관적 소득 계층	하층	0.03	1.17	1.10	9.24	10.95	25.68	17.40	21.97	7.65	3.68	1.12	54.126 (30)**
	중하층	0.05	0.57	1.31	5.57	8.99	29.93	19.83	20.96	10.41	1.68	0.70	
	중간층	0.09	0.32	2.66	4.68	10.36	28.06	19.76	21.11	9.95	2.01	0.99	
	중상층(상층)	0.00	0.00	0.24	4.98	6.60	26.24	19.15	22.56	16.19	3.40	0.64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0.01	1.33	0.86	6.55	11.16	27.01	21.78	20.06	8.24	1.88	1.12	36.299 (40)
	200만 원대	0.02	0.74	1.82	4.89	10.38	31.66	19.58	19.12	7.75	2.81	1.23	
	300만 원대	0.04	0.28	1.26	5.44	7.76	30.93	20.53	20.02	10.74	1.96	1.04	
	400만 원대	0.23	0.16	1.72	6.97	11.46	32.53	13.73	20.29	9.96	2.60	0.35	
	500만 원 이상	0.04	0.36	2.48	5.07	9.13	24.79	20.41	23.35	11.64	1.94	0.80	
학력	중졸 이하	0.00	0.70	0.65	4.10	8.94	30.55	19.54	21.17	9.20	4.31	0.84	31.571 (20)*
	고졸	0.14	0.45	1.47	5.32	7.76	31.81	20.00	20.17	10.24	1.89	0.76	
	대졸 이상	0.01	0.49	2.58	6.33	11.84	24.35	18.93	22.27	10.45	1.75	1.01	
경제 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0.11	0.47	2.77	7.29	11.16	28.59	19.48	18.54	9.20	1.69	0.69	76.987 (50)**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0.23	1.23	0.64	4.95	10.54	30.24	20.25	17.95	11.32	2.19	0.48	
	고용주, 자영자	0.00	0.19	1.80	4.66	6.52	30.00	19.19	21.34	12.22	3.09	1.00	
	무급가족종사자	0.00	0.00	0.00	4.48	2.55	22.23	24.84	25.37	14.81	4.57	1.15	
	실업자	0.00	1.34	1.71	11.66	8.96	18.73	25.63	22.36	9.61	0.00	0.00	
	비경제활동인구	0.01	0.49	1.32	3.86	11.11	27.68	18.22	25.08	8.95	2.05	1.23	
직업 안정성 (임금 근로자)	정규직	0.10	0.51	2.99	6.60	11.65	28.47	19.73	18.83	8.75	1.67	0.70	9.472 (10)
	비정규직	0.23	0.95	0.59	7.22	9.46	30.17	19.42	17.35	11.96	2.14	0.51	
이념적 성향	0.13	0.27	2.03	6.45	12.34	30.21	15.54	20.01	10.16	2.18	0.68	1.05	44.444 (20)**
	0.00	0.60	1.85	4.41	7.96	29.00	21.43	21.47	10.09	2.04	1.15	1.29	
	0.11	0.53	1.65	7.13	10.78	25.26	19.26	21.94	10.37	2.44	0.53	2.58	

주: "귀하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어느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부표 3-149〉 소득불평등 상태 인식: (1) 불평등의 정도 인식

(단위 : %)

구분		㉔전혀 심하지 않다	①	②	③	④	⑤보통	⑥	⑦	⑧	⑨	㉕매우 심하다	X ² (df)
전체		0.03	0.05	0.86	3.70	5.76	22.23	20.10	24.83	16.94	3.95	1.55	
성별	남성	0.07	0.06	1.28	3.67	5.19	21.63	19.62	24.01	17.96	4.60	1.91	23.932 (10)**
	여성	0.00	0.04	0.42	3.72	6.34	22.86	20.59	25.67	15.89	3.28	1.19	
연령	20대 이하	0.00	0.00	0.75	3.56	7.51	24.25	19.94	23.93	14.68	3.90	1.48	33.027 (40)
	30대	0.19	0.03	1.17	6.50	4.51	23.28	20.47	24.44	15.02	2.99	1.41	
	40대	0.00	0.00	0.91	3.31	7.53	19.70	20.92	24.96	16.50	3.78	2.38	
	50대	0.00	0.00	1.08	2.04	4.91	21.63	19.22	23.53	21.31	4.47	1.82	
	60대 이상	0.00	0.22	0.40	3.45	4.36	22.63	19.99	27.20	16.64	4.48	0.64	
지역1	수도권	0.07	0.00	1.17	4.39	5.60	23.24	20.28	24.77	15.99	2.98	1.51	22.247 (10)*
	비수도권	0.00	0.10	0.53	2.98	5.92	21.20	19.91	24.88	17.92	4.95	1.60	
지역2	대도시	0.08	0.00	0.76	2.60	6.35	20.22	20.06	27.17	16.80	4.75	1.20	24.182 (20)
	중소도시	0.00	0.07	1.04	4.71	5.28	24.52	20.01	22.63	17.06	3.00	1.68	
	농어촌	0.00	0.22	0.24	3.42	5.47	19.08	20.84	25.57	16.97	5.49	2.72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0.00	0.00	0.74	3.38	4.50	20.38	16.69	23.60	23.40	4.75	2.57	87.201 (30)***
	중하층	0.09	0.06	0.47	2.38	4.74	22.16	19.42	24.67	19.18	4.88	1.95	
	중간층	0.00	0.00	1.25	4.73	6.82	22.46	20.87	25.35	14.30	3.11	1.10	
	중상층(상층)	0.00	0.51	0.44	4.67	6.56	24.98	25.84	24.28	9.46	2.88	0.38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0.00	0.13	1.17	2.07	6.08	21.55	17.04	28.94	15.49	5.99	1.53	34.142 (40)
	200만 원대	0.00	0.18	0.95	3.68	5.89	21.70	17.94	22.57	20.15	4.90	2.04	
	300만 원대	0.00	0.00	0.48	5.63	5.76	21.52	21.74	22.17	17.21	3.67	1.83	
	400만 원대	0.22	0.00	1.23	2.16	6.01	26.78	21.09	23.94	14.71	2.92	0.94	
	500만 원 이상	0.00	0.01	0.73	4.04	5.49	21.21	20.90	25.79	16.92	3.40	1.50	
학력	중졸 이하	0.00	0.12	0.57	2.19	3.78	21.82	19.85	25.55	21.08	4.18	0.85	11.097 (20)
	고졸	0.00	0.07	0.81	3.48	5.87	23.00	20.76	24.46	16.07	4.10	1.37	
	대졸 이상	0.08	0.01	1.00	4.39	6.29	21.64	19.55	24.94	16.42	3.73	1.96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0.00	0.00	1.05	3.86	6.23	21.91	19.59	21.68	19.71	3.64	2.34	53.650 (50)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0.00	0.00	0.13	2.38	11.22	20.92	22.01	22.74	16.64	2.65	1.31	
	고용주, 자영자	0.14	0.09	1.05	3.63	4.98	26.28	20.35	23.03	14.99	3.93	1.53	
	무급가족종사자	0.00	0.00	0.64	2.50	1.22	15.81	22.49	30.30	13.61	11.46	1.97	
	실업자	0.00	0.00	1.95	2.66	6.31	20.23	14.54	27.32	19.25	4.01	3.74	
	비경제활동인구	0.00	0.10	0.58	4.23	4.28	20.35	20.36	30.16	15.33	4.19	0.41	
직업 안정성 (임금 근로자)	정규직	0.00	0.00	0.93	4.03	5.67	22.49	19.82	22.20	19.53	3.55	1.78	10.929 (8)
	비정규직	0.00	0.00	0.63	2.30	11.47	19.68	20.86	21.19	17.82	3.10	2.94	
이념적 성향	보수적	0.00	0.07	1.90	4.02	5.68	16.87	22.48	26.04	17.31	4.58	1.05	45.147 (20)**
	중도적	0.07	0.06	0.57	3.77	5.40	25.89	18.52	24.45	16.69	3.30	1.29	
	진보적	0.00	0.00	0.43	3.24	6.55	20.01	20.99	24.43	17.10	4.65	2.58	

주: “귀하는 현재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 상태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부표 3-150〉 소득불평등 상태 인식: (2) 부자가 가난한 사람의 몇 배를 벌고 있는지에 대한 인식

(단위 : %)

구분		4배 이하 국가	4-5배 국가	5-6배 국가	6-7배 국가	7배 이상	X ² (df)
전체		3.92	9.31	19.05	26.55	41.17	
성별	남성	4.73	8.58	16.90	27.29	42.49	5.255(4)
	여성	3.08	10.06	21.27	25.78	39.81	
연령	20대 이하	2.86	9.07	20.10	25.62	42.36	27.778(16)*
	30대	3.85	9.82	18.02	27.25	41.06	
	40대	3.19	7.50	18.46	25.93	44.91	
	50대	5.47	11.44	18.18	25.45	39.46	
	60대 이상	4.07	8.69	20.49	28.55	38.20	
지역1	수도권	4.05	10.27	16.75	27.55	41.39	4.369(4)
	비수도권	3.79	8.33	21.42	25.52	40.95	
지역2	대도시	2.15	7.10	15.58	30.24	44.93	81.319(8)***
	중소도시	5.53	11.35	21.28	23.66	38.18	
	농어촌	3.65	8.81	24.31	24.12	39.11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2.33	11.38	19.41	27.22	39.66	35.486(12)* **
	중하층	4.95	8.23	16.35	24.61	45.86	
	중간층	3.30	9.47	21.78	27.65	37.79	
	중상층(상층)	5.74	10.52	13.53	28.83	41.39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4.63	9.60	18.00	25.77	42.00	28.174(16)*
	200만 원대	4.21	7.96	21.83	26.09	39.91	
	300만 원대	6.73	8.63	17.41	28.46	38.77	
	400만 원대	3.69	12.06	20.63	26.85	36.76	
	500만 원 이상	2.47	8.97	18.38	26.07	44.12	
학력	중졸 이하	7.33	9.03	21.35	27.14	35.15	16.426(8)*
	고졸	2.61	6.82	18.24	28.21	44.12	
	대졸 이상	4.05	11.77	19.07	24.78	40.34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4.77	9.12	18.80	26.10	41.20	17.035(20)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5.95	7.06	20.02	29.34	37.62	
	고용주, 자영자	2.26	8.99	16.62	26.71	45.43	
	무급가족종사자	2.47	11.23	16.17	24.90	45.23	
	실업자	2.48	10.34	17.14	17.67	52.38	
	비경제활동인구	3.91	10.30	21.57	27.25	36.97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5.18	9.27	18.87	25.90	40.78	1.782(4)
	비정규직	4.66	7.16	19.57	29.09	39.52	
이념적 성향	보수적	3.32	4.84	17.46	30.75	43.63	12.819(8)
	중도적	4.38	10.89	19.32	25.59	39.82	
	진보적	3.55	10.42	20.03	24.46	41.54	

주: “귀하는 우리나라가 부자가 가난한 사람보다 몇 배 더 많이 벌고 있는 나라라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부표 3-151〉 소득불평등 상태 인식: (3) 살고 싶은 나라의 소득불평등 수준

(단위 : %)

구분		4배 이하 국가	4-5배 국가	5-6배 국가	6-7배 국가	7배 이상	X ² (df)
전체		52.35	24.01	14.02	5.34	4.28	
성별	남성	51.54	23.93	13.10	5.89	5.54	4.866 (9)
	여성	53.19	24.09	14.97	4.77	2.98	
연령	20대 이하	56.13	22.70	13.29	4.12	3.75	937.026 (36)***
	30대	52.61	28.92	11.40	4.42	2.65	
	40대	50.90	24.40	15.73	4.89	4.09	
	50대	51.99	21.98	13.45	6.54	6.04	
	60대 이상	50.47	22.57	15.89	6.49	4.57	
지역1	수도권	58.77	24.11	10.68	4.48	1.96	106.548 (9)***
	비수도권	45.73	23.90	17.46	6.23	6.67	
지역2	대도시	53.45	27.59	13.77	3.61	1.58	184.477 (18)***
	중소도시	52.49	20.79	14.46	6.52	5.75	
	농어촌	45.44	24.31	12.66	7.56	10.04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48.51	25.92	14.02	6.51	5.03	186.953 (27)***
	중하층	52.83	21.70	16.24	4.42	4.81	
	중간층	54.25	25.02	12.21	4.92	3.60	
	중상층(상층)	42.00	26.71	14.28	12.30	4.71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48.99	22.67	17.74	5.81	4.78	255.433 (36)***
	200만 원대	51.42	24.05	15.62	5.13	3.79	
	300만 원대	52.59	21.63	12.48	4.18	9.12	
	400만 원대	50.06	24.49	15.94	6.21	3.30	
	500만 원 이상	54.64	25.26	12.03	5.42	2.65	
학력	중졸 이하	48.29	20.61	15.20	7.50	8.41	628.471 (18)***
	고졸	51.86	25.59	14.38	4.59	3.56	
	대졸 이상	54.14	23.61	13.29	5.35	3.61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53.02	23.56	13.55	4.71	5.16	253.230 (45)***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50.30	22.22	16.15	7.72	3.62	
	고용주, 자영자	50.38	24.62	14.73	5.83	4.43	
	무급가족종사자	49.43	28.23	10.40	7.47	4.46	
	실업자	46.22	27.95	18.26	3.24	4.32	
	비경제활동인구	54.92	23.81	13.01	4.98	3.28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53.14	24.17	13.16	4.23	5.30	35.513 (9)***
	비정규직	50.62	20.99	16.53	8.24	3.62	
이념적 성향	보수적	47.46	26.32	16.59	5.66	3.97	114.876 (18)***
	중도적	53.31	22.93	13.67	5.50	4.58	
	진보적	55.09	23.97	12.26	4.71	3.97	

주: “현재 소득과 무관하게 귀하가 살고 싶으신 나라는 몇 번입니까?”에 대한 응답임.

410 사회통합 실태 진단 및 대응 방안 연구(VI): 사회통합 상태 진단

〈부표 3-152〉 사회적 이동: (1) 부모 세대의 소득이 자녀 세대에 미치는 영향 인식

(단위: %)

구분		⑩ 전혀 영향 받지 않음	①	②	③	④	⑤보통	⑥	⑦	⑧	⑨	⑩ 완전히 영향 받음	X ² (df)
전체		0.22	0.29	1.09	2.42	1.59	9.95	8.87	22.26	29.70	13.23	10.38	
성별	남성	0.17	0.46	0.91	2.28	1.26	10.21	8.32	23.45	28.48	13.04	11.42	15.865 (10)
	여성	0.26	0.12	1.28	2.56	1.92	9.69	9.45	21.02	30.96	13.42	9.30	
연령	20대 이하	0.05	0.19	1.50	3.14	1.36	13.36	9.67	18.67	25.61	13.22	13.22	130.064 (40)***
	30대	0.09	0.04	0.22	1.66	1.60	5.51	8.08	23.95	31.00	13.45	14.40	
	40대	0.09	0.29	0.21	2.86	1.54	7.77	8.51	20.60	30.49	13.08	14.54	
	50대	0.60	0.30	1.56	2.01	2.03	9.61	8.80	25.12	29.65	14.17	6.13	
	60대 이상	0.21	0.58	1.90	2.40	1.37	13.32	9.28	22.75	31.55	12.22	4.40	
지역1	수도권	0.19	0.22	1.07	1.44	1.20	8.24	7.22	22.04	33.23	12.96	12.18	27.620 (10)**
	비수도권	0.25	0.36	1.11	3.42	1.99	11.72	10.58	22.48	26.06	13.51	8.52	
지역2	대도시	0.22	0.49	1.29	3.10	2.04	8.86	8.35	21.54	29.66	13.02	11.43	45.606 (20)***
	중소도시	0.25	0.13	0.81	1.71	0.98	10.71	8.63	23.17	31.03	12.74	9.83	
	농어촌	0.00	0.17	1.76	3.07	2.89	11.26	13.25	20.54	21.62	17.44	7.99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0.19	0.42	0.57	1.72	1.43	9.07	8.98	24.05	30.26	16.94	6.38	42.894 (30)
	중하층	0.14	0.14	0.83	2.79	1.74	8.62	9.78	22.63	31.75	11.67	9.93	
	중간층	0.28	0.40	1.50	2.23	1.66	11.02	8.26	22.53	27.43	13.00	11.69	
	중상층(상층)	0.33	0.08	0.65	3.04	0.33	12.04	7.65	13.57	33.59	17.18	11.56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0.10	0.05	1.08	2.11	2.26	12.96	9.19	21.87	28.33	14.83	7.21	63.746 (40)**
	200만 원대	0.18	0.81	1.25	3.65	1.14	8.46	10.83	23.63	32.29	9.21	8.53	
	300만 원대	0.17	0.40	1.17	3.00	1.92	10.53	8.53	25.35	26.56	13.23	9.14	
	400만 원대	0.05	0.46	0.54	3.89	2.37	7.91	10.64	20.84	34.17	8.07	11.07	
	500만 원 이상	0.36	0.05	1.22	1.22	1.09	10.07	7.45	21.10	28.72	16.28	12.44	
학력	중졸 이하	0.14	0.53	1.53	2.73	1.80	10.70	8.23	23.64	35.79	9.05	5.86	78.136 (20)***
	고졸	0.11	0.23	1.05	2.98	1.77	11.37	9.91	22.80	28.60	12.43	8.74	
	대졸 이상	0.34	0.27	0.99	1.79	1.34	8.37	8.10	21.29	28.75	15.35	13.42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0.22	0.21	1.57	1.88	1.40	9.38	7.51	22.24	31.28	12.76	11.56	52.648 (50)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0.11	0.39	1.48	3.12	1.88	10.47	8.37	22.25	23.84	15.25	12.84	
	고용주, 자영자	0.41	0.52	0.74	2.34	1.42	11.30	9.37	24.44	29.82	12.04	7.60	
	무급가족종사자	0.00	0.00	1.03	4.50	2.58	8.09	8.46	21.81	34.63	10.45	8.47	
	실업자	0.00	0.00	1.91	3.18	2.07	10.61	9.74	11.56	35.64	13.17	12.13	
	비경제활동인구	0.13	0.21	0.59	2.64	1.72	9.39	10.20	21.79	28.53	14.37	10.43	
직업 안정성 (임금 근로자)	정규직	0.24	0.11	1.43	1.85	1.42	9.24	7.33	22.03	32.12	12.63	11.58	17.369 (10)
	비정규직	0.09	0.60	1.85	2.90	1.71	10.56	8.61	22.76	23.45	15.00	12.48	
이념적 성향	보수적	0.25	0.37	1.32	2.84	2.08	9.35	10.39	24.75	31.74	11.78	5.13	57.120 (20)***
	중도적	0.23	0.27	1.19	2.38	1.48	10.98	7.95	22.54	29.07	13.57	10.34	
	진보적	0.18	0.24	0.68	2.10	1.33	8.45	9.29	19.30	29.00	13.93	15.49	

주: “귀하는 자녀 세대의 소득이 부모 세대의 소득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부표 3-153〉 사회적 이동: (2) 지난 10년 동안의 생활수준 변화

(단위 : %)

구분		①상당히 줄어졌다	②다소 줄어졌다	③차이가 거의 없다	④다소 나빠졌다	⑤상당히 나빠졌다	X ² (df)
전체		1.18	27.24	54.27	15.51	1.79	
성별	남성	1.35	27.10	53.90	15.39	2.26	9.508(4)*
	여성	0.99	27.40	54.67	15.63	1.31	
연령	20대 이하	1.45	29.62	57.63	10.57	0.73	174.244 (16)***
	30대	1.51	28.46	58.22	10.24	1.56	
	40대	1.55	29.43	53.94	13.69	1.39	
	50대	0.93	28.68	53.78	14.64	1.97	
	60대 이상	0.50	20.29	48.53	27.49	3.20	
지역1	수도권	0.82	25.08	58.08	14.05	1.98	11.378(4)*
	비수도권	1.54	29.48	50.36	17.02	1.60	
지역2	대도시	1.51	25.89	53.84	16.27	2.49	38.848(8)***
	중소도시	0.96	28.12	55.45	14.10	1.36	
	농어촌	0.69	29.22	49.33	20.11	0.65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0.20	14.91	44.23	31.54	9.12	434.306 (12)***
	중하층	0.63	24.80	54.79	18.64	1.13	
	중간층	1.48	29.99	58.38	9.60	0.56	
	중상층(상층)	4.49	48.45	39.37	7.70	0.00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0.23	13.46	47.27	32.53	6.51	366.328 (16)***
	200만 원대	0.92	20.77	56.73	18.74	2.84	
	300만 원대	1.09	27.88	55.05	15.41	0.57	
	400만 원대	0.77	27.01	59.10	12.55	0.57	
	500만 원 이상	1.79	34.30	53.48	9.66	0.77	
학력	중졸 이하	0.78	16.40	46.67	32.24	3.91	152.986(8)***
	고졸	1.06	26.61	56.23	14.12	1.99	
	대졸 이상	1.42	31.39	54.90	11.37	0.92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1.31	32.33	55.09	10.76	0.52	133.496 (20)***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0.59	22.04	54.37	20.03	2.96	
	고용주, 자영자	1.47	27.81	51.32	17.47	1.92	
	무급가족종사자	0.46	34.25	50.34	13.81	1.14	
	실업자	1.01	16.94	52.69	22.48	6.88	
	비경제활동인구	1.04	23.09	56.30	17.32	2.25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1.27	32.83	55.80	9.53	0.56	76.211(4)***
	비정규직	0.85	23.15	52.74	20.98	2.28	
이념적 성향	보수적	1.61	28.12	46.54	21.32	2.42	71.452(8)***
	중도적	0.82	25.81	57.36	14.34	1.68	
	진보적	1.48	29.30	55.48	12.31	1.43	

주: “지난 10년 동안 귀댁의 생활수준은 어느 정도 바뀌었습니까?”에 대한 응답임.

412 사회통합 실태 진단 및 대응 방안 연구(VI): 사회통합 상태 진단

〈부표 3-154〉 사회적 이동: (3) 앞으로 10년 이내 생활수준 변화 전망

(단위 : %)

구분		①상당히 좋아질 것이다	②다소 좋아질 것이다	③차이가 거의 없을 것이다	④다소 나빠질 것이다	⑤상당히 나빠질 것이다	X ² (df)
전체		2.27	33.53	48.77	14.50	0.94	
성별	남성	2.46	33.88	47.04	15.52	1.09	7.925(4)
	여성	2.07	33.15	50.56	13.44	0.78	
연령	20대 이하	3.29	46.69	42.67	7.12	0.23	452.943 (16)***
	30대	3.46	40.82	47.35	7.18	1.19	
	40대	2.91	38.11	46.49	11.80	0.69	
	50대	1.75	30.49	49.42	17.58	0.77	
	60대 이상	0.14	13.47	57.29	27.30	1.79	
지역1	수도권	2.28	35.78	47.40	13.45	1.09	6.638(4)
	비수도권	2.25	31.20	50.19	15.58	0.79	
지역2	대도시	2.98	32.06	48.15	15.86	0.93	30.008(8)***
	중소도시	1.78	35.95	48.38	12.92	0.97	
	농어촌	1.33	26.52	54.67	16.75	0.74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2.67	12.21	56.33	25.58	3.21	188.668 (12)***
	중하층	1.67	33.65	48.11	15.48	1.09	
	중간층	2.39	37.51	48.47	11.31	0.31	
	중상층(상층)	4.30	47.54	38.74	9.41	0.00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1.69	16.95	47.85	30.88	2.62	267.039 (16)***
	200만 원대	2.16	24.87	53.95	18.22	0.80	
	300만 원대	2.94	38.46	49.63	8.65	0.32	
	400만 원대	1.91	34.90	50.84	11.26	1.09	
	500만 원 이상	2.36	39.94	45.88	11.20	0.62	
학력	중졸 이하	0.51	15.46	55.48	26.09	2.46	260.647(8)***
	고졸	2.14	32.04	49.81	15.04	0.97	
	대졸 이상	2.96	40.84	45.60	10.20	0.41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2.19	38.04	49.03	10.24	0.51	69.855(20)***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3.37	31.59	44.93	19.08	1.03	
	고용주, 자영자	2.39	33.65	45.52	17.38	1.06	
	무급가족종사자	1.27	26.50	55.35	15.24	1.63	
	실업자	3.78	38.70	41.49	15.26	0.78	
비경제활동인구	1.76	28.51	52.96	15.48	1.29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2.29	38.30	48.79	10.25	0.36	30.442(4)***
	비정규직	2.84	32.41	46.47	17.01	1.28	
이념적 성향	보수적	1.95	27.62	49.17	20.39	0.87	91.967(8)***
	중도적	1.21	32.03	52.13	13.45	1.18	
	진보적	4.70	42.19	41.63	10.97	0.51	

주: “앞으로 10년 이내에 귀댁의 생활수준은 어느 정도 좋아질 것이라고 또는 나빠질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부표 3-155〉 사회적 이동: (4) 세대 내 계층이동 전망

(단위 : %)

구분		①매우 높다	②약간 높다	③약간 낮다	④매우 낮다	⑤모르겠다	X ² (df)
전체		1.40	45.87	37.24	12.16	3.32	
성별	남성	1.75	44.88	37.87	13.09	2.40	7.960(4)
	여성	1.04	46.89	36.60	11.20	4.27	
연령	20대 이하	2.74	49.15	35.59	7.79	4.73	58.902 (16)***
	30대	1.06	49.97	33.22	13.04	2.71	
	40대	0.55	44.73	38.00	12.81	3.92	
	50대	1.29	46.41	37.60	13.03	1.67	
	60대 이상	1.47	39.79	41.22	13.84	3.69	
지역1	수도권	1.39	49.15	34.22	10.98	4.27	17.691(4)**
	비수도권	1.42	42.49	40.36	13.38	2.35	
지역2	대도시	1.46	40.80	38.65	15.39	3.70	59.334(8)***
	중소도시	1.35	51.17	34.68	9.42	3.38	
	농어촌	1.46	40.79	45.46	11.44	0.85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1.61	30.54	42.27	22.22	3.36	169.651 (12)***
	중하층	0.84	39.42	42.05	14.25	3.44	
	중간층	1.69	52.88	33.45	8.65	3.34	
	중상층(상층)	2.31	65.17	25.43	4.77	2.32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1.93	34.73	36.78	22.67	3.89	99.142 (16)***
	200만 원대	2.87	33.72	44.92	15.43	3.06	
	300만 원대	1.39	47.19	40.03	9.21	2.18	
	400만 원대	0.35	45.26	39.53	12.46	2.40	
	500만 원 이상	1.06	54.12	32.31	8.43	4.08	
학력	중졸 이하	1.16	34.92	44.69	16.17	3.06	32.596(8)***
	고졸	1.55	42.33	40.49	12.46	3.17	
	대졸 이상	1.35	52.79	31.73	10.57	3.55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0.93	45.70	39.27	11.19	2.91	46.840 (20)***
	임사 일용직 임금근로자	2.14	39.15	38.36	18.47	1.88	
	고용주, 자영자	1.31	46.42	39.36	9.97	2.94	
	무급가족종사자	0.46	49.55	32.00	16.02	1.96	
	실업자	5.70	35.88	34.08	20.00	4.33	
비경제활동인구	1.35	48.84	33.39	11.80	4.63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0.94	45.84	39.27	11.03	2.92	19.824(4)***
	비정규직	1.84	40.31	38.56	17.19	2.10	
이념적 성향	보수적	1.62	41.07	39.44	13.19	4.68	17.253(8)*
	중도적	1.18	44.36	39.09	12.09	3.28	
	진보적	1.65	53.51	31.42	11.31	2.11	

주: “귀하는 우리 사회에서 일생 동안 노력을 한다면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414 사회통합 실태 진단 및 대응 방안 연구(VI): 사회통합 상태 진단

〈부표 3-156〉 사회적 이동: (5) 세대 간 계층이동 전망

(단위 : %)

구분		①매우 높아질 것이다	②약간 높아질 것이다	③약간 낮아질 것이다	④매우 낮아질 것이다	⑤모르겠다	X ² (df)
전체		1.43	55.82	28.59	5.68	8.47	
성별	남성	1.48	54.42	28.75	6.08	9.28	2.878(4)
	여성	1.38	57.28	28.44	5.27	7.64	
연령	20대 이하	1.64	54.41	27.73	4.10	12.12	68.763(16)***
	30대	1.67	56.87	28.09	5.40	7.96	
	40대	1.64	59.59	25.20	4.10	9.46	
	50대	1.70	57.56	26.94	6.35	7.45	
	60대 이상	0.54	50.60	34.96	8.27	5.63	
지역1	수도권	1.73	58.27	25.23	4.10	10.67	56.260(4)***
	비수도권	1.13	53.30	32.06	7.31	6.20	
지역2	대도시	1.97	53.66	27.64	6.15	10.59	21.711(8)**
	중소도시	1.11	57.91	28.62	5.18	7.18	
	농어촌	0.44	54.80	33.72	6.19	4.85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1.03	40.72	40.35	9.12	8.78	58.810(12)***
	중하층	1.15	55.03	27.80	6.93	9.09	
	중간층	1.61	59.23	26.79	3.98	8.39	
	중상층(상층)	2.79	66.83	22.42	3.65	4.31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0.96	44.89	31.58	11.67	10.90	75.805(16)***
	200만 원대	0.74	47.76	36.64	5.47	9.39	
	300만 원대	1.96	56.65	28.84	6.15	6.39	
	400만 원대	1.52	59.83	26.92	5.03	6.69	
	500만 원 이상	1.61	60.80	24.95	3.78	8.85	
학력	중졸 이하	0.50	51.71	33.97	7.58	6.24	26.343(8)***
	고졸	1.26	54.02	30.45	5.08	9.20	
	대졸 이상	1.90	58.88	25.08	5.63	8.51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1.96	55.58	27.87	5.46	9.13	42.215(20)**
	일시·일용직 임금근로자	1.49	47.37	34.17	8.41	8.56	
	고용주, 자영자	0.98	57.61	30.28	5.62	5.51	
	무급가족종사자	0.46	68.61	24.48	3.08	3.36	
	실업자	3.34	49.99	23.80	8.70	14.17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2.06	55.92	26.91	5.59	9.52	17.075(4)**
	비정규직	1.35	48.41	35.13	7.39	7.72	
이념적 성향	보수적	1.69	49.63	33.55	6.88	8.24	14.149(8)
	중도적	1.25	55.78	29.45	5.06	8.47	
	진보적	1.56	61.85	22.12	5.77	8.70	

주: “귀하는 일반적으로 본인 세대에 비해 자식 세대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어떻게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간행물 회원제 안내

회원에 대한 특전

- 본 연구원이 발행하는 판매용 보고서는 물론 「보건복지포럼」, 「보건사회연구」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으며 일반 서점에서 구입할 수 없는 비매용 간행물은 실비로 제공합니다.
- 가입기간 중 회비가 인상되는 경우라도 추가 부담이 없습니다.

회원 종류

전체 간행물 회원

120,000원

보건 분야 간행물 회원

75,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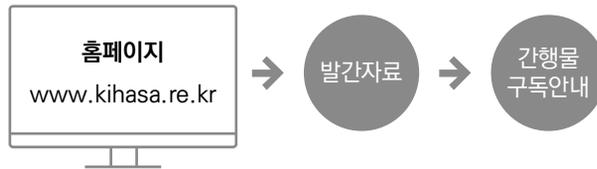
사회 분야 간행물 회원

75,000원

정기 간행물 회원

35,000원

가입방법



문의처

-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 1~5F
간행물 담당자 (Tel: 044-287-8157)

KIHASA 도서 판매처

- 한국경제서적(총판) 02-737-7498
- 영풍문고(종로점) 02-399-5600
- Yes24 <http://www.yes24.com>
- 교보문고(광화문점) 1544-1900
- 알라딘 <http://www.aladdin.co.kr>